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5輯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가동유적 I

전 호 태
김 영 민
신 준 섭
이 보 경
이 민 경
이 진 영

2008

울산대학교박물관

— <일러두기> —

1.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며 등고선의 수치는 해발이다.
2. 본 보고서의 유구번호는 통합하였다. 유물의 圖面·圖版番號는 일치한다.
3. 유구의 縮尺은 석실·곽묘 1/40, 굴립주건물지 1/60이며 유물의 축척은 토기·목제품은 1/3, 철기·석기 1/2, 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축소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표시를 하였다.
4. 석실묘 시상과 굴립주건물지의 목주흔은 음영을 달리하여 표시하였다.

目 次

I. 머리말	1
II. 유적의 환경과 입지	4
III. 조사내용	11
1. 삼국시대 유구	11
1) 석곽 · 실묘	11
2) 굴립주 건물지	78
3) 저습지	142
2. 청동기시대 유구	150
1) 주거지	150
2) 구상유구	155
3. 고려~조선시대 유구	157
1) 건물지	157
2) 수혈유구	158
3) 묘	159
4) 묘막지	161
5) 구상유구	161
IV. 분석 자료	164
1. 기장 가동유적 시료분석 자료(Paleo Labo)	164
-放射性炭素年代測定	164
-佳洞遺蹟에B地區3G-4號住居址出土炭化材의 樹種同定	166
-植物珪酸體分析	169
-佳洞遺蹟의 花粉化石	172
-佳洞遺蹟에서 出土된 大型植物化石	179
-佳洞遺蹟에서 出土된 建物構成材의 樹種	187
2.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의 식물규산체 분석 연구 (김진태 · 최기룡)	195
V. 맺음말	209

圖 面 目 次

- 유 구

圖面 1. 유적 위치와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5	圖面 31. 가동유적 굴립주 건물지.....	79
圖面 2. 유적 지형도(1/5,000)	6	유구 배치도 1~30호 (1/500)	
圖面 3. 가동유적 유구배치도 (1/1,000)	7	圖面 32. 가동유적 굴립주 건물지 유구 배치도.....	83
圖面 4. 가동유적 석곽	10	31~72호, 1~3호 기둥구멍군 (1/500)	
· 석실묘 유구배치도 (1/500)		圖面 33. 1호(上), 2호(下) (1/60)	90
圖面 5. 1호 석실 봉토 및 주구 (1/40)	12	圖面 34. 3호(上), 5호(下) (1/60)	91
圖面 6. 1호 석실 (1/40)	13	圖面 35. 4호 (1/60)	92
圖面 7. 2호 석실 (1/40)	18	圖面 36. 6호(上), 7호(下) (1/60)	93
圖面 8. 3호 석실 (1/40)	20	圖面 37. 8호(上), 9호(下) (1/60)	94
圖面 9. 4호 석곽 (1/40)	22	圖面 38. 10호(上), 11호(下) (1/60)	95
圖面 10. 5호 석곽 (1/40)	22	圖面 39. 12호(上), 13호(下) (1/60)	96
圖面 11. 6호 석곽 (1/40)	25	圖面 40. 14호 (1/60)	97
圖面 12. 7호 석곽 (1/40)	27	圖面 41. 15호(上), 16호(下) (1/60)	98
圖面 13. 8호 봉토 및 주구 (1/40)	29	圖面 42. 17호 (1/60)	99
圖面 14. 8-1호 석실 (1/40)	31	圖面 43. 18호 (1/60)	100
圖面 15. 8-2호 석곽 (1/40)	37	圖面 44. 19호 (1/60)	101
圖面 16. 9호 석실 봉토 및 주구 (1/40)	41	圖面 45. 20호(上), 21호(下) (1/60)	102
圖面 17. 9-1호 석실 (1/40)	43	圖面 46. 22호(上), 24호(下) (1/60)	103
圖面 18. 9-2호 석곽 (1/40)	48	圖面 47. 23호 (1/60)	104
圖面 19. 10호 석실 봉토 (1/40)	50	圖面 48. 25호 (1/60)	105
圖面 20. 10호 석실 (1/40)	51	圖面 49. 26호(上), 28호(下) (1/60)	106
圖面 21. 11호 석실 봉토 (1/40)	55	圖面 50. 27호 (1/60)	107
圖面 22. 11-1호 석실 (1/40)	57	圖面 51. 29호(上), 30호(下) (1/60)	108
圖面 23. 11-2호 석곽 (1/40)	59	圖面 52. 31호(上), 33호(下) (1/60)	109
圖面 24. 12호 석곽 (1/40)	63	圖面 53. 32호 (1/60)	110
圖面 25. 13호 석곽 (1/40)	65	圖面 54. 34호(上), 35호(下) (1/60)	111
圖面 26. 14호 석곽 (1/40)	68	圖面 55. 36호 (1/60)	112
圖面 27. 15호 석곽 (1/40)	70	圖面 56. 37호 (1/60)	113
圖面 28. 16호 석곽 (1/40)	74	圖面 57. 38호 (1/60)	114
圖面 29. 17호 석곽 (1/40)	76	圖面 58. 39호 (1/60)	115
圖面 30. 18호 석곽 (1/40)	77	圖面 59. 40호 (1/60)	116
		圖面 60. 41호 (1/60)	117

圖面 61. 42호 (1/60)	118	圖面 93. 1호 고려시대 건물지 (1/60)	157
圖面 62. 43호 (1/60)	119	圖面 94. 1호 수혈 (1/80)	158
圖面 63. 44호 (1/60)	120	圖面 95. 2호 수혈 (1/40)	159
圖面 64. 45호(上), 46호(下) (1/60)	121	圖面 96. 1호 묘 (1/40)	160
圖面 65. 47호 (1/60)	122	圖面 97. 2호 묘 (1/40)	160
圖面 66. 48호(上), 49호(下) (1/60)	123	圖面 98. 1호 묘막지 (1/40)	161
圖面 67. 50호 (1/60)	124	圖面 99. 1호 구 (1/1000)	162
圖面 68. 51호 (1/60)	125		
圖面 69. 52호(上), 53호(下) (1/60)	126	- 유 물	
圖面 70. 54호 (1/60)	127	圖面 100. 1호 석실 출토유물	213
圖面 71. 55호(上), 56호(下) (1/60)	128	圖面 101. 1호 석실 출토유물	214
圖面 72. 57호(上), 58호(下) (1/60)	129	圖面 102. 1호 석실, 2호 석실 출토유물	215
圖面 73. 59호 (1/60)	130	圖面 103. 3호 석실, 4호 석곽, 5호 석곽 출토유물	216
圖面 74. 60호(上), 61호(下) (1/60)	131	圖面 104. 5호 석곽, 6호 석곽 출토유물	217
圖面 75. 62호 (1/60)	132	圖面 105. 6호 석곽, 7호 석곽, 8-1호 출토유물	218
圖面 76. 63호 (1/60)	133	圖面 106. 8-1호 출토유물	219
圖面 77. 64호(上), 65호(下) (1/60)	134	圖面 107. 8-1호 출토유물	220
圖面 78. 66호 (1/60)	135	圖面 108. 8-1호, 8-2호 출토유물	221
圖面 79. 67호(上), 68호(下) (1/60)	136	圖面 109. 8-2호 출토유물	222
圖面 80. 69호 (1/60)	137	圖面 110. 9-1호, 9호 봉토·주구 출토유물	223
圖面 81. 70호 (1/60)	138	圖面 111. 9호 봉토·주구, 9-2호, 10호 석실 출토유물	224
圖面 82. 71호(上), 72호(下) (1/60)	139	圖面 112. 10호 석실, 11-1호 출토유물	225
圖面 83. 1호 기둥구멍군 (1/60)	140	圖面 113. 11-1호 출토유물	226
圖面 84. 2호 기둥구멍군(上), 2호 기둥구멍군(下) (1/60)	141	圖面 114. 11-2호, 11호 봉토 출토유물	227
圖面 85. 저습지 (1/60)	143	圖面 115. 11호 봉토 출토유물	228
圖面 86. 1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150	圖面 116. 11호 봉토 출토유물	229
圖面 87. 2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151	圖面 117. 12호 석곽, 13호 석곽 출토유물	230
圖面 88. 3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153	圖面 118. 13호 석곽 출토유물	231
圖面 89. 4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154	圖面 119. 13호 석곽, 14호 석곽, 15호 석곽 출토유물	232
圖面 90. 5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155	圖面 120. 15호 석곽 출토유물	233
圖面 91. 청동기시대 1호구 (1/60)	156		
圖面 92. 청동기시대 2호구 (1/60)	156		

圖面 121. 15호 석곽 출토유물	234	圖面 129. 저습지 출토유물	242
圖面 122. 16호 석곽 출토유물	235	圖面 130. 저습지 출토유물	243
圖面 123. 16호 석곽, 17호 석곽, 18호 석곽 출토유물	236	圖面 131. 저습지 출토유물	244
圖面 124. 18호 석곽 출토유물	237	圖面 132. 저습지 출토유물	245
圖面 125. 굴립주건물지 출토유물	238	圖面 133. 1호 주거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246
圖面 126. 저습지 출토유물	239	圖面 134. 3호 주거지, 4호 주거지 출토유물	247
圖面 127. 저습지 출토유물	240	圖面 135. 1호 구상유구, 2호 수혈, 2호 묘, 1호 구 출토유물	248
圖面 128. 저습지 출토유물	241		

圖 版 目 次

- 유 구

圖版 1. 1호석실 조사전경(1), 석실전경(2), 주구토층(3).....	251
圖版 2. 1호석실 3차시상(1), 1·2차 시상(2)	252
圖版 3. 1호석실 2차시상(1), 1차 시상(2).....	253
圖版 4. 1호석실 북서편 유물(1), 북동편 유물(2), 남서편 유물(3), 남동편 유물(4)	254
圖版 5. 1호석실 서편장벽(1), 북편 단벽(2), 동편 장벽(3), 남편 다벽(4).....	255
圖版 6. 2호석실 조사전경(1), 석실전경(2), 남편 장벽(3), 동편 장벽(4), 서편 장벽(5), 북서편 모서리(6)	256
圖版 7. 2호석실 유물(1·2·3), 2호석실 주변 수습대호(2), 3호석실 전경(3)	257
圖版 8. 3호석실 남단벽 출입구 추정부(1), 유물(2), 남편 단벽(3), 서편 장벽(4), 동편 장벽(5), 북편 단벽(6)	258
圖版 9. 4호석실 전경(1), 장벽(2)	259
圖版 10. 5호석곽 전경(1), 유물(2~4), 북편 단벽(5)	260
圖版 11. 5호석곽 서편 장벽(1), 동편 장벽(2), 6·7호 석곽 배치상태(3)	261
圖版 12. 6호석곽 전경(1), 유물출토 상황(2)	262
圖版 13. 6호석실 장벽(1), 단벽(2), 7호석실 전경(3)	263
圖版 14. 7호석실 장벽(1), 8호석실 조사전 전경(2)	264
圖版 15. 8호석실 전경(1), 8-1호 전경-3차시상(2)	265
圖版 16. 8-1호 3차시상 유물(1·2), 2차시상(3), 2차시상 유물(4·5)	266
圖版 17. 8-1호 1차시상(1), 1차시상 유물(2~4), 동편 단벽(5)	267
圖版 18. 8-1호 남장벽(1), 북장벽(2), 8-2호 전경(3).....	268
圖版 19. 8호석실 봉토유물(1, 8-2호 주변출토), 8-2호 유물(2)	269
圖版 20. 8-2호 북단벽(1), 남단벽(2), 동장벽(3), 서장벽(4).....	270
圖版 21. 9호석실 전경(1), 9-1호 출입구(2).....	271
圖版 22. 9-1호 배수시설(1), 배수시설 개석 제거후(2), 9-1호 3차시상(3).....	272
圖版 23. 9-1호 2차시상(1), 유물(2~5).....	273
圖版 24. 9-1호 1차시상(1), 유물(2·3), 동편장벽(4)	274
圖版 25. 9-1호 서장벽(1), 북단벽(2), 남단벽(3)	275
圖版 26. 9-2호 전경(1), 유물배치 상황(2), 유물 세부(3~6).....	276
圖版 27. 10호석실 조사전 전경(1), 석실 전경(2), 봉토 토층(3)	277
圖版 28. 10호석실 출입구(1), 폐쇄석 제거후(2), 유물(3~6).....	278
圖版 29. 10호석실 서장벽(1), 북단벽(2), 동장벽(3), 남단벽(4)	279

圖版 30. 11호석실 전경(1), 봉토 토층(2), 봉토유물(3·4)	280
圖版 31. 11-1호 2차시상(1), 2차시상 유물(2), 1차시상(3), 1차시상 유물(4·5)	281
圖版 32. 11-1호 북장벽(1), 동단벽(2), 서단벽(3), 11-2호 전경 및 유물(4), 11-2호 시상(5)	282
圖版 33. 12호석곽 전경(1), 유물(2·3), 서장벽(4)	283
圖版 34. 12호석곽 남단벽(1), 북담벽(2), 13호석곽 전경(3), 남장벽(4), 서단벽(5)	284
圖版 35. 14호석곽 전경(1), 장벽(2), 15·16·17호석곽 배치상태(3)	285
圖版 36. 15호석곽 전경(1), 유물(2·3), 북장벽(4)	286
圖版 37. 15호석곽 서단벽(1), 남장벽(2), 16호석곽 전경(3), 유물(4·5)	287
圖版 38. 16호석곽 북장벽(1), 서단벽(2), 남장벽(3), 17호석곽 전경(4), 유물(5), 북장벽(6)	288
圖版 39. 18호석곽 조사전 전경(1), 전경(2), 유물(3·4)	289
圖版 40. 17·18·19호 굴립주건물지 전경(1), 32·36·37호 굴립주건물지 전경(2)	290
圖版 41. 48·49·50·51호 굴립주건물지 전경(1), 52~62호 굴립주건물지 전경(2)	291
圖版 42. 1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292
圖版 43. 1·2·3호 굴립주건물지(1), 2·3호 굴립주건물지(2)	293
圖版 44. 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294
圖版 45. 3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295
圖版 46. 4호 굴립주건물지(1), 5호 굴립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296
圖版 47. 6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297
圖版 48. 7·8호 굴립주건물지(1), 7호 굴립주건물지(2)	298
圖版 49. 7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1), 8호 굴립주건물지(2)	299
圖版 50. 9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1:11호 석실과 중복관계, 2:전경, 3:주혈토층)	300
圖版 51. 10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1:전경, 2:주구토층, 11호 굴립주건물지(3))	301
圖版 52. 1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02
圖版 53. 13호 굴립주건물지(1), 14호 굴립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303
圖版 54. 15호 굴립주건물지 (1:주혈, 2:주혈토층), 16호 굴립주건물지(3)	304
圖版 55. 17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05
圖版 56. 18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06
圖版 57. 19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07
圖版 58. 20·21호 굴립주건물지·溝중복관계(1), 20·21호 굴립주건물지(2)	308
圖版 59. 20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1), 21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2), 22호 굴립주건물지(3:전경, 4:주혈토층)	309
圖版 60. 23호 굴립주건물지(1), 24호 굴립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310
圖版 61. 25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1

圖版 62. 26호 굴립주건물지(1), 27·28·29호 굴립주건물지(2)	312
圖版 63. 27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3
圖版 64. 28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4
圖版 65. 29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0호 굴립주건물지(3)	315
圖版 66. 31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6
圖版 67. 3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7
圖版 68. 33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8
圖版 69. 34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19
圖版 70. 35호 굴립주건물지(1), 36호 굴립주건물지(2)	320
圖版 71. 36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조사완료	321
圖版 72. 37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22
圖版 73. 38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23
圖版 74. 39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구토층, 3:주혈토층)	324
圖版 75. 39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조사완료	325
圖版 76. 39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조사완료	326
圖版 77. 40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27
圖版 78. 41호 굴립주건물지 (1:조사전 전경, 2:조사완료 후 전경)	328
圖版 79. 41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329
圖版 80. 4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30
圖版 81. 43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31
圖版 82. 44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32
圖版 83. 45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33
圖版 84. 46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34
圖版 85. 46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335
圖版 86. 47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36
圖版 87. 48·49·50호 굴립주건물지(1), 48호 굴립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337
圖版 88. 49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50호 굴립주건물지(3)	338
圖版 89. 50호 굴립주건물지 (1:주혈토층, 2:주혈간 중복양상)	339
圖版 90. 51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40
圖版 91. 52호 굴립주건물지(1), 53호 굴립주건물지(2)	341
圖版 92. 54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42
圖版 93. 55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56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43
圖版 94. 57·58호 굴립주건물지(1), 57호 굴립주건물지(2)	344

圖版 95. 57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초심석(1), 58호 굴립주건물지(2)	345
圖版 96. 58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목주와 받침목	346
圖版 97. 58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목주와 받침목	347
圖版 98. 59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토층)	348
圖版 99. 60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토층)	349
圖版 100. 61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세부)	350
圖版 101. 62·63호 굴립주건물지(1), 62호 굴립주건물지 (2: 전경, 3: 주혈토층)	351
圖版 102. 63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토층)	352
圖版 103. 64·65호 굴립주건물지(1), 64호 굴립주건물지 (2: 전경, 3: 주혈토층)	353
圖版 104. 65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토층), 66호 굴립주건물지(3)	354
圖版 105. 66호 굴립주건물지(1), 67호 굴립주건물지 (2: 전경, 3: 주혈토층)	355
圖版 106. 68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토층)	356
圖版 107. 69·70호 굴립주건물지(1), 69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2)	357
圖版 108. 70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토층)	358
圖版 109. 71호 굴립주건물지 (1: 전경, 2: 주혈세부)	359
圖版 110. 72호 굴립주건물지 (1: 구와의 중복관계, 2: 전경)	360
圖版 111. 1호 기둥구멍군(1·2)	361
圖版 112. 2호 기둥구멍군(1), 3호 기둥구멍군(2)	362
圖版 113. 저습지 전경	363
圖版 114. 저습지 전경	364
圖版 115. 저습지유물 세부 노출상태	365
圖版 116. 1호 주거지 (1: 조사후전경, 2: 유물노출상태, 3: 조사후전경)	366
圖版 117. 2호 주거지 (1: 조사후전경, 2·4: 유물노출상태, 3: 배수구)	367
圖版 118. 3호 주거지 (1: 집석노출상태, 2: 벽체경화면, 3: 유물노출상태, 4: 조사후전경)	368
圖版 119. 4호 주거지 (1: 조사후전경, 2~4: 주혈토층), 5호 주거지 (5: 집석노출상태)	369
圖版 120. 5호 주거지 (1: 조사후전경, 2~4: 유물노출상태)	370
圖版 121. 1호 구상유구 (1: 조사후전경, 2·3: 토층), 2호 구상유구(4: 상부집석)	371
圖版 122. 2호 구상유구 (1: 조사후전경, 2·3: 토층, 4: 집석전경)	372
圖版 123. 1호 고려시대건물지 (1: 전경, 2~4: 주혈세부), 1호 수혈 (5: 집석노출상태)	373
圖版 124. 1호 수혈 (1: 하부집석 노출상태, 2: 하부집석제거후전경, 3: 중앙주혈토층, 4: 조사후전경)	374
圖版 125. 2호 수혈 (1: 전경), 1호 묘 (2: 전경)	375
圖版 126. 2호 묘 (1: 전경, 2: 유물노출상태 3: 토층), 1호 묘막지 (4: 전경)	376
圖版 127. 1호 구 (1: 전경, 2: 토층, 3: 굴착흔)	377

- 유 물

圖版 128. 1호 석실 출토유물	381
圖版 129. 1호 석실 출토유물	382
圖版 130. 1호 석실(27~34), 2호 석실(35~41) 출토유물	383
圖版 131. 3호 석실(42~44), 4호 석곽(45·45), 5호 석곽(47~54) 출토유물	384
圖版 132. 5호 석곽(55), 6호 석곽(56~67) 출토유물	385
圖版 133. 6호 석곽(68), 7호 석곽(69·70), 8-1호(71~76) 출토유물	386
圖版 134. 8-1호(77~85) 출토유물	387
圖版 135. 8-1호(86~97) 출토유물	388
圖版 136. 8-1호(98~101), 8-2호(102~108) 출토유물	389
圖版 137. 8-2호(109~120) 출토유물	390
圖版 138. 9-1호(121~133), 9호 봉토·주구(134) 출토유물	391
圖版 139. 9호 봉토·주구(135~137), 9-2호(138~141), 10호 석실(142·143) 출토유물	392
圖版 140. 10호 석실(144~147), 11-1호(148~155) 출토유물	393
圖版 141. 11-1호(156~167) 출토유물	394
圖版 142. 11-2호(168~172), 11호 봉토(173·174) 출토유물	395
圖版 143. 11호 봉토(175~177) 출토유물	396
圖版 144. 11호 봉토(178~186) 출토유물	397
圖版 145. 12호 석곽(187~198), 13호 석곽(199·200) 출토유물	398
圖版 146. 13호 석곽(201~209) 출토유물	399
圖版 147. 13호 석곽(210), 14호 석곽(211~213), 15호 석곽(214~220) 출토유물	400
圖版 148. 15호 석곽(221~227) 출토유물	401
圖版 149. 15호 석곽(228~238) 출토유물	402
圖版 150. 16호 석곽(239~248) 출토유물	403
圖版 151. 16호 석곽(249~253), 17호 석곽(254), 18호 석곽(255~261) 출토유물	404
圖版 152. 굴립주건물지 출토유물	405
圖版 153. 저습지 출토유물	406
圖版 154. 저습지 출토유물	407
圖版 155. 저습지 출토유물	408
圖版 156. 저습지 출토유물	409
圖版 157. 저습지 출토유물	410
圖版 158. 저습지 출토유물	411
圖版 159. 저습지 출토유물	412

圖版 160. 1호 주거지(306 · 307), 2호 주거지(308~312) 출토유물	413
圖版 161. 3호 주거지(313 · 314), 4호 주거지(315~318) 출토유물	414
圖版 162. 1호 구상유구(319), 2호 수혈(320 · 321), 2호 묘(322), 1호 구(323) 출토유물 1호 수혈 청동완편(가), 2호 묘 철제가위(나)	415

I . 머리말

가동유적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9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007년 4월에 발간된 방곡리유적 보고서¹⁾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동유적 역시 부산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 정관신도시 조성사업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가동고분군과 함께 고분군을 조영했던 집단이 거주했던 생활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사된 유적의 범위는 가동고분군의 일부 범위를 포함하여 전체면적이 약 50,000㎡가량 된다.

이번에 보고할 내용은 가동고분군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확인된 횡구식과 횡혈식석실묘, 그리고 생활유적에서 확인된 굴립주건물지 및 기타 유구들이다. 횡구식과 횡혈식 석실은 가동고분군의 말단부가 평지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확인된 것이며, 굴립주건물지는 4~6세기대의 생활유적속에서 주거지가 위치하는 공간과 구별되게 별도의 공간에 구성되어져 있었다. 석실은 모두 18기이며, 굴립주건물지는 모두 75동이 조사되었다. 굴립주건물지 주변에는 기능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주혈들이 불규칙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굴립주건물지와 연관된 부수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포함하여 근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방곡리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은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9월 2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지는 방곡리유적 가지구 총면적 60,000㎡, 나지구 총면적 68,000㎡, 그리고 가동유적 50,000㎡이다. 방곡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동, 삼한시대 목관묘 11기, 토광묘 6기, 옹관묘 10기, 삼국시대 목관, 석실(곽)묘 11기, 화장묘 1기, 요지 1기, 고려·조선시대 묘 197기, 묘막지 10기, 노지 10기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토도류 189점, 옥석류 60점, 금속류 733점이 확인되었다.

가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 삼국시대 주거지 158동, 굴립주건물지 75동, 석실묘 18기, 기타 유구가 57기 확인되었는데 이중 이번에 보고하는 석실묘에서는 토도류 225점과 금속류 36점 등 총 261점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굴립주건물지와 저습지에서는 목제품을 포함하여 44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된 유물 14점과 근대유적에서 확인된 유물 4점이 있다.

가동유적의 석실묘는 인접한 가동고분군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확인된 것으로 주로 5세기 후엽에서 6세기대에 조성된 것이다. 구릉 위에서는 4, 5세기대의 유물들이 채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이른 시기의 분묘들은 주로 구릉 위에 조성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구릉 아래로 고분군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유구는 횡구식·횡혈식 석실묘들인데, 경작과 건축으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여기에 매장된 피장자는 인접한 생활유적의 주인공들이었을 것이므로 삶과 죽음의 공간이 동시에 조사된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분묘자료와 함께 이번에 보고하는 굴립주건물지는 모두 75동으로 이들 유구는 주거공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별도로 조성되었다. 즉 굴립주건물지는 대개 알려진 바와 같이 주거를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저장용을 위한 창고시설로서 별도의 공간을 할애하여 입지한 것이다. 굴립주건물지의 조사과정에서 기둥으로 사용된 목재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으며, 지반이 약한 곳에는 나무나 돌을 이용하여 기둥을 받친 흔적도 조사되었다. 정형성을 갖춘 굴립주건물지가 대부분이지만 주혈의 배치상태가 부정형을 보이는 것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삼국시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분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용되어 유구의 중복이 대단히

1)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機張芳谷里遺蹟』.

조밀하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다.

아울러 이들 주거공간에 인접한 곳의 저습지에서는 다양한 식물유체를 포함하여 목재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은 당시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존 유물들이다. 이들 유기물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생활상의 일부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5개동과 근대의 민묘가 조사지역내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가동유적과 방곡리유적의 발굴조사는 장기간의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먼저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담당자, 부산광역시 박재혁 학예연구원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과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었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본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조사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조 사 단 장 : 양상현(전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김두현(전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지 도 위 원 : 정징원(문화재위원)

정영화(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임효택(전 동의대학교 박물관장)

신경철(부산대학교 박물관장)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 사 위 원 : 고 송계현(전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두철(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영민(울산대학교 학예연구사)

조 사 원 : 김현철(현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천선행(현 부산대학교 강사)

황현진(현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조사보조원 : 송정식(현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신준섭(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강정미(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김나영(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보경(현 우리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이민경(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외에도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의 재학생중 이상규와 이진영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재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현장실습을 위하여 현장조사에 참가하였고, 한국전통문화학과의 이형호(현 토지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박종욱도 방학기간 중 현장을 찾아 조사에 참여하였다. 혹서와 혹한을 견디면서 조사에 참가한 예비고고학도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현장실습에 참가한 재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주신 한국전통문화학과의 이도학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보고서의 작성은 유물의 복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전원이 분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유물의 실측과 도면작성은 신준섭, 이보경(현 우리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민경, 이진영(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주로 하였으며, 유구원고는 주로 신준섭이 유물원고는 유물 실측자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유구배치도 등 주요 도면의 작성은 신준섭이 맡아서 수고하였다. 유물촬영은 함준원의 김경덕이 전적으로 맡아 수고해 주었다. 도면과 도판의 편집은 일차적으로 신준섭이 하였고, 최종적으로 김영민이 완성하였다. 팔레오라보에서 작성한 자연과학분석 원고는 송정식이 일차적으로 번역하였고, 이를 최기룡(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이 감수하여 완성하였다. 전체원고는 일차적으로 신준섭이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김영민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체제와 용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호태(현 박물관장)가 전체적인 교열을 보았다.

II . 유적의 환경과 입지

가동유적이 위치하는 정관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속하며 울산, 양산과 접한 지역이다. 지도상의 좌표는 북위 35° 15', 동경 129° 14' 에 해당하며, 北으로 용천산(544m), 西로 백운산(520m), 南으로 거문산(543m), 달음산(424m)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분지지형이다. 따라서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건조한 편이며, 5월과 8월 사이에 전체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집중한다. 산지사이의 계곡에서 흐르는 소지류들이 병산골에서 발원한 본류에 합류하여 정관면의 한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좌광천에 모여든다. 좌광천의 양안에는 소규모의 충적대지가 발달하여 있고, 이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져 있다.

정관면지역은 분지지형이며, 분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좌광천을 젓줄로 삼아 양안지역에 청동기시대 이래의 유적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이번에 조사된 가동유적과 방곡리유적,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남겨진 덕산유적 등이 알려져 있으며,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가동유적, 인접한 가동고분군, 그리고 방곡리유적에서도 석실묘를 비롯한 소규모의 무덤들이 확인되었다. 방곡리유적에서 조사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민묘들을 볼 때 정관면 일대는 상당히 번성한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동유적은 가동마을을 둘러싼 낮은 산지와 그 중심으로 흐르는 골짜기로 구분된다. 삼국시대의 취락은 가동고분군이 입지한 구릉의 동쪽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1.3m의 구릉 일대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입지하여 당시의 생활구역과 묘역이 구분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 이용 방식은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촌락 입지의 한 형태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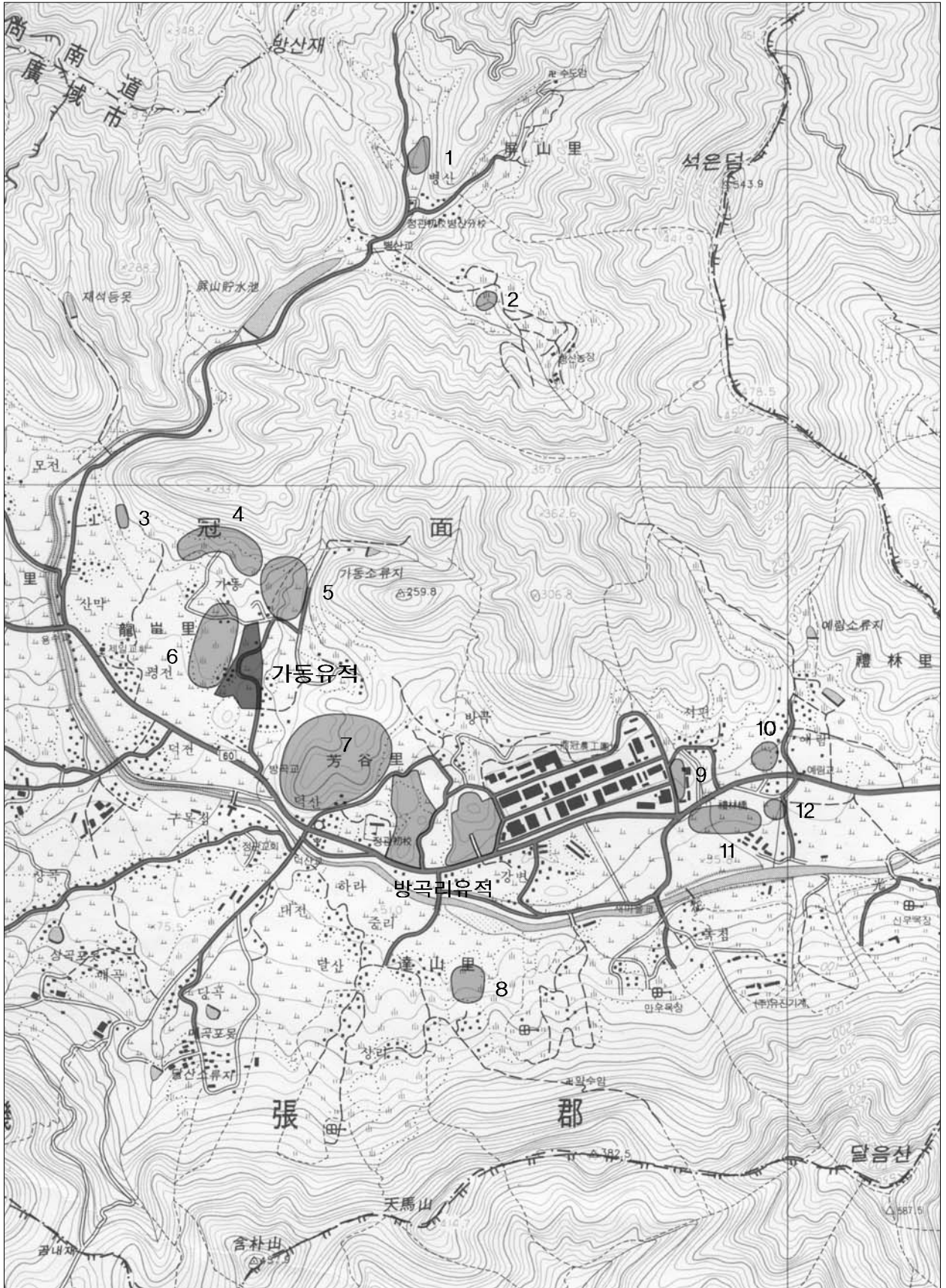
가동유적은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마을유적이다. 마을 뒤편은 분묘구역(가동고분군)을 이루고 거기서 뺀어 내린 소구릉의 말단 사면부에는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마을의 앞으로는 소규모의 하천이 완만히 흐르고 있는데 삼국시대 당시보다는 점차 앞쪽(동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적조사 이전에는 계단식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삼국시대 이래로 경작지로서 재퇴적이 반복되면서 지형의 변화없이 유적의 대부분이 잔존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유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관면지역 대부분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신도시와 신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엄청난 지형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정관면지역의 매장문화재의 전모를 확인하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삼한시대의 무덤과 삼국시대의 취락유적 확인은 이번 조사의 중요한 학술적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적 성과는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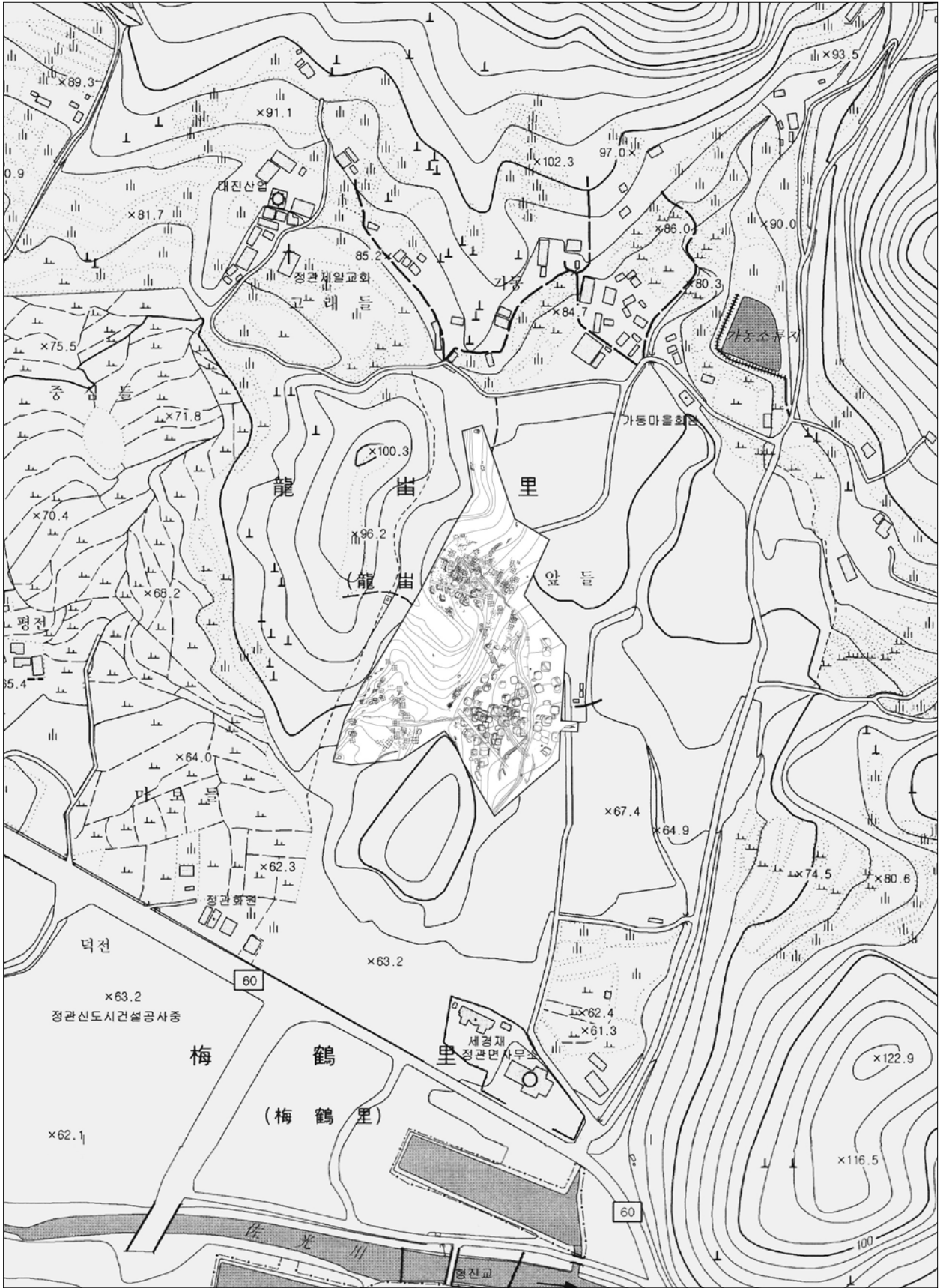
고려·조선시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유적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번호	유 적 명	시대	조사내용	비고
1	機張郡 屏山里 冶鐵址	근대	야철	지표조사
2	機張郡 屏山里 白磁窯址	조선시대	지방가마터	지표조사
3	機張郡 龍岫里 산막 遺物分布地	조선시대	생활유적	지표조사
4	機張郡 龍岫里 佳洞 遺物分布地 B	청동기~조선시대	생활유적	지표조사
5	機張郡 龍岫里 佳洞 遺物分布地 A	삼한시대~조선시대	생활유적	지표조사
6	機張郡 龍岫里 佳洞 古墳群	삼국시대	분묘	지표조사
7	機張郡 龍岫里 德山 遺蹟	청동기시대	집자리, 분묘	지표조사
8	機張郡 達山里 遺蹟	조선시대	요지	발굴(동아대)
9	機張郡 禮林里 遺物分布地 E	조선시대	주거지	지표조사
10	機張郡 禮林里 遺物分布地 D	조선시대	유물분포지	지표조사
11	機張郡 禮林里 遺物分布地 A	조선시대	유물분포지	지표조사
12	機張郡 禮林里 遺物分布地 B	조선시대	유물분포지	지표조사

표 1. 가동유적 주변 유적분포 (도면의 유적번호와 일치)



圖面 1. 유적(■)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25,000)



圖面 2. 유적 지형도(1/5,000)

Ⅲ. 조사내용

1. 삼국시대 유구

1) 석곽 · 실묘

(1) 1호 석실

가. 유구(도면 5·6, 도판 1~5)

가동고분군의 남동쪽 사면 해발 73~74m에 위치하며, 2호 석실이 북편 주구와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다. 11호 굴립주건물지를 파괴하고 들어서 있으며, 주축방향은 N50°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현대의 논 경작으로 인해 석실의 하단 일부를 제외한 상부구조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주구는 서장벽에서 160cm 가량 떨어진 구릉 사면부에서 확인되는데 경작으로 삭평되어 일부만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80cm, 폭 140cm, 최대깊이 45cm이다. 주구의 축조는 자연 경사면은 비스듬한 'U' 자형으로 굴착하였고 나머지 평탄면은 호석을 돌려 묘역을 구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석은 석실의 북서편모서리에서 약 90~100cm 가량 떨어져 4매의 활석이 확인되며 주구의 내측으로 호상으로 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구 내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1호 석실의 잔존 구조를 보면 묘곽의 서쪽은 1~2단 정도의 깊이로 비스듬히 굴착하고, 동편으로는 흙을 채워 바닥면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묘곽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404cm, 잔존너비 284cm, 깊이 50cm이다. 장단벽은 20~50cm의 활석을 서장벽의 최하단석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가로쌓기 하였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 164cm, 잔존높이 7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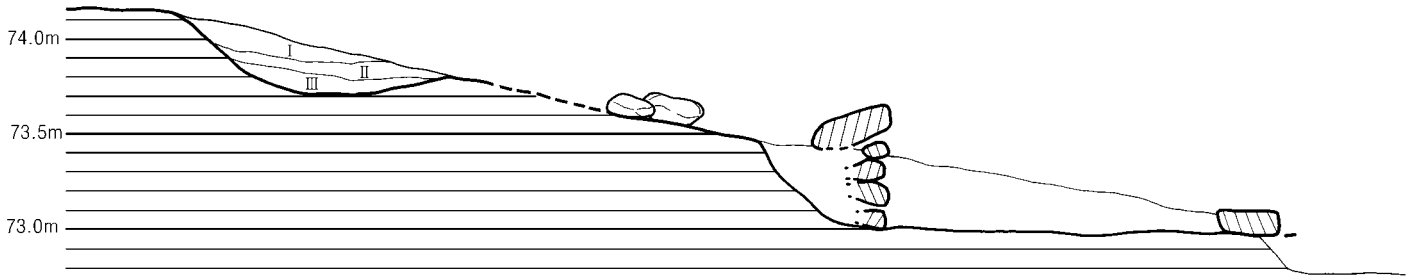
입구부는 남단벽의 서쪽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장단벽의 벽석보다 크기가 작은 활석을 이용해 채워 넣었다. 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횡구식의 구조로 판단된다.

유물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추가장의 유무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부조사과정에서 방향과 모양이 다른 시상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차 매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상은 상부시상과 하부시상으로 구분되며 상·하로 구획된 시상은 추가장의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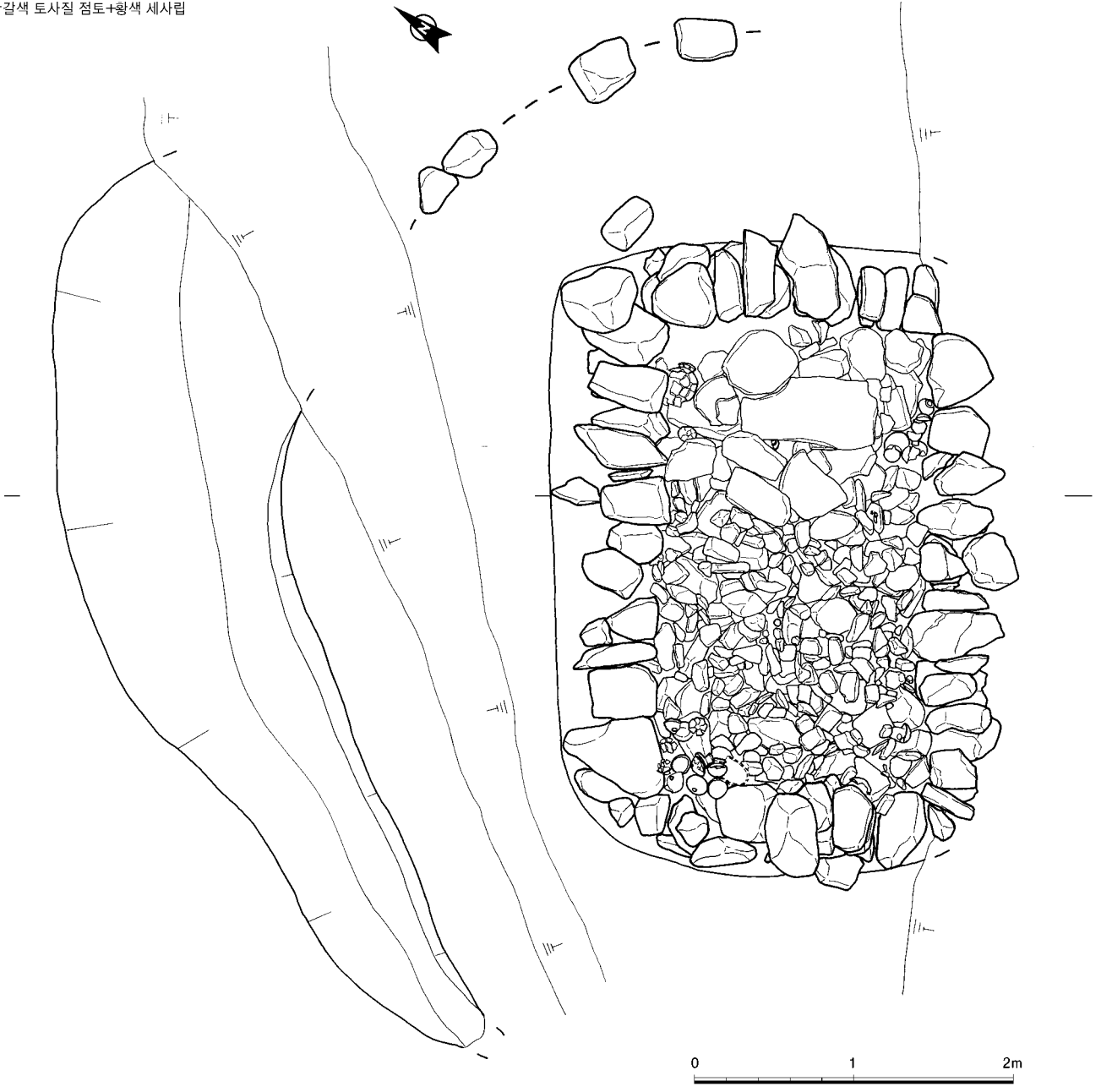
하부시상에서는 방향을 달리하는 두 시상대가 확인된다. 1차 시상은 북단벽측을 주축으로 하는 길이 160cm, 너비 80cm의 공간에 20~40cm의 편평한 천석을 1단 정연하게 깔았다. 2차시상은 1차시상의 남쪽으로 10~15cm 가량의 작은 활석들을 채워 경계를 구획한 뒤, 동장벽을 주축으로 하는 길이 210cm, 너비 110cm의 공간에 30~40cm의 천석을 1단 깔아 마련했으며, 서장벽쪽으로 남는 공간은 활석을 열기설기하게 채웠다.

상부시상은 먼저 1,2차시상 전면을 크기가 다양한 천석을 무질서하게 채워 넣고, 그 위에 40~90cm의 판석들을 정연하게 한 벌 깔아 시상대(3차시상)를 마련하였다. 3차시상은 북동편으로 일부만 확인되는데 규모는 1차시상의 범위만큼 구획된 것인지, 석실전면에 마련된 것인지는 상부의 유실로 인하여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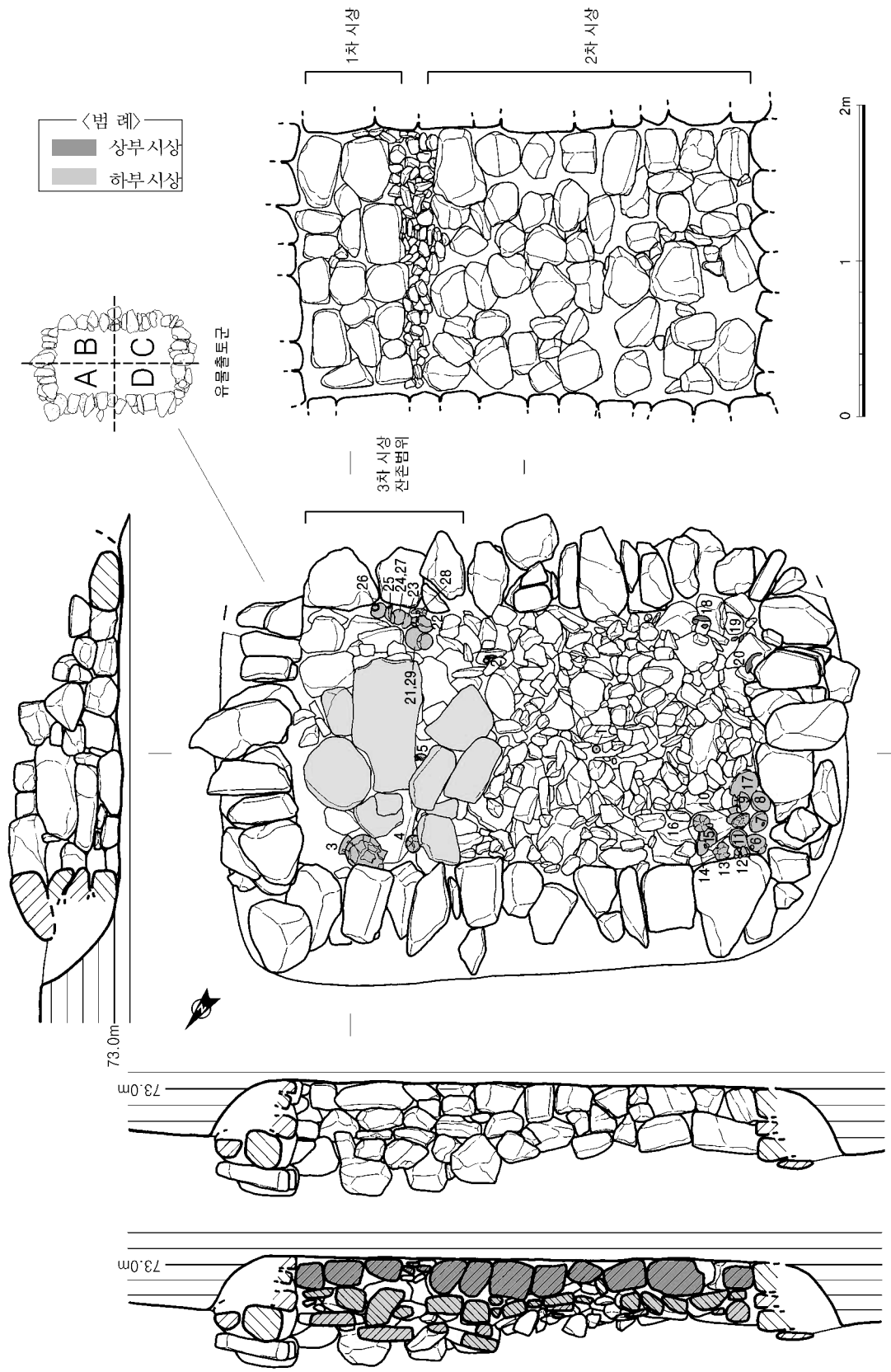
유물은 석실의 네 모서리를 중심으로 균을 이루며 출토되었다. 유물은 석실의 유실과 함께 대부분 쓸려 넘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추가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몇 차의 시상대와 관련된 유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북서모서리에서는 대부장경호 1점, 파수부연질용 1점, 대부완 1점이 북동모서리에서는 대부장



- I. 갈색 사질토
- II. 암갈색 사질토+황색 세사립
- III. 황갈색 토사질 점토+황색 세사립



圖面 5.1호 석실 봉토 및 주구 (1/40)



圖面 6. 1호 석실 (1/40)

경호 2점, 대부분 2점, 연결용 1점, 개 1점, 유개고배 1점, 파수부연질용 1점, 고배 1점, 철검 1점, 석실의 정가운데에서는 방추차 1점이, 남동모서리에서는 개 2점, 고배 1점, 개 1점, 남서모서리에서는 유개고배 3점, 개 4점, 고배 4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유물은 각 모서리에서 균집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임의로 북서쪽의 모서리부터 시계방향으로 A, B, C, D 균으로 한다. D균에서 연결용이 1점 출토되었으나(출토위치 17) 잔존 상태가 극히 불량한 편으로 개체복원이 불가능하다.

① 고배

고배류는 A균을 제외한 나머지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단투창고배 〉

B균에서 蓋와 세트로 1조, C균에서 1점 출토되었다.

1의 蓋는 도질 소성품으로 杯身部가 1/4가량 결실되었다. 배신부에 기포가 다량 형성되어 있다. 외면에 중첩소성에 부착된 점토가 남아 있으며, 내면에 녹갈색 자연유가 다량으로 형성되었고, 짙은도 일부 잔존한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고배는 와질소성품으로 硬度가 약한 편이다. 脚部, 구연단이 부분 결실되었다. 표면은 다소 거칠게 회전물손질 하였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태토이다. 대각단 내측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가며, 장방형투창 3개를 뚫었다.

2는 배신부가 1/2가량 유실된 도질 소성품으로 圖面復元 하였다. 대각부와 배신부가 약간 찌그러져 있으며 表面剝離가 극심하다.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대각부에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으며, 대각단부 상위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간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높이	구경	저경			
1	28	개	5.0	11.2	1.8	회색	양호	중첩소성(황갈색).
		고배	8.3	8.9	7.3	회백색	불량	각부, 구연단 부분 결실.
2	19	고배	8.3	10.0	7.4	진회색	보통	배신, 대각부 찌그러짐.

〈 이단투창고배 〉

B균에서 1점, D균에서는 고배 위에 蓋가 덮인 채 출토된 것 3점, 개와의 세트관계가 불확실한 것 4점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지만 거의 완형을 유지하고 있어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고배는 모두 각부 중위에 두 줄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하단에 각각 3개씩의 방형 투창을 뚫은 형태이다. 10은 각 단에 4개씩의 투창을 뚫었다. 구연단과 대각단부 형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약간 거칠게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장식·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蓋는 약간 거칠게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7은 중첩소성한 흔적이 뚜렷하며, 꼭지부분에 짙은이 확인된다. 내면에 다량의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높이	구경	저경			
3	29	고배	8.9	10.1	7.5	회색	불량	와질소성. 구연단 일부 결실.
4	6	개	5.8	12.2	1.2	회청색	양호	구연단부 결락.
		고배	8.6	11.2	7.5	회청색	양호	구연부 일부 결락.
5	9	개	5.7	12.2	1.2	회청색	양호	완형.
		고배	8.2	10.2	8.0	회청색	양호	구연부 부분 결실.
6	8	고배	8.2	11.0	8.2	진회색	양호	구연단 결손. 대각단 침선1조.
7	11	개	5.6	12.2	2.4	회색	양호	배신 일부 결락. 중복소성(밝은 회색), 속심 회갈색.
		고배	9.8	10.9	7.5	밝은회색	양호	배신부 소·중형 기포 다량 형성. 심하게 찌그러짐.
8	12	고배	9.2	10.2	7.5	회색	양호	1/2가량 유실. 도상복원.
9	13	고배	9.1	11.0	7.5	회색	양호	대각부분 유실. 돌대 미약.
10	10	고배	7.5	10.2	6.3	진회색	양호	물레흔 뚜렷. 투창 4조씩.

〈개〉

고배와 세트로 확인된 것을 제외한蓋는 B군에서 1점, C군에서 2점, D군에서 4점이 확인되었다. 모두 약간 거칠게 회전물손질 되어 있으며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높이	구경	꼭지경			
11	25	개	5.4	11.5	1.3	회백색	불량	와질소성. 구연단 일부 결손. 기면 마모 극심. 물레흔 뚜렷.
12	18	개	4.8	10.8	1.0	밝은회색	양호	반파. 속심-진회색.
13	20	개	5.2	11.2	1.5	회색	양호	신부 일부 결실. 물레흔 뚜렷.
14	7	개	5.7	12.0	1.4	회색	양호	완형. 6과 동형.
15	16	개	6.0	11.5	1.1	회청색	양호	구연 1/4 결실. 14와 유사.
16	14	개	5.8	12.5	1.1	회청색	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17	15	개	5.0	10.6		회백색	불량	와질소성. 구연 일부 결손. 중첩 소성(진회색).

② 대부완

B군에서 2점, A~D군 사이에서 1점 출토되었다. **18**은 와질소성품으로 표면의 마모와 박리가 극심하다.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태토이다. 臺脚 中位에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그 하단에 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돌대는 마모가 극심하여 희미하게 잔존한다. **19**와 **20**은 도질소성품으로 대각 중위에 1조의 돌대를 돌리고 그 하단에 방형 투창을 3개씩 뚫었다.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으며, 배신의 부착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20**은 표면에 녹황색 자연유가 다량으로 형성되어 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높이	구경	저경			
18	23	대부완	7.8	11.2	6.6	회백색	불량	구연단 마모 극심.
19	26	대부완	8.5	10.8	5.8	회색	양호	구연 일부 결실. 자연유 흡착.
20	5	대부완	10.0	11.3	5.5	회청색	양호	구연 일부 결실.

③ 대부장경호

A군에서 1점, B군에서 2점 출토되었다. **21**은 도질소성품으로 구연부와 동체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중·소형의 기포가 다량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 박리가 극심한 편이다. 외면에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구경 내측에는 약한 요철이 돌아가며, 頸部는 각각 2조씩의 돌대를 돌려 3단 구성하였다. 下 2단에는 폭 0.1cm가량의 파상문을 1조씩 시문하였다. 동상부에 미약하게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그 아래에는 부분적으로 斜방향 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脚部는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하단에 각각 7개씩의 방형 투창을 뚫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고 장식, 흑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22는 도질소성품으로 구연부 1/3, 동체 일부가 유실되었다. 구경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하단에 1치구로 파상문(폭 0.1cm) 2줄을 시문하였다. 동 상위에 굽은 칩선 1조를 돌렸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에 박자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10개를 뚫었다.

23은 도질 대부장경호로 구연 1/2, 동체 1/2가량 유실되었으며, 표면은 부분 박리되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게 정면하였다. 구경부에 각각 2,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아래 2단에 폭 0.1cm의 굽은 칩선으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동 상위에 약하게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동체부 내면에는 박자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대각부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뚫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높이	구경	저경	동최대경			
21	3	대부장경호	29.6	15.0	14.2	21.0	회색	양호	경부 파상문. 대각 2단 투창.
22	21	대부장경호	24.4	12.9	12.1	16.2	회청색	양호	경부 파상문.
23	22	대부장경호	20.8	12.6	10.8	14.4	회색	양호	경부 파상문.

④ 연질웅(24, 출토위치 24)

B군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동체부가 1/3 가량 결손되었으며,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게 정면하였다. 구연단에 약하게 2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구연부는 전체적으로 약간 휘어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단면은 진회색이다. 세사립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10.8cm, 구경 11.0cm, 동최대경 12.7cm, 저경 약 5.0cm이다.

⑤ 연질파수대웅

A군과 B군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두 점 모두 동체 중위에 1개의 파수를 부착한 同形品으로 추정된다. **25**는 구연단과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26**은 완전 파쇄 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圖面復元하였다. 표면 박리가 극심한 편으로 잔존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하다. **25**는 구연단 외측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가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게 정면하였다. 구연 직하부터는 사선방향 평행타날(요철 단위 0.3cm)하여 정면하였으며, 把手는 횡방향 물손질하였다. 파수는 단면 원형의 우각형이다. 태토는 석영,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색조는 적갈색이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높이	구경	저경			
25	4	연질웅	10.1	11.1	7.8	적갈색	연질	구연, 동체 일부 결실.
26	24아래	파수부 연질웅	(7.8)			적갈색	연질	잔존상태 불량. 도상복원.

⑥ 방추차(27, 출토위치 1)

완형의 방추차로 석실 중앙부에서 출토하였다. 기면의 마모와 박리가 극심한 편이다. 단면 편육각형이며, 한 방향으로 투공되었다. 색조는 흑갈색이며, 부분적으로 적갈색을 띤다.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폭 4.8cm, 두께 2.6cm, 孔徑 0.6cm.

⑦ 철검(28, 출토위치 2)

身部 片으로 극히 일부분만 잔존한다. 부분적으로 銹化가 극심한 편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7.0cm, 身部 幅 2.8cm, 身部 두께 0.3cm이다.

⑧ 도자편(29, 출토위치 21 아래)

柄部가 유실된 刀子片으로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신부에는 목질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규격은 잔존길이 6.0cm, 신부 최대폭 1.0cm이다.

< 내부 출토품 >

석실의 내부조사과정에서 일부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파수부완 추정품 1점, 소형완 1점, 고배 2점, 개 1점이 확인되었다.

⑨ 완(30, 31)

30은 파수의 부착부분이 유실되었으나 파수부완으로 추정된다. 배신부가 대부분 결락되어 도면복원하였다. 도질소성으로 구연단 내측에 부분적으로 요철흔이 잔존한다. 동체부 하단 부분은 횡방향 깎기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게 잔존한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 8.0cm, 구경 8.6cm, 저경 7.2cm이다.

31은 배신부의 2/3이 결손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연질 소성으로 표면 박리가 극심하다. 신부에 각각 1조씩 돌대를 돌려서 3단 구획하였다.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로 색조는 밝은 회갈색이다.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높이 5.3cm, 구경 6.5cm이다.

⑩ 고배 배신부(32)

도질소성으로 배신부의 1/5가량이 유실되었으며, 대각은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신부에 소형의 기포가 다량 형성되었으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로 표면은 진회색, 속심은 밝은 갈색을 띤다. 대각부는 방형투창 3개를 뚫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격은 잔존높이 4.8cm, 구경 11.0cm이다.

⑪ 대부완 대각부(33)

도질소성 대부완으로 배신부가 결락되었다. 표면 박리가 극심한 편으로 녹황색 자연유가 다량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을 띠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각부에는 약하게 1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그 하단에 방형투창을 2개를 뚫었다. 규격은 잔존높이 4.6cm, 각경 5.8cm이다.

⑫ 개(34)

적갈색 연질제로 대부분 파손되고 꼭지 부분만 잔존한다.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표면 박리가 극

심한 편이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로,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진회색, 속심은 회색을 띤다. 규격은 잔존높이 1.8cm, 폭지경 1.0cm이다.

(2) 2호 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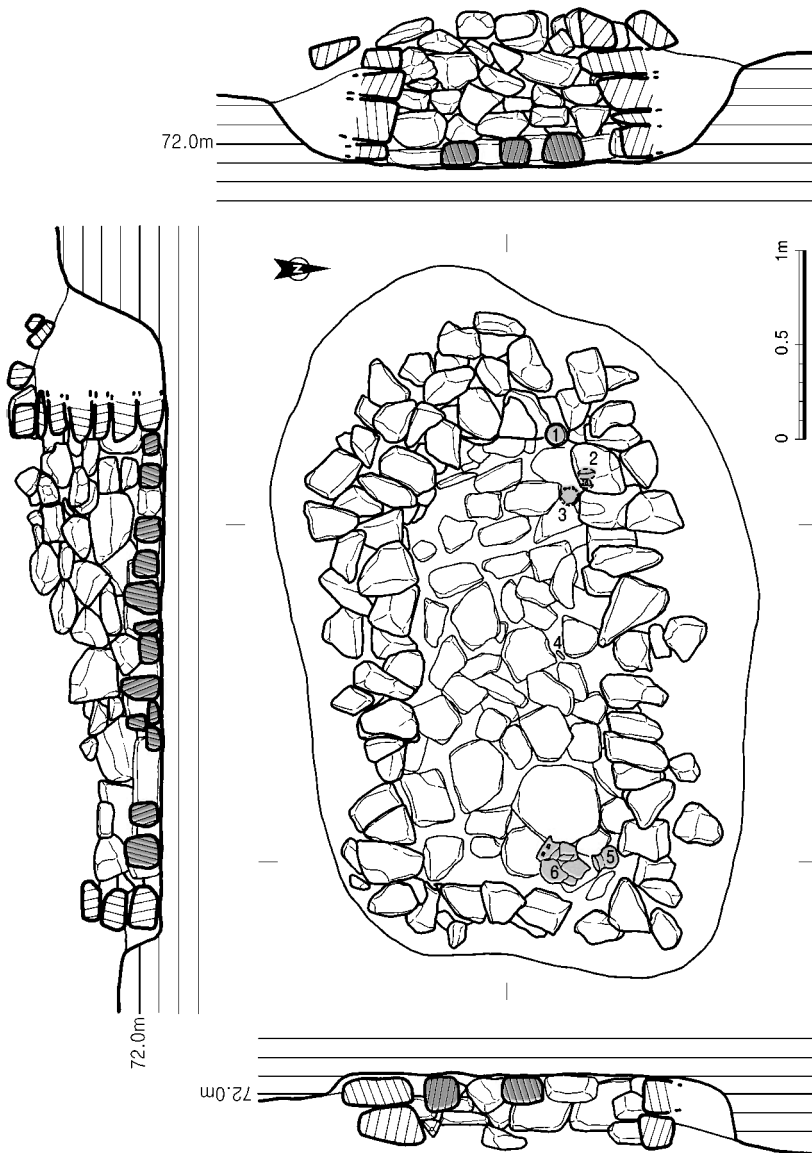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 도판 6·7)

구릉 능선의 남동쪽 사면 해발 73~74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8.5°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1호 석실과 인접해 있으며, 10·11호 굴립주건물지 위에 중복된 상태로 조성되었다. 벽석은 경사면을 따라 북서쪽 장단벽은 5~6단, 남동벽 장단벽은 2~3단 정도 남아있다. 서쪽 단벽은 호상으로 둘러져 있으며 동쪽 단벽은 직선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벽석의 폭이 비교적 넓고, 1호 석실과 3호 석실과 같은 높이에 조성된 점과 연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횡구식 석실묘로 추정된다.

墓壙은 벽석 2~3단정도의 깊이로 비스듬히 굴착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234cm, 깊이 50cm이다. 벽석은 20~50cm의 다양한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하였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234cm, 너비 128cm이다.

입구부는 대부분의 장단벽 벽석들이 촘촘하게 맞물리는 것에 비해, 벽석간 밀집도가 떨어지고 또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동쪽 단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상은 30cm내외의 편평한 천석을 한 벌 깔았으며, 시상의 형태로서 추가장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서단벽쪽에서 개, 대부분이 각 1점, 북장벽 가장자리에서 연질호 1점, 도자 1점, 철제가위 1점, 동단벽 모서리에서 장경호 1점,



圖面 7. 2호 석실 (1/40)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석실 조사 중 주변에서 대호편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연질호 1점이 확인되었으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수거가 불가능하여 출토위치만 표시하였다. (출토 위치 3).

① 蓋 (35, 출토위치 1)

도질제로 소성은 불량하며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동체 1/3, 구연 1/2 정도가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으며, 꼭지의 접합흔이 남아 있다. 신부 내면에는 흑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태토에는 운모와 장석이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5.1cm, 추정구경 10.5cm, 꼭지경 2.4cm이다.

② 대부완(36, 출토위치 2)

도질 소성으로 거의 완형이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며, 태토에는 장석,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배신외면과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굽바닥은 깎기 후 물손질로 정리하였다. 대각의 접합흔이 보이며,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하단에 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8.1cm, 구경 10.1cm, 저경 5.7cm이다.

③ 장경호(37, 출토위치 5)

도질제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전체적으로 회색조인데 일부 회백색과 암자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저부는 깎기 조정 후 물손질로 정리하였다. 태토에는 장석과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구경부에는 약하게 돌대 1조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경부와 동체 상부에 각각 1조의 돌대를 돌렸다. 규격은 높이 15.8cm, 구경 10.8cm, 동최대경 13.9cm이다.

④ 대부장경호(38, 출토위치 6)

도질로 구연이 1/4정도 결실되었으며, 소성은 불량하다. 중·소형의 기포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외면은 연회색을 띠며, 속심은 자색이다. 부분적으로 연황색과 암녹색 자연유가 부착되었으며, 표면박리가 확인되고, 전체적으로 정연하게 회전물손질하였다. 태토에는 장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경부는 각각 2,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경부와 동상위에도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부에는 장방형 투창 8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26.4cm, 구경 14.1cm, 저경 12.7cm이다.

⑤ 도자(39, 출토위치 4)

신부와 병부의 선단부가 유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한 편이다. 병부와 신부에 목제의 칼집흔이 일부 남아있다. 규격은 잔존길이 10.9cm, 인부 폭 1.7cm, 병부 두께 1.0×0.4cm이다.

⑥ 철제 가위(40, 출토위치 4)

부분적인 결실과 수화가 심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U자형으로 고리부분은 단면 장방형(0.6×0.2cm)이다. 양 신부는 고리부분과 직교하며, 단면 세장방형(1.0×0.1cm)이다. 신부 중위에 내측으로 돌출한 평면 삼각형의 돌출부가 특징적이다. 부분적으로 횡방향 목질흔이 잔존한다. 전체적인 형상이 현대의 쪽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가위로 추정된다. 규격은 잔존길이 9.2cm이다.

⑦ 대호(41, 주변출토)

2호 석실 조사중 석실의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소성 상태가 양호한 도질제이다. 동체와 구연 일부가 결실되어 도면복원 하였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고, 동체부는 외면에 횡방향으로 평행타날하여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박자흔이 조밀하게 남아 있으며, 동 중위에는 부분적으로 횡방향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소성시 과입도에 의해 찌그러져 바닥면에 요철이 남아있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며,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47.4cm, 구경 28.0cm, 동 최대경 46.5cm이다.

(3) 3호 석실

가. 유구(도면 8, 도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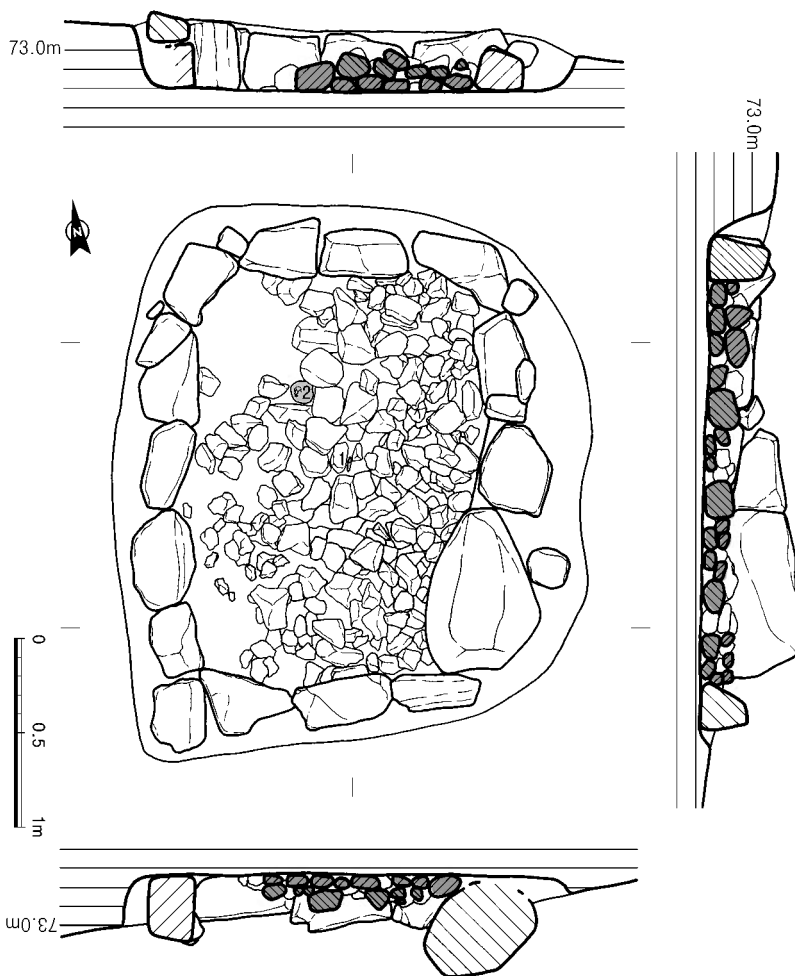
구릉의 남동쪽 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평면 장방형의 석실이다. 해발 73m~74m 사이에 위치하며, 주축 방향이 N8°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7호 굴립주건물지를 파괴하고 들어서 있다. 벽석이 1단만 남아 있고, 봉토는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묘광은 벽석 1단 정도의 깊이로 비스듬히 굴착한 뒤 바닥을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288cm, 너비 248

cm, 깊이 30cm이다. 벽석은 네 방향 모두 1단 정도가 남아 있으나 부분적으로 2단까지 잔존한다. 벽석은 주로 50~60cm의 천석들을 이용하여 세로쌓기 하였다.

입구부는 시상의 위치가 동편으로 마련되어 있고 주변의 석실 입구부 위치로 보아 남서쪽 모서리부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벽석 모서리가 서로 맞물려 있지 않고, 다른 벽석들이 세로쌓기 한 반면에 남서쪽 모서리부분은 하나의 활석만 유독 가로쌓기하여 축조되어 있다. 이것은 연도를 잇는 입구부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152cm, 잔존높이 50cm 이다.

시상대는 동장벽을 주축으로 길이 210cm, 너비 80cm



圖面 8. 3호 석실 (1/40)

의 규모로 마련하였다. 10~15cm 내외의 작은 천석들을 2~3단정도 채워 넣고, 서쪽편으로 20cm 내외의 천석을 1~2열정도 가지런히 쌓았다. 시상대 옆으로 무질서하게 작은 천석들이 흩어져있는데, 추가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구획된 시상대의 바로 옆에서 연질용 1점이, 시상대 위에서 철도자 1점, 석실 외부에서 도질호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① 연질용(42, 출토위치 2)

연질이며, 동체와 구연부 1/2정도 결실되었다. 소성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저부는 깎기후 물손질로 정리하였다. 태토에는 장식과 석영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10.7cm, 추정구경 11.3cm, 저경 6.7cm이다.

② 도자(43, 출토위치 1)

병부의 끝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부분적으로 극심한 수화로 인해 인부와 병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짙은 직배이다. 배부와 병부 선단부에 칼집으로 추정되는 목질이 잔존한다. 규격은 잔존길이 16.8cm, 인부 폭 1.0cm이다.

③ 호 저부(44, 외부출토)

석곽 외부에서 출토되었다. 도질제로 저부만 잔존하며, 소성은 보통이다. 외면은 황회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이다. 부분적으로 녹황색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전면 회전물손질하였으며, 저부 말단부는 깎기조정 후 물손질로 정리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4.8cm, 저경 10.4cm이다.

(4) 4호 석곽

가. 유구(도면 9, 도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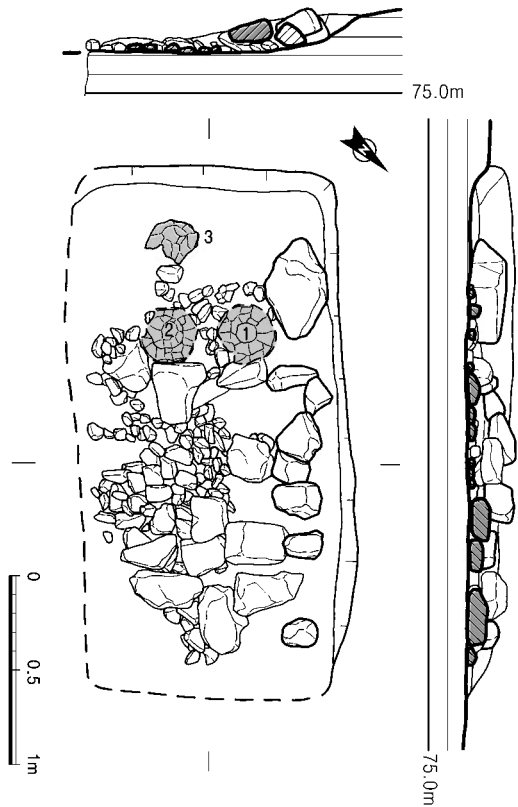
구릉의 남동쪽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는 수혈식석곽묘이다. 해발 75.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47° E로 동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하였다. 현대 건축물에 의해 하단 1단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실되었으며, 동쪽으로 5호 석곽이 인접하고 있다.

묘광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규모는 잔존길이 278cm, 잔존너비 138cm, 깊이 20cm이다.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벽석의 축조방법은 알 수 없다. 서쪽장벽에서 벽석으로 추정되는 20~40cm의 할석들이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상은 10cm 내외의 소형 할석을 한 벌 정도 깔아 놓은 뒤, 그 위에 20~30cm의 판석들을 일정하게 놓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남쪽부분에서 도질호 1점과 연질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질호 1점과 연질호 2점이 나란히 출토되었으나 세 점 모두 이미 후대의 교란으로 인해 상부가 훼손되어 있었다. 특히 연질호 2점은 잔존상태가 불량하며 복원이 불가능하다. (출토위치 1, 2)



圖面 9. 4호 석곽 (1/40)

는 밝은 회색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4.0cm, 복원저경 10.6cm이다.

(5) 5호 석곽

가. 유구(도면 10, 도판 10·11-12)

구릉사면 해발 75.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 방향은 N28.5°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6, 7호분이, 남쪽으로 4호분이 인접해 있다. 유구 상부는 현대건축물에 의해 남단벽과 양쪽 장벽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시상대는 교란 구덩이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벽석은 1~2단 정도 잔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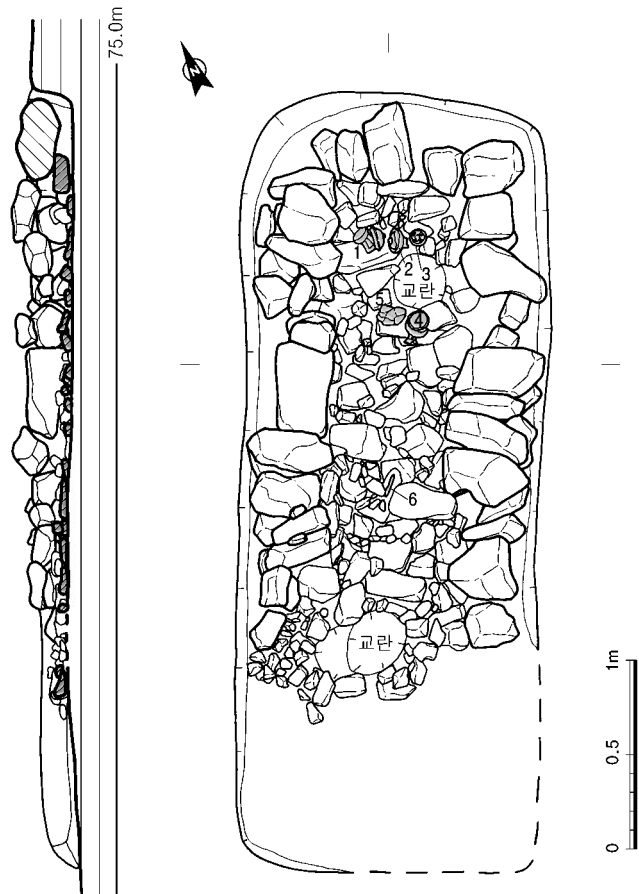
벽석은 30cm이상의 대형할석과 20cm미만의 작은 할석을 혼용하여 가로쌓기한 것으로 보인다. 묘광의 규모는 추정길이 410cm, 너비 156cm, 깊이는 32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264cm, 너비 66cm이다. 시상은 20~30cm 내외

① 도질호 저부 편(45, 출토위치 3)

잔존상태가 불량한 도질호의 저부이다. 극히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표면 일부가 박리되었으며, 외면은 회색, 내면은 밝은 회색을 띤다. 저부는 逆置하여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내면은 횡방향 물손질로 마무리 하였으며, 박자로 인한 요철이 확인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10.0cm이다.

② 대각 편(46, 내부 출토)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대각편으로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이단투창 고배의 대각으로 추정된다. 각부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교호하게 방형투창을 뚫었다. 하단에 최소 5개의 투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색조



圖面 10. 5호 석곽 (1/40)

의 판석과 10cm내외의 소형할석을 석곽 바닥 전면에 깔아 조성하였다.

유물은 주로 북단벽부분에 부장하였고, 유개고배 2점, 고배 1점, 대부완 1점, 배 1점, 연질호편 1점, 중앙부분에 철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연질호 편이 출토되었으나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출토위지만 명시한다(출토위치 5).

① 고배(47, 48, 49)

유개고배 2점과 고배 1점이 출토되었다.

유개고배의 개는 도질로 소성은 보통이다. 기형은 유사하며, 외면은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회색을 띤다. 신부 외면에 중첩소성흔이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외면에 황녹색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꼭지 내면에는 짙흔이 잔존한다.

고배는 도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회전물손질하였다. 모두 대각부 접합흔이 잔존하며, 47은 총 3개의 투창을 뚫었으며, 대각말단부 내면에 짙흔이 잔존한다. 48은 대각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 3개씩 상호교호하게 투창을 뚫었다. 태토에는 운모가 소량,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다.

49는 소성이 보통이며, 외면은 회색, 속심은 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 물손질흔이 뚜렷하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장석이 소량 혼입되었다. 대각에는 2조의 돌대로 2단으로 구획한 후 장방형투창을 3개씩 상호교호하게 뚫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47	1	개	4.5	10.7	2.2	회색	양호	완형.
		고배	8.5	8.8	7.0	회색	양호	완형.
48	2	개	4.5	10.4	2	회색	양호	개신 1/3, 구연 1/2 결.
		고배	11	10.6	8.0	암회색	양호	배신 1/4, 대각부 1/2 결실.
49	3	고배	8.9	·	7.5	회색	양호	배신 2/3과 구연부가 결실.

② 배+대부완 (50, 출토위치 4)

석곽의 동쪽에서 대부완 위에 배가 겹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배(50-1)는 도질이며, 완형이다. 소성은 보통으로 외면과 속심은 회청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배신표면에는 직경 0.3~1.1cm 정도의 기포가 발생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3.8cm, 구경 9.6cm이다. 대부완(50-2)은 도질로 배신 일부와 대각 1/3가량이 결실되었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는 운모와 장석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이다. 정면은 회전물손질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下段에 방형투창을 뚫었는데, 3개로 추정된다. 규격은 높이 9.1cm, 구경 10.8cm, 저경 6.7cm이다.

③ 도자(51, 출토위치 6)

완형의 철도자로 석곽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신부에 칼집으로 추정되는 목질흔이 잔존하며, 병부에도 목질흔이 잔존한다. 규격은 길이 14.2cm, 인부 최대폭 1.9cm, 인부두께 0.5cm, 병부 최대폭 1.1cm, 병부 두께 0.4cm이다.

< 내부 출토 >

④ 고배 대각편(52)

도질제로 대각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소성은 보통이며, 부분적으로 표면박리되었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이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대각 중앙에는 2조의 돌대로 2단 구획한 후 각 단에 장방형투창을 뚫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3개씩 엇갈리게 뚫은 것으로 추정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6.5cm, 저경 8.6cm이다.

⑥ 대부완(53, 54)

53은 도질 대부완으로 배신과 대각부가 1/2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소성은 보통으로, 외면은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회색이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배신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가 소량,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다. 대각부 중앙에는 2조의 돌대로 2단 구획한 후 각 단에 방형투창을 3개씩 상호교호하여 뚫었다. 규격은 높이 8.6cm, 구경 10.4cm, 저경 6.2cm이다. 54는 도질 대각편으로 배신부가 결실되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며, 표면이 부분적으로 산화박리되었다. 외면은 암회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이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운모가 소량,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다. 각부에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규격은 잔존높이 3.8cm, 저경 6.0cm이다.

⑦ 완(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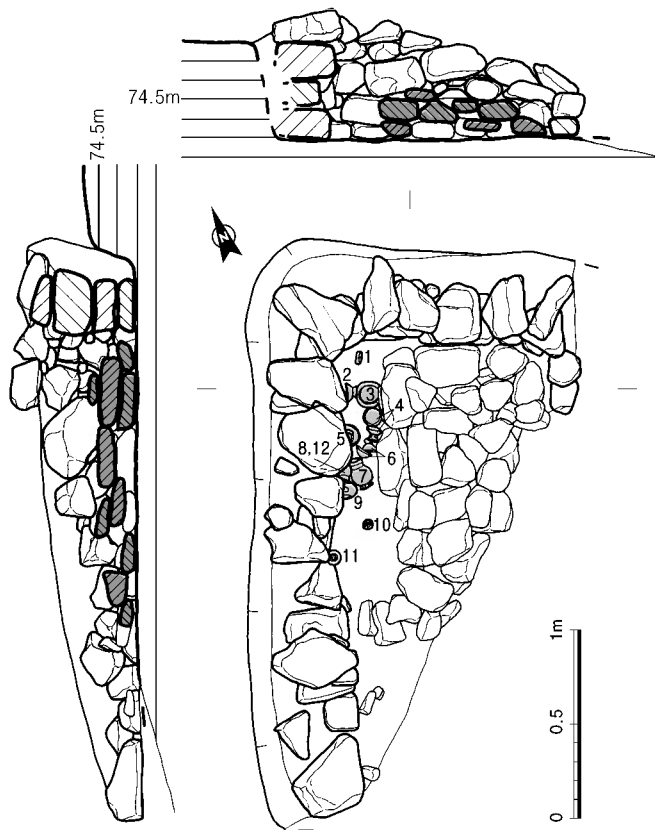
도질제로 동체와 구연이 1/2정도 결실되었으며, 소성은 보통이다.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이다. 표면이 전체적으로 산화박리되었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하단은 각기후 물손질로 정리하였다. 태토에는 장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10.4cm, 구경 10.5cm, 동최대경12.5cm, 저경 3.3cm이다.

(6) 6호 석곽

가. 유구(도면 11, 도판 11-3 · 12 · 13-1.2)

해발 74.5m~7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0°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7호 석곽이 인접하여 조성되었다. 경작지의 경사면을 따라 남단벽과 동장벽의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묘광은 자연 경사면을 'L'자' 상으로 굴착하여 조성하고, 바닥은 생토층의 일부를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벽석은 북단벽과 서장벽이 1~5단 정도 남아 있으며, 30cm이상의 대형 할석과 20cm 내외의 할석을 혼용하여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310cm, 잔존너비 170cm, 깊이는 68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240cm, 너비 106cm이다.



圖面 11. 6호 석곽 (1/40)

의 돌대를 돌리고 그 상단에 방형 투창을 3개씩을 뚫었다. 56은 표면 박리가 극심한 편으로 본래 외면의 색조는 진회색으로 추정된다. 60은 65의 대부장경호 아래에서 뒤집힌 채 출토되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56	4	개	4.8	8.4	·	회색	양호	완형.
		고배	7.1	10.0	7.4	회백색	불량	부분결실. 기면박리 극심.와질.
57	5	개	5.2	11.8	·	진회색	양호	완형. 중첩소성.
58	6	개	5.6	12.2	·	회청색	양호	완형. 57과 同形. 중첩소성.
		고배	7.4	10.1	6.8	진회색	양호	완형.
59	9	개	5.3	12.6	·	밝은회색	불량	부분결락. 와질.
		고배	7.4	10.9	7.2	밝은회색	불량	부분결락. 와질.
60	12	개	4.7	12.5	·	진회색	양호	완형. 중첩소성.

② 대부완

모두 3점이 출토되었다. 전면 회전물손질하여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모두 도질소성품으로 표면이 부분적으로 산화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장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61은 배신부 내면에 녹갈색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투창은 방형으로 3개를 뚫었으나 간격이 불규칙하

시상대는 북단벽과 접하고, 서장벽과 30cm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20~30cm 내외의 천석을 중복하여 깔고, 비교적 편평한 판석으로 정지하였다. 시상대의 규모는 잔존길이 160cm, 너비 80cm이다.

유물은 서장벽과 시상대 사이의 공간에서 유개고배 3점, 대부장경호 2점, 대부완 3점, 연질용 1점, 개 2점, 대호구연부편 1점,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① 고배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으며, 내·외면에 물레흔이 뚜렷이 잔존한다. 도질소성품은 모두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있으며, 녹갈색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또 접지면에 이기재로 사용한 초본류의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전체적으로 장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고배의 대각부는 하단에 각기 3, 2, 1조의 돌대를 돌리고 그 상단에 방형 투창을 3개씩을 뚫었다.

며, 대각부 바닥에 이기재로 사용된 초본류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내·외면은 밝은 회색으로 띠며, 속심은 진회색이다. 62는 대각에 희미하게 부정형의 칩선 혹은 돌대가 돌아가는데, 회전물손질에 의한 우발적인 결과물로 보인다. 등간격으로 3개의 삼각 투창을 투공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진회색이며, 단면은 분홍빛을 띠는 밝은 회색이다. 63은 배신부가 3/4가량 유실되어 도면복원 하였다. 대각에는 희미한 칩선으로 2단 구획하고 하단에 3개의 방형 투창을 뚫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61	2	대부완	7.5	10.3	5.6	밝은회색	양호	부분 결손.
62	10	대부완	6.4	9.5	5.5	진회색	양호	
63	11	대부완	6.9	9.6	5.4	진회색	양호	배신부 3/4 가량 유실.

③ 대부장경호

모두 2점이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한 편이다. 구연단 내측에 1조의 요철을 약하게 돌아가며 구경부는 각기 2조,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였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64는 소성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자연유는 형성되지 않았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다소 거칠게 정면하였다. 동체부 하단에는 대각 접합시의 점토 밀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요철이 심하다. 대각에는 5개의 방형 투창을 뚫었다. 65는 전면 회전물손질로 비교적 정연히 정면하였다. 동체 상부에 희미한 칩선이 1조 돌아가며, 내부에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대각에는 6개의 장방형 투창을 뚫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64	7	대부장경호	20.2	12.0	10.6	13.4	밝은회색	보통	부분 결손.
65	8	대부장경호	17.6	10.6	9.2	11.9	회갈색	불량	완형.

④ 연질옹(66, 출토위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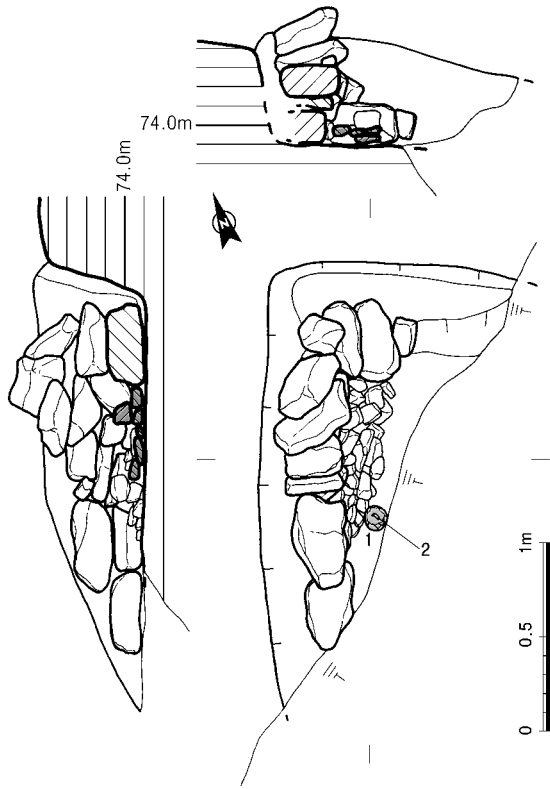
표면박리가 심하여 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결손된 부분이 많아 도면복원 하였다. 내외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구연단 내측에는 1조의 요철이 뚜렷하게 돌려져 있다. 동체 하단은 횡방향으로 깎기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태토는 장식과 석영이 함유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11.7cm, 복원구경 13.2cm, 동최대경 14.7cm이다.

⑤ 방추차(67, 출토위치 1)

단면 육각형의 적갈색 연질제 방추차이다. 전체적으로 기면의 박리와 마모가 심한 편이다.孔은 한 쪽에서 透孔하였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소량 함유되어 있다. 규격은 직경 4.5cm, 두께 2.1cm, 공경 0.8cm이다.

⑥ 대호 구연부편(68, 주변수습)

석실 외부에서 수습되었다. 도질제로 구연일부만 잔존하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암녹색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9.8cm, 구경 20.0cm이다.



圖面 12. 7호 석곽 (1/40)

나. 유물

① 연질옹(69, 출토위치 1)

구연 1/2, 동체 일부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 하였다. 외면은 황동색을 띠며, 회전물손질하였다. 태토에는 장석, 석영,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11.8cm, 추정구경 11.4cm, 저경 6.6cm이다.

② 대각편(70, 출토위치 2)

도질계의 대각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외면은 회색을 띠고, 속심은 암회색이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장방형투창 3개를 뚫었다. 규격은 잔존고 2.2cm, 저경 5.6cm이다.

(8) 8호 석실 (도면 13, 도판 14-2 · 15-1)

8호분은 구릉사면의 말단부 해발 75~75.5m에 위치하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주구가 있는 8-1호 석실이 조성된 이후에 주구와 봉분의 일부를 파괴하고 8-2호가(배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작으로 인한 삭평으로 8-1호의 서쪽과 남쪽 벽석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8-2호는 봉분을 제외한 벽석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전체 규모는 잔존길이 652cm, 너비 1,066cm이다.

(7) 7호 석곽

가. 유구(도면 12, 도판 11-3 · 13-3 · 14-1)

해발 74.5m~7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9°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6호 석곽이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다. 경작지 조성에 의해 대부분 유실되고, 저장벽 3~4단과 시상 일부만이 잔존한다.

벽석은 30cm이상의 대형할석으로 최하단석은 가로쌓기를, 그 위단부터는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230cm, 잔존너비 126cm, 깊이 58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36cm, 잔존너비 76cm이다.

시상대는 저장벽과 연접하여 일부 남아 있으며, 10cm내외의 할석들을 깔아서 조성하였다. 유물은 시상 아래 단애부에 치우친 상태로 연질옹 1점과 대각편 1점이 수습되었다.

- 8-1호

가. 유구(도면 14, 도판 15-2·16~18-1.2)

8-1호는 서쪽 단벽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평면형태 장방형의 석실로 파악된다. 주축방향은 N82°E이다. 석실의 높은 쪽인 북쪽으로 주구가 확인되며, 동쪽으로 8-2호가 호석과 맞물려 축조되어 있다. 주구는 지대가 높은 북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며, 폭은 100~130cm내외이다. 주구내에서 확인된 유물은 상부에서 확인된 연질토기 1점이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형태추정이 불가능하다.

호석은 석실의 동쪽으로 8-2호 석곽과 연결하여 확인되었다. 40~7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둘러져있다. 토층상 8-2호의 수혈선 위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8-2호의 축조과정에서 호석을 추가적으로 구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호석이 8-1호의 전체를 감싸지 않고 8-2호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로만 둘러진 것으로 보아 호석은 8-2호 조성시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2호를 중심으로 해서 8-1호의 호석과 연결되는 소규모의 호석이 둘러져 있음이 주목된다.

석실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북쪽과 동쪽을 굴착하여 묘곽을 조성하였다. 남쪽과 서쪽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반지상식으로 묘곽을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벽석은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북서쪽 벽이 2~7단정도가 남아 있으며, 서남벽은 거의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동단벽은 시상을 포함하여 3~6단이 확인되며, 남장벽은 2~3단이 잔존한다. 벽석은 20~3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 눕혀쌓기 하였으며, 벽석의 단구분이 일정하지 않다. 북장벽과 동단벽의 벽석 외부에 벽석을 지탱하기 위한 1단의 괴임석이 확인된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24cm, 너비 456cm, 깊이 92cm이며, 석실의 규모는 200cm, 너비 220cm이다.

추가장은 최소 3번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시상의 축조순서에 따라 구분된다. 1차 시상대는 동단벽에 연결하여, 3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시상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220cm이다.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시상대와 벽석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확인되었으며, 대부장경호, 연질호, 파수부완, 대도, 철기 각 1점씩 출토되었다.

2차 시상대는 1차시상대에 연결하여 10cm내외의 천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시상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106cm이다. 다른 추가장과 비교해 소형의 철제유물들이 부장된 것이 특징이다. 출토 유물은 개 2점, 대부완 1점, 장경호 2점, 대부장경호 2점, 연질옹 2점이며, 주조철부·철촉·이형도자·철검편·금제이식이 각 1점이다. 출토유물 가운데 이식의 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남쪽일 가능성이 높다.

3차시상대는 1, 2차 시상대 상부에 20~30cm내외의 할석을 놓고, 작은 천석을 전면에 깔아 마무리하였다. 시상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112cm이다. 3차 시상의 유물로 확실한 것은 시상대 위에서 확인된 철제유물로 이형도자 1점, 불명철기 2점이다. 그 외에 2차시상 혹은 3차시상과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북장벽과 서단벽 사이의 공간에서 확인된 9점의 유물이다.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 2점, 장경호 1점, 개 1점, 완 1점, 연질호 2점, 철검편 1점, 금제이식 1점이다.

연도와 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상대의 위치와 유물의 부장위치로 보아 서단벽에 추가장을 위한 출입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유물(추가장으로 확인되는 시상의 축조순서에 따라 구분 함)

〈 3차 시상 〉

① 개

71(출토위치 1)은 도질제의 완형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외면은 연회색을 띠며, 내면은 회청색이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잔존한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세사립질이 혼입되었다. 보주형 꼭지를 부착하고, 배신 전면에 침선문을 시문하였다. 규격은 높이 7.2cm, 구경 14.2cm, 꼭지경 2.8cm이다.

72(출토위치 2)는 도질제이며, 구연부가 1/2정도 결실되었다. 소성은 보통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태토에는 장석,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5.8cm, 구경 12.0cm, 꼭지경 2.7cm이다.

② 대부완(73, 출토위치 12)

74번 유물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도질제이며, 완형이지만 배신부가 일그러져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녹황색자연유가 부분적으로 부착되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배신 중앙에 3조의 침선을 돌렸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대각은 능이 완만한 침선을 돌려 2단 구획하고, 그 하단에 방형투창을 2개를 뚫었다. 굽바닥에는 이기재로 쓰인 짚흔이 잔존한다. 규격은 높이 7.4cm, 구경 9.0cm, 저경 5.6cm이다.

③ 장경호(74, 75)

소성이 불량한 장경호이다. 구경부와 동체가 일부 결실되어, 동체일부는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회색을 띠는데, **74**는 동체하부와 바닥이 일부 황동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와 마모가 심한편이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지두흔과 박자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태토에는 장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74는 구연단 내측에 완만한 요철이 있다. **75**는 경부중앙에 돌대를 1조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각 단에 3치구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74	11	장경호	17.0	12.7	16.9	17.0	회색	불량	경부·동체 1/3 결실.
75	6	장경호	20.9	15.9	7.8	20.3	회색	불량	구연, 동체 1/3 결실.

④ 대부장경호(76, 77)

76(출토위치 3)은 완형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는 장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경부에는 각기 2조와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아래 두 단에는 단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에는 암갈색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부착되었으며, 장방형 투창 8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23.2cm, 구경 13.8cm, 저경 11.5cm, 동최대경 17.4cm이다.

77(출토위치 5)은 구연부가 일부 결실된 완형의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이다. 소성은 양호하며, 외면은 회색을 띠고, 속심은 암자색이다. 부분적으로 녹황색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는 장석,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단 내측에 약한 요철이 있다. 경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각 단에 7~9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대각단에는 이기재로 사용된 짚흔이 잔존한다. 투창은 장방형으로 모두 6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25.5cm, 구경 16.2cm, 저경 13.0cm, 동최대경 19.8cm이다.

⑤ 연질응(78~80)

모두 3점으로, 전체적으로 표면 박리와 마모가 극심하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78와 80은 구연이 짧게 외반하고 동체가 구형에 가깝다. 78은 동체하단에 깎기 후 물손질하였으며 79는 바닥 내면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80은 동체 외면에 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구연과 바닥기 면이 심하게 박리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모두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78	4	연질응	13.2	12.6	8.5	15.4	암황색	보통	구연 2/3 결실, 동체일부결실.
79	7	연질응저부	(7.6)	·	10.0	·	회황색	보통	저부와 동체일부 잔존.
80	10	연질응	12.9	13.5	8.9	15.1	연등색	보통	구연 1/4, 동체 1/2 결실.

⑥ 주조철부(81, 출토위치 14)

공부와 신부 일부만 잔존하는 주조철부이다. 부식이 극심하여 잔존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신부의 꺾임으로 보아 공부 단면은 사다리꼴로 추정된다. 규격은 잔존길이 8.3cm, 폭 4.3cm이다.

⑦ 철착 (82, 출토위치 15)

수화가 극심하여 잔존상태가 불량한 철기편이다. 단면이 0.4cm가량의 방형이며 선단부를 뽕족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철착일 가능성이 있다. 규격은 잔존길이 8.5cm이다.

⑧ 이형도자(83, 출토위치 13)

병부와 신부 일부만 잔존한다. 등은 직배이며, 刃은 선단으로 갈수록 만곡하고, 단면형태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병부는 인부에서 연장된 철판을 여러 겹 겹쳐 단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단부에는 쥘수문형의 장식 있다. 인부와 병부에서 칼집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규격은 잔존길이 15.2cm, 인부폭 1.4cm, 병부폭 1.3cm이다.

⑨ 철검(84, 출토위치 8)

선단부가 결손되었으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刃은 直刃에 가까우며, 신부에 부분적으로 병부와 결합흔인 목질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규격은 잔존길이 16.8cm, 인부두께 0.3cm, 인부폭 2.7cm이다.

⑩ 금동제 이식(85, 출토위치9)

환의 일부가 유실된 금동제 이식이다. 부분적으로 금박이 벗겨져 있으나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평면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며, 단면은 원형이다. 규격은 최대폭 3.0cm, 단면 지름 0.4cm이다.

<2차 시상>

① 철촉(86, 출토위치 20)

석실의 서쪽에서 모두 5점이 수습되었다. 逆刺형 1점, 廣葉逆刺형 2점, 蛇頭형 2점이다. 頸部 이하는 거의 다 유실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수화가 극심한 편이다. 신부 단면은 렌즈형에 가깝고, 頸部는 단면 방형이다. 개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규격(cm)			신부 단면	설명
		잔존장	신부폭	경부폭		
86-1	20	(6.9)	2.2	0.6	렌즈형	역자형.
86-2		(8.6)	2.4	0.6	렌즈형(?)	광엽역자형. 경부일부에 백화수피흔 부분 확인.
86-3		(4.7)	1.9	-	렌즈형(?)	광엽역자형. 경부유실. 수화극심. 추정복원.
86-4		9.7	1.6	0.5	렌즈형	사두형. 경부일부에 백화수피흔이 확인.
86-5		6.7	1.3	(0.4)	렌즈형(?)	사두형. 수화극심. 경부일부에 백화수피흔 잔존.

87(출토위치 17)은 두부가 결실된 장경식 철축 경부편이다. 수화가 극심하여 頸部和 莖部の 경계가 불분명하다. 단면형태는 방형이며, 莖部に 부분적으로 백화수피흔이 잔존한다. 규격은 잔존길이 12.6cm, 頸部 폭 0.7×0.6cm, 莖部 폭 0.5×0.5cm이다.

② 도자편

88(출토위치 18)은 신부선단과 인부일부, 병부가 결실된 도자편이다. 직배에 인부는 만곡한다. 규격은 잔존길이 5.3cm이다.

89(출토위치 16)는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단면형태로 보아 도자 신부편으로 추정된다. 수화가 극심하여 본래 모습을 추정하기 힘들다. 잔존길이 3.7cm이다.

③ 금동제 이식(90, 출토위치 19)

지름 0.4~0.5cm가량의 청동봉에 금피를 정교하게 감고 양 끝을 구부려 마무리하였다. 한 점은 원형으로 출토되었으나 한 점은 부분적으로 금박이 벗겨져 있다. 단면은 원형이다. 규격은 90-1이 폭 2.9cm, 단면지름 0.4cm이며, 90-2는 폭 2.8cm, 단면지름 0.5cm이다.

<1차 시상>

① 대부장경호(91, 출토위치 22)

도질제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구경부 2/3정도가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녹황색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경부는 2줄의 돌대로 3단 구획하였으며 동상부에 약하게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25.1cm, 추정구경 13.0cm, 저경 12.0cm, 동최대경 18.2cm이다.

② 연질옹(92, 출토위치 23)

연질제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 상부가 1/4정도 결실되었다. 외면은 암황색을 띠며, 내면은 명황색을 띤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게 정면하였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평행 타날 하여 정면하였으나 표면박리가 심하여 타날흔은 희미하게 잔존한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 있으며, 태토에는 장식과 석영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11.2cm, 구경 12.6cm, 저경 7.7cm, 동최대경 12.7cm이다.

③ 파수부완 (93, 출토위치 25)

구연부 1/6, 파수부가 결실되었으며, 소성이 불량하여 와질에 가깝다. 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하부는 깎기후 물손질하였다. 동체상부에는 약하게 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9.5cm, 구경 9.2cm, 저경 4.9cm, 동최대경 11.4cm이다.

④ 철제 가위(94, 출토위치 24)

尾部 일부가 결손되었으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단면 장방형(0.7×0.4cm)의 긴 철봉으로 중앙부분은 원형으로 구부리고 양 끝은 얇게 펴서 제작하였다. 양 미부는 수화가 심하지만,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으로 추정된다. 미부에 부분적으로 목질흔이 잔존한다. 이 철제품은 원부가 끝나는 지점을 말각처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부분에 유기질재의 끈을 감아 양 미부를 교차시켜 사용한 철제 가위로 추정된다. 규격은 전장 111.4cm, 원부폭 6.2×5.0cm, 미부폭 1.0cm이다.

⑤ 철검(95, 출토위치 21)

완형의 철검이다. 선단부가 결락되었으며, 수화가 심한 편이다. 규격은 길이 22.5cm, 인부 폭 3.0cm, 인부 두께 0.3cm이다.

⑥ 이형철기(96, 시상 수습)

시상바닥에서 수습된 철제품으로 장식용으로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얇은 철판을 제단하여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뒷판의 가운데 부분을 두드려 앞판을 약간 돌출시켰다. 규격은 외연 폭 5.0×3.7cm, 두께 0.2cm이다.

〈내부 수습〉

① 개(97)

도질제이며, 개신 1/3정도 결실되었다. 소성이 불량하며 기포가 발생했다.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개신 중위에 침선 1조를 돌렸다. 규격은 높이 5.9cm, 꼭지경 2.9cm, 구경 11.3cm이다.

② 대부완(98)

도질제이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배신이 1/5정도 결실되었으며, 대각은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황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녹갈색자연유가 부착되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배신과 대각 내면에는 짙흔이 관찰된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장방형 투창을 뚫었다. 上段은 5개로 추정되며, 下段은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에는 장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규격은 추정높이 15.1cm, 구경 19.2cm, 저경 9.0cm이다.

③ 장경호편(99)

도질제이며, 구경부 편만 일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소성은 보통이고, 색조는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이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혼입되었다. 경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하고 각단에 파상문(上段-6치구, 下段-6치구로 추정되나 2치구만 뚜렷하게 시문)을 시문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12.2cm, 복원구경 17.8cm이다.

④ 연질호 구연부편(100)

연질이며, 구연부, 동체부가 잔존하나 상태가 불량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소성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암황색을 띤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동체 외면에 횡방향 평행타날하였으며, 내면에 박자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잔존높이 12.0cm, 복원

구경 21.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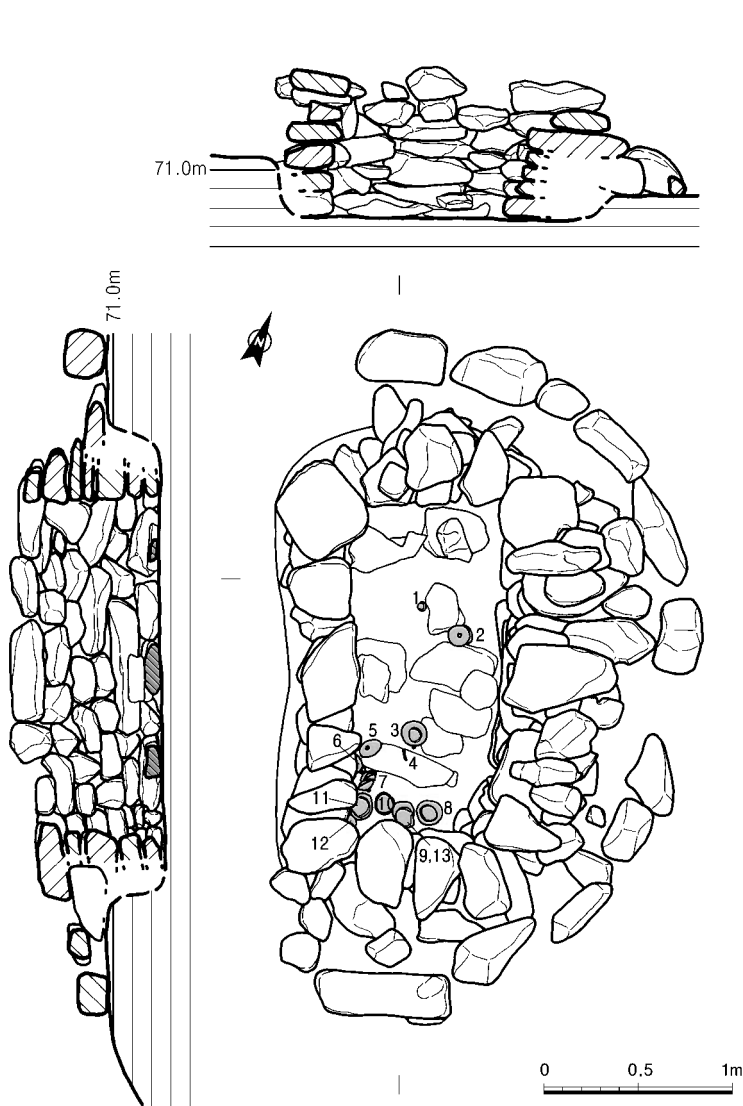
⑤ 금동제 이식(101)

일부분이 결락된 금동제 이식이다. 전체적으로 얇게 부식되어 부분적으로만 금피가 관찰된다. 평면형태 장타원형으로, 단면은 원형이다. 규격은 최대 폭 2.9cm, 단면지름 0.4cm이다.

- 8-2호 (배묘)

가. 유구(도면 15, 도판 18-3·19·20)

장방형의 수혈식 석곽묘로 주축방향은 N23° W이다. 8-1호의 동쪽 봉분과 주구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8-1호의 호석과 저장벽이 맞물려 있는 형태이다. 8-1호의 봉토를 굴착하여 묘광을 마련한 뒤에 석곽을 축조하고 8-1호의 호석을 구획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편으로는 30~4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8-2호의 호석이 벽석과 인접하여 구획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호석과 연결되는 길이 80cm의 세장방형 석재가 확인되는데 그 아래에서 소형의 대부장경호 1점과, 반파된 연질호 3점이 출토되었다. 동쪽에서 확인된 반파된 연질호 내에서는 석재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토기를 깨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석곽의 남동편에서 완파된 호편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유구 축조 당시 유물을 깨뜨리는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벽석의 잔존상태는 5~6단 정도로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벽석은 20~8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 눕혀쌓기 했으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저장벽은 내경하고, 동장벽은 외경하는데 이는 토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8-1호 쪽으로 밀린 것이다. 묘광의 규모는 306cm, 너비 192cm, 깊이 80cm이고, 석곽의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80cm이다.

석곽 내부에 30~40cm 내외의 천석을 한 번 깔아 관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남단벽에 집중되어 출토

圖面 15. 8-2호 석곽 (1/40)

되었는데, 유개고배 2점, 고배 1점, 개 1점, 대부장경호 2점, 연질용 2점이 있으며, 관대석 주변으로 파수 부완 1점, 유개고배 1점, 도자편 1점, 철령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① 고배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102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암녹색자연유가 부착되었다. 배신 내면에 짙흔이 잔존하며,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며, 고배 대각부는 모두 2조의 돌대로 2단 구획하고 각 단에 장방형 투창 3개를 상호교호하여 뚫었다. 103은 개신부에는 신부 상단에 6조, 하단에 4~6조의 중집선문을 상·하 엇갈리게 시문하였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02	2	개	5.0	10.7	2.4	회백색	불량	와질. 구연 일부결실.
		고배	10.0	10.1	7.6	회백색	보통	완형.
103	5	개	5.2	11.4	2.8	암회색	양호	완형. 부분 회백색. 중집선문.
104	6	고배	10.6	10.3	8.7	회색	보통	대각 일부 결실.
105	7	개	5.5	11.4	3.0	회색	양호	완형.
		고배	9.2	9.7	7.3	회백색	양호	완형.
106	12	개	5.4	11.1	2.4	회색	양호	완형.
		고배	10.0	9.7	8.0	암회색	불량	완형.

② 대부완(107, 출토위치 13)

109번 유물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도질제로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암녹색자연유가 부착되었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대각 내면에는 짙흔이 잔존한다. 대각에는 1조의 돌대로 2단 구획하였으며, 下段에 방형투창 3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7.9cm, 구경 9.6cm, 저경 5.8cm이다.

③ 대부장경호

두 점 모두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나 크기, 소성상태에 차이가 있다.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경부에는 각각 2조와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동체 상단에도 약하게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부에는 장방형 투창 6개를 뚫었다. 109는 소성불량으로 와질에 가까우며,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08	8	대부장경호	15.9	9.8	9.3	회색	양호	완형.
109	9	대부장경호	20.3	10.6	9.7	황회색	불량	구경 1/2 결실. 와질.

④ 연질용

연질용 2점으로 전체적인 기형이 동일하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며, 구연부가 결실되어 일부 도면복원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각기 격자타날(110), 평행타날(111)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동 최하단은 각기로 마

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박자흔과 지두흔이 잔존한다.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으며, 태토에는 장식과 석영이 다량 혼입되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10	10	연질용	10.0	11.1	5.8	황갈색	양호	구연부 1/2결실, 바닥결실. 격자 타날.
111	11	연질용	12.4	11.8	7.5	암황색	양호	구연부 결실. 평행타날.

⑤ 파수부완(112, 출토위치 3)

완형의 파수부완이며, 도질제이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동체 하부와 바닥은 회백색이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고, 내면에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동체하부는 각기로 조정하였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며, 파수의 단면은 원형이다. 규격은 높이 11.0cm, 구경 9.5cm, 저경 5.1cm, 동최대경 12.0cm이다.

⑥ 도자(113, 출토위치 4)

신부 일부가 결손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수화가 심하다. 등은 직배이며 수화로 인해 병부와 신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신부와, 병부에 부분적으로 목질흔이 남아있다. 규격은 잔존길이 8.6cm, 신부최대폭 1.2cm, 신부 두께 0.4cm이다.

⑦ 철령(114, 출토위치 1)

신부가 1/4가량 결실된 잔존상태가 불량한 철령으로 전체적으로 수화가 극심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단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고리는 편타원형으로 중앙에 지름 0.2cm의 구멍을 뚫었다. 신부 중위에는 단면 삼각형의 돌대가 1조 돌아간다. 신부 내에서는 지름 0.8cm 가량되는 단면 원형의 굽이 수착되어 있다. 신부 내부 일부에 금박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철제 굽에 금박을 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규격은 외경 3.3cm이다.

< 봉토 및 주구 >

8호 봉토와 주구 내에서는 많은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으며 연질, 도질제 호류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완전 파쇄 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봉토 내부에서 출토된 기대편만 복원이 되었다. 주구 주변에서 파수부완 1점이 확인되었다.

① 대부완(115)

도질제이며, 배신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며, 외면은 회색을 띠고,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배신부에 3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 중위에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하단에는 방형투창 3개를 뚫었다. 태토에는 장식,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8.4cm, 구경 11.1cm, 저경 6.2cm이다.

② 연질용(116)

연질제이며, 동체부만 남아 있고 바닥부분도 결실되었다. 외면은 암황색을 띠며, 내면은 명황색을 띤다. 내외면 표면박리가 심하다. 태토에는 장식, 석영, 운모가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잔존높이 4.0cm, 추정저경 7.3cm이다.

③ 연질 장동호(117)

연질계로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바닥이 결실되었으며, 동체상부는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외면은 암황색을 띠며, 내면은 명황색을 띤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에 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내면에는 박자흔과 지두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잔존높이 35.5cm이다

④ 도자(118)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배부는 직배, 인부는 직선화되다 선단에 이르러 만곡한다. 인부선단에 목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5.0cm이다.

⑤ 파수부완(119)

도질계의 파수부완으로 완형이다. 소성은 양호하며,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동체하부에는 바닥과의 접합흔이 잔존하며 횡방향 깎기로 정면하였다. 파수 단면은 장방형이다. 태토는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 11.1cm, 구경 10.2cm, 저경 5.4cm, 동최대경 12.4cm이다.

⑥ 대부장경호(120)

도질계이며, 소성시 내·외면으로 기포가 발생되어 있다. 구연부 1/3정도가 결실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연회청색을 띤다.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경부는 2줄의 돌대로 3단 구획하였으며 동상부에 약하게 1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대가에는 장방형 투창 4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16.4cm, 추정구경 10.0cm, 저경 7.7cm, 동최대경 11.1cm이다.

(9) 9호 석실 (도면 16, 도판 21-1)

구릉사면 말단부의 해발 69.5~70m의 위치하고 있으며,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하단 일부를 제외한 상부 구조물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주구와 봉토의 규모는 잔존길이 790cm, 잔존너비 794cm이다. 매장 주체부인 석실이 중심에 있고, 북동편 모서리에 소형석곽(배묘)이 위치한다.

자연경사면을 비스듬히 깎아 넓게 굴착하여 묘역을 조성한 후, 석실을 조성하면서 봉토도 함께 성토하였다. 북쪽단벽에서 확인되는 봉토는 크게 4개층으로 구분된다. 가장 상부는 황갈색의 부식토로 벽석 3단 높이에서부터 확인된다. 목탄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후대 경작의 영향으로 인해 망간층 등이 형성되어 있다. 그 아래는 회백색의 부식토로 점성이 강하고 목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최하단석 높이의 황갈색 부식토는 풍화암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탄을 일부 함유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목탄을 다량 함유한 황갈색 점토층(Ⅵ층)이다. 벽석을 놓는 과정에서 성토 후 부분적으로 재굴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토과정에서 벽석을 견고하게 축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집석 흔적으로 생각되며 반대편 장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봉토 내에는 집석과 옹관이 매장주체부의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집석은 60~75cm 규모의 부정형으로, 주변에서 대부호편과 완으로 추정되는 토기편 등이 일부 수습되었다. 옹관은 적갈색 연질 토기 2점으로 된 합구식이다.

주구는 석실의 북쪽으로 호상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서쪽은 생토면을 굴착하고, 북쪽은 봉토의 일부를 굴착하여 주구로 이용하였다. 단면형태는 'U' 자형이고, 폭은 70~120cm내외이다. 주구의 내부에는

20~30cm내외의 할석들이 뜬 채로 확인되는데, 봉토의 유실을 막기 위한 배치했던 호석들이 주구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구내 출토유물로는 완 1점과 파수부 연결용 1점이 있는데, 연결용의 경우 완파되어 출토되어 주구에서 행해진 의례와 관련된 유물로 생각된다.

- 9-1호 석실

가. 유구(도면 17, 도판 21-2·22~25)

평면형태 방향의 석실이다. 주축방향은 N9° E이며, 벽석이 3~4단 정도 잔존한다. 석실은 조성당시의 지표면을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L' 자상으로 굴착하였으며, 생토면을 바닥면으로 이용하였다. 내부토는 목탄을 포함한 황갈색 부식토이며, 상부의 교란층을 제외한 모든 내부토에서 단일토로 확인된다.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하였으며, 최하단석은 70~80cm의 대형 할석을 사용하고, 2단부터는 1단보다는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축조시에 벌어진 틈은 20cm내외의 작은 할석들을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지상식의 벽석을 고정하기 위해 벽석과 봉토가 동시에 충전된 것으로 보인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232cm, 너비 178cm, 잔존높이 84cm이다.

추가장은 3차례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차 시상은 서벽을 주축으로 15~25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마무리는 25~30cm의 할석을 세로 방향으로 구획하여 시상을 마련하였다. 1차 시상대의 상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완 1점, 도자 1점이다. 유물이 확인된 1차 시상대의 동쪽으로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석실 전면을 채운 것이 확인된다. 2차 시상대는 서벽을 주축으로 1차 시상대보다 넓게 마련되었다. 시상석은 15~25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불규칙적으로 채워 넣었으며, 3단으로 단을 세워 경계부를 형성하여 시상대의 구획과 무너짐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시상대는 석실의 중앙부에 형성되었으며, 동쪽 경계는 2차 시상석의 동쪽 경계부와 일치한다. 시상대의 경계가 가장 모호하나 중앙부에 유물이 집중되어 있고, 단 차이가 뚜렷해 독립된 시상대로 추정된다.

유물은 북벽과 서벽에 인접하여 출토되었으며, 2차 추가장의 부장유물과 구분이 어렵다.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 1점, 단경호 1점, 연결용 2점, 대부완 1점, 개2점, 철겸 1점, 철판 1점, 대각편 1점이다.

연도와 묘도는 후대의 교란과 삭평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벽 동편의 입구부로 추정되는 문지방석으로 보아 위치추정은 가능하다. 문지방석 위에는 벽석과 방향을 달리하는 대형 할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폐쇄석으로 보인다.

문지방석 아래에는 배수구가 확인된다. 먼저 수혈을 파고, 양쪽으로 10cm 내외의 할석을 가로로 세워 쌓은 후 덮개석을 올린 구조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나. 유물

석실 내에서 적갈색 연결용 1점이 출토되었으나 완파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출토위치 9).

① 개

121(출토위치 1)은 드림턱 일부가 결실된 도질 개로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신부는 반구형으로 드림은 약간 내경한다. 개신의 외·내면은 부분적으로 녹갈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었으며, 산화박리되었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개신 상부에 삼각집선문 1열을 돌리고 그 아래에 동심원문(지름 0.6cm)을 압인하였다. 색조는 회갈색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규격은 높이 6.0cm, 구경 11.6cm, 꼭지

경 2.3cm이다.

122(출토위치 5)는 도질제의 완형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암갈색 자연유가 묻쳐 있다. 외면은 암회색으로 추정되나 표면박리가 심하여 황회색을 띤다. 내면은 회청색을 띠며, 흑반이 전체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개신상부에는 점토가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구연 내측에는 짙흔이 잔존한다. 대부완(**123**)과 set로 추정된다. 규격은 높이 7.5cm, 구경 15.0cm, 꼭지경 2.1cm이다.

② 대부완(**123**, 출토위치 4)

도질 대부완으로 대각이 1/3정도 결실되었다. 소성은 양호하며, 외면은 회색, 내면은 일부 암회색을 띤다. 구순부 직하에 굽은 침선이 1조 돌아간다. 동체부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는 장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구연단 내측에 이기재로 쓰인 짙흔이 잔존한다. 규격은 12.6cm, 구경 16.2cm, 저경 9.3cm이다.

③ 단경호(**124**, 출토위치 2)

도질 단경호로 완형이다. 회색을 띠며, 동체하부와 바닥은 황회색을 띤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동체상부에는 2조의 침선을 돌렸으며, 동체하부는 깎기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14.8cm, 구경 10.8cm, 저경 8.3cm이다.

④ 부가구연대부장경호(**125**, 출토위치 3)

도질제의 부가구연대부장경호로 구경부가 1/4정도 결실되었다. 소성은 보통이며, 구연단 내측과 동체상부, 대각에는 자연유가 산화박리되었다. 외면은 회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박자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경부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동체상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각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단에 장방형 투창 6개를 뚫었다. 태토에는 장식과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26.4cm, 구경 16.6cm, 저경 14.5cm, 동최대경 20.5cm이다.

⑤ 연질옹(**126**, 출토위치 7)

연질제이며, 동체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지만 거의 완형이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암황색을 띠며,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회흑색을 띤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동체부는 격자타날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과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규격은 높이 14.2cm, 구경 13.0cm, 저경 8.5cm이다.

⑥ 철검(**127**, 출토위치 8)

선단부와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부와 인부는 직립하다가 선단부로 갈수록 만곡한다. 신부 단면은 이동면 삼각형이며, 기부는 'ㄴ'자로 접어올린 형태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16.5cm, 폭 2.1cm이다.

⑦ 철판(**128**, 출토위치 9)

시상바닥에서 수습된 철제품이다. 일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얇은 철판으로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한쪽 끝단부분이 희미하게 말려 있다. 신부 끝단에 목질흔이 일부 잔존한다. 과대의 부속구로 생각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9.2cm, 폭 2.5cm이다.

⑧ 대각편(129, 출토위치 10)

시상바닥에서 수습되었다. 도질제로 대각 말단부만 잔존한다. 소성은 보통이며 회색을 띤다. 전면 회전 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세사립과 장석이 혼입되었다. 장방형 투창 4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3.5cm, 저경 13.7cm이다.

〈내부 수습〉

① 도자편(130)

벽석 근처에서 수습되었다. 신부 끝부분과 병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와 병부에 부분적으로 목질흔이 잔존한다. 규격은 잔존길이 7.0cm, 인부폭 1.4cm, 병부폭 1.2cm이다.

② 대부호편(131)

도질제이나 소성이 불량하여 와질에 가깝다. 동체와 대각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회백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는 박자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4개가 관찰되지만 모두 6개로 추정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13.4cm, 저경 19.7cm이다.

③ 광구소호 편(132)

도질제이지만 소성이 불량하여 표면이 다소 마모되었다. 동체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동체상부에 2조의 돌대를 돌렸다.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5.0cm, 저경 4.6cm이다.

④ 배(133)

소성상태가 불량한 와질제이다.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회백색을 띠나 암회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4.2cm, 구경 12.0cm, 저경 7.0cm이다.

〈 봉토 · 주구 출토 〉

① 철촉(134)

봉토 내부에서 수습된 완형의 철촉으로 수화가 심한 편이다. 촉신은 평면 사두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볼록렌즈 형이다. 頸部는 단면 방형이다. 규격은 길이 7.0cm, 신부 최대폭 약 1.7cm, 신부 두께 약 0.5cm, 頸部 폭 약 0.6×0.6cm이다.

② 완(135)

도질제이나 소성이 불량하여 와질에 가깝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표면박리가 심한 부분은 회백색을 띤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에는 장석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규격은 높이 10.0cm, 구경 13.0cm, 저경 9.0cm이다.

③ 배(136)

도질제로 소성은 양호하며,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외면은 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암녹색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태토에는 장석과 운모가 혼입되었다. 바닥에는 짙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배신 외면에 6조의 침선을 시문하였다. 규격은 높이 3.5cm, 구경 9.1cm, 저경 5.8cm이다.

④ 합구식 옹관(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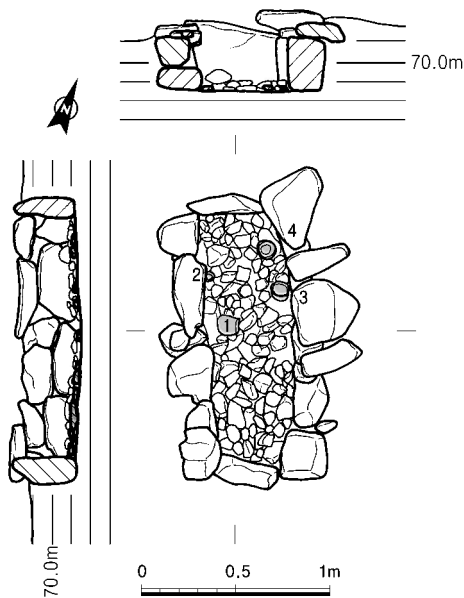
두 점 모두 반파된 채 출토되어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한 편이다. 전체 기형의 복원이 불가능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소용은 적갈색 연질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표면 박리가 극심한 편이다. 외면은 구연 직하에서부터 타날하여 정면하였다. 동체 상부는 종방향의 평행타날(요철단위 0.4cm)하였으며, 동 저부는 횡방향 평행타날 하였다. 동체 중위 이하에는 상부와 저부 타날이 중, 횡으로 겹치는 부분이 확인된다. 이 부분으로 보아 저부 타날후 상부 타날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저부에 지두 압흔이 뚜렷하게 잔존한다. 장식, 운모, 석영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색조는 외면은 밝은 황등색이며, 속심은 회흑색이다.

대용은 적갈색 연질로 동체 일부와 저부가 결실된 장동용이다. 내면의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구연단은 점토를 외측으로 접어서 마무리 하였다. 외면에는 구연단 직하부터 斜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4cm)하였으며, 저부에는 횡방향 타날흔이 잔존한다. 동체 중하위에 타날이 중복된 부분이 일부 확인된다. 내면에는 세선 횡타날(요철단위 0.2cm)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색조는 밝은 황등색이며 장식, 운모, 석영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소용이 잔존높이 22.5cm, 구경 20.0cm이며, 대용이 잔존높이 35.4cm, 구경 20.4cm, 동최대경 24.3cm이다.

- 9-2호(배장막)

가. 유구(도면 18, 도판 26)



9-1호 석실의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며, 주축방향 N22° W인 소형석곽이다. 단벽은 한매의 벽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벽은 폭 10cm내외의 할석을 세로쌓기 하였다. 2단의 벽석이 잔존하는 양장벽은 1단에서 세로쌓기하고, 2단은 가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50cm, 깊이 34cm이다. 수혈선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9호분의 봉토를 쌓는 과정에 동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시상은 5~10cm내외의 천석을 석곽 전면에 깔았다. 출토 유물은 연질옹 1점, 대부장경호 1점, 대부완 1점, 소형병 1점이다.

나. 유물

① 대부완(138, 출토위치 3)

완형의 도질 대부완이다.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자연유가 표면에 흡착되어 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배신 상위에 2조의 침선을 깊게 돌렸으며, 하위에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침선이 1/2가량 돌아간다. 대각부에는 소형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단부에 초본류흔이 확인된다.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며, 색조는 진회색이다. 규격

圖面 18. 9-2호 석곽 (1/40)

은 높이 8.2cm, 구경 8.6cm, 저경 5.0cm이다.

② 소형병(139, 출토위치 2)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인 도질 소형호이다.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으며, 밝은 녹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이 잔존한다. 동체부는 세침선을 2조씩 돌려 2단 구획하고 그 아래에 지름 0.5cm의 원권문을 찍어 시문하였다. 바닥면은 이기재로 사용한 짙흔이 잔존하며 점토괴에서 떼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밝은 회색이며 장식, 운모가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 5.0cm, 구경 4.0cm이다.

③ 부가구연대부장경호(140, 출토위치 4)

소성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완형의 도질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이다. 구연부의 한쪽이 약간 찌그러져 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게 정면하였으며, 동부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이 잔존한다. 동체와 대각 접합부는 회전 깎기로 마무리 하였다. 각부에는 소형의 방형 투창 4기를 뚫었으나 간격은 불규칙적이다. 극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며, 색조는 회색이다. 규격은 기고 17.0cm, 구경 11.9cm, 저경 9.5cm, 동최대경 13.3cm이다.

④ 연질옹(141, 출토위치 1)

구연 일부가 결손된 적갈색 연질옹으로 표면박리가 극심하다. 동체부는 바닥면에서 동체 상부까지「<」자상으로 촘촘하게 중복하여 평행타날(요철단위 0.4cm)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사방향 평행타날 흔이 관찰된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색조는 밝은 등색이며,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 12.5cm, 구경 12.5cm, 동최대경 13.2cm이다.

(10) 10호 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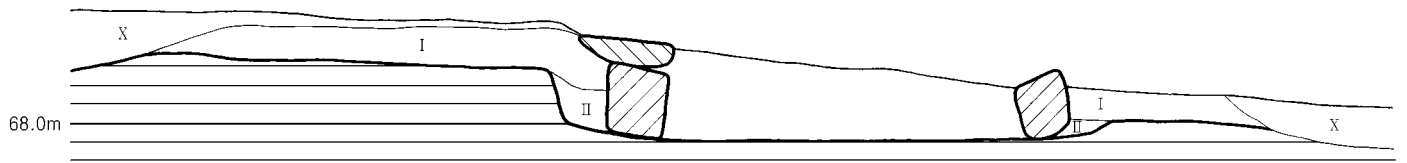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9·20, 도판 27~29)

구릉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는 방형의 석실분이다. 해발 68~69m사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4°E로 등고선과 평행한다. 북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9호 석실분이 위치한다. 경작지 이용과 홍수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벽석으로 이용되었던 할석들이 석실 안으로 무너지거나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으며, 주구와 호석은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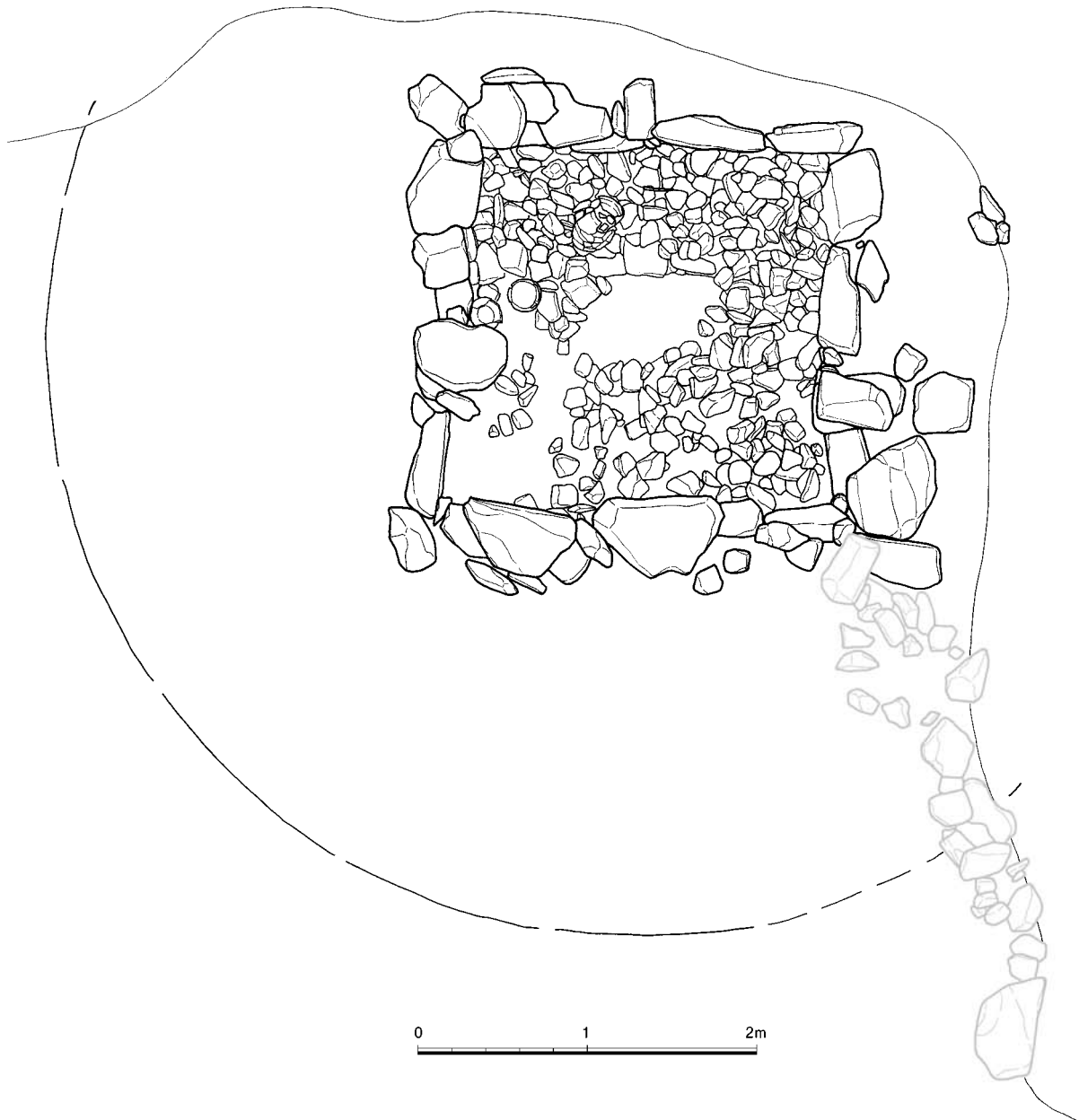
봉토는 대부분 삭평되어 일부만 확인되는데, 잔존범위는 지름 440cm 정도이다. 봉토의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연도부 바로 앞을 지나 남서쪽까지는 석열이 확인된다. 이 석열의 방향이 봉토를 파괴한 홍수로 추정되는 유수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입구부 시설의 일부가 홍수에 의해 파괴되어 쓸려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묘광은 벽석의 1단 깊이로 비스듬히 판 뒤, 바닥을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304cm, 너비 292cm, 깊이 48cm이다. 입구부는 남단벽의 좌측편에 위치하며, 일부가 파괴되어 잔존길이는 60cm 정도이다. 입구부에는 폐쇄석으로 보이는 60cm의 할석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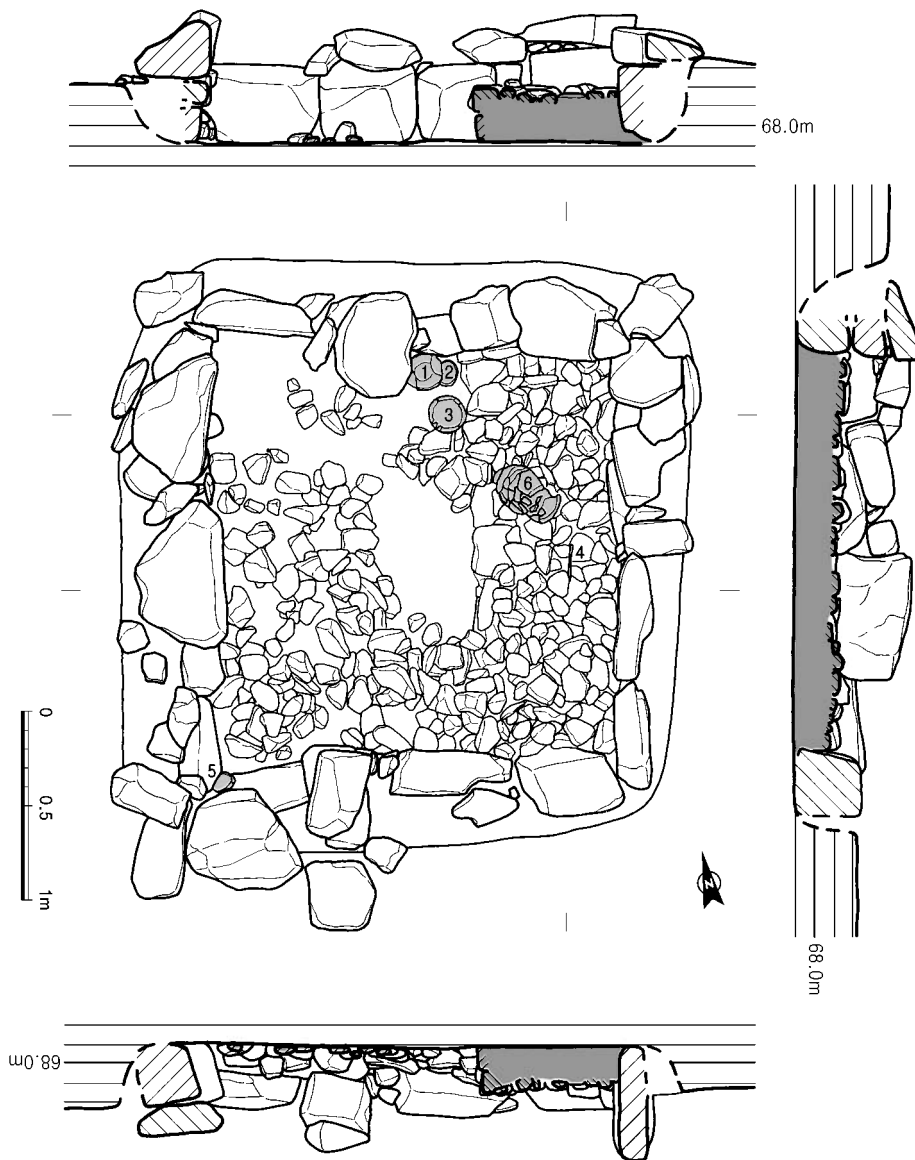
석실은 평면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04cm, 너비 210cm, 벽석의 잔존높이는 40~68cm이다. 벽석의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북장벽과 동·서단벽의 일부만이 2단정도 잔존한다. 벽석은 너비 50~70cm, 두께 2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였는데, 1단은 세로쌓기하였고, 2단부터는 봉토의 성토와 함께 가로쌓기 하였다.



- X. 교란층
- I. 명황갈색 사질점토+망간 집적
- II. 암황갈색 사질점토+망간 부분 집적



圖面 19. 10호 석실 봉토 (1/40)



시상은 주축방향과 나란하게 동장벽에 붙여 설치하였는데, 길이 20cm정도인 천석을 2단정도 깔아 마련하고 사이에 작은 천석을 채웠다. 시상대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80cm, 높이 20cm이다. 시상과 서장벽 사이에 작은 천석들이 무질서하게 놓여있는데, 추가장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시상대의 상부에서 부가구연 대부장경호 1점과 철도자 1점, 시상대 북서편에서 부가구연 대부장경호 1점과 연질옹 1점, 도질완 1점, 입구부와 서장벽의 모서리에서 연질옹 1점이 확인되었다.

圖面 20. 10호 석실 (1/40)

나. 유물

① 완(142, 출토위치, 2)

구연부가 절반가량 결실되었으며, 소성이 불량하여 표면박리가 극심한 편이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배신 내면에 물레 성형과정에서 생긴 요철이 관찰된다. 바닥면은 거칠게 마무리하여 전체적으로 말각 평저에 가깝다. 색조는 회색이며 운모,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높이 4.9cm, 구경 13.2cm이다.

② 연질옹(143, 출토위치 3)

구연부 1/2가량과 저부가 완전히 결실된 적갈색 연질옹이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나 외·내면의 정면

기법이 부분적으로 잘 남아있다. 구연단은 마모가 극심한 편으로 외측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간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동체는 먼저 도치해서 동체 중위까지 사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4cm)한 후 정지하여 구연 직하부터 종방향 평행타날 하였다. 동체부 중위는 한 폭 가량 횡방향타날하여 부분적으로 격자상의 타날문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동체 중위까지는 종방향 평행타날문이 확인되나 하위는 횡방향 평행타날문이 확인된다. 동체 하위는 지두압인으로 인한 요철이 심하다. 저부는 결손되어 전모를 알 수 없으나 말각평저로 추정된다. 색조는 밝은 등색이며,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19.1cm, 복원구경 17.4cm이다.

③ 부가구연대부장경호

2점 모두 도질소성품으로 완형이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144는 소성상태가 양호하며,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있다. 구연부에 지름 0.4cm가량의 원권문을 2열로 찍어서 시문하였다. 경부에 2조의 돌대를 돌리고 동상위에 각기 2조씩의 침선을 돌렸다. 동체부 중하위에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 하단에 각각 2조씩 방형 투창을 뚫었다.

145는 구연부가 일부 결손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경도가 다소 약한 편이다. 경부에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동체 상위에 희미하게 1조의 돌대를 돌렸다.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대각부에는 등간격으로 4개의 삼각형 투창을 뚫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144	1	대부장경호	29.2	17.3	14.2	21.2	진회색	양호	완형.
145	5	대부장경호	26.2	16.6	14.2	20.6	회색	양호	완형. 삼각형투창.

④ 연질옹(146, 출토위치 5)

잔존상태가 불량한 적갈색 연질옹이다. 저부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구연부는 일부 편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표면의 마모와 박리가 심한 편이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동체 상위는 사방향으로 평행타날 하였으며, 내면에 종방향의 내박자 흔이 잔존한다.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 격자상의 타날문이 확인되는데, 타날의 중복으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바닥면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며, 저부는 말각평저이다. 외면은 적갈색을 띠나 내면은 흑회색이다. 운모,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4.5cm, 저부 5.8cm, 구경 12.4cm, 저경 약 6.0cm이다.

⑤ 도자(147, 출토위치 4)

인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의 도자로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배부는 직배이며, 인부는 선단부 쪽에서 약간 만곡한다. 신부에 목제의 칼집흔이 잔존한다. 규격은 길이 16.8cm, 인부 폭 1.5cm, 인부 두께 0.3cm, 병부 두께 약 0.1cm이다.

(11) 11호 석실 (도면 21, 도판 30)

구릉 사면의 해발 75m선상에 위치하는 석실분이다. 북쪽으로 5m 떨어진 곳에 12호 석곽·13호 석곽·14호 석곽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5호분이 인접한다. 유구의 조성은 경사면의 일부분을 단면 완만한 ‘L’자

형태로 굴착한 뒤, 벽석 3단정도의 깊이로 묘광을 굴착하여 석실공간을 마련하였다. 잔존형태는 반원형으로, 원래는 원형이었으나 지형적 삭평으로 남동쪽 봉분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봉분의 잔존 직경은 남북 760cm, 동서 900cm로 타원형에 가깝고, 남아 있는 봉분의 잔존최대높이는 80cm이다.

봉분을 제거하자, 석실 11-1호와 부곽 11-2호가 확인되었다. 남쪽 봉토 끝단에 1~2단 정도의 1열의 길이 280cm정도의 석렬이 남아 있었으나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어 호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봉토와 관련된 유물은 북동쪽에서 연질옹 1점, 양이부호 1점, 도질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동쪽에서 대호편이 깨어져 흩어진 채로 확인되었고, 단각고배와 도질완이 1점씩 출토되었다. 남서쪽에서 부가구연대부장경호 1점, 연질옹 1점이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개 1점, 파수부완 2점, 통영기대 1점, 대호 1점이 출토되었다.

- 11-1호 석실

가. 유구(도면 22, 도판 31·32-1~3)

주축방향 N6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며,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230cm, 잔존너비 244cm, 깊이 54cm이다.

입구부는 모든 장단벽의 모서리부분이 촘촘히 맞물려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다른 석실들의 입구부가 대개 경사면의 낮은 쪽에 위치하는 점과 시상대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남동쪽 모서리 단벽이 입구부로 생각된다. 또한 시상석이 다른 벽처럼 가지런하지 않고, 일부분 비어있고, 그 빈 공간에 벽석이 놓여 있는데 아마도 입구부의 폐쇄석으로 보인다.

벽석은 20~35cm의 할석을 이용하여 4~5단 정도까지 가로쌓기하였고, 윗 벽석들은 30~50cm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네 벽의 모서리부분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태이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106cm, 벽석높이 116cm이다.

시상은 남-북방향을 주축으로 조성하였다. 1차 시상은 서장벽에서 44cm정도 떨어져 동장벽에 인접하여 조성되었다. 1차 시상의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74cm, 높이 32cm정도이다. 시상은 20~30cm정도의 납작한 할석을 2단으로 쌓아서 조성하였으며, 시상의 가장자리 돌들은 일직선이 되도록 구획하였다.

유물은 북동단벽 모서리에서 고배 2점, 유개고배 1점, 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동단벽에서 유개고배 4점, 고배 1점, 대부완 1점, 방추차 1점, 고배 배신부가 출토되었다. 시상 중앙부분에서는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2차 시상은 전체적인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100cm, 높이 20cm정도의 대체로 납작한 20~40cm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1~2단 정도 깔아 조성하였다. 유물은 동단벽·북장벽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유개고배 3점, 개 3점, 연질호 1점, 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① 고배

출토 유물은 부장위치에 따라 편의상 A, B, C의 세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 일단장방형투창고배 >

일단장방형 투창고배는 A군에서 3점, B군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표면은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신부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게 잔존한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 등 소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148은 구연부는 거의 유실되었으며, 대각부도 마모가 심해 도면복원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대각부에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함께 수습된 편들 중에 蓋로 추정되는 편들도 일부 확인되나 복원은 불가능하다.

150의 개는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으로 외연의 마모가 극심한 편이다. 거칠게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개 접합부분은 나무리가 정연치 못하다. 색조는 밝은 회색이며 석립이 육안으로 거의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정선된 태토이다.

151은 고배 배신부로 대각은 유실되었다. 출토 정황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대각을 떼어내고 고배(152)의 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하며,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배신부 내면에는 이기재흔이 잔존한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48	22	고배편	(7.4)	·	6.2	회백색	불량	잔존상태 극히 불량.
149	23	개	4.6	10.3	1.6	밝은회색	보통	완형. 중첩소성(진회색).
		고배	8.1	9.0	6.8	진회색	양호	완형. 장방형 투창 3개.
150	24,25	개	4.9	10.4	2.4	밝은회색	불량	부분결락. 마모 극심.
		고배	7.9	9.0	6.0	밝은회색	불량	완형. 장방형 투창 3개.
151	13	배신	(3.6)	8.6	·	진회색	양호	대각 파손.
152	12	고배	7.4	9.0	6.0	회색	양호	완형. 장방형 투창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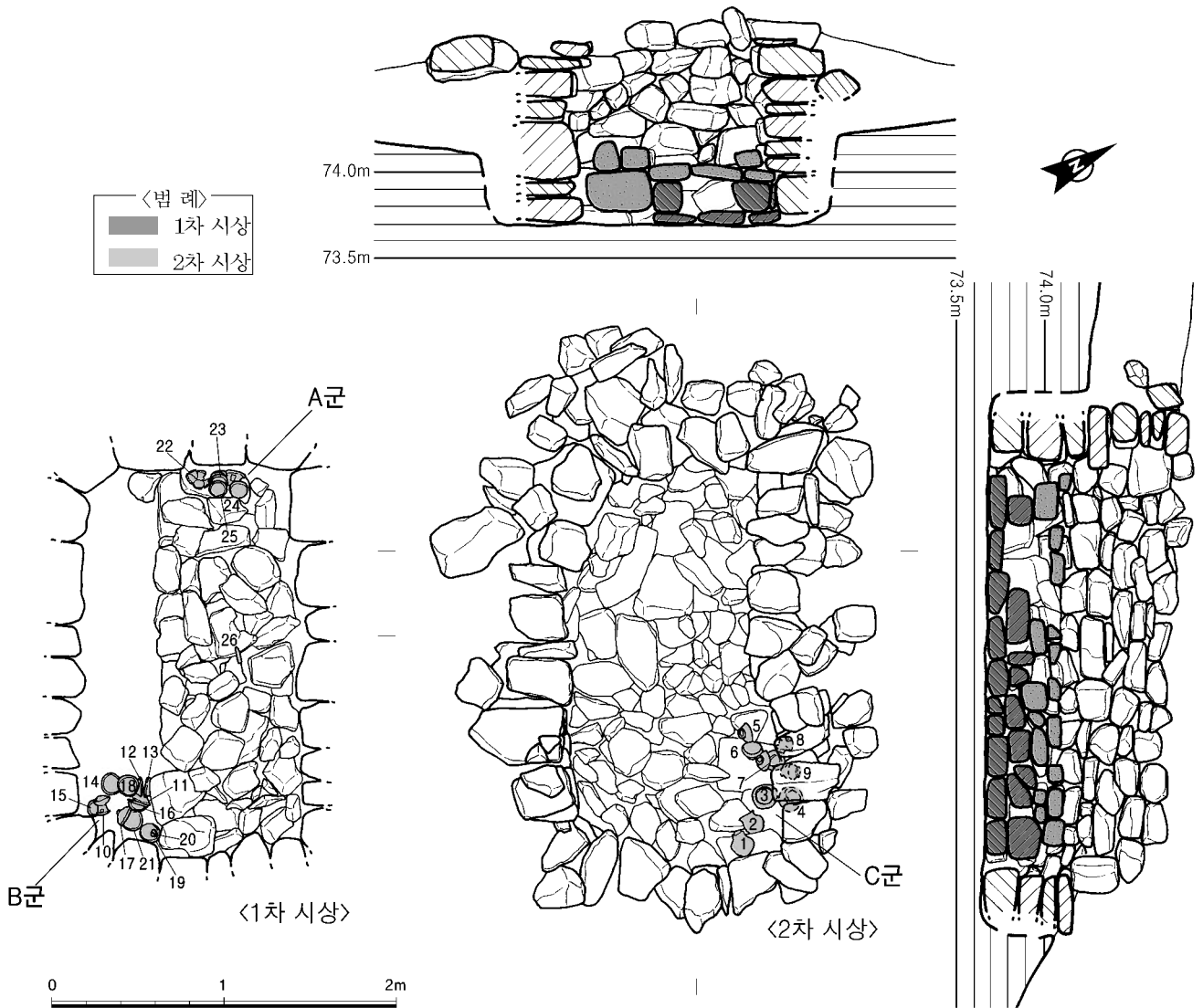
〈 이단투창고배 〉

B군에서 모두 4세트가 출토되었다. 대각에 상하 엇갈리게 방형의 투창을 3개씩 뚫은 형식이다. 대각의 투창은 대부분 크기가 불균등하고 나무리가 정연치 못한 느낌이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모두 중첩소성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53	10,15	개	5.2	10.8	·	회색	보통	완형. 중첩소성(진회색).
		고배	7.2	10.8	8.0	회색	양호	완형. 대각 휨.
154	14,18	개	4.3	11.0	2.0	회색	보통	완형. 중첩소성(적갈색).
		고배	8.3	8.8	6.7	암회색	양호	완형.
155	11,16	개	5.0	10.8	·	밝은회색	불량	완형.
		고배	8.9	9.4	7.8	회색	보통	완형. 경도 약함.
156	17,21	개	5.0	10.6	·	밝은회색	불량	완형. 마모 극심.
		고배	7.0	9.0	6.8	밝은회색	양호	구연단 유실. 단면 흑색.

〈 단각고배 〉

C군에서 모두 4세트가 출토하였다. 159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형의 도질 소성품으로 중첩소성하였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흑반이 침착되어 있다. 전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160의 신부 상단에 “井”(침선 폭: 약 0.1 cm)가 시문되어 있으며, 고배는 다소 거칠게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나무리가 정연하지 못하다. 각부에는 3개의 장타원형의 투창을 투공하였다. 밖에서 안쪽으로 투공하였으며, 밀려진 점토는 그대로 잔존한다.



圖面 22. 11-1호 석실 (1/40)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57	5,6	개	5.2	11.0	5.0	밝은회색	양호	완형.
		고배	5.2	10.2	6.0	회색	양호	완형. 자연유 흡착.
158	7	개	5.4	10.6	3.7	암회색	양호	완형. 기포 다량 형성.
		고배	4.8	9.6	6.2	암회색	양호	완형. 기포 다량 형성.
159	8	개	4.8	11.8	4.6	밝은회색	불량	배신1/2잔존.
		고배	6.1	10.4	6.8	회색	불량	완형. 마모 극심.
160	9	개	4.3	10.4	5.5	밝은회색	양호	완형. 기포 소량. 침선문.
		고배	4.9	9.4	4.6	회색	양호	완형. 장타원형 투공 3개.

② 대부원(161, 출토위치 19)

도질 소성의 완형 대부원이다. 배신부가 장타원형으로 찌그러져 있다. 약간 거칠게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배신부 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히 잔존한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하단에 3개의 투

창을 뚫었다. 투장은 방형으로 형태는 정연하지 못하다. 대각 단부에 약하게 1조의 요철이 돌아간다. 색조는 밝은 회색이며, 장식과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 8.6cm, 구경 9.0~10.9cm, 저경 7.0cm이다.

③ 단경호

C군에서 모두 2점이 출토되었다.

162는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인 도질제품이다. 꼭지부분이 약간 찌그러졌으나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고 내측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163는 구연부가 극히 일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구연단 내측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가며, 동체 상부까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동체 상부에 1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동체 1/4 이하로는 거칠게 회전물손질하였으며, 정면정도에 따라 상부와 구분된다. 저부는 각이 완만한 말각평저로 내부에는 지두흔이 잔존한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164은 구연부가 1/2가량 유실되어 도면복원 하였다.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으며, 동체 하부(1/3가량)는 성형과정에서 횡방향 굽기하여 정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식, 운모, 석영 등의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162	3	고배	5.7	12.0	6.0	.	진회색	양호	구연 일부 결실.
163	2	단경호	14.0	9.8	.	14.7	밝은회색	양호	구연 일부 결실.
164	1	단경호	14.2	11.6	약6.8	17.0	밝은회색	양호	구연부1/2유실.

④ 연질옹(165, 출토위치 4)

동체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인 적갈색 연질옹이다. 부분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동체부는 전체적으로 사방향 평행타날(동체 상부 요철단위 0.4cm, 동체 하부 요철단위 0.3cm)하였다. 부분적으로 격자타날문도 보이나 시문구에 차이인지 시문방향의 차이인지 불확실하다. 저부 성형시 점토를 동체부 쪽으로 밀어 올려 동체 하단 표면에 요철이 생겼다. 평저이며, 바닥면 내부는 중앙부분이 박리되었으나 둘레 부분에 지두흔이 잔존한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규격은 높이 14.3cm, 구경 13.2cm, 저경 9.4cm이다.

⑤ 방추채(166, 출토위치 20)

표면이 약간 마모되었으나 완형인 연질 방추채이다. 단면 편육각형이다. 공경은 0.8cm이며, 투공 후 정연히 마무리하였다. 장식, 석영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규격은 폭 4.8cm, 두께 3.8cm이다.

⑥ 도자(167, 출토위치 26)

1차 시상바닥 중간부분쯤에서 수습되었다. 전체적으로 결실이 심하며, 수화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신부와 병부 연결부분에 백화수피흔이 잔존하며, 병부 목질흔이 확인된다. 규격은 잔존길이 12.3cm, 인부폭 1.4cm, 병부폭 0.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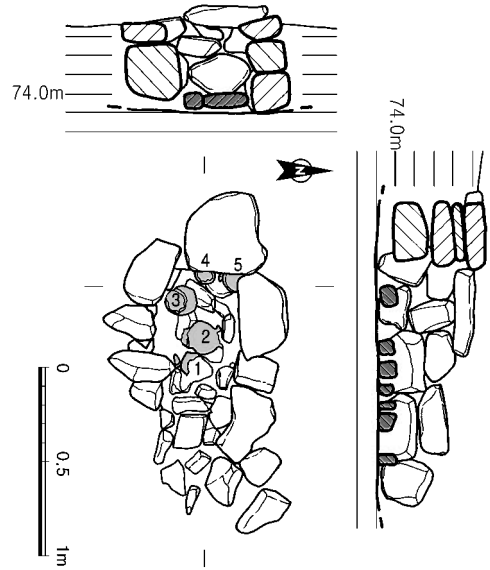
- 11-2호 (배묘)

가. 유구(도면 23, 도판 32-4·5)

11-1호의 서쪽에 마련된 수혈식석곽으로 11-1호의 배묘이다. 봉토의 성토과정에 벽석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작으로 장벽일부와 동쪽 단벽이 유실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170cm, 너비 100cm, 깊이 50cm이며, 주축방향은 N2°W이다.

벽석은 25~46cm 정도 되는 큰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로 네 벽을 축조하고, 남장벽 일부에는 26~34cm 정도 되는 할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내부 바닥에는 10~20cm 정도 되는 납작한 할석을 1벌 깔아서 상면으로 이용하였다. 잔존길이 140cm, 너비 36cm, 높이는 10cm이다.

유물은 서단벽쪽으로 연결용 1점, 대부장경호 1점, 도질호 1점, 유개고배 2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23. 11-2호 석곽 (1/40)

나. 유물

① 일단투창고배

개는 두 점 모두 동형품이나 문양의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168은 부분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배신부의 꼭지 아래에 2조의 침선을 돌리고 내측에 삼각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문 안에 사방향으로 3조의 침선을 시문하였다. 그 아래에 지름 1.2cm 가량의 반원권문을 찍었다. 배신 중위에 약한 돌대선이 1/2 가량 돌아간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을 띠지만 내·외면의 소성시 중첩된 부분은 진회색을 띤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석영 등 굵은 사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169는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배신 내면에 녹색 유리질이 다량 형성되어 있으며, 박리도 심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꼭지 바로 아래에 2조의 극세침선을 횡으로 돌리고 그 안에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문 안에 사방향으로 6개의 침선을 새겨 넣었다. 그 아래에 지름 약 1.0cm(침선 폭 약 0.1cm)의 반원권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인 시문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문양대 하위에 희미한 돌대선이 2회 가량 돌아간다. 색조는 회색이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었다.

고배는 두 점 모두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완형품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고, 배신 내부에 물레흔이 뚜렷이 잔존한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석영 등 굵은 사립이 소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68	5	개	5.9	12.1	2.1	밝은회색	양호	완형.
		고배	7.6	9.2	6.2	회색	양호	완형.
169	4	개	6.5	13.0	2.1	회색	양호	부분결실. 168과 유사.
		고배	6.9	9.6	6.6	진회색	양호	완형. 기포형성. 내면 적갈색.

량 혼입되어 있다. 168은 대각에 3개의 방형 투창을 뚫었으며, 단부에 1조의 요철이 약하게 돌아간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나 대각부에 부분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169는 대각에는 장방향 투창 3개를 뚫었으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다. 색조는 배신 내면은 적갈색, 외면은 진회색, 대각부는 회백색을 띤다.

② 도질호(170, 출토위치 3)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까운 연질용이다. 구연부가 약간 굽어져 있으며, 저부는 평저로 바닥 중앙부분이 약간 함몰되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비교적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동체 내부에는 물레질에 의한 요철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동체 외면의 하단은 횡방향으로 깎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석영, 장식, 운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회백색이다. 규격은 높이 19.2cm, 구경 14.4cm, 저경 9.4cm이다.

③ 대부장경호(171, 출토위치 2)

소성상태가 불량하며, 구연부는 모두 결실되었고 대각부도 1/3가량만 잔존한다. 표면의 박리와 마모가 심한 편이다. 구경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동체부는 약하게 2조의 돌대를 돌렸다. 동체 하단은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겨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약한 요철이 잔존한다. 대각 집합 후 동체 바닥면은 회전목리로 마무리하였다. 대각에는 7개의 장방형 투창을 뚫었다. 전체적으로 정연하게 회전물손질하였고, 동체 내부에는 거칠게 물손질 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지압흔이 잔존한다. 색조는 밝은 회색이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17.8cm, 저경 12.0cm, 동최대경 15.0cm이다.

④ 연질용(172, 출토위치 1)

잔존상태가 불량한 적갈색 연질용이다. 부분적으로 결실이 심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표면은 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 관찰이 어렵다. 석영,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규격은 높이 11.8cm, 구경 12.8cm, 저경 약 6.4cm이다.

< 봉토출토유물 >

① 단각고배(173)

도질제로 표면에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하다.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장식, 석영, 운모 등이 다량 혼입되었다. 배신에는 3조의 약한 돌대를 돌렸으며,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소형 장방형 투창을 3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5.6cm, 구경 9.6cm, 저경 5.6cm이다.

② 양이부원저단경호(174)

소성상태가 양호한 완형의 도질 양이부호이다. 구연단 내측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가며, 외측에도 약하게 1조의 요철이 돌아간다. 동체 중위 이상은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외면의 동체부 중위 이하는 회전목리로 최종물손질 하였으며, 사방향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내면에도 사방향 평행타날흔이 잔존하며, 저부 부분은 지두흔이 뚜렷한 편이다. 동체부에 각기 1조씩의 돌대를 돌려 5단 구획하고 가운데 3단에 요철단위가 불분명한 파상문을 2조씩 시문하였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고사리형 파수는 거의 대칭되게 2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진회색을 띠나 저면은 소성시 환원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백회색을 띤다. 중첩소성의 가능성이 높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높이 21.6cm, 구경 17.4cm, 동최대경 22.4cm이다.

③ 호(175)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한 호로 도면복원하였다. 동체부가 1/2가량 결실되었으며, 구연부 편이 일부 잔존하지만 도면복원은 불가능하다. 소성은 불량한 편으로 색조는 황회색에 가까우며,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동체 상부에 2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 하위에서 저부까지는 종방향 격자타날흔이 관찰되지만 마모에 의해 희미하다. 동체 내부 상위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정연하지 못하다. 그 하위는 사방향으로 중복된 평행타날(요철단위 0.3cm)흔이 잔존한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까우며, 동체부는 한쪽이 편평하게 약간 찌그러져 있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27.1cm, 동최대경 30.4cm이다.

④ 부가구연대부장경호(176)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장경호이다. 구연부는 1/2가량이 결실되었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구연 직하에 1조의 침선이 돌아가며, 경부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동체부 내면 중위 이하에 사방향 평행박자흔이 일부 잔존한다. 대각부에 7개의 장방형 투창을 뚫었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27.5cm, 구경 15.5cm, 저경 16.0cm이다.

⑤ 대호(177)

대형 호로 완전히 파쇄되어 봉토에 분산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양상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깨트려서 흩어 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대의 파괴에 의해 봉토가 결손되면서 호의 편도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구경부는 1/2가량 복원되나 동체부는 결실된 부분이 많아 도면복원 하였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지두흔과 박자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속심은 적갈색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63.5cm, 구경 52cm, 잔존최대경 83cm이다.

⑥ 개(178)

도질제로 1/2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에 상하로 1조씩 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3개를 1조로 다침선문(6치구, 요철단위 0.1cm)을 시문하였다. 색조는 진회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을 띤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4.5cm, 구경 13.6cm이다.

⑦ 연질호 구연부 편(179)

연질호의 구연부 편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구연일부만 복원 가능한 상태로 도면복원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전물손질 하였으나, 외면에 종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4cm)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요철이 뚜렷하다. 색조는 밝은 등색이며, 석영,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8.5cm, 구경 19.6cm이다.

⑧ 도질완 편

180은 도질제 완의 편으로 구연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구연아래부터 4조의 돌대가 뚜렷하게 돌아가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부분적으로 유리질이 다량 침착되어 있다. 색조는 청회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을 띤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5.2

cm, 구경 15.8cm이다.

181은 도질소성의 소형 완으로 신부가 1/2가량 유실되었다. 표면은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며, 녹색 황색 유리질이 다량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 하단은 깎기로 마무리 하였으나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요철이 심하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이기재로 사용한 짚흔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에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잔존한다. 전체적으로 청회색을 띠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5.2cm, 구경 7.3cm이다.

㉑ 파수부완

182는 도질제 파수부완으로 일부편만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단면 월형의 파수가 1개가 부착되었으나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동체 하단은 횡방향 깎기로 마무리하였다. 바닥면은 요철이 심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잔존한다. 색조는 밝은 회색을 띠며 장식, 운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규격은 높이 9.4cm, 구경 11.6cm, 저경 9.0cm이다.

183은 도질제 파수부완으로 구연부와 저부편만 잔존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동체 하단은 회전 깎기로 마무리하였다. 저부는 평저이며, 중앙부분이 약간 오목한 편이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구연부 잔존고 5.3cm, 구경 9.4cm, 저부편 잔존고 1.9cm, 저경 약 6.0cm이다.

㉒ 통형기대(184)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통형기대이다.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표면박리가 극심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녹색갈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수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구연단 외측에는 요철이 1조 돌아간다. 동체 상부는 모두 결실되고 각부와 연결되는 하단부만 잔존한다. 각 단은 2조씩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고 있으며, 각부의 최하단을 제외하고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뚫었다. 문양은 최하단을 제외하고 폭 0.1cm가량의 침선으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석영,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밝은 회갈색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5.2cm, 23.9cm, 구경 19.6cm, 저경 29.8cm이다.

㉓ 연질옹(185)

소성상태가 양호한 연질옹의 저부이다. 구연부와 동체상부가 결실되었다. 표면은 박리가 극심하다.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뚜렷하다. 외면은 진회색, 내면은 밝은 갈색에 가깝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 석영 등의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잔존높이 5.9cm, 저경 약 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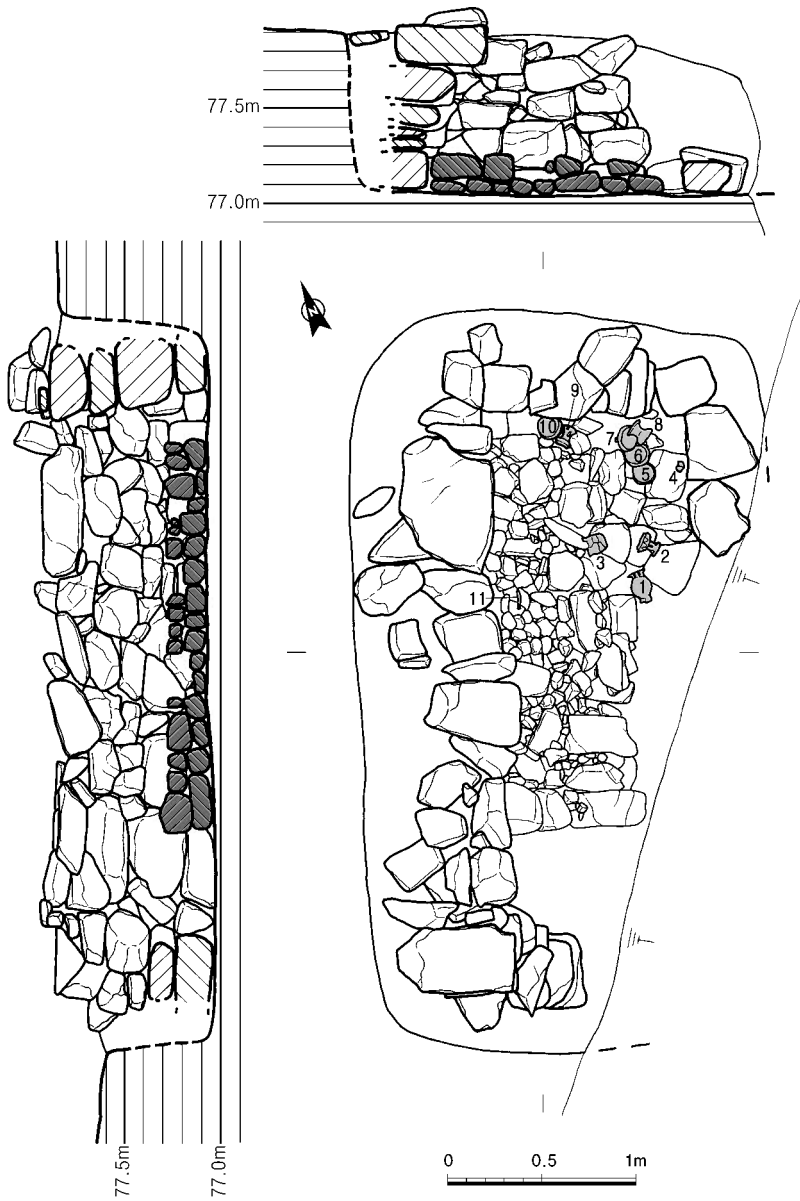
㉔ 대호(186)

소성 상태가 양호한 도질제 대형 호이다. 구연단과 호 저면이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외면에는 박리되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목리조정흔이 관찰된다. 일정간격으로 약한 침선이 동체에 돌려져 있다. 내면에는 동체 하부를 중심으로 박자흔이 남아 있으며, 구경 내부에서는 목리조정 후 물손질흔이 뚜렷하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내·외면은 회갈색이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규격은 잔존높이 48.7cm, 잔존구경 22.0cm, 동최대경 44.2cm이다.

(12) 12호 석곽

가. 유구(도면 24, 도판 33·34-1.2)

구릉의 남동쪽 사면부 해발 77m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2.5°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북쪽으로 12호 석곽, 13호 석곽이 인접해 있다. 경작지와 현대건축물 조성 등으로 남북단벽의 일부와 동장벽이 유실되었다.



묘곽은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고 바닥을 정지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388cm, 잔존너비 220cm, 깊이 84cm 정도이다. 벽석은 20~65cm가량의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하였으며,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사이의 틈을 채웠다. 서장벽과 남북단벽은 토압으로 인해 윗벽석으로 갈수록 내경한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4cm, 너비 132cm이다.

시상은 남쪽 단벽에서 50여cm 떨어진 곳에 25~40cm가량의 큰 할석을 둘러 경계를 만들고, 안쪽에는 작은 할석을 채웠다.

유물은 북단벽과 동장벽을 따라서 대부장경호, 고배대각편, 연질옹이 각 1점씩, 고배 3점, 개 4점, 도자편 2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24. 12호 석곽 (1/40)

나. 유물

① 고배

187은 도질이며, 완형이다. 소성은 보통이며, 전체적으로 회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개신 상부에는 꼭지접합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개신 중앙부에 6~7조의 침선을 시문

하였다.

188은 도질제이며, 구연이 부분적으로 결실됐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대각 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배신 외면에는 4~5조의 칩선을 지그재그로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한 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각 단에 장방형 투창 3개를 투공하였다. 대각접합흔이 잔존하며, 대각말단은 타원형으로 흰 상태이다.

189는 완형이며, 도질제로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 운모, 장석이 혼입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을 띠며, 내면 중앙부에 녹갈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기형은 단추형의 꼭지에 반구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로,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다. 중첩소성되었으며, 꼭지상부와 신부 상부에 짙흔이 일부 잔존한다.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꼭지 아래부터 드립턱 사이에 중방향으로 4조~6조의 칩선문이 13개 시문되어 있다.

190은 도질제이며, 배신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며, 배신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전체적으로 암회색을 띠며,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대각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태토는 운모, 장석 등이 포함된 정선된 태토이며, 대각 접합흔이 잔존한다. 배신외면에는 4~5조의 칩선을 지그재그로 시문하였다. 대각은 상·하단 교차하게 각각 3개씩 장방형 투창을 뚫었으며, 그 밑에 한 줄의 돌대를 돌렸다.

191, 192는 완형이며, 도질제로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와 운모, 장석이 혼입되었으며,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띤다. 기형은 단추형의 꼭지에 반구형의 신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개신 내면에 꼭지접합흔이 잔존한다.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 하였으며, 개신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꼭지 아래부터 드립턱 사이에 5조의 중칩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차 시문 후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시문하는 방법으로 5개를 하였다.

193은 도질제로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대각에는 중앙부에 2조의 돌대를 구획하고, 상단에는 장방형, 하단에는 방형의 투창을 3개씩 뚫었다. 전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배신 외면에는 5치구로 배신 하위부터 시작하여 상위로 그은 평행칩선문이 'V'자 형태로 시문되었다.

194는 고배 대각편으로 배신부가 완전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소성이 불량하여 와질에 가까우며, 색조도 회청색을 띤다.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대각은 중앙부에 2조의 돌대를 구획하고, 상단에 장방형, 하단에 방형의 투창을 각 3개씩 뚫었으며, 모든 투창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87	10	개	6.5	12.0	2.6	회색	보통	도질. 완형. 개신 칩선문.
188	9	고배	11.8	10.6	7.3	회색	양호	도질. 배신 칩선문.
189	7	개	6.0	11.8	3.3	회청색	양호	도질. 개신 칩선문.
190	8	고배	12.1	10.6	8.9	암회색	양호	도질. 배신 칩선문.
191	6	개	5.3	12.7	3.1	회청색	보통	도질. 개신 칩선문.
192	5	개	5.4	12.6	3.3	회청색	보통	도질. 개신 칩선문.
193	2	고배	11.6	10.8	8.5	회청색	보통	도질. 개신 칩선문.
194	4	대각편	(6.6)	·	9.5	연회색	불량	와질.

② 연질웅(195, 출토위치 3)

연질제로 구연과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소성은 불량이다. 태토에는 장식, 석영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저부와 동체하부는 암회청색을 띤다. 전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 하부는 횡방향 회전깎기로 마무리하였다. 저부는 평저로, 바닥면에 ‘*’가 새겨져 있다. 규격은 높이 22.0cm, 구경 12.3cm, 저경 6.0cm이다.

③ 대부장경호(196, 출토위치 1)

도질제의 대부장경호로 구연부가 1/4가량 결실되었으며,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으며, 동체부에 소형의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구경부는 완만하게 외경하며, 돌대를 2조와 1조로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확인된다. 대각은 흰 상태이며, 장방형 투창 7개를 뚫었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속심은 회색이다. 규격은 높이 20.4cm, 구경 10.9cm, 동최대경 13.3cm, 저경 9.4cm이다.

④ 도자 편

도자의 병부편 2개체가 확인되었다. 명세는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설명
			전장	신부폭	병부폭	
197	11	도자편	(6.1)	1.4	0.8	병부 목질흔 잔존. 刃區 명확.
198	11	도자편	(2.7)	1.2	0.6	결손 극심. 신부 목질흔 잔존. 背區 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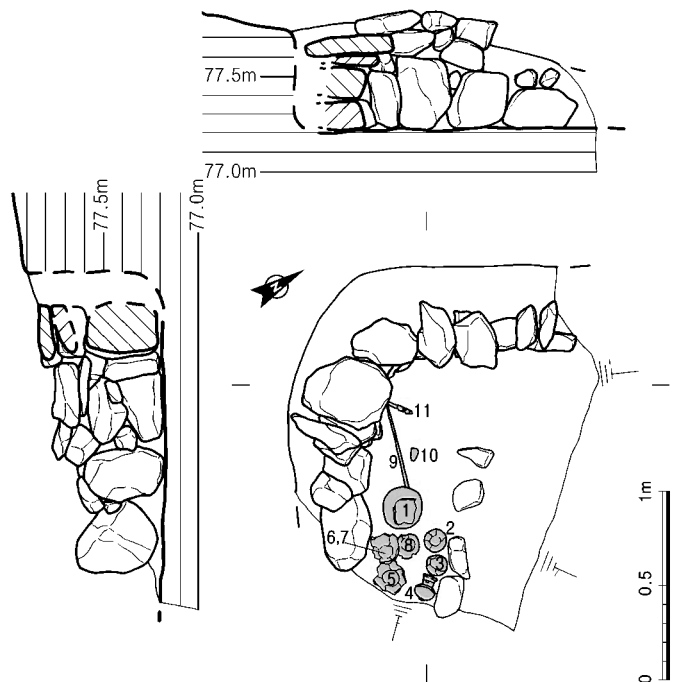
(13) 13호 석곽

가. 유구(도면 25, 도판 34-3~5)

구릉 남동쪽 사면 해발 76~77m사이에 위치하는 석곽묘이다. 유구의 모서리 부분만 잔존하여 장단축의 구분은 확실치 않으나, 다른 유구의 방향을 참고로 할 때 N30°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서쪽으로 12호 석곽묘, 북동쪽으로는 14호 석실묘가 인접해 있다.

묘광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뒤 바닥을 정지하였으며, 벽석은 30~40cm가량의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은 세로쌓기, 그 윗단부터는 가로쌓기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26cm, 잔존너비 108cm이다.

상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닥에 할석이 일렬로 열을 지어 확인되는데 관대로 사용된 것이 아닌



圖面 25. 13호 석곽 (1/40)

가 생각된다.

유물은 벽석에 인접한 생토면에서 확인되었으며, 대부완, 연질옹이 각 1점씩, 유개고배 2점, 대부장경호, 연질옹 저부편이 각 2점씩 출토되었다. 철기는 대도, 철부, 도자가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나. 유물

① 고배

모두 두 점이 출토되었다. 개는 두 점 모두 도질소성품으로 내면에 부분적으로 진녹색의 유리질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중첩소성흔이 뚜렷하다. 꼭지 상면과 내면에 부분적으로 이기재로 사용한 초본류흔이 잔존한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색조는 진회색을 띠며, 중첩된 부분은 갈색, 단면은 적갈색을 띤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고배는 소성이 불량한 편으로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으며, 배신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199**는 대각 하단에는 3개의 돌대를 돌리고, 상단에는 장방형 투창 2개를 뚫었다. 색조는 밝은 회색을 띠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200**은 배신부가 1/2가량 결실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대각부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하단에 각각 3개씩의 방형 투창을 뚫었다. 색조는 밝은 회색을 띠며,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199	3	개	5.2	11.2		진회색	양호	신부1/4결실.
		고배	8.5	10.4	6.8	회백색	불량	완형.
200	4	개	5.1	9.4		진회색	양호	완형. 신부 소형 기포 잠재.
		고배	10.7	10.0	8.0	진회색	불량	신부1/2결실.

② 대부완(201, 출토위치 2)

소성상태가 양호한 완형의 도질 대부완이다. 배신 내부와 외면에 부분적으로 진녹색의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표면박리가 확인된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대각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하단에 방형 투창을 각각 3개씩 뚫었다. 바닥에는 약하게凹凸이 돌아가며, 이기재로 사용한 초본류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회색을 띠며, 태토에는 석영, 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규격은 높이 9.0cm, 구경 10.9cm, 저경 5.8cm이다.

③ 대부장경호

202는 도질제로 구연부와 동체부 1/2가량이 결실되었다. 부분적으로 흑녹색의 자연유가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내·외면은 최종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는데 동체 하부에 횡방향의 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구경부 하단에는 6치구의 즐묘열점문을 시문하였다. 동체부 상단에는 1조의 돌대를 돌리고, 그 아래에 5치구의 즐묘열점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은 하단에 3개의 돌대를 돌리고 상단에 장방형 투창 6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색조는 외면은 진회색, 내면은 밝은 회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203은 완형의 도질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이다.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어 있으며, 구연내부와 동 상부에는 소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동체부에는 소형의 기포가 다량 형성되어 있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고, 동체 내부 하단에 사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3cm)흔이 잔존한다. 구연단 내측에는 요철

1조가 약하게 돌아간다. 구경부는 돌대로 2단 구획하여 상·하단에 각기 11치구, 13치구의 파상문을 조밀하게 시문하였다. 대각에는 하단에 2조의 돌대를 돌리고 상단에 제형 투창 6개를 뚫었다. 내·외면은 밝은 회색, 단면은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되어 있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202	5	대부장경호	(24.6)	·	16.0	21.0	진회색	양호	구연, 동체 1/2 결실.
203	1	대부장경호	34.2	19.7	17.0	23.8	밝은회색	양호	완형.

④ 연질용

모두 세 점이 출토되었으나 두 점은 파손이 극심하여 저부편만 잔존한다.

204는 적갈색 연질 용으로 동부 1/2과 저부가 완전히 결실되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마모가 심하여 정면기법을 관찰하기 어렵다. 구연단의 내측에 약한凹凸이 1조 돌아가며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동체 외면은 평행타날하였으며, 동체 하단은 횡방향 깎기로 마무리 하였다. 내면 상단은 부분적으로 내박자흔이 잔존하며, 하단은 횡방향 물손질로 마무리 하였다. 색조는 적갈색이며, 장식, 석영,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205는 파손이 극심한 평저 연질용 저부 편이다. 동체와 구연부 편도 잔존하지만 극히 일부만 남아 개체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면박리가 극심한 편이다. 동체 하단부에는 횡방향 깎기흔이 부분적으로 잔존하며, 동체 상부 내면에는 횡방향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은 흑회색, 단면은 밝은 갈색이다.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태토이다.

206는 연질용으로 저부만 잔존한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표면 관찰은 불가능하다. 저부는 말갈평저로 내면 중앙에 희미하게 지두흔이 확인되며, 그 둘레로 최종 물손질흔이 잔존한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밝은 황색을 띠며 장식, 운모가 소량 함유된 태토이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204	6	연질용	13.1	14.8	8.2	적갈색	연질	구연부 잔존.
205	7	연질용	(1.7)	·	8.6	흑회색	연질	저부편. 복원 불능.
206	8	연질용	(3.0)	·	6.1	밝은황색	연질	저부 편.

⑤ 대도(207, 출토위치 9)

부식이 극심하여 잔존상태가 불량한 대도이다. 인부 선단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완형이다. 인부는 단면 삼각형의 양인으로 직도이다. 병부는 부분적으로 목병의 흔적이 잔존하며, 단면 장방형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63.2cm, 인부 폭 약 3.0cm, 배부 두께 0.8cm, 병부 폭 약 2.0cm, 병부 두께 0.5cm이다.

⑥ 단조철부(208, 출토위치 10)

인부와 공부가 일부 결손되었으며, 銹化가 극심한 편이다. 肩部가 없는 일자형이다. 銚部의 형태는 편타원형으로 내측에 木柄의 흔적이 관찰된다. 산화가 극심하여 銚部 연결선이 불확실하다. 규격은 길이 8.6cm, 신부최대폭 4.0cm, 신부두께 1.0cm, 銚部외경 3.3×2.2cm이다.

⑦ 도자(209, 출토위치11)

완형의 도자이다. 전체적으로 수화가 심한 편이다. 배부는 直背며, 인부는 直刃으로 선단부에서 둥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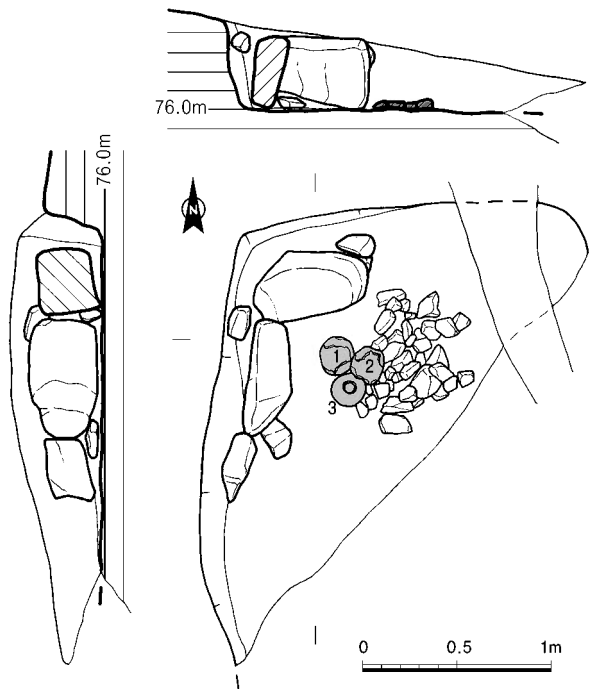
만곡한다. 병부는 철판을 접어서 완성하였다. 규격은 길이 13.2cm, 인부 최대폭 2.4cm이다.

⑧ 기대 편(210, 내부출토)

석곽의 상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발형 기대의 수부이다. 극히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도질 소성품으로 부분적으로 표면박리가 확인된다. 외면은 상하로 돌대를 돌려 문양대를 구획하였다. 굵기 0.2cm 가량의 굵은 침선을 양쪽에 그어 범위를 잡고 그 내측에 세침선으로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이 격자문양 사이에는 원권문(외원 직경 1.0cm, 내원 직경 0.6cm의 스템프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색조는 진회색이며,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장석, 운모, 석영의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7.3cm, 복원 구경 38.0cm이다.

(14) 14호 석곽

가. 유구(도면 26, 도판 35-1.2)



구릉사면 해발 76~77m 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8.5°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하였다. 동쪽으로 12호 석곽, 13호 석곽이 인접해 있다. 경작으로 인하여 유구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장단벽 모서리의 일부만 남아있다.

묘광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규모는 잔존길이 236cm, 너비 184cm, 깊이 25cm이다. 벽석은 장단벽에 각각 1~2매의 벽석만이 남아 있는데 정확한 쌓기수법은 알 수 없다. 시상은 10~20cm가량의 할석을 한 벌 깔아 조성하였다.

유물은 서쪽모서리에서 연질옹, 유개대 부직구호, 부가구연대부장경호가 각 1점씩 확인되었다.

圖面 26. 14호 석곽 (1/40)

나. 유물

① 연질옹(211, 출토위치1)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한 연질옹으로 개체 복원이 불가능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동체 상부 외면은 사방향 타날하였으나 표면박리로 인해 범위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은 종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3~0.4cm가량)과 사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5cm)이 중복되어 있다. 동체 하부 외면은 횡방향으로 평행타날(요철단위 0.3cm)하였다. 내면은 횡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5cm)로 정면하였으나 약간 반원관상의 느낌이며, 지압흔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편이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이고, 단면은 부분적으로 회색을 띤다.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혼입된 태토

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14.5cm, 구경 14.0cm이다.

② 유개대부직구호(212, 출토위치 3)

유개대부직구호로 개와 함께 출토되었다. 개는 반파되어 도면복원 하였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표면은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꼭지는 따로 부착하지 않았으나 마무리공정에서 개체를 회전시켜 점토의 끝을 감아 떼어낸 듯한 흔적이 남아 있다. 색조는 외면은 진회색, 내면은 회색, 단면은 자색을 띤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이다.

직구호는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대각은 결실되었는데 인위적으로 떼어낸 듯 깨끗하게 분리되었다. 동체 상부에는 2조의 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약하게 단을 만들어 3단 구획하였다. 침선위로 반지름 0.5cm, 침선 폭 0.1cm가량의 반원권형문을 찍어서 시문하였다. 동 상부는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다소 거친 느낌이며, 동하부는 거의 회전 각기에 가까운 느낌이다. 색조는 진회색을 띠며 태토는 개와 유사하다. 규격은 개의 높이 2.9cm, 구경 7.2cm이며, 직구호는 잔존높이 12.4cm, 구경 7.8cm, 동최대경 17.6cm이다.

③ 부가구연대부장경호(213, 출토위치2)

부가구연대부장경호로 구경부가 유실되었으며, 구연부는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동체부는 반파되어 중상부 이상은 유실되었다. 전체적인 개체복원이 불가능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구연단 내면에 박리가 극심한 편이며, 경부에 3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동체 상부는 미약하나마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부는 하단에 3조의 돌대를 돌리고 4개의 방형 투창을 등간격으로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동체 내면에 지두흔이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12.2cm(동체부), 6.5cm(구경부), 구경 18cm, 저경 12.6cm, 동최대경 18.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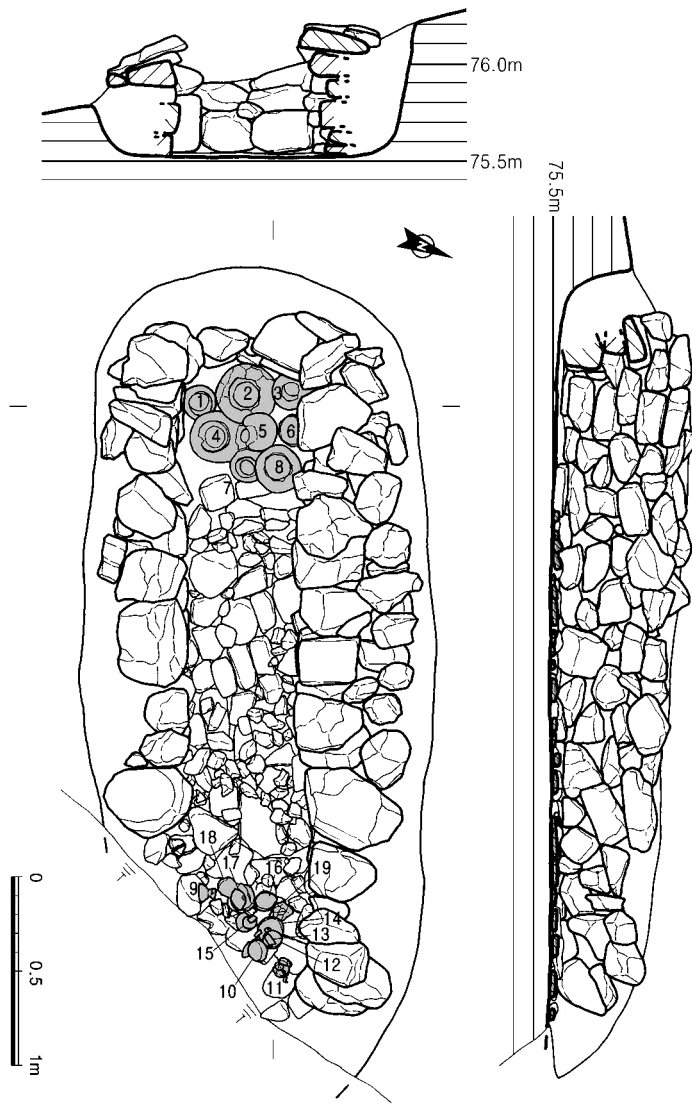
(15) 15호 석곽

가. 유구(도면 27, 도판 35-3·36·37-1.2)

구릉의 능선사면 해발 75.5~76m 사이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16, 17호 석곽이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 5m정도 떨어진 곳에 1호 석실묘가 배치되어 있다. 주축방향은 N68°E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하였다. 지형적으로 삭평되어 남쪽 장벽은 벽석 1~2단만 남아있으며, 동쪽 단벽은 모두 유실되었다.

묘광은 평면 말각세장방형으로, 비스듬히 굴착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420cm, 너비 184cm, 깊이 70cm이다. 벽석은 30~6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하였다. 상면의 서쪽단벽에서 60~70cm 정도는 생토면 위에 곧바로 유물을 부장하고, 그 나머지 공간에 15~40cm의 편평한 할석을 한 벌 깎 뒤, 빈 공간은 작은 할석들로 채웠다. 북쪽장벽의 벽석은 사면부의 토압으로 약간 밀렸으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344cm, 너비 72cm이다.

유물은 유구를 조사하기 이전에 단애면에서 흩어진 대부완, 고배, 개, 배, 단경호, 연질옹 등을 수습하였다. 석곽 내부에서는 서단벽쪽의 시상석이 깔리지 않은 공간에서 대부장경호 3점, 대부직구호 1점, 연질단경호 1점, 도질단경호 3점이 출토되었으며, 유실된 동단벽쪽 시상석 위에서 대부완 1점, 고배 3점, 개 4점, 대부장경호 1점, 파수부완 1점, 연질옹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27. 15호 석곽 (1/40)

위는 암회청색이며, 속심은 적갈색이다.

나. 유물

① 개

214, 215는 소성상태가 양호한蓋로 같은 기형이다. 드림턱 및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扁半球形이고, 외·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 내면에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화박리 되었다. 개신 중앙에 1조의 침선문을 돌려 2단 구획하고, 각 단에 5치구 종집선문을 上下交互로 시문하였다. 속심은 자색이다. **216**은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개로 드림턱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면을 회전목리로 정면하였으며, 드림턱 부분은 물손질하였다. 드림부와 개신 내면 표면박리가 심하고, 일부 균열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장식, 운모, 석영 세립이 일부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회청색, 속심은 암회청색이다. **217**은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개이며, 드림부 및 드림턱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게 마무리하였다. 태토는 장식, 운모가 일부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외면 회청색, 내면 상위는 회백색, 하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꼭지경			
214	13	개	5.2	12.6	2.3	회청색	양호	종집선문.
215	14	개	5.4	13.3	2.2	회청색	양호	내외면에 기포 형성.
216	16	개	4.6	10.0	2.3	회청색	양호	
217	17	개	4.3	9.5	2.1	암회청색	양호	

② 고배

218(출토위치 10)는 완형의 유개식 일단투창고배로 소성상태가 불량하다.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며, 각단이 부분적으로 마모되었다. 전체를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대각부에는 세장방향 투창 3개를 뚫었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고, 색조는 회백색이다. 규격은 높이 9.9cm 구경 9.7cm 저경 7.6cm이다.

219(출토위치 11)은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일단투창고배로 배신부가 1/3정도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대각에는 세장방향 투창을 3개 뚫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혼입되었다. 색조는 회청색, 일부 회백색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규격은 높이 9.6cm 구경 9.0cm 저경 6.0cm이다.

220(출토위치 12)는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이단투창고배로 완형이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표면박리가 심하다. 배신 내부에 이기재흔이 확인된다. 대각은 돌대를 중심으로 2단 구분하고, 투창은 上下交互로 상단에 세장방향 투창 3개, 하단에 방형투창 3개를 뚫었다. 태토는 장석, 석영이 일부 혼입되었고, 색조는 회청색, 배신부 내면은 암회청색이다. 규격은 높이 8.7cm 구경 9.4cm 저경 6.3cm이다.

③ 대부완(221, 출토위치 9)

소성상태가 보통인 도질 대부완으로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내면과 대각 일부에 녹황색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0.1~0.6cm 내외의 기포가 형성되었다. 대각부는 돌대를 중심으로 2단으로 구분되며, 하단에 장방향 투창 3개를 뚫었다. 대각단 일부에 짙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장석, 운모가 일부 혼입되었고, 색조는 암회청색, 속심은 황회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9.6cm 구경 9.6cm 저경 6.0cm이다.

④ 대부장경호

222는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대부장경호이다. 구경부 및 동체부가 일부 파손되었다. 구경부 내·외면에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산화박리가 되었다. 구경부는 완만하게 외경하며, 돌대를 돌려 크게 3단으로 구획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침선을 돌렸다. 저부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대각에는 세장방향 투창이 7개 뚫려 있으며, 일부 검정색 불순물이 부착되었다. 태토는 장석, 운모 등 일부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암회청색, 속심은 회백색이다.

223은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대부장경호로 구연부와 대각이 일부 결실되었다. 구경부는 완만하게 외경하며, 돌대를 돌려 크게 3단으로 구획하였다. 동체부는 견부에 한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전면 회전물손질하여 정연하게 마무리하였다. 동체 내면의 중위 이상은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마무리하였으나, 이하는 중방향으로 물손질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확인된다. 대각은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세장방향 투창이 7개 뚫려 있다.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며, 색조는 구경부는 회청색이며, 동체부 및 대각부는 회백색이다.

224는 완형으로 소성상태가 보통인 대부장경호이다. 구경부 및 동체부에 일부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산화박리가 심하다. 구경부는 완만하게 외경하며,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동체부는 거의 완전한 구형으로 견부에 약하게 돌출된 돌대를 돌렸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 중위 이하에 박자흔이 확인된다. 구경부 및 동체부에 0.1~0.5cm내외의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대각은 돌대를 중심으로 2단 구분되며, 투창은 上下交互하게 8개씩 뚫려 있다. 대각단 일부에 짙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소량 혼입되어 있고,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을 띤다.

225는 도질 대부장경호로 구경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경부에 돌대를 중심으로 원권문(외경 0.8cm)이 上·下에 각기 9개씩 시문되었다. 견부에는 2조의 침선문이 시문되었고 표면박리가 심하다. 동체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과 지두흔이 확인된다. 대각은 돌대를 사이에 두고 2단으로 구분되며, 투창은 上下交互하게 9개씩 뚫려 있다. 태토는 장석, 운모가 일부 혼입되고 석영이 소량 혼입되었다. 색조는 회색, 속심은 회청색을 띤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동최대경			
222	18	대부장경호	19.9	10.7	9.0	13.0	압회청색	양호	세장방형 투창 7개.
223	1	대부장경호	23.9	13.4	11.4	16.8	회청색	양호	세장방형 투창 7개.
224	4	대부장경호	34.2	17.3	15.9	24.6	회청색	보통	2단투창. 8개씩.
225	8	대부장경호	(29.2)	13.7	14.9	24.5	회청색	양호	2단투창. 9개씩.

⑤ 대부직구호(226, 출토위치 3)

완형의 대부직구호이다. 구연은 직립하며, 동체부는 건부에 상하로 1조의 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물손질과 지두흔이 확인된다. 대각에는 세장방형 투창 6개를 뚫었다. 석영, 장식, 운모 등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21.8cm, 구경 9.9cm, 동최대경 20.8cm, 저경 11.5cm이다.

⑥ 단경호

227(출토위치 7)은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단경호이다. 구연은 일부 결실되었는데, 짧게 직립하여 외반한다. 구경부에서 동체 중위 이상까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 중위 이하에 회전목리조정흔이 확인된다. 동체 중위 이상에는 박자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내면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다. 구경부 및 동체부에 일부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화박리되었다. 태토에는 세립의 장식과 석영이 혼입되었다. 색조는 동체 중위이상은 회흑색, 이하는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회청색이다. 규격은 높이 22.2cm, 구경 14.7cm, 동최대경 22.1cm이다.

228(출토위치 5)은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단경호이다. 구경부가 1/2 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구경부 및 동체부 중위까지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박리가 극심하다. 전체적으로 회전목리로 정면하였으며, 동체 중위 이하에 부분적으로 평행 타날흔이 확인된다. 내면 중위 이하에는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타날흔과 지두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 등이 혼입되었고, 색조는 회청색,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23.6cm, 구경 15.2cm, 동최대경 21.6cm이다.

229(출토위치 6)는 단경호로 소성이 불량한 편이다.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구경부에는 부분적으로 격자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동체부 내·외면 모두 타날흔이 확인되며 外面은 격자타날, 내면은 평행타날이다. 건부에 ' / \ ' 형의 침선문이 1조 시문 되어 있으나, 의도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색조는 밝은 회색,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 등이 소량 혼입되었다. 규격은 높이 29.8cm, 구경 17.3cm, 동최대경 31.3cm이다.

⑦ 연질 평저 단경호(230, 출토위치 2)

산화염 소성의 연질 평저 단경호로 1/2 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극심한 편이다. 부분적으로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동체 중위 이하에 평행타날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등이 다량으로 혼입되어 있으며, 표면은 황등색,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31.9cm, 구경 14.5cm, 동최대경 32.7cm, 저경 15.2cm이다.

⑧ 파수부완(231, 출토위치 15)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파수부완이다. 구연부 일부와 파수가 결실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내·외면의

표면박리가 심하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으며, 신부와 저부의 경계면은 횡방향짜기로 마무리 하였다. 파수는 접합흔만 잔존하며, 단면 원형으로 추정 된다. 태토는 장식과, 운모가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회청색,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8.5cm, 구경 8.2cm, 저경 3.7cm이다.

⑨ 연질옹 편(232, 출토위치 19)

적갈색 연질 옹으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잔존한다. 표면박리가 극심하여 표면관찰이 어렵다.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등색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2.3cm, 저경 6.4cm이다.

< 내부 출토 >

① 개(233)

소성 양호한 도질 개로 완형이다. 편반구형 개신을 가지고 있으며, 개신상부 중앙에는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드립은 직선적으로 내경하고 드립단은 약간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신부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하다. 개신 상위에 'X'자 문양이 3개 시문되어 있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 등이 일부 혼입되었으며,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 내면은 황회색이다. 규격은 높이 4.8cm, 구경 10.8cm, 꼭지경 1.5cm이다.

② 배(234)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배이다. 구연이 일부 결실되었으며, 완만하게 내경한다. 표면에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화박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배신바닥에는 깎기와 물손질로 마무리 하였으며, 소성시 이기재로 사용한 짚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일부 혼입되었고, 색조는 회청색, 속심은 흑자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3.3cm, 구경 8.5cm이다.

③ 고배(235)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제 유개식고배이다. 배신부 1/4정도와 대각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대각에 부분적으로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장방형 투창 3개가 뚫려있다. 태토는 장식, 운모, 석영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속심 배신부는 회청색과 암갈색, 대각부는 암회청색을 띤다. 규격은 높이 9.5cm, 구경 9.5cm, 저경 6.8cm이다.

④ 대부완(236)

소성상태가 불량한 도질 대부완이다. 신부가 1/3 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고, 구연 일부는 회전목리로 마무리하였다. 신부 내면과 대각에 일부 녹색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0.2cm~0.8cm내외의 기포가 확인된다. 대각은 돌대를 중심으로 2단 구획하였으며, 하단에 장방형 투창 3개가 뚫려 있다. 대각단 일부에 짚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장식, 운모가 일부 혼입되었고, 색조는 암회청색, 속심은 황회색이다. 규격은 높이 8.9cm, 구경 9.1cm, 저경 6.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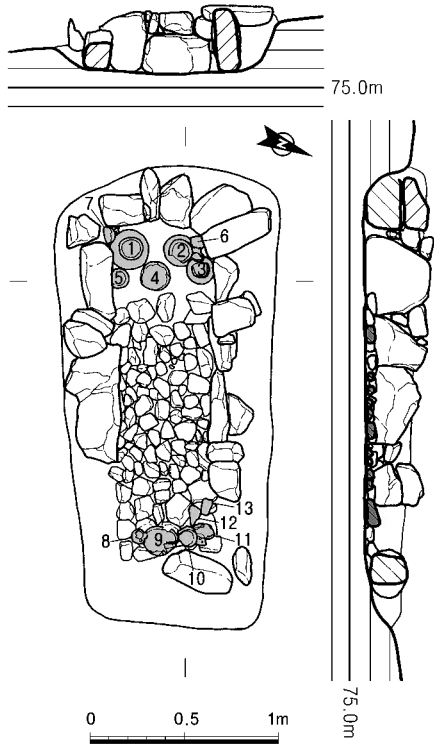
⑤ 단경호(237)

소성상태가 불량한 도질 단경호이다. 동체부 1/2 정도만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표면은 회전목리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일부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바닥은 평저이다. 태토는 0.1~0.3cm내외의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황회색, 속심은 회색을 띤다. 규격은 잔존높이 14.5cm, 동최대경 16.3cm, 저경 7.0cm이다.

⑥ 연질옹(238)

적갈색 연질옹으로 반파되었으며, 저부 일부와 동체부 1/2 정도만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표면박리가 극심한 편으로 정면기법 관찰이 어렵다. 부분적으로 내면에 타날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색조는 내외면 황갈색을 띤다. 규격은 잔존높이 22.8cm이다.

(16) 16호 석곽



가. 유구(도면 28, 도판 35-3·37-3~5·38-1~3)

구릉 남동쪽 능선 사면부 해발 7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 방향은 N68°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남쪽으로 15호 석곽, 동쪽으로 17호 석곽이 인접해 있다. 지형의 삭평으로 인해 남쪽과 동쪽장벽만 2단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최하 단석만 잔존한다.

묘광은 비스듬히 굴착하여 바닥을 정지하였는데,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104cm, 깊이 28cm이다. 벽석의 최하단석은 크기 40~60cm 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하고, 그 윗단부터는 가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52cm이다. 시상석은 서단벽의 일부공간을 제외한 공간에 10~20cm의 할석을 이용하여 1단을 깔았다.

유물은 서단벽쪽 부장공간에서 단경호 3점, 연질옹 1점, 유개고배 1점, 대부완 2점이, 동쪽단벽의 시상석 바로 위에서는 파수부완 1점, 유개고배 1점, 고배 2점, 철탁 2점이, 내부에서는 개 2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28. 16호 석곽 (1/40)

나. 유물

① 고배

모두 도질제로 회전물손질로 거칠게 정면하여 마무리가 조잡한 느낌이다. 장석, 운모가 다량 혼입된 태토이다. **241**는 대각에 일부 소형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으나 형태가 불규칙적이다. **242**는 대각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고 상·하단 각각 3개씩의 방형투창을 뚫었다. 각단부에 미약한 침선이 1조 돌아간다.

② 대부완

모두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 대부완으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배신 내면과 대각부에 녹황색 유리질 다량 흡착되어 있으며, 표면박리도 심한 편이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다. 장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243**은 배신부에 4조의 돌대를 돌렸으나 선이 명확하지 않다. 각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구획하고 각 단에 4개씩 상하교호하게 투창을 뚫었다. **244**는 각부는 1조의 돌대를 돌리고 그 하단에 방형투창 3개를 뚫었다. 장석, 운모가 극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

를 사용하였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239	5	개	2.5	9.6	·	회청색	양호	완형.
		고배	8.5	8.6	7.1	회청색	양호	완형. 장방형투창 3개.
240	10	개	5.0	9.7	2.5	회색	양호	완형. 속심 적갈색. 중첩소성.
		고배	9.0	9.8	7.0	회색	양호	완형. 장방형투창 3개.
241	8	고배	8.4	8.8	7.0	회색	양호	배신 1/3결손. 속심 적갈색.
242	11	고배	8.6	9.2	6.6	진회색	양호	부분결락. 방형투창 3개.
243	6	대부완	9.4	11.0	9.8	밝은회색	양호	완형.
244	7	대부완	8.1	9.9	6.1	회백색	양호	단면 진회색.

③ 단경호

245는 표면박리가 극심하며, 부분적으로 유리질이 형성되어 있다. 구연단 내측에 약하게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 하부에 박자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저부는 말각평저에 가까우며 내면에 지두흔에 의한 요철이 확인된다. 색조는 진회색이며 장식, 석영,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246은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정면기법은 **247**과 유사하다. 구연 단부 내측에 1조의 요철이 돌아가며, 경부와 동부 사이에 희미하게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동체 내부 하단은 물손질 흔적이 뚜렷하다. 바닥은 원저이나 중앙부분이 안쪽으로 약간 함몰되어 말각평저를 이루고 있다. 소량의 극세사립과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태토로 색조는 회색이다.

247은 동체 상부에 표면이 일부 박리되어 있으며, 소량의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유리질이 소량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나 저부 바닥면에서 동체 중위까지는 회전목판으로 마무리 하였다. 동체 중위에 불명확한 돌선을 돌리고 그 상단에 지름 0.7cm가량의 원권문 10개를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장식, 운모가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동궤대경			
245	1	단경호	18.2	13.1	20.2	진회색	양호	완형. 말각평저.
246	2	단경호	17.5	12.1	16.6	회색	양호	부분결손. 말각평저.
247	3	단경호	13.7	9.0	15.3	밝은회색	양호	부분결손. 원권문.

④ 파수부완(248, 출토위치 9)

도질제의 소형 파수부호로 부분적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소성상태가 불량하고 형태도 전체적으로 장타원형으로 일그러져 있다.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동체 중위에 칩선을 돌리고 이를 중심으로 상단은 회전목리하여 마무리하였다. 동체하단은 회전깎기로 정면 하였다. 저부는 중앙이 약간 함몰된 양상을 띠며 점토가 부분적으로 뭉쳐져 있다. 파수는 2개가 부착되었으나 탈락되어 뿌리만 잔존하며 단면 형태는 원형이다. 색조는 회갈색이며, 단면은 회색을 띤다. 장식, 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높이 10.2cm, 구경 9.6~11.6cm, 저경 7.0cm이다.

⑤ 연질응 편(249, 출토위치 4)

잔존상태가 불량한 적갈색 연질응이다. 동체하부와 동상부편 일부가 잔존하지만 전체적인 복원은 불가능하다.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관찰이 어려운 편이나 동체 상단에는 사방향 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하단에는 깎기흔이 관찰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8.7cm, 저경 7.6cm이다.

⑥ 철탁

석곽의 내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250(출토위치 12)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수화가 심한 편이며, 일부는 결실되었다. 한 장의 철판을 얇게 두드려 제단한 후, 상·좌·우면을 감아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다. 상면에는 좁을 매단 0.2cm 가량의 圓孔이 남아 있으나, 좁은 탈락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규격은 길이 10.4cm, 최대폭 3.7cm이다.

251(출토위치 13)은 248과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한데, 상면이 결손되었다. 등면에 사방향목질흔이 부분적으로 잔존한다. 규격은 길이 7.8cm, 최대폭 3.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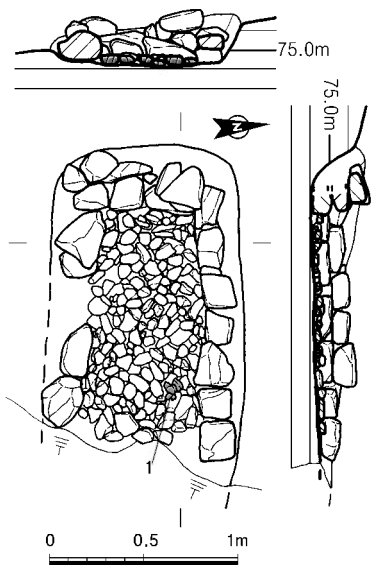
〈내부 출토〉

석곽 내부에서 도질 소성의 개 2점이 출토되었다. 신부 내면에 박리가 극심한 편이며, 전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장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폭지경			
252	내부	개	4.8	10.0	2.4	진회색	보통	완형. 중첩소성(회청색).
253	내부	개	4.6	10.1	2.6	회청색	보통	배신 1/3 결실. 중첩소성(흑회색).

(17) 17호 석곽

가. 유구(도면 29, 도판 35-3·38-4~6)



圖面 29. 17호 석곽 (1/40)

구릉의 남동쪽 능선 사면부 해발 7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 N85° 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서쪽으로 15호 석곽과 16호 석곽이 인접해 있다. 지형적인 삭평으로 벽석의 최하단석을 제외하고 거의 유실되었는데 동쪽단벽은 완전히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묘곽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벽석은 크기 20~30cm 정도의 할석을 가로쌓기하였다. 규모는 묘곽은 잔존길이 172cm, 너비 100cm, 깊이 22cm이며, 석곽은 잔존길이 132cm, 너비 50cm이다. 시상석은 바닥 전면에 8~15cm의 할석을 한단 깔았다.

유물은 시상 바로 위에서 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① 대부완(254, 출토위치1)

도질 대부완으로 소성은 보통이며, 표면박리가 심한 편이다. 배신이 1/3가량 결실되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표면에 물손

질흔이 뚜렷하게 잔존한다. 대각은 1조의 굵은 침선을 돌려 2단 구획하고 하단에는 3개의 방형 투창을 뚫었다. 색조는 회백색이며 장식, 운모가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높이 8.6cm, 구경 10.5cm, 저경 6.0cm이다.

(18) 18호 석곽

가. 유구(도면 30, 도판 39)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곽묘이다. 구릉의 사면부 해발 85~86m선상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N28.5°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개석으로 보이는 대형 할석이 남동쪽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지형식평으로 양단벽은 4~5단, 장벽은 1~2단정도 남아있다. 남동쪽 벽석은 토압으로 넘어진 채로 확인되었다.

묘광은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며, 평면장방형이다. 벽석은 20~40cm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높혀서 가로쌓기 하였다. 규모는 묘광은 길이 304cm, 너비 148cm, 깊이 30cm이며, 석곽은 길이 230cm, 너비 100cm이다. 시상은 10~25cm 정도의 편평한 할석을 전면에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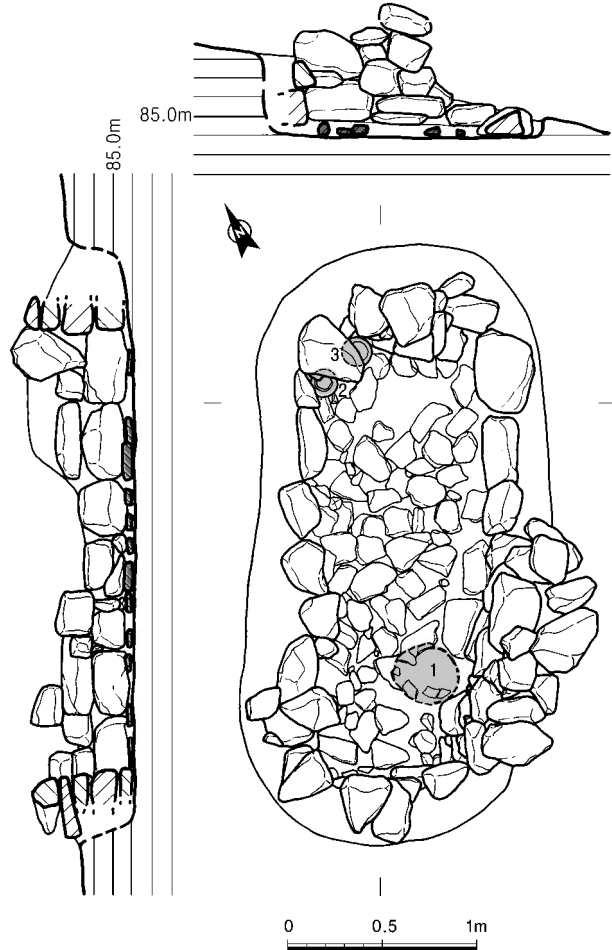
유물은 북쪽단벽과 서쪽 장벽 모서리 사이에서 단경호, 대부장경호가 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남동편에서 단경호가 1점 출토되었다.

나. 유물

남동편에서 확인된 연결단경호(출토위치 1)는 박리 및 파손이 극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다.

① 고배

개 1점과 고배 3점이 확인되었다. 세트 관계는 불명확하다.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으며,



圖面 30. 18호 석곽 (1/40)

유물 번호	출토 위치	기종	규격(cm)			색조	소성 상태	기타
			기고	구경	저경			
255	내부	개	5.7	12.0	1.7	진회색	보통	와질소성. 구연부 1/5잔존 도상 복원. 중첩소성.
256	내부	고배	7.8	9.6	6.2	회색	보통	도질. 완형. 대각 2단 구획, 투창 3조씩.
257	내부	고배	7.7	10.8	6.8	회백색	불량	와질소성. 완형. 장방형 투창 2개.
258	내부	고배	7.5	10.7	7.2	자색	보통	도질. 대각 일부 결실. 장방형 투창 3개.

장석, 흑운모 등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개개 명세는 다음과 같다.

② 단경호(259, 출토위치2)

완형이며, 도질로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와 운모, 장석이 혼입되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동체부는 평행타날(폭 0.3cm) 후 회전목리로 조정하였다. 내면에는 저부를 중심으로 지두흔이 확인된다. 규격은 높이 15.7cm, 구경 11.5cm, 동최대경 16.1cm이다.

③ 대부장경호(260, 출토위치3)

구연 일부가 결손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동체 중위에 타날문이 희미하게 잔존하며, 하위에는 회전목리흔이 뚜렷하다. 내면에 불규칙한 지두흔이 잔존한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청색이며, 태토는 장석, 운모가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대각에는 세장방향 투창 8개를 뚫었다. 규격은 높이 22.0cm, 구경 12.3cm, 동최대경 16.0cm, 저경 6.3cm이다.

④ 연질옹(261, 내부출토)

동체부가 절반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표면의 부분 박리가 심하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부는 사방향 평행타날(요철단위 0.4cm)흔이 잔존한다. 동체 하부는 마모가 심한 편이나 횡방향 깎기 후 물손질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평저이며, 색조는 적갈색이다. 석영, 장석, 운모가 다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규격은 높이 14.3cm, 구경 14.6cm, 저경 8.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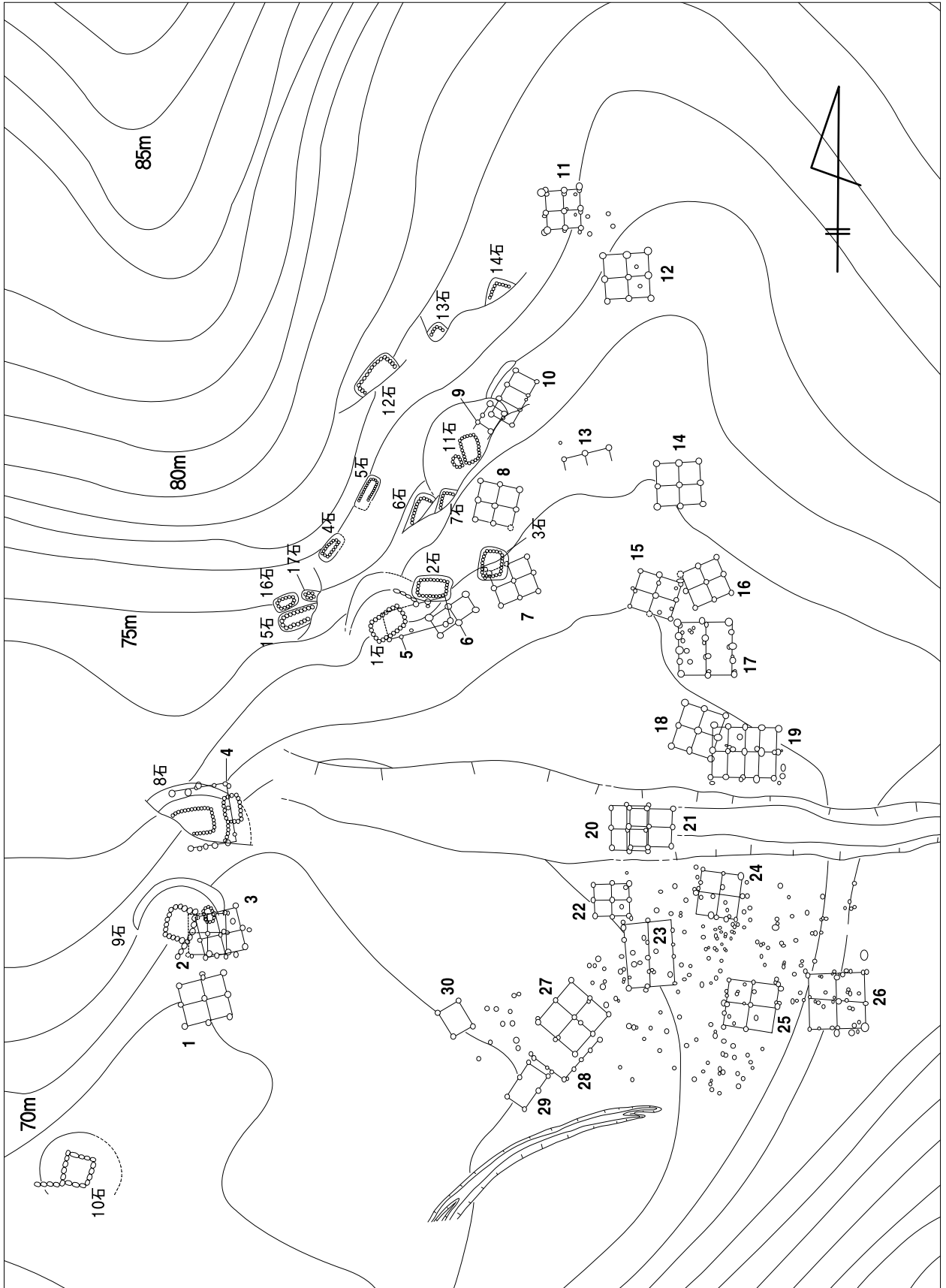
2) 굴립주 건물지

전체 조사대상범위내에서 굴립주건물지는 크게 2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분포한다. 조상대상지의 서남쪽에 치우친 곳과 북쪽에 해당하는 곳에 각각 입지하는데, 양자간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1호에서 26호 굴립주건물지가 분포하는 서남쪽의 굴립주건물지군은 6세기대에 조성된 고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고분조성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북쪽의 굴립주건물지는 4세기대의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주거지보다 늦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굴립주건물지는 전체 유적의 외곽에 위치한 저장시설로 판단되는데 출토유물이 없는 관계로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다만 중복관계에서 볼 때 서남쪽 굴립주건물지군은 주로 6세기대 이전이며, 북쪽 굴립주건물지는 4세기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굴립주건물지는 주거공간과 함께 저장시설공간이 별도로 운용된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상호간에는 시간적인 공간배치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전체적인 공간배치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1) 1~13호 굴립주건물지 (도면 33~39, 도판 42~53-1)

건물지가 위치한 곳은 가동고분군 남동쪽 구릉 사면부이며, 해발 70~75m 선상에 해당한다. 조상대상지의 남서쪽이며, 소규모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를 중심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위치한다. 2·3·4·5·8·9·10호는 삼국시대 석실묘와 중복된 채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석실묘보다 이전에 조성된 것이다. 굴립주간에 중복된 2·3호 경우에는 3호가 축조된 후 2호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13호는 현대 경작지에 의해 남쪽편이 삭평되어 열상으로 1열만 확인되었다.



圖面 31. 가동유적 굴립주 건물지 유구 배치도 1~30호 (1/500)

대부분이 방형의 형태를 가지는 9주식이며 상대적으로 급한 경사를 가지는 지형에는 측면 1칸의 장방형의 건물지가 축조되기도 하였다. 10호 건물지는 장방형의 건물지로 높은 쪽으로 배수를 위한 시설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시설이 확인되었다. 4호 건물지는 후대에 조성된 석실묘(8호)에 의해 중심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지만 기둥구멍의 크기와 깊이로 보아 비교적 대형 건물지였음이 분명하다.

건물지의 기둥구멍은 기본적으로 원형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는 60cm 내외로 지형적 조건과 지표면의 삭평정도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한다. 11호 건물지의 기둥구멍내부에서는 초심석이 확인되었는데 생토바닥이 아닌 부식토를 기반으로 기둥을 세울 경우 초심석을 설치하여 상부 하중을 지탱하였다. 그리고 기둥구멍내부에 기둥의 밑둥만 남아 있는 경우도 다수가 조사되었다.

기본기둥구멍 주변에서 확인되는 보조기둥구멍들은 건물지의 부수 시설과 관련된 기둥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대개 상대적으로 기본기둥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12호 건물지에 잔존하는 8개의 나무기둥 중 6개(기둥구멍번호-②, ③, ④, ⑤, ⑥, ⑧)의 수종분석²⁾ 결과 ②, ③번은 느티나무 ④, ⑤, ⑥, ⑧번은 굴피나무로 확인되었다. 側面加工은 확인되지 않고, 底面은 ②, ③, ⑧번 나무기둥에서 銳角, ⑤번 나무기둥에서 鈍角으로 가공되었다. 나무기둥이 확인되지 않은 ①번 기둥구멍에서도 나무기둥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회갈색점토층이 관찰된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³⁾.

〈표 1〉 1~13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1호	N172.5°E	방형	2×2	9주식	380~410	400~430	17.6	24~44	10~40	14	보조기둥구멍
2호	N84°E	방형	2×2	9주식	360	360	13.0	24~60	20~58		나무기둥제거
3호	N75°E	방형	2×2	9주식	356~398	370~410	16.3	28~60	10~44	12~20	2호중복
4호	N80.5°E	(장방형)	(4×2)	(14주식)	426~452	384~436	19.7	58~86	30~106		8호중복
5호	N73°E				474~492	(194~206)		36~62	18~56	14~18	1호중복
6호	N57°E	장방형	2×1	6주식	380	170~182	6.9	44~62	29~66	14~18	5호중복
7호	N157°E	방형	2×2	9주식	322~340	344~366	12.4	22~41	6~42	10~16	
8호	N103°E	방형	2×2	(9주식)	330~360	356	12.8	24~54	6~56		3호중복
9호	N35.5°E	장방형	(2×1)	(6주식)	408	154	6.2	30~60	30~60	14	11호중복
10호	N26°E	장방형	3×1	8주식	460	200~214	9.8	28~76	14~62		외곽 구
11호	N83°E	방형	2×2	9주식	310~330	350~370	12.2	38~100	24~78		초심석
12호	N85°E	방형	2×2	9주식	390	390~410	16.0	42~78	18~62	18~22	나무기둥잔존
13호	N68.5°E				400			18~34	6~11		

(2) 14~21호 굴립주 건물지 (도면 40~45, 도판 53-2~59-2)

조사대상지의 남서쪽에 해당한다. 소규모의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 중앙부를 중심으로 굴립주건물지가 조성되었는데 해발 72~73m 선상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유구는 등고선과 평행하며, 곡부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 질러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15호 굴립주건물지는 삼국시대의 수혈유구로 추정되는 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수혈유구보다 먼저 조성

2) 樹種分析은 굴립주 건물지에서 잔존하는 78점의 木柱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Paleo Labo Co. Ltd.에서 분석한 자료를 첨부(p.190)하였다.

3) 굴립주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주로 토기편으로 완형이나 기형이 파악되는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기둥구멍내부에서 혼입된 토기편이 모두 의미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기둥구멍 생성시에 주변에서 매몰되거나 기둥구멍 폐기에 유입된 토기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례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기둥구멍 조성시에 토기편 등을 같이 묻을 수도 있으나, 매몰형태가 일관성이 없고 유물의 개체도 지극히 빈약하여 이차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되었다. 20·21호의 건물지는 굴립주건물지끼리 중복된 경우인데 20호 굴립주건물지가 먼저 조성된 이후에 21호 굴립주건물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 구멍의 단면 형태가 유사하고, 인접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아 개축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0·21호 굴립주건물지는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된 1호 溝⁴⁾로 인해 기둥구멍의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17·19호 굴립주건물지를 제외하면 모두 방형의 형태를 가지는 9주식 건물지이다. 17호 굴립주건물지는 14호 굴립주건물지와 같은 형태인데, 다른 건물지보다 면적이 넓고 기둥구멍의 크기와 깊이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기둥구멍은 평면 원형이며, 깊이는 대부분이 70cm 내외로 지형적 특성과 지표면의 삭평정도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한다. 17호 건물지는 기둥구멍이 대단히 큰편에 속하는데 1m 전후의 깊이를 가진다. 기본 기둥구멍 주변으로 보조 기둥구멍이 확인된다.

〈표 2〉 14~21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 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 (㎡)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 (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14호	N174°E	방형	2×2	9주식	384~408	390~426	17.4	28~70	10~47	17~30	
15호	N99°E	방형	2×2	9주식	380	356~376	14.3	26~60	22~64	12	수혈중복
16호	N164°E	방형	2×2	9주식	330~348	352	12.2	32~60	10~62	20	초심석
17호	N173.5°E	방형	4×2	14주식	490	470	23.0	48~116	16~96	12~20	
18호	N104°E	방형	2×2	9주식	370~390	394	15.4	36~74	30~78	16	19호중복
19호	N92.5°E	장방형	4×2	15주식	554	440~460	25.5	30~92	10~62	10~20	18호중복
20호	N91°E	방형	2×2	9주식	230	268	6.2	8~34	6~38	8~12	溝내삭평
21호	N87°E	방형	2×2	9주식	262~290	266	7.7	14~42	12~40	8~10	20호중복

(3) 22~30호 굴립주건물지 (도면 46~56, 도판 59-3~65)

조사대상지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완경사를 가지는 평지의 해발 70~72m 선상에 위치한다. 모두 동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서쪽일대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기둥구멍들이 군집된 상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열상배치와 주간이 작은 소형의 건물지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얇은 높이의 굴립주를 주간형식 없이 배치한 것으로 생각되나 주간이 명확하지 않고 열상 중복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유구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지도 다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방형의 9주식 건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주식·6주식의 소형 건물지와 열상으로 확인되는 장방형의 건물지는 남편으로 치우쳐 배치되어 있다. 27호와 28호는 조성상 중복된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주간 중복이 확인되지 않아 유구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8호가 대칭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고 독립된 형태의 건물지로는 유지될 수 없는 점과 27호와 장·단축이 일치하고 있어 27·28호는 하나의 건물지일 가능성도 있다.

기둥구멍은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9주식을 제외한 다른 건물지는 비교적 크기와 깊이가 적은 편이다. 건물지간 주변으로 군집되어 확인되는 기둥구멍들은 주간이 확인되는 기둥구멍보다는 깊이가 얇고 크기가 작다.

4) 溝는 출토유물로 보아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며 만들어져 있다. 농경지 조성시에 농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22~30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22호	N128°E	방형	2×2	9주식	290~314	310	9.7	30~54	22~62	15	
23호	N179.5°E	장방형			562~576	406~424	24.4	32~60	24~58		기둥구멍 군집
24호	N138.5°E	방형	2×2	(9주식)	380~394	350~410	16.2	36~70	16~42	10~20	
25호	N9°E	방형	2×2	(9주식)	420	436~476	20.0	32~90	24~52	10~20	
26호	N0°E	방형	2×2	(9주식)	498	492~520	25.9	30~90	18~50		
27호	N132.5°E	방형	2×2	9주식	430~456	480	21.9	24~54	8~46	14~20	
28호	N127°E							20~46	10~36	12	열상배치
29호	N165°E	장방형	2×1	6주식	370	200~214	7.9	20~42	10~30	12	
30호	N149°E	방형	1×1	4주식	264	200~228	6.0	32~46	14~28		

(4) 31~37호 굴립주건물지 (도면 52~56, 도판 66~72)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소규모의 구릉 사이 약한 계곡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해발 79~80m 선상에 위치한다. 골짜기를 중심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굴립주건물지 주변으로 많은 기둥구멍들이 군집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다. 정형성을 띤 기둥구멍군은 비교적 기둥구멍의 형태가 크고 깊으며 목심 흔적이 뚜렷하다. 주변으로 군집된 기둥구멍들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목심의 흔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굴립주건물지가 집중해서 분포하는 곳에는 삼국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수혈유구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 수혈유구들은 모두 굴립주건물지보다 먼저 조성된 것들이다.

31호 굴립주건물지는 청동기시대의 구상유구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그리고 36호 굴립주건물지는 1호 고려시대 건물지의 하부구조와 중복되어 있다. 그 외 굴립주건물지들은 장방형의 12주식 건물지인 32호, 36호, 37호 굴립주건물지를 중심으로 소형의 굴립주건물지가 주변으로 분포하는 형상이다. 34호 굴립주건물지는 기둥구멍의 일부를 재사용하여 개축한 형태로 기둥구멍이 배치되어 있다. 35호 굴립주건물지는 밀집한 기둥구멍 가운데 유사한 내부토를 가진 것을 연결한 결과 사면의 높은 쪽인 북쪽에서는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면만을 기둥으로 처리한 경사면을 이용한 건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변지역에 산재한 소규모의 기둥구멍들은 35호 굴립주건물지와 관련된 보조기둥구멍으로 추정된다.

기둥구멍은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는 50cm 내외이다. 소형 굴립주건물지들은 상대적으로 기둥구멍의 크기와 깊이가 작은 편이며 목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1호 굴립주건물지는 기둥구멍과 목심이 크지만 깊이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낮은 쪽의 장축 기둥구멍이 하나가 없는 7주식의 형태이다.

〈표 4〉 31~37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31호	N15°E	장방형	3×1	7주식	660	260~280	18.5	64~100	32~46	18~26	청동기시대 溝와 중복
32호	N18.5°E	장방형	3×2	12주식	456~464	440	20.4	32~72	20~46	16	
33호	N76.5°E	장방형	1×1		388	270	10.5	30~50	8~32	16~20	
34호	N92°E	장방형	2×1	6주식	328	184	6.0	36~50	32~46	14	개축
35호	N83°E	(장방형)			744	200	14.8				열상배치
36호	N20°E	장방형	3×2	12주식	460	440	20.2	32~62	20~46	14	
37호	N26.5°E	장방형	3×2	12주식	406~476	400~414	19.7	48~70	30~72	14~22	



圖面 32. 가동유적 굴립주 건물지 유구 배치도 31~72호, 1~3호 기동구명군 (1/500)

(5) 38~42호 굴립주 건물지 (도면 57~61, 도판 73~80)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 해당하며, 유구들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다. 해발 77m 선상에 위치하는 비교적 대형 굴립주건물지들이다. 유구들은 북서쪽에 위치한 굴립주건물지의 중앙에 해당하며 퇴적층 내에 조성된 다른 유구들에 비해 생토면에 접해있어 지반이 튼튼한 편이다. 기둥구멍의 규모를 볼 때 조성 당시에 주변지역의 유구에 비해 조망이 용이한 최고층의 건축물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9호 굴립주건물지가 들어선 후에 38호 굴립주건물지가 조성되었으며, 두 유구의 기둥구멍의 규모와 형태에서 볼 때 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수혈유구가 중복되어 있으나 모두 굴립주건물지보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42호 건물지의 남동쪽 기본 기둥구멍 1개는 溝⁵⁾에 의해 유실 되었다. 조성 당시에도 건물지 앞으로 소하천이 존재했으며 이후에 범람과 매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9주식 건물지를 중심으로 12주식 건물지와 14주식 건물지가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39호와 41호 굴립주건물지는 건물지의 서쪽으로 구가 갖추어져 있는데 깊이가 얕아 상대적으로 경사진 동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지 외곽으로 만들어진 구는 건물지를 구획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39호 굴립주건물지는 북서쪽의 건물지중에서 유일한 14주식 건물지이다.

이들 유구에서 조사된 기둥구멍은 주변에 위치한 다른 굴립주건물지들에 비해 규모와 목심의 직경이 크다.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는 75cm 내외이다. 39호 굴립주건물지의 일부 기둥구멍내에서는 할석을 이용하여 나무기둥을 지탱한 흔적도 확인된다. 41호 굴립주건물지는 기본 기둥구멍과 중복된 보조 기둥구멍이 있으며 주변으로도 기둥구멍들이 위치하는데 기본 기둥구멍보다 상대적으로 깊이와 크기가 작은 편이다.

이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많은 나무기둥이 확인되며 잔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수종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38호 굴립주건물지 - 7개의 나무기둥(기둥구멍번호-①·②·③·⑥·⑦·⑨·⑩) 수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밤나무로 확인되었다. 側面加工은 ①·②·③·⑥·⑩번 나무기둥에서 확인되었으며, 底面은 ⑦·⑨·⑩번 나무기둥에서 銳角, ①·⑥번 나무기둥에서 鈍頭, ②·③번 나무기둥에서 平坦하게 가공되었다.

39호 굴립주건물지 - 14개의 나무기둥(기둥구멍번호-①~⑭) 수종분석 결과 ①·③·⑦·⑧·⑨·⑩·⑫번 나무기둥은 참나무, ②·④·⑥·⑬·⑭번 나무기둥은 굴피나무, ⑤·⑪번 나무기둥은 밤나무로 확인되었다. 側面加工 흔적은 심하게 부식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3번 나무기둥을 제외하고 모든 나무기둥에서 확인되었으며, 底面은 4번 나무기둥에서 銳角, ①·⑦·⑧·⑫·⑬번 나무기둥에서 鈍頭, ②·③·⑤·⑥·⑨·⑩·⑪·⑭번 나무기둥에서 平坦하게 가공되었다.

41호 굴립주건물지 - 출토된 7개의 나무기둥(기둥구멍번호-④·⑤·⑪·⑮·⑲·⑳·㉓)을 수종분석한 결과, 19번 나무기둥만이 밤나무이고 나머지 모든 나무기둥은 굴피나무로 확인되었다. ⑤·⑮번 나무기둥을 제외하한 나머지 나무기둥에서 側面加工이 확인되었으며, 底面은 ⑤·⑲번 나무기둥을 銳角, ④·⑪·⑮·⑳·㉓번 나무기둥을 鈍頭로 가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유적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으로 삼국시대 당시에는 하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천의 유수가 유적의 동편으로 점차 이동하여 좌광천의 지류를 이루고 있다. 건물지가 위치한 지역 앞으로는 발굴당시에도 샘이 솟던 곳으로 이후 시대에도 꾸준히 우물지 등으로 이용되었다.

42호 굴립주건물지 - 6개의 나무기둥(기둥구멍번호-①·②·③·④·⑥·⑧)을 수층 분석한 결과 모두 밤나무로 확인되었다. 側面加工은 ④·⑥·⑦번 나무기둥에서 확인되었으며, 底面은 ①·④번 나무기둥에서 鈍頭, ②·③·⑥·⑧번 나무기둥에서 平坦하게 가공되었다.

〈표 5〉 38~42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38호	N21.5°E	방형	3×2	12주식	400~446	376~426	19.0	40~90	38~62	20~30	39호중복, 나무기둥
39호	N21.5°E	방형	2×(1)	14주식	416~426	450	19.2	26~90	48~76	20~30	외곽 구, 나무기둥
40호	N118.5°E	장방형	3×2	12주식	400~410	350~374	15.3	30~90	28~72	14~20	수혈중복, 나무기둥
41호	N16°E	방형	2×2	9주식	350~360	330	11.9	56~82	42~74	15~24	외곽 구, 나무기둥
42호	N173.5°E	장방형	(2×2)	(9주식)	440~460	360~380	17.5	50~68	30~78	12~20	나무기둥잔존

(6) 43~46호 굴립주건물지 (도면 62~64, 도판 81~85)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 해당하며 해발 76~77m 선상에 위치한다. 골짜기를 중심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으며 동서방향으로 열상 배치되어 있다.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 곳은 자연하천의 퇴적이 반복된 지점으로 상대적으로 습기가 많은 곳이다. 굴립주건물지는 소하천이 매몰된 이후에 자연구와 중복된 채 조성되었다⁶⁾.

모두 방형의 9주식 건물지로 매립된 하천 위에 조성된 45, 46호 굴립주건물지는 다른 굴립주건물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굴립주간 중복된 43호와 44호 굴립주건물지의 경우에는 44호 굴립주건물지가 먼저 조성되었다.

기둥구멍은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는 50cm 내외이다. 소형 굴립주건물지들은 상대적으로 기둥구멍의 크기와 깊이가 작으편이다. 그리고 46호 굴립주건물지에서는 기둥구멍내의 지반강화를 위해 받침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6〉 43~46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43호	N30.5°E	방형	2×2	9주식	352~390	400~446	17.4	24~84	10~54	12	
44호	N38°E	방형	2×2	9주식	384 ~400	400~420	16.8	34~78	28~64	10, 14	43호중복
45호	N132°E	방형	2×2	9주식	370 ~386	354~380	14.7	40~66	20~40	16~20	
46호	N38°E	방형	2×2	9주식	286~306	310	9.3	22~60	8~32	14~16	

(7) 47~50호 굴립주 건물지 (도면 65~67, 도판 86~89)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 형성된 곡부지대에서 동쪽으로 점차 완경사를 이루는 곳을 중심으로 해발 75~76m 선상에 위치한다.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으며, 굴립주건물지 주변으로 많은 기둥구멍들이 군집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다. 소규모의 기둥구멍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나 정형성을 찾기 어렵다. 아마도 이들 기둥구멍들은 장기간 존속하지 않은 일시적 구조물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소형의 8주식 건물지(48, 50호 굴립주건물지)가 인접하여 나란히 위치하기도 하며, 기둥구멍들이 군집

6) 43호와 45호는 자연하천과 관련된 소형의 수혈과 중복되어 있는데 이들 수혈들은 굴립주 조성 이전에 사용된 물 웅덩이로 보인다. 조사상에서 집전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회백색의 점질토 등이 퇴적되어 있었으며 조사상에서도 자체적으로 샘이 나던 곳이다. 이곳 주변으로는 삼국시대~고려시대에 이르는 우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 곳에서는 47호 굴립주건물지와 같은 6주식의 불안정한 형태의 굴립주건물지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49호 굴립주건물지는 근대 경작지 조성에 의해 동쪽이 삭평되어 일렬의 기둥구멍만이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깊이는 50cm 내외이다. 이 지역에는 소형의 기둥구멍들이 군집을 이루어 연차적으로 중복된 형태의 기둥구멍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건물과 지면에 밀착된 소규모의 구조물들이 입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8호 굴립주건물지 -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③번 나무기둥의 수종분석 결과 굴피나무로 확인되었다. 측면과 저면에서 모두 가공흔이 확인되었으며, 저면은 鈍頭의 형태로 가공되었다.

〈표 7〉 47~50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47호	N31.5°E	장방형	1×2	(6주식)	424~448	540	24.2	42~66	10~44	18~22	
48호	N28.5°E	장방형	(3×1)	(8주식)	446	210	9.4	30~64	24~52	18	
49호	N46°E							25~48	22~50		동편삭평
50호	N28.5°E	장방형	(3×1)	(8주식)	448	186~ 204	9.1	30~50	20~52	16	

(8) 51~61호 굴립주 건물지 (도면 68~74, 도판 90~100)

조사대상지의 북쪽에 해당하며 해발 74~75m 선상에 위치한다. 55~61호는 니탄화가 진행된 저습지 위에 조성되었으며 경작토를 제거한 상태에서 노출된 기둥구멍들은 상대적으로 기둥구멍의 깊이가 얇은 편이다. 51~54호 굴립주건물지와 57, 58호 굴립주건물지는 중복되어 있으나 기둥구멍간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건물지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가 없다. 56, 60, 61호 굴립주건물지는 근대 경작지 조성과 시굴 트렌치에 의해 기둥구멍 일부가 제거되었다.

51~53호 굴립주건물지는 3개의 굴립주건물지가 중복된 상태인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 굴립주건물지가 순차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재건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축을 달리하는 12주식 건물지(51, 53호 굴립주건물지)와 9주식 건물지(52호 굴립주건물지)가 중복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기본 기둥구멍보다는 소규모의 보조 기둥구멍들이 군집을 이룬 형태로 분포해 있다. 54호 굴립주건물지는 보조 기둥구멍들이 군집을 이루어 기둥을 구성한 형태로 앞서 언급한 48, 50호 굴립주건물지와 유사한 양상인데 전체 면적도 9~10m² 내외로 비슷하다. 이런 형태의 굴립주건물지는 다수의 소형 기둥으로 상부구조를 떠받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56~61호 굴립주건물지의 기둥구멍에서는 돌과 나무를 이용한 초판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초판들은 상대적으로 습한 지대에서 연약한 지반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습지위에 조성된 굴립주건물지에는 별도의 초판을 배치하고 나무기둥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56, 57, 60호 굴립주건물지는 초판으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58, 61호 굴립주건물지는 목재를 이용하여 나무기둥을 세웠다.

58호 굴립주건물지에서는 10개의 기둥구멍에서 가공된 받침목(초판)이 확인되었다. 3개(①·④·⑤)의 기둥구멍에서는 받침목 위에 나무기둥이 올려진 상태로 노출되었고 받침목과 초심석이 함께 노출된 경우도 있다. ⑨번 기둥구멍의 경우 두께 2cm의 받침목 위에 면이 평평한 초심석이 놓여있고, 초심석 위에서 나무기둥흔이 확인되었다. 받침목의 규모는 길이 18~32cm, 너비 12~30cm, 두께 2~6cm이다.

61호 굴립주건물지의 ③번 기둥구멍에서는 중앙에 직경 10cm의 구멍이 있는 받침목이 확인되는데 받침

목의 구멍은 나무기둥에 요철형태로 가공(받침목:凹, 나무기둥:凸)하여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무기둥은 모두 원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기둥구멍상면이 근대 경작지에 의해 유실되는 과정에서 이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58호 굴립주건물지는 51호 굴립주건물지와 동일한 방향이며 12주식 굴립주건물지이다. 나머지는 모두 9주식과 규모가 작은 6주식 굴립주건물지가 혼재해 있다. 기둥구멍은 원형과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깊이는 50cm 내외이다.

56~61호 굴립주건물지 중에서 57, 60호 굴립주건물지를 제외한 유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나무 건축재들이 잔존하며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굴립주건물지 인근에서 확인된 기둥구멍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기둥구멍 내에서도 나무기둥과 받침목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일대에 분포하는 니탄층 성분에 의해 상대적으로 목재들이 덜 부식된 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목재의 수종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56호 굴립주건물지 - ②번 나무기둥의 수종을 분석한 결과 밤나무로 확인되었으며, 측면은 가공하지 않고 저면만 평탄하게 다듬어 이용하였다. 나무기둥흔이 확인된 기둥구멍은 1개이며 직경은 나무기둥과 동일한 16cm이다.

58호 굴립주건물지 - 받침목(①·②·④·⑤·⑥·⑧)과 나무기둥(①·④·⑤)의 수종분석 결과 모두 밤나무로 밝혀졌다. 받침목의 경우 전부 방형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받침목 중 목재의 등근 표면 부분을 절단하여 한쪽만 다듬은 형태도 확인된다. 나무기둥은 ①번 나무기둥의 경우 底面을 銳角으로 가공되었으며 ④번과 ⑤번 나무기둥은 底面을 평탄하게 다듬고 側面도 가공하였다.

59호 굴립주건물지 - ②번 나무기둥의 수종분석 결과 밤나무이며, 측면의 가공없이, 底面만 鈍角으로 가공하였다.

61호 굴립주건물지 - 수종분석 결과 ④번이 참나무이며 나머지(①·②·⑤)는 밤나무로 밝혀졌다. ②번 받침목의 경우 가지목을 종방향으로 절단하여 판목으로 가공하였다. 측면가공은 ①·②번에서 확인되며 저면은 ①·②번이 평탄하게 ⑤번은 鈍角의 형태로 가공되었다. ④번은 부식이 심하여 가공흔을 확인하기 어렵다.

〈표 8〉 51~61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51호	N148.5°E	장방형	3×2	12주식	484~494	426~436	21.5	36~68	16~58	16	52,53호 중복
52호	N26°E	장방형	2×2	9주식	380~386	374~388	15	32~60	16~30		51,53호 중복
53호	N26°E	장방형	3×2	12주식	404~444	376~414	18.4	42~66	22~44		51,52,54호 중복
54호	N32.5°E	장방형	(2×1)	(6주식)	398~418	234	9.8	40~64	28~62	18~22	53호 중복
55호	N175°E	장방형	2×1	(6주식)	466~492	363~372	18.3	54~94	16~78	24	
56호	N19.5°E							30~50	24~38	16	동편 삭평
57호	N179°E	방형	2×2	9주식	356~390	370	14.4	30~50	6~32	12	58호 중복
58호	N114°E	장방형	3×2	12주식	394~420	340	14.9	30~70	3~38	14~18	받침목
59호	N26°E	장방형	2×2	9주식	352~376	308~338	12.7	30~72	8~40	16~18	
60호	N17°E	장방형	(2×2)	(9주식)	440~446			32~62	6~54	18~28	동편 삭평
61호	N18°E							32~86	8~24	16	북동편삭평, 받침목

(9) 63~66호 굴립주 건물지 (도면 75~77, 도판 101~104-1.2)

해발 74.5~75m 선상에 위치한다. 북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하천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유구는 곡부에서 완사면으로 이어지는 평탄한 지역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12주식(62, 63호 굴립주 건물지)의 비교적 대형 건물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9주식인 64호, 65호 굴립주 건물지가 서로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기둥구멍간의 중복관계에서 64호 굴립주 건물지가 사용된 이후에 65호 굴립주 건물지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원형과 타원형의 평면이며, 깊이는 50cm 내외로 경작지 조성에 의해 일부 기둥구멍이 삭평되었다. 64호 굴립주 건물지에서 2개의 기둥구멍은 직경 20~35cm 크기의 편평한 자연석을 이용한 초심석이 확인되었다. 1개의 기둥구멍에서는 직경 14cm의 나무기둥이 잔존하며, 받침석 위에 올려진 상태가 확인되었다.

〈표 9〉 62~65호 굴립주 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62호	N101.5°E	장방형	3×2	12주식	440~452	412~432	19.5	26~58	10~40	12~20	
63호	N92.5°E	장방형	3×2	12주식	404~447	396~406	18.1	28~70	8~60	14~24	
64호	N155°E	방형	2×2	9주식	386~394	346~376	14.9	32~92	12~54	14	받침석
65호	N83°E	방형	2×2	9주식	300~320	300~320	10.2	22~61	2~40	14~20	64호중복

(10) 66~72호 굴립주 건물지 (도면 78~82, 도판 104-3~110)

조사대상지의 중앙부에 해당하며 유구들은 소하천 주변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 되어 있다. 해발 72~73m 선상에 위치한다. 굴립주 건물지들 가운데 삼국시대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해당한다. 굴립주 건물지 공간과 주거공간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⁷⁾ 굴립주 건물지 주변으로 소규모의 기둥구멍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정형성을 찾기 어렵다.

67호 굴립주 건물지의 흔적은 열상으로 일렬만 확인되는데 상·하단이 경작지에 의해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67호 굴립주 건물지의 ①번 기둥구멍내 나무기둥은 직경 48cm로 가동유적에서 확인된 나무기둥 중 가장 크다. 69, 70호 굴립주 건물지는 기둥구멍간 중복되어 있으며, 70호 굴립주 건물지가 먼저 조성된 후 69호 굴립주 건물지가 뒤에 조성되었다. 이들 굴립주 건물지는 수혈유구⁸⁾와도 중복되어 있는데 수혈유구가 굴립주 건물지보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71호 굴립주 건물지는 경작지 조성과 시굴트렌치에 의해 일부 기둥구멍이 유실되어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완전하지 않다. 71호 굴립주 건물지의 ⑦번 기둥구멍내에서 확인되는 나무기둥은 단면 6면체로 가공되어 있으며, 저면은 평탄하게 자른후 면을 고르게 가공한 흔적인 확인된다. 이것은 다른 나무기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매우 정돈된 형태의 건축재라고 할 수 있다. 72호는 조사과정에서는 4주식의 1칸 구조만 확인되었으나 남서쪽으로 기둥구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둥구멍은 일부 삭평된 기둥구멍들을 제외하면 깊이가 50~60cm 내외이다.

7) 삼국시대 주거지 주변으로도 기둥구멍형태의 수혈들이 존재한다. 굴립주 건물지 보다 더 많은 밀도로 존재하는데 이들 구덩이들은 규모가 작고 내부토상 목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거지 내부토로 채워져 있으며 주간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구덩이들은 주거지 조성시기에 공존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파여지고 매몰된 구덩이들로 생각된다.

8) 69, 70호는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이 수혈들은 하천주변에 인접하여 있고 낮은 쪽 배수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을 이용한 침수 시설로 추측된다. 또한 내부토상 침전된 니탄 층을 가지고 있어 조성당시 물이 고여 있는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지와의 상관관계는 내부토상 건물폐기후 수혈이 들어선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71호-①번 나무기둥의 수종분석과 결과 굴피나무로 확인되며 측면가공은 확인되지 않고 저면이 鈍角으로 가공되었다.

〈표 10〉 66~72호 굴립주건물지 명세표

구분	주축방향	평면형태	주간	형식	규모(cm)		면적(m ²)	기둥구멍규모(cm)		목심직경(cm)	비고
					정면	측면		직경	깊이		
66호	N40.5°E	방형	2×2	9주식	370~384	380~404	15.5	36~78	14~40	20~28	
67호								48~96	24~40	48	열상확인
68호	N111°E	방형	2×2	9주식	350~370	370	13.7	50~100	22~48	14~24	
69호	N100°E	장방형			490~526	414~430	22.6	32~80	14~66	18~24	70호 중복
70호	N63.5°E	방형	2×2	9주식	366~400	320~340	13.6	44~88	18~76	12~26	수혈 중복
71호	N139°E	(방형)			(290)	(340)	(9.9)	28~48	10~32	16	
72호	N90°E				(170~200)	(220~230)		36~58	6~50		자연구유실

(11) 1~3호 기둥구멍군 (도면 83·84, 도판 111·112)

유적의 서쪽편으로 형성된 구릉지의 동편말단부에 해당하며 비교적 급한 경사를 가지는 지역에 조성되어 있다. 주변으로 삼국시대 수혈유구와 요지 등이 확인되며 기둥구멍들이 군집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주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발 75m 선상에 위치하며 등고선 따라 부분적으로 열상 군집이 확인되나 주간 정형성은 없다. 기둥구멍군은 다른 기둥구멍군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각 군집되어 있다.

1호 기둥구멍군은 구릉사면에 형성된 삼국시대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건물지가 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⁹⁾. 기둥구멍군을 이루는 기둥구멍의 대부분은 직경 30cm 내외의 소형 기둥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기둥구멍에서는 목심흔이 잔존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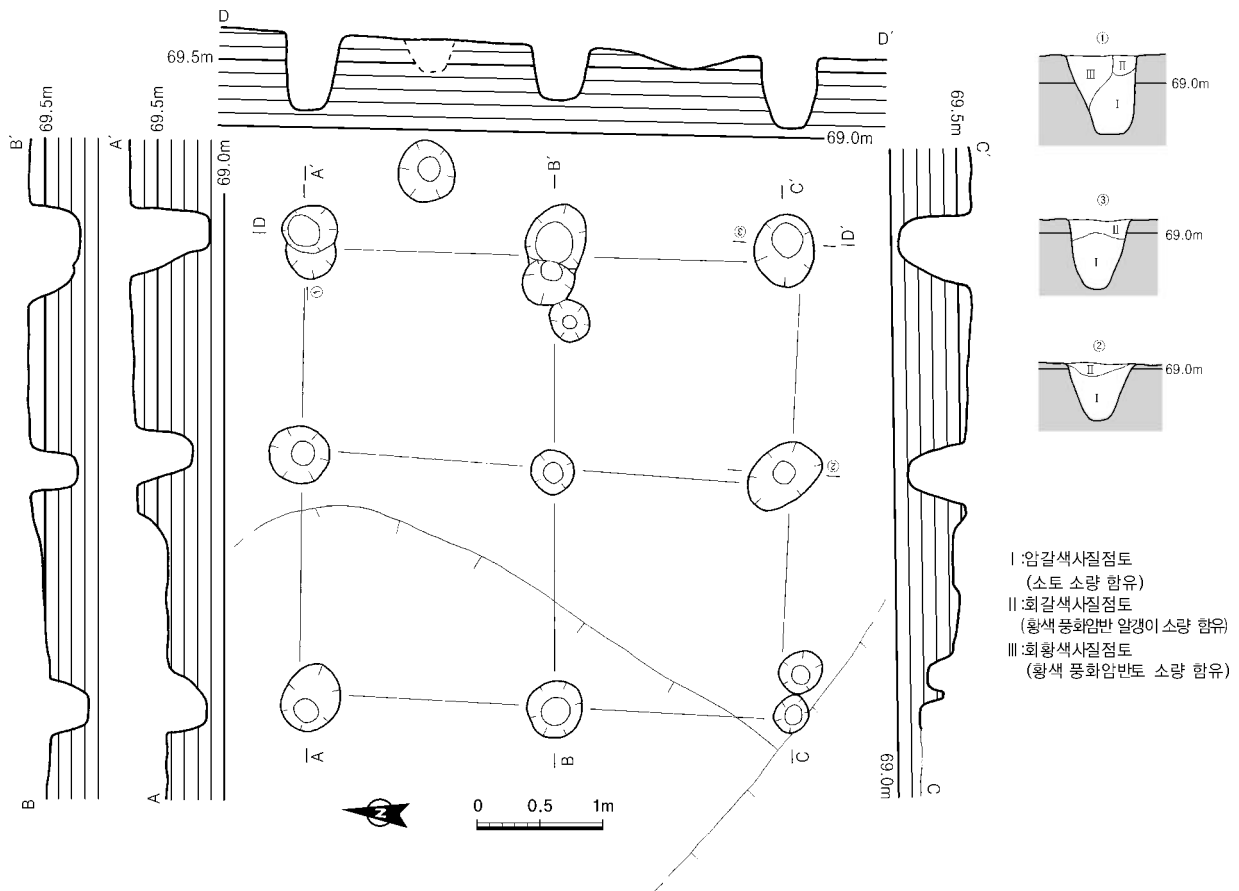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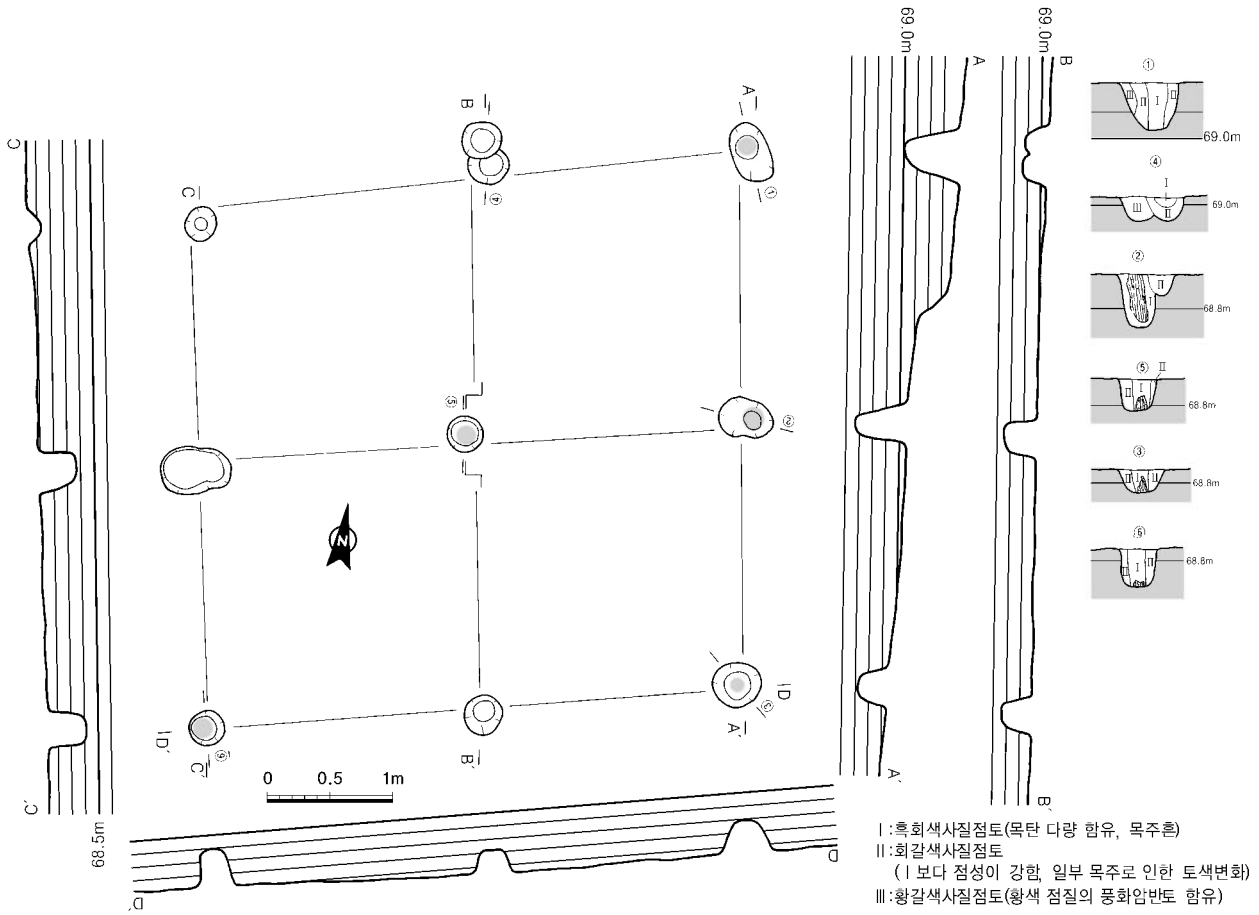
기둥구멍군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1호 기둥구멍군-장축: 1,000cm, 단축: 470cm, 기둥구멍직경: 20~60cm, 기둥구멍깊이: 20~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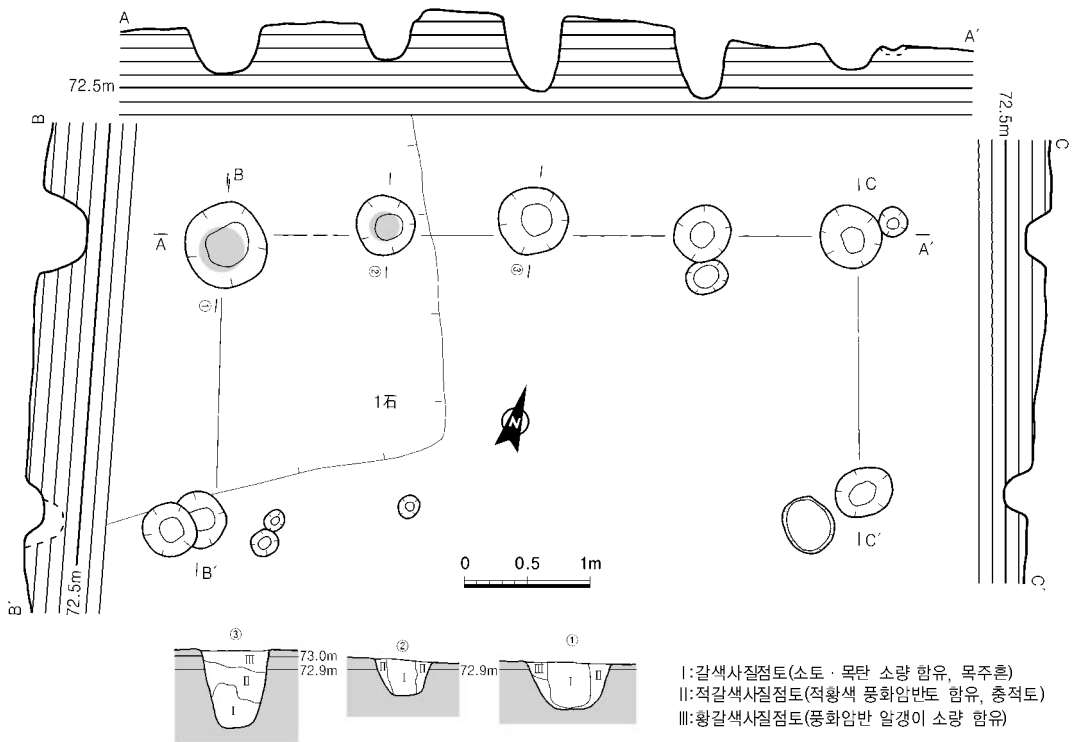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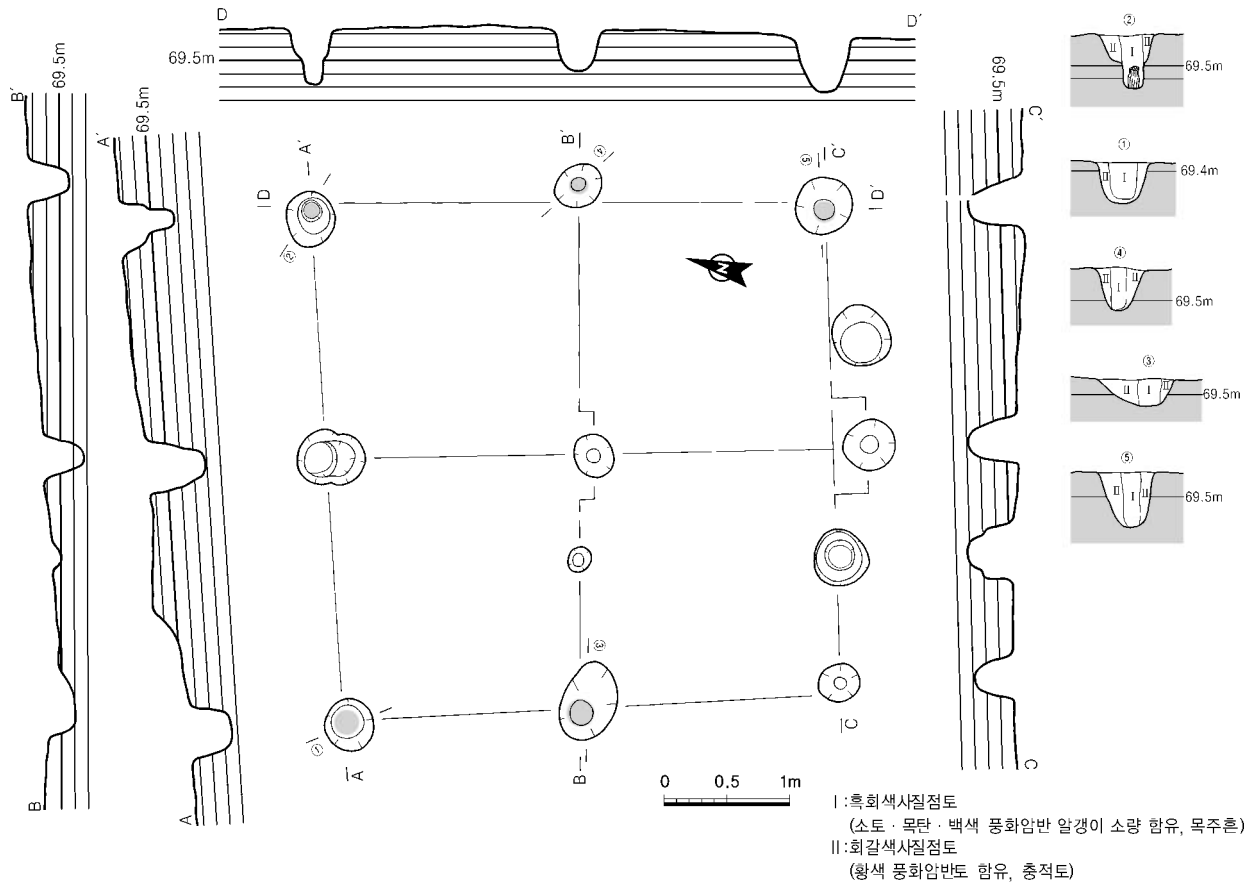
2호 기둥구멍군-장축: 850cm, 단축: 520cm, 기둥구멍직경: 30~50cm, 기둥구멍깊이: 20~35cm.

3호 기둥구멍군-장축: 700cm, 단축: 550cm, 기둥구멍직경: 20~70cm, 기둥구멍깊이: 15~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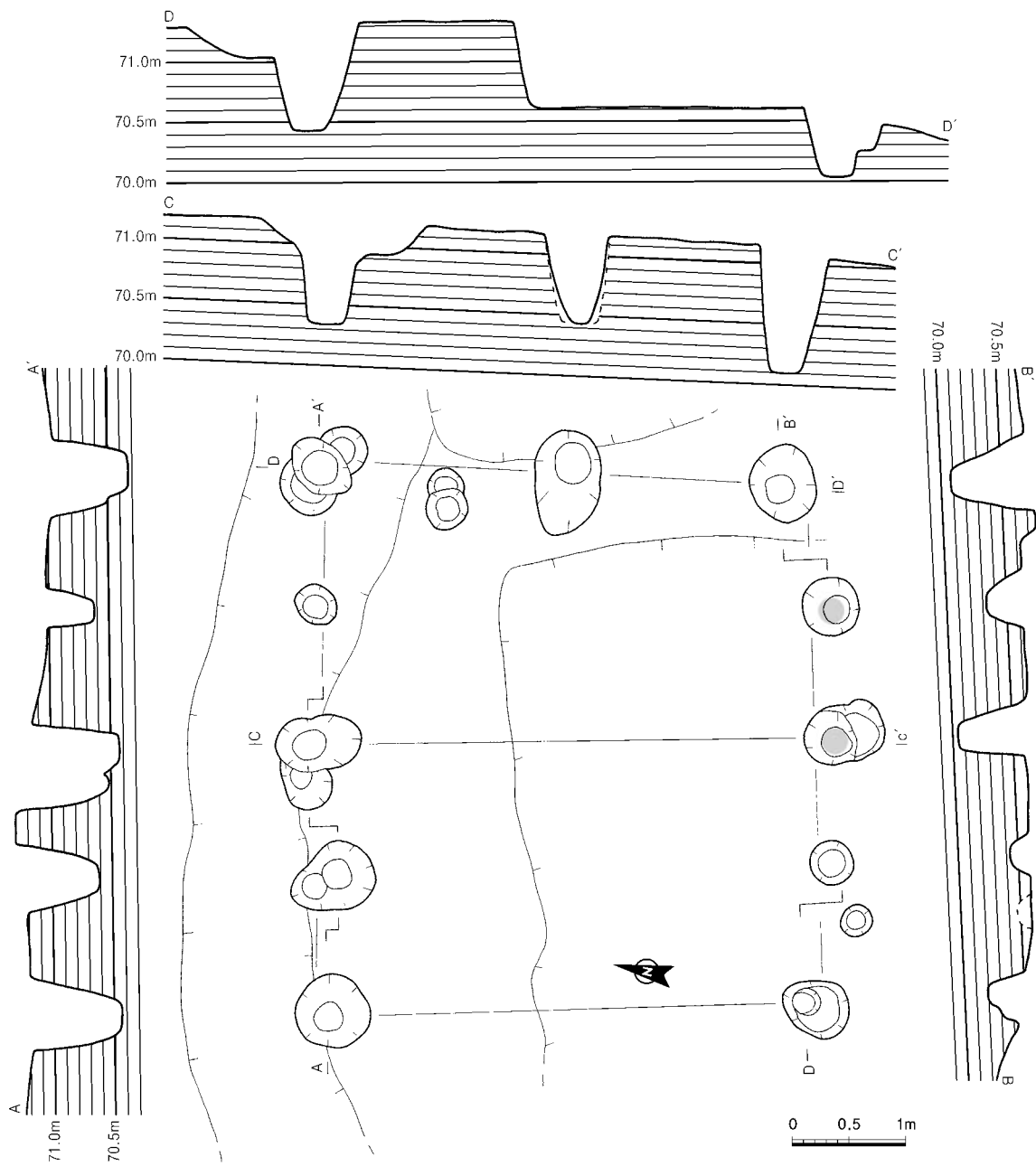
9) 삼국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1호 기둥구멍군과 상단열이 이어지는 기둥구멍이 확인되나 조사상에서 주거지 내부 기둥구멍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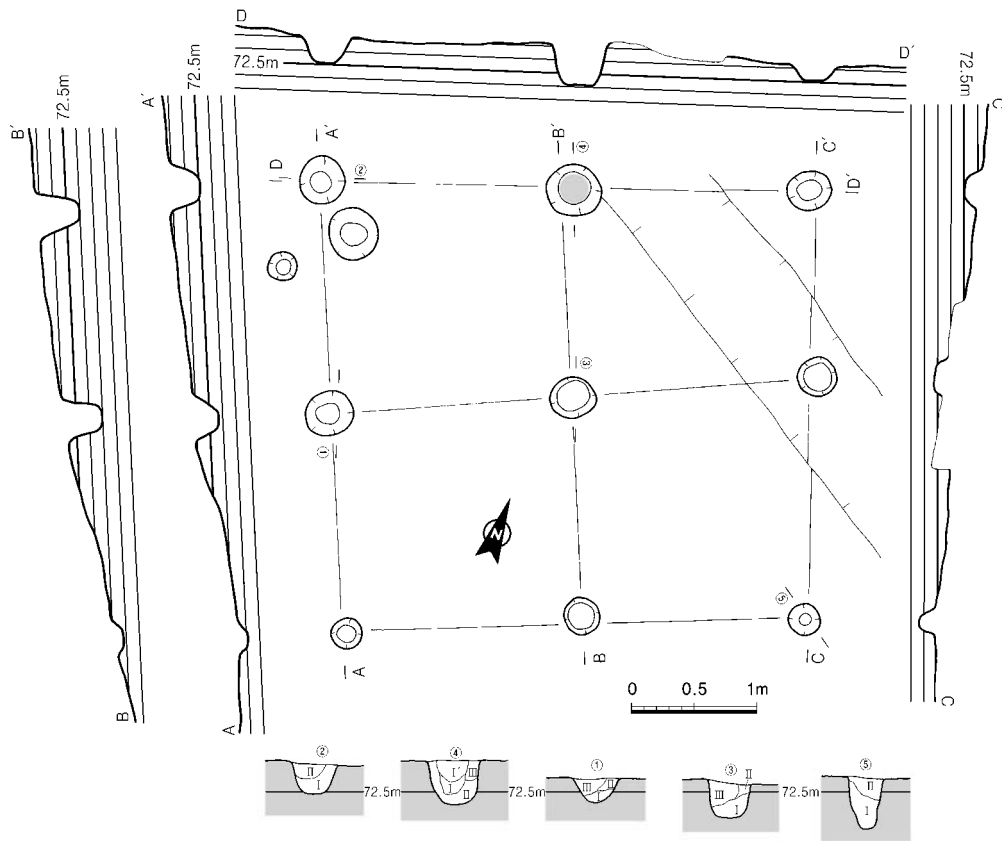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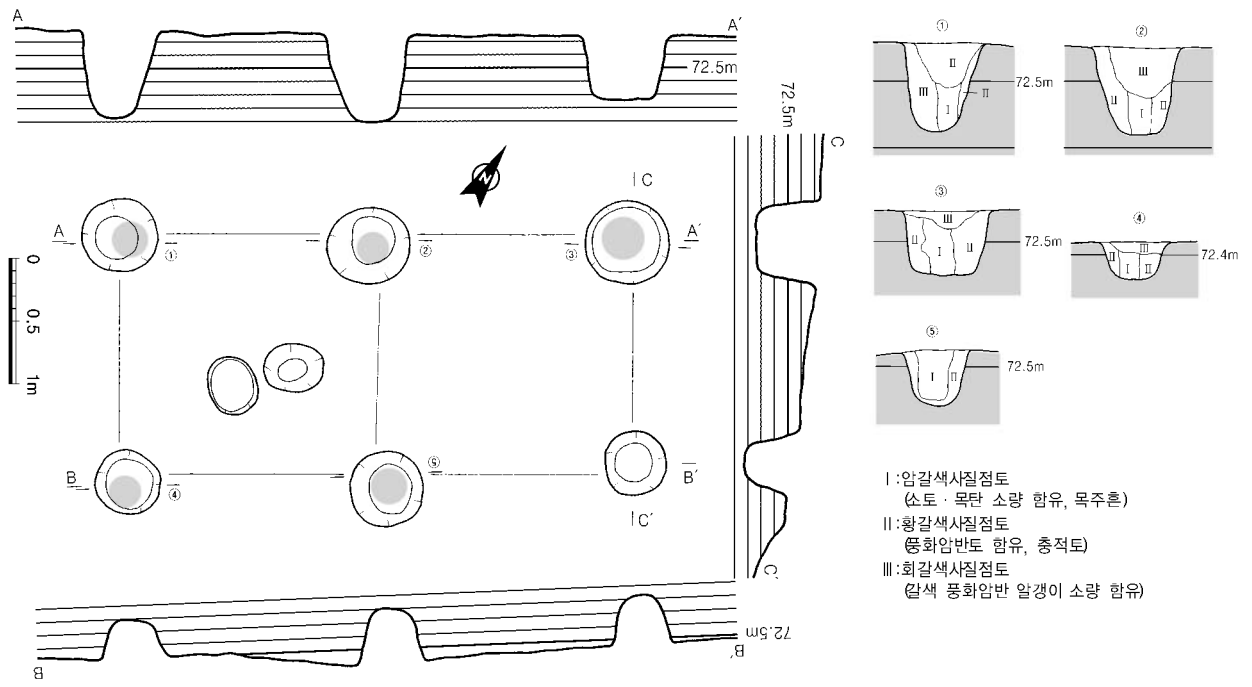
圖面 33. 1호(上), 2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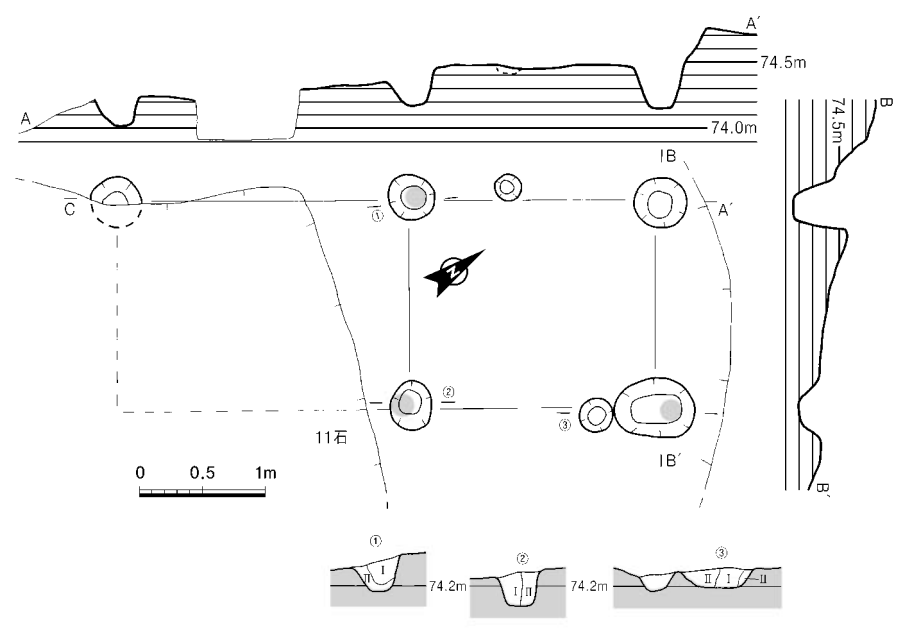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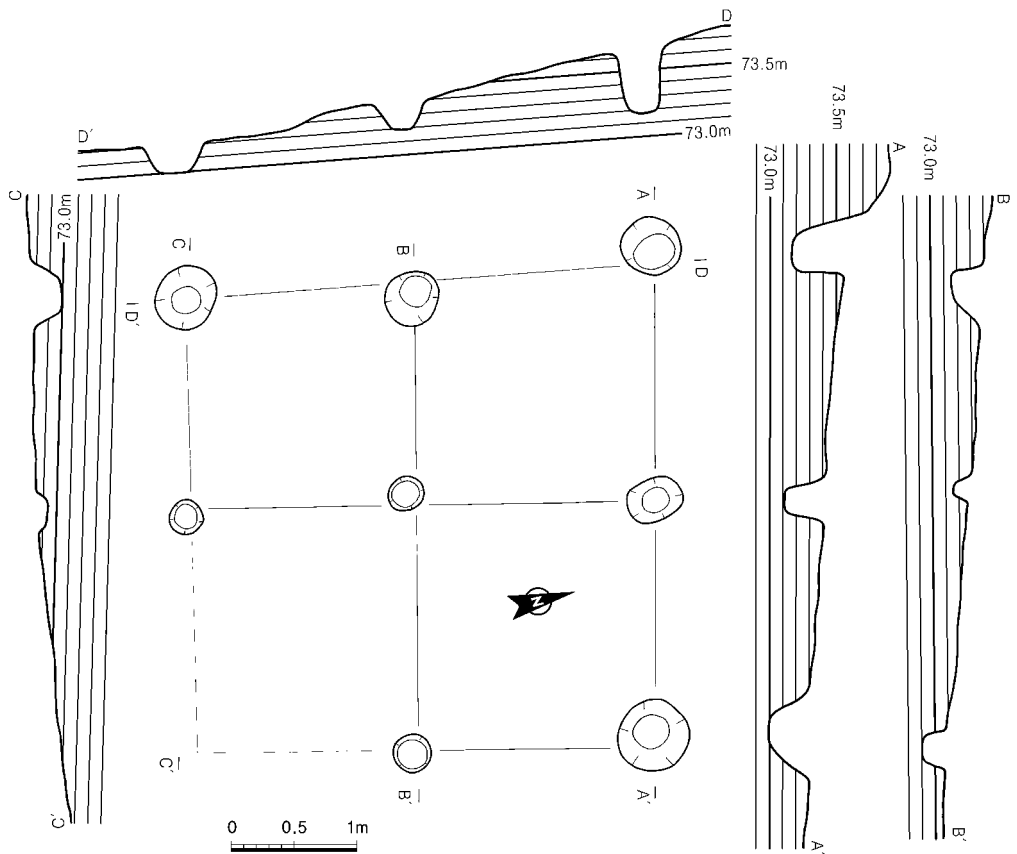
圖面 34. 3호(上), 5호(下) (1/60)



圖面 35. 4号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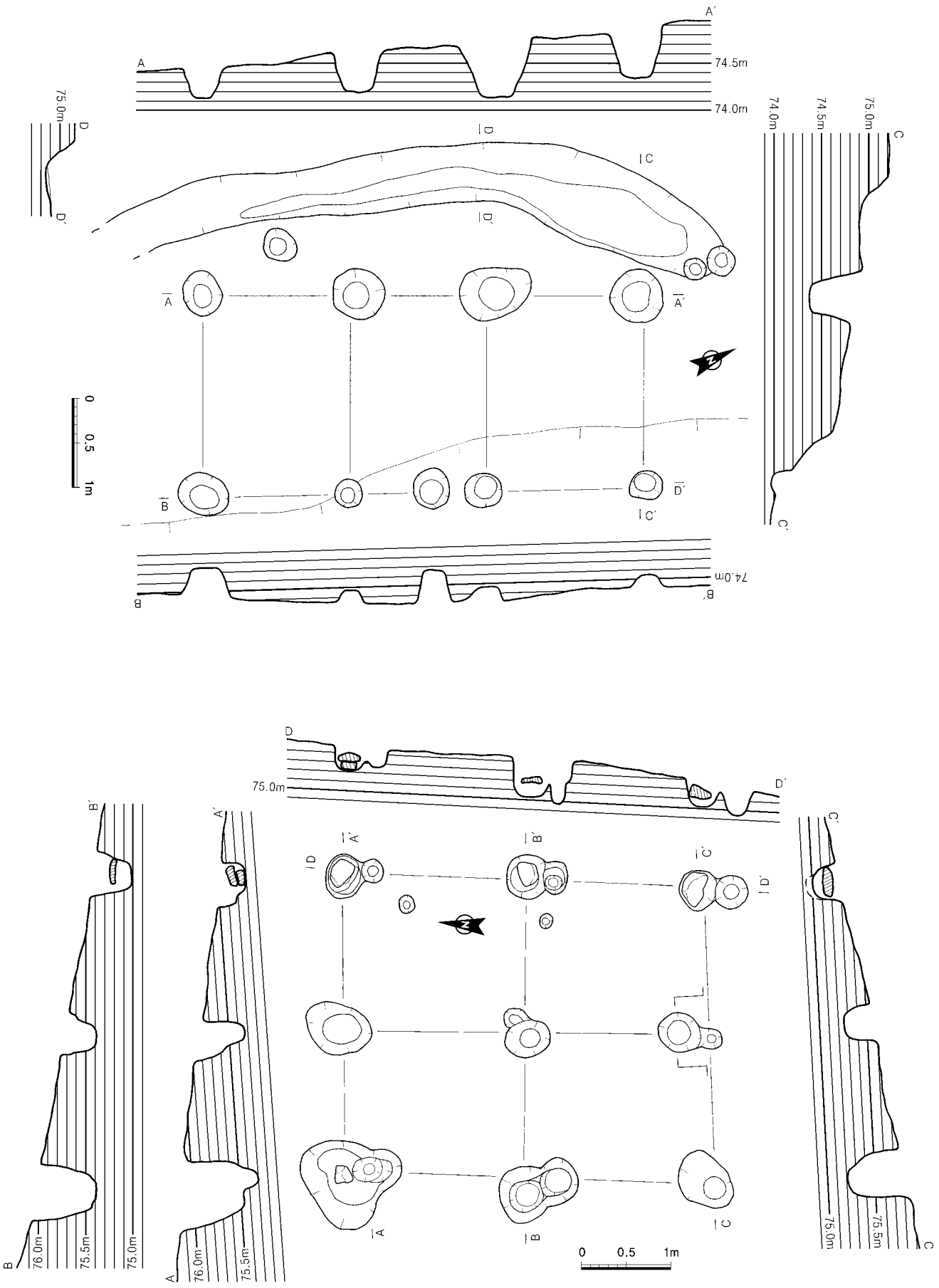


圖面 36. 6호(上), 7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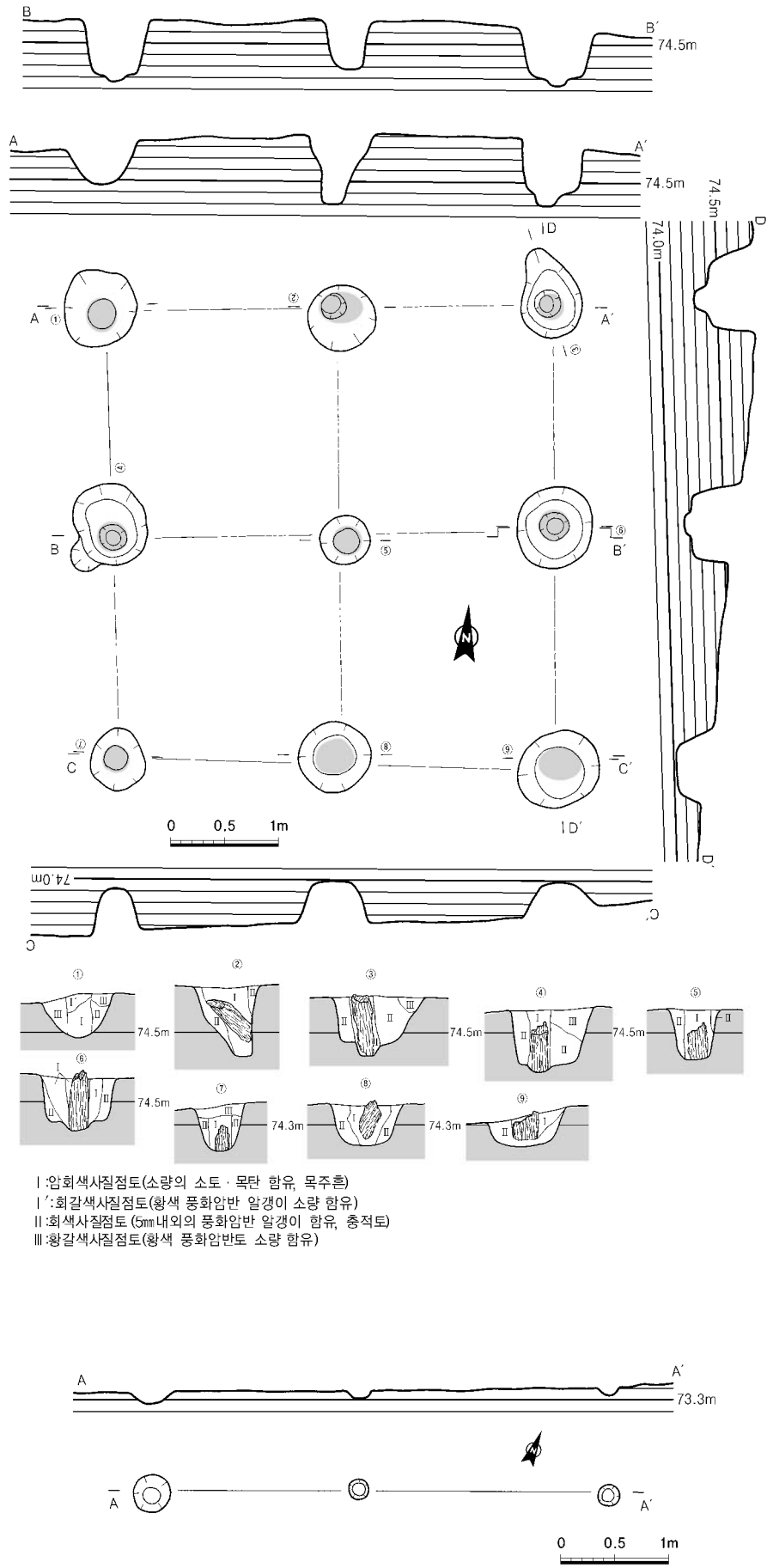


I : 적갈색사질점토 (소토 · 목탄 다량 함유, 목주흔)
 II : 황갈색사질점토 (황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총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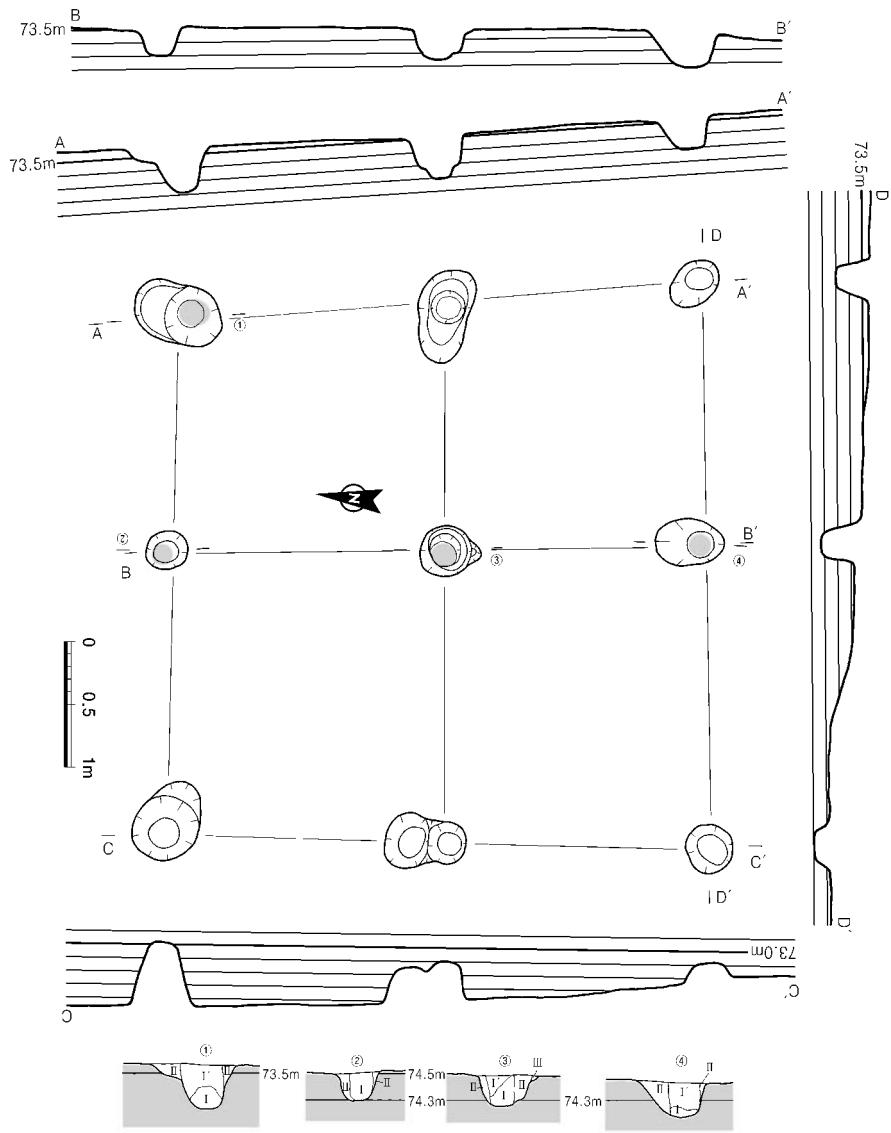
圖面 37. 8호(上), 9호(下) (1/60)



圖面 38. 10号(上), 11号(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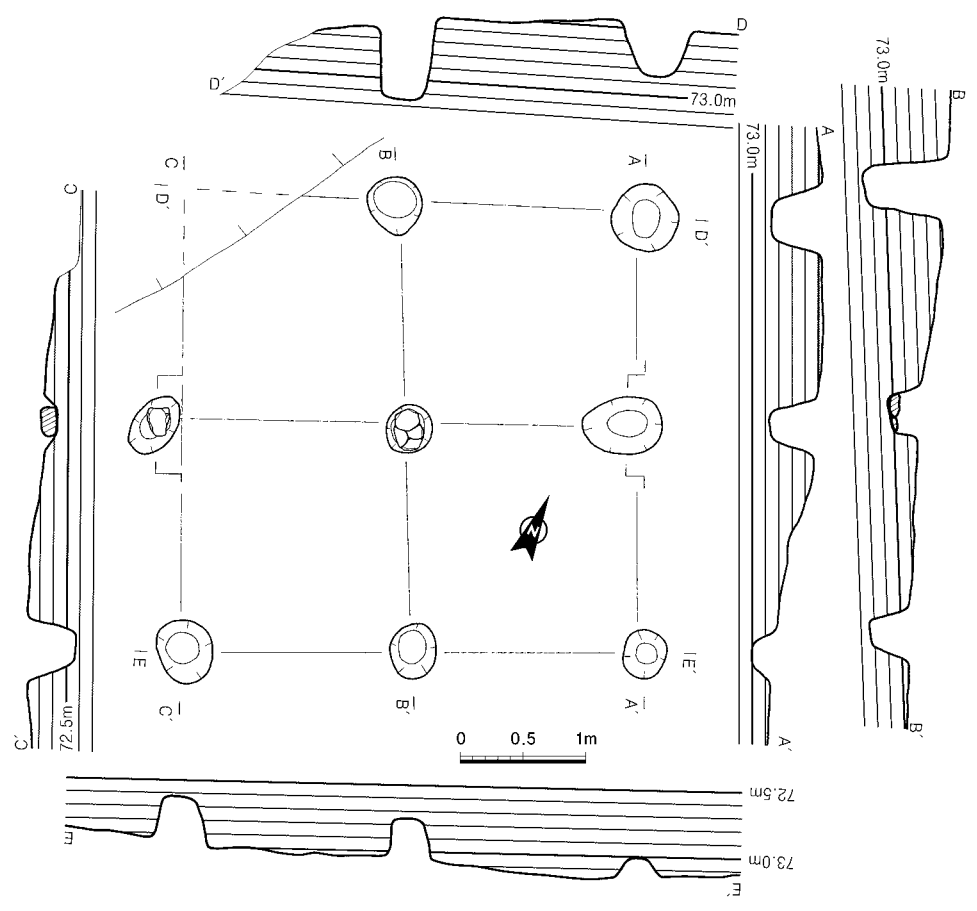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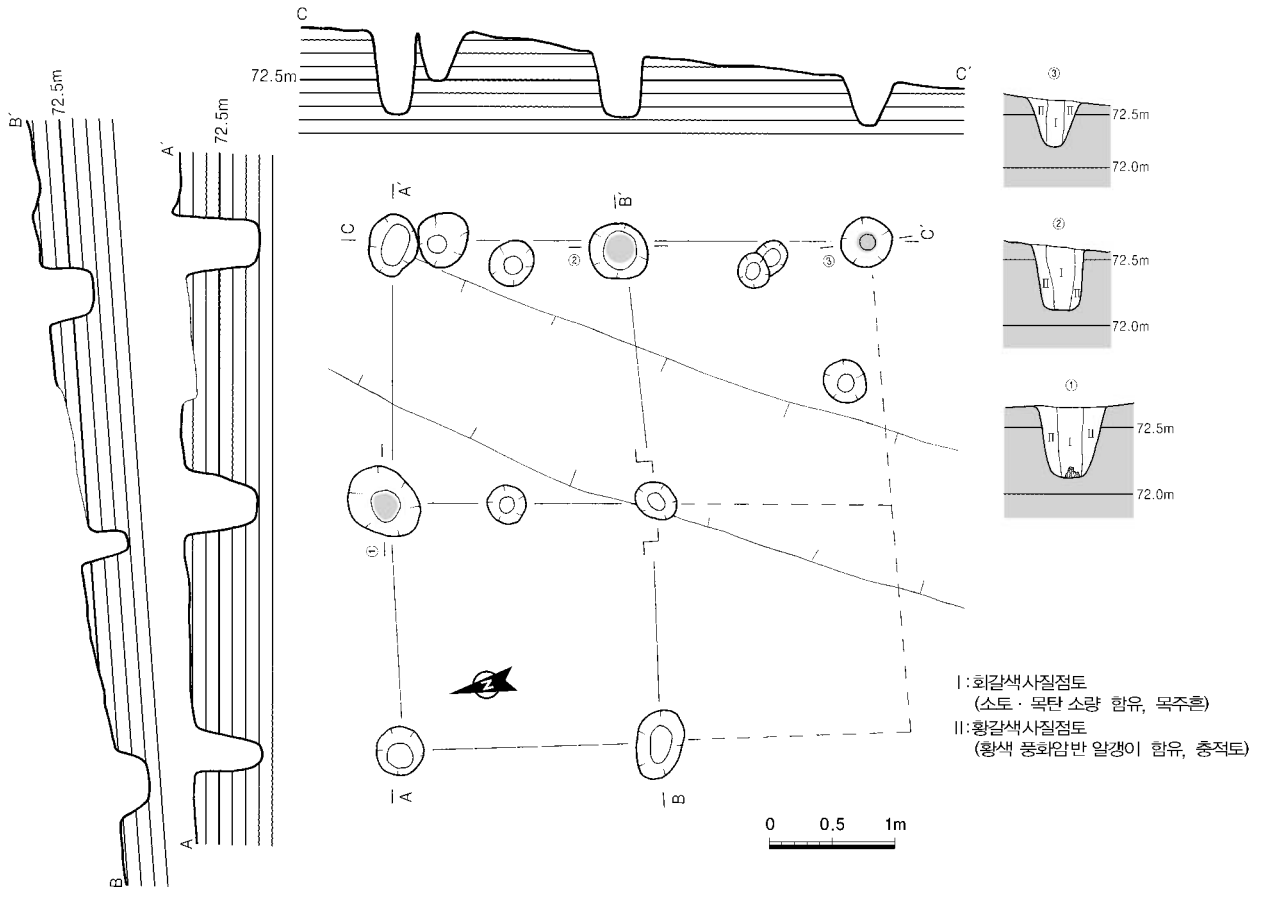


圖面 39. 12호(上), 13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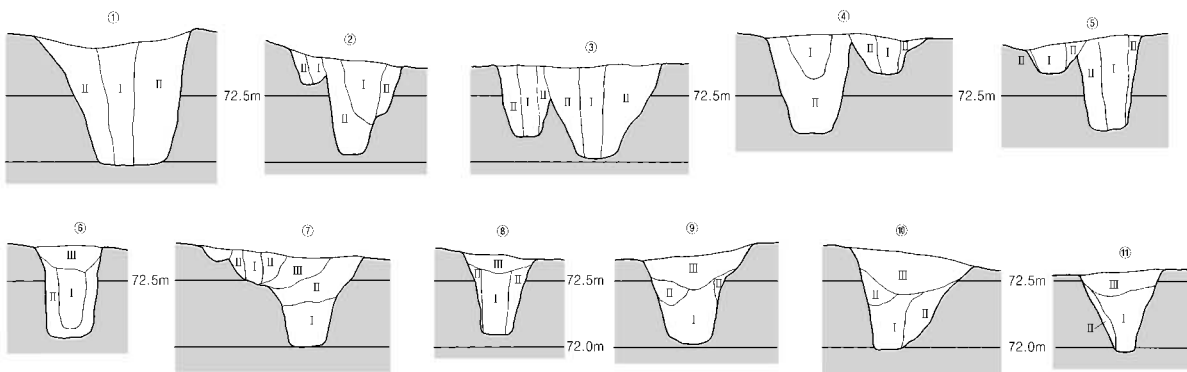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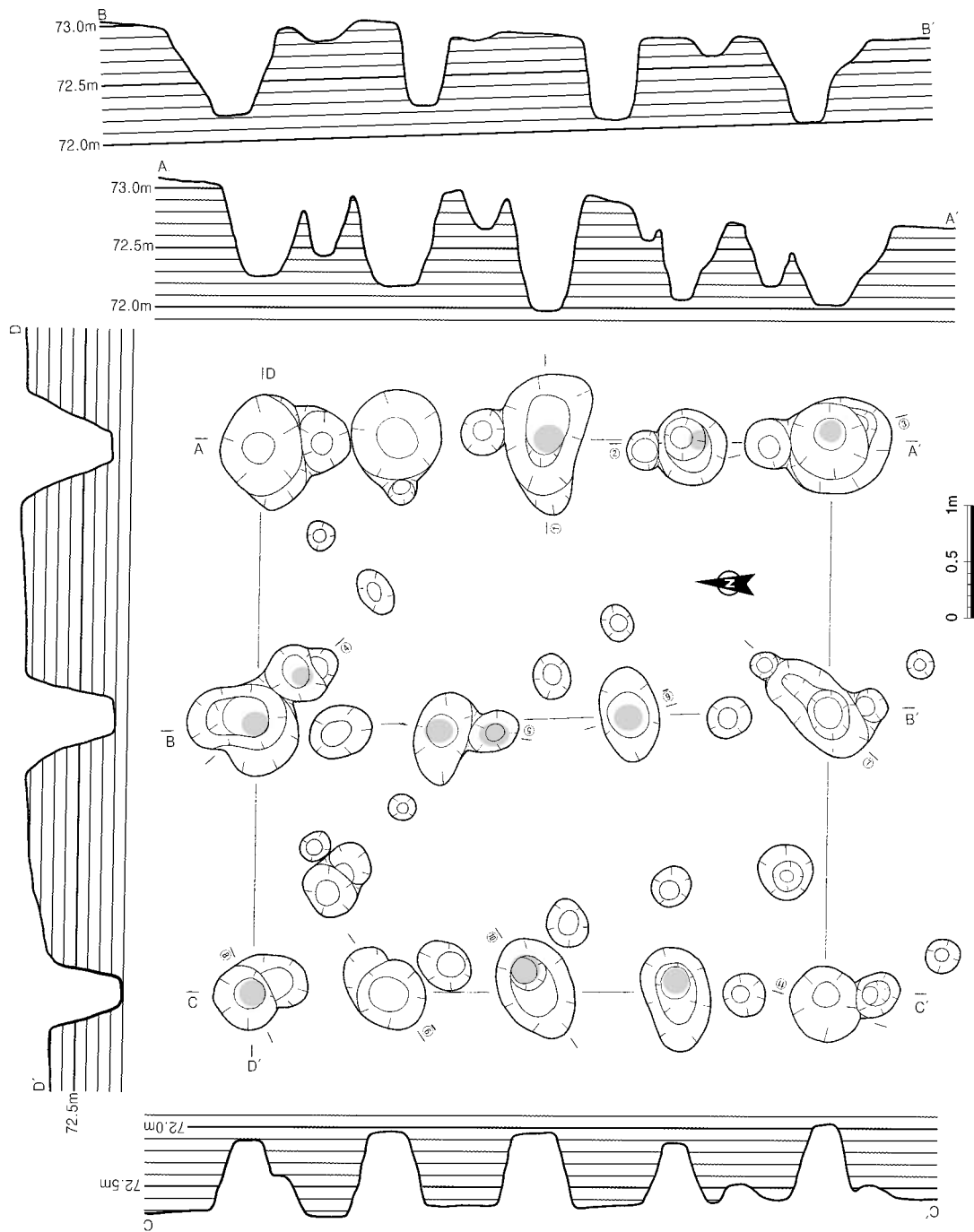


- I: 암회색사질점토(소량의 소토 함유, 목주흔)
 II: 황갈색사질점토(황갈색 풍화암반 알갱이 함유, 층적토)
 I': 갈색사질점토(갈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III: 황갈색 사질점토(풍화암반 알갱이 함유)

圖面 40. 14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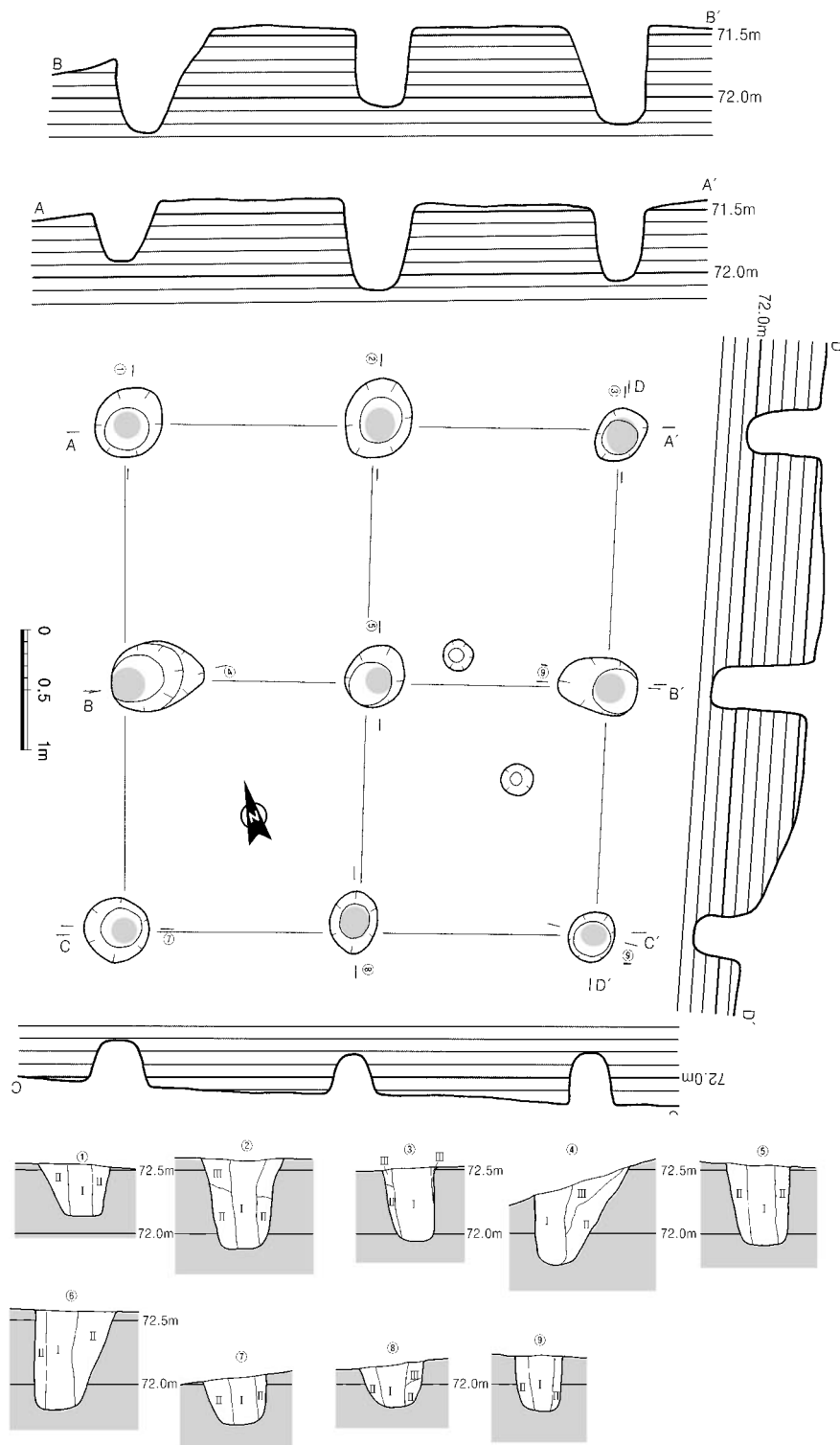


圖面 41. 15호(上), 16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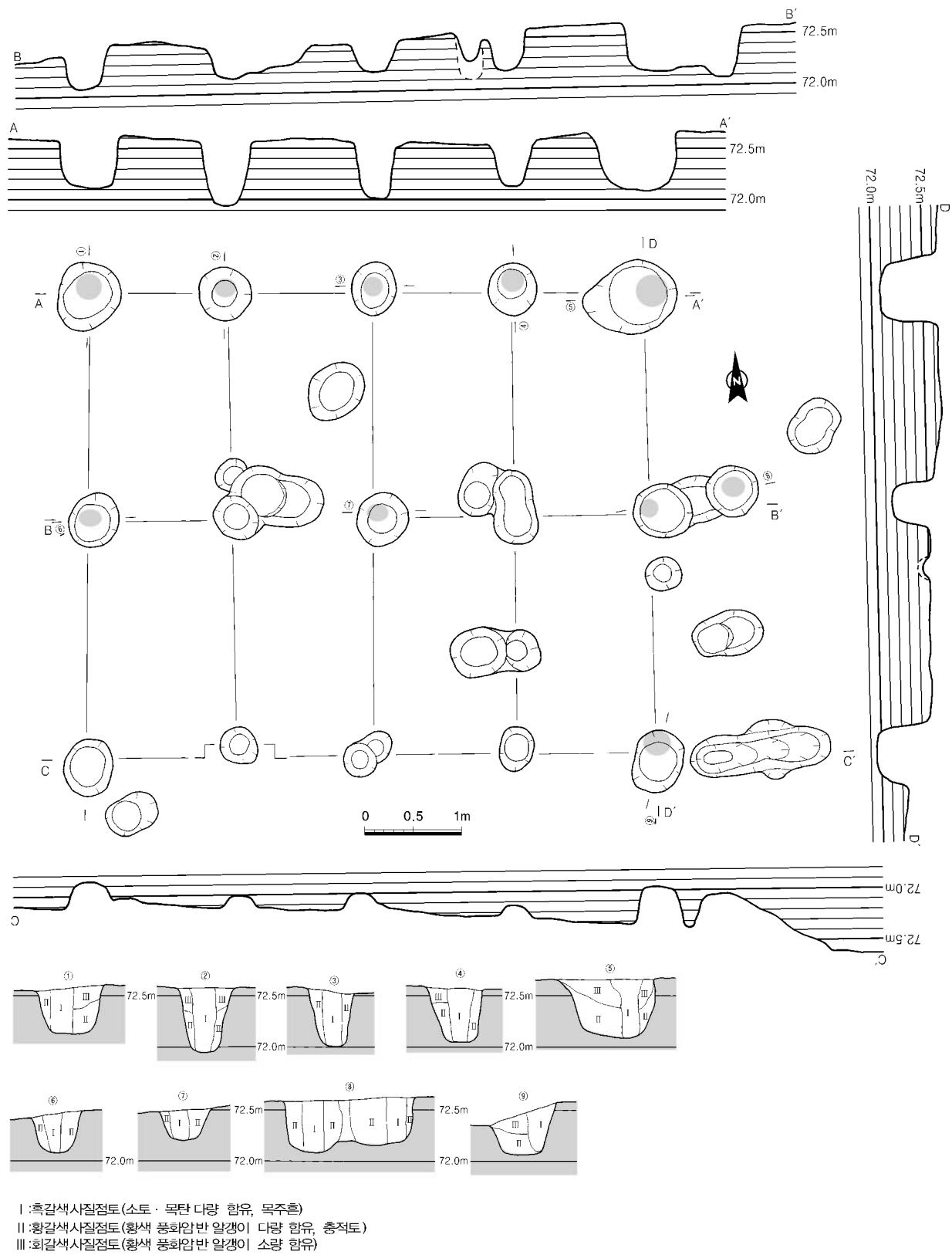
- I: 암갈색사질점토 (소토 · 목탄 다량 함유, 목주흔)
- II: 황갈색사질점토 (황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총적토)
- III: 회갈색사질점토 (II와 유사하나 회색의 풍화암반 알갱이 다량 함유)

圖面 42. 17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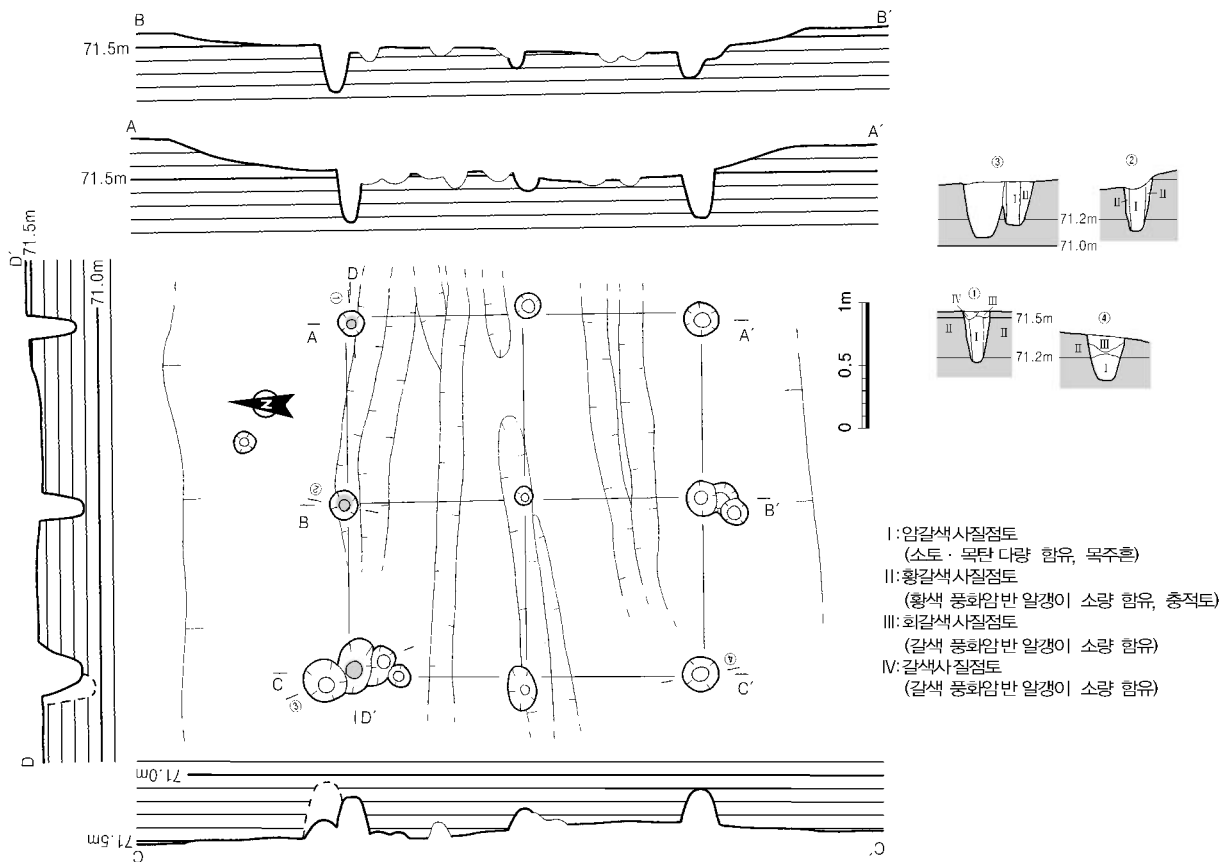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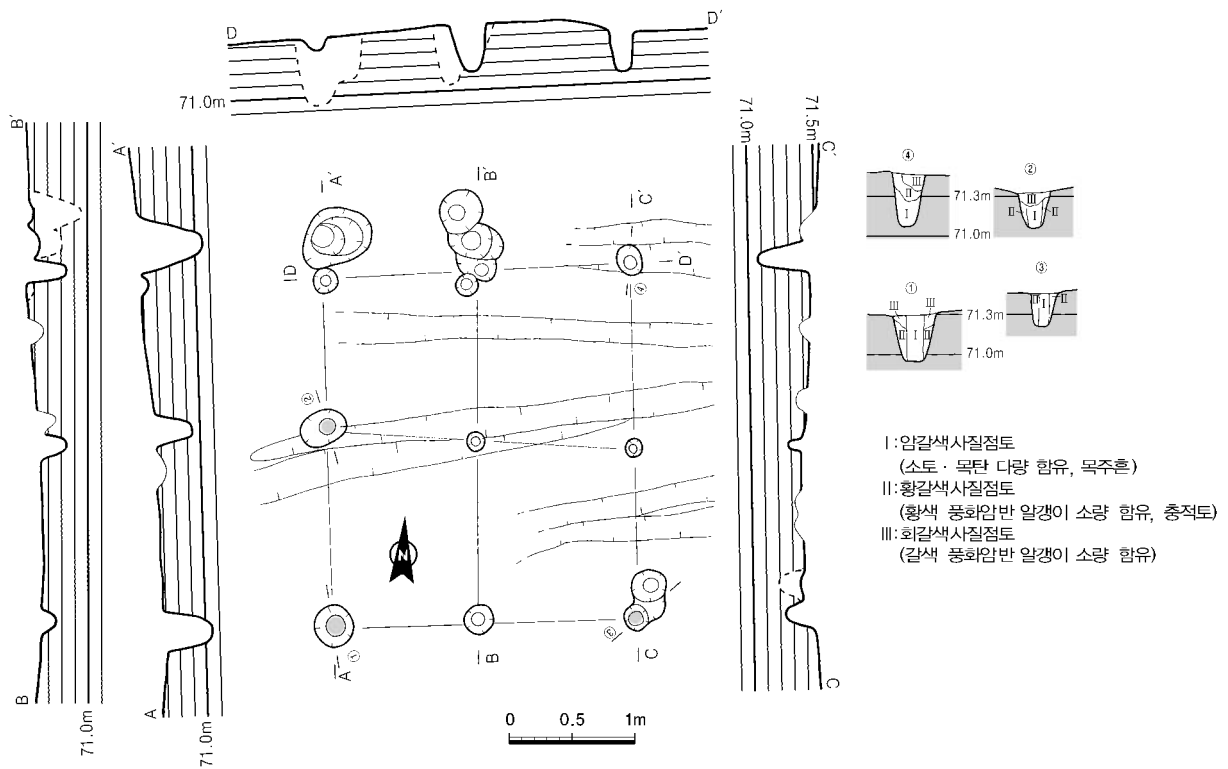


- I: 흑갈색사질점토(소토·목탄 다량 함유, 목주흔)
- II: 황갈색사질점토(적황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총적토)
- III: 회갈색사질점토(갈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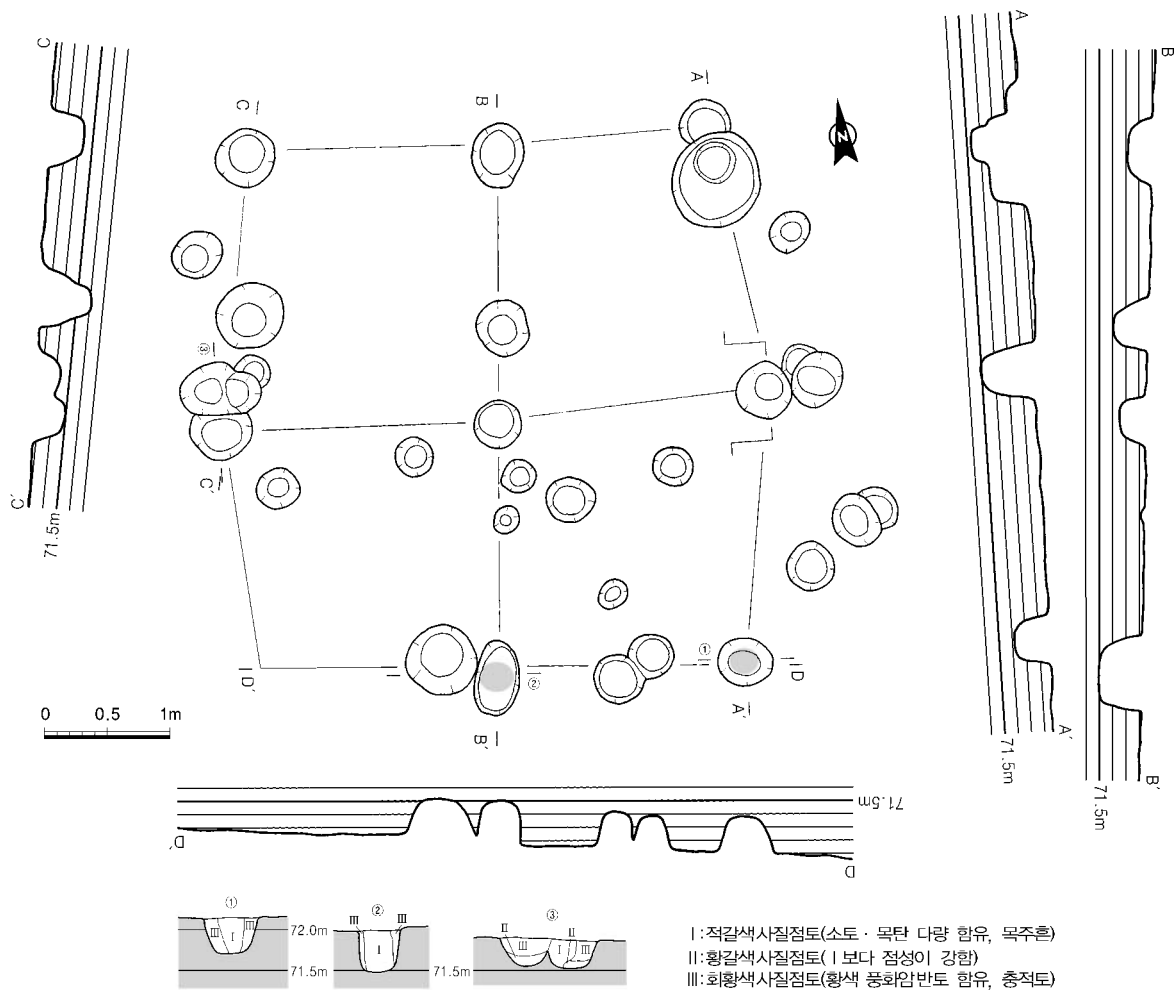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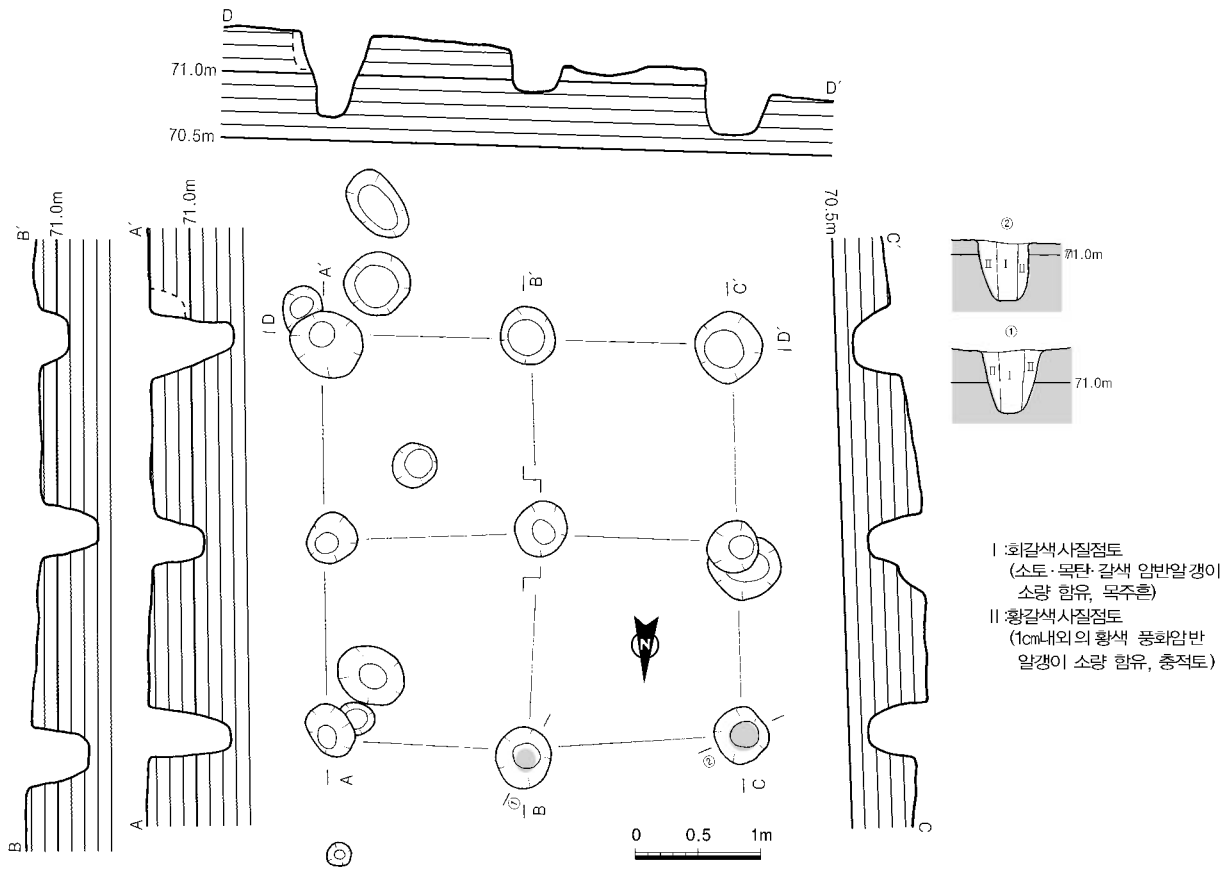
圖面 43. 18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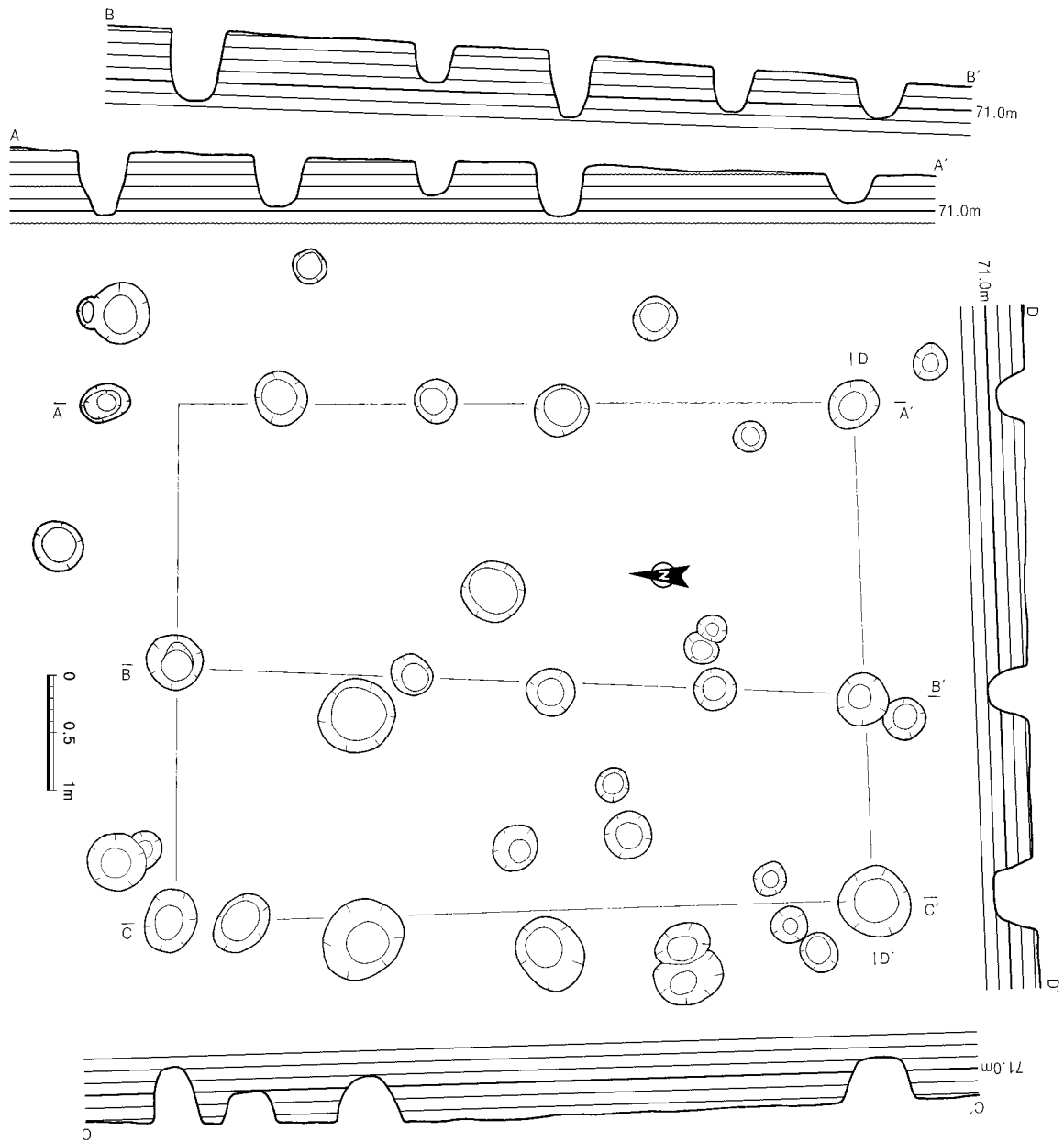
圖面 44. 19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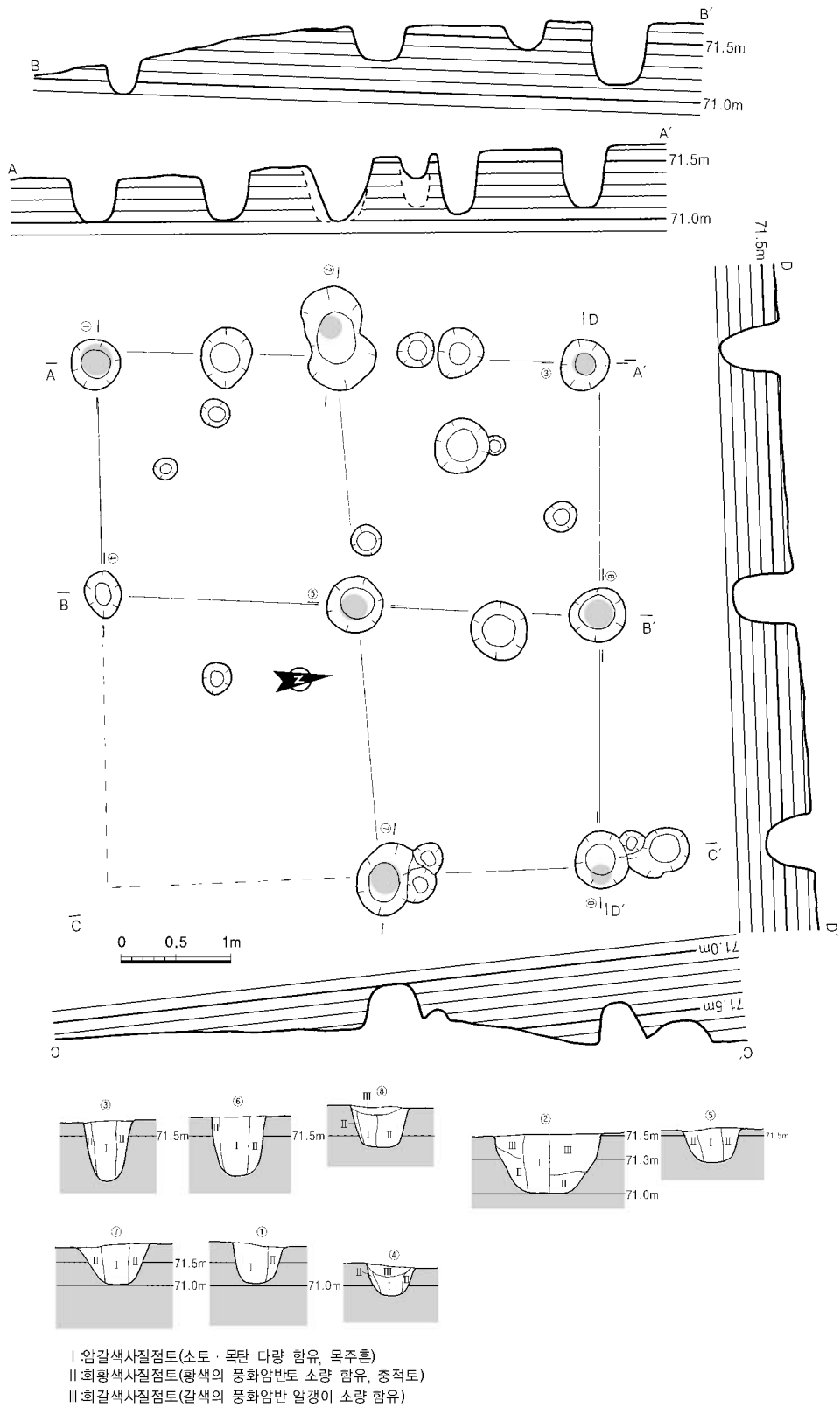
圖面 45. 20호(上), 21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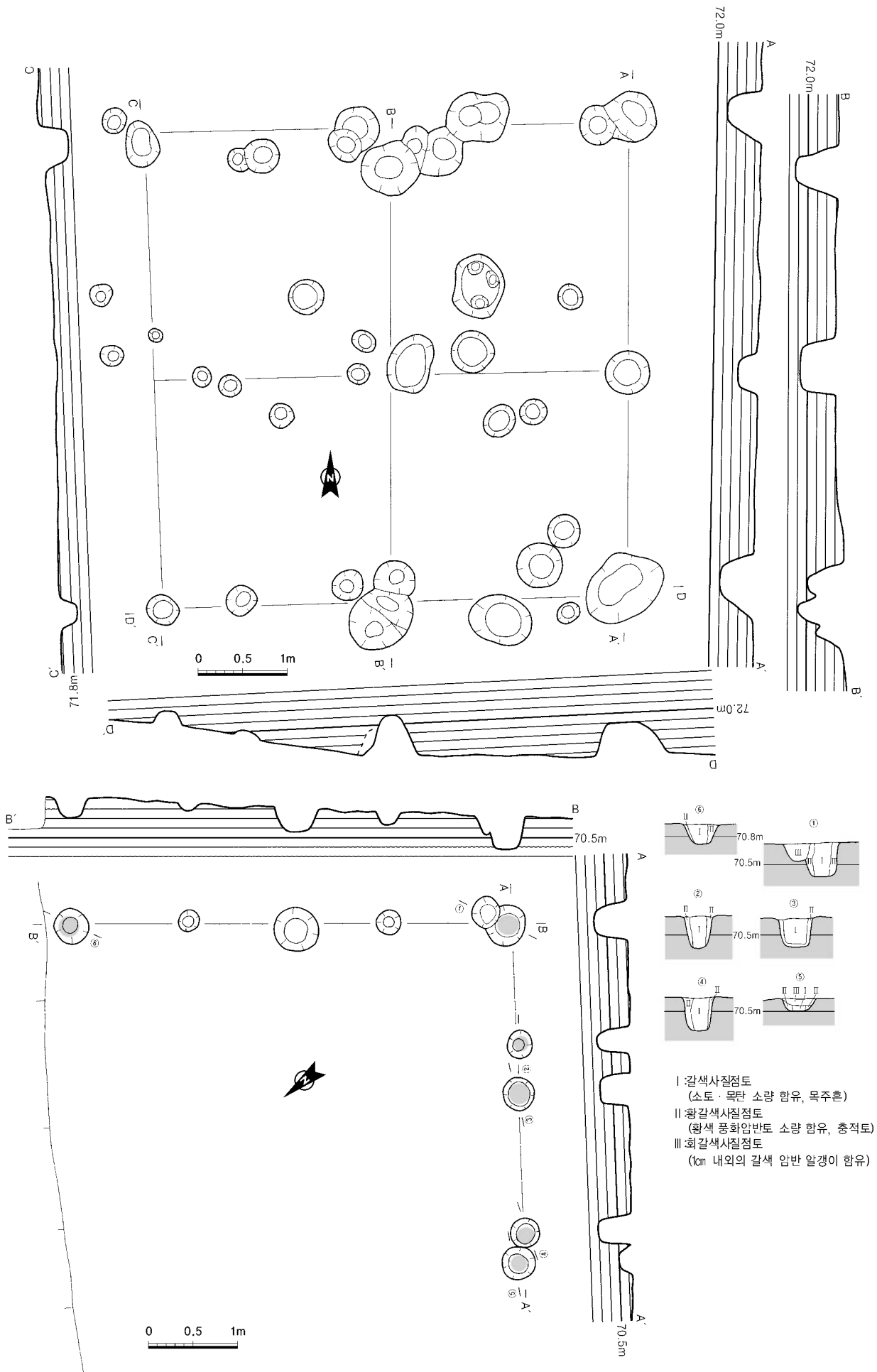
圖面 46. 22호(上), 24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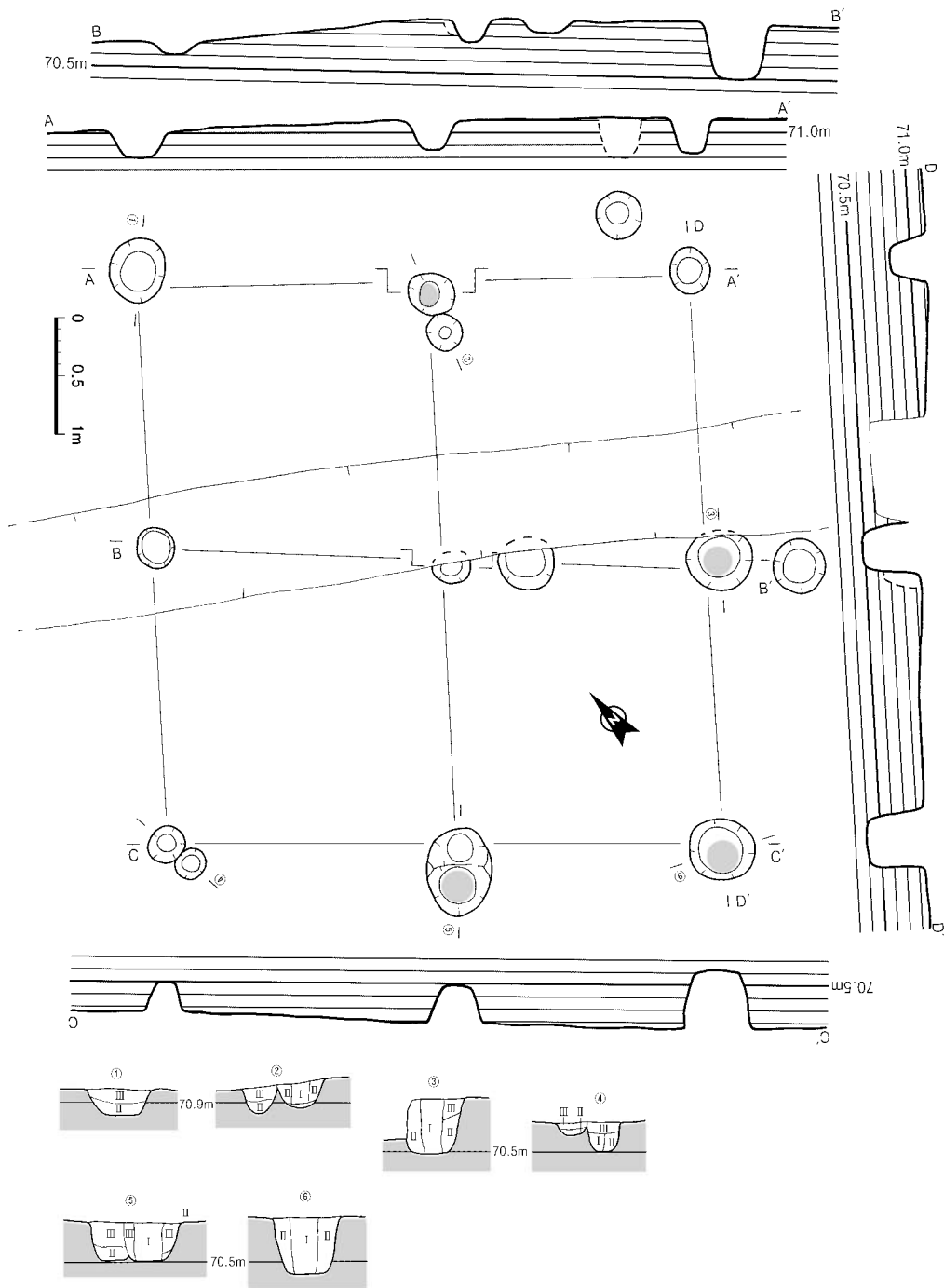
圖面 47. 23호 (1/60)



圖面 48. 25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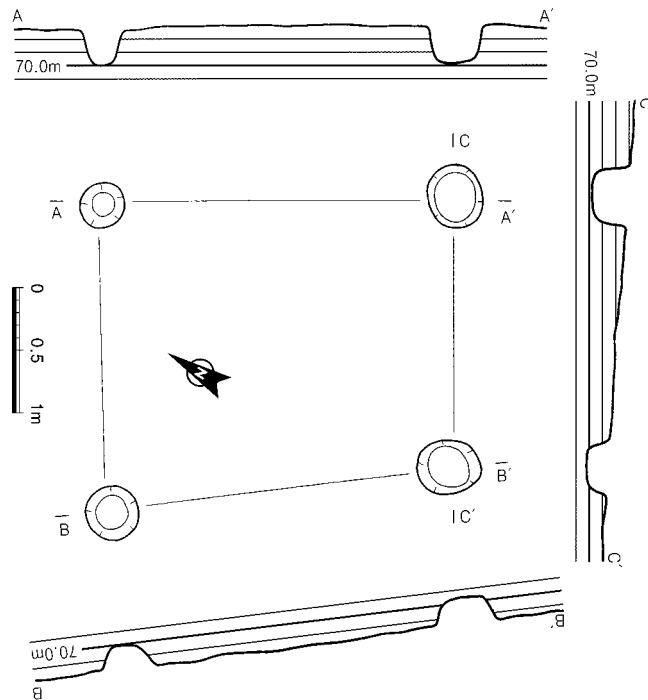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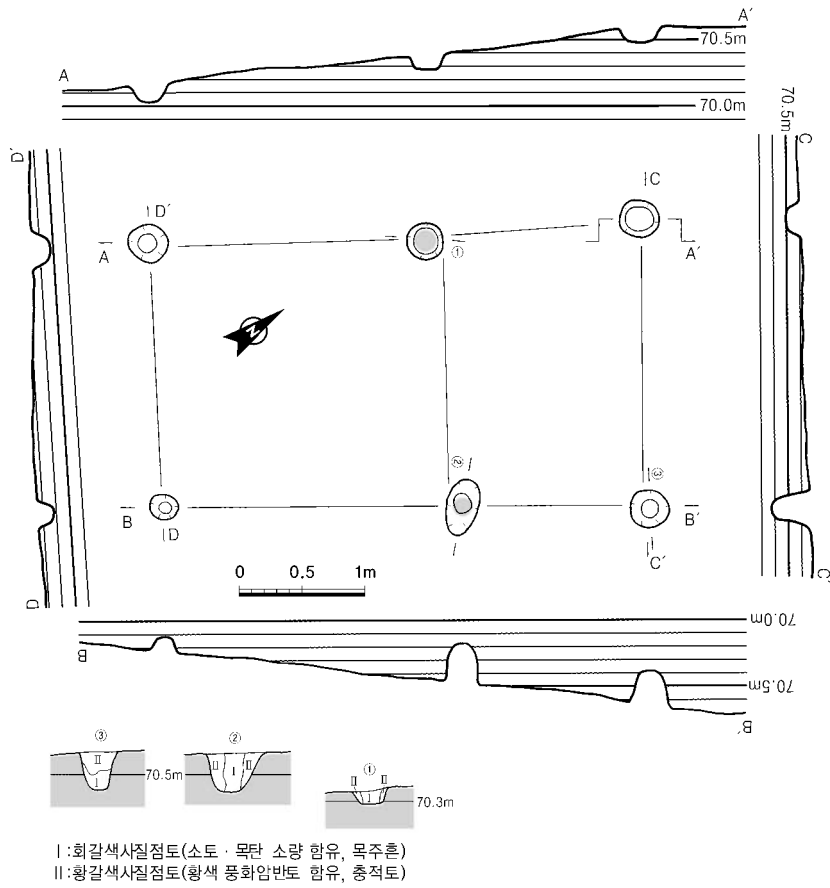


圖面 49. 26호(上), 28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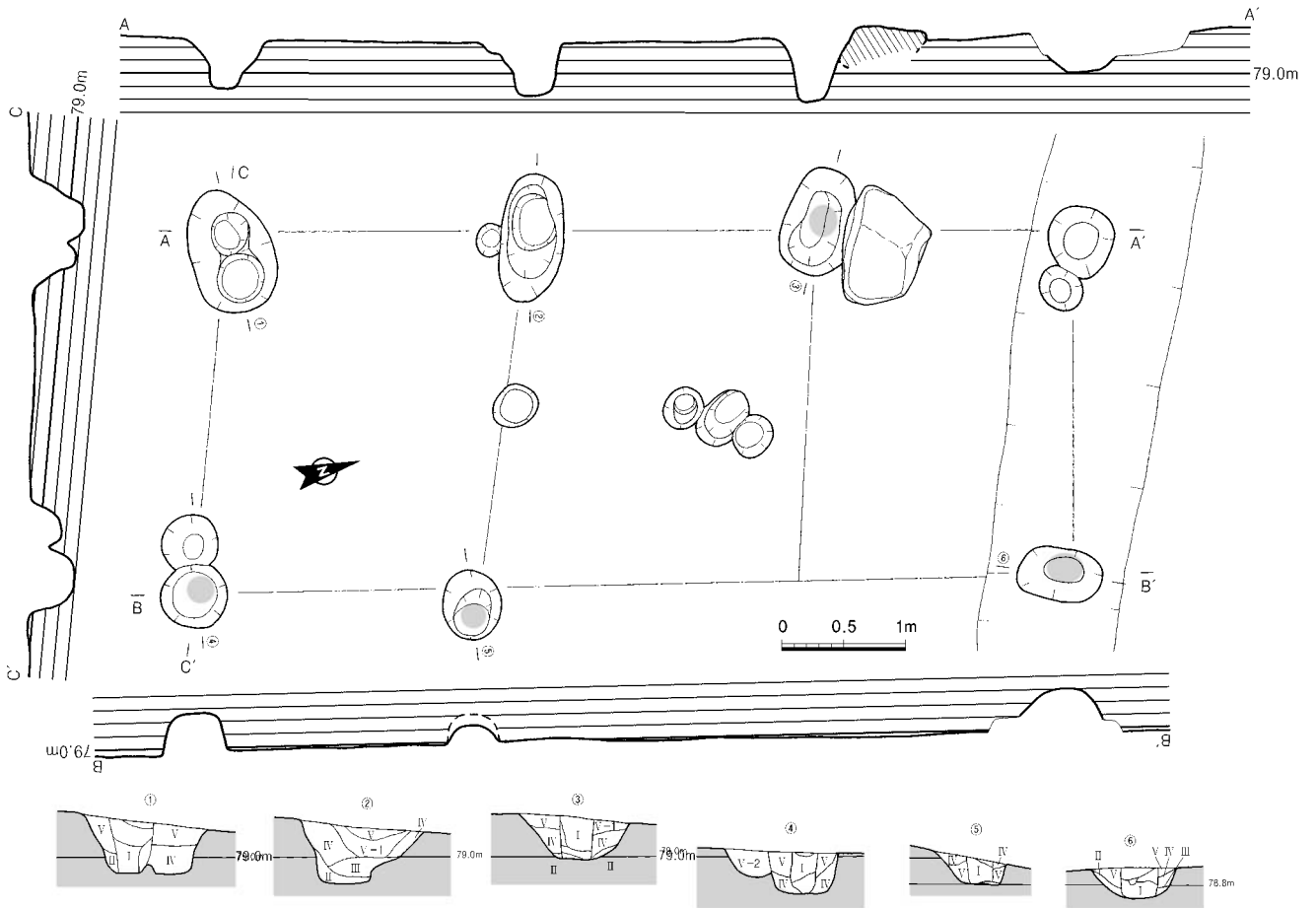


- I : 암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목주흔)
- II : 황갈색사질점토(황색 풍화암반도 함유, 총적토)
- III : 회갈색사질점토(갈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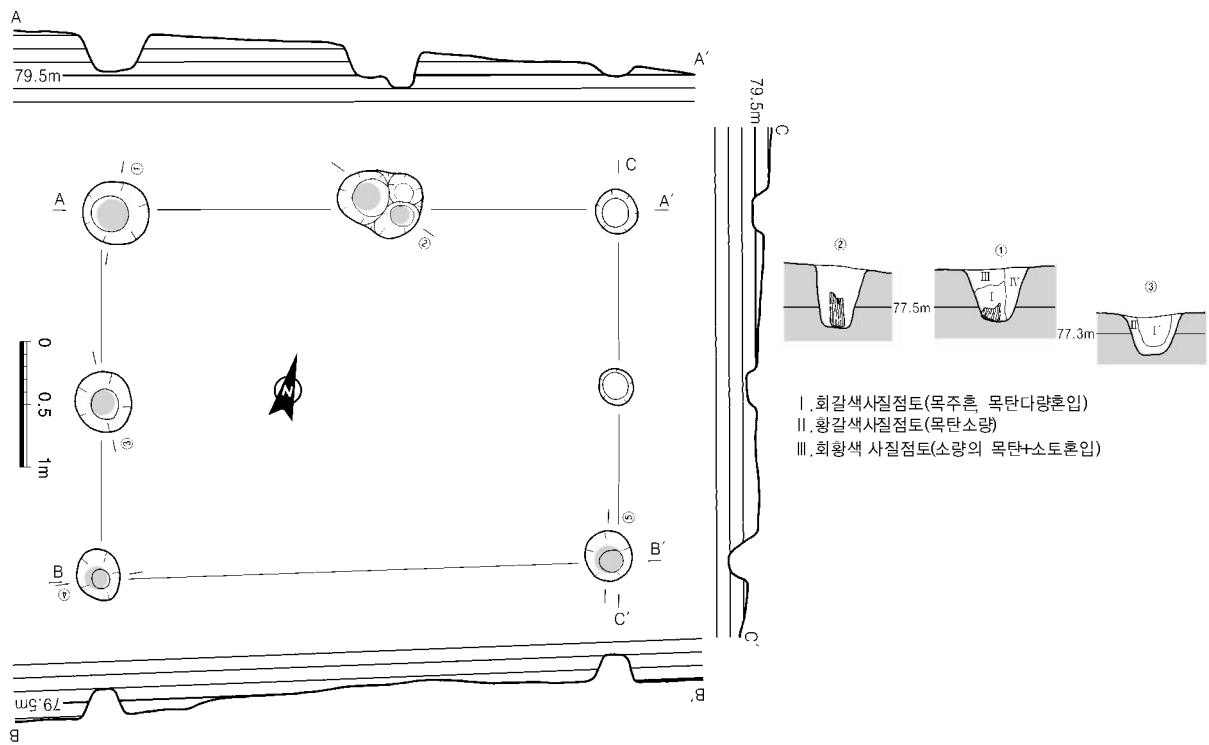
圖面 50. 27호 (1/60)



圖面 51. 29호(上), 30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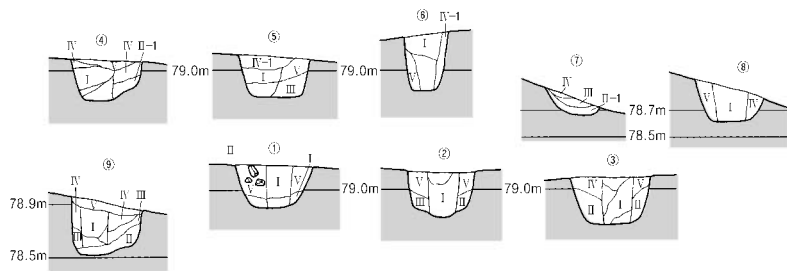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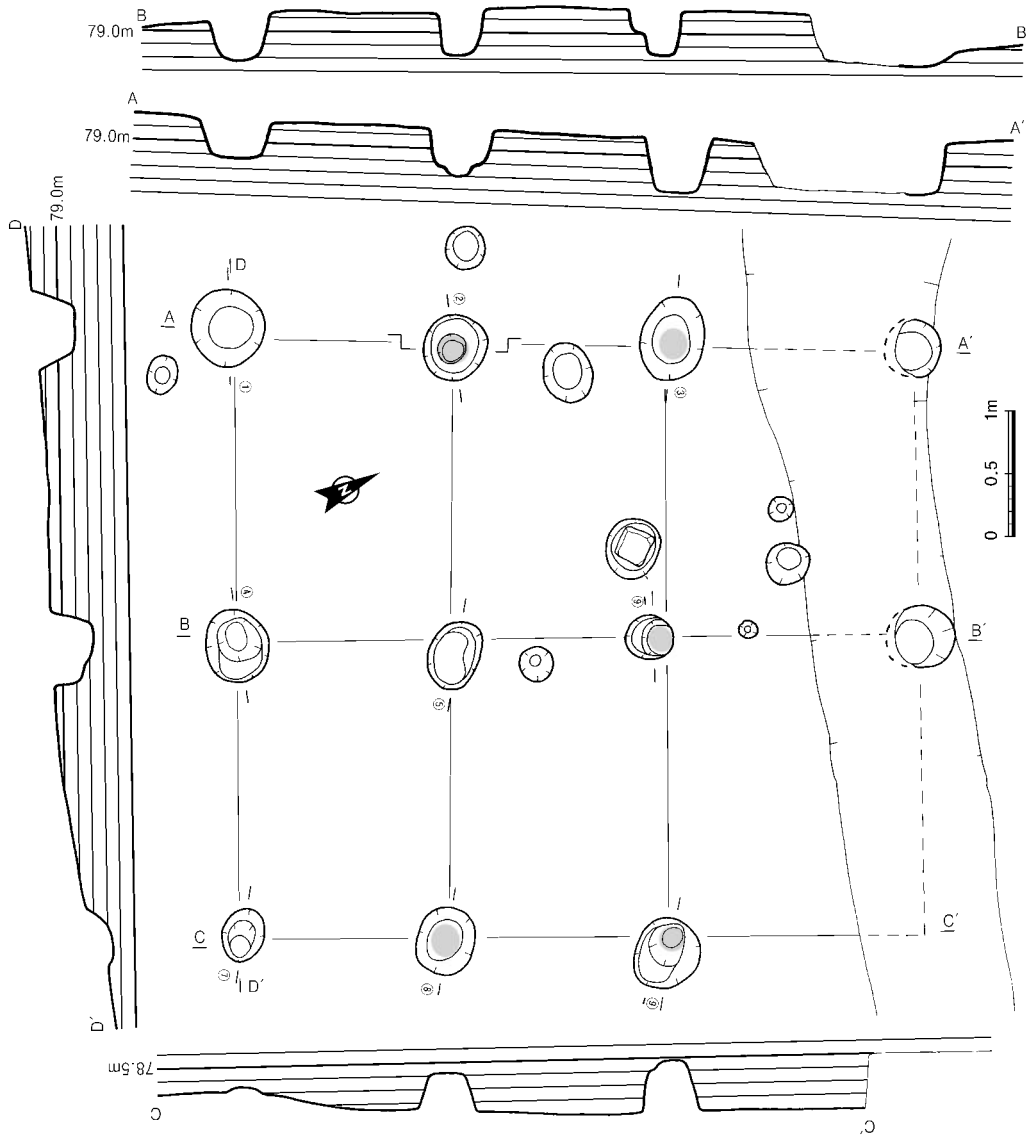


I. 목주, 목주흔 II. 황갈색점토 (황갈색풍화암반+흑색점토소량) III. 흑색점토(니란점토+목탄+소토) IV. 흑회색점토(흑갈색점토+황색점토소량+목탄+소토)
 V. 회갈색점토 (회갈색점토+회흑색점토+목탄+소토) V-1, V보다 흑색점토끼 강함 V-2, V보다 황색점토끼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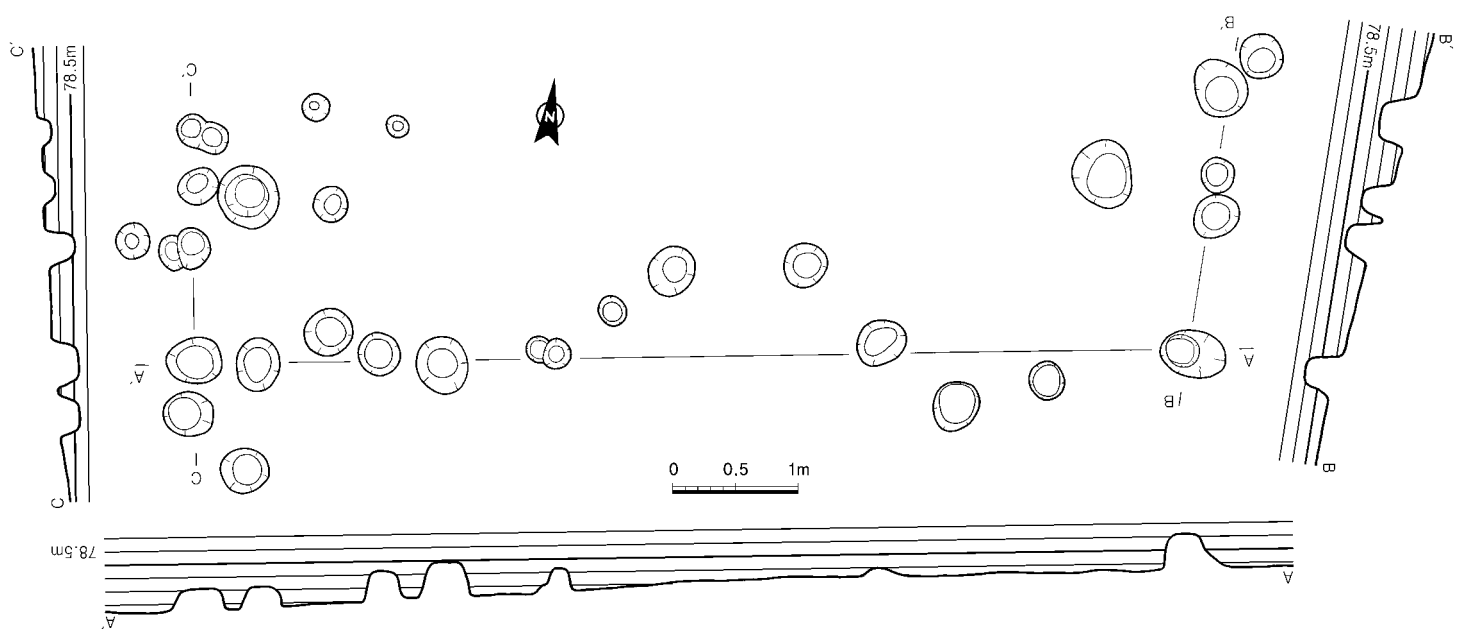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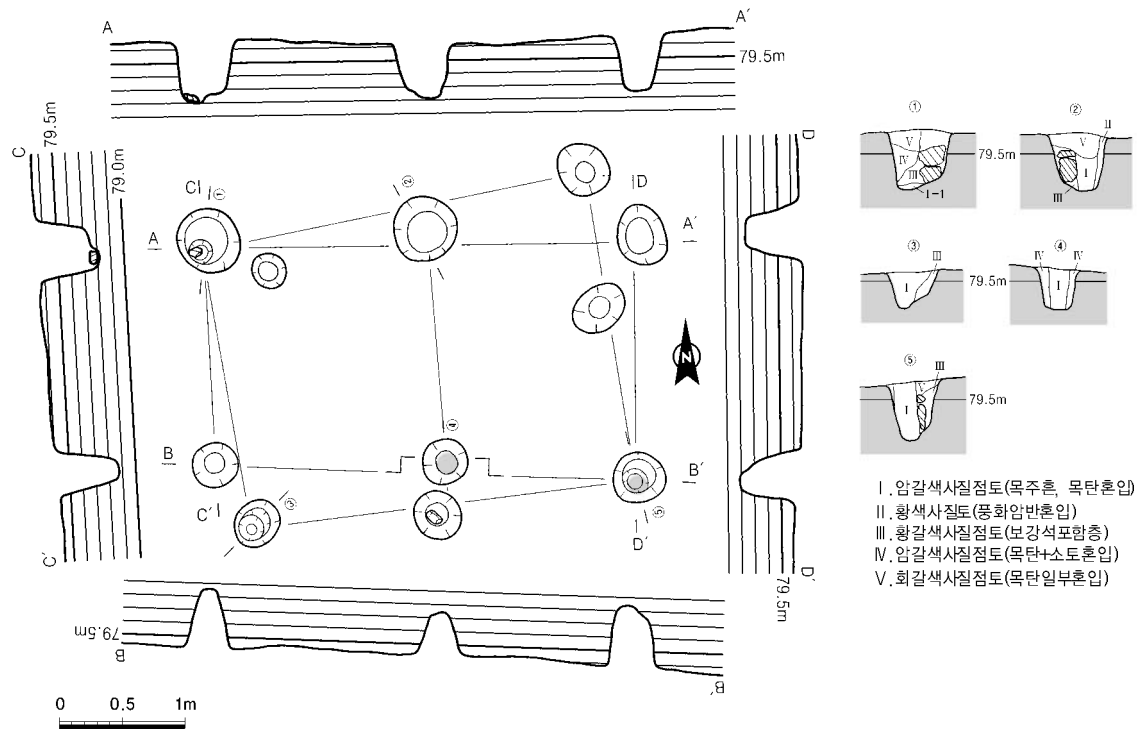
I. 회갈색사질점토(목주흔, 목탄다량혼입)
 II. 황갈색사질점토(목탄소량)
 III. 회황색 사질점토(소량의 목탄+소토혼입)

圖面 52. 31호(上), 33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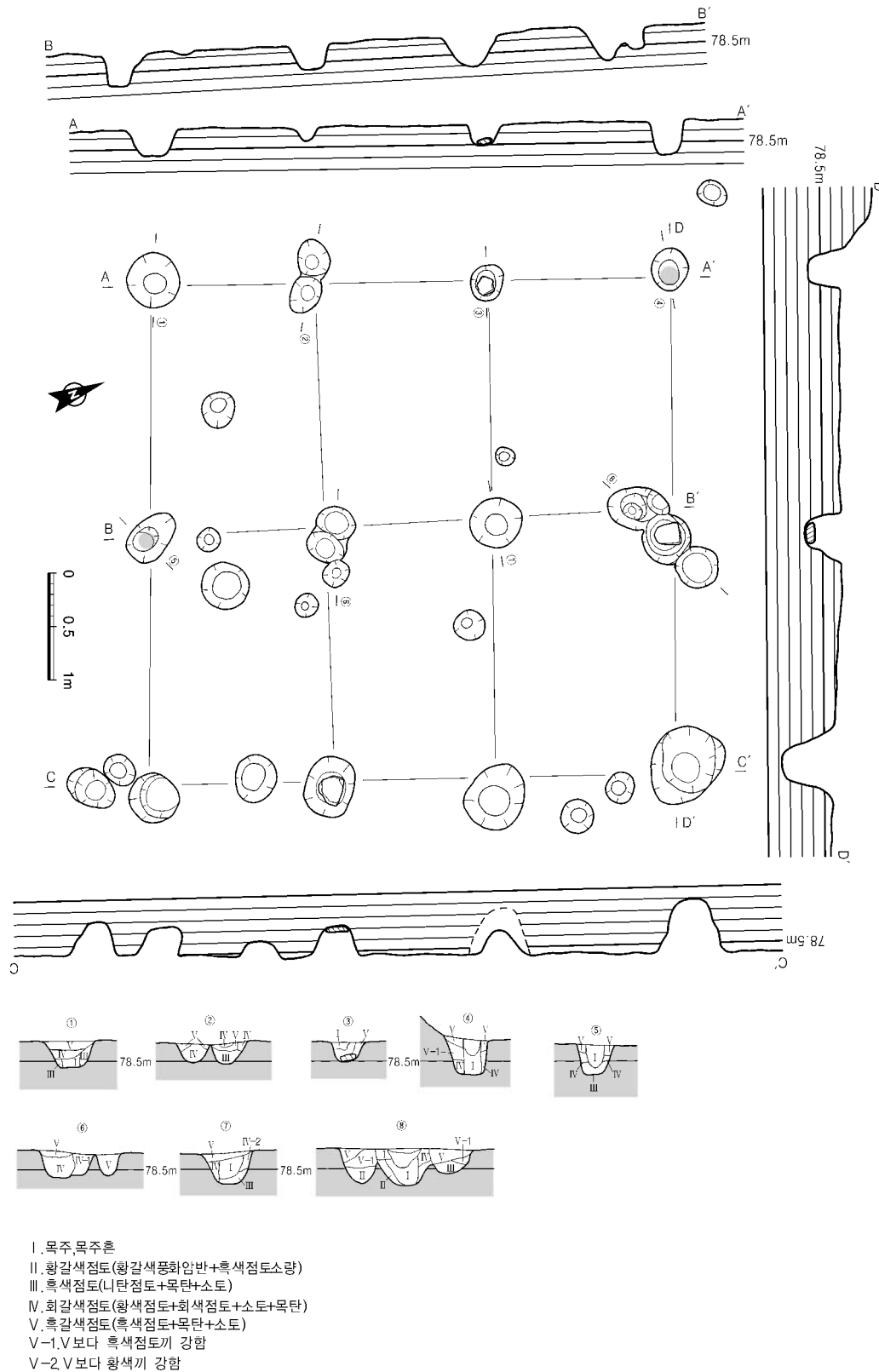


- I. 목주, 목주흔
- II. 회황색점토 (황갈색풍화암반+니탄점토)
- II-1. 회백색점토 (백색니질점토+흑색점토)
- III. 흑색점토(니탄점토+황색점토소량+목탄+소토)
- IV. 흑황색점토(황갈색점토+흑색점토+목탄+소토)
- IV-1. IV보다 소토끼 강함
- V. 흑갈색점토(갈색점토+흑색점토+목탄+소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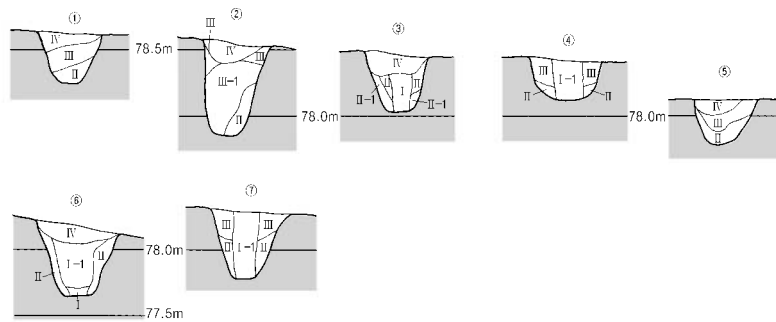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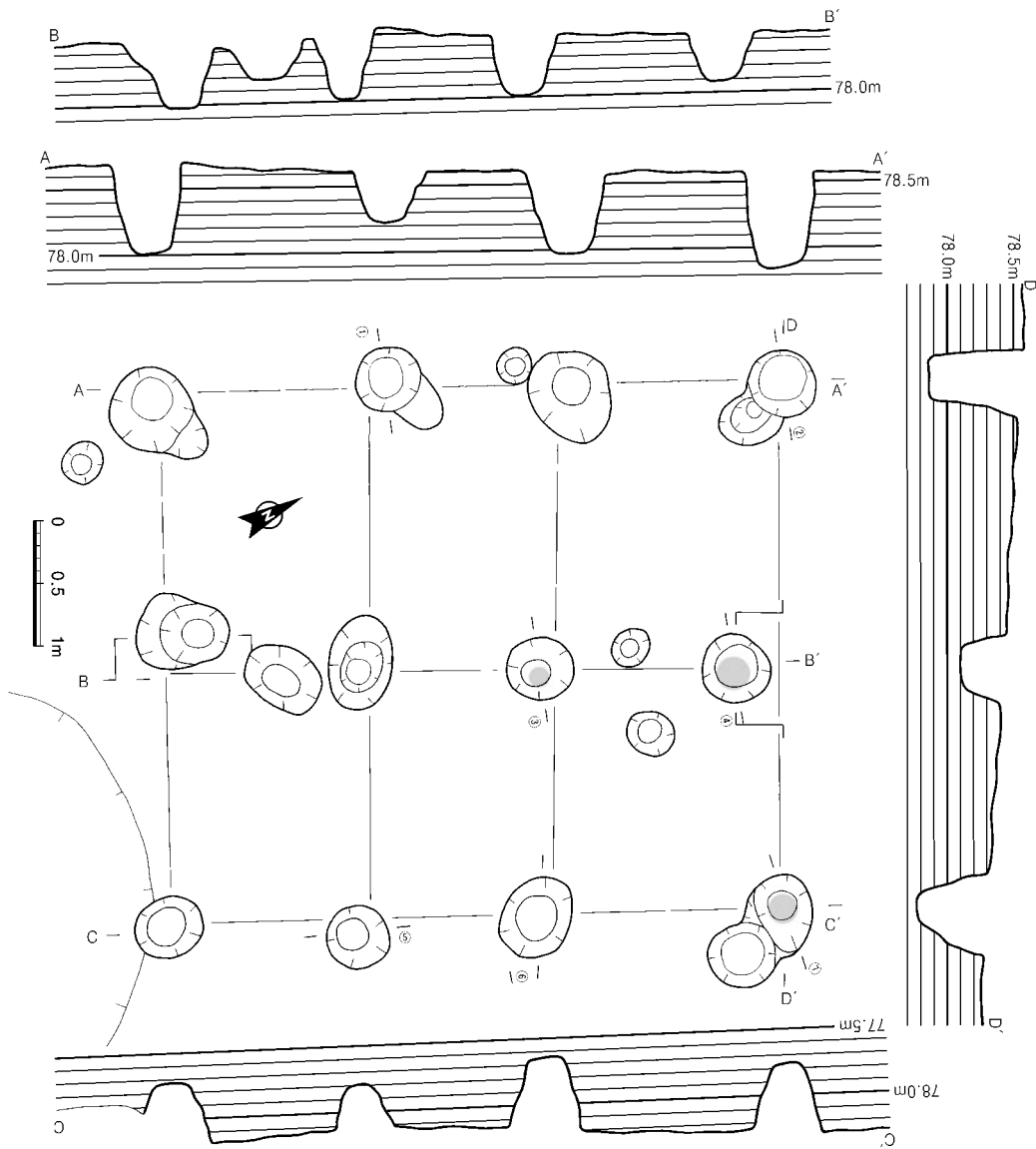
圖面 53. 32호 (1/60)



圖面 54. 34호(上), 35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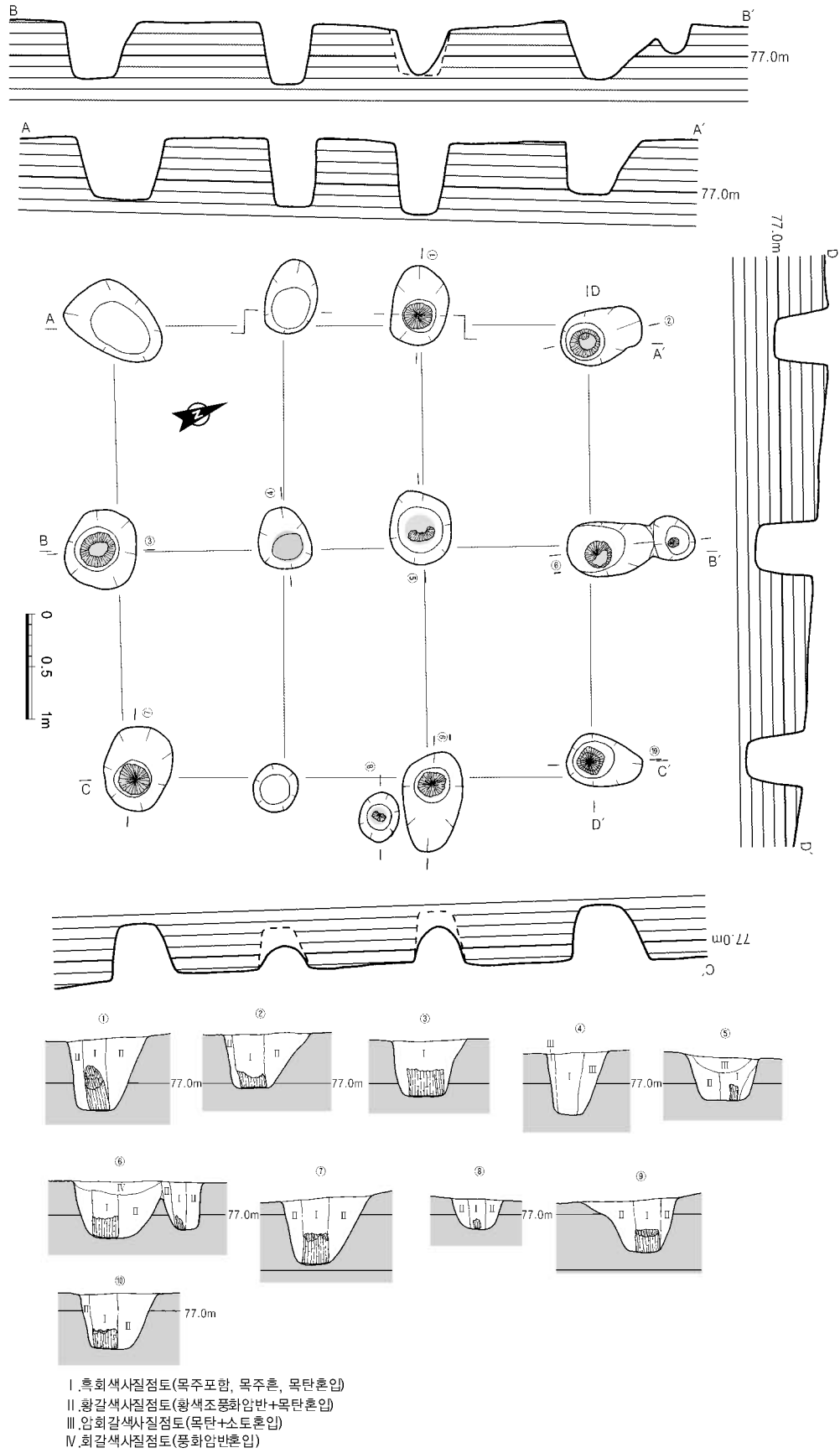


圖面 55. 36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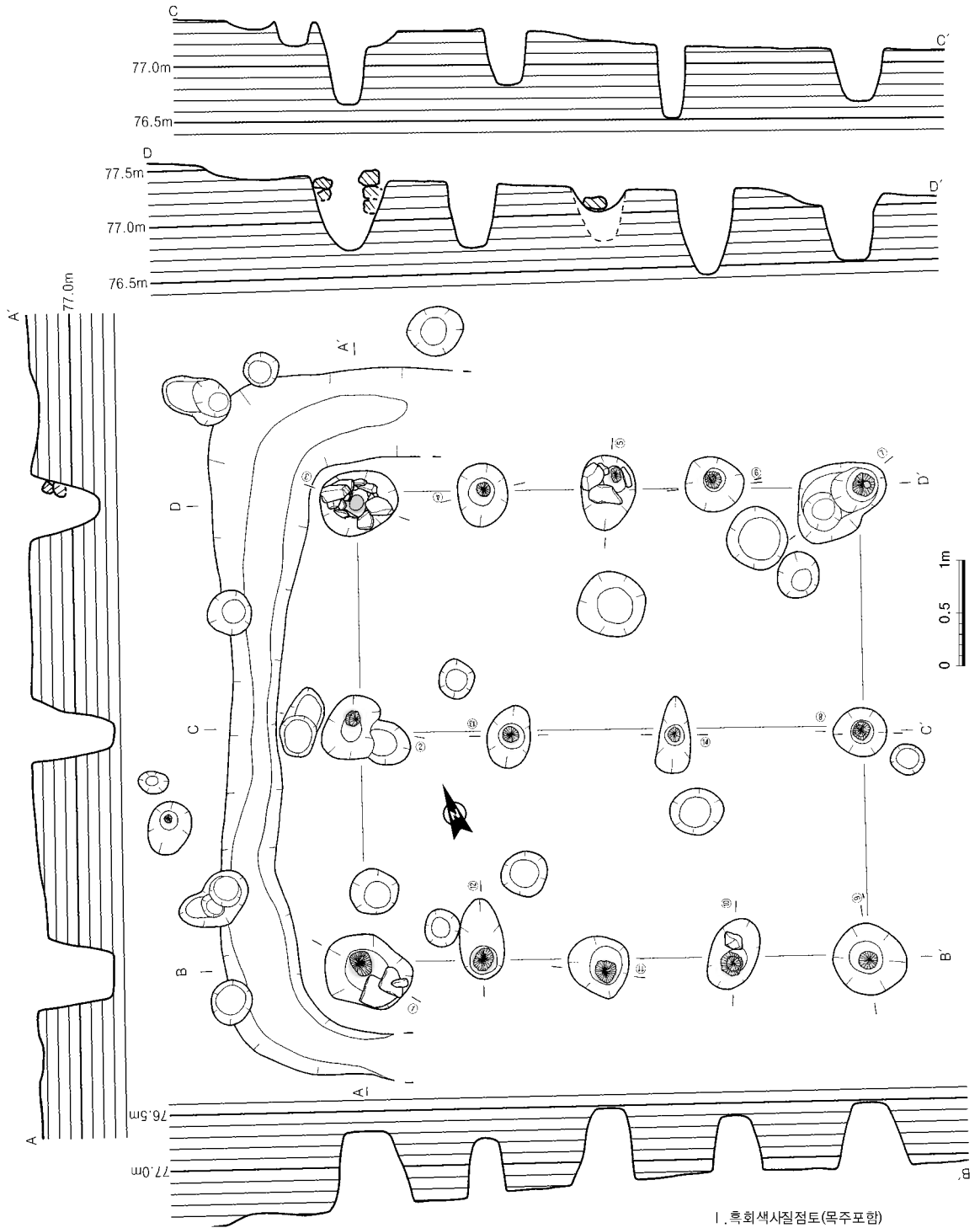


- I. 흑회색점토(목주층)
- I-1. 암회갈색사질점토(소량의 목탄+소도혼입)
- II. 황갈색사질점토(회색조의 점토혼입)
- III. 회갈색사질점토(목탄+소도혼입)
- III-1. III 보다 소도함유량 많음
- IV. 회황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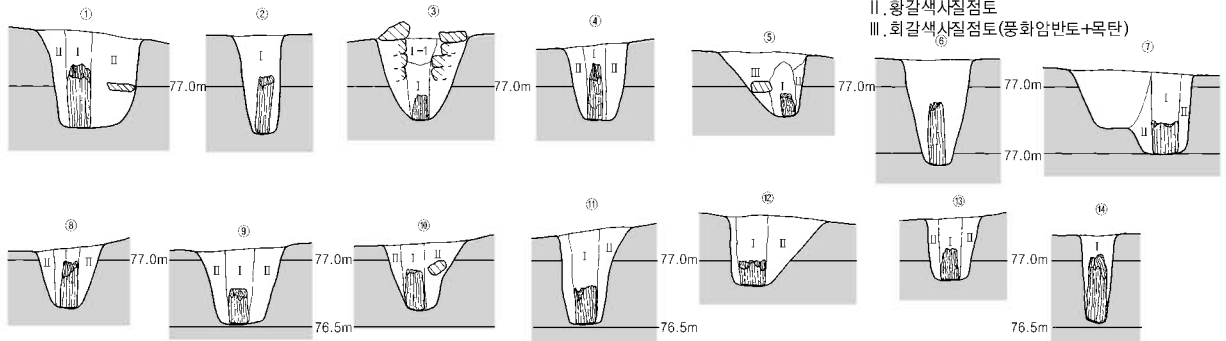
圖面 56. 37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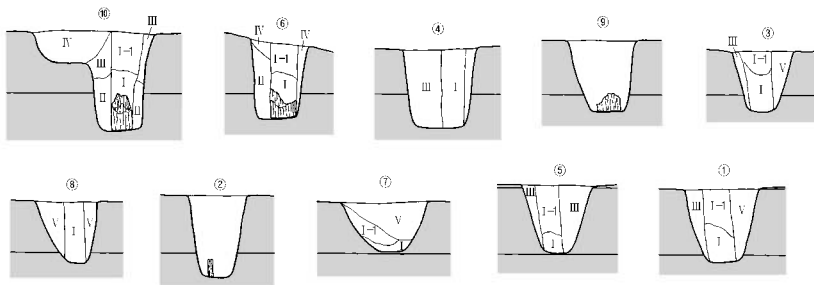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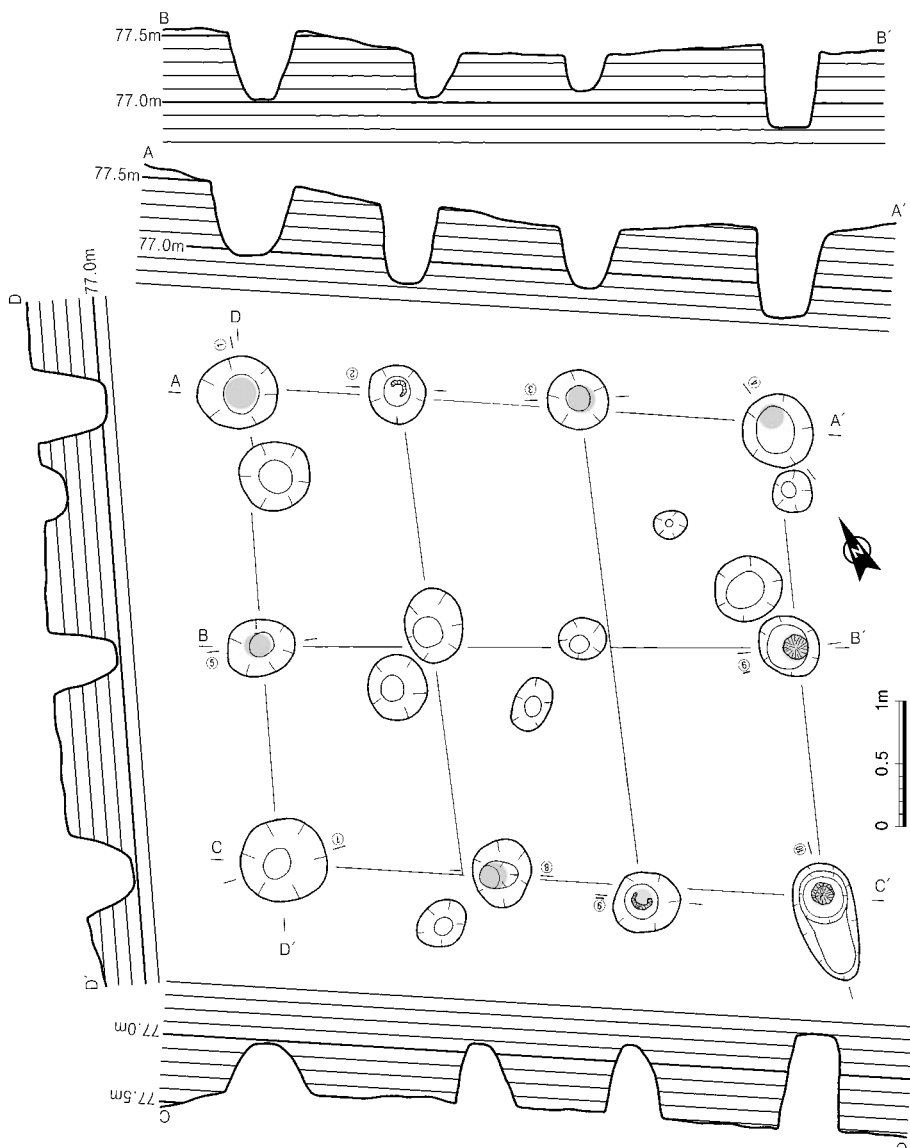
圖面 57. 38호 (1/60)



- I. 흑회색사질점토(목주포함)
- I-1. 회갈색사질점토(목주흔, 목탄+소도혼입)
- II. 황갈색사질점토
- III. 회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도+목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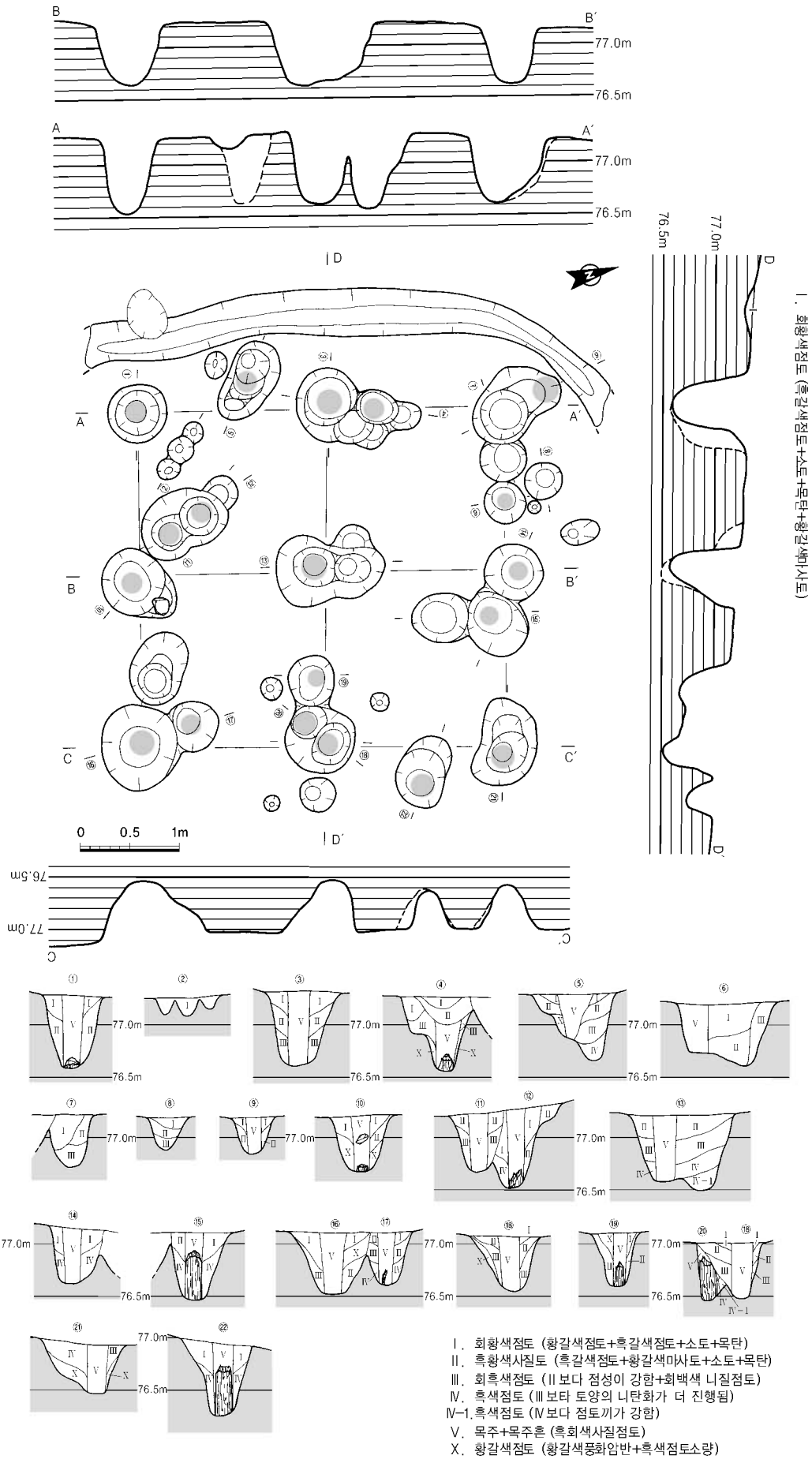


圖面 58. 39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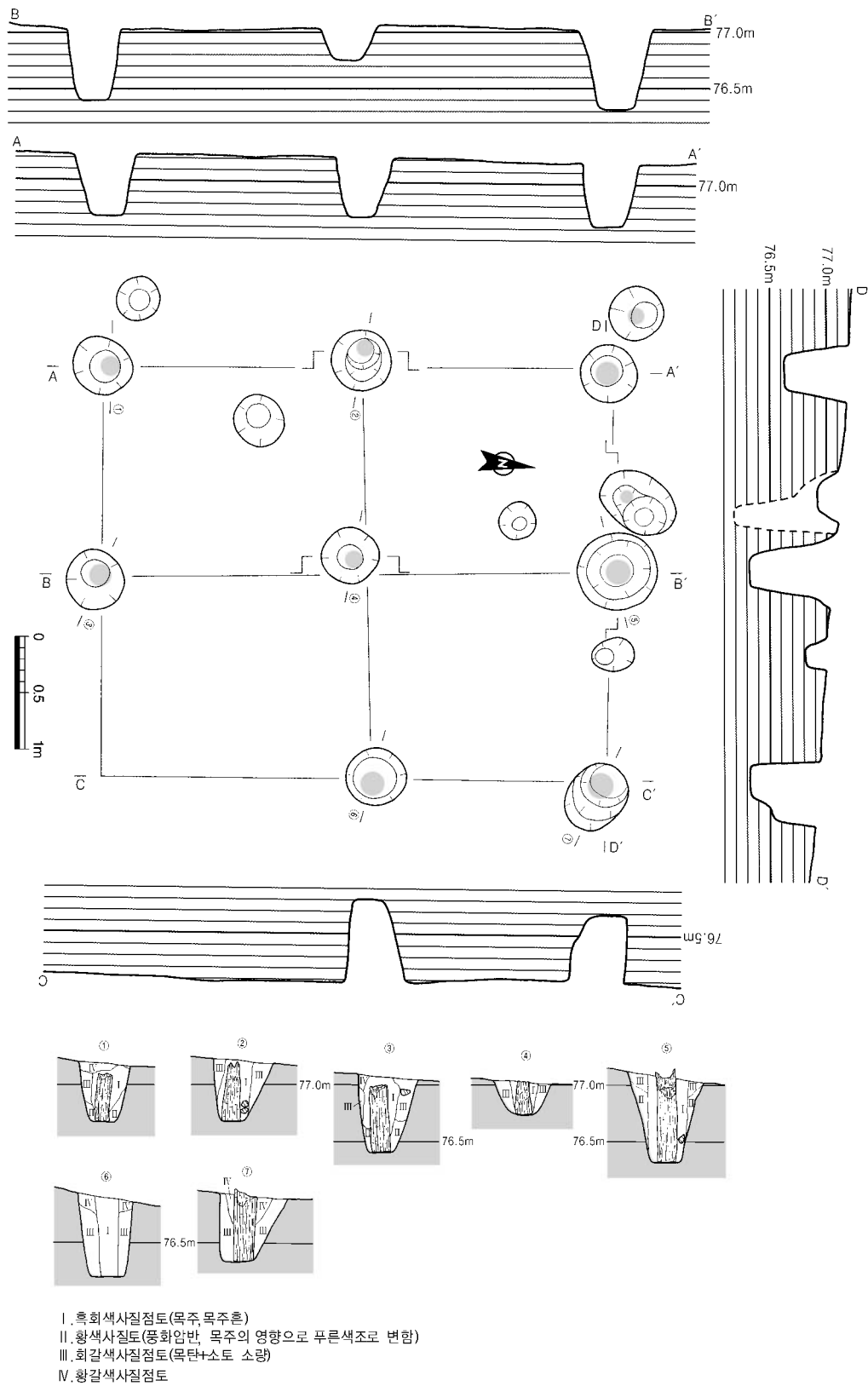


- I. 흑회색사질점토(목주-니질화)
- I-1. 흑회색사질점토(목주흔)
- II. 황색사질토(풍화암반, 목주의 영향으로 푸른색조로 변화)
- III. 황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 다량)
- IV. 황갈색사질점토(회색점토혼입)
- V. 암회색사질점토(회색점토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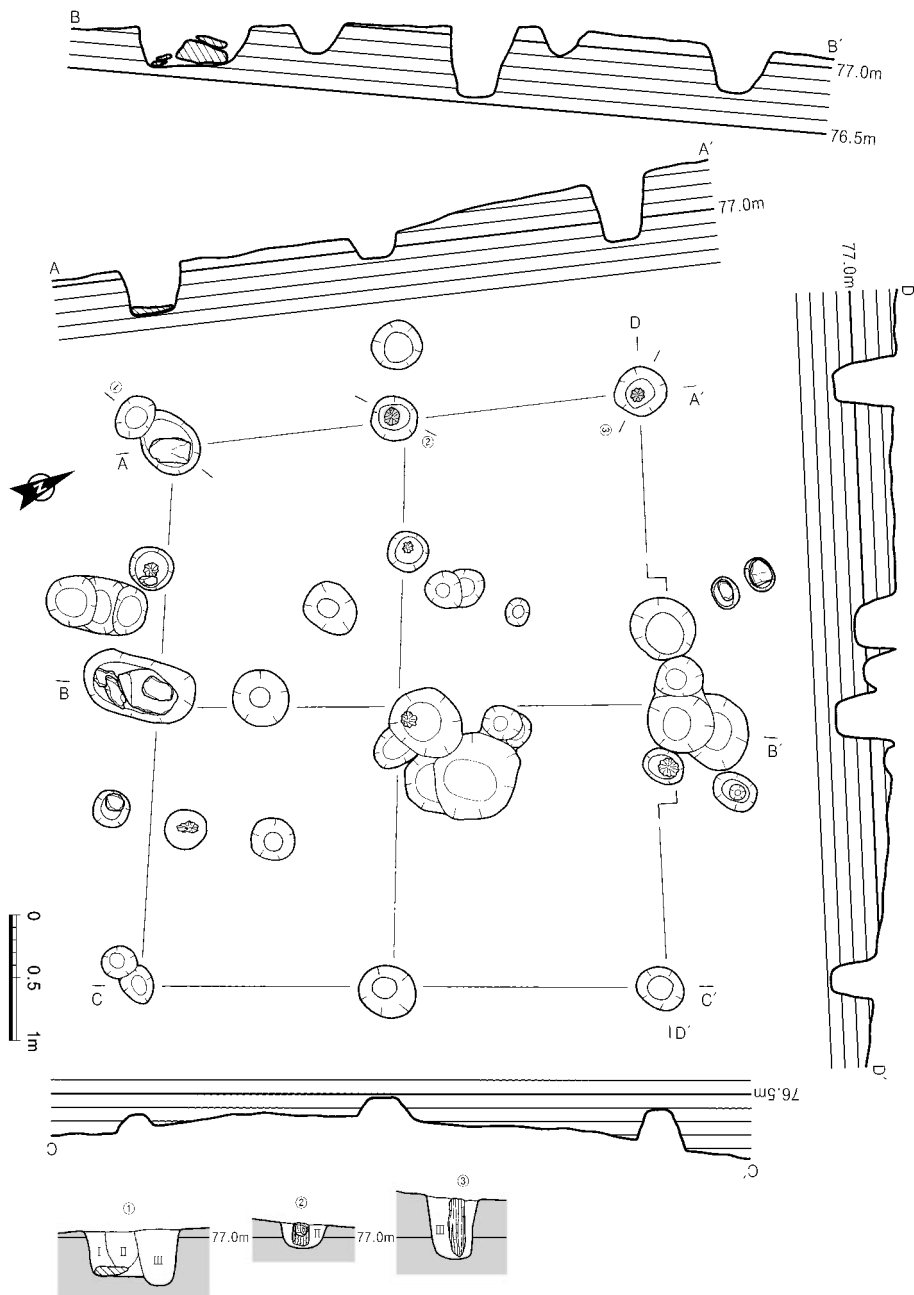
圖面 59. 40호 (1/60)



圖面 60. 41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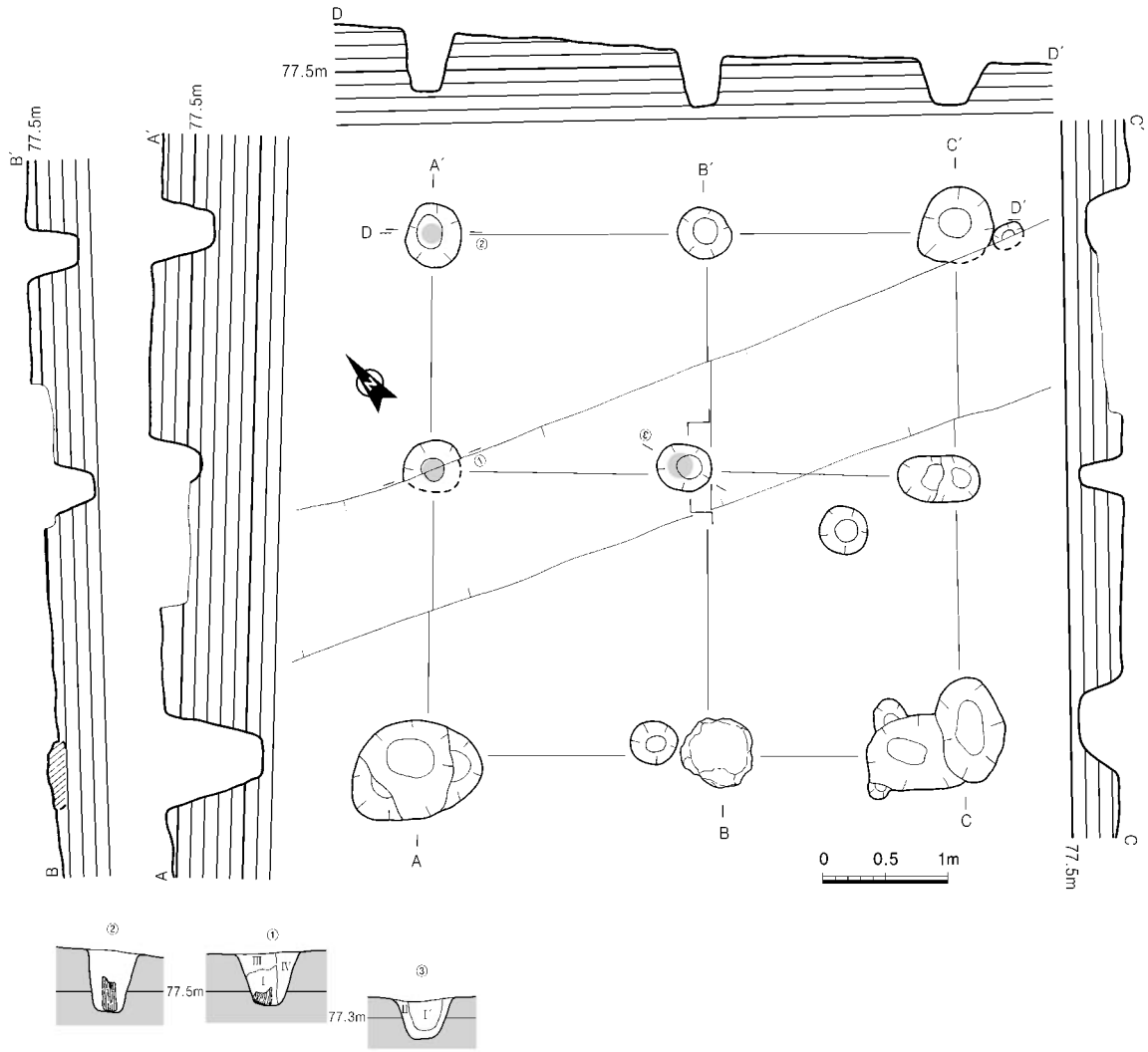


圖面 61. 42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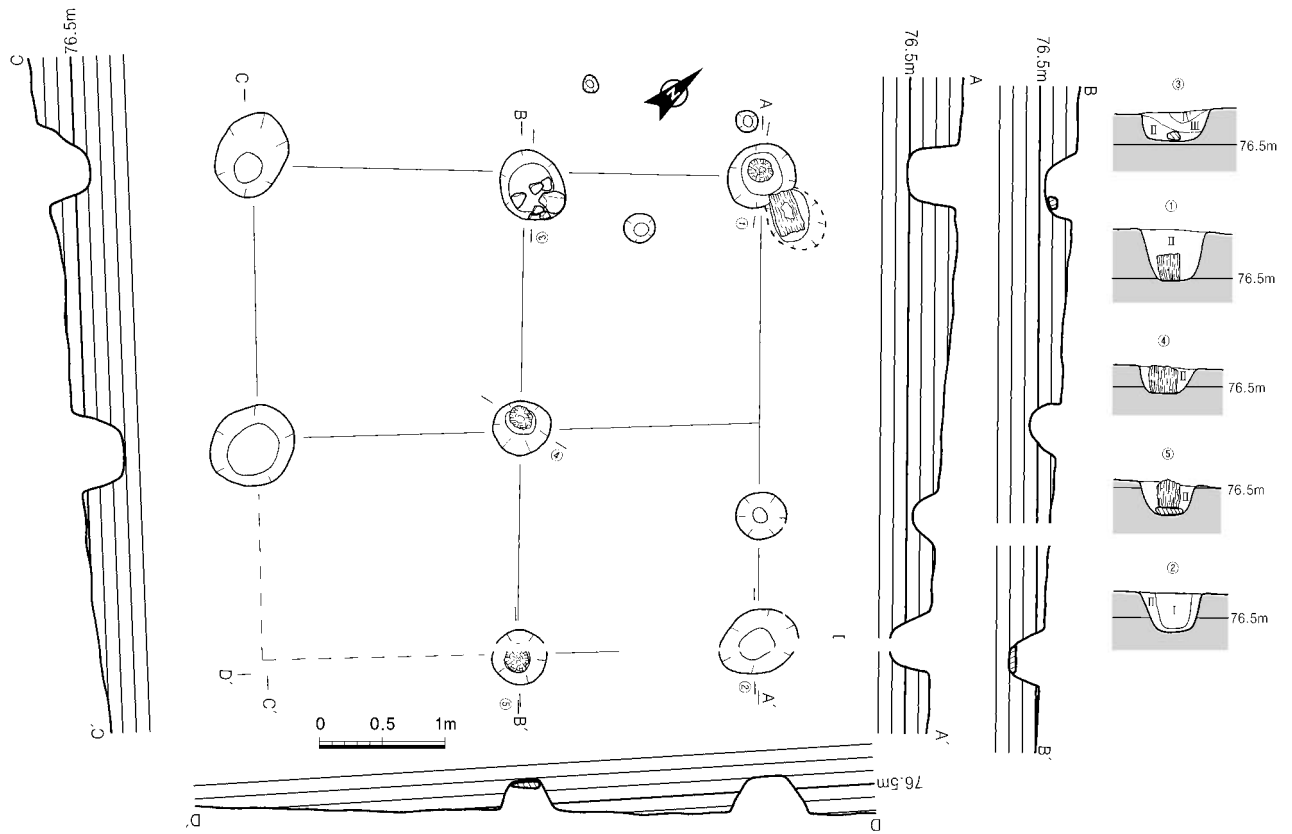
- I. 암갈색사질점토(목탄+황색풍화암반토)
- II. 흑회색사질점토(목탄혼입)
- III. 암갈색사질점토(황색풍화암반토혼입)

圖面 62. 43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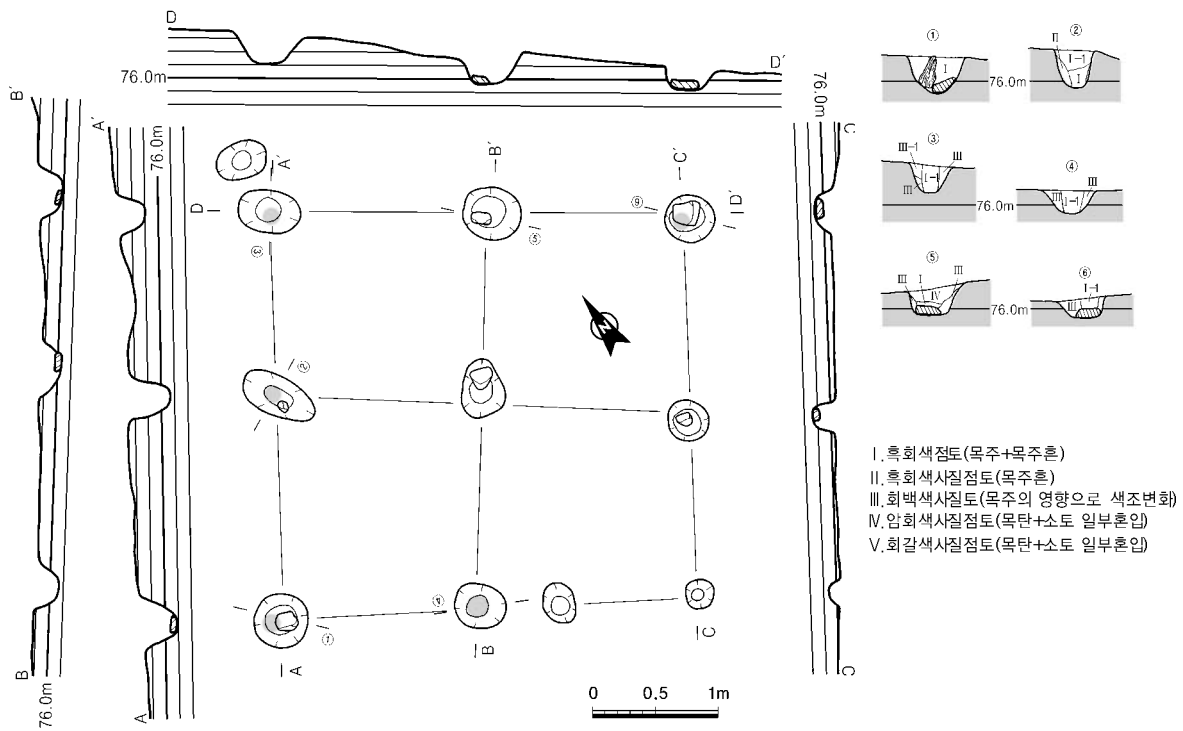


- I. 회백색사질점토(목주포함)
- I-1. 흑회색사질점토(목주층)
- II. 회백색사질점토(사질기강함)
- III. 회갈색사질점토(목탄입부혼입)
- IV. 황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혼입)

圖面 63. 45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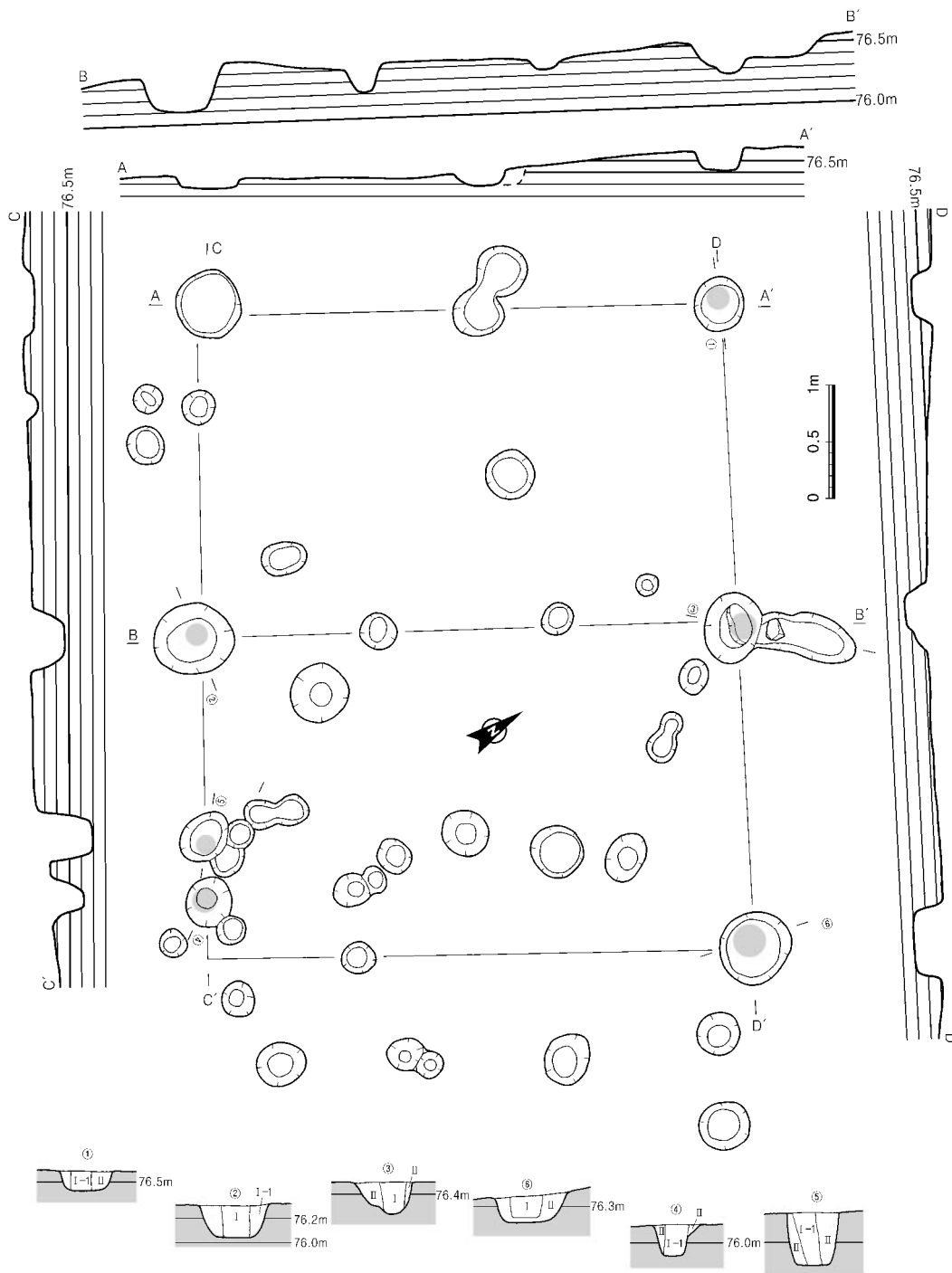


- I. 암회색사질점토(목주흔 소도다량혼입)
- II. 암회색사질점토(목주표한 풍화암반토 혼입)
- III. 회황색사질점토
- IV. 암회색사질점토(목탄+소도일부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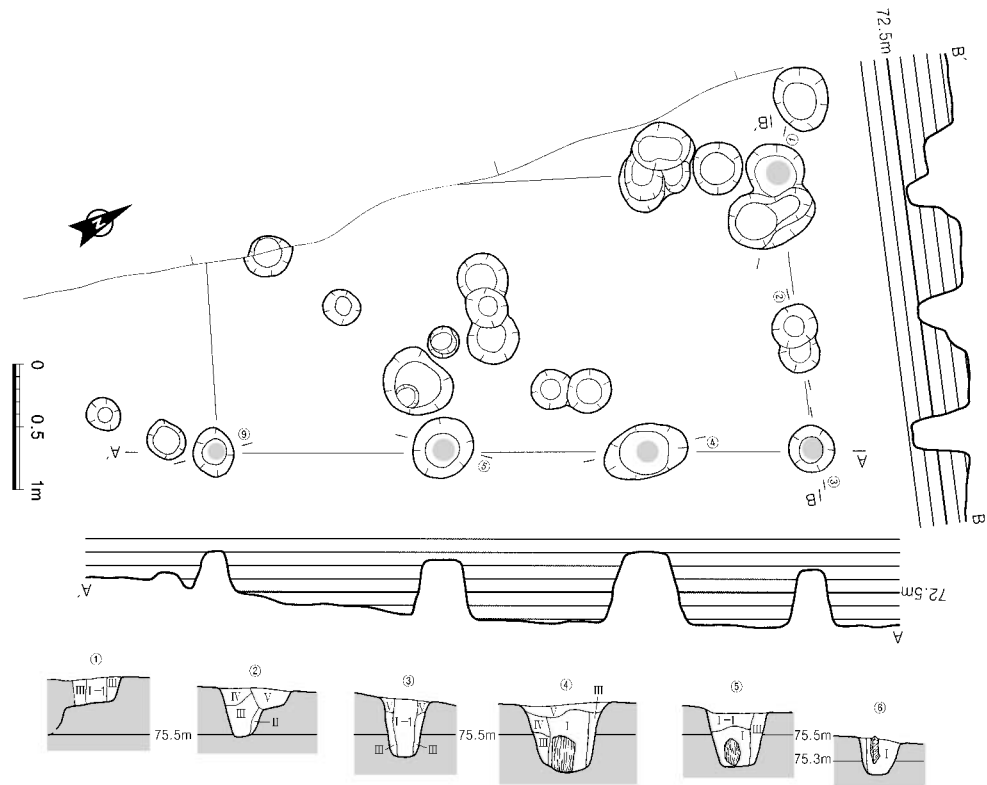
- I. 흑회색점토(목주+목주흔)
- II. 흑회색사질점토(목주흔)
- III. 회백색사질점토(목주의 영향으로 색조변화)
- IV. 암회색사질점토(목탄+소도 일부혼입)
- V. 회갈색사질점토(목탄+소도 일부혼입)

圖面 64. 46호(上), 47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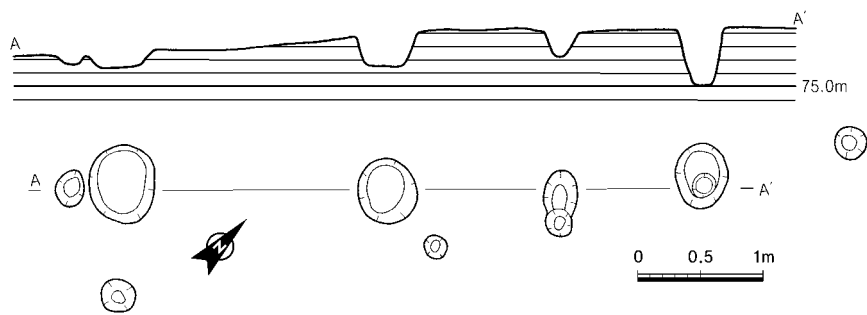


I. 암갈색사질점토(묵주흔, 다량의 소토혼입)
 I-1. I 보다 소토함유량 적음
 II. 회황색사질점토(묵탄+소토일부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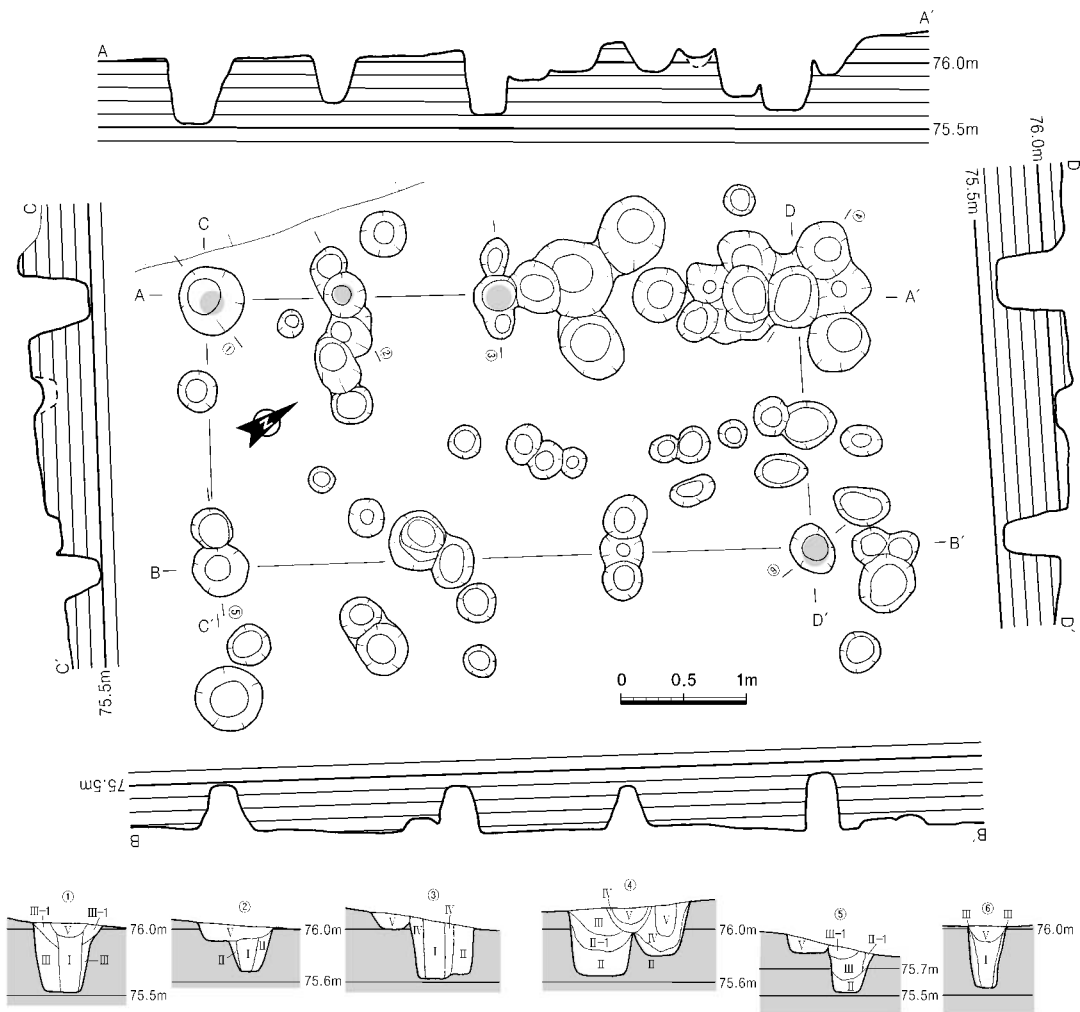
圖面 65. 48호 (1/60)



- I. 흑회색사질점토(목주)
- I-1. 암갈색사질점토(목주흔)
- II. 황갈색사질점토(회색조의 점토혼입)
- III. 암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일부혼입)
- IV. 암회색사질점토
- V. 황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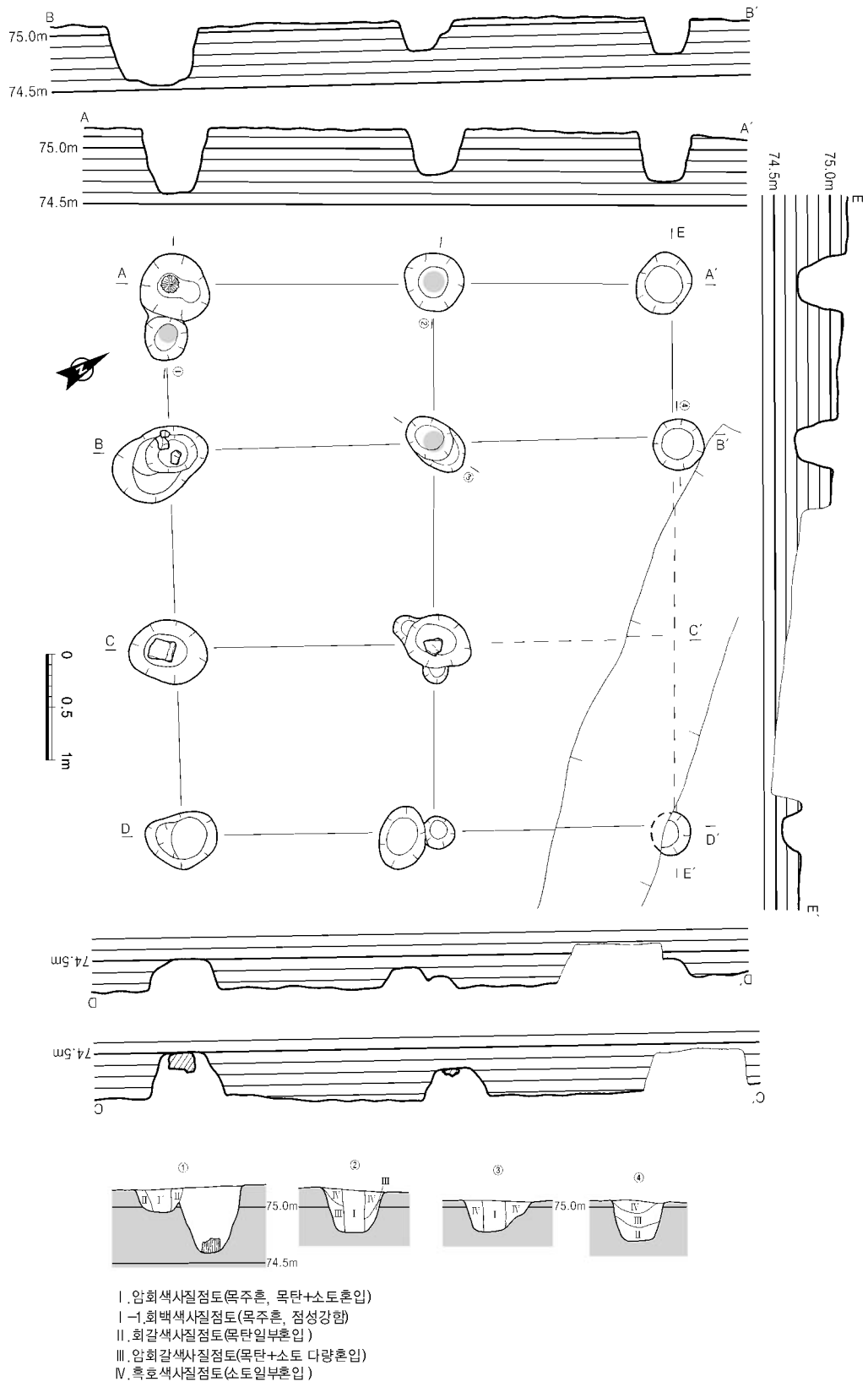


圖面 66. 49호(上), 50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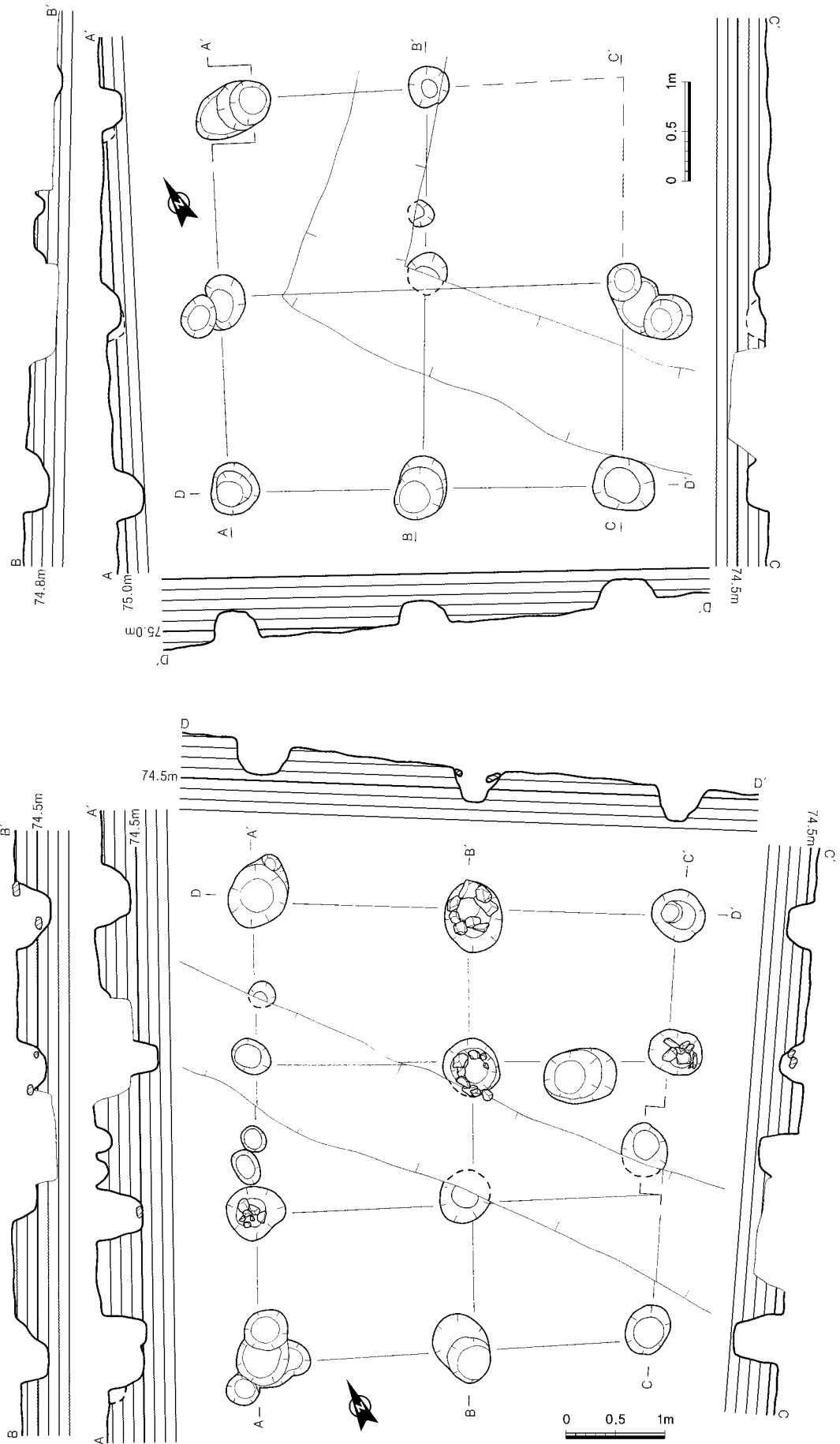


- I. 암갈색사질점토(목주흔, 목탄+소토혼입)
- II. 황색사질점토(회색조의 점토혼입)
- II-1. II 보다 회색조의 점토혼입량 많음
- III. 암회색사질점토
- III. 암회색사질점토(목탄+소토혼입)
- IV. 회황색사질점토
- V. 회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 일부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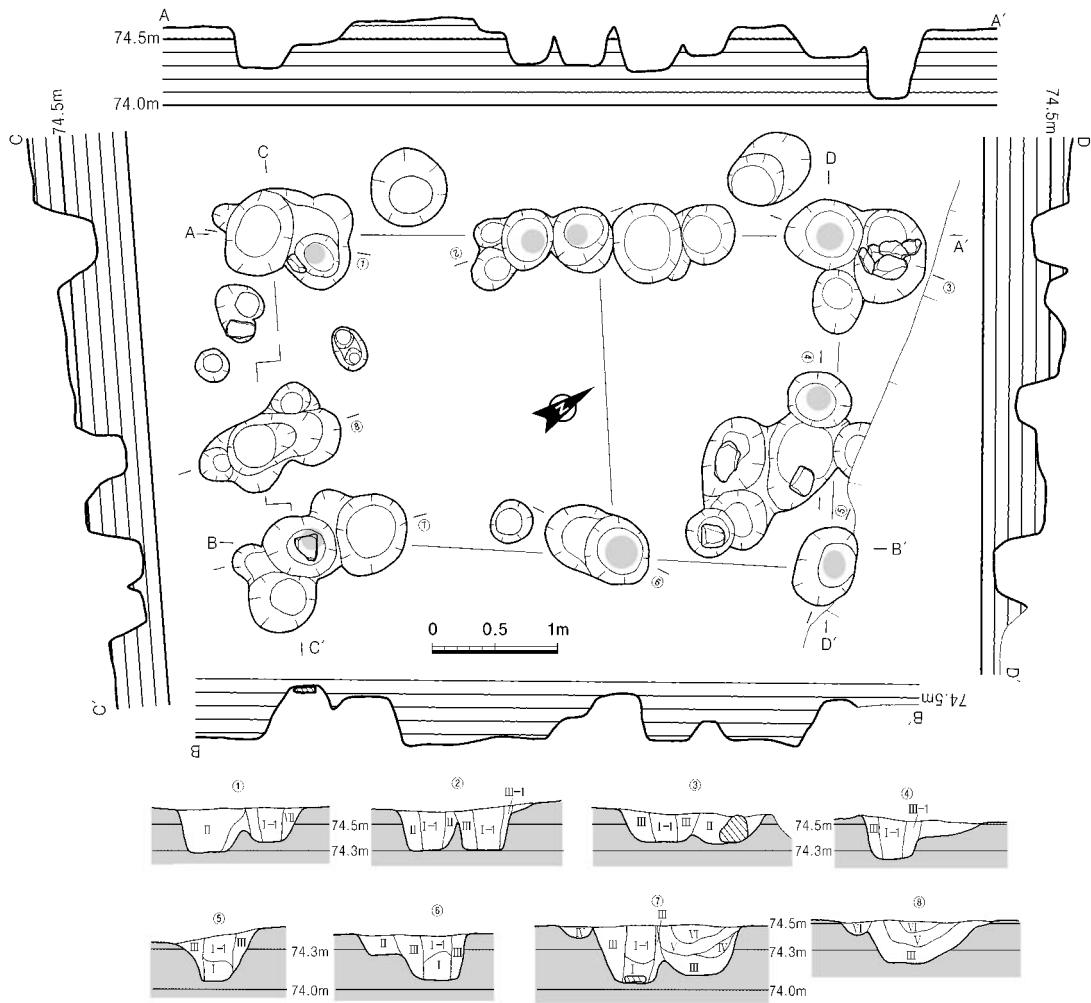
圖面 67. 51호 (1/60)



圖面 68. 52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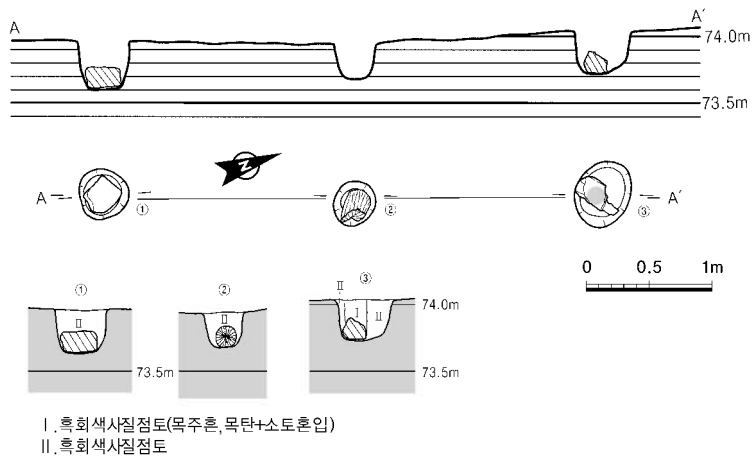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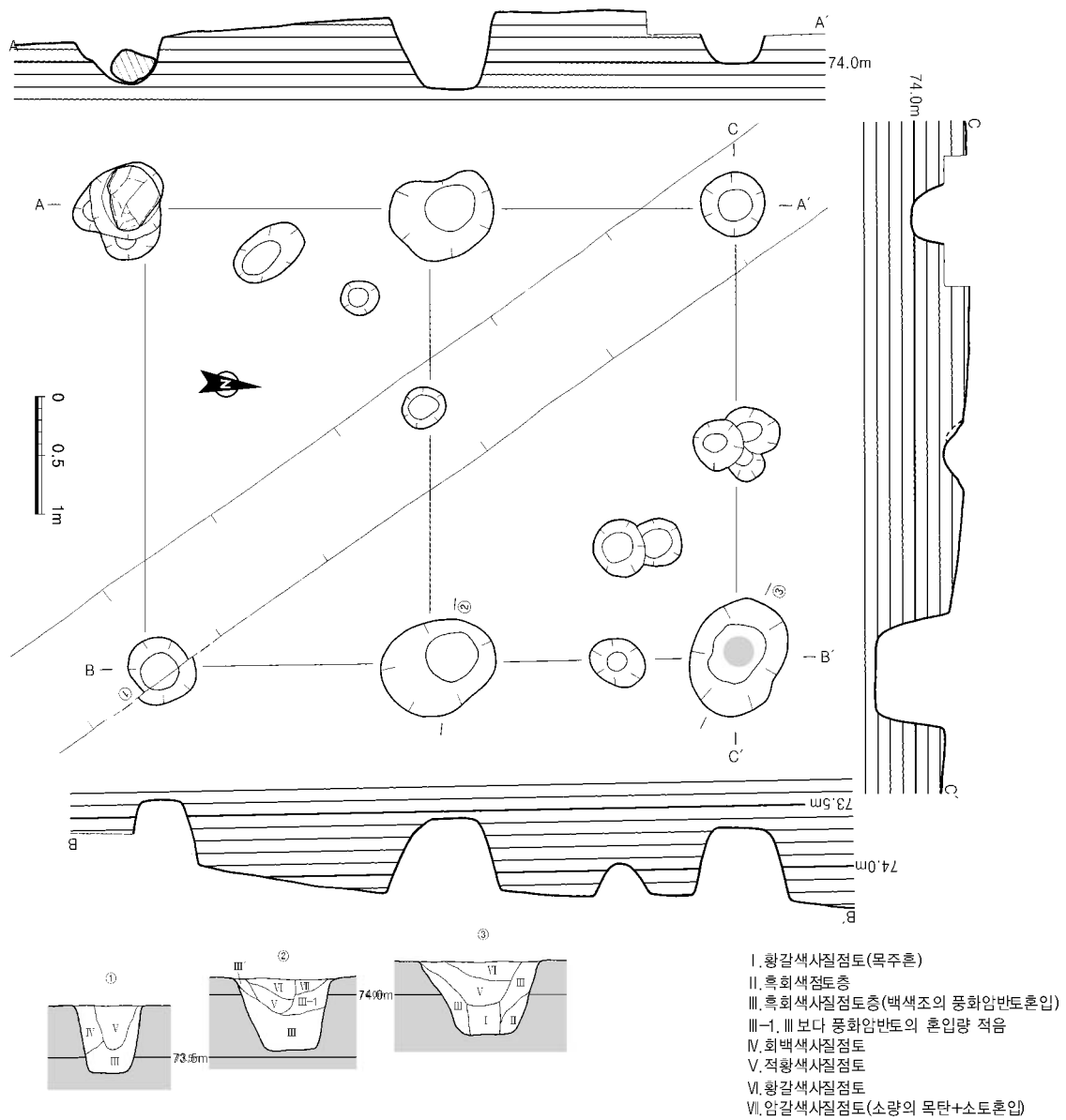


圖面 69. 53号(上), 54号(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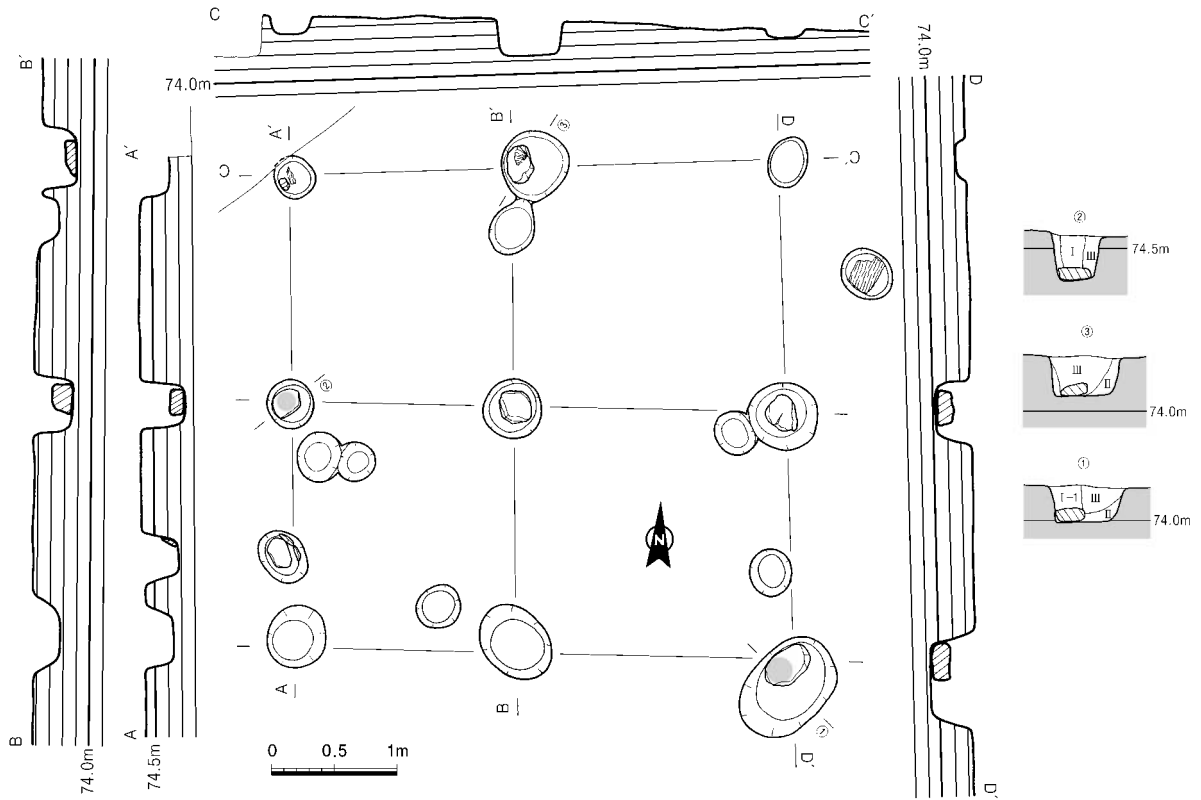


- I. 암회색사질점토(목주영향으로 니질화)
- I-1. 회갈색사질점토(목주층)
- II. 암갈색사질점토(목탄혼입)
- III. 암갈색사질점토(목탄+소도혼입)
- IV. 황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
- V. 암갈색사질점토
- VI. 회갈색사질점토
- VII. 회백색사질점토(근대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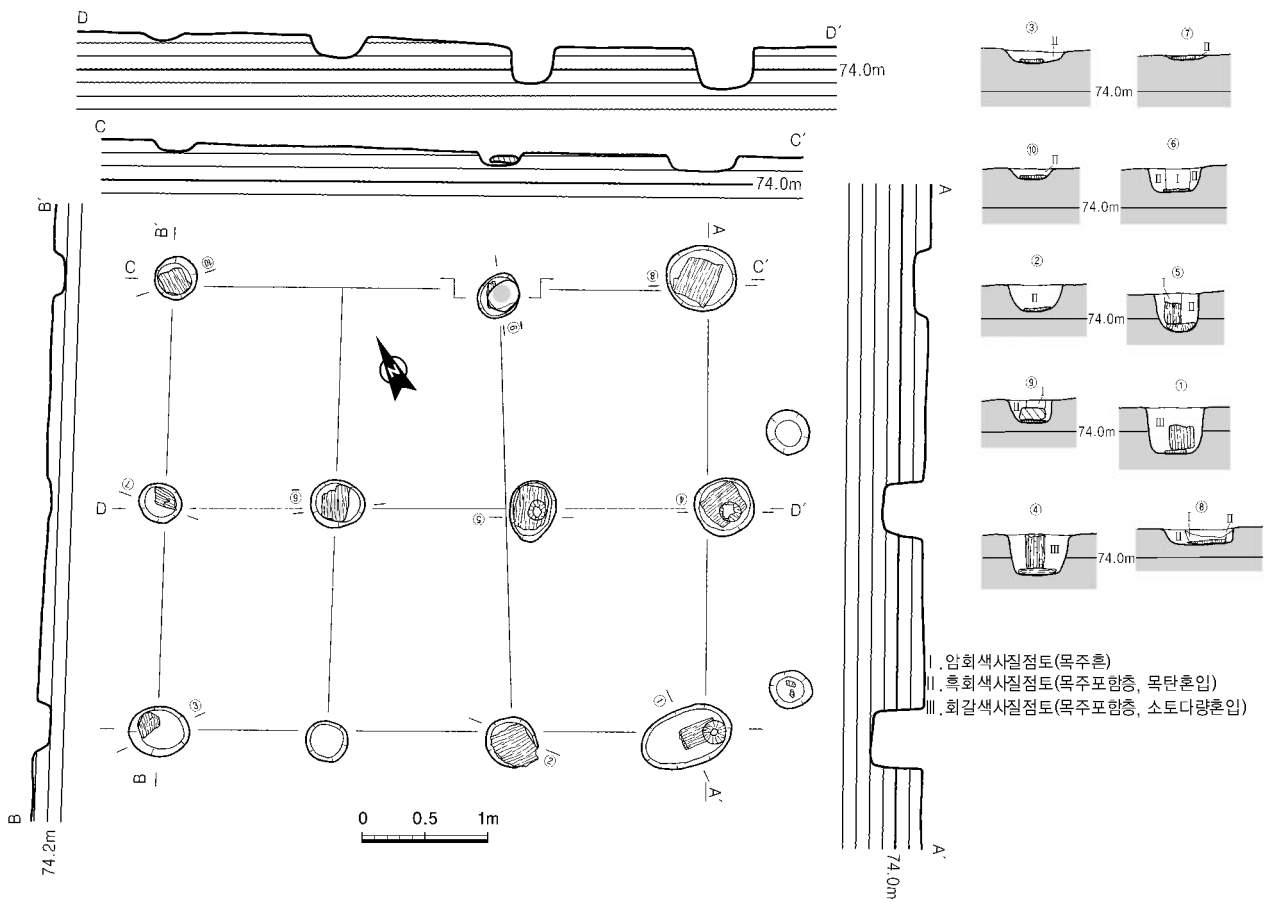
圖面 70. 5호 (1/60)



圖面 71. 56호(上), 57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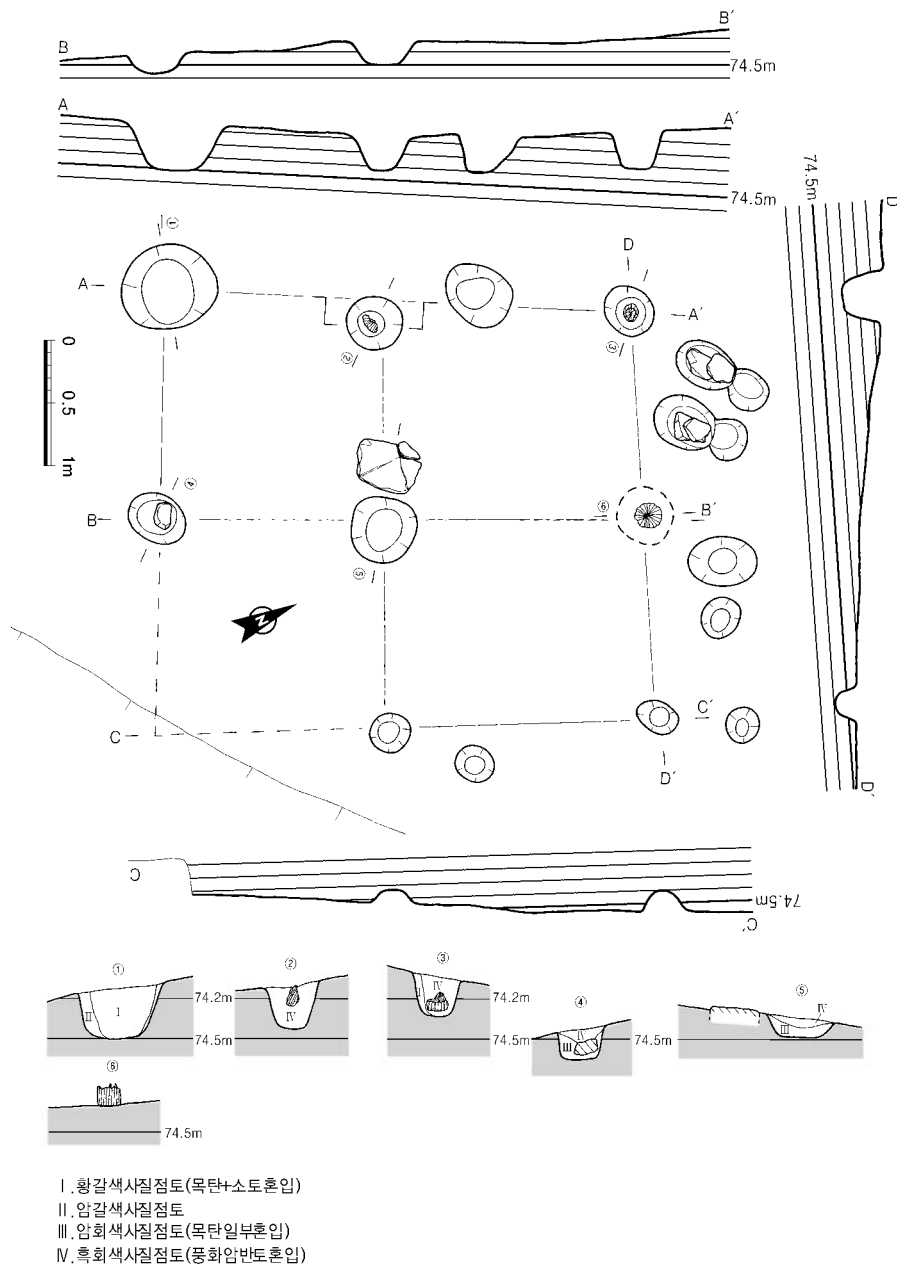


- I. 암회색사질점토(목주흔, 무탄+소토 다량혼입)
- II. 흑회색사질점토(저습지의 영향으로 인한 니질화)
- III. 암회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무탄 다량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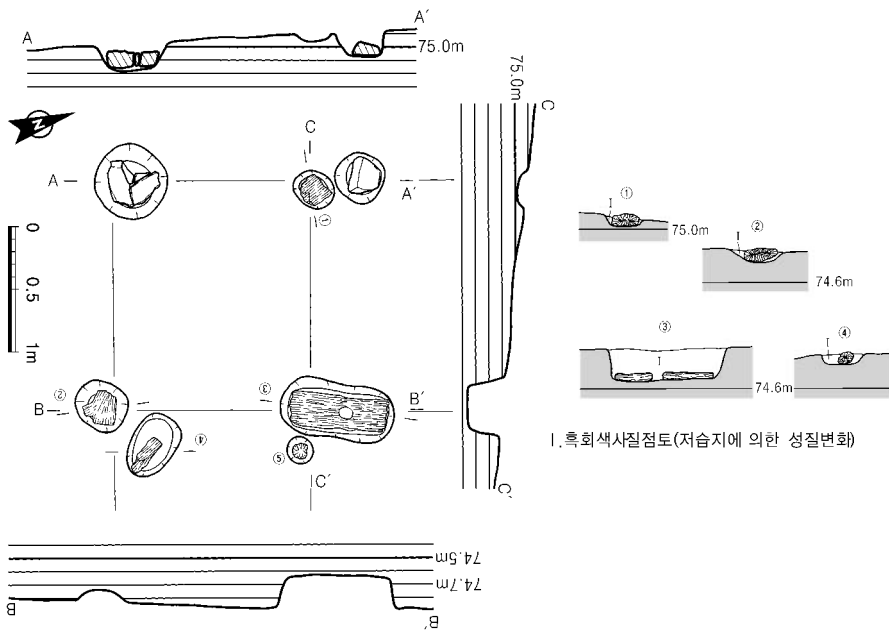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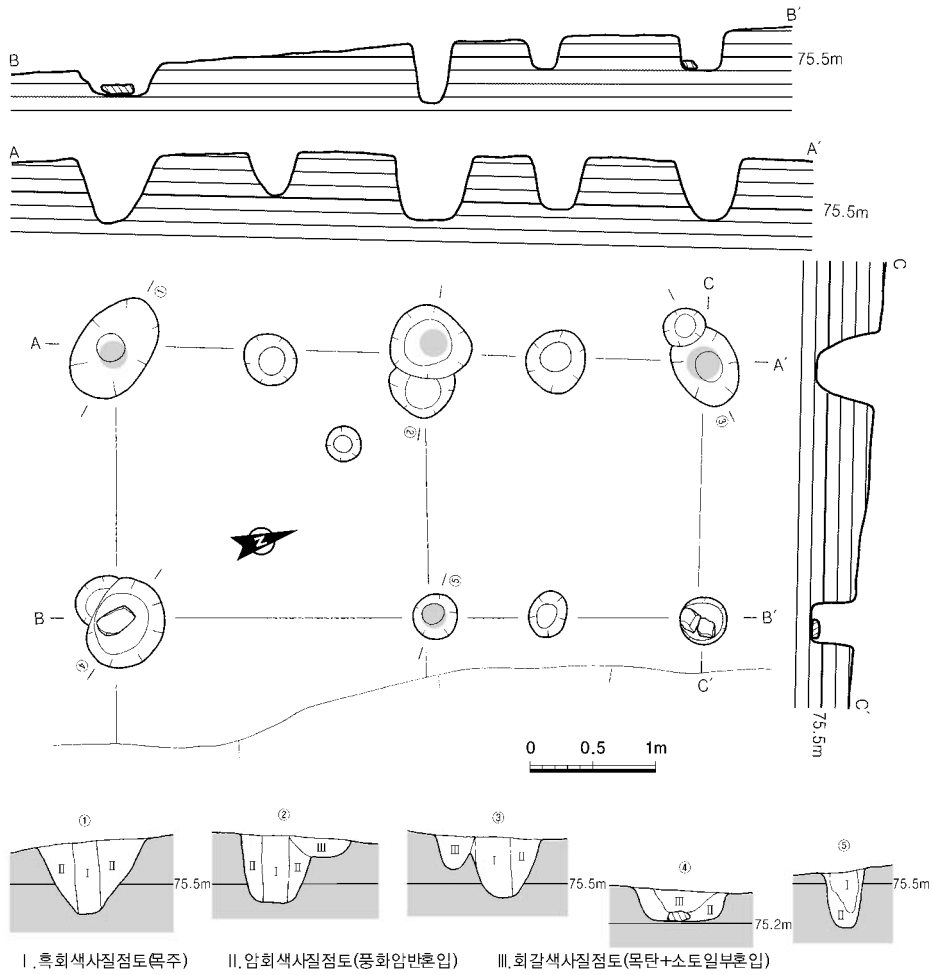


- I. 암회색사질점토(목주흔)
- II. 흑회색사질점토(목주표함층, 무탄혼입)
- III. 회갈색사질점토(목주표함층, 소토다량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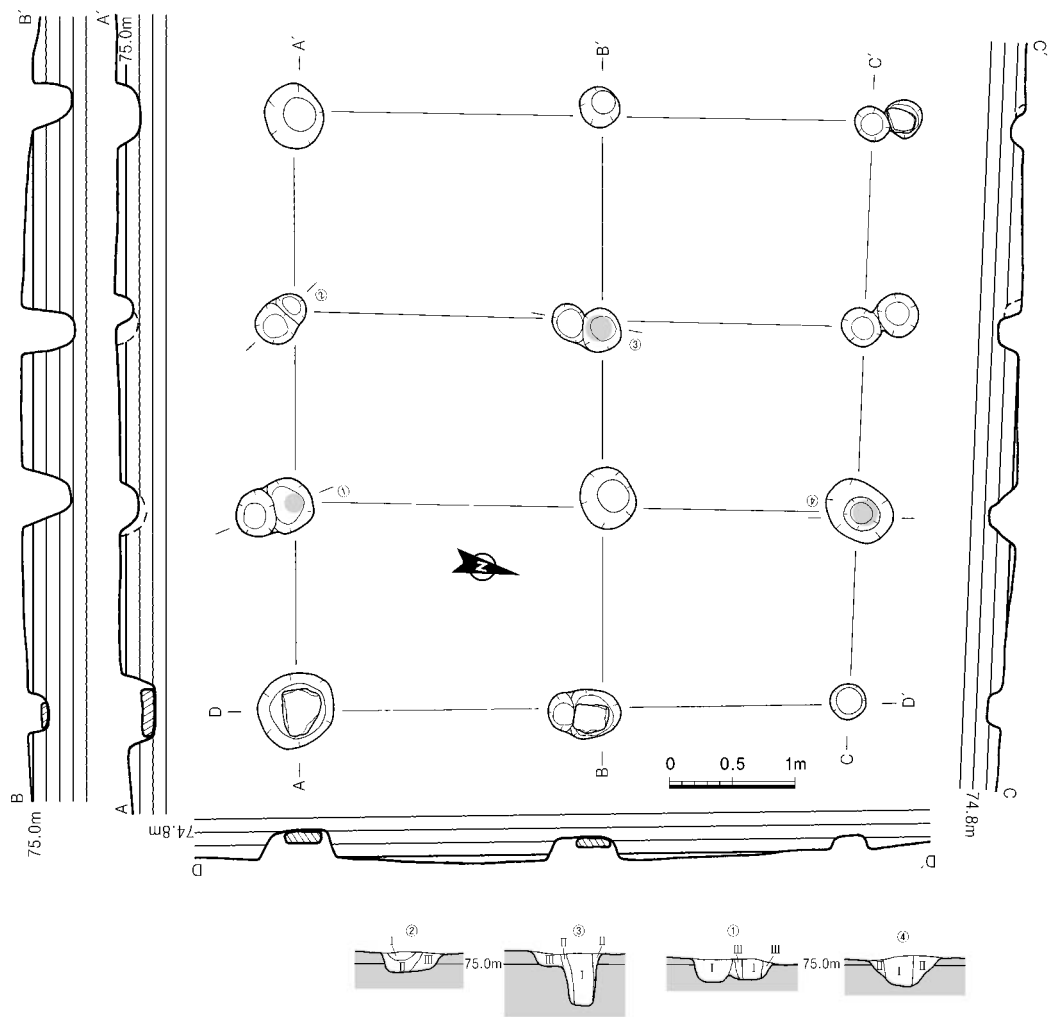
圖面 72. 58호(上), 59호(下) (1/60)



圖面 73. 60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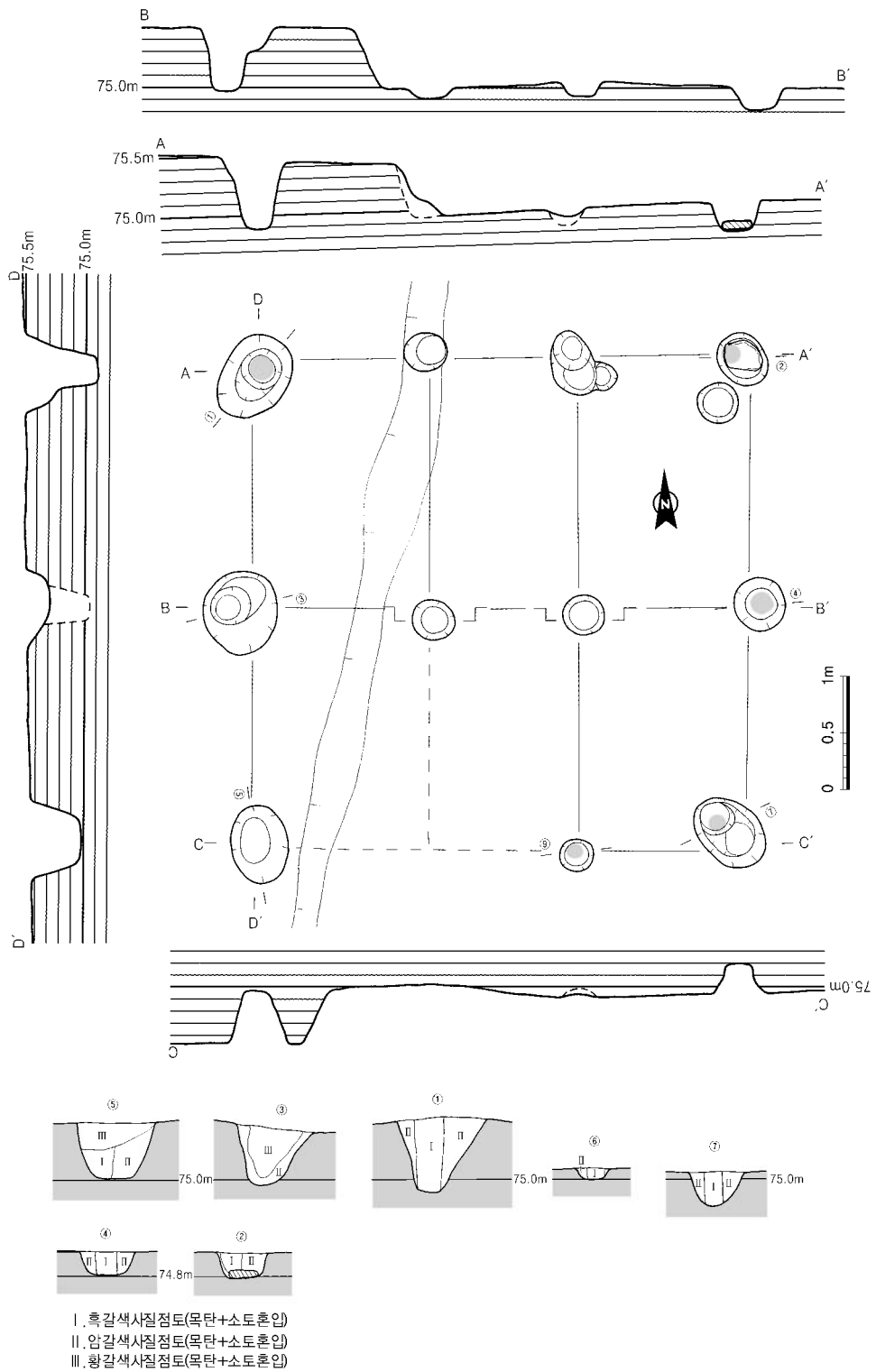


圖面 74. 61호(上), 62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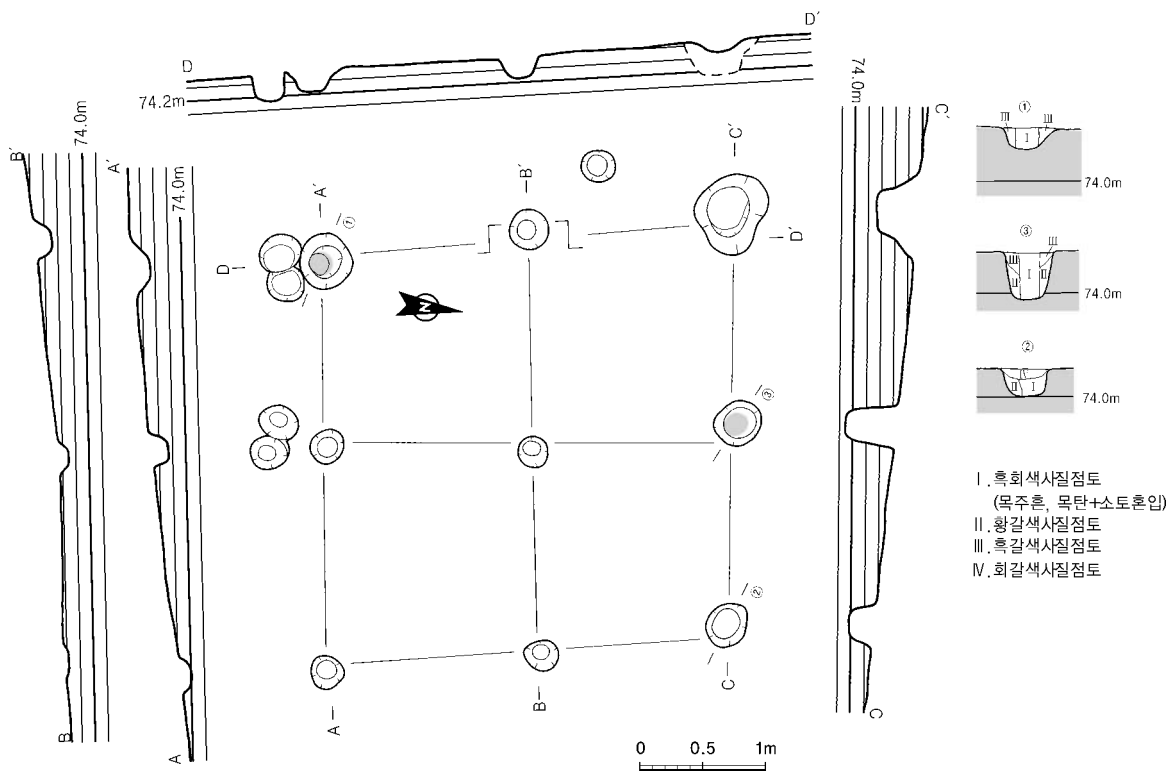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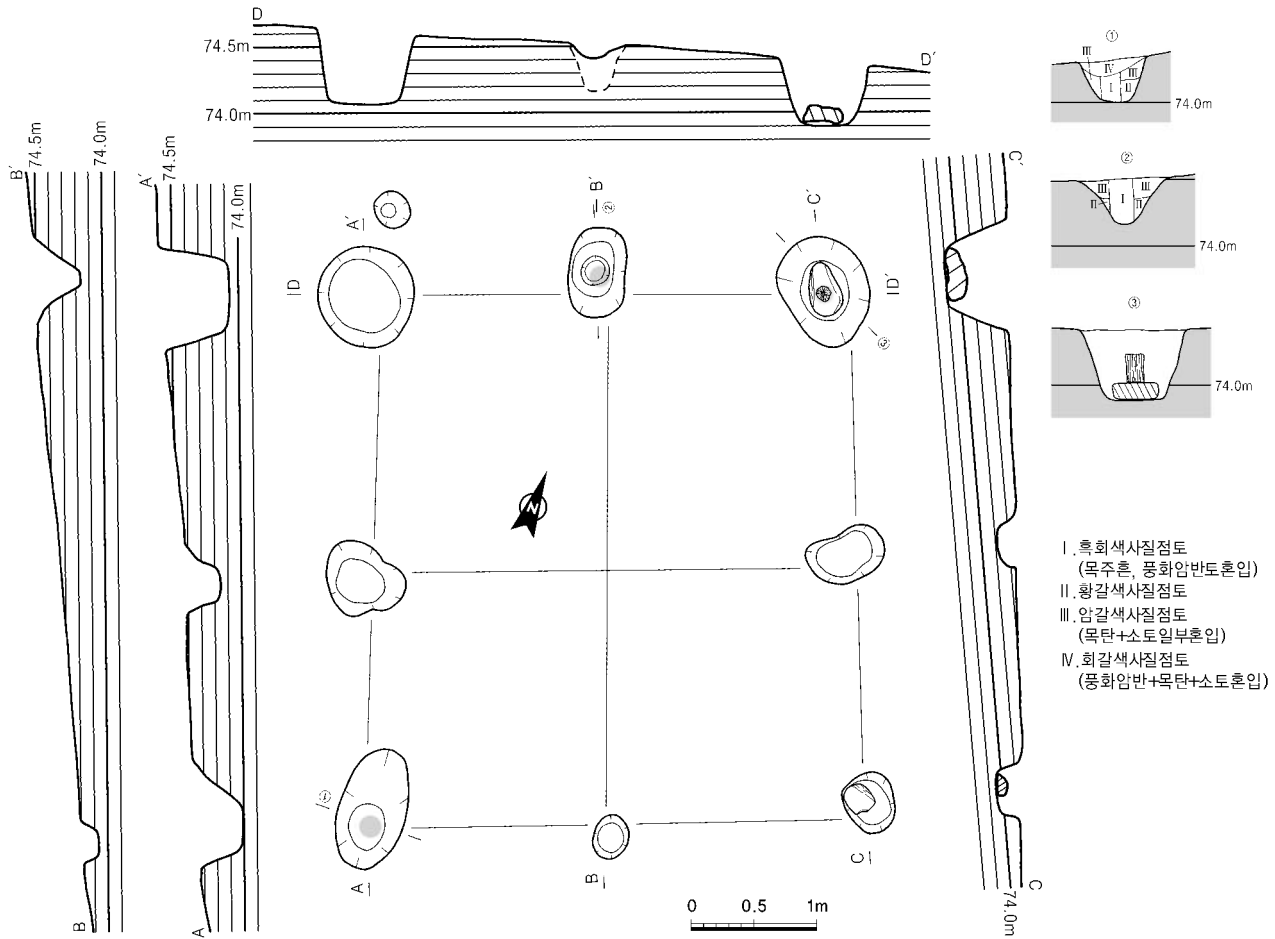


- I. 암갈색사질점토(목주, 목탄+소토혼입)
- II. 황갈색사질점토(목탄+소토혼입)
- III. 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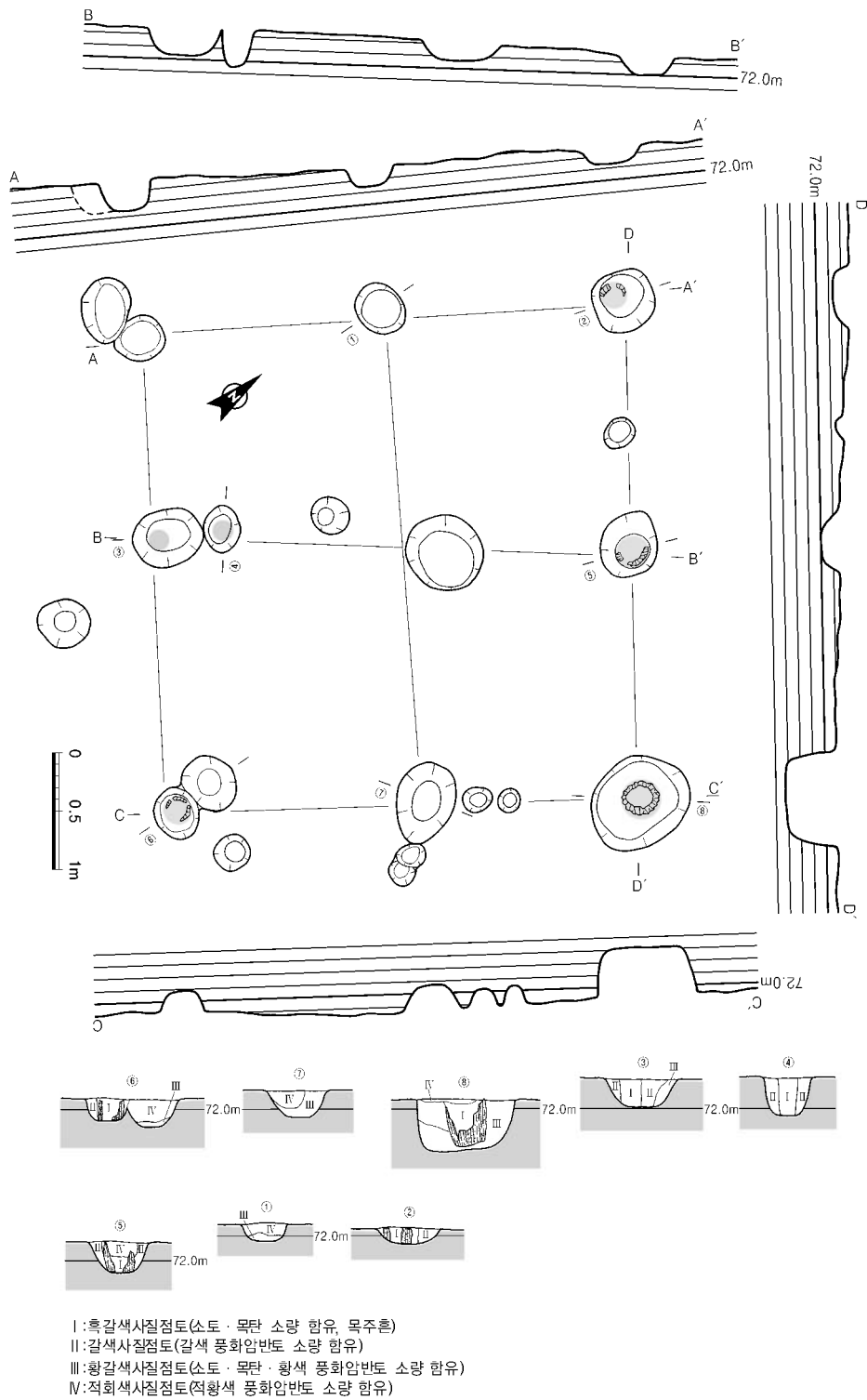
圖面 75. 63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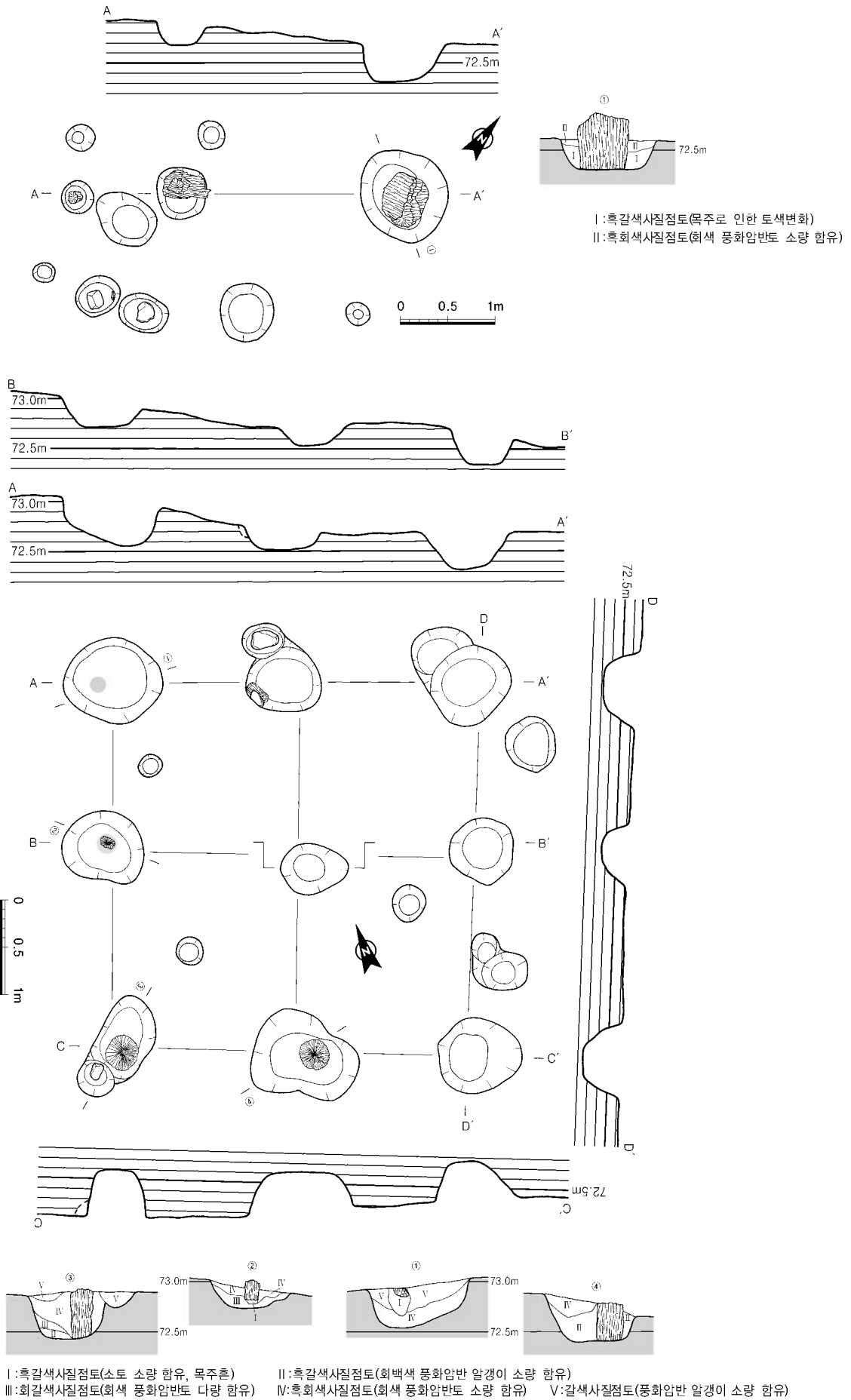
圖面 76. 64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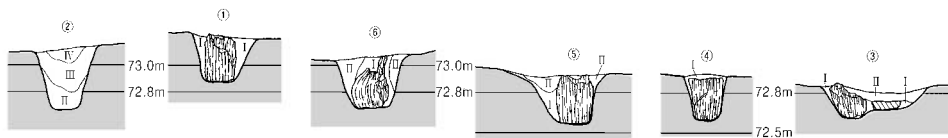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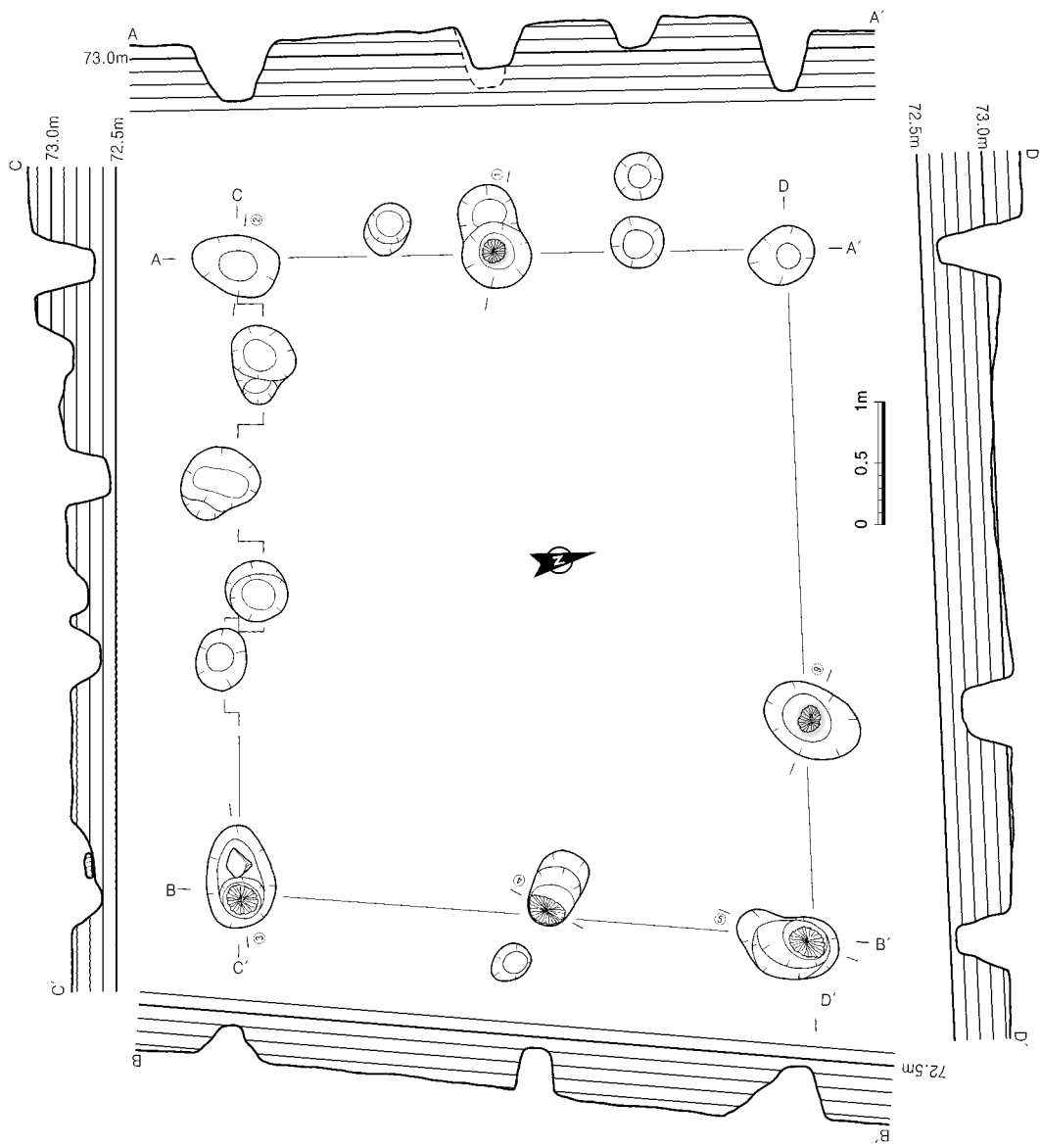
圖面 77. 65号(上), 66号(下) (1/60)



圖面 78. 67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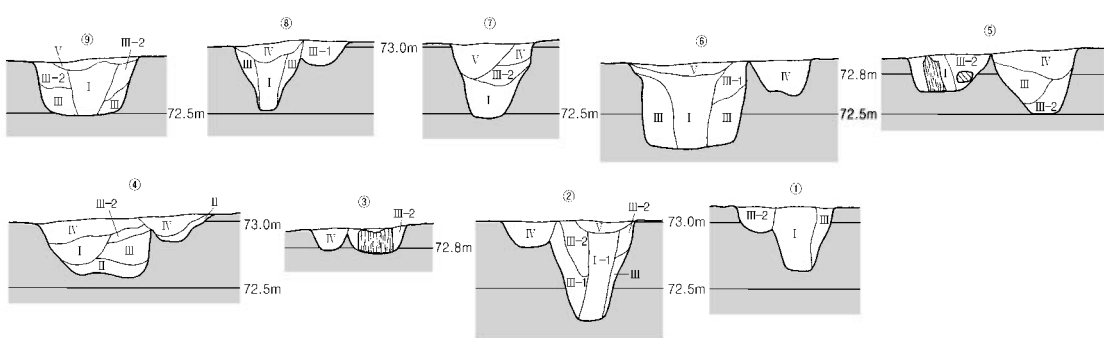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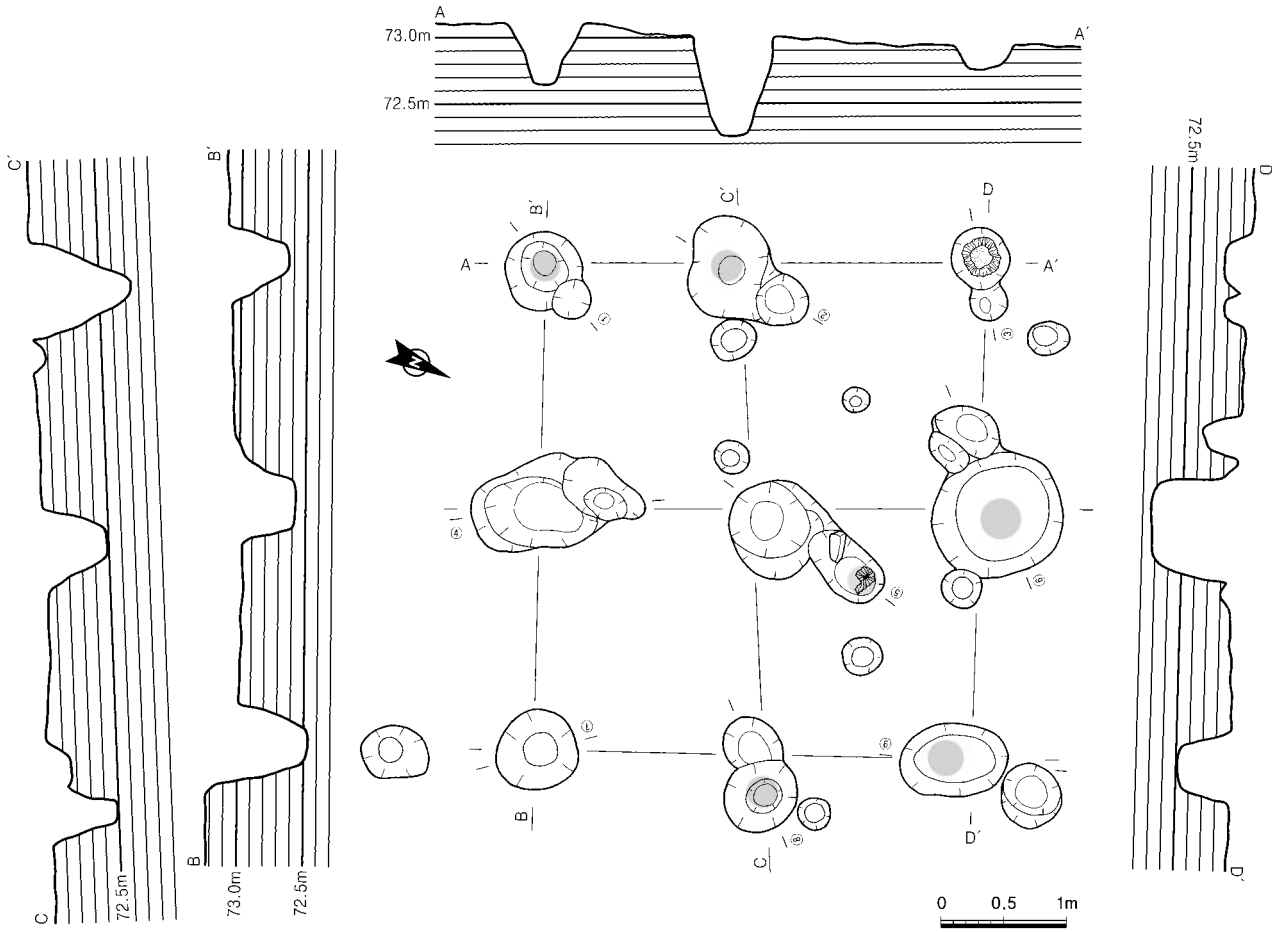


圖面 79. 68호(上), 69호(下)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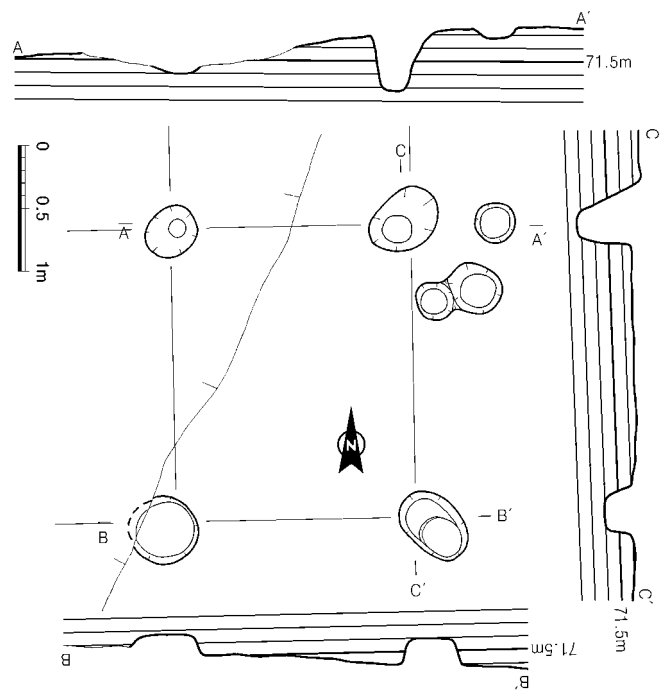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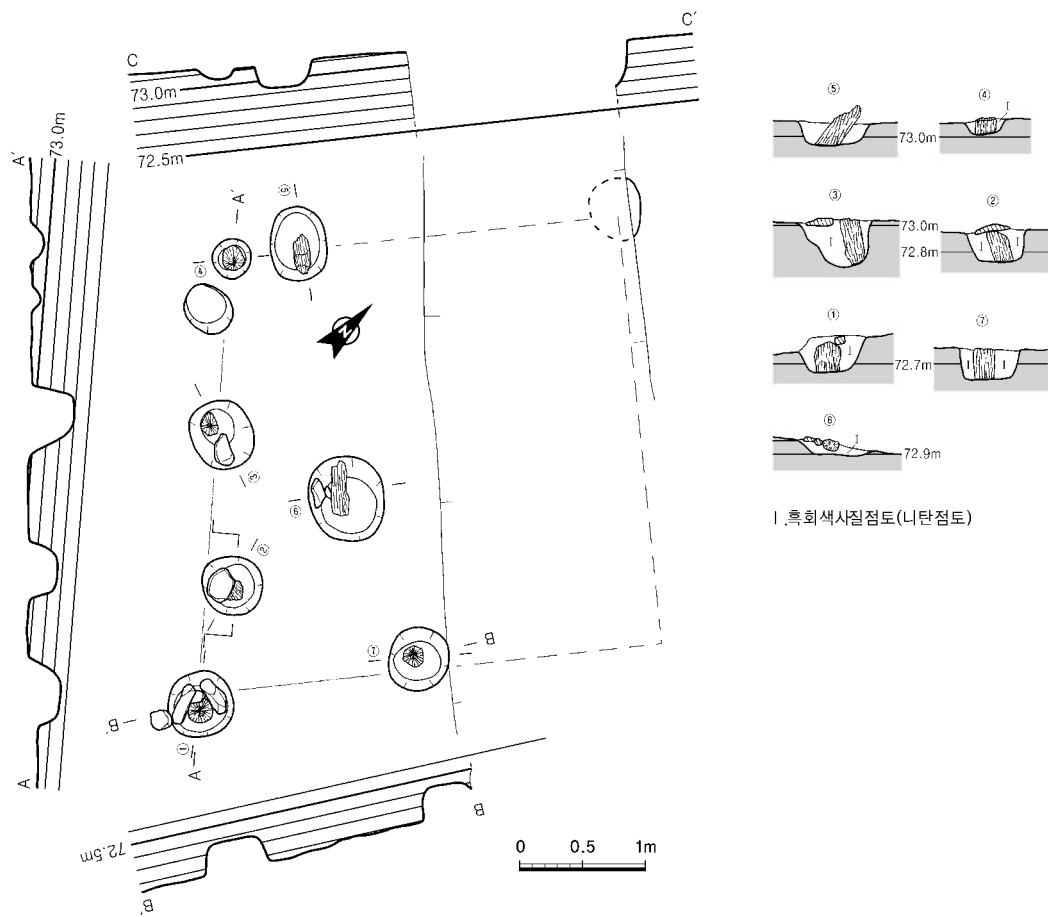
- I : 흑갈색사질점토(풍화 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목주흔)
- II : 흑회색사질점토(회색 풍화암반토 소량 함유, 총적토)
- III : 흑갈색사질점토(소토·목탄·회백색 풍화암반 알갱이 다량 함유)
- IV : 흑갈색사질점토(적황색, 회백색 풍화암반 알갱이 소량 함유)

圖面 80. 70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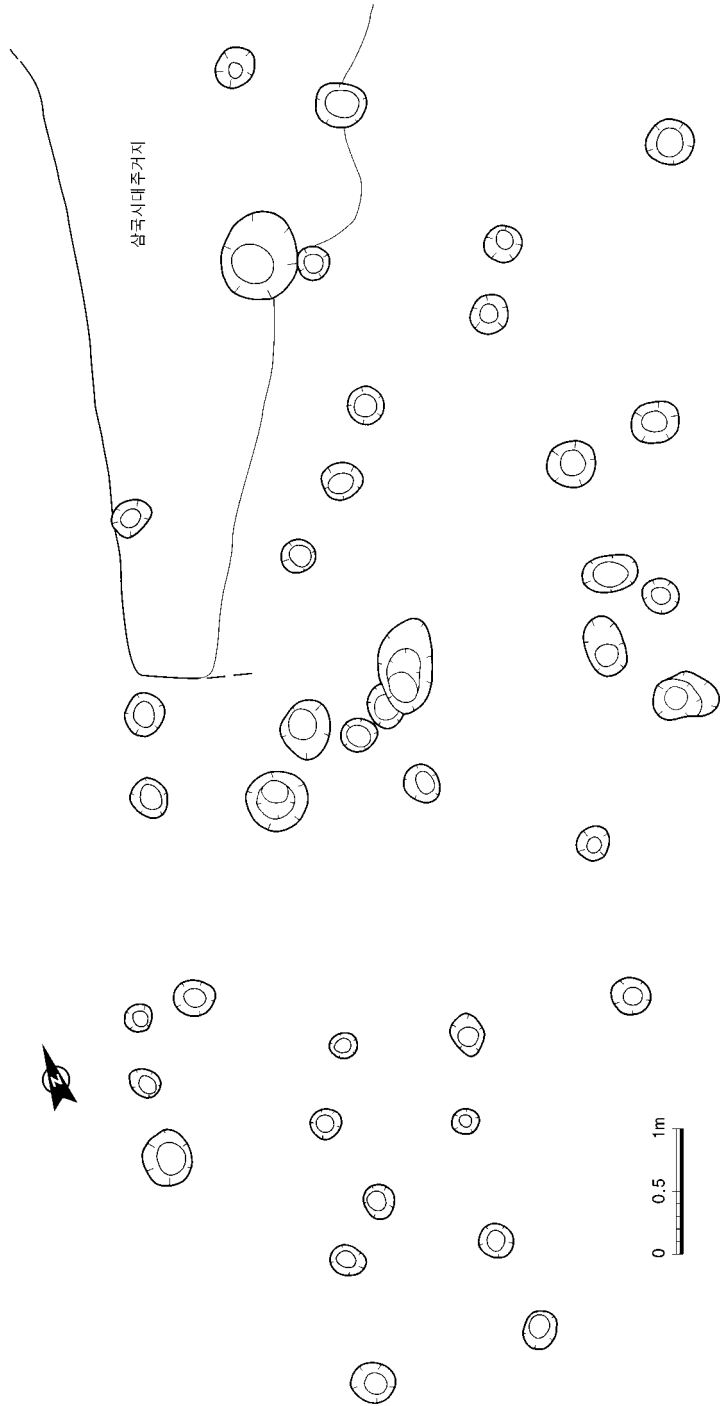


- I. 목주, 목주흔일부니질화)
- II. 회백색사질점토(풍화암반도+니탄점토혼입)
- III. 암흑색점토(회백색풍화암반도혼입)
- III-1. 풍화암반도의 혼입량 적음
- III-2. 풍화암반도의 혼입량 많음
- IV. 흑회색사질점토(적갈색점토+풍화암반 소량혼입)
- V. 회백색사질점토(다량의 풍화암반도+회색점토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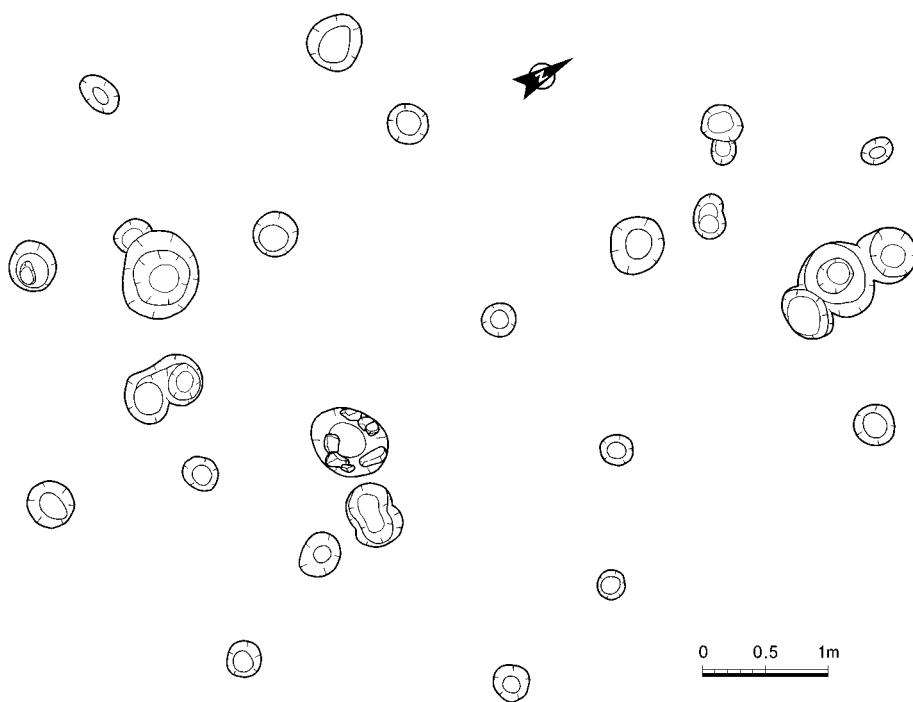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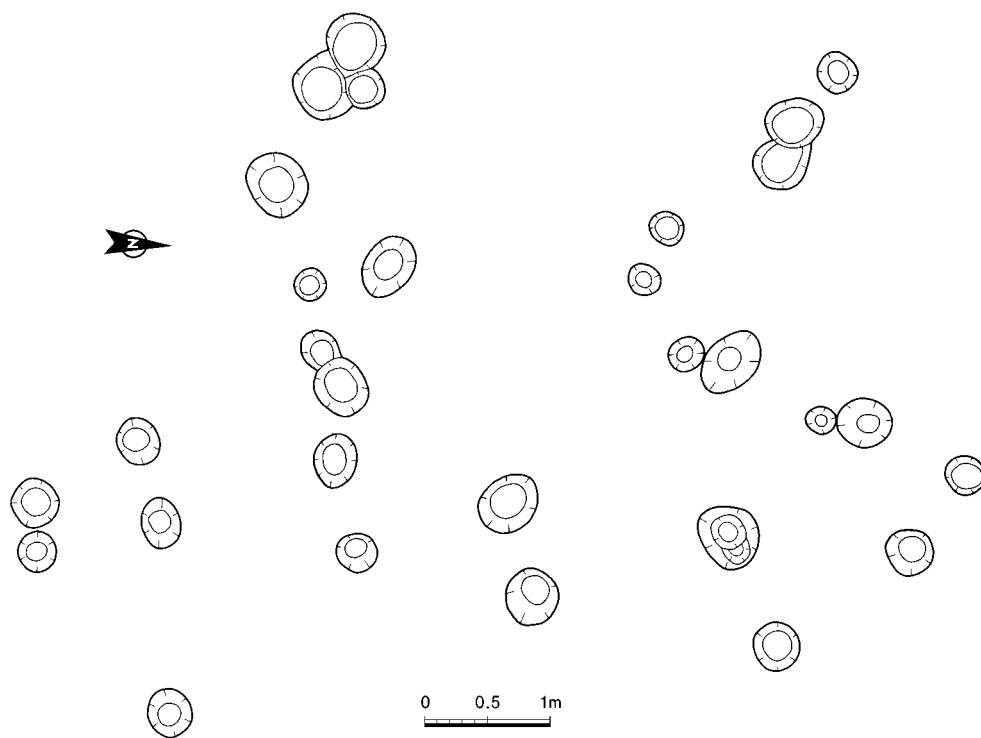
圖面 81. 기호 (1/60)



圖面 82. 72호(上), 73호(下) (1/60)



圖面 83. 1호 기둥구멍군 (1/60)



圖面 84. 2호 기동구멍군(上), 3호 기동구멍군(下) (1/60)

〈굴립주건물지 유물〉

262는 회황색조의 토제 방추차이다. 측면에는 얇은 홈이 나있으며 마찰로 인한 사용흔이 관찰되며 구멍 주변으로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37호 건물지 8-2번 주혈에서 확인되었다. 규격은 직경 4.1cm, 두께 2.6cm, 구멍지름 0.8cm이다.

263은 내, 외면 모두 회청색의 색조를 띠는 완이다. 태토는 장식 등이 다량 함유된 조악한 점토이다. 외면은 목리조정 후 물손질정면한 것으로 보이며, 동체부에서 저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깎기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구연단을 제외하면 박리되어 정면기법을 확인할 수 없다. 소성당시 생긴 황반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41호 건물지에서 수습되었으나 건물지와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규격은 높이 5.1cm, 구경 12.9cm, 저경 5.3cm이다.

264는 회흑색의 색조를 띠는 도질제 배이다. 소성은 불량한 편이며, 바닥면에 기포가 관찰된다. 바닥면에는 짙흔이 보이며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확인된다. 내면에는 소성시에 생긴 불규칙한 홈들 사이로 황색의 고운 점토가 박혀 있다. 65호 건물지에서 수습되었다. 규격은 기고 3.5cm, 구경 9.2cm이다.

265(나무기둥)은 自然木의 용이를 제거하고 가공한 나무기둥으로 땅속에 매립된 부분만 잔존한다. 선단부는 쪼개져 떨어져 나갔으며 횡방향으로 균열이 심한 편이다. 단면은 원형이다. 59호 건물지의 5번 주혈에서 확인된 나무기둥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24.8cm, 폭 16.7cm, 두께 15.6cm이다.

266(礎板)은 原木을 쪼개어 얻은 판재를 가공하여 만든 나무기둥의 받침목(초판)이다. 평면과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용이부분을 도려낸 흔적이 보인다. 횡방향으로 균열이 나타나며, 선단부와 하단부는 비스듬하게 깎아서 마무리하였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다. 59호 건물지의 5번 주혈의 나무기둥을 지탱했던 것이다. 규격은 전장 30.9cm, 폭 17.3cm, 두께 6.9cm이다.

267은 지름 12cm 정도의 原木을 팔각으로 가공하여 만든 나무기둥의 편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형태는 팔각형¹⁰⁾이다. 선단부는 쪼개져 떨어져 나가고 하단부는 반듯하게 자르고 다듬었다. 72호 건물지의 7번 주혈에서 확인된 것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27.8cm, 폭 10.8cm, 두께 11.2cm이다.

3) 저습지

(1) 유구(도면 85, 도판 113~115)

유적을 대각선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소규모 하천변에 형성된 진흙층으로, 해발 72~73m 선상에 위치한다. 저습지가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된 하상퇴적층이 분포한다. 조사 대상이 된 저습지가 형성된 곳은 거주공간과 분리된 생산시설과 근접한 곳으로 판단된다. 유적을 가로 지르는 소규모 하천변의 수심이 깊고 유역이 넓은 지역에 형성된 저습지로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진흙층이 분포한다. 이곳에 삼국시대의 생활쓰레기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습지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면서, 개별층위에 따라 유물의 수습을 위해 5m×5m의 Grid를 설치하여 격자독을 남기고 퇴적 층위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저습지의 범위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알게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유물이 주로 확인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범위를 추정하였다. 유물들이 확인되는 층위는 점성과 밀도가 조금 낮은 흑색의 점질층(8층) - 황적갈색 사질

10) 단면형태상 팔각면이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출토당시에는 편평하게 각이 진 형태로 출토 되었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내부가 수축되는 현상이 일어나 현재는 불규칙적인 단면형태를 가지고 있다.

점토층(9층)이며, 유물은 대부분 흑색 점질층에서 확인되었지만 사질층에서도 일부 유물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흑색의 점질층의 토양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목질의 부식이 더디게 진행됨으로서 많은 양의 목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잔존 하였는데, 자연유물과 함께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진 인공유물이 공존한다. 굴립주건물지가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북서편 곡부에서 시작된 소규모의 하천이 이곳 저습지에 이르러 유속이 감소되면서 자연유물과 인공유물이 매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출토유물

가. 자연유물(씨앗류)

자연유물은 저습지내에서 흑색 점질층과 목재유물이 주로 출토되는 6, 8, 9번 층위를 중심으로 주로 확인되었다. Pit〈도면85-1Pit〉 설정후 5cm정도의 깊이로 4개 지점으로 나누어 채취하였다. 채취된 식물자료의 분석은 〈pp.182〉에 첨부하였다.

나. 목제품, 목기류, 토기 및 기타유물

출토유물은 크게 식물 유존체와 목기류로 구분되며, 다수의 도질토기편과 토제품, 골제품 등도 확인되었다. 식물 유존체는 흑색의 점질층 상부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시료채취를 통한 수중분석 결과, 채취된 시료들은 복숭아, 참외, 오이, 박 등의 씨앗류와 함께 밤껍질, 표주박편 등으로 확인되었다.

골제품으로 녹각이 2점 확인되었는데, 가공흔적으로 볼 때 도자의 파수부분(도자병)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기류 중에서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나막신, 목제그릇, 도끼자루, 목제바가지 등이 있으며, 방아의 공이축 모양을 띤 목제품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방아모양의 목제품은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용도는 알 수 없다.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결합부재들과 가공목재편 등이 주류를 이룬다.

유물이 출토되는 위치가溝의 흐름을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유수의 흐름에 따라 이 위치에서 정체되면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목제품과 더불어 목재 가공시 발생한 목재잔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른 유물들과 같이 유수의 흐름에 따라 한곳에 집중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점에서 목재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치 않다.

목제품 이외에도 삼국시대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시루, 연질옹, 토구, 방추차, 원반형토제품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주거지 공존기에 형성된 유구로 판단된다.

〈저습지 유물〉

268~273은 용도미상의 목제품이다. 외형은 棒狀이며, 단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하단부는 여러 방향으로 깎아 둥그스름한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상단부는 비스듬하게 깎아 마무리하였다. 상단부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의 평면 장방형의 결합부가 있는데 중앙에 방형의 구멍이 뚫어져 있다. 목제의 형태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종방향의 가공흔이 전면에서 확인되며, 목제의 면을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횡방향의 조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출토량이 많다는 점에서 당시 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았던 목제품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

다. 하단부를 재가공하여 축약시켜 결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규격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물번호	내 용	길이(cm)	폭	구멍규격	결합부두께	비고
268	단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다른 유물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21.6	4.6	1.0×0.8	1.4	
269	단면은 찌그러진 타원형에 가깝다.	25.1	5.2	1.1×1.4	1.4	
270	단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동체중간부위에서 절단되었다.	22.5	5.3	1.1×1.1	1.6	
271	동체중간부위에 옹이가 있다. 동체부가 심하게 변형된 상태이다.	24.0	5.3	1.1×1.0	1.4	
272	상단부의 결합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21.7	6.2		1.3	
273	동체부와 상단의 결합부가 완만하게 연결된다. 하단부에 축약하여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2.7	4.4	1.6×1.2	2.4	

274~276은 평면 장방형의 목제 사각용기이다. 모두 길이 방향으로 양분되어 정확한 폭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길이를 본다면 거의 같은 크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생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용기류로서 당시 실생활에는 토기류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목기류의 사용빈도도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부규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유물번호	내 용	길이(cm)	잔존폭	두께	높이	비고
274	단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다른 유물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13.8)	(4.8)	(1.6)		
275	단면은 찌그러진 타원형에 가깝다.	17.2	(4.7)	1.0	3.3	
276	단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동체중간부위에서 절단되었다.	17.4	(5.8)	1.4	4.3	

277은 원목을 절단하여 만든 목제 바가지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전체적으로 균열이 많아 상태가 불량하다. 외면은 단면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직각을 이루다가 말각으로 처리되었으며, 장변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완만하게 올라간다. 내부는 장단변 모두 각을 이루며 비스듬히 파여져 있다. 한쪽 단면에 수평의 파수가 잔존하지만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불에 그을린 채로 확인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규격은 길이 24.7cm, 폭 7.8cm, 두께 3.7cm, 外低의 길이 16.1cm, 폭 7.0cm, 內低의 길이 12.6cm, 폭 4.2cm, 파수의 잔존길이 3.5cm, 잔존폭 3.5cm, 잔존두께 1.1cm이다.

278은 원목을 절단하여 만든 장방형의 목제 바가지로 완형이다. 외면은 장변의 한쪽은 직각으로, 반대편은 완만하게 올라가며 단면은 파수쪽이 직각으로, 반대편은 완만하게 올라가며 직각을 이룬다. 내면은 외면의 장단변의 형태와 같다.

가공흔은 외면의 바닥부와 내면의 단면에서 확인되는데, 용기의 성형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파수는 단벽의 한쪽에서 시작되어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며, 단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규격은 길이 24.6cm, 너비 10.5cm, 두께 5.5cm, 外低의 길이 14.5cm, 폭 8.2cm, 內低의 길이 9.6cm, 폭 6.6cm, 파수의 길이 10cm, 폭 3.4cm, 두께 3.4cm이다.

279는 손잡이가 달린 목제품이다. 나무결을 따라 길이 방향으로 만들어진 방망이 형태의 목제품으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전·후면으로 표면이 결락되었고, 손잡이 부분의 전면은 그을렸으며 후면은 직접적으로 불에 타면서 목탄화 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선단부에서 손잡이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손잡이

부분은 비스듬하게 마무리 하였다. 규격은 잔존길이 27.5cm, 신부폭 8.9cm, 두께 2.3cm, 손잡이 폭 3.5cm, 두께 2cm이다.

280은 원목을 나무결을 따라 길게 가공한 목제 방망이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제외한 신부와 선단부 대부분이 불에 탄 상태로 검출되었다. 손잡이에서 신부로 이어지는 부분을 비스듬히 깎아 마무리 하였다. 손잡이와 신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44.7cm, 신부폭 5.1cm, 손잡이 길이 12.5cm, 손잡이 폭 3.0cm, 두께 2.9cm(신부), 1.8cm(손잡이)이다.

281은 굽이 달린 목제신발로 4개의 굽중에서 2개의 굽만 남아 있다. 굽은 한쌍식 마주보는 형태로 후면 선단부와 하단부 중간에 위치한다. 굽의 형태는 단면 사다리꼴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굽을 제외한 신발의 종단면은 장주형이다.

신발의 바깥쪽으로 발을 고정하기 위한 끈을 끼운 구멍이 9개 확인되는데 구멍은 아랫면에서 윗면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뚫어져 있다.

윗면은 종방향으로 나있는 나무결을 따라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윗면에서 선단부의 형태가 왼편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아 엄지발가락이 위치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신발은 오른쪽 신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위치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발크기를 생각한다면 180~190mm정도이다. 발폭도 65~70mm로 성인 남성의 신발보다는 여성이나 소아의 신발로 생각된다. 규격은 길이 23.4cm, 폭 9.3cm, 두께 3.4cm(굽포함)-1.8cm(미포함), 구멍직경 0.5cm이다.

282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목제품으로 선단부와 후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하부에는 결입부로 추정되는 축약부가 있다. 결입부의 형태는 타원형이다. 선단부에는 'U'자형 홈이 나 있으며 끝단으로 갈수록 축소되는 형태이다. 규격은 길이 24.8cm, 폭 6.0cm, 두께 4.0cm, 결입부 길이 6.7cm, 결입부 폭 3.8cm이다.

283, 284는 용도미상의 목제품이다. 납작한 판재를 깎아 만든 목제품으로 평면은 장방형이며, 중앙부에 장방형의 구멍을 뚫려 있다. 283의 구멍은 길이 4cm, 복원폭 5.8cm이며, 284의 구멍은 5.8cm, 폭 5.8cm이다. 전·후면은 편평하게 가공하였으며 양단부는 경사지게 가공하였다. 전면에는 부재의 표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횡방향의 가공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규격은 283은 길이 27.3cm, 폭 9.9cm, 두께 1.6cm이며, 284는 길이 29.2cm, 폭 8.6cm, 두께 2.6cm이다.

285는 용도미상의 목제품이다. 목재를 얇게 다듬어 만든 것으로, 전체적으로 반월형이다. 한변은 직전으로 처리하였으며, 한변은 반월상의 곡선으로 정교하게 성형하였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규격은 길이 26.3cm, 폭 7.9cm, 두께 1.5cm이다.

286은 용도를 알 수 없는 반월형의 목제품으로 285에 비해 외형이 적으며, 두께는 두터운 편이다. 원목을 매끄럽게 깎아 평면으로 다듬었으며, 좌우 양 끝단은 약간 둥그스름하게 마무리하였다. 횡단면의 형태는 저면이 평탄한 형태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인 변형으로 인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격은 길이 21.1cm, 폭 6.2cm이다.

287은 용도를 알 수 없는 목제품이다. 전·후면은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면의 상태로 보아 좌측면 일부와 하단 일부가 결실된 것으로 관찰된다. 선단부 안쪽으로 깊이 4.5cm 정도의 홈이 종·횡방향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홈사이로 횡방향의 결구재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규격은 잔존길이 12.3cm, 폭 8.4cm, 두께 4.1cm, 홈내경 1.4cm이다.

288은 용도불명의 A자형 목제품이다.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매끄럽게 가공한 것으로 횡단면은 장방형이고, 양 끝단은 모두 대각선으로 잘라 반듯하게 마무리 하였다. 선단부는 부분 결실되었다. 규격은 잔존길

이 18.4cm, 폭 3.4cm, 두께 1.6cm이다.

289는 원반형의 목제품으로 용도는 알 수 없다. 횡단면은 원형이며 측면 장방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원통형의 목재를 상·하단을 자르고 자른 면을 곱게 가공한 상태이다. 규격은 지름 7.6cm, 높이 5.3cm이다.

290은 목재로 만든「ㄱ」자형의 도끼자루 편으로 추정된다. 삽입부의 하부는 일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부로 갈수록 약하게 좁아지다 모를 죽여 마무리 하였다. 착장각도는 약 56°이다. 손잡이 부분은 결실되었으며 잔존하는 자루의 횡단면은 원형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11.1cm, 삽입부 폭 3.3cm, 손잡이 폭 3.2cm이다.

291은 목재 흑칠고배의 구연 및 배신부 편이다. 내, 외면으로 흑칠이 되어 있으며 구연단 일부가 마모되어 흑칠이 벗겨져 있다. 내·외면 모두 매우 곱게 다듬어져 있으며 나무결은 횡방향으로 나 있다. 외경을 기준으로 도면복원 하였다. 규격은 잔존높이 3.0cm, 복원구경 19.0cm이다.

292는 내·외면에 흑칠을 한 목재로 된 고배의 배신부 편이다. 구연일부를 제외하고는 결실된 상태이다. 규격은 잔존높이 9.9cm, 두께 1.0cm이다.

293은 니암혼펠스제로 석기로 암회색을 띤다. 상단에는 크게 떼어낸 흔적이 있으며, 하단에는 약하게 떼어낸 흔적이 있다. 인위적인 떼기흔적이 있으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규격은 길이 18.3cm, 너비 9.1cm, 두께 5.4cm이다.

294는 세립사암제의 지석으로 전면과 측면 상·하단에 사용면이 관찰된다. 사용면을 제외한 면은 떼어내기후 chipping하였으며 이차적인 가공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면은 곱게 마연되어 있다. 규격은 전장 8.3cm, 너비 5.2cm, 두께 5.4cm이다.

295는 회흑색조의 강돌을 이용한 유공석이다. 측면에서 후면을 통과하는 구멍이 있다. 구멍의 안쪽은 마찰로 인해 둥글게 마모되어 있다.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멍 내면에 희미하게 목탄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발화를 위한 도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규격은 길이 5cm, 두께 3.8cm이다.

296은 황백색조의 석영제의 구슬이다. 전체적으로 마연되어 있으며 선단부에 치우친 쪽으로 0.1cm 정도의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규격은 길이 1.5cm, 너비 1.3cm, 두께 1.2cm이다.

297은 완형의 토제 방추차이다. 색조는 회청색이고,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 등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되어 있다. 규격은 직경 4.4cm, 두께 1.7cm, 구멍지름 0.8cm이다.

298은 흑갈색 토구로 내부에서 2점이 수습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외면에 지두흔이 남아 있다. 외면 일부가 박리되었다. 규격은 ①이 직경 2.5cm, 무게 11.3g이고, ②가 직경 2.2cm, 무게 7.8g이다.

299는 적갈색조의 연질용으로 구연 및 동체가 1/2 정도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석, 석영이 다량 함유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외면에는 동체 전면에서 종방향의 승문타날이 관찰된다. 규격은 높이 24.4cm, 구경 21.8cm, 저경 12.7cm이다.

300은 파수가 달린 시루로 동체 및 저부가 1/3정도 결실되었다. 외면은 연갈색조로 부분적으로 흑반이 확인된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이 함유된 정성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내·외면으로 목리조정흔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저부는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일자형의 시루공이 중앙에 3개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13개의 시루공이 뚫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루공의 규격은 길이는 3.5cm, 폭은 0.1cm이다. 파수에는 'V'형태의 시문구로 불규칙하게 여러번 찌른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소성당시 파수의 파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격은 높이 19.4cm, 구경 19.7cm, 동최대경 18.8cm이다.

301은 황갈색조의 연질용으로 구연과 동체가 1/2정도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식, 석영이 다량 함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나, 동체 내면에 부분적으로 회전물 손질흔이 관찰된다. 규격은 높이 9.7cm, 복원구경 9.7cm, 저경 6.1cm이다.

302는 소형의 대부발편이며, 鉢部の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백색조이며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대각 외면에는 성형단계에서 남은 지두흔이 확인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4.1cm, 대각경 6.4cm이다.

303은 회청색조의 도질제 杯이다. 1/4 정도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 등이 혼입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고, 저면에는 성형 후 회전판에서 떼어낼 때 생긴 흔적이 확인된다. 규격은 높이 1.4cm, 복원구경 10.6cm이다.

304는 연질발 저부편으로 평저이며, 1/3정도만 남아있어 도면복원 하였다. 석영, 장식 등 굵은 석립이 다량 혼합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은 보통이다. 색조는 회황색이며, 내·외면 모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규격은 잔존높이 3.9cm, 복원저경 3.4cm이다.

305는 모두 2점의 녹각제 손잡이로 도자의 손잡이로 추정된다. ①은 전면을 도구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깎아 낸 다음 마연하였다. 선단부는 여러번 깎아 말각이 되게 만든 다음 마연하였다. 도자 결입부에는 2cm 정도의 깊이로 홈이 나있다.

②는 부분적으로 종방향의 깎기흔이 관찰되나 대부분 녹각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손잡이의 결입부 부분은 결실되었다. 동체부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V'모양으로 깎은 홈이 일조로 돌아간다. 규격은 ①이 길이 12.7cm, 직경 2.0cm, ②가 잔존길이 11.9cm, 직경 2.5cm이다.

306은 모두 토기편을 2차가공하여 만든 원반형 토제품이다. 저습지 내부에서 29점이 수습되었다. 토기 파편을 그대로 이용하고 둥글게 가공하였다. 두께가 일정 정도되는 큰 호류의 동체부편을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크기는 3.5~8cm 내외로 크기가 다양하며 두께는 1~2cm 내외이다. 규격은 아래와 같다.

규격 (cm)								
유물번호	직경	두께	유물번호	직경	두께	유물번호	직경	두께
40-1	7.9	1.9	40-11	6.3	1.8	40-21	3.8	1.3
40-2	8.8	1.3	40-12	5.2	1.6	40-22	4.2	2.1
40-3	8.9	0.9	40-13	5.7	1.0	40-23	4.3	1.0
40-4	7.2	1.5	40-14	4.7	1.9	40-24	4.3	1.1
40-5	8.1	1.0	40-15	4.9	2.2	40-25	3.7	1.6
40-6	7.1	1.3	40-16	4.5	1.3	40-26	4.2	0.9
40-7	6.8	2.0	40-17	4.7	1.0	40-27	3.5	0.7
40-8	7.4	1.2	40-18	4.6	2.0	40-28	3.6	1.0
40-9	6.9	1.3	40-19	4.8	1.0	40-29	3.4	1.9
40-10	6.4	0.7	40-20	4.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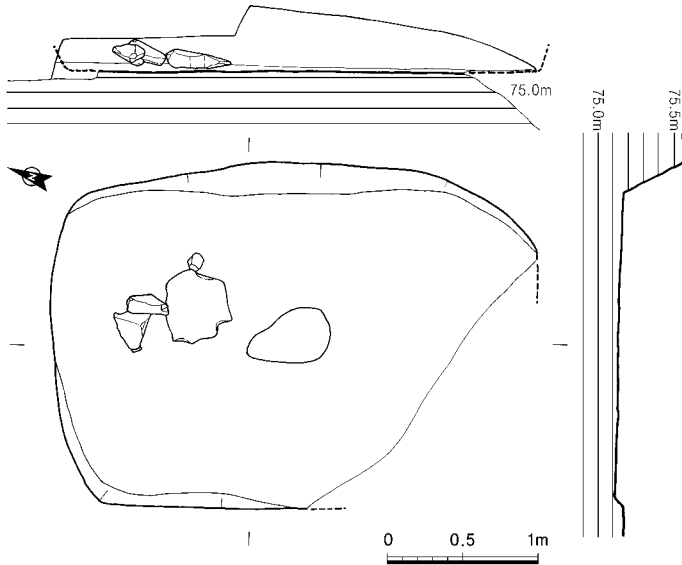
2. 청동기시대 유구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6, 도판 116)

유적의 서쪽 사면부, 해발 75m선상에 위치한다. 경사면을 따라 남서쪽 벽면이 유실되었다. 장축방향은 N159° 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230cm, 최대깊이 40cm이다.



圖面 86. 1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유구의 기반토는 황갈색 풍화암반토이고, 유구내부에 퇴적된 내부토는 풍화암반이 다량 혼입된 갈색토이다. 주거지의 바닥면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노지는 유구 중앙부에 위치하며 바닥면에 불 맞은 흔적만 남아있는 무시설식으로 규모는 38×55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노지 북쪽으로 직경 25~30cm 크기의 활석들이 토기류와 함께 균집을 이루고 있다. 이들 활석 일부는 주거지 바닥면에 접하고 있

으며 토기류와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당시 주거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조사과정에서 호형토기 구연부편 1점과 공렬문토기 구연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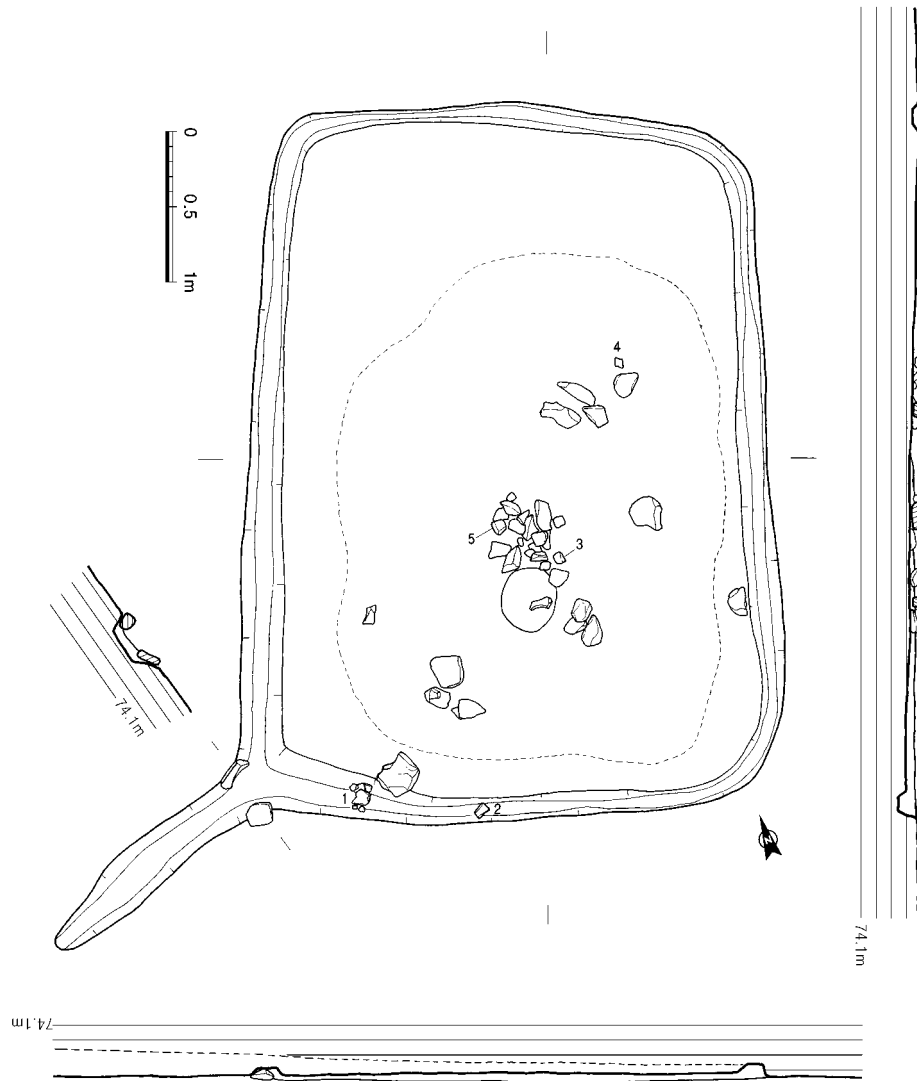
306은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사질성분이 강한 태토로 만들어졌다. 기면은 적갈색을 띠며, 소성은 보통이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동체부에서 구연에 걸쳐 희미하게 중방향의 지두조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습되었으며, 잔존높이 8.5cm, 복원구경 16.4cm이다.

307은 공렬문토기 구연부편으로 기면은 흑갈색을 띤다. 사질성분이 많이 함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공렬문은 구연아래 내측에서 바깥쪽으로 반투공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로 보아 구연아래 횡방향으로 열상배치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연단의 형태가 크고 두꺼우며 동체하부로 갈수록 두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심발형토기의 구연부로 판단된다. 잔존높이 9.0cm, 구멍지름 0.6cm, 구멍깊이 0.4cm이다.

(2) 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7, 도판 117)

유적의 서남쪽 완사면, 해발 74m선상에 위치한다. 근대 경작지에 의해 유구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었다. 장축방향은 N20° 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규모는 길이 470cm, 너비 340cm, 최대깊이 5cm이다.



圖面 87. 2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유구의 기반토는 황갈색 풍화암반토이고, 유구내부 내부토는 풍화암반이 다량 혼입된 갈색토이다. 내부시설은 벽구, 배수구, 노지 등이 확인되었다. 벽구는 잔존하는 장, 단벽 전체에서 확인되었는데, 단면의 형태는 U자형이며, 규모는 너비 14~30cm, 깊이 12cm 내외이다. 배수구는 벽구와 이어져 있으며 경사진 동쪽 사면을 따라 만들어져 있다. 배수구 길이는 유구모서리에서 180cm, 최대깊이는 36cm이다. 벽구와 배수구의 접합지점에 할석 2개가 마주보며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배수구 상

부를 이루는 주거벽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각되며 배수구는 압거식¹¹⁾의 배수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유구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1개가 확인된다. 바닥면에 불 맞은 흔적만 남아있는 무시설식으로 직경 40cm의 크기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주거지 바닥면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부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경화되어 있다.

11) 울산고고학연구회, 2008,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본문 pp.35)

나. 유물

308은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적갈색의 색조를 가지고 있으며 장식 등 굽은 석립이 다량 포함되어 조질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정면기법은 파악하게 어려우나 굽 외면에 성형시 생긴 지두압흔이 뚜렷이 남아 있다. 규격은 잔존높이 3.9cm, 저경 8.9cm이다. 출토위치는 1이다.

309는 사암제의 지석이다. 전·후 단부를 제외하고는 전체면을 사용한 것으로 관찰된다. 사용면에는 마찰로 인한 사용흔이 관찰되며 사용흔을 중심으로 흠이 나 있다. 규격은 길이 9.0cm, 최대폭 6.2cm, 최대 두께는 3.2cm이다. 출토위치는 2이다.

310은 니암제의 지석으로 선단부와 하단일부는 깨어진 상태이다. 깨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을 사용한 것으로 관찰되며, 사용면은 곱게 마연된 상태이다. 규격은 길이 8.2cm, 너비 8.6cm, 두께 2.8cm이다. 출토위치는 3이다.

311은 세립사암제의 지석이다. 선·하단부는 깨어진 상태이며, 뒷면은 사용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면은 좌·우 측면과 전면부에 해당하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심부가 얇게 파여져 있다. 규격은 잔존길이 5.6cm, 너비 3.5cm, 두께 3.2cm이다. 출토위치는 4이다.

312는 세립사암제의 지석이다. 선단부는 깨어진 상태이며 후면은 떼어낸 후 chipping하여 마무리 하였다. 깨어진 부분과 후면을 제외한 전면이 사용면으로 관찰된다. 규격은 잔존길이 8.1cm, 너비 7.8cm, 두께 6.0cm이다. 출토위치는 5이다.

(3) 3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8, 도판 118)

유적의 남동쪽으로 펼쳐진 충적대지에 해당하며 해발 69.5m선상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생활면에 의해 유구 상부가 일부 유실되었다. 장축방향은 N89° E이며, 규모는 길이 390cm, 너비 290cm, 최대깊이 2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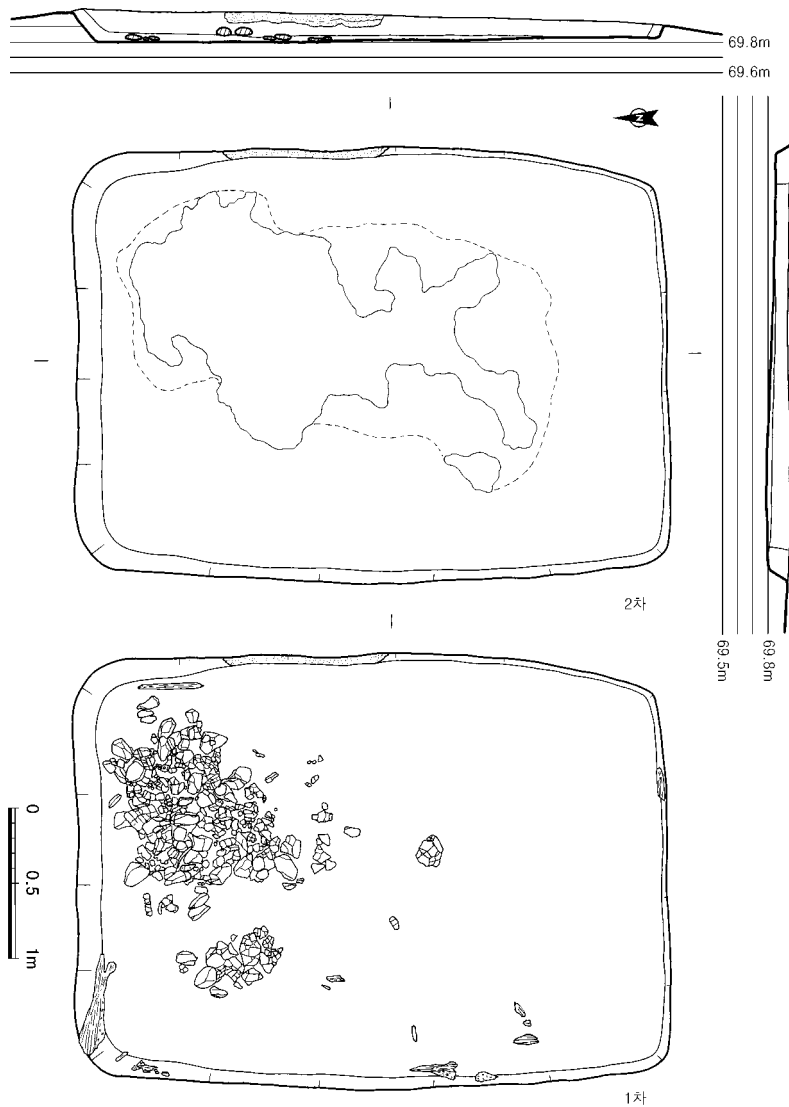
유구의 기반토는 자갈이 포함된 황갈색점토이고, 유구내부토는 소토와 목탄·자갈 등이 혼입된 흑갈색점토이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다른 시설물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바닥은 유구 중앙부를 중심으로 불다짐 처리되어 있다. 유구 벽면에는 불에 의한 경화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노출당시 벽체로 생각되는 목탄들이 벽면을 따라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북동편 모서리를 중심으로 할석과 무문토기편 등이 균집을 이루며 노출되었는데, 주거지 폐기과정에 투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파편이 대부분이며 할석과 혼재되어 있고 유구바닥에 위치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쪽 모서리에서 쏟아 부은 것처럼 벽면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할석과 토기파편의 양이 적어진다.

유물은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무문토기들이 파편상태로 수습되었으나 특징적인 것은 공렬문토기 구연부편 1점과 무문토기 저부 1점이 있다.

나. 유물

313은 공렬문토기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였다. 기면은 적갈색을 띠며, 석영·장석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다른 무문토기에 비해 정선된 태토를 이루고 있다. 약 1cm 구연 아래로 공렬문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圖面 88. 3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4) 4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9, 도판 119-1~4)

유적의 남동쪽으로 펼쳐진 충적대지에 해당하며 해발 69.5m선상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주거지에 의해 바닥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쪽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장축방향은 N83° E이며, 3호 주거지와 장축방향이 직교하게 축조되어 있다. 규모는 추정길이 540cm, 너비 350cm, 최대깊이 2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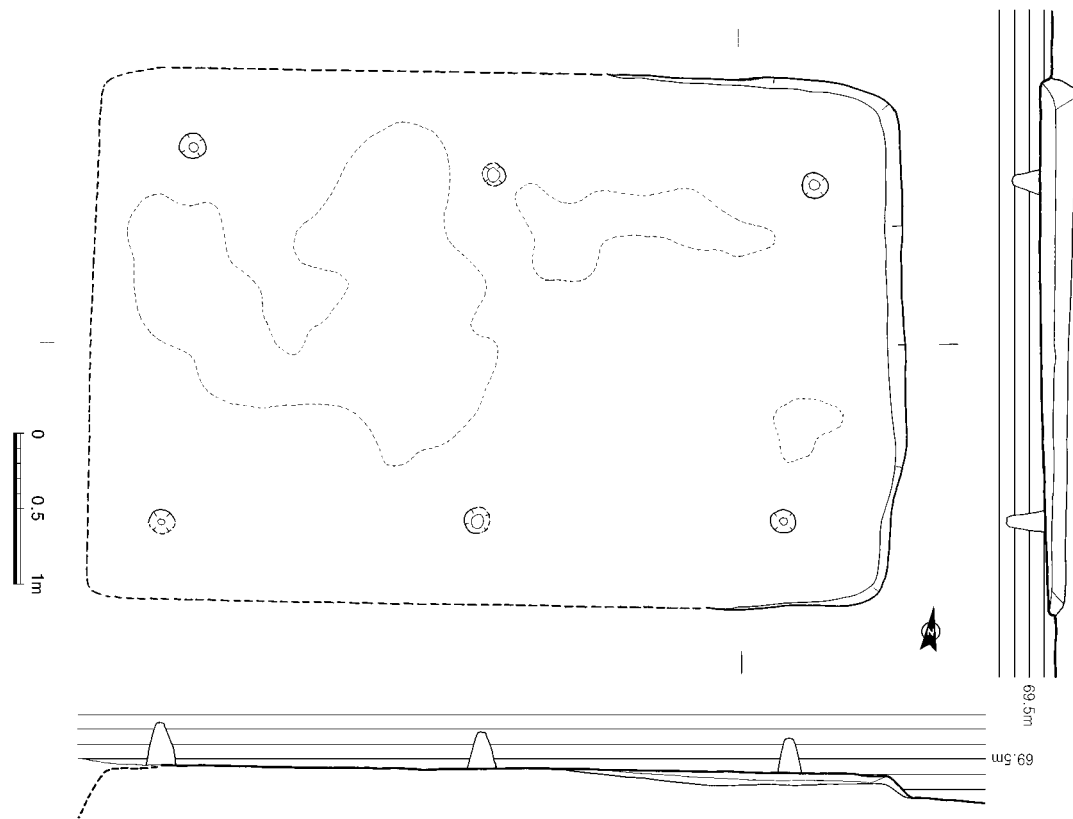
유구의 기반토는 자갈이 포함된 황갈색점토이고, 유구내부토는 흑갈색점토이다. 주거지 벽면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6주식의 주혈이 확인된다. 주혈은 직경 20cm 정도이며, 깊이는 20~25cm이다. 유구 내부에서는 내부주혈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물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면에는 부분적으로 불다짐한 흔적이 확인되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반투공 되어 있다. 외면은 깨끗하게 물손질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종방향의 목리 조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구연부를 중심으로 짙은 흑반이 관찰되는데 소성시에 구연부 주변 일정폭으로 진한흑색의 흑반이 띠게 의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¹²⁾. 규격은 잔존높이 6.6cm, 복원구경 30.5cm이다.

314는 발형토기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기면은 황갈색조이며, 퇴토는 장석·석영 등이 다량 함유되어 조질한 편이다. 외면에는 굽형시 생긴 지두압흔과 목판 굽기흔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저면성형시 생긴 목판굽기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저부 바닥에는 나뭇잎을 여러장 겹쳐진 형태의 木葉文이 관찰된다. 규격은 잔존높이 7.7cm, 저경 14.2cm이다.

12) 소성시 유기물질을 발라서 또는 흑반이 아가리 주위로만 생기게 구획하여 의도적인 문양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圖面 89. 4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5) 5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90, 도판 119-5 · 120)

유적의 남쪽에 형성된 구릉사면부에 해당하며 해발 72m선상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주거지에 의해 유구 상부가 일부 유실되었다. 장축방향은 N50° E이며,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규모는 길이 340cm, 잔존폭 180cm, 최대깊이 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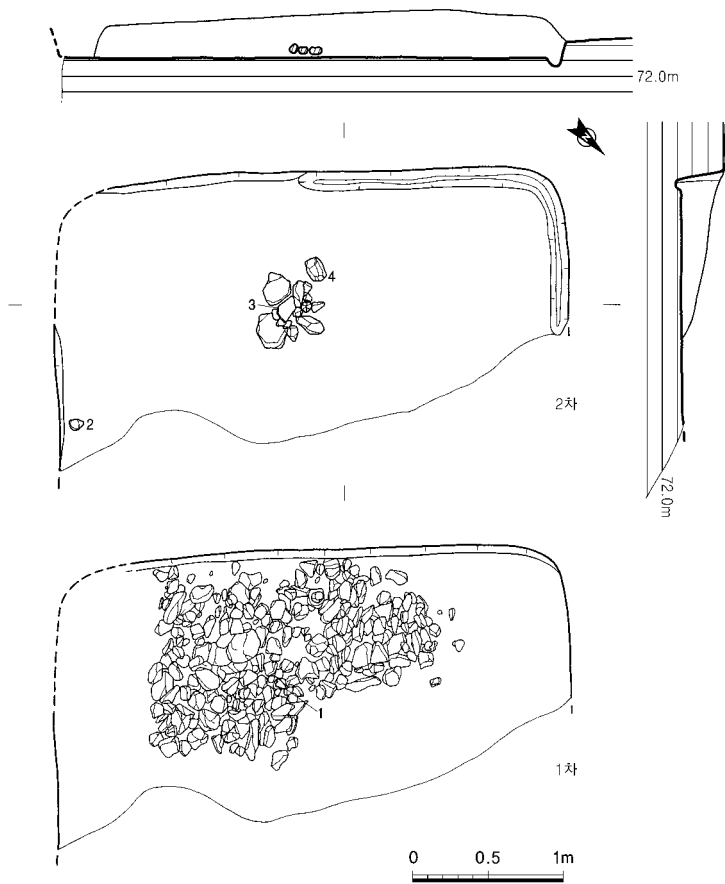
유구의 기반토는 황갈색점토이고, 유구 내부토는 흑갈색점토이다. 유구 내부는 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ㄱ”자 형태의 벽구가 확인된다. 벽구는 단면의 형태는 U자형이며, 규모는 너비 20cm, 깊이 7cm 내외이다. 다른 시설물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바닥에서 뜬 상태로 할석들이 군집되어 노출되었는데, 주거지 폐기과정에서 투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할석은 상부 삼국시대 유구에 의해서 양쪽 단벽부분은 유실되었으며 집석층 내에서 반월형석도 1점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 되었다. 집석층을 제거하면 바닥면에서 몸돌과 함께 할석 등이 군집되어 있는데, 석기제작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바닥에서 무문토기 저부 1점, 구순각목 공렬문토기 구연부편 1점, 몸돌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15는 니암제의 반월형 석도이다. 장주형의 소형 석도로 1/2이상 결실되었다. 한 개의 투공이 확인되며 구멍은 양쪽에서 뚫은 것으로 관찰된다. 전면이 곱게 마연되어 있으며 인부는 편인이다. 규격은 잔존길이



圖面 90. 5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1/50)

치는 3이다.

318은 강도가 강한 니암제의 석재이다. 전체적으로 각이 진 형태로 1차적으로 flaking 후 재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측면에는 부분적으로 chipping한 흔적이 간취되나 일반적이지 않다. 표면에 사용에 인한 마연흔이나 사용흔은 보이지 않아 석기시의 몸돌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격은 길이 19.2cm, 너비 13.0cm, 두께 10.8cm이다. 출토위치는 4이다.

2)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91, 도판 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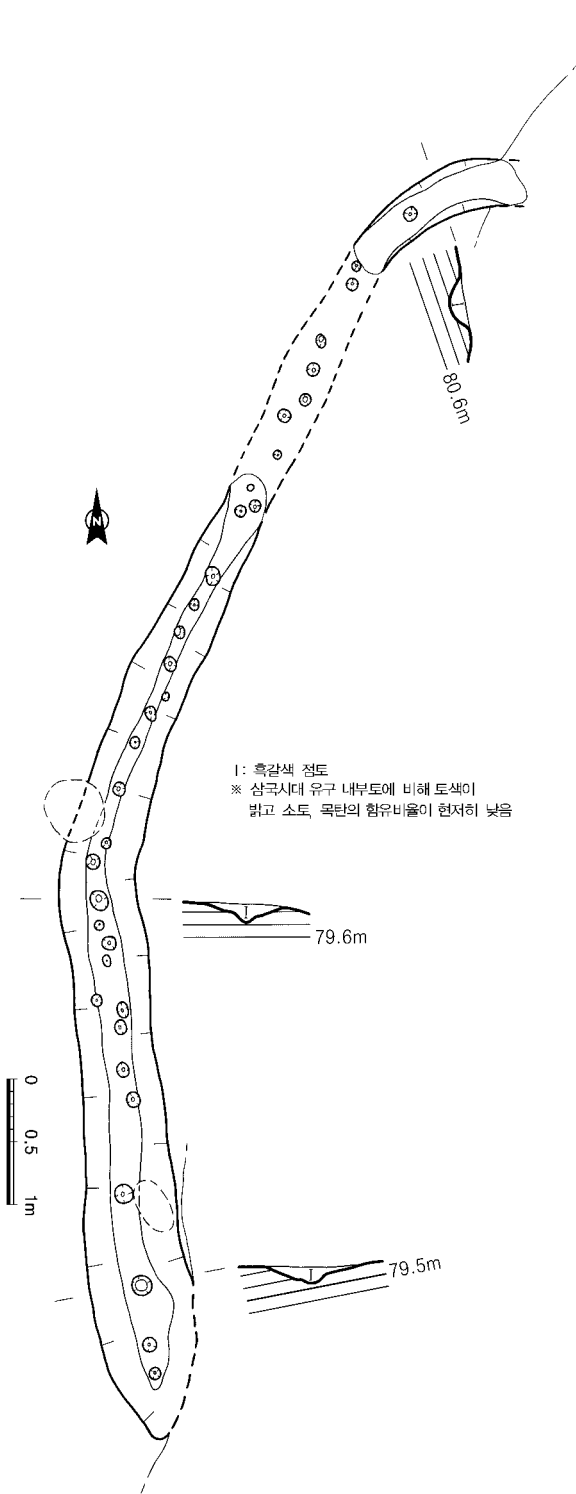
유적의 서쪽 사면부의 해발 80m선상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문화층에 의해 유구 상부와 경사진 동쪽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에 인접하여 2호 구상유구가 위치한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140cm, 너비 38~40cm, 최대깊이 10~20cm이다.

유구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며, 구의 내부에는 주혈이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혈은 크기는 직경 10~18cm, 깊이는 10cm 내외이다. 주혈의 규모로 보아 목책열로 추정되는데 주혈의 내부토도 구의 내부토와 같은 단일토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렬문토기 구연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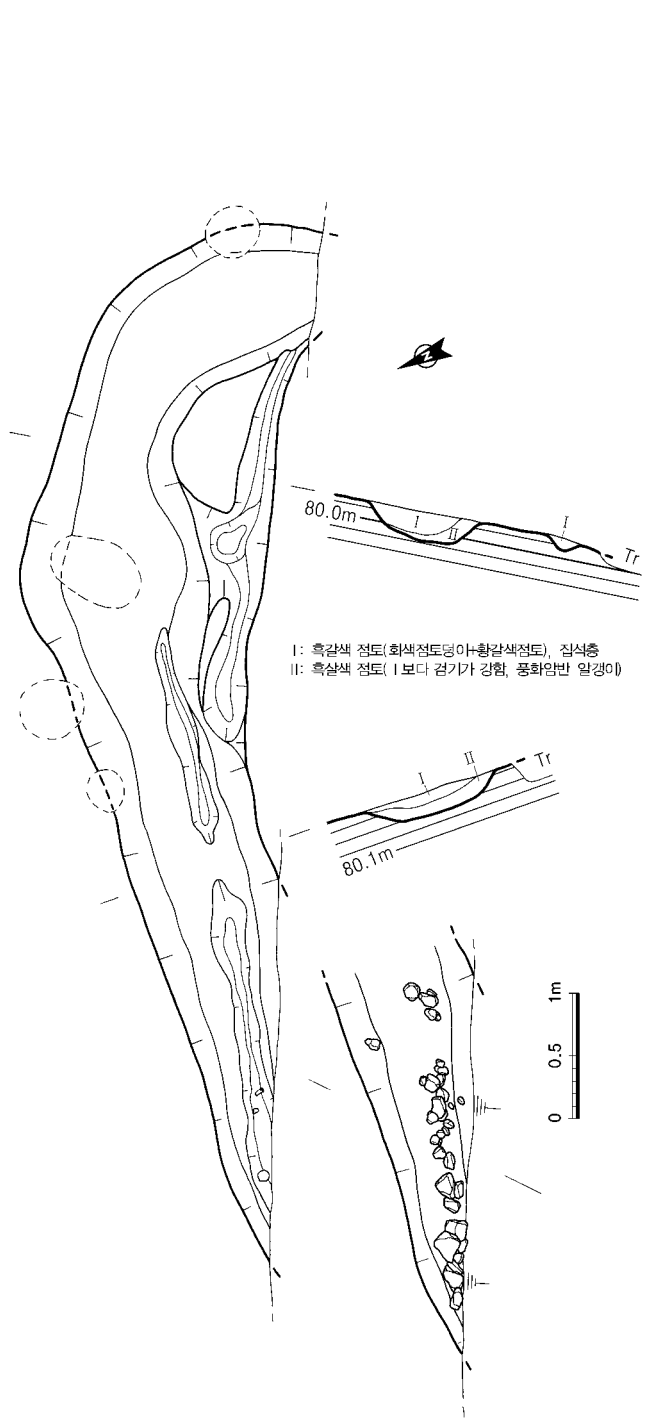
6.3cm, 폭 3.2cm, 두께 0.7cm, 구멍 직경 0.5cm이다. 출토위치는 1이다.

316은 무문토기 저부이다. 기면은 적갈색을 띠며, 태노는 비교적 굵은 석립이 함유되어 있다. 소성은 보통이며, 내·외면은 박리되어 정면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규격은 잔존높이 2.5cm, 저경 11.8cm이다. 출토위치는 2이다.

317은 구순에 각목문이 시문되어 있는 공렬문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기면은 황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석영·장석 등이 혼입되어 있다. 각목은 대각선 방향의 방사형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간격은 1cm 가량이다. 공렬문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투공 되어 있는데 깊이가 얕아 외면에는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구멍간 간격은 3.5cm 정도이다. 정면기법은 박리되어 관찰되지 않는다. 규격은 잔존높이 4.4cm, 구멍직경 0.7cm이다. 출토위



圖面 91. 청동기시대 1호구 (1/60)



圖面 92. 청동기시대 2호구 (1/60)

나. 유물

319는 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기면은 황갈색조이며, 석영과 세사립의 장식 등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구연단 바로 아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투공된 공렬문이 시문되어 있다. 공렬문의 형상으로 보아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눌러서 만든 것으로 다른 공렬문의 시문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규격은 잔존 높이 6.6cm이다.

(2) 2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92, 도판 121-4 · 122)

유적의 서쪽 사면부의 해발 80m선상에 위치한다. 조사과정의 트렌치와 삼국시대 문화층에 의해 유구 상단와 하단이 유실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800cm, 너비 120~190cm, 깊이 20~25cm이다. 유구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며, 구의 내부바닥면은 불규칙적으로 열상으로 파여져 있었다. 서쪽의 유구 상단부에는 뜬 상태로 할석들이 모여있었다. 폐기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고려~조선시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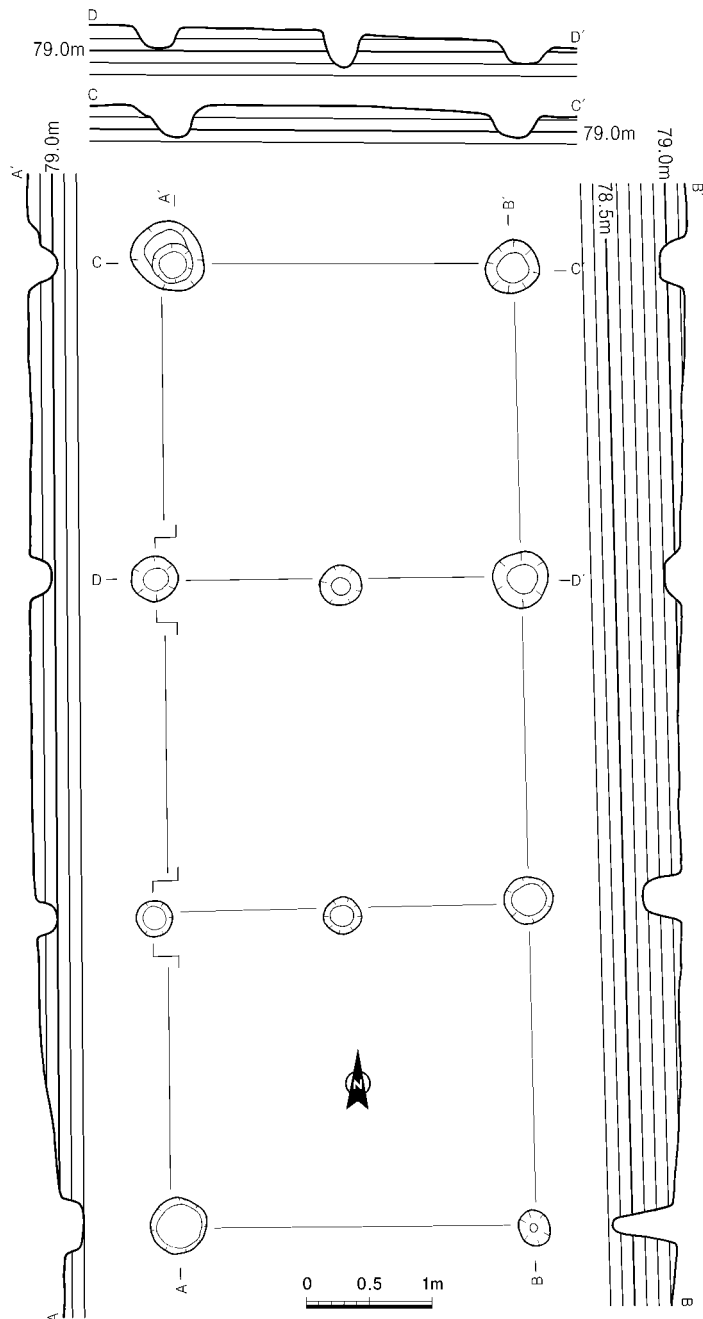
1) 건물지

(1) 1호 건물지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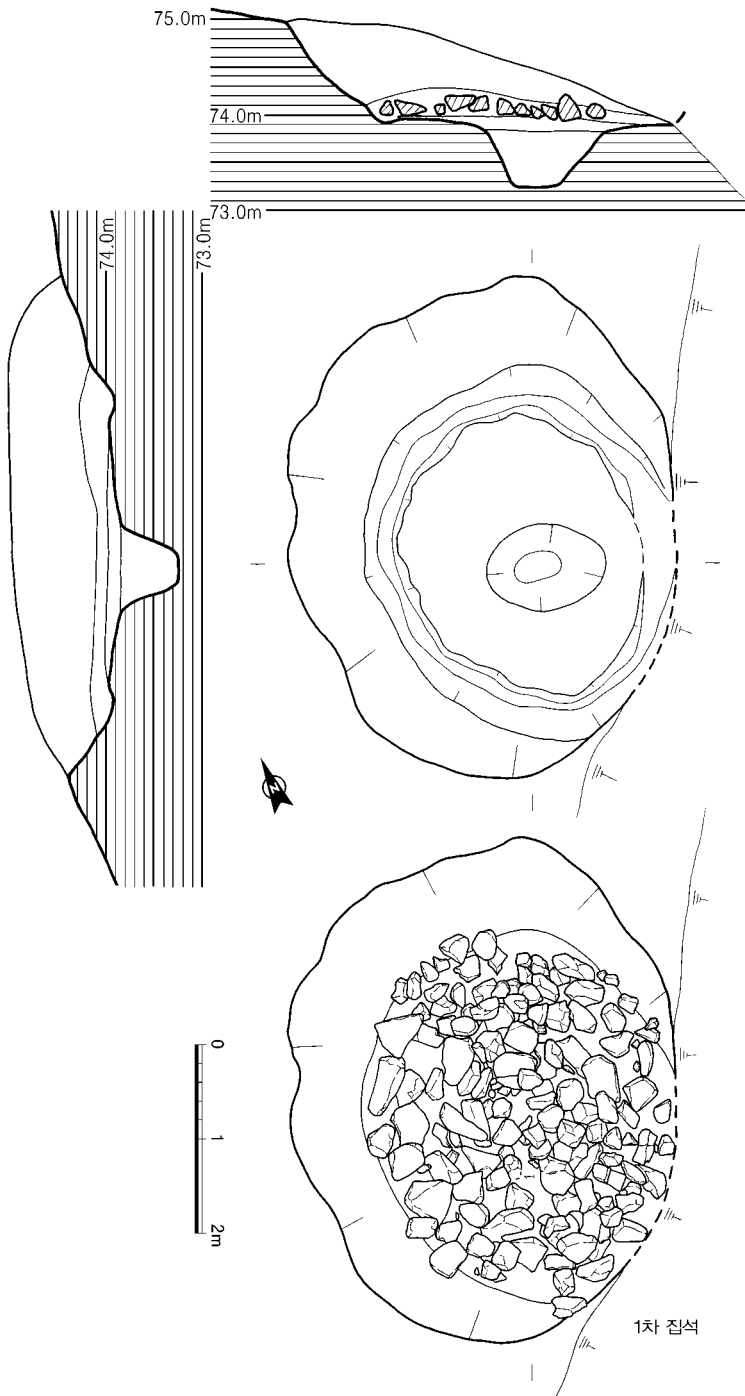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93, 도판 123-1~4)

곡부의 완만한 사면부, 해발 79m선상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N178° E이다. 삼국시대의 수혈군과 36호 굴립주건물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총 3칸, 8주식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790cm, 측면 290cm이며, 면적은 22.9㎡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32~62cm, 깊이 16~28cm이다. 정면 가운데 칸의 경우 측면으로 2개의 주혈이 더 확인되는데, 장방형의 구조로 인해 중심간에 가중되는 무게중심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혈의 내부토는 부식기가 강한 회황색사질 점토를 가지며, 부식되지 않은 목주가 확인된다. 주혈의 내부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圖面 93. 1호 고려시대 건물지 (1/60)



圖面 94. 1호 수혈 (1/80)

×124cm, 깊이 64cm이다. 내부토는 목탄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질성분이 매우 강한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졌으나 색조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내부토이다. 내부토에는 바닥면의 집석과 달리 할석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집석행위 이전에 수혈은 내부토로 채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형태는 명확한 편이나,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¹³⁾

유물은 집석의 상부에서 청동완편 1점이 확인되었으나, 복원이 불가능하여 도판으로 대신한다.(도판 162-가 참조)

2) 수혈유구

(1) 1호 수혈 (고려시대)

가. 유구(도면 94, 도판 123-4·124)

구릉의 사면부, 해발 75m선상에 위치한다. 현대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지형이 변형되어, 유구의 동쪽 일부가 결실되었다. 북쪽으로 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나, 동시대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며, 규모는 직경 534cm, 최대깊이 17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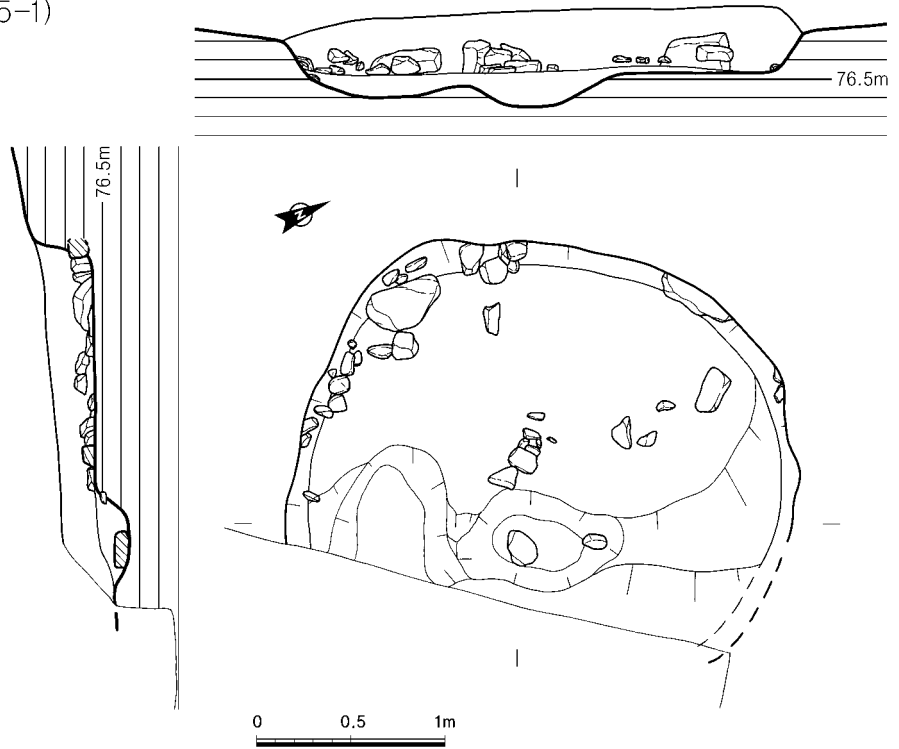
수혈유구의 기반토는 황갈색 풍화암 반토이며, 유구내부토는 목탄이 함유된 황갈색 사질점토로, 거의 동일한 토질이며, 바닥면에 가까울수록 목탄의 함유량이 증가하며, 사질성분이 강한 편이다. 바닥면에는 20~40cm내외의 할석이 채워져 있었으며, 그 위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완편이 확인되었다.

유구는 1m 가량의 깊이를 파고 축조되었는데 벽면은 단을 이루면서 완만하게 굴착하였다. 바닥면은 편평하며, 내부에는 벽을 따라 형성된 구와 중앙에 위치한 타원형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벽구는 회갈색의 사질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닥면과 확연하게 구별되는데 완만한 벽면과 연결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면 중앙에 파여진 타원형의 수혈은 직경 93cm

(2) 2호 수혈 (조선시대)

가. 유구(도면 95, 도판 125-1)

유적의 서쪽에 해당하며, 해발 77m 선상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N156°W이다. 동쪽에 위치한 고려시대 우물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70cm, 최대 깊이 44cm이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다. 유구는 삼국시대부터 하도와 우물지로 이용되던 곳으로 조사당시에도 물이 솟아 나던 곳이다. 물을 이용한 시설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물을 모아두던 집수시설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조사과정에 조선시대 암키와 1점과 시기를 알 수 없는 지석 1점이 수습되었다.



圖面 95. 2호 수혈 (1/40)

나. 유물

320은 회백색조의 니암제 지석이다. 크게 떼어낸 다음 chipping한 후 마연하였다. 마연면은 매우 거친 편이다. 규격은 길이 9.5cm, 너비 7.6cm, 두께 3.7cm이다.

321은 암키와로 일부만 남아 있다. 소성은 불량한 편으로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니질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색을 띠며, 속심은 연갈색을 띤다. 집선문-사격자문이 혼용되어 새겨진 중판으로 평행타날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2cm, 잔존폭 6.3cm 두께 2.2cm이다.

3) 묘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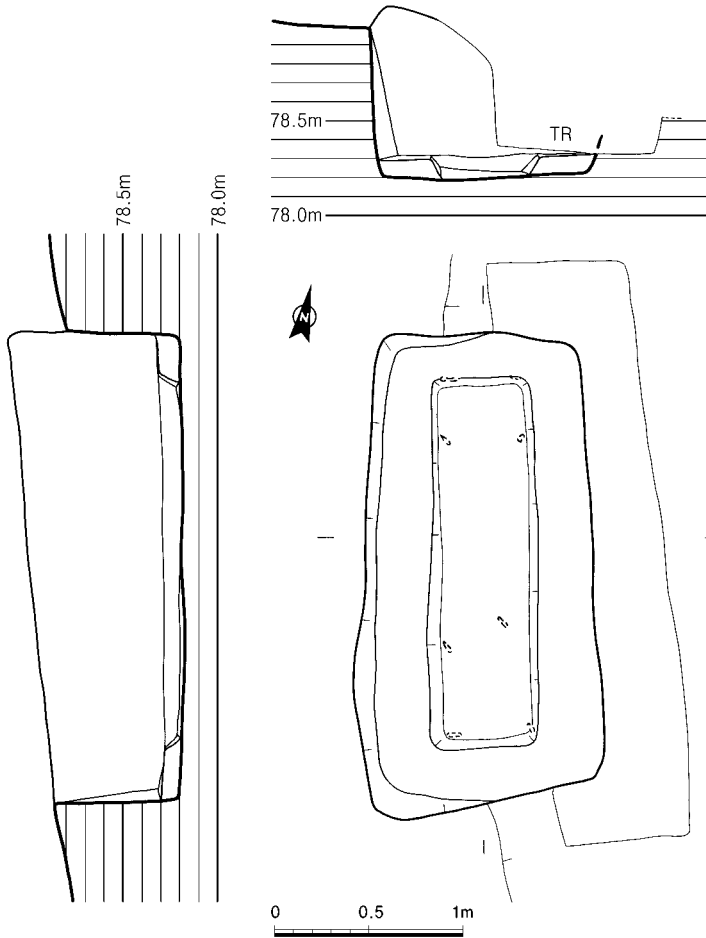
(1) 1호 묘

가. 유구(도면 96, 도판 1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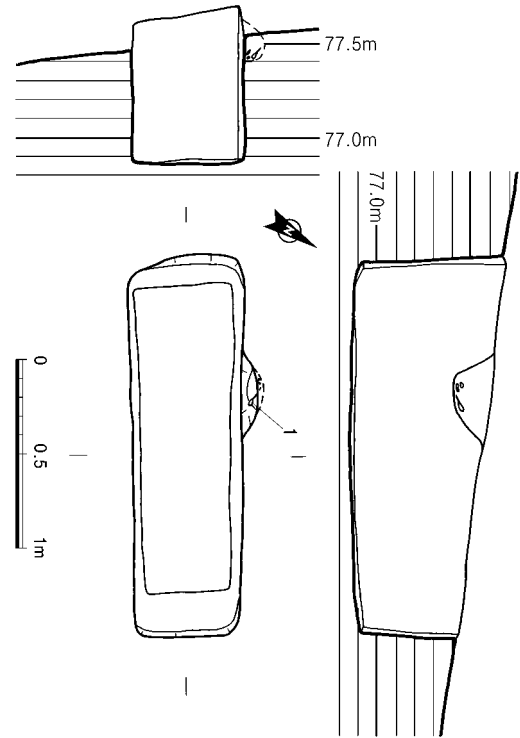
구릉의 북동쪽 정상부, 해발 77~78m 사이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2호 묘가 있다. 최근까지 보행로로 사

1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尙州 屏城洞·軒新洞 古墳群』(學術調查報告 第107冊)

1호~7호의 수혈유구와 형태가 유사함. 원형의 대형수혈내에 적석이 일부 확인되며, 그 아래 소형의 수혈이 있는 형태. 1,3,5,6,7호의 경우 배수구가 있는 것이 특징. 보고자는 저장시설 혹은 특수용도의 수혈로 추정.



圖面 96. 1호 묘 (1/40)



圖面 97. 2호 묘 (1/40)

용되어 동쪽 장벽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주축방향은 $N11^{\circ}W$ 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48cm, 너비 122cm, 최대깊이 80cm이며, 평면형태는 장축비가 2 : 1인 장방형이다.

묘광의 벽면은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탄면을 이룬다. 목관은 묘광을 굴착한 후 중앙에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사이에는 굴착한 흙으로 채웠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이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관정이 확인 되었으나 상태가 불량하여 수습하지 못하고 위치만 표시하였다.

(2) 2호 묘

가. 유구(도면 97, 도판 126-1~3)

구릉의 북동쪽 정상부, 해발 77m 선상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1호묘가 있다. 주축방향은 $N15^{\circ}W$ 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02cm, 너비 58cm, 최대깊이 68cm이며, 평면형태는 장축비가 3.5 : 1인 장방형이다.

동쪽 장벽에 평면 반타원형의 감실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벽면은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탄면을 이룬다. 목관은 묘광을 굴착한 후 중앙에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사이에는 굴착한 흙으로 채웠다. 유물은 감실 내에서 청동 손가락 1점과 철제 가위 1점이 확인 되었으나 철제가위는 부식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사진으로 대체한다(도판 162-나 참조).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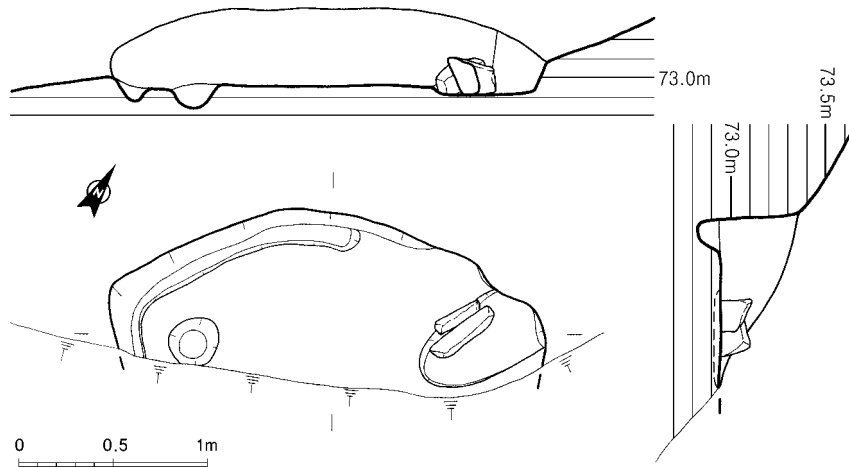
322는 청동손가락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한 형태이다.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손잡이는 일직선으로 폭이 일정하며 끝부분이 약간 넓은 형태이다. 끝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측면형태는 완만한 'S'자 형을 띤다. 길이 24.2cm, 폭 3.5cm, 두께 0.3cm이다. 출토위치는 1이다.

4) 묘막지 (조선시대)

(1) 1호 묘막지

가. 유구(도면 98, 도판 126-4)

고분군이 위치한 유적의 남서쪽 구릉 사면부에 해당하며, 해발 73m 선상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N121°W이다. 주변에는 삼국시대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묘막지와 관련된 시대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구의 남동쪽은 경사면을 따라 삭평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길이 92cm, 잔존너비 226cm이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된다.



圖面 98. 1호 묘막지 (1/40)

내부시설로는 아궁이, 벽구, 주혈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북동쪽 벽에 접하여 설치되었다. 타원형의 얇은 수혈을 굴착하여 바닥을 정지하고, 할석을 양쪽으로 놓아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 당시 2매의 할석이 한쪽에서만 확인되었다. 아궁이에 채워진 내부토에는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어 있다. 아궁이의 규모는 최대직경 68cm, 너비 40cm이다.

벽구는 벽면을 따라 남쪽에서 서쪽 중앙벽까지 연결되어 있다. 주혈은 남쪽면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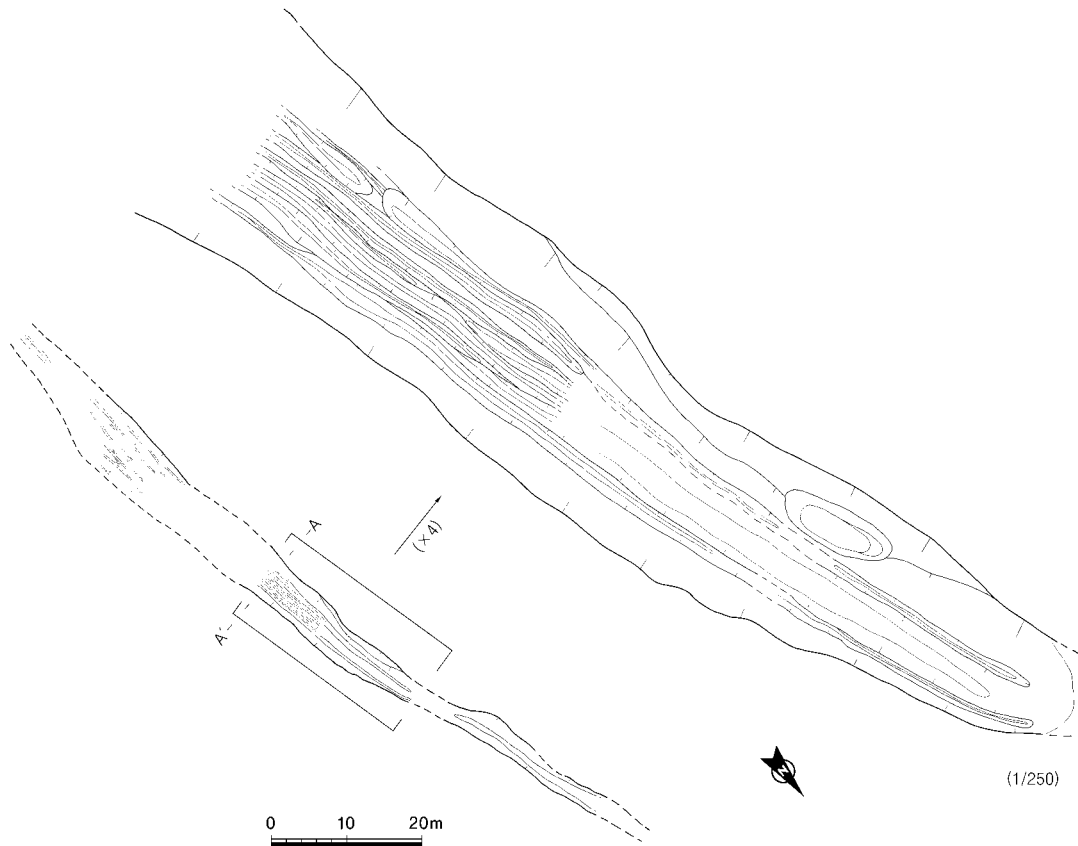
유구의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5) 구상유구

(1) 1호 구 (고려~조선시대)

가. 유구(도면 99, 도판 127)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사면에서부터 주거지가 집중하는 지역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상유구가 확인되는데 층위상 삼국시대 이후에 형성된 구로 확인된다. 축조되는 과정에서 20·21호 굴립주 건물지와 삼국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들어서 있다. 유구는 유적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구릉사면부와 곡부에서 시작하여 하상퇴적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이어져 있는데 溝 상단에 해당하는 남서쪽은 경사면과 평행하다.(A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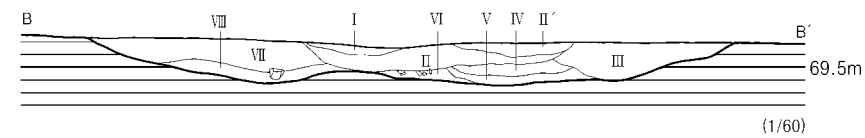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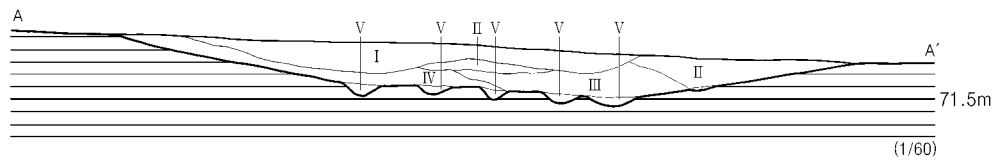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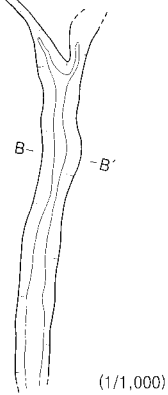


〈A 토층〉

- I. 명황갈색 사질토, 망간혼입
- II. 황갈색 사질토, 망간의 밀집도 큼
- III. 명회갈색 사질점토, 망간 일부혼입
- IV. 회황갈색 사질토, 망간집중
- V. 황갈색 사질토, 암반일경이

〈B 토층〉

- I. 회갈색 사질점토, 목탄혼입
- II. 명회갈색 사질점토, 망간 일부혼입
- II'. 명회갈색 사질점토, 망간 밀집도 큼
- III. 회황색 사질점토, 점성약하고, 사질기 강함, 소토 일부혼입
- IV. 명회갈색 사질토, 사질기 매우 강함
- V. 압회갈색 사질토
- VI. 회색 사질토, 자갈 다량 혼입
- VII. 회갈색 사질점토, 소토 일부혼입
- VIII. 회적갈색 사질점토, 소토, 목탄 일부혼입



圖面 99. 1호 구 (1/1000)

유구는 삼국시대 이후로 형성된 경작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작지 조성시 곡부에서 흘러드는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서편에서 시작된 溝는 하상퇴적으로 이어지는 지점까지 자연스러운 경사도를 가지는데 토층상에는 흑갈색의 점토와 사질토의 층리 및 엽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 溝 내부의 바닥상태는 매우 불규칙적이며 물의 흐름에 의한 흔적으로 생각된다(B토층).

溝의 규모는 폭이 5.2~8.0m , 깊이 60cm내외이며, 확인된 길이는 174m이다.

溝 내부에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된다. 굴착흔이 확인되는 남서쪽 溝내부에서 청동집게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323은 청동집게이다. 집는 부분의 한쪽이 일부 결실되었다. 긴장방향의 청동을 서로 마주보게 구부려 제작하였다. 단면은 반타원형이다. 손잡이는 타원형으로 벌어졌다가 힘을 가하는 부분에서 맞닿고 다시 벌어져 긴 마름모꼴의 형태를 가진다. 손잡이부분을 중심으로 돌대와 침선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상부에서부터 0.1cm내외의 돌대 3조를 형성하고, 그 아래 1.4cm 면에 예세구를 이용한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격자문의 중앙에 0.1cm의 침선과 시작과 끝점에 희미한 침선 1조씩을 시문하였다. 격자문이 시문된 면의 아래쪽에 하나의 돌대를 형성하여 장식을 마무리하였다. 돌대의 형성은 전·후면을 깎아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길이 8.45cm, 너비 0.6cm, 두께 0.15cm이다.

IV. 분석 자료

1. 가장 가동유적 시료분석 자료(Paleo Labo)

－ 放射性炭素年代測定

株式会社Paleo Labo AMS年代測定group
(山形秀樹・Zaur Lomtadidze・Ineza Jorjoliani)

1. 머리말

부산광역시 가장 가동유적에서 검출된 시료(토양시료)에 대해서 加速器質量分析法(AMS法)에 의한 放射性炭素年代測定을 실시하였다. 시료를 채집한 위치는 화분분석용 시료를 채집한 층에 해당하고, 이 층에서는 고고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시료를 채취한 위치는 화분분석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表1 측정시료 및 처리

측정번호	유적데이터	시료데이터	전처리	측정
PLD-2929	가동유적 C-3 단면동벽 시료8	시료의 종 류 : 니탄 상 태 : wet 곰팡이 : 無	超音波煮沸洗淨 酸・알카리・酸洗淨 (염산1.2N, 수산화나트륨0.5N, 염산1.2N)	東京大學MALT: NEC製AMS Pelletron 5UD

2. 시료와 분석방법

측정시료의 정보조정데이터는 表1과 같다. 연대측정용 시료가 채집된 층위와 같은 층에서 화분분석이 실시되었고, 시료8은 화분분석의 시료번호와 일치한다. 시료는 조정 후 加速器質量分析計(東京大學MALT: NEC製 AMS Pelletron 5U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얻어진 ^{14}C 농도에 대해서 동위체분별 효과를 보정한 후, ^{14}C 년대, 즉 역년대를 산출하였다.

表2 방사성탄소년대측정 및 역년대교정의 결과

측정번호	$\delta^{13}\text{C}$ (‰)	^{14}C 년대 (yrBP $\pm 1\sigma$)	^{14}C 년대를 역년대로 교정한 년대범위	
			1 σ 역년대범위	2 σ 역년대범위
PLD-2929	-29.3 ± 0.4	2,975 ± 40	cal BC 1,270 - 1,120 (68.2%)	cal BC 1,370 - 1,340(3.0%) cal BC 1,320 - 1,050(92.4%)

3. 결과

表2에는 동위체분별효과의 보정에 사용하는 탄소동위체비($\delta^{13}\text{C}$), 동위체분별효과의 보정을 실시한 年代, 즉 ^{14}C 年代를 역년대로 보정한 연대를, 그림1에는 역년대교정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14}C 년대는 AD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 전인가를 나타낸 연대이다. ^{14}C 연대(yrBP)의 산출에는 ^{14}C 의 반감기로서 Libby의 반감기 5568년을 사용하였다. 또 부기한 ^{14}C 연대오차($\pm 1\sigma$)는 측정의 통계오차, 표준편차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고, 시료의 ^{14}C 연대가 ^{14}C 연대 오차내에 들어갈 확률이 68.2%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역년대교정의 상세한 것은 아래와 같다.

역년대교정

역년대교정이라는 것은 대기중의 ^{14}C 농도가 일정하고 반감기가 5568년으로 산출된 ^{14}C 연대에 대해서 과거의 우주선강도나 지구자장의 변동에 의한 대기중의 ^{14}C 농도의 변동 및 반감기의 차이(^{14}C 의 반감기 5730 ± 40 년)를 교정하는 것이다.

^{14}C 연대의 역년대교정에는 OxCal3.10(교정곡선데이터: INTCAL04)를 사용했다. 또한 1 σ 역년대범위는, OxCal의 확률법을 사용해서 산출된 ^{14}C 연대 오차에 상당하는 68.2% 신뢰한계의 역년대범위이고, 마찬가지로 2 σ 역년대범위는 95.4% 신뢰한계 역년대범위이다. 괄호내의 백분율의 값은 그 범위내에 역년대가 들어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래프 중의 종축상의 곡선은 ^{14}C 연대의 확률분포를 나타내고, 이중곡선은 역년대교정곡선을 나타낸다. 각각의 역년대범위중에,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연대범위에 대해서는 표가운데에 밑줄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4. 고찰

시료에 대해서 동위체분별효과의 보정 및 역년대교정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역년대범위 중에,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연대범위에 주목하면 각각 보다 확실한 연대값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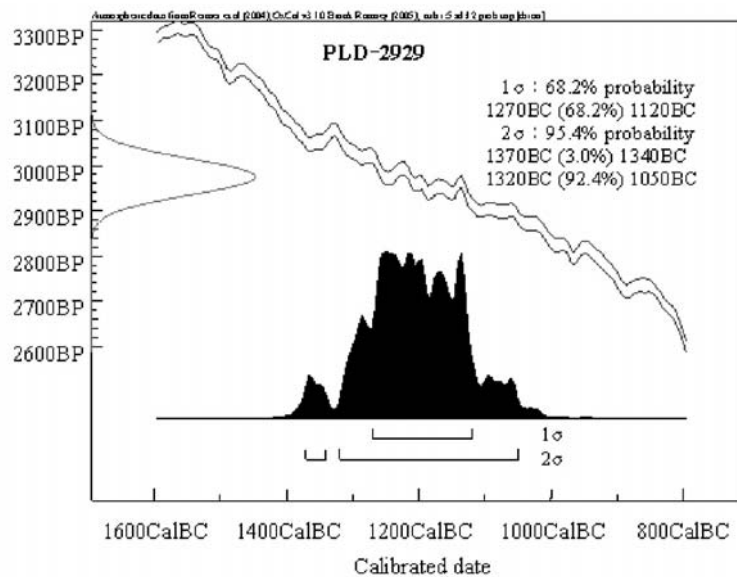


圖1 역년대교정결과

參考文獻

Bronk Ramsey C. (1995) Radiocarbon Calibration and Analysis of Stratigraphy: The OxCal Program. Radiocarbon 37(2), 425-430

Bronk Ramsey C., (2001) Development of the Radiocarbon Program OxCal. Radiocarbon, 43 (2A) , 355-363.

中村俊夫(2000)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の基礎. 日本先史時代の ^{14}C 年代, p.3-20

Reimer PJ, MGL Baillie, E Bard, A Bayliss, JW Beck, C Bertrand, PG Blackwell, CE Buck, G Burr, KB Cutler, PE Damon, RL Edwards, RG Fairbanks, M Friedrich, TP Guilderson, KA Hughen, B Kromer, FG McCormac, S Manning, C Bronk Ramsey, RW Reimer, S Remmele, JR Southon, M Stuiver, S Talamo, FW Taylor, J van der Plicht, and CE Weyhenmeyer.(2004) Radiocarbon, 46, 1029-1058.

– 佳澗遺蹟B地區3G-4號住居址出土炭化材의 樹種분석

株式會社Paleo Labo
植田彌生

1. 머리말

본고에서는 B지구3G-4호 수혈주거지의 중앙부, 상면 위에 분포하는 목탄이 많은 층(2개의 시료)과 그 하부에서 확인된 적색의 점토가 분포하는 층(2개의 시료)에서 검출된 탄화재의 수종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주거지는 삼국시대(5世紀)에 해당한다.

2. 시료와 분석방법

목탄이 많은 층(이하 목탄층)에서는 비교적 큰 탄화재의 덩어리 상태로 추출한 시료1과 주거지 상면에서 평면적으로 가장 탄화물이 두껍게 쌓여진 부분에서 적당량을 채집한 시료2의 2가지 시료를 검토했다. 열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적색의 소토층(이하 적색점토층)에서는 탄화물이 많은 부분을 채집한 시료2를 0.25mm의 눈금채로 세척한 것에서 탄화재를 추출하고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석가능한 크기의 파편을 골라서 먼저 탄화재의 횡단면(木口)을 손으로 나누어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다음으로 시료의 3방향(횡단면? 접선단면? 방사단면)의 단면을 작성해서, 走査電子顯微鏡으로 확대시킨 시료조직을 관찰했다. 走査電子顯微鏡用の 시료는 3단면을 5mm 이하의 크기로 정리해서 직경 1cm의 眞鍮製試料台에 양면테이프로 고정해서, 시료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金蒸着을 실시하고 주사전자현미경(日本電子(株)製JSM-T100型)으로 관찰과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분석결과의 내용은 表 1 과 같다.

表 1. B지구-3G 4호 주거지(삼국시대 5C경)출토탄화재 수종분석 결과

試料		樹種	確認破片数	備考
木炭層	덩어리로추출된것	상수리나무 <i>Quercus sect. Cerris</i>	1	
木炭層		굴피나무 <i>Quercus sect. Cerris</i>	5	상수리나무 節または 상수리 나무節と思われる微破片多數
		노글미 <i>Platycarya strobilacea</i>	2	このほかにもノグルミと思われる微破片多數
赤色粘土層	0.25mm 망에 세정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i>Pinus subgen. Diploxylon</i>	1	미세파편
赤色粘土層②	0.25mm 망에 세정	활엽수 broad-leaved tree	-	미세파편에 소량, 특정하기 불가 微破片が少量

검출된 탄화재는 참나무속 상수리나무절(*Quercus sect. Cerris*),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이었다.

4.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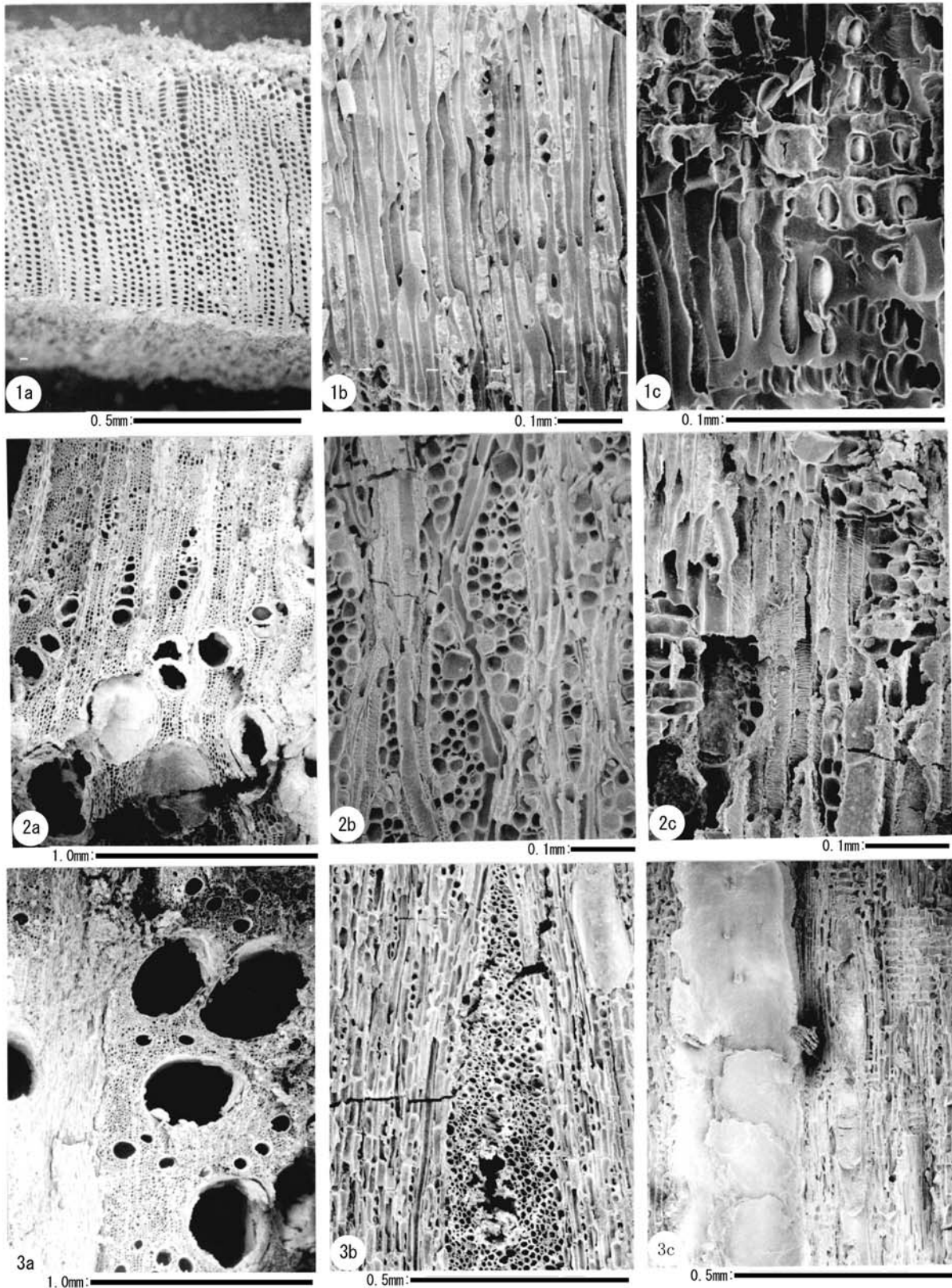
주거지에서 검출된 목탄수종은 참나무屬상수리나무節, 굴피나무,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의 3分類群이다. 모두 조그만 파편이고 탄화재의 성격은 불명이지만 출토상황에서 볼 때 건축재와 연료재로 사용된 재료였을 가능성이 높다.

5. 시료조직의 내용

(1) 소나무속복유관속아속 *Pinus* subgen. *Diploxylon* 소나무科 Pinaceae 圖版 1 1a-1c(赤色粘土層)
수직과 수평의 수지도(樹脂道)가 있는 침엽수재이며, 조재부터 만재로의 이행은 완만하고, 만재의 양이 많다. 분야벽공은 창상이다. 방사조직의 상하단에 방사가도관이 1-5層정도 있고, 그 내벽에는 肥厚가 있다.

(2) 굴피나무 *Platycarya strobilacea* Sieb. et Zucc. 가래나무科 Juglandaceae 圖版 1 2a-2c(木炭層)
나이테가 시작하는 곳에 대형의 관공이 3층 정도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급격하게 폭이 감소한다. 다수의 조그만 관공이 화염狀·塊狀·接線狀으로 分布하는 環孔材이다. 道管의 壁孔은 상호 교차하며, 穿孔은 단천공, 內腔에 티로스(tylosis)가 있고, 小道管에는 나선肥厚가 있다. 방사조직은 平伏細胞과 方形細胞로 이루어진 異性, 주로 5細胞幅前後의 것이 많고, 細胞高가 높은 것이 있으며, 數層의 單列部를 사이에 두고 연속하는 放射組織도 있다.

(3) 참나무屬참나무亞屬상수리나무節 *Quercus* subgen. *Quercus* sect. *Cerris* 참나무科 Fagaceae 圖版 1 3a-3c(木炭層)
나이테가 시작하는 곳에 큰 管孔이 1層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은 小型이며, 厚壁의 管孔이 단독으로 放射方向로 분포하는 環孔材이다. 도관의 벽공은 교호상, 穿孔은 單穿孔, 內腔에 치로스가 있다. 放射組織은 거의 同性, 單列의 것과 대형의 廣放射組織가 있다.



圖版 1. 가동유적 B지구3G-4주거지 출토 탄화재조직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
 1a-1c: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Pinus* subgen. *Diploxylon* (赤色粘土層)
 2a-2c: 굴피나무(*ノブキ*) *Platycarya strobilacea* Sieb. et Zucc. (木炭層)
 3a-3c: 참나무속참나무질 *Quercus* sect. *Cerris* (木炭層)
 a: 橫斷面 b: 接線斷面 c: 放射斷面

1. 머리말

벼과(Gramineae)식물은 다른 이름으로 珪酸植物라고도 불리며, 뿌리로부터 대량의 규산분을 흡수하며 잎이나 줄기의 세포내에 침적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을 식물규산체(기동세포 규산체나 단세포규산체 등)이라고 하고, 機動細胞珪酸體에 대해서는 藤原(1976)나 藤原・々木 (1978) 등, 벼(*Oryzasativa* L.)를 중심으로 한 벼과식물의 형태분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식물규산체(기동세포규산체)의 검출을 피하고, 그 형태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모식물(벼과식물)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동유적에서 실시된 발굴조사과정에 檢出된 저장유구의 퇴적토 가운데에서 새로 추측되는 회백색물질이 확인되었다. 이 회백색물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식물규산체분석을 실시하고, 관찰된 식물규산체의 형태로 부터 母植物에 대해서 검토했다.

2. 시료와 분석방법

시료는 C지구 저장유구(도면 3·32)의 퇴적토 하층에서 확인된 회백색물질이다. 분석은 이 시료에 대해서 이하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식물규산체의 검출을 시도하였다.

시료 약 1g을 톨비커(Tall Beaker)에 넣고, 이것에 30%의 과산화수소수(Hydrogen Peroxide, H₂O₂)를 약 20-30cc넣고, 탈유기물처리를 실시한다. 처리후 물을 넣고 초음파호모게나이저(Homogenizer)에 의한 시료의 분산후 침강법에 의해 10 μ m이하의 입자를 제거한다. 이 잔사로부터 글리세린(Glycerol)을 사용하여 適宜프레파라트(Preparation)를 작성해서 관찰하였다.

3. 관찰결과

관찰결과 단면형태가 은행(*Ginkgo biloba* L.)잎 모양을 한 기동세포규산체(도판번호2,5-1,6)가 많이 확인되었다. 이 규산체에는 측면부분에 돌기가, 표면부분(도판번호5-1)에 움푹 패인 곳이 있고, 또 이면에는 가늘고 얇은 거북등모양의 문양을 확인 할 수 있다(圖 1). 측면형태(사진번호2,4,5-2)는 장방형이고, 측면부에는 능선을 보이는 개체도 있다. 표면형태(도판번호5-3)는 가늘고 긴 棒狀을 나타내고, 중앙부분은 구상으로 얇게 패여 있다. 또 측면의 능선부분은 썩기모양으로 돌출한다. 이면형태(도판번호5-4)는 장방형이고, 한 면에 얇고 작은 거북등모양의 문양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형태를 통하여 이 기동세포 규산체는 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몸통의 중앙부분이 크게 패인 모래시계모양을 나타내고, 양선단부분의 중앙도 움푹 패여 있는 단세포규산체가 횡방향으로 연결되어 관찰된다(도판번호3). 이러한 배열은 벼, 갈대(*Phragmites communis* Trin.)등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벼형). 그 외에 측면형태(도판번호7)가 장방형이고, 역시 이면에 약간 거친 거북등모양의 문양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동세포규산체가 소량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서 이 기동세포규산체는 기장(Panicaceae)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4. 母植物에 관하여

상기한 것과 같이 벼의 기동세포규산체가 대단히 많이 확인되었고, 기장족이라고 판단되는 기동세포규산체도 약간 관찰됨으로 이 회백색물질은 벼를 위주로 하여 기장족이 혼합된 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동세포규산체는 앞에서 형성된 규산체이고, 이삭(籾殼)의 부분에 형성된 규산체는 확인되지 않음으로서 이 시료는 벼짚을 태워서 생긴 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장족은 형태에서 조(*Setaria italica* Beauv.), 피(*Panicum Crus-galli* L. var. *frumentaceum* Trin.), 기장(*Panicum miliaceum* L.)이라는 재배종인지, 강아지풀(*Setaria viridis* Beauv.), 돌피(*Panicum Crus-galli* L.), 타이뽀에(*Panicum oryzicola* Vasing) 등의 잡초류인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분류가 불가능하고 불명이지만,

타이뽀에는 논잡초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벼짚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형식물화석분석에서 기장의 이삭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도 기술하였지만 식물규산체분석으로는 기장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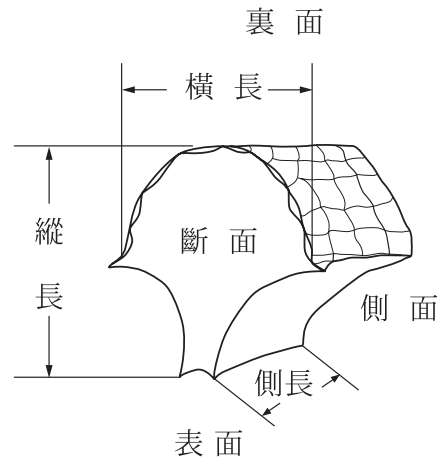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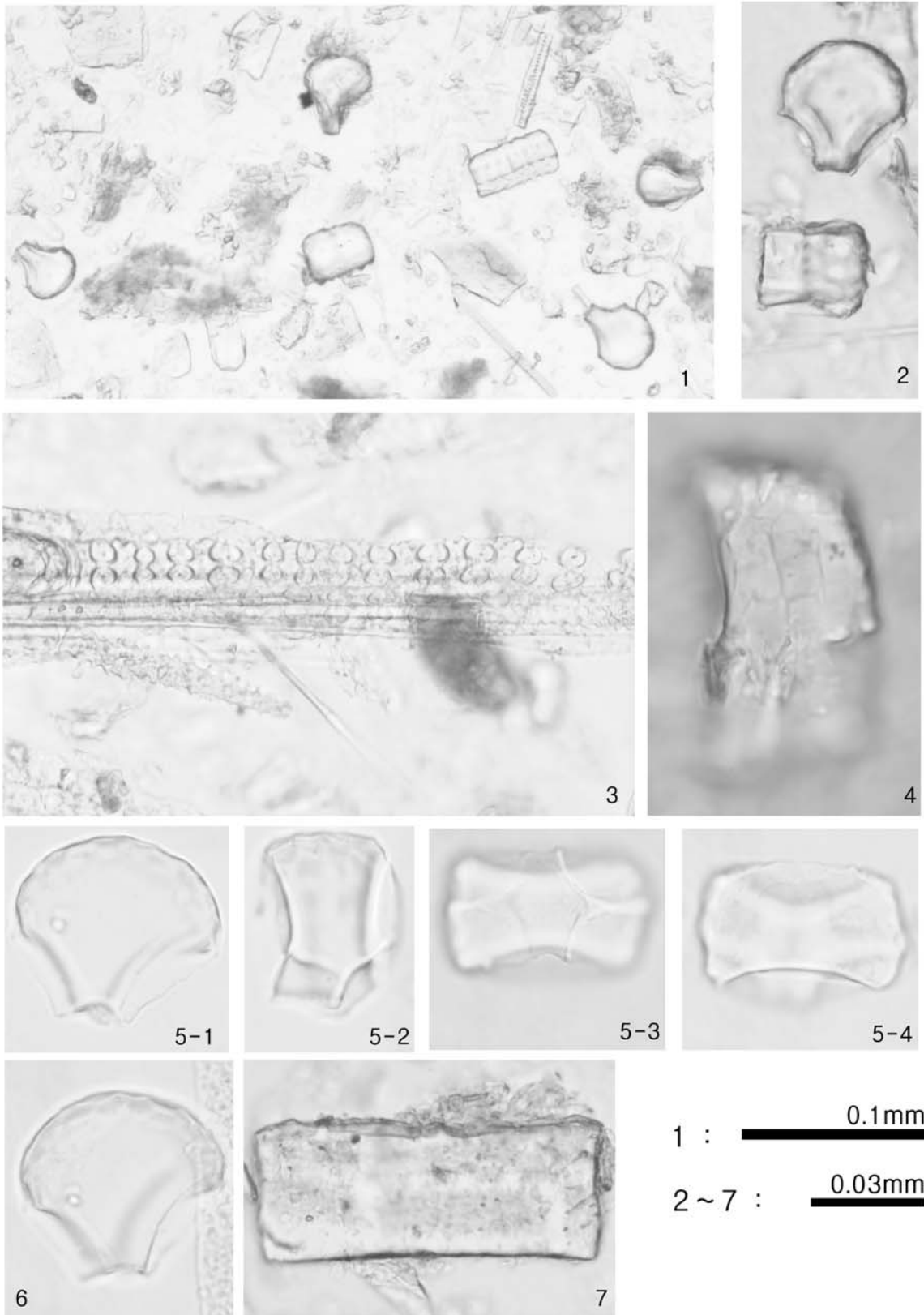


圖1. 기동세포 규산체 모식도

引用文獻

- 藤原宏志(1976)プラント・オパール分析法の基礎的研究(1)―數種イネ科植物の珪酸體標本と定量分析法―. 考古學と自然科學, 9, p.15-29.
- 藤原宏志・佐々木 彰(1978)プラント・オパール分析法の基礎的研究(2)―イネ(Oryza)屬植物における機動細胞珪酸體の形狀―. 考古學と自然科學, 11, p.9-20.



圖版 C지구 저장유구의 식물규산체 (scale bar 1:0.1mm, 2-7:0.03mm)
 1:プレパレートの状態 2:비機動細胞珪酸體(上:斷面, 下:側面) 3:비型單細胞珪酸體列
 4:비機動細胞珪酸體(側面) 5:비機動細胞珪酸體(1:斷面, 2:側面, 3:表面, 4:裏面)
 6:비斷面) 7:키비族(側面)

- 佳澗遺蹟의 花粉化石

株式會社 Paleo Labo
鈴木 茂(스즈키 시게루)

1. 머리말

가동유적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유적주변의 고식생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하에는 이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분분석의 결과와 고찰을 서술하고, 약 3,000년전~1,500년 전에 유적주변의 식생변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시료

시료는 C-3단면(도면 3)의 동벽에서 채취된 9 점이다(圖1). 각 시료를 살펴보면, 시료1은 흑회색의 사질 점토, 시료2는 흑색 니탄, 시료3은 점성이 높은 흑회색 사질점토이고, 모래(암회색)가 얼룩무늬 모양으로 많이 혼입되어 있다. 이들 3개의 시료는 2층 퇴적물로써, 시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라고 생각된다. 시료4(3層)는 약한 점토질의 흑갈색 니탄인데 이 층은 4 세기대의 유물포함층이다. 시료5-7(4層)은 약한 사질의 흑색 니탄질 점토로 나무조각이 포함되어 있다. 시료8(5層)은 흑갈색의 니탄이고, 이 니탄을 사용하여 연대측정(AMS法)을 실시하였으며, $\delta^{13}C$ 보정년대 $2,975 \pm 40yrBP(PLD-2929)$ 를 얻을 수 있었다. 시료9는 점성이 낮은 자갈이 섞인 흑회색 사질점토이다.

3. 분석방법

상기한 9 개의 시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화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습기를 포함하여 약 4-6 g)를 원심관에 넣고, 10%의 수산화칼륨(KOH)을 넣고 20분간 증탕한다. 세정후 0.5mm 눈금체에서 식물유체 등을 제외시키고, 傾斜法을 이용하여 粗粒砂分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46% 불소(HF)용액을 첨가하여 20분간 방치했다. 세정후 비중분리(比重 2.1로 조정된 염화아연용액을 첨가하여)를 실시하여 부유물을 회수하고 세정한다. 세정후 초산처리를 실시하고, 계속하여 아세토리시스(acetolysis)처리(無水酢酸 9:1 황환의 비율의 混酸을 첨가하여 3분간 증탕)를 실시하고 세정후 남은 것에 글리세린(Glycerin)을 넣어서 보존용으로 만든다. 이것을 적절히 프레파라트(preparat)로 만들어 검경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사프라닌(Safranin)으로 염색을 실시한다.

4. 분석결과

검출된 화분과 포자의 분류군수는 수목화분 27개, 초본화분 32개, 형태분류를 포함한 양치식물포자(Spore) 3개로 모두 62개이다. 이들 화분과 양치식물포자의 내용을 表 1 에, 그것들의 분포를 圖 2 에 나타냈다. 또한 분포도의 수목화분은 수목화분총수를, 초본화분과 양치식물포자는 전화분과 포자총수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表 및 圖에서 하이픈(-)으로 연결한 분류군은 그들 분류군간의 구별이 곤란한 것을 나타내고, 뽕나무과(Moraceae)·장미과(Rosaceae)·콩과(Leguminosae)의 화분은 수목기원과 초본기원의 것이 있으나 각각으로 나누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초본화분으로 일괄하였다. 또 화분화석의 단체표본을 작성하여, 각각에 PLC,SS번호를 붙여서 형태관찰용 및 보존용으로 하였다.

검정 결과, 층위에 따라 화분화석의 검출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래에서부터 I, II의 화분화석군집대를 설정하고 그 특징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화분대 I (시료5-9)은 오리나무속(*Alnus*)과 참나무속참나무아속(*Quercus* subgen. *Lepidobalanus*)의 우점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중에서 오리나무屬은 아래 2개의 시료에서 많고, 위의 3개 시료에서는 약간 감소한다. 반대로 참나무亞屬은 위 3개의 試料에서 가장 높은 出現率을 보인다. 그 외에는 모두 다 낮은 비율인데 그중에서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은 거의 5-10%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또 느릅나무속, 느티나무속(*Ulmus-Zelkova*)도 가장 아래 시료 9에서 돌출된 출현을 볼 수 있다. 초본류의 출현율은 모두 낮은 편인데, 벼과(*Gramineae*), 사초科(*Cyperaceae*), 쑥屬(*Artemisia*)은 5% 전후로 검출된다. 또 양치식물포자(Spore)가 가장 아래 시료 9에서 50%를 넘는 높은 출현율을 나타내고 있다.

화분대 II (시료1-4)는 참나무亞屬(*Quercus* subgen. *Lepidobalanus*)의 優占과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의 증가로 특징 지워지고, 그 중에서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은 시료2,4에서는 20%를 넘고 있다. 또 서어나무屬-새우나무屬(*Carpinus-Ostrya*)도 시료2에서 약간 높은 출현율을 나타낸다. 한편 오리나무屬(*Alnus*)은 급격히 감소하고, 시료3에서 약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위에서 다시 감소한다. 그 외 굴피나무屬(*Platycarya*)과 밤나무屬(*Castanea*)이 시료 1, 2에서 관찰되고, 참나무屬가시나무亞屬(*Quercus* subgen. *Cyclobalanopsis*)과 구실잣밤나무屬-파사니아屬(*Castanopsis-Pasania*)은 연속적으로 거의 1% 넘게 검출되었다. 초본류는 벼과(*Gramineae*)의 급증이 특징적이다. 뽕나무과(*Moraceae*)는 시료 2에서 돌출하고 출현율 약 50%를 나타낸다. 또 쑥屬(*Artemisia*)은 낮은 비율이지만 전체 시료에서 1%를 넘고, 사초科(*Cyperaceae*)는 시료2를 제외하고 10% 전후를 나타낸다. 그 외 수생식물인 부들屬(*Typha*)이랑 물옥잠屬(*Monochoria*)이 상위 3개의 시료에서 관찰되고, 같은 추수식물인 보풀屬(*Sagittaria*)도 시료1에서는 1%를 넘는다.

5. 유적주변의 고식생

상기한 화분대를 기초로 가동유적주변의 식생변천에 관하여 기술한다.

화분대 I 기 : 전술한 바와 같이 試料 8(5層)에서 방사성탄소연대 $\delta^{13}C$ 보정연대 $2,975 \pm 40yrBP$ (2 σ 역년대범위 cal BC 1,370-1340(3.0%), cal BC 1,320-1,050(92.4%))를 얻었고, 화분대 I 기는 이 시대를 하한으로 한 시기로 추측된다. 또한 상위의 화분대 II 기와의 경계부에서는 토층관찰로부터 시간간극(불정함)의 존재가 예상되므로, 상한 시기에 대해서는 불명이다.

이 시기의 유적 주변구릉부에는 참나무亞屬(*Quercus* subgen. *Lepidobalanus*)을 중심으로 서어나무屬-새우나무屬(*Carpinus-Ostrya*)이나 느릅나무屬-느티나무屬(*Ulmus-Zelkova*) 등이 혼재된 낙엽광엽수림이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침엽수인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도 일부 범위에 발달해 있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낮은 지역에는 오리나무屬(*Alnus*)이 많이 발달하였고, 호두나무屬(*Juglans*)이나 버드나무屬(*Salix*) 등과 함께 濕地林을 形成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습지에는 부들屬(*Typha*)과 흑삼능屬(*Sparganium*), 보풀屬(*Sagittaria*)과 같은 水生植物(抽水植物)이 일정 범위에 걸쳐 살고 있었다고 추측되고, 그 周邊에는 벼科(*Gramineae*)와 사초科(*Cyperaceae*), 쑥屬(*Artemisia*), 미나리科(*Umbelliferae*) 등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습지를 좋아하는 성향이 강한 물봉선화屬(*Impatiens*)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최하층인 시료 9에서 단조형포자가 많이 출현한

다. 본 층에는 자갈과 모래의 퇴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 時期에는 河川의 影響 등 황폐한 환경이 유적주변에 널리 퍼져 있고 이런 곳에 양치植物(Fern)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분대Ⅱ기 : 시기에 관해서는 출토유물에서 4世紀에서 5世紀로 推測된다. 이 시기의 유적주변구릉부에서는 참나무亞屬(*Quercus* subgen. *Lepidobalanus*)이 한층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참나무亞屬을 중심으로 한 낙엽광엽수림이 넓게 발달해 있었다고 추측된다. 또 소나무속복유관속아속(*Pinus* subgen. *Diploxylon*)도 급증하는데 시료4(3層)에서는 가장 높은 출현율 약 25%를 나타낸다. 이 3層은 4세기의 유물포함층인데 이 시기부터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나대지가 증가하고, 그곳에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이 進入해서 2차림을 형성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시나무亞屬(*Quercu* subgen. *Cyclobalanopsis*)과 구실잣밤나무屬-파사니아屬(*Castanopsis-Pasania*)과 같은 상록활엽수도 이들과 혼생했었을 것이다.

시료1,2에서 굴피나무屬(*Platycarya*)과 밤나무屬(*Castanea*)이 兩分類群에서 약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동유적에 나무기둥이 다수 검출되었고, 수종분석 결과는 대부분이 굴피나무屬과 밤나무屬이며, 연속해서 참나무屬(*Quercus* sect. *Prinus* sp.)이었다.(수종분석의 項目參照). 이로 볼 때 나무기둥의 재료는 유적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던 수목을 이용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낮은 지역에는 오리나무屬(*Alnus*)을 주로 한 濕地林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화분대Ⅱ의 4시료(1-4)에 대해서 플랜트·오팔(Plant opal)分析을 실시한 결과, 시료1-3에서는 벼(*Oryza sativa* L.)의 플랜트·오팔이 많이 관찰되며, 시료4에서는 갈대屬(*Phragmites*)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로서 4세기경의 유적주변의 낮은 지대에는 갈대屬이 많이 사는 濕地가 存在하였고, 이후 5세기경에는 이 습지를 개발한 수전도작이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水田內에는 보풀屬(*Sagittaria*)과 물옥잠屬(*Monochoria*)과 같은 수전잡초를 포함한 분류군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6. 뱃음말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료1-3의 3개 시료에서 회충(*Ascaris*)과 편충(*Trichuris*)의 2분류군의 기생충란(Parasite-egg)을 확인할 수 있었다.(寫眞圖版參照)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당시(5세기)의 유적은 분변 등 더러운 환경으로 오염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이 3개의 시료층(1層, 2層)에는 水田稻作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비료로서 분변이 이용되었고, 그때 기생충알이 혼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5세기경의 가동유적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생충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고, 화장실 유구의 확인이나 그 퇴적토의 기생충란분석 등도 흥미진진할 것이다.

表 1. 산출화분화석일람표

和名	学名		1	2	3	4	5	6	7	8	9
樹木											
マキ属	<i>Podocarpus</i>	나한송속	-	-	1	1	-	-	-	-	-
マツ属複維管束亜属	<i>Pinus</i> subgen. <i>Diploxylon</i>	소나무(이엽송)	26	22	2	57	18	16	10	18	16
マツ属(不明)	<i>Pinus</i> (Unknown)	소나무속	7	4	5	6	9	4	2	4	22
スギ属	<i>Cryptomeria</i>	삼나무속	1	-	-	1	-	-	-	-	-
イチイ科-イヌガヤ科-ヒノキ科	T.- C.	주목과-개비자나무속	1	1	1	-	1	2	-	-	-
ヤナギ属	<i>Salix</i>	버드나무속	-	-	-	-	1	-	1	-	-
ノグルミ属	<i>Platycarya</i>	활피나무속	1	4	-	-	-	-	2	-	-
クルミ属	<i>Juglans</i>	가래나무속	-	1	-	1	2	1	3	1	4
クマシデ属-アサダ属	<i>Carpinus - Ostrya</i>	서어나무속-새우나무속	14	16	3	3	3	4	4	4	5
カバノキ属	<i>Betula</i>	자작나무속	-	-	-	1	-	1	-	1	-
ハンノキ属	<i>Alnus</i>	오리나무속	12	11	15	4	79	76	102	184	104
コナラ属コナラ亜属	<i>Quercus</i> subgen. <i>Lepidobalanus</i>	남업성 참나무속	111	30	77	135	102	113	109	71	34
コナラ属アカガシ亜属	<i>Quercus</i> subgen. <i>Cyclobalanopsis</i>	상록성 참나무속	2	3	2	5	2	2	1	2	-
クリ属	<i>Castanea</i>	밤나무속	9	4	-	-	-	-	-	-	-
シイノキ属-マテバシイ属	<i>Castanopsis - Pasania</i>	구실갯밤나무속	11	2	2	7	-	3	3	1	-
ニレ属-ケヤキ属	<i>Ulmus - Zelkova</i>	느릅나무속-느티나무속	10	-	-	1	3	1	1	1	24
エノキ属-ムクノキ属	<i>Celtis-Aphananthe</i>	팽나무-쭈조나무속	-	-	-	-	-	-	-	2	-
ヤドリギ属	<i>Viscum</i>	겨우살이속	-	-	-	-	-	-	-	-	3
サクラ属近似種	cf. <i>Prunus</i>	벚나무속	-	-	-	-	1	-	-	-	-
サンショウ属	<i>Zanthoxylum</i>	산초나무속	-	1	-	-	-	-	1	-	-
ウルシ属	<i>Rhus</i>	울나무속	-	-	-	1	4	-	-	-	1
カエデ属	<i>Acer</i>	단풍나무속	-	-	1	-	-	1	-	1	-
ブドウ属	<i>Vitis</i>	포도속	1	1	-	-	1	-	-	-	-
マクタビ属近似種	cf. <i>Actinidia</i>	다래나무속	-	-	-	-	-	2	1	-	-
ツバキ属	<i>Camellia</i>	동백나무속	-	-	-	-	1	-	1	-	-
ウコギ科	Araliaceae	두릅나무속	-	1	-	-	-	-	-	-	-
トネリコ属	<i>Fraxinus</i>	물푸레나무속	-	-	-	-	1	2	-	2	-
草本											
ガマ属	<i>Typha</i>	부들속	10	3	1	-	-	-	2	-	-
ミクリ属	<i>Sparganium</i>	혹삼릉속	-	-	-	-	1	-	-	-	-
ヒルムシロ属	<i>Potamogeton</i>	가래속	1	-	-	-	-	-	-	-	-
サジオモダカ属	<i>Alisma</i>	택사속	-	-	-	1	-	-	-	-	-
オモダカ属	<i>Sagittaria</i>	보풀속	16	-	-	-	-	1	-	-	-
イネ科	Gramineae	벼과	279	483	88	26	20	9	13	10	2
カヤツリグサ科	Cyperaceae	사초과	59	6	26	66	19	12	10	10	3
ホシクサ属	<i>Eriocaulon</i>	곡정초속	1	-	-	-	-	-	-	-	-
ツユクサ属	<i>Commelina</i>	닭의장풀속	1	-	-	-	-	-	-	-	-
イボクサ属	<i>Aneilema</i>	사마귀풀속	-	1	-	-	-	-	-	-	-
ミズアオイ属	<i>Monochoria</i>	물옥잠속	3	1	2	-	-	-	-	-	-
ユリ科	Liliaceae	백합과	1	-	-	-	-	-	-	-	-
クワ科	Moraceae	팽나무과	30	637	23	-	-	-	-	1	-
ギンギン属	<i>Rumex</i>	소리쟁이속	-	-	-	-	-	-	-	1	-
サナエタデ属-ウナギツカミ属	<i>Polygonum</i> sect. <i>Persicaria-Echinocaulon</i>	마디풀속-여뀌속결	4	-	2	-	1	1	1	-	3
アカザ科-ヒユ科	Chenopodiaceae - Amaranthaceae	명아주과-벼룩과	15	2	1	-	-	1	1	-	-
ナデシコ科	Caryophyllaceae	석죽과	8	-	-	-	1	-	-	-	-
キンボウゲ科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4	1	-	-	1	2	2	1	-
アブラナ科	Cruciferae	십자화과	3	-	3	-	-	-	-	-	-
バラ科	Rosaceae	장미과	-	1	2	2	-	1	2	1	-
マメ科	Leguminosae	콩과	5	4	3	4	2	8	4	2	-
ツリフネソウ属	<i>Impatiens</i>	봉선화속	-	-	-	-	6	4	3	-	-
ミソハギ属	<i>Lythrum</i>	부처꽃속	-	-	-	1	-	-	-	-	-
アカバナ属	<i>Epilobium</i>	바늘꽃속	-	1	-	-	-	-	-	-	-
セリ科	Umbelliferae	산형과	-	1	6	3	1	3	1	3	1
シソ科	Labiatae	술풀과	-	-	-	-	-	-	1	-	-
オオバコ属	<i>Plantago</i>	질경이속	2	-	-	-	-	-	-	-	-
オミナエシ属	<i>Patrinia</i>	마티리속	-	-	-	1	-	-	1	-	2
ツリガネニンジン属-ホタルブクロ属	<i>Adenophora - Campanula</i>	잔대-초롱꽃속	1	1	-	-	-	-	-	-	-
ヨモギ属	<i>Artemisia</i>	쑥속	33	32	35	19	13	20	14	18	9
他のキク亜科	other Tubuliflorae	국화아과	10	2	4	5	4	3	3	1	3
タンポポ亜科	Liguliflorae	민들레아과	12	-	2	1	-	-	-	-	-
シダ植物											
ゼンマイ科	Osmundaceae	고비과	3	2	3	3	8	6	6	5	3
単象型胞子	Monolete spore	포자	8	6	41	193	10	13	9	8	281
三象型胞子	Trilete spore		2	2	1	7	2	3	-	1	1
樹木花粉											
樹木花粉	Arboreal pollen		206	101	109	223	228	228	241	292	213
草本花粉	Nonarboreal pollen		498	1176	198	129	69	65	58	48	23
シダ植物胞子	Spores		13	10	45	203	20	22	15	14	285
花粉・胞子總数	Total Pollen & Spores		717	1287	352	555	317	315	314	354	521
不明花粉											
不明花粉	Unknown pollen		19	7	27	8	14	29	11	5	47

T. - C. はTaxaceae-Cephalotaxaceae-Cupresaceaeを示す

주목과 개비자나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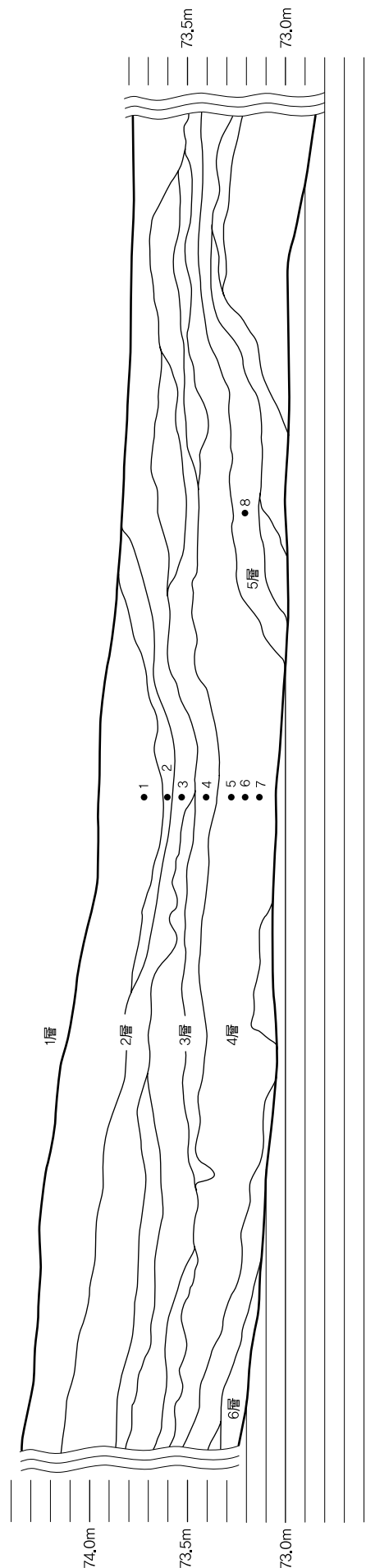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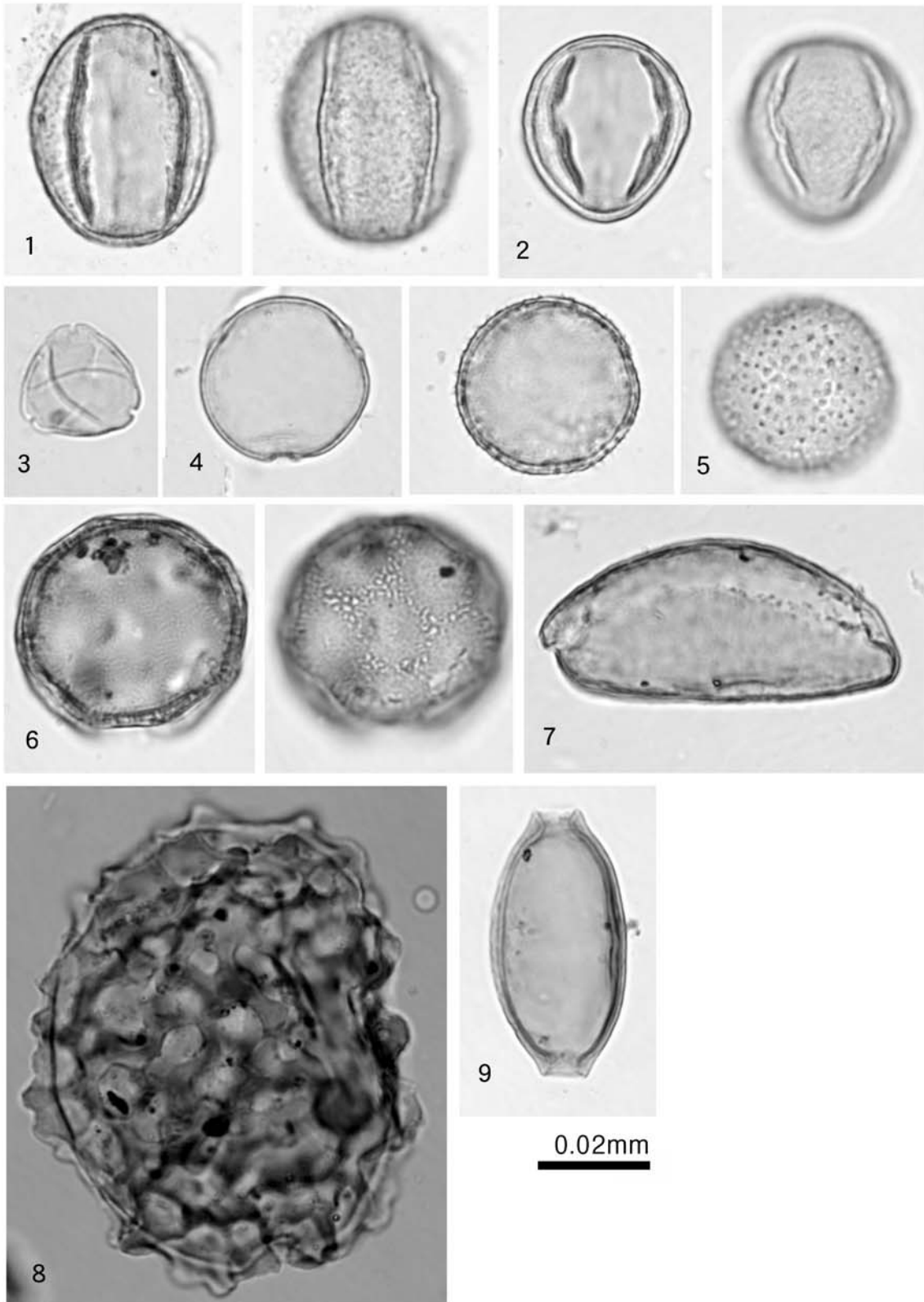


圖 1. C-3 斷面 (東壁) の 試料採取層準



圖版 가동유적의 화분분석(scale bar:20 μ m)

- 1 : 낙엽성참나무속(*Quercus* subgen. *Lepidobalanus*)PLC.SS3793 No.4
 2 : 상록성참나무속(*Quercus* subgen. *Cyclobalanopsis*)PLC.SS3791 No.4
 3 : 굴피나무속(*Platycarya*)PLC.SS3733 No.1 4 : 뽕나무과(Moraceae)PLC.SS3786 No.2
 5 : 보풀속(*Sagittaria*)PLC.SS3782 No.1 6 : 택사속(*Alisma*)PLC.SS3794 No.4
 7 : 물옥잠속(*Monochoria*)PLC.SS3781 No.1 8 : 회충알(*Ascaris*-egg)PLC.SS3789 No.1
 9 : 편충알(*Trichuris*-egg)PLC.SS3787 No.1

1. 머리말

가동유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삼국시대의 취락유적이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재배·이용식물과 고식생 및 고환경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식물화석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2. 시료와 방법

대형식물화석의 검토는 아래의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시료번호1 : 저습지(1Pit)의 추출제(도면 85)

추출이 완료된 시료와 퇴적물 시료이다. 추출완료 시료는 일괄시료이고, 복수종이 하나의 용기에 보존되어 있었다. 퇴적물 시료는①-1, ①-2, ②-1, ②-2로 함께 4개의 시료이고 대부분 흑갈색 모래가 섞인 점토이다. 각 시료의 용량은 10×7×5cm정도.

시료번호2 : B-3G/2호 주거지(도면 3)의 爐址 주변에서 채집된 퇴적물 시료가 한 개이며, 15×10×5cm의 용기에 보관되어 있었고, 암회황색 점토질 실트(열이 가해진 흙이 섞임)의 퇴적물중에 다량의 탄화열매가 섞여있다.

시료번호3 : B-3G/4호 주거지(도면 3) 상면에서 탄화물이 많은 부분을 채취한 3개의 시료이다. 목탄층의 시료 한개와 목탄층 아래의 적색 점토층의 시료 2개가 포함된다. 또한 같은 채취층에서 탄화재의 수종 분석이 실시되었다.(별항참조)

시료번호5 : C지구의 저장유구(도면 3)로부터 채취된 덩어리모양(두께 5cm정도)의 초본유체이다. 이 초본유체의 속에서 확인된 몇개의 탄화되지 않는 열매를 검토했다. 같은 시료로 플랜트·오팔분석이 실시되었다.(별항참조)

시료번호 없음 : C-3트랜치(도면 3)에서 화분분석용으로 채취된 시료(No.2)이고, 시험적으로 대형식물화석의 검토를 실시했다. 같은 시료로 화분분석이 실시되었다.(별항참조)

대형식물화석의 채집·분석·계수는 육안 및 실체현미경하에서 실시되었다. 퇴적물 시료에 대해서는 0.25mm눈금의 체를 사용하여 물세척후 잔사를 회수하고, 남은 것을 중심으로 실체현미경하에서 대형식물화석을 걸러 내었다. 분석된 시료는 울산대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3. 결과

모든 시료에서 분석된 분류군수는 목질류 5개, 초본 36개이다. 이하에 각 시료의 대형식물화석에 관하여 기재한다.

시료번호1 : 추출된 시료(일괄)에는 목질의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밤나무(*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때죽나무(*Styrax japonica* Sieb. et Zucc.), 초본류의 참외仲間(*Cucumis melo* Linn.), 박仲間(*Lagenaria siceraria* Standl.)이 포함되어 있다. 가래나무는 완형이 1개체, 그리고 반쪽 혹은 파편이 14점이었다. 14점 중에서 10점은 대체로 반쪽이고, 나머지 4점은 1/2미만(1/4쪽 정도)의 작은 조각이었다. 반쪽 중에는 봉합선을 따

라서 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누어졌다고 추정되는 씨앗 2점이 포함 되어 있었다. 나머지 8점은 봉합선부의 일부 혹은 모두가 결손 되었고, 사람에 의해 타격(이용)되었던지 혹은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또 이들 중에는 씨앗의 일부가 탄화한 것이 2점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밤은 대부분 파편(긴두께 15-27mm, 짧은 두께 10-16mm정도)이고 극히 일부에 콩지가 부착한 것도 있었다. 파편 6점은 완형으로 환산했을 때 1개 분정도이다. 참외仲間는 藤下(1984)에 따른 6.1-8.0mm의 中粒種子(참외(*Cucumis melo* var. *makuwa*)·シロウリ(*C. melo* var. *conomon*)型)이 19개체, 8.1mm以上の 大粒種子(モモルデイカロン(*C. melo* var. *momordica*)型)가 7개체이고, 6.0mm以下の 小粒種子(잡초참외 型)는 없었다. 박仲間은 과실의 파편(과피편)이었다. 3cm 정도의 크기이고, 벽(단)면은 얇은 것이 2~3mm, 두꺼운 것이 9mm 정도였다.

퇴적물 시료의 목질류는 산딸기屬(*Rubus*)만이 극소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본은 다종·다량으로 모두 豊富한데 試料의 組成이 대부분 비슷하다. 水濕地性草本이 두드러졌는데 중요한 것은 나자스말屬(*Najas*), 텍사과(*Alismataceae*), 고랭이屬(*Scirpus*), 사마귀풀(*Aneilema keisak* Hassk.), 물달개비(*Monochoria vaginalis* Brum. fil.) Presl, 고마리(*Polygonum thunbergii* Sieb. et Zucc.), サナエタデ近似種(*Polygonum* cf. *scabrum* Moench), ヤナギタデ(*Polygonum hydropiper* Linn.)이었다. 한편 비교적 건조한 場所에 자라는 것은 깨풀류屬(*Mosla*)를 제외하고 드물며, 명아주近似種(*Chenopodium* cf. *album* Linn.), 쇠비름(*Portulacaoleracea* Linn.), 꿩이밥屬(*Oxalis*) 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어느 쪽 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으로 방동사니屬(*Cyperus*), 글풀屬(*Juncus*), 석죽과(*Caryophyllaceae*), 황새냉이屬近似種(cf. *Cardamine*)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그 외 벼(*Oryza sativa* Linn.), 참외仲間(中粒種子혹은 大粒種子), 박仲間이라는 재배식물과 그 가능성이 있는 피屬近似種(cf. *Echinochloa*)의 炭化胚乳(시료2-1)등도 얻을 수 있었다.

시료번호2 : 퇴적물 시료를 씻은 결과 多量の 炭化物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밀(*Triticum aestivum* Linn.)의 炭化胚乳가 대부분이었다. 완형 이외에도 미세한 파편을 다수 포함하며, 엄밀하게는 이들 전부를 밀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확히 밀 以外の 열매는 없었고, 炭化材 등의 열매이외의 탄화물도 극히 적기 때문에, 炭化物은 거의 밀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출토량은 매우 많아서, 破片도 다수 포함하므로 重量으로 환산(임의의 밀 100개체의 중량은 0.93g)하여 전체 출토개수를 산출했다. 먼저 시료를 체로서 2mm이상, 1-2mm, 1mm미만의 입자로 나누었다. 2mm이상은 모래를 제외하면 밀의 完形이 대부분이고, 2,800개 전후로 추정된다. 1-2mm는 굵은 모래도 포함되지만 소형의 밀 완형 혹은 파편을 주로 하고, 2,000-2,600개 전후로 추정된다. 1mm미만의 탄화물은 밀의 파편이라고 예상되지만 微細하고, 작은 모래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완형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粒子의 반 정도는 밀의 破片이라고 생각되므로 1,000개 전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 以上에서 모두 6,000개 전후의 밀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시료번호3 : 열매는 들어 있지 않았다.

시료번호5 : 초본유체는 납작한 덩어리 모양이었다. 片面에는 기장이삭(*Panicum miliaceum* Linn.) 8점정도와 벼이삭의 파편 1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장은 문드러져 문혀 있었으나 8점 중에서 2점은 대체로 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片面에서 기장 3점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시료(袋)중에는 덩어리에서 깎여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랭이屬이 2개체 포함되어 있었다.

시료번호없음(C-3트렌치-No.2) : 기장이삭이 두드러지고, 한살덩굴(*Humulus scandens* (Lour.) Merill), 고마리족屬(*Polygonum*)을 1점씩 얻을 수 있었다. 기장은 완형이 1개체, 1/2정도의 파편이 10점, 微小片이 약 41점이다. 1/2정도의 파편은, 腹面 혹은 背面側의 파편이 8점, 수직방향으로 잘린 상반부 혹은 하반부의 파편이 2점이다.

4. 고찰

(1)栽培·利用植物에 관하여

본 유적에서 이용 되어졌던 식물은 재배식물인 복숭아나무(*Prunus persica* Batsch), 벼, 밀, 기장, 참외류仲間(マクワ·참외 타입이 많았고 모몰데이카모타입도 섞여있다), 박류이다. 복숭아나무는 분석 시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발굴조사중에 저습지 부분에서 다량의 복숭아씨와 박류의 과실·종자가 확인되고있다. 이들 이외에 打撃痕을 받은 것과 炭化한 것을 포함한 가래나무도 利用되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피屬近似種의 炭化胚乳도 주변의 생활의 장에서 利用되었던 것이 低濕地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식용으로서 유용한 밤나무도 과실이 파편이지만 利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栽培·利用植物은 주로 저습지에서 出土되었으나 밀은 2호 주거지에서만 나오고, 벼, 기장은 C지구 저장유구에서도 出土되었다. 이 저장유구는 유구내부토의 하부에 흑색토가 퇴적되어 있고 분석시료는 이 흑색토의 극히 일부에서 채집된 것이다. 여기서 검출된 것은 벼가 1점, 기장이 10점정도이지만, 실제로는 흑색토부분에 상당량의 벼와 기장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흑색토에서는 벼와 기장族(Panicaceae)의 플랜트·오팔도 검출되고 있으므로 과실부분만 아니라 잎과 줄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루별로 혹은 이삭의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表 1. 가동유적 출토 대형식물화석 일괄표

숫자는 갯수, ()는 완전하지 않은 파편의 수를 표시

分類群名·出土部位	試料番號	1					2		3			5		
		採取遺構		低濕地	低濕地	低濕地	低濕地	低濕地	B-3G	B-3G	B-3G	B-3G	C地區	
		(1Pit)	(1Pit)	(1Pit)	(1Pit)	(1Pit)		2號住居址	4號住居址	4號住居址	4號住居址	貯藏遺構	C-3トレンチ	
	試料種類	一括	①-1	①-2	②-1	②-2			木炭層	赤色粘土層	赤色粘土層2		No.2	
マツ屬複維管束亞屬	莖果	1												
マンジュウグミ	核	1(14)												
クリ	果實	(6)												
キイチゴ屬	核			2(1)	1	(1)								
エゴノキ	種子	1												
イバラモ屬	種子		3(3)	1	(2)	1								
オモダカ科	種子			2	2	1								
イネ	未炭化類		(2)	(2)	(6)	(1)						1片		
	炭化類					(2)								
コムギ	炭化胚乳						約6000							
キビ	類											10片位	1(51)	
イヌビエ	類		1											
ヒエ屬近似種	炭化胚乳				1									
スゲ屬	果實		1	3		3								
カヤツリグサ屬	果實		12	15	21	14								
ホタルイ屬	果實			(1)	2(1)	1(1)						2		
ハリイ屬	果實		2		1									
イボクサ	種子			4	1									
コナギ	種子		9	9	10	11								
イグサ屬	種子		6	11	17	6								
カナムグラ	種子				(1)	(1)							1	
カラムシ屬	種子				2(1)	2								
ミズ屬	種子			1	3	2(1)								
ミゾソバ	果實				4(1)	1(4)								
サナエタデ近似種	果實		2	1	1									
ボントクタデ	果實		1	1										
ヤナギタデ	果實		5(7)	3	1(2)	5(7)								
イヌタデ近似種	果實				1									
タデ屬	果實												(1)	
シロサ近似種	種子				1	1								
スベリヒコ	種子			1										
ナデシコ科	種子		14	14	34	22								
タネツケバナ屬近似種	種子		4	9	23	7								
ヒ"仔"屬, "仔"屬, 또는 "仔"屬	核			2	1									
カタバミ屬	種子				1									
미즈오토ギリ	種子				1									
セ리科	果實					1								
이소코우쥬屬	果實		(1)	1	3(5)	(4)								
이소코우쥬屬 또는 쏜屬	果實					1								
메론仲間	種子	26	(1)	1	1	2								
히오투탄仲間	果實	(1)	(4)			(1)								
	種子				1(1)	1								
키크科	果實			1		1								

(2)고식생 및 고환경에 대하여

삼림식생에 대한 정보량은 적으며, 저습지에서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가래나무, 밤나무, 산딸기屬, 때죽나무가 出土했을 뿐이다. 이중에 가래나무는 사람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며, 밤나무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근에 밤나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퇴적물 시료중에는 다량의 種實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이 초본이며 목질은 산딸기屬을 제외하고 鳥獸散布型의 작은 종자조차도 出土하지 않기 때문에, 부근에 삼림이라고 부를 정도의 수풀이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저습지에는 나자스말屬, 택사과, 고랭이屬, 사마귀과, 물달개비, 고마리, サナエタデ近似種, ヤナギタデ 등이 번성하고, 방동사니屬, 골풀屬, 석죽과, 황새냉이屬近似種의 일부도 습지의 구성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건조한 장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했다면 깨풀屬, 명아주近似種, 쇠비름, 꿩이밥屬 등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벼, 참외속, 박속은 사람에 의해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저습지의 일부에 이들의 재배지가 존재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나자스말屬, 택사과, 물달개비 등의 일부는 논에 살고 있던 것인지도 모른다. C-3트렌치(No.2)부근에는 기장이 재배된 밭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화분분석 결과에서는 뽕나무과가 돌출했지만 대응하는 분류군으로서 한살덩굴이 얻어졌다. 한살덩굴이 고마리속 등과 함께 밭가장자리나 길가와 같은 장소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다.

5. 밭음말

본 유적에서 利用되어졌던 것은 북송아 나무, 벼, 밀, 기장, 참외속, 박속 등의 재배식물과 가래나무이고, 피屬近似種과 밤나무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주변에는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가래나무, 밤나무, 산딸기屬, 때죽나무가 살고 있었고, 低濕地에는 방동사니屬, 물달개비, 골풀屬, 석죽과, 황새냉이屬近似種 등이 살고 있었다고 예상된다. 또 저습지의 일부에는 논과 참외속, 박속의 재배지가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C-3트렌치 부근에는 기장밭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6. 주요한 大型植物化石의 형태기재

(1)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核

회갈색 혹은 다갈색이고, 형태는 장타원형에서부터 계란형. 표면에는 종방향으로 불규칙한 彫文이 있고, 주름이 대단히 깊다. 길이 32-41mm, 幅 19-30mm정도이고, 大型의 씨가 섞여 있다.

(2)벼 *Oryza sativa* Linn. 이삭. 탄화이삭

시료번호1(퇴적물시료)은 흑모양으로 볼록한 이삭의 파편이다. (1-1의 2점을 제외) 시료번호5는 선명하지 않으나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벼 특유의 과립상 돌기를 볼 수 있다.

(3)밀 *Triticum aestivum* Linn. 炭化胚乳

형태는 타원형, 단면은 타원형 내지 원형. 腹面中央部에는 상하로 뻗어있는 한개의 溝가 있고, 배면하단 중앙부에는 폭이 넓은 부채꼴의 胚가 있다. 폭에 비해 두께가 있고, 측면 윤곽의 곡률이 작다.

(4)기장 *Panicum miliaceum* Linn. 이삭

회갈색 내지 담갈색으로 난형-난상타원형. 표면은 약간 광택이 있고, 縱筋가 밀접하게 들어간다. 길이 3.0mm 전후, 폭 1.5~2.2mm 정도.

(5)피屬近似種 cf. *Echinochloa* 炭化胚乳

背面的 표면이 깎여 있기 때문에 胚는 확인할 수 없으나, 腹面의 臍는 幅이 넓은 부채型. 길이 1.2mm, 폭 1.1mm 정도. 기장은 앞부분이 약간 뾰족한 느낌이고 大型으로 두께도 있는 경향이 있으나, 본 시료는 소형이고 편평한 타원형이므로 피속(*Echinochloa crus-galli* P.Beauv. var. *fumentacea* Trin.) 내지는 이스비오(*E. crus-galli* (Linn.)P.Beauv.)의 이삭이라고 생각된다.

(6)사초屬 *Carex* 과실

二面과 三稜形이 포함된다. 二面의 것은 다갈색으로 倒卵形. 先端은 突出하고 뾰족하다. 길이 2.0-2.1mm, 幅 1.2mm 정도. 三稜形은 갈색이고 길이 2.3mm, 幅 1.1mm 정도.

(7)방동사니屬 *Cyperus* 과실

二面과 三稜形이 포함된다. 二面의 것은 흑갈색?회갈색으로 倒卵形. 길이 0.8-1.5mm, 幅 0.4-0.9mm 정도. 三稜形은 흑색이고 倒卵形. 길이 1.2mm, 幅 0.3mm 정도.

(8)물달개비 *Monochoria vaginalis* (Brum. fil.) Presl 종자

측면모습은 타원형, 상면모습은 원형. 표면에는 종방향의 낮은 돌기가 있고, 돌기와 돌기 사이에는 횡방향의 선이 조밀하게 들어간다. 길이 0.6-1.3mm. 큰 것중의 일부에는 물옥잠(*M.korsakowii* Regel et Maack)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9)석죽科 Caryophyllaceae 종자

흑갈색·다갈색으로 약간 편평한 원형. 표면에는 낮은 돌기가 산재한다. 크기에 차이가 있으며, 길이 0.3~1.0mm이고 폭이 넓다.

(10)깨풀속 *イヌコウジュ*屬 *Mosla* 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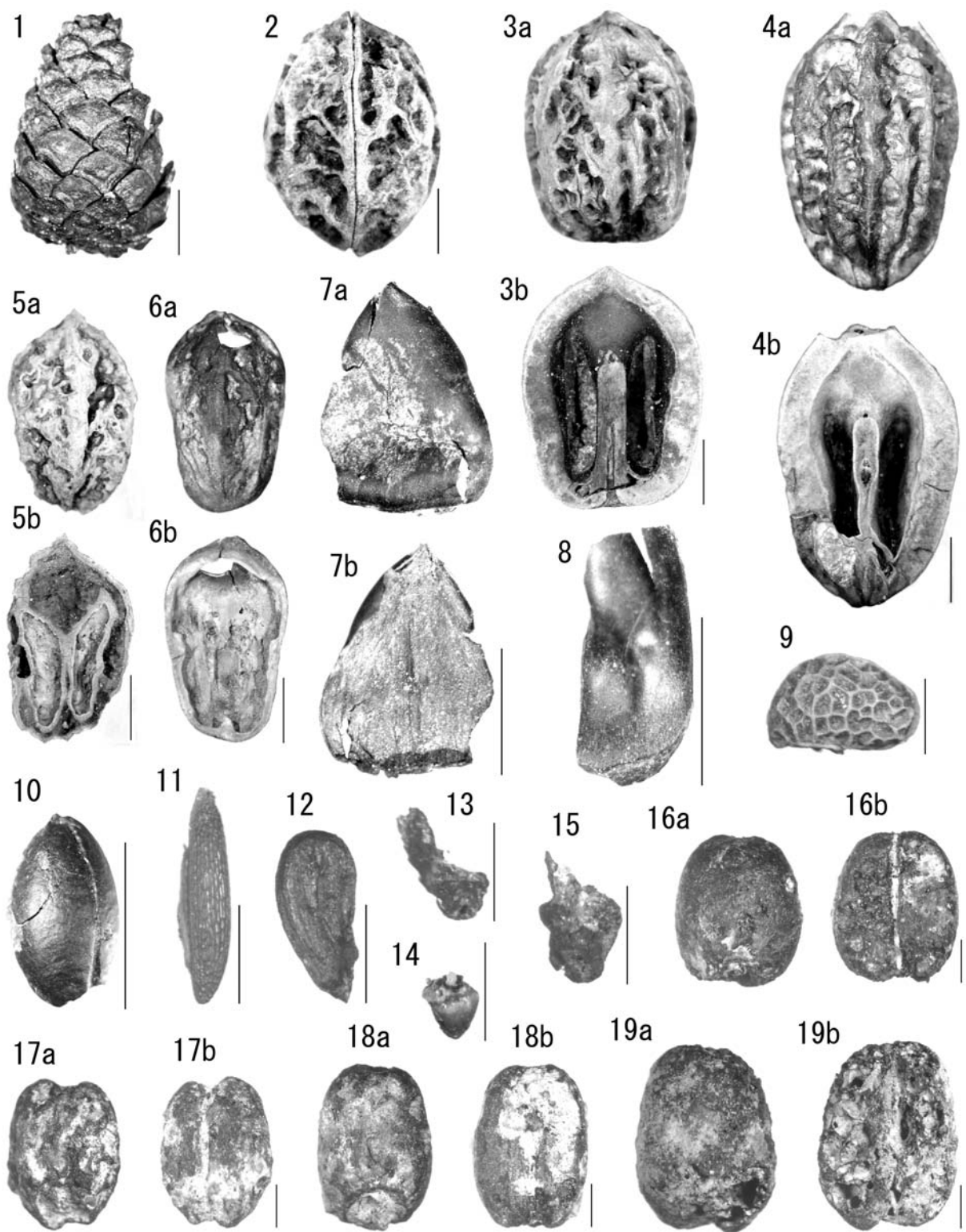
측면모습은 원형, 상면모습은 타원형. 표면에는 얇은 그물무늬가 있다. 길이 1.2mm 정도. 또한 길이 1.6mm 정도의 것을 깨풀屬 또는 자소屬(*Mosla* and / or *Perilla*)이라고 했다.

(11)박仲間 *Lagenaria siceraria* Standl. 과실, 종자

시료번호1에서 얻을 수 있었다. 퇴적물 시료1-1의 과실은 5-10mm 정도의 미세한 열매껍질편. 2-1의 종자중 원형은 길이 12.1mm 정도. 2-2의 과실은 폭 8mm 정도의 미세한 열매껍질편이고, 종자의 길이는 12.6mm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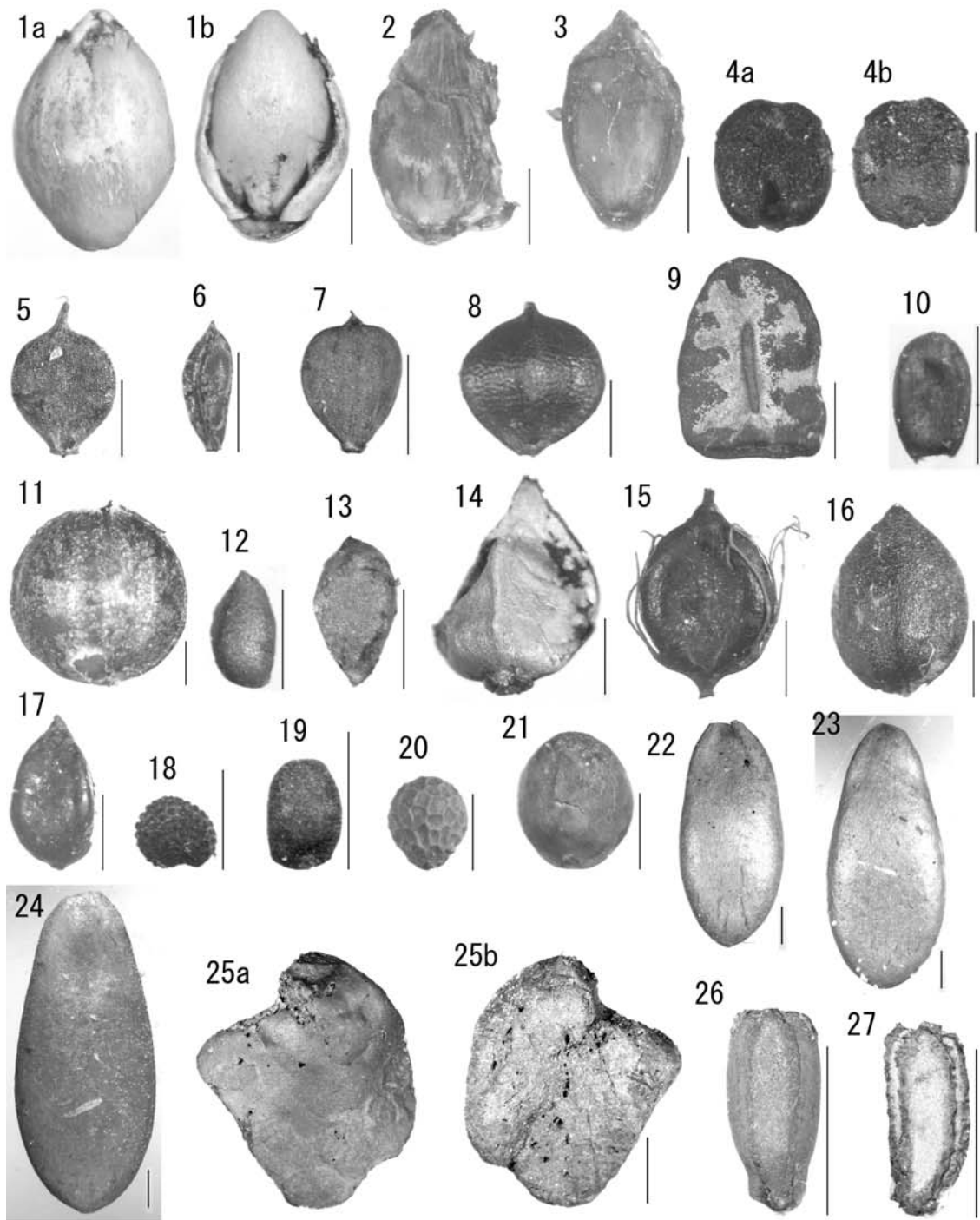
引用文獻

藤下典之(1984)出土遺體よりみたウリ科植物の種類と變遷とその利用法. 古文化財に関する保存科學と人文・自然科學 — 總括報告書, 638-654, 同朋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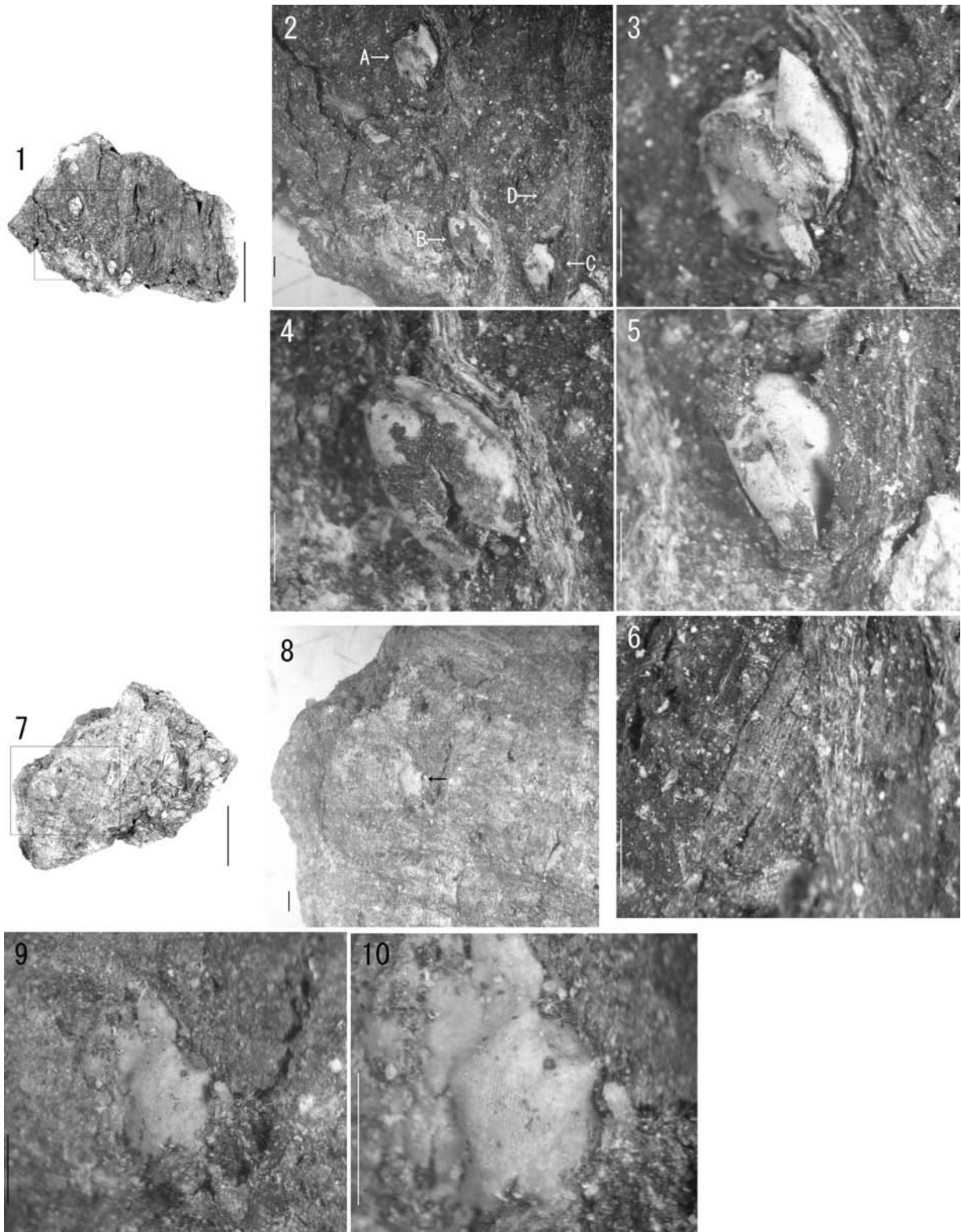
圖版 1. 출토된 대형식물화석(scale은 1-8:1cm, 9, 11-19:1mm)

1. 소나무속 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 솔방울, No.1(일괄) 2-6 가래나무속(*Juglans mandshurica Maxim.*), 씨 7, 8. 밤나무(*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열매 No.1(일괄) 9. 산딸기속(*Rubus*), 씨, No.1(1-2) 10. 때죽나무(*Styrax japonica Sieb. Zucc.*), 종자 No.1(일괄) 11. 나자스말屬(*Najas*), 종자, No.1(1-2) 12. 퉁사과(*Alismataceae*), 종자 No.1(1-2) 13, 14. 벼(*Oryza sativa Linn.*), 이삭(基部) No.1(2-1) 15. 벼, 탄화이삭(基部), No.1(2-2) 16-19. 밀(*Triticum aestivum Linn.*) 탄화배유, No.2



圖版2. 출토된 대형식물화석(scale은 1-24:1mm, 9, 25-27:1cm)

1-3. 기장(*Panicum miliaceum* Linn.) 이삭, C-3트렌치(No.2) 4. 피屬近似種(cf. *Echinochloa*), 탄화배유, No.1(2-1)
 5. 사초屬(*Carex*), 과실, No.1(1-2) 6. 방동사니屬(*Cyperus*), 과실 No.1(1-2) 7. 방동사니속, 과실, No.1(1-1) 8. 고랭이屬(*Scirpus*), 과실, No.1(2-1) 9. 사마귀풀(*Aneilema keisak* Hassk.), 종자, No.1(1-2) 10. 물달개비(*Monochoria vaginalis*(Brum.fil.) Presl), 종자, No.1(1-2) 11. 한살덩굴(*Humulus scandens*(Lour.)Merill), 종자, C-3트렌치(No.2)
 12. 모시풀속(*Boehmeria*), 종자, No.1(2-1) 13. 물통이속(*Pilea*), 종자, No.1(2-1) 14. 고마리(*Polygonum thunbergii* Sieb. et Zucc.), 과실, No.1(2-1) 15. 고마리近似種(*Polygonum* cf. *scabrum* Moench), 과실, No.1(1-1) 16. 마디풀류(*Polygonum hydropiper* Linn.), 과실, No.1(1-1) 17. 고마리속(*Polygonum*), 과실, C-3트렌치(No.2) 18. 석죽科(*Caryophyllaceae*), 종자, No.1(1-2) 19. 향새냉이屬近似種(cf. *Cardamine*), 종자, No.1(1-2) 20. 깨풀속(*Mosta*), 果實, No.1(1-2) 21. 깨풀屬 또는 자소屬(*Mosta* and/or *Perilla*), 과실, No.1(2-2) 22-24. 草本의 참외仲間(*Cucumis melo* Linn.), 종자, No.1(일괄) 25. 박仲間(*Lagenaria siceraria* Standl.) 果實, No.1(일괄) 26. 박仲間, 종자, No.1(2-2) 27. 박仲間, 종자, No.1(2-1)



圖版 3. 출토된 대형식물화석(scale은 1, 7:1cm, 2-6, 8-10:1mm)
 1. 덩어리상태의 초본유체, No.5(C지구저장유구), 2. 1의 사각범위의 확대, 3. 기장(*Panicum miliaceum* Linn.), 이삭, 2의 A부분 확대, 4. 기장, 이삭 2의 B부분 확대, 5. 기장, 이삭, 2의 C부분 확대, 6. 벼(*Oryza sativa* Linn.), 이삭, 2의 D부분 확대, 7. 1의 뒷면, 8. 7의 사각범위의 확대, 9. 기장, 이삭, 8의 확대, 10. 기장, 이삭, 9의 확대

– 佳澗遺蹟에서 出土된 建物構成材의 樹種

株式會社 Paleo Labo
三村 昌史(미무라 마사시)

1. 머리말

가동유적에서 출토된 건축재의 수종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수종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굴립주건물의 기둥구멍에서 출토된 나무기둥 재료 70점과 초판 8점을 합하여 모두 78점의 木材이다. 이들 목제품에 사용된 수종을 분석하고 각 器種의 用材 특징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用材 선택의 배경이 되는 재질을 비롯한 목재 특성과 제작·사용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2. 시료와 방법

시료는 출토재에서 채취한 수 cm 정도의 작은 파편으로, 횡단면·방사단면·접선단면의 3단면에 대해서 칼을 이용하여 편을 잘라내어, gum-chloral(基劑로서 아라비아고무분말(gum arabic[powdered form]) 40g, 투과제로서 抱水크로탈(chloral hydrate) 50g, 보조용매로서 글리세린(glycerol) 20ml, 용매로서 증류수(distilled water) 50ml를 혼합한 수용성의 붕입제)로 封入한 프레파라트(praparat)를 작성하였다. 검경은 광학현미경에서 40~400배로 실시하고 현생표본과 대조하는 것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한 프레파라트는 비교참조를 대비하여 표본번호를 붙여서 (주)Paleo Labo에 보관하였다(PLW.KOR-86~176).

3. 결과 및 고찰

수종분석 결과의 일람을 표로 제시하고, 또 결과를 건물·기종별로 정리한 것을 表 1에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건물마다 건축재의 용재 경향과 선택의 배경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表1. 堀立柱建物·竪穴住居의 建築用材

樹種 / 器種	堀立柱		計
	柱	礎板	
針葉樹 マツ(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i>Pinus</i> subgen. <i>Diploxylon</i>	1	-	1
広葉樹 ノグルミ(굴피나무) <i>Platycarya strobilacea</i>	25	-	25
クリ(밤나무) <i>Castanea crenata</i>	29	8	37
コナラ屬コナラ節(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i> sect. <i>Prinus</i>	13	-	13
エノキ屬(팽나무속) <i>Celtis</i>	-	-	-
ケヤキ(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2	-	2
計	70	8	78

1) 건축재의 용재 경향과 선택성에 대해서

굴립주건물의 건축재

기둥의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은 침엽수인 屬複維管束亞屬(*Pinus* subgen. *Diploxylon*)과 활엽수인 가래나무(*Platycarya strobilacea*)·밤나무(*Castanea crenata*)·참나무절(*Quercus* sect. *Prinus*)·느티나무(*Zelkova serrata*)이다(表1). 이들 樹種은 모두 高木이기 때문에 기둥 재료의 용도에 걸맞는 폭과 길이의 재료를 얻을 수 있고, 또 재료의 질에서도 튼튼하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複維管束亞屬의 재료는 1点, 느티나무는 2点만 각각 사용되었고, 대부분이 가래나무·밤나무·참나무로 이루어

어지고 이들이 용재의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建物마다 용재의 傾向을 살펴보면(表2), No.6, 27의 건물 등의 나무기둥 재료는 모두 밤나무로 되어 있으며, 복수의 기둥을 사용한 건물을 보면 대부분 건물에는 복수의 수종을 나무기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무기둥에 사용된 재료가 되는 수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건물을 세울 때 동일한 수종으로 뽑는 일은 더물었다고 볼 수 있다.

表2. 堀立柱의 建物별로 본 柱材·礎板의 用材

樹種 / 堀立柱建物No. · 器種	12	38.4	40	41	42	43	45	48	56	57	58	59	61	67	지표	計		
	柱	柱	柱	柱	柱	柱	柱	柱	柱	柱	礎	柱	礎	柱				
소나무 屬複維管束亞屬 <i>Pinus</i> sugen. <i>Diploxylon</i>	-	-	-	-	-	1	-	-	-	-	-	-	-	-	-	1		
굴피나무 <i>Platycarya strobilacea</i>	4	5	-	7	-	2	2	1	-	-	-	-	-	-	1	3	25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10	1	1	6	-	2	-	1	-	4	7	1	3	1	-	37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i> sect. <i>Prinus</i>	-	7	-	-	-	-	2	-	-	1	-	-	-	1	-	-	2	13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2	-	-	-	-	-	-	-	-	-	-	-	-	-	-	-	2	
計	6	22	1	8	6	3	6	1	1	1	4	7	1	4	1	1	5	78

나무기둥의 재료는 대부분이 심이 있는 통나무를 사용하였고(表3), 직경은 13-21cm 정도의 것이 많다.(圖1) 또 통나무가 그대로 사용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전체의 1/3정도이고, 면을 깎아 모양을 만든 것이 나머지 2/3정도이다.(表3)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통나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무기둥의 재료에 적합한 두께의 비교적 적당한 재료를 채취하고, 그 후 필요한 정도로 면을 다듬고, 두께나 모양의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가래나무·밤나무·참나무가 선택적으로 사용된 배경의 하나로는 재질면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통나무가 얻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表3. 堀立柱의 마름질·側面加工

樹種 / 木取り·側面加工	丸木			半割	不明	計
	無	有	不明			
소나무 屬複維管束亞屬 <i>Pinus</i> subgen. <i>Diploxylon</i>	-	-	1	-	-	1
굴피나무 <i>Platycarya strobilacea</i>	6	14	4	-	1	25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7	14	4	4	-	29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i> sect. <i>Prinus</i>	-	8	3	1	1	13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2	-	-	-	-	2
計	15	36	12	5	2	70

* 丸木の 堀立柱에 대해서는 側面加工의 有無를 나타냈다.

또 나무기둥의 바닥면가공은 크게 절단면이 평탄한 것, 둔각으로 가공한 것, 예각으로 잘라진 것의 3가지 정도가 있다. 바닥면 가공의 형태와 건물·수종과의 연계를 보면, 각 건물마다 가공이 일치하는 경향은 없고, 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특정 수종에 따라서 바닥면 가공형태의 경향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절단면이 평탄한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반에 따라 안정하지 못한 것이나 기둥길이의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가공되었을 것이다.

礎板의 재료는 모두 밤나무이다.(表1) 밤나무 재료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잘 잘라지기 때문에 재료를 잘라서 초판으로 만들기도 좋고, 재질도 단단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또 초판 재료의 마름질은 모두 나무결에 따라 잘려 있고 기둥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배려되어져 있다. 나무기둥의 재료에 밤나무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기둥의 재료로 사용된 원목의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초판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表4. 堀立柱의 底面加工形態

建物No.	樹種	平坦	鈍頭	銳角	不明	計
12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	2	-	-	2
	굴피나무 <i>Platycarva strobilacea</i>	-	1	1	-	2
38.39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5	3	2	-	10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i> sect. <i>Prinus</i>	3	-	4	-	7
	굴피나무 <i>Platycarva strobilacea</i>	3	1	-	1	5
40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1	-	-	1
41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1	-	-	1
	굴피나무 <i>Platycarva strobilacea</i>	6	1	-	-	7
42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4	-	1	1	6
43	굴피나무 <i>Platycarya strobilacea</i>	2	-	-	-	2
	소나무 屬複維管束亞屬 <i>Pinus</i> subgen. <i>Diploxylo</i>	-	-	-	1	1
45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1	-	-	1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i> sect. <i>Prinus</i>	1	-	1	-	2
	굴피나무 <i>Platycarva strobilacea</i>	2	-	-	-	2
48	굴피나무 <i>Platycarva strobilacea</i>	-	-	1	-	1
56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1	-	-	-	1
58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2	1	1	-	5
59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	-	1	-	1
61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2	-	1	-	3
	지표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i> sect. <i>Prinus</i>	1	-	-	-	1
	굴피나무 <i>Platycarva strobilacea</i>	1	-	1	1	3
	計	33	13	15	7	68

2) 주변식생과의 關連에 대하여

굴립주나 竪穴住居의 建築材에 사용되어진 複維管束亞屬·굴피나무·밤나무·참나무절·팽나무屬·느티나무에 관해서 이번에 같이 검토된 化石분석의 결과를 참조해서 보기로 한다.

우선 堀立柱에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된 굴피나무, 참나무절에 대해서인데 건물의 해당시기와 가까운 시대의 층준에서는 참나무속屬(*Quercus* subgen. *Lepidobalanus*) (참나무절이 포함되는)의 化石이 많이 나오고, 또 굴피나무屬(*Platycarya*)·밤나무屬(*Castanea*)의 化石에 대해서도 적은 양이지만 검출되고 있다. 굴피나무屬과 밤나무屬의 花粉은 참나무亞屬과 같이 광범위하게 날리는 것이 어렵고 化石생산량도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굴피나무와 밤나무라고 하는 수종도 참나무절과 마찬가지로 유적주변에 보통 보이는 수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기둥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 수종은 선택의 전제로서 풍부한 목재 자원량에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化石분석결과에 따르면, 상기이외의 수종으로 주변의 자원량이 풍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複維管束亞屬, 서어나무屬-새우나무屬(*Carpinus-Ostrya*), 오리나무屬(*Alnus*)이 있지만, 이러한 수종가운데 複維管束亞屬의 재료가 굴립주의 기둥재료로 1점이 사용되었을 뿐이고 서어나무屬-새우나무屬, 오리나무屬에 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리나무屬의 목재는 그렇게 재질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질의 면에서 기둥재료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複維管束亞屬나 서어나무屬·새우나무屬의 材질은 경질로서 단단하기 때문에 기둥재질로서 사용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複維管束亞屬의 수종은 줄기가 곧지 않는 것이 종종 있고, 또 서어나무屬의 수종도 휘거나 비틀리는 것이 많은데다가 종종 偏心生長하는 特徵이 있기 때문에 양 수종은 資源으로서 존재는 했지만 기둥의 재료로서 이용하기 쉬운 곧은 동심원상의 통나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4. 小結

본고에서는 가동유적에서 출토된 건물건축재의 용재선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굴립주의 용재로서는 굴피나무·밤나무·참나무절의 수종이 주로 사용되었다. 사용된 수종은 모두 경질로서 튼튼한 목재이며, 유적주변의 목재자원량이 많더라도 建築材로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역으로 자원량이 적으면서도

선택되어 사용된 것이 있고, 재질이외에 재료와 목재의 성질이 통직성과 木口面에서의 둥근 것 등 수종의 성장특성에 기초한 재료의 형상도 용재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찰된다.

礎板에는 잘라낸 재료를 사용할 필요에서 잘라내기가 용이한 부류의 재료인 밤나무가 선택되었고 그때 판으로 잘라서도 강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의 분석은 건물건축재만을 하였지만 이후 다른 목제품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주변 식생에서 각 용재에 어떠한 목재자원이 용도에 따라 가려 사용되었는지 등 본 유적에 있어서 목재이용이 보다 한층 분명하게 될 것이다.

5. 밝혀진 수종

분석대상인 91점의 출토재중에 밝혀진 침엽수 1분류군(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활엽수 5분류군(굴피나무·밤나무·참나무屬참나무節·팽나무屬·느티나무)에 대해서 분석의 근거로서 재료의 조직의 해부학적인 특성 및 재질은 이하와 같다.

1)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 *Pinus* subgen. *Diploxylon* 소나무과 寫眞圖版1a-1c

가도관과 방사유조직, 방사가도관 및 수평·수직양수지도를 둘러싸는 薄壁의 에피세리움세포로 이루어진 침엽수재. 방사가도관의 水平壁은 內腔側으로 향해서 현저한 鋸齒狀의 突起가 있다. 分野壁孔은 大型의 窓狀.

소나무屬單維管束亞屬(*Pinus* subgen. *Haploxylon*)은 放射假道管의 水平壁이 대부분 매끄럽기 때문에 出土材는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나무屬複維管束亞屬에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곰솔(*Pinus thunbergii* Parlatoe) 등이 포함된다. 이 재료는 끈지 않은 것도 자주 있고, 대단히 단단하여 자르기 곤란하고 韌性이 있고, 樹脂分이 많다.

2) 굴피나무 *Platycarya strobilacea* Sieb. et Zucc. 가래나무과 寫眞圖版2a-2c

나이테의 시작부는 대형으로 둥근 薄壁의 道管가 거의 단독으로 1-2열정도 나열하고 나이테의 중간 정도에서는 두께가 줄어든 道管가 放射方向으로 1-수개 복합해서 드문드문 산재하고, 나이테의 경계부근에는 薄壁으로 方形의 小道管이 덩어리狀 혹은 경사~띠狀으로 분포하는 環孔材. 木部柔細胞는 周圍狀이지만 晩材部에는 1-수열의 다발이 되어서 접선상으로 된다. 도관의 穿孔은 단일. 放射組織은 異性으로 약간 찌그러진 1-5열, 때로는 大型의 結晶이 확인된다.

굴피나무屬은 世界에 굴피나무와 그 1品種-*f. coreana*밖에 없기 때문에 種까지 표기하였다. 한국에서는 兩種 모두 분포하고 있다. 재료의 무게·경도가 중간이며 약간 단단하고, 韌性이 있고 자르기가 약간 곤란.

3)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너무밤나무과 寫眞圖版3a-3c

나이테의 시작부는 大型으로 둥근 厚壁의 道管이 거의 單獨으로 1-2열이 나열 되고, 晩材部에는 小型으로 약간 각진 薄壁의 道管이 화염상으로 배열한 環孔材. 道管의 穿孔은 單一. 放射組織은 單列同性.

재질의 구조에서는 밤나무屬에 포함되는 종별의 구별은 곤란하고, 밤나무屬까지 분석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는 밤나무만이 自然分布하기 때문에 밤나무屬의 母植物은 밤나무라고 판단하고 표기도 밤나무로 하였다. 재료는 대단히 단단하며, 탄성이 풍부하고, 자르기가 용이하며 耐朽性이 높다.

4) 참나무屬참나무節 *Quercus* sect. *Prinus* 너무밤나무과 寫眞圖版4a-4c

나이테의 시작부에 大型의 둥근 厚壁의 道管가 單獨으로 1-수열 나열되었고, 晩材部에는 약간 각진 薄壁의 小道管이 火炎狀으로 배열된 環孔材. 道管의 穿孔은 單一. 放射組織은 單列同性의 것에 廣放射組織이

섞여 있다.

참나무亞屬에 포함되는 落葉性的 수종중에 상수리나무(*Q. acutissima Carruthers*), 굴참나무(*Q. variabilis Blume*)가 포함된 상수리나무節(*Q. sect. Cerris*)以外的 시료도 보인다. 한국에 있어서 참나무節의 수종은 졸참나무(*Q. serrata Thunb. ex Murray*), 갈참나무(*Q. aliena Blume*), 신갈나무(*Q. mongolica Fisch. ex. Ledeb.*), 떡갈나무(*Quercus dentata Thunb. ex Murray*) 등이 포함된다. 재료는 단단하며, 탄성이 있고 보존성이 중간, 자르거나 가공은 어렵다.

5) 팽나무屬 *Celtis* 느릅나무科 寫眞圖版5a-5c

나이테의 시작부에 大型의 둥근 厚壁의 道管가 單獨 내지 1-2個 複合해서 약간 드문드문하게 배열되었고, 晩材部에는 小型으로 약간 각진 道管가 多數 複合되었으며, 斜上狀·接線狀·덩어리狀으로 分布하는 環孔材. 道管의 穿孔은 單一. 放射組織은 上下端에 1-2個의 直立細胞가 이어진 異性으로 1-6열 정도이며, 韌細胞가 보인다.

韓國에는 全 국토에 넓게 分布하는 팽나무(*Celtis sinensis*)나 짐팽나무(*Celtis chosoniana Nakai*), 주로 북부에서 보이는 황팽나무 등이 포함된다. 재료의 무게가 중간정도이고 약간 단단하며, 韌性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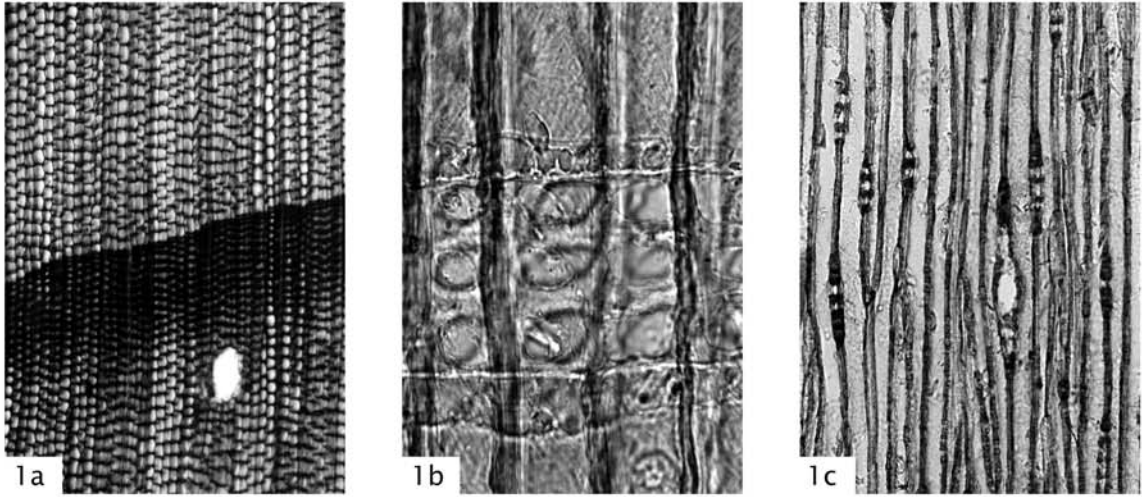
6)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릅나무科 寫眞圖版6a-6c

나이테의 시작부에 大型의 둥근 厚壁의 道管가 單獨으로 1-2列이 나열되고, 晩材部에는 小型의 薄壁에 각진 道管가 多數 集合하여 接線方向 혹은 약간 경사지게 띠모양을 한 環孔材. 道管의 穿孔은 單一. 放射組織은 주로 上下端間 直立細胞로 된 異性으로 1-5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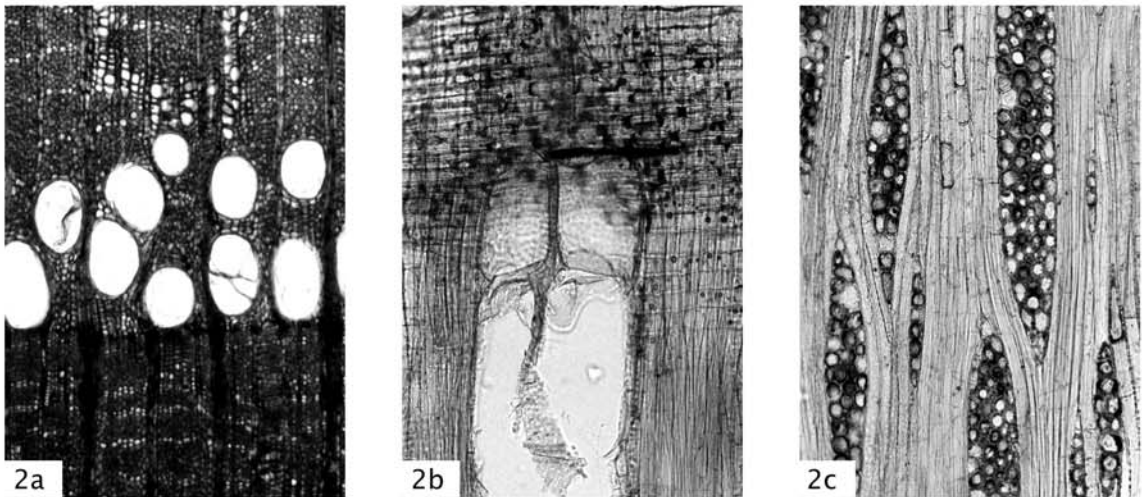
시료의 구조로부터는 느티나무屬까지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한국에서는 高木이 되는 낙엽활엽수인 느티나무만이 分布하고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로 表記하였다. 재료는 약간 단단하고 韌性이 있으며, 均質하며 가공하기 용이하고, 割裂性은 중간으로 保存性이 탁월하다.

付表：樹種同定結果一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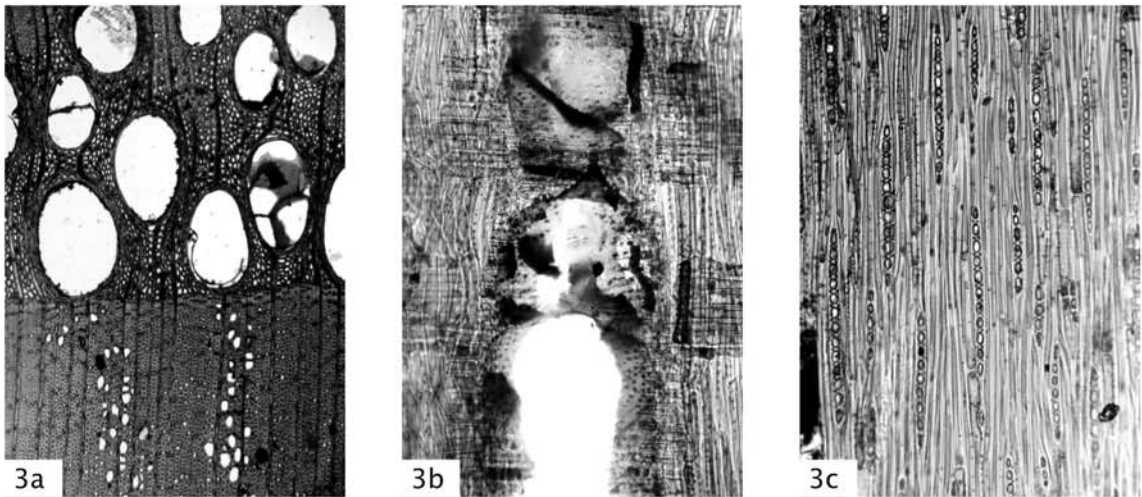
建物No.	Pit No.	器種	樹種 (和名)	樹種 (Taxa)	木取り	直径	底面加工	側面加工	
12	2	柱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丸木	14.5	銳角	無	
	3	柱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丸木	14.5	銳角	無	
	4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4	?	?	
	5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8	鈍頭	無	
	6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7	?	無	
	8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6	銳角	無	
38	1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3	鈍頭	有	
	2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0	平坦	有	
	3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6	平坦	有	
	6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6	鈍頭	有	
	7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4.5	銳角	?	
	9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6	銳角	?	
	10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4	銳角	有	
	내부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4	平坦	?	
	39	1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7.5	鈍頭	有
		2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7	平坦	有
3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25.5	平坦	?	
4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7	銳角	有	
5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8	平坦	有	
6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6	平坦	有	
7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8	鈍頭	有	
8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8	鈍頭	有	
9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7.5	平坦	有	
10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9	平坦	有	
11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0	平坦	有	
12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9	鈍頭	有	
13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6.5	鈍頭?	?	
14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7	平坦	有		
40	내부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半割	24.5	銳角	無	
41	4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1	平坦	?	
	5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4	銳角	無	
	11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6.5	平坦	有	
	15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4	平坦	無	
	19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1	銳角	有	
	20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2	平坦	有	
	22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1	平坦	有	
	내부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2	平坦	有	
	42	1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7	鈍頭?	無
		2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4	平坦	無
3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0	平坦	無?	
4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3	鈍頭	有	
6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9	平坦	有	
8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0	平坦	有	
43	1	柱	소나무屬 複維管束 蕁屬	<i>Pinus subgen Diploxylon</i>	丸木				
	2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2.5	平坦	?	
	3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2.5	平坦	有	
45	내부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6.5	平坦	有	
	내부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半割?	14	?	?	
	내부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半割	21	銳角	無	
	내부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4	平坦	有	
	내부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半割	*13	鈍頭	無	
48	3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4	鈍頭	無	
	56	2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0	鈍頭	有
57	내부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2	?	?	
58	1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5	銳角	無	
	1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2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4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6	平坦	有	
	4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		
	5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4	平坦	有	
	5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6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6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3	鈍頭	?	
	8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9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59	2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7	鈍頭	無
61	1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20	平坦	有	
	2	礎板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板目			有	
	3번 밑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丸木	13	鈍頭	無	
67	4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4.5			
	내부	柱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半割				
지표	1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鈍頭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丸木	14	平坦	?		
	柱	참나무속 참나무절	<i>Quercus sect Prinus sp</i>	不明	*6		?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銳角?	有	
		柱	no sample	*no sample	丸木	*7.5	銳角	有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平坦	有	
		柱	굴피나무	<i>Platykarva strobilacea</i>	丸木	*12	鈍頭	有	



1. 소나무屬 複維管束亞屬 *Pinus* subgen. *Diploxylon* (PLW.KOR-162; 43-1 柱)



2. 굴피나무 *Platycarya strobilacea* (PLW.KOR-116; 39-2 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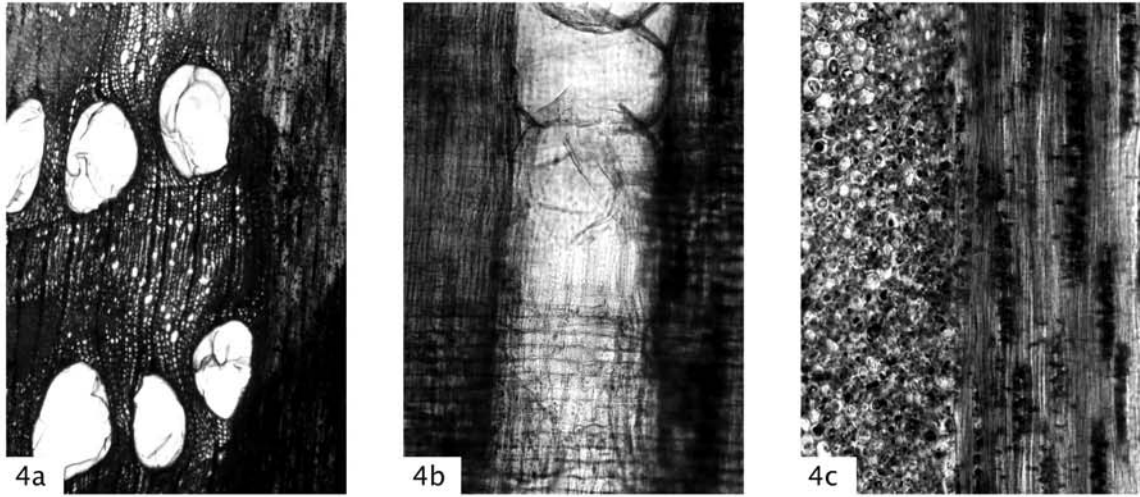


3. 밤나무 *Castanea crenata* (PLW.KOR-121; 39-5 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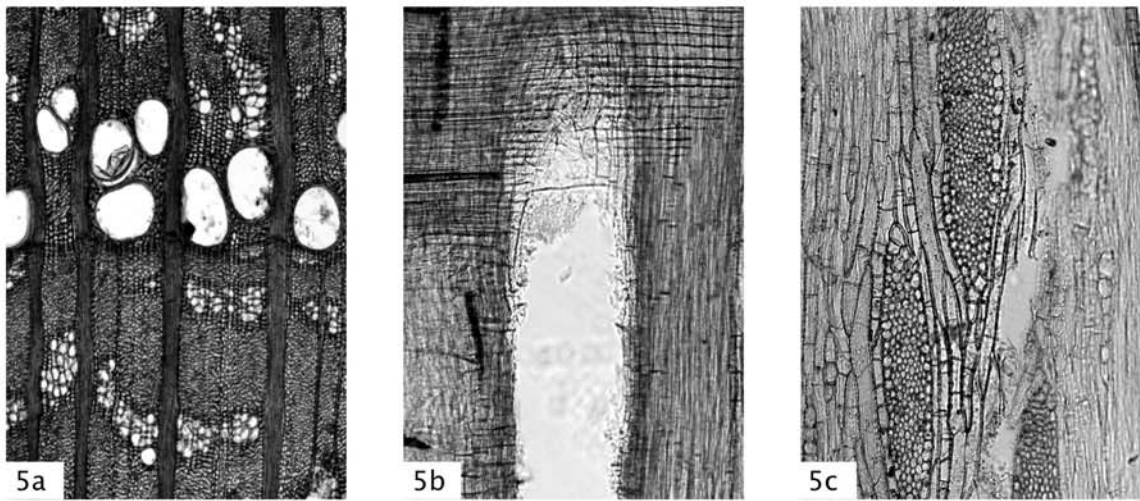
scale bar : 1: a-1.0mm, b-0.1mm, c-0.4mm
2,3: a-1.0mm, b-0.4mm, c-0.4mm

a: 橫断面 b: 放射断面 c: 接線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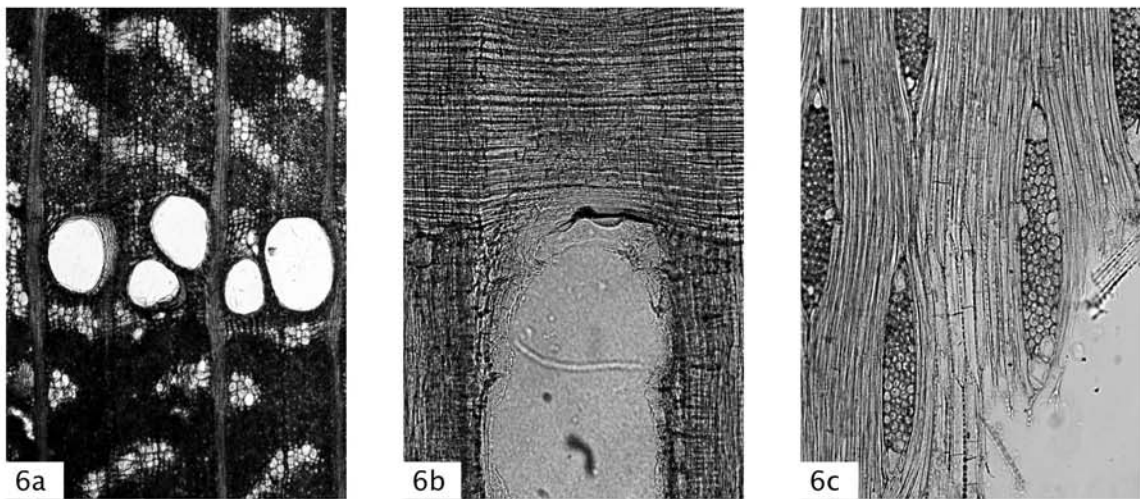
plate1 : 出土材 · 木材組織光学顕微鏡写真



4. 참나무속 참나무절 *Quercus* sect. *Prinus* (PLW.KOR-123; 39-7 柱)



5. 팽나무 *Celtis* (PLW.KOR-168; C-2 豎-9 柱)



6.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PLW.KOR-173; C-2 豎-14 柱)

scale bar : a-1.0mm, b-0.4mm, c-0.4mm

a: 横断面 b: 放射断面 c: 接線断面

plate2 : 出土材 · 木材組織光学顕微鏡写真

2. 부산 기장 가동유적 식물규산체 분석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金 鎮 泰 · 崔 基 龍

I. 서론

규소는 90개 이상의 원소 중에서 산소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로 다양한 생물 및 무생물의 구성 성분이다(황성수, 1993). 풍화작용에 의하여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규산염광물을 포함한 암석에서 방출된 규소와 죽은 생물체 내에서 나온 규소는 토양 속에 포함되어 침전·용해된다. 이렇게 물에 의해 용해된 수용성 규소나 토양에 축적된 규소를 식물의 뿌리가 물과 함께 능동적으로 흡수하여 대부분 식물체내의 특수한 세포의 벽에 집중적으로 축적시키는데, 이 축적된 규소의 구조물을 식물규산체(Plant opal)라고 한다.

식물규산체 혹은 식물규소체에 대해 식물학자들은 phytolith, silica body, silica cell, silica phytolith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토양학자들은 plant opal, opal phytolith, plant stone, biogenic opal 등으로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규산체(plant opal)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식물규산체는 축적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며, 같은 세포의 규산체라도 식물종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잎의 표피 내부에 있는 기동세포(Motor cell)의 세포벽에는 규산이 쉽게 축적되는데, 이렇게 축적된 기동세포의 규산체는 식물의 종류 마다 특징적인 형상을 하고 있어 식물종 분류에 널리 이용된다. 식물규산체는 식물이 고사하여 토양 속에 묻힌 뒤에도 화학적으로 안정된 규산질이기에 때문에 장기간 토양 속에 잔류하면서 토양입자를 구성한다. 식물규산체는 다른 미화석(microfossil)과는 달리 기원 식물의 자생지 및 매우 인접한 지역에 잔존하고 육상 영역에도 안정적으로 보존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유적 형성 당시의 주변 식생을 파악하는 데 직접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었던 식물 자원의 종류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류춘길, 2007).

따라서 토양 시료에서 이러한 기동 세포 규산체의 특징적인 형상을 이용하여 모식물을 찾아내고 과거의 식생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식물규산체를 고고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연구는 토기 생산지의 확인, 농경개시 시기의 추정, 고인류의 생활양식 추정, 고인류 취락주변의 환경복원 등에 이용되었다(김경식, 1994).

벼의 규산체 분석은 일본의 후지와라(藤原宏志, 1976a)에 의해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90년대에 들어 규산체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본과 미국에서 규산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참가하면서 많은 분석결과가 나오는 중이다(안승모, 1999).

벼농사 연구 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규산체는 벼과의 화분이 형태상으로 유사하여 개별 屬이나 種 수준의 식별이 어려운 반면에 屬, 種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분이 바람에 의해 이동이 쉽고 산포가 넓은 반면 식물규산체는 이동성이 적다는 것도 그 특징이다(이용조·김정희, 1998). 이는 국소적인 식생변화 연구에 유효하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동 유적지의 토양 시료에 대한 식물규산체 추출·분석을 통하여 이 지역의 초본류를 중심으로 한 국소적인 식생 변화와 벼농사 개시기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요

본 연구의 조사지인 기장 가동 유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에 속한다. 기장군 정관면은 부산광역시 북동쪽에 위치하며 지형은 북쪽으로 대운산(742.7m) 자락에서 뻗어 나온 용천산(545m)과 삼각산(469m)이 자리 잡고 있고, 북서쪽에서 남쪽으로는 백운산(522m), 망월산(549m), 문래봉(511m)을 지나 동쪽으로 함박산(457m), 천마산(418m), 달음산(588m)이 동해로 연결되어 있다. 동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삼각산에서 발원한 좌광천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지나 동해로 흐르면서 퇴적평원이 형성되어 경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녔다. 최근 신도시 조성사업 이전까지 이곳에는 주거지 및 논과 밭이 형성되어 있었다.

기장군은 1995년 3월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분리·독립하여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고, 울산광역시 서생면과 접하고 있어 이 지역의 기후적 특성은 부산지방기상청과 울산기상대의 지난 30년(1977~2006년)간의 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추정하였다(기상청, 2007). 자료를 통하여 볼 때 이 지역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평균기온이 14.3℃로 같은 위도에 있는 내륙에 비해 비교적 높고, 강수량은 1,413.4mm로 내륙지방보다 많아 인간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후여건을 갖추고 있다.

〈표 1〉 울산과 부산의 30년(1977~2006)간의 기후 자료

	울산 (31.5m a.s.l.)	부산 (62.9m a.s.l.)	평균
평균기온(℃)	14.0	14.6	14.3
강수량(mm)	1296.1	1530.6	1413.4
월평균일조시간(hr)	183.5	194.0	188.8
상대습도(%)	64.6	65.2	64.9
최저일평균기온(℃)	-5.1	-4.7	-4.9
최고일평균기온(℃)	29.9	28.7	29.3

본 조사지인 기장 가동 유적지는 2005년 울산대학교박물관 조사단의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에서 3~7세기 주거지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 226동과 석곽 및 석실 18기, 청동기 시대 주거지 5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곳 저습지에서는 나무로 만든 신발 한 짝과 바가지 등의 다양한 목제품과 복숭아씨앗 등이 나왔고, 주거지에서는 벽을 따라 구들과 아궁이가 있었으며, 아궁이 주변에서는 시루와 향아리 등이 발견되었다.

2. 연구방법

3개 Site의 시굴한 수직 구덩이에서 토성과 토색을 기준으로 층위를 구분하여 식물규산체 분석용 퇴적물 블록형 시료를 총 82개 채집하였다[그림 1]. Site 1에서는 129° 10' 49"E, 35° 19' 41"N 지점, 68.630~71.050m a.s.l. 사이의 시료 29개를 채취하였고, Site 2에서는 129° 10' 50"E, 35° 19' 39"N 지점, 68.560~70.630m a.s.l. 사이의 시료 20개를 채취하였으며, Site 3에서는 129° 10' 49"E, 35° 19' 48"N 지점, 76.000~78.570m a.s.l. 사이의 시료 33개를 채취하였다. 퇴적물은 [그림2], [그림3], [그림4]에서 주상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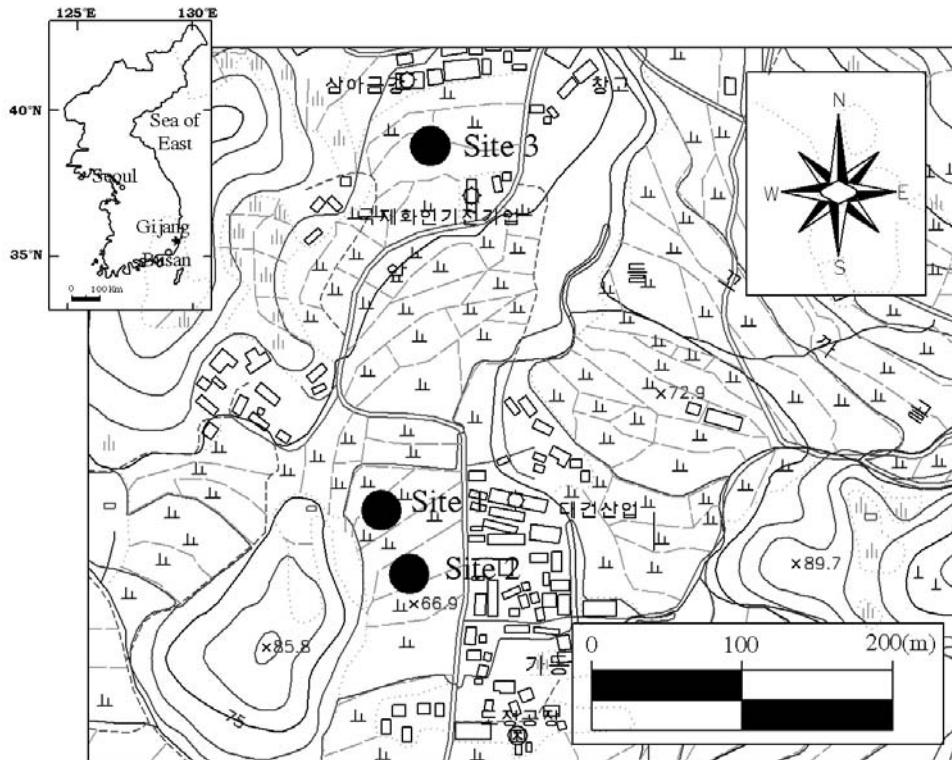


그림 1.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식물규산체 분석용 퇴적물 채집지점

시료에서 식물규산체의 추출은 Plant opal 정량분석법(藤原, 1976)에 기초하여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가. 식물규산체 추출과 검경용 프레파라트 제작

- 1) 시료를 Dry Oven에 넣고 105°C에서 약 24시간 건조시킨다.
- 2) Tall beaker에 건조된 시료 약 1g을 넣고, 직경 약 40 μ m의 Glass beads를 약 0.02g 첨가한다(프레파라트마다 들어가는 시료의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Glass beads를 넣어 검경시 모든 프레파라트에서 Glass beads가 300개 counting될 때까지 나온 규산체를 동정한다).
- 3) 시료와 Glass beads가 든 Tall beaker에 과산화수소수(H₂O₂ -30%) 30ml를 넣고, Hot Plate 위에서 1시간 가량 보온으로 완전히 증발시켜 탈유기물처리를 한다.
- 4) Tall beaker 바닥과 벽에 늘어붙은 탈유기물처리된 시료가 분산되도록 beaker에 증류수를 약 200ml 넣고, Sonicator 속에서 초음파수중조사(300W · 42KHz · 10분간)처리한다.
- 5) 부유한 식물규산체가 가라앉을 때까지 Tall beaker를 약 6분 정도 침전시킨다.
- 6) 비이커 속에 가라앉은 시료가 물과 섞이지 않게 조심하며 시료 위 0.5cm 정도의 물을 남겨두고 Electric Aspirator로 상층부의 물을 분리한다.
- 7) 다시 비이커에 증류수를 약 200ml 넣고, Sonicator 속에 넣어 초음파수중조사(300W · 42KHz · 10분간)로 분산처리한다.
- 8) 분산처리된 시료가 든 Tall beaker를 약 6분간 침전시켜 식물규산체와 Glass beads를 다시 가라앉힌다.
- 9) 비이커 상층에 떠 있는 물을 Electric Aspirator로 분리한다.
- 10) 위의 7), 8), 9)번의 작업을 물이 맑아질 때까지 6~10회 정도 반복한다. 비이커의 물이 맑아지면 Electric Aspirator로 물을 최대한 많이 빨아들인다.

- 11) 가라앉은 시료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남김없이 Conical tube(15ml)에 옮긴다.
- 12) 다시 6분정도 침전 시킨 후 상층액을 1/2정도 들어낸다.
- 13) 남은 시료는 손으로 잘 흔들어 준 후 3~4분 가라앉힌다.
- 14) 시료 표면에서 약 0.05ml 정도를 마이크로파이펫으로 들어 올려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떨어뜨려 건조시킨다.
- 15) 건조된 시료 위에 글리세롤을 1~2방울 떨어뜨리고 스파츨라로 분산하여 커버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를 만든다.

나. 검경

검경은 400배(접안렌즈 X10, 대물렌즈 X40)로 이루어졌으며 시료에서 나오는 식물규산체를 벼, 갈대屬, 기장族, 쇠풀族으로 구분하였다.

다. 식물규산체 동정

검출된 식물규산체는 울산대학교 식물생태학연구실에서 제작한 현생 식물규산체의 표본과 유적지 출현 식물규산체의 현미경 사진이 수록된 藤原宏志(1976a, 1976b), 藤原宏志·杉本眞二(1979), 杉山眞二(2000), 울산문화재연구원(2003), 福島縣河沼郡湯川村教育委員會(2006), Pearsall, D. M, Piperno, D. R.(1993) 등의 문헌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비교·대조하여 동정하였다.

라. 자료의 처리 방법

분석시료에서 검출된 식물규산체의 분류군은 아래와 같다.

Gramineae(벼과) : 벼(*Oryza sativa*), 갈대屬(*Phragmites*), 기장族(*Panicaceae*), 쇠풀族(*Andropogoneae*)

이하 식물명과 속명은 해당 식물의 규산체를 의미한다. 개수는 시료 1g에 포함된 해당 식물종의 규산체 수이다. 이들 분류군에 대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림5], [그림6], [그림7]로 나타내고 분석하였다.

Ⅲ . 결과

1. 퇴적물 특성

Site1은 대부분 주성분이 Gravelly sandy clay이고, 상층부인 70.475m a.s.l. 지점에서 표층인 71.050m a.s.l.까지는 Sandy clay가 분포하였다. Site2는 주성분이 Sandy clay이고, 69.170m a.s.l.에 Gravelly sand가, 69.430~67.410m a.s.l. 지점까지는 Clayey sand가, 상층부인 70.225m a.s.l. 지점에서 표층인 70.630m a.s.l.까지는 Silty sand가 분포하였다. Site3은 바닥층인 76.000m a.s.l. 지점에서 76.525m a.s.l.까지는 Sand가 분포하고, 76.525~76.685m a.s.l.까지는 Clayey sand가, 75.685~77.295m a.s.l.까지는 Sandy clay가 대부분 이며, 77.295m a.s.l.에서 표층인 78.570m a.s.l.까지는 Gravelly sandy clay가 분포하였다. 전체적으로 토색은 2.5YR이나 7.5YR의 적갈색 및 10YR 계열의 암갈색이다.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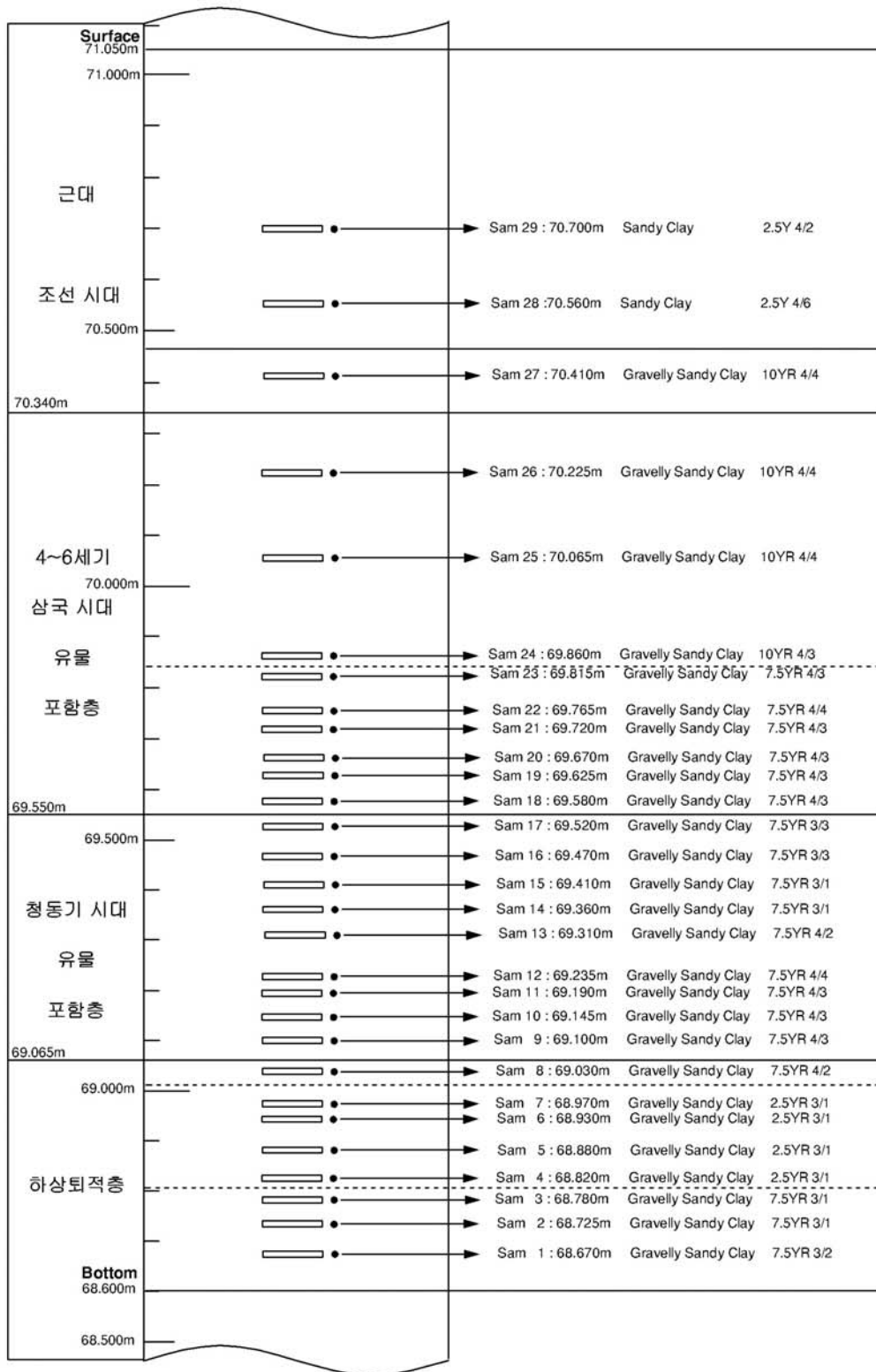


그림 2.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1의 퇴적물 주상도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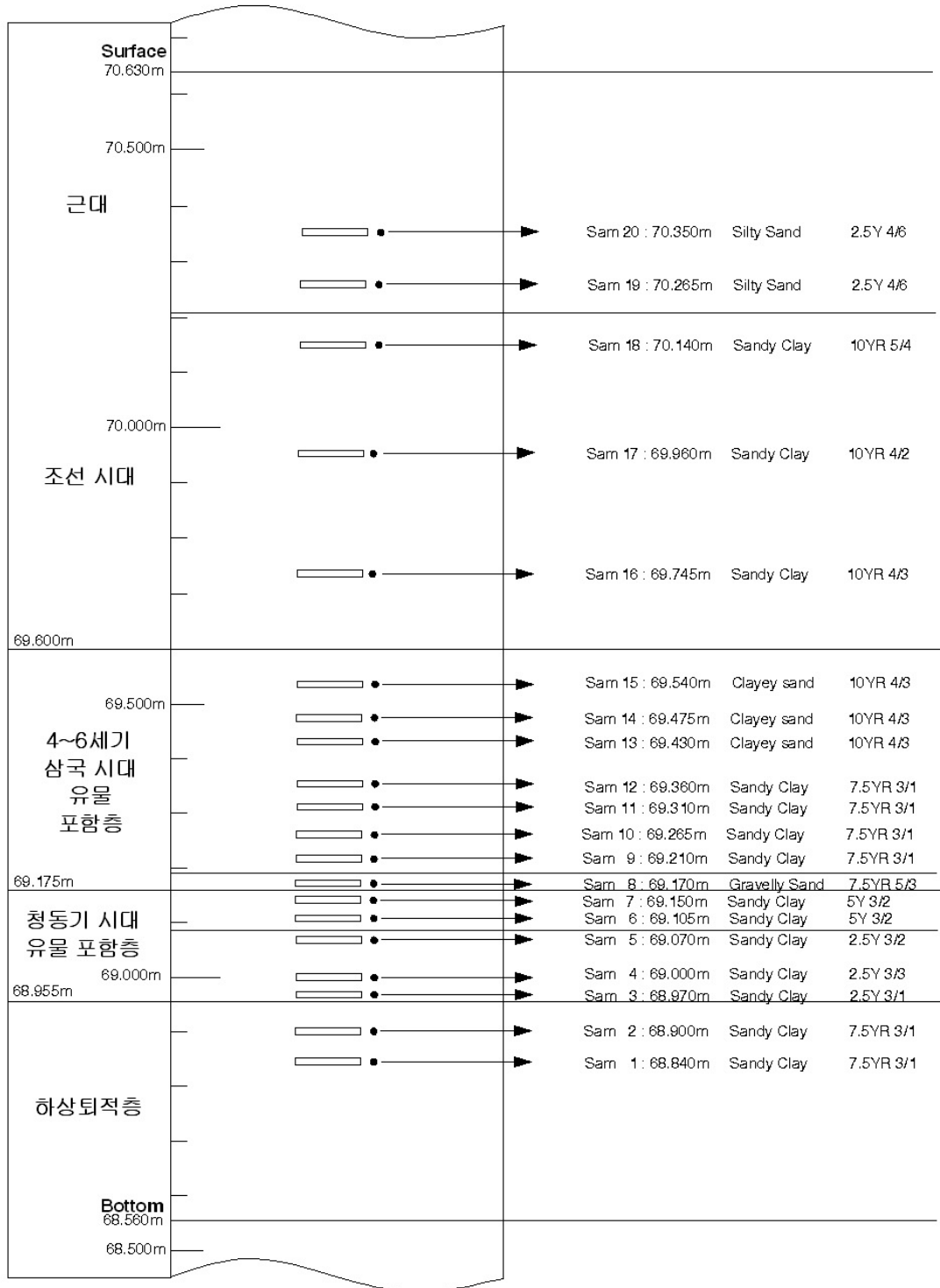


그림 3.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2의 퇴적물 주상도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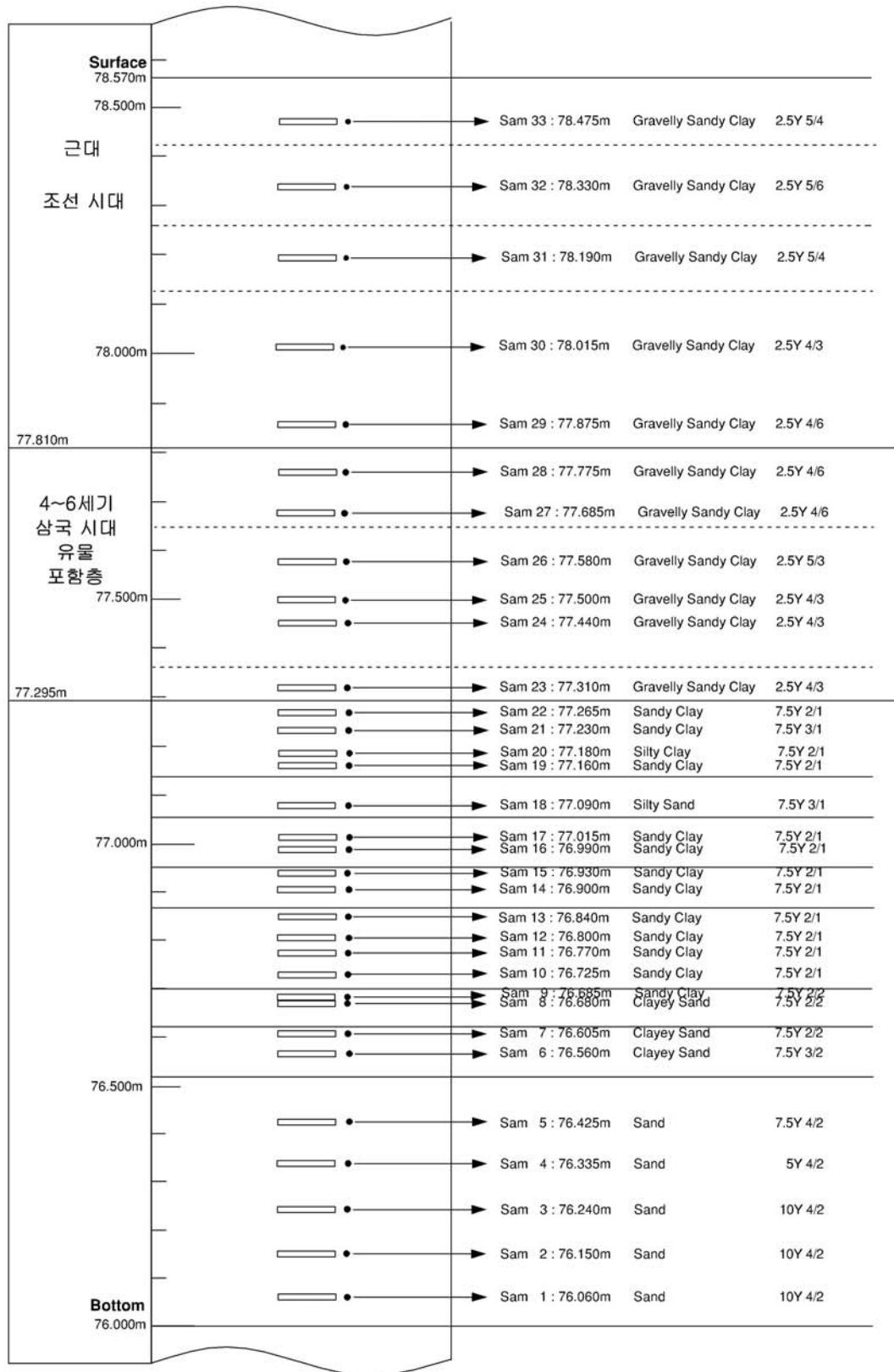


그림 4.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3의 퇴적물 주상도

2. 식물규산체 분석결과

가. Site 1

Site 1은 벼의 출현 및 검출된 개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바닥(68.630m)에서 69.000m까지를 G1A zone으로, 69.000m에서 69.700m까지를 G1B zone으로, 69.700m에서 표층(71.050m)까지를 G1C zone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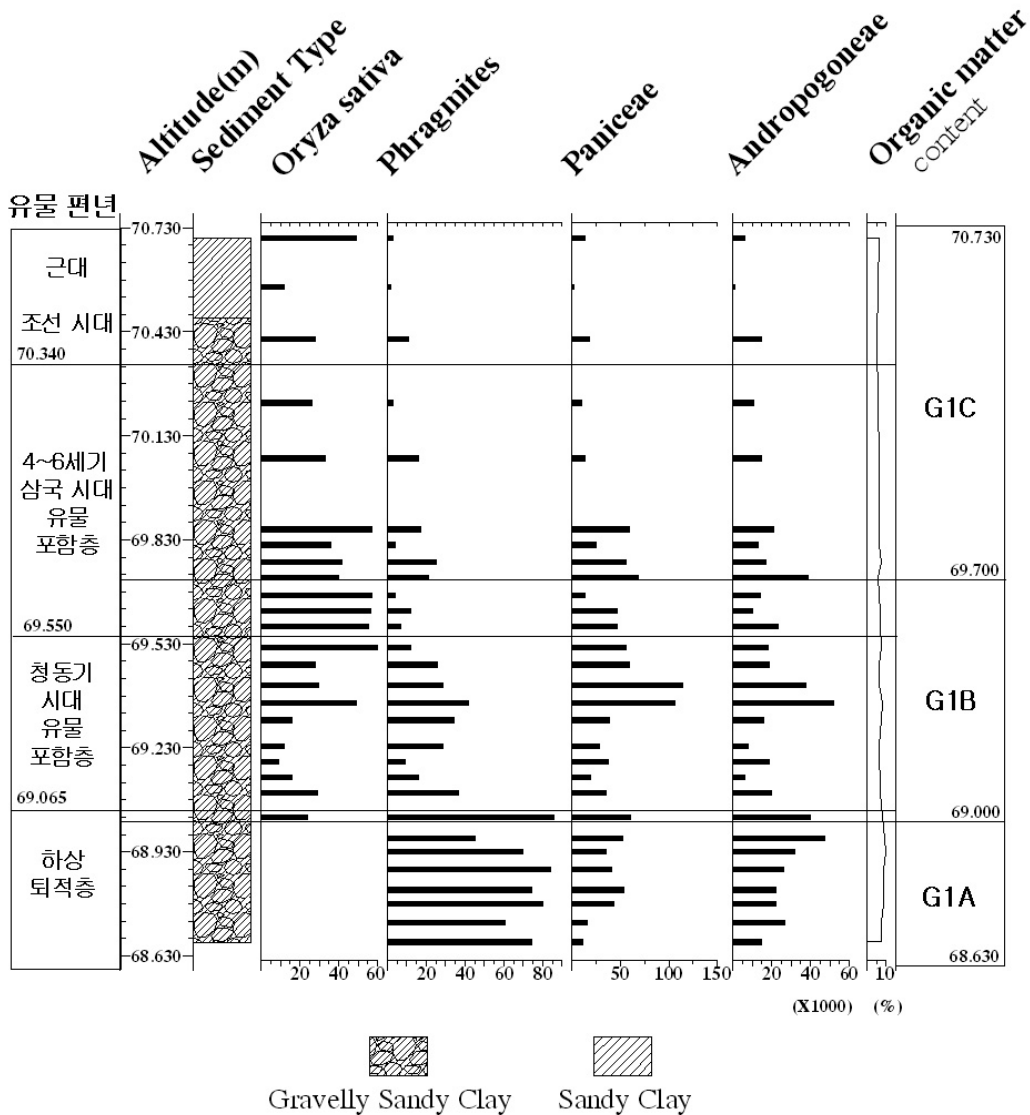


그림 5.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1의 식물규산체 변천도

1) G1A : 68.630~69.000m

바닥(68.630m)에서 69.000m 층위 사이는 Gravelly sandy clay 성분의 토성으로 벼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갈대屬이 바닥쪽 퇴적물1(68.670m)에서 74,200/g개가 검출된 이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서서히 줄어들어 퇴적물7(68.970m)에서는 45,100/g개가 나왔다. 반면, 쇠풀族과 기장族은 바닥쪽인 퇴적물1(68.670m)에서는 각각 11,000/g개와 15,000/g개로 비교적 적게 검출되었으나, 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여 상층인 퇴적물7(68.970m)에서는 각각 52,100/g와 47,100/g개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zone에서는 갈대屬이 바닥쪽에서 우점하였으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갈대屬은 줄어들고, 기장族과 쇠풀族은 서서히 증가하여 상층에서 갈대屬과 기장族, 쇠풀族의 출현 개수가 비슷해졌다.

2) G1B : 69.000~69.700m

69.000m에서 69.700m 층위 사이도 Gravelly sandy clay의 토성으로 퇴적물8(69.030m)에서 처음으로 23,900/g개의 벼가 검출되었고, 퇴적물11(69.190m)까지는 약간 줄어들다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하여 상층인 퇴적물20(69.670m)에서는 56,800/g개가 나왔다. 반면 갈대屬은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8(69.030m)에서 85,800/g개가 나온 후 퇴적물11(69.190m)에서 9,000/g개까지 급감한 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어 상층인 퇴적물20(69.670m)에서는 4,000/g개로 감소하였다. 쇠풀族과 기장族은 하층에서 서서히 감소하다 이 zone의 중간지점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 후 서서히 감소하여 상층인 퇴적물20(69.670m)에서 각각 13,000/g개와 14,000/g개가 검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이 zone에서는 벼의 출현 및 개수의 점진적 증가가 이어졌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갈대屬과 기장族, 쇠풀族이 감소하였다.

3) G1C : 69.700~71.050m

69.700m에서 71.050m 층위 사이는 전체적으로 Gravelly sandy clay의 토성을 보이나, 70.475m에서 상층까지는 Sandy clay의 토성을 나타낸다. 이 zone에서 벼는 하층인 퇴적물21(69.720m)에서 39,900/g개가 검출되었고, 퇴적물28(70.560m)까지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 zone의 상층에서 다시 증가하여 퇴적물29(70.700m)에서는 49,100/g개가 나왔다. 갈대屬은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21(69.720m)에서 21,000/g개가 검출되었다가 점점 감소하여 상층인 퇴적물28(70.560m)과 퇴적물29(70.700m)에서는 각각 2,000/g개와 3,000/g개로 급감하였다. 쇠풀族과 기장族도 갈대屬과 비슷한 형태로 감소하였는데, 이 zone의 하층에서 각각 67,900/g개와 38,000/g개를 보이다가 상층인 퇴적물29(70.700m)에서는 14,000/g개와 6,000/g개로 급감했다.

전체적으로 이 zone에서는 벼의 출현 개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갈대屬과 기장族, 쇠풀族은 전체적으로 급감하여 상층에서는 벼가 우점하였다.

2. Site 2

Site 2는 벼의 출현 및 검출된 개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바닥층(68.560m)에서 69.090m까지를 G2A zone으로, 69.090m에서 69.960m까지를 G2B zone으로, 69.960m에서 표층(70.630m)까지를 G2C zone으로 나누었다.

가. G2A: 68.560~69.090m

바닥층(68.560m)에서 68.970m 층위 사이는 Sandy clay의 토성으로 벼는 검출되지 않았다. 갈대屬은 바닥쪽 퇴적물에서 우점하여 퇴적물1(68.840m)에서 165,400/g개의 높은 밀도로 검출되었고, 이 zone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급감해서 퇴적물3(68.970m)에서 32,000/g개로 줄었다가 상층인 퇴적물5(69.070m)에서 92,900/g개로 다시 늘어났다. 기장族은 처음에는 갈대屬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 퇴적물1(68.840m)에서 30,900/g개가 검출된 이후, 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여 퇴적물3(68.970m)에서 10,000/g개까지 줄었으나, 상층인 퇴적물5(69.070m)에서 41,000/g개로 퇴적물1(68.840m)보다 늘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쇠풀族도 퇴적물1(68.840m)에서는 15,900/g개가 검출된 이후 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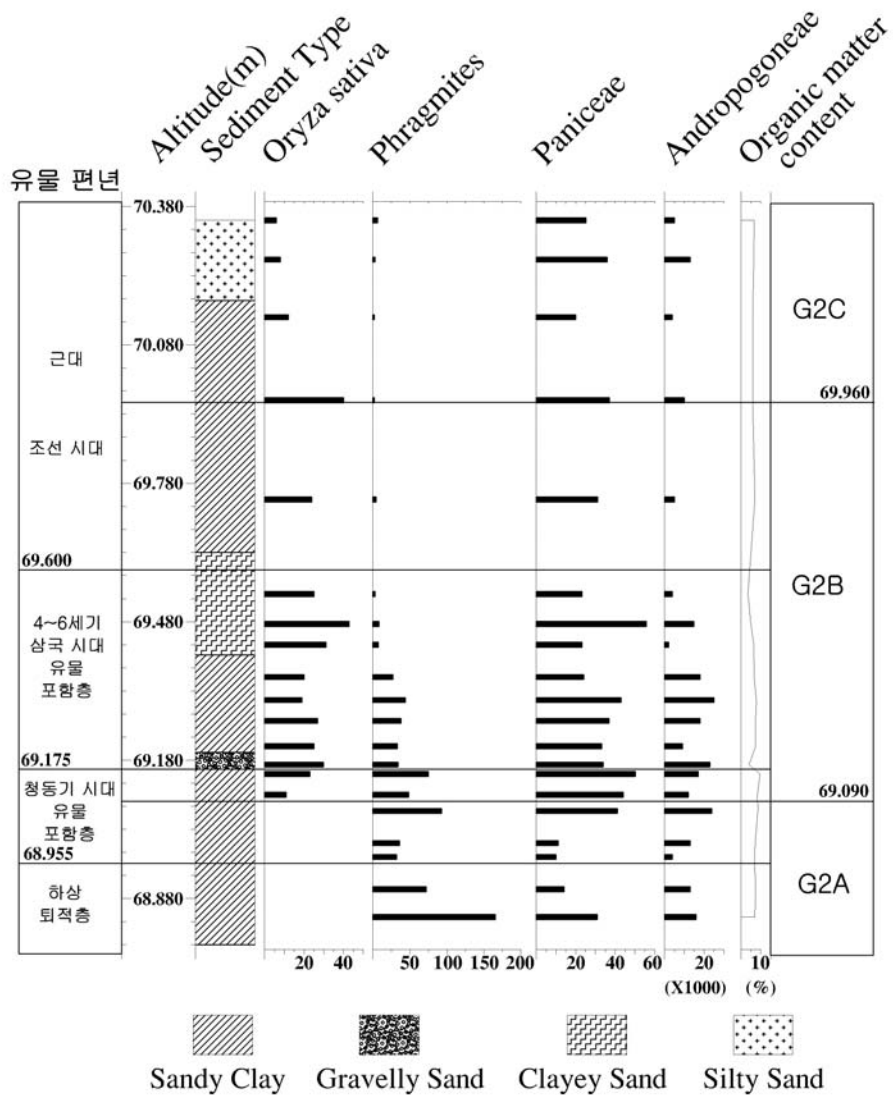


그림 6.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2의 식물규산체 변천도

감소하여 퇴적물3(68.970m)에서 4,000/g개로 상당히 줄었으나, 퇴적물5(69.070m)에서 다시 24,000/g개로 늘었다.

나. G2B : 69.090~69.960m

69.090m에서 69.960m 층위 사이는 전체적으로는 Sandy clay의 토성이나, 퇴적물8(69.170m)은 Gravelly sand이고, 퇴적물13(69.430m)에서 퇴적물15(69.540m) 사이는 Clayey sand이다. 벼는 퇴적물6(69.105m)에서 처음으로 11,000/g개 검출되었고, 이후 서서히 증감을 반복하여 퇴적물14(69.475m)에서 가장 많은 42,800/g개를 보인 후 이 zone의 상층부인 퇴적물17(69.960m)에서는 40,100/g개로 조금 줄었다. 갈대屬은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7(69.150m)에서 가장 많은 75,100/g개를 보인 후 점점 감소하여 이 zone의 상층부인 퇴적물17(69.960m)에서는 2,000/g개까지 급감했다. 기장族은 벼와 비슷한 형태로 증감을 반복하여 하층인 퇴적물6(69.105m)에서 41,000/g개를 보인 후 증감을 반복하다 퇴적물14(69.475m)에서 55,700/g개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 후 상층인 퇴적물17(69.960m)에서는 37,100/g개로 줄었다. 쇠풀族은 하층인 퇴적물6(69.105m)에서 12,000/g개가 검출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 퇴적물11(69.310m)에서

가장 많은 25,000/g개를 보이다 상층인 퇴적물17(69.960m)에서는 10,000/g개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이 zone에서는 벼의 출현 및 개수의 꾸준한 증가가 이어졌고, 기장族 역시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한 출현이 있었다. 반면, 갈대屬은 출현개수가 급감하였고, 쇠풀族도 증감의 반복이후 현저히 줄었다.

다. G2C: 69.960~70.630m

69.960m에서 70.225m까지는 Sandy clay의 토성이고, 이후부터 표층(70.630m)까지는 Silty clay이다. 벼는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17(69.960m)에서는 40,100/g개를 보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상층인 퇴적물20(70.350m)에서는 6,000/g개로 밀도가 낮아졌다. 갈대屬은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17(69.960m)에서 2,000/g개의 낮은 출현을 보였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상층인 퇴적물20(70.350m)에서는 6,000/g개가 검출되었다. 기장族은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17(69.960m)에서 37,000/g개가 검출되었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상층인 퇴적물20(68.120m)에서는 25,000/g개가 나왔다. 쇠풀族은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17(69.960m)에서 10,000/g개가 검출되었고, 증감을 반복하다 상층인 퇴적물20(70.350m)에서는 5,000/g개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이 zone에서는 벼와 갈대屬 및 쇠풀族의 출현 개수가 급감하였고, 반면 기장族은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한 출현을 통해 이 zone의 상층에서 우점하였다.

3. Site 3

Site 3은 벼와 갈대屬 및 쇠풀族의 출현 개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2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바닥(76.000m)에서 77.190m까지를 G3A zone으로, 77.190m에서 표층인 78.570m까지를 G3B zone으로 나누었다.

가. G3A: 76.000~77.190m

바닥(76.000m)에서 78.525m 층위 사이는 Sand의 토성이고, 76.525m에서 76.680m까지는 Clayey sand이며, 76.680m에서 77.015m까지는 Sandy clay이다. 77.090m 지점은 Silty sand이고, 77.160m 지점은 Sandy clay이며, 77.180m 지점은 Silty clay이다.

벼는 퇴적물7(76.605m)에서 처음으로 3,000/g개가 출현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서서히 늘어났다. 갈대屬은 퇴적물5(76.425m)에서 처음으로 3,000/g개가 출현한 후 퇴적물6(76.560m)에서 29,100/g개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감을 반복하며 이 zone의 상층인 퇴적물20(77.180m)에서 92,800/g개로 가장 높은 밀도로 검출되었다. 쇠풀族도 퇴적물6(76.560m)에서 처음으로 7,000/g개가 출현한 후 급속한 증가와 꾸준한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퇴적물17(77.015m)에서 70,000/g개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 후 이 zone의 상층인 퇴적물20(77.180m)에서 57,900/g개로 조금 낮아졌다. 기장族은 바닥쪽 퇴적물1(76.060m)에서 1,000/g개가 출현한 후 퇴적물7(76.605m)에서 9,000/g개로 늘었고, 이후 꾸준한 증감을 반복하면서, 퇴적물17(77.015m)에서 35,000/g개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다가 이 zone의 상층인 퇴적물20(77.180m)에서 29,900/g개로 조금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이 zone에서는 갈대屬이 바닥쪽에서 우점하면서 쇠풀族, 기장族과 함께 증가하였다. 벼는 미미한 정도의 출현을 보이면서 서서히 증가하였다.

나. G3B : 77.190~78.570m

77.190m에서 78.570m 층위 사이의 토성은 전체적으로는 Gravelly sandy clay이고 하층인 77.190m에서 77.295m까지는 Sandy clay이다. 벼는 이 zone의 하층인 퇴적물21(77.230m)에서 30,100/g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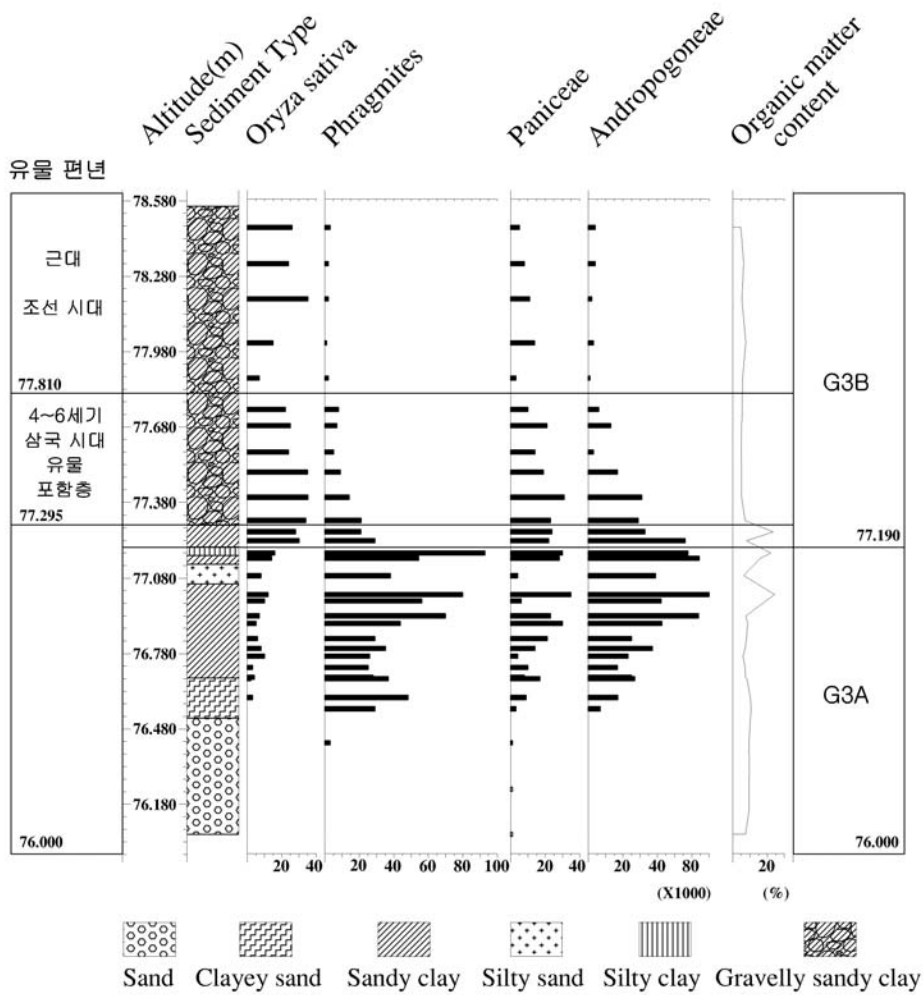


그림 7. 부산 기장 가동 유적지 Site 3의 식물규산체 변천도

검출되었고, 꾸준히 증가하여 퇴적물24(77.400m)에서는 35,100/g개가 나왔다. 퇴적물29(77.870m)에서 일시적으로 7,000/g개까지 급감하였으나, 퇴적물31(78.190m)에서 35,100/g개, 표층에 가까운 퇴적물33(78.475m)에서 26,000/g개가 검출되었다. 갈대屬은 퇴적물20(77.180m)의 출현 개수 92,800/g개에 비해 급감하여 이 zone의 바닥쪽인 퇴적물21(77.230m)에서 29,100/g개가 출현하였고, 이후 계속 급감하여 상층인 퇴적물29(77.875m)에서 퇴적물33(78.475m)사이에는 1,000~3,000/g개의 낮은 밀도를 보였다. 쇠풀族도 갈대屬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이 zone의 바닥쪽인 퇴적물21(77.230m)에서 56,200/g개가 출현하였고,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여 퇴적물26(77.580m)에서 3,000/g개가 검출된 후 표층에 가까운 퇴적물33(78.475m)까지 약 1,000~4,000/g개의 낮은 밀도를 보였다. 기장族은 하층인 퇴적물21(77.230m)에서 22,100/g개가 검출된 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퇴적물24(77.400m)에서 31,100/g개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퇴적물29(77.875m)에서 3,000/g개, 표층에 가까운 퇴적물33(78.475m)에서 5,000/g개로 급감했다.

전체적으로 이 zone에서는 벼의 꾸준한 출현개수 증가와 상층에서의 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대屬과 쇠풀族 및 기장族이 상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IV. 고찰

1. 식물규산체 분석에서 추정된 식생과 환경

조사지점 3곳에서 모두 갈대屬과 쇠풀族 식물규산체가 연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갈대屬은 Site 1의 바닥 쪽 퇴적물1(68.670m)과 Site 2의 바닥쪽 퇴적물1(68.840m)에서 각각 74,200개/g와 165,000개/g로 높은 밀도로 검출되었다가 Site 1의 표층쪽 퇴적물29(70.700m)와 Site 2의 표층쪽 퇴적물20(70.350m)에서 각각 3,000개/g와 6,000개/g로 급감했다. Site 3에서는 바닥쪽 퇴적물1(76.060m)에서 퇴적물4(76.335m)까지는 갈대屬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퇴적물5(76.425m)에서 처음으로 3,000개/g가 검출된 후 퇴적물6(76.560m)에서 29,000개/g로 급격히 늘어났고, 퇴적물20(77.180m)에서 92,800개/g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다. 이후 점점 출현개수가 줄어 표층쪽 퇴적물33(78.475m)에서 5,000개/g로 급감했다.

쇠풀族은 Site 1의 바닥쪽 퇴적물1(68.670m)과 Site 2의 바닥쪽 퇴적물1(68.840m)에서 각각 15,000개/g와 15,900개/g로 높은 밀도로 검출되었다가 Site 1의 표층쪽 퇴적물29(70.700m)와 Site 2의 표층쪽 퇴적물20(70.350m)에서 각각 6,000개/g와 5,000개/g로 밀도가 낮아졌다. Site 3에서는 쇠풀族이 바닥 쪽 퇴적물1(76.060m)에서 퇴적물5(76.425m)까지는 검출되지 않는 않았으나 퇴적물6(76.560m)에서 7,000개/g가 검출된 후 퇴적물17(75.935m)에서 70,000개/g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다. 이후 점점 출현개수가 줄어 표층쪽 퇴적물33(78.475m)에서 4,000개/g로 급감했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지점 3곳의 바닥쪽이나 바닥에 가까운 퇴적물에서 갈대屬과 쇠풀族의 식물규산체가 높은 밀도로 검출된 점으로 보아 이들 층이 퇴적될 당시에 이곳은 유속이 느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토사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입지에서 갈대(*Phragmites communis*)와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를 중심으로 하는 하천변 초본식생(Herb vegetation along river)이 발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쪽에서 표층쪽으로 올라갈수록 퇴적물에서 갈대屬과 쇠풀族 식물규산체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벼의 식물규산체 밀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濕한 환경을 이용하여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벼농사 가능성의 검토

벼농사 흔적의 검증과 탐사(探査)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벼의 기동세포 식물규산체가 시료 1g 당 5,000개 이상의 높은 밀도로 검출되는 경우에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杉山, 2000).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판단기준을 시료 1g 당 5,000개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벼농사 개시기에 대한 연대 추정은 울산대학교박물관에서 제시한 유물편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 Site 1

Site 1의 퇴적물1(바닥쪽, 68.670m)에서 퇴적물29(표층쪽, 70.700m)까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퇴적물8(69.030m)에서 처음으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23,900/g가 나왔고, 이후 표층쪽 퇴적물29(70.700m)까지 벼의 기동세포 식물규산체가 모두 검출되었다. 이 중 퇴적물17(69.520m)에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 밀도가 59,900개/g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나머지 퇴적물에서도 9,000~59,900개/g로 높게 나왔다.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처음으로 23,900/g가 검출된 퇴적물8(69.030m)을 유물편년으로 대조해 볼 때 Site 1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Site 2

Site 2의 퇴적물1(바닥쪽, 68.840m)에서 퇴적물20(표층쪽, 70.350m)까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퇴적물6(69.105m)에서 처음으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11,000/g가 나왔고, 이후 표층쪽 퇴적물 20(70.305m)까지 모두 벼가 검출되었다. 이 중 퇴적물14(69.475m)에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 밀도가 42,800개/g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퇴적물에서도 6,000~42,800개/g로 높게 나왔다.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처음으로 11,000/g가 검출된 퇴적물6(69.105m)을 유물편년으로 대조해 볼 때 Site 2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Site 3

Site 3의 퇴적물1(바닥쪽, 76.060m)에서 퇴적물33(표층쪽, 78.475m)까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처음으로 퇴적물7(76.605m)에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3,000/g가 나왔고, 이후 표층쪽 퇴적물 33(78.475m)까지 모두 검출되었다. 이 중 퇴적물15(76.930m)와 퇴적물24(77.400m)에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 밀도가 35,100개/g로 가장 높게 나왔고, 퇴적물7(76.605m)~퇴적물10(76.725m)까지는 2,000~4,000개/g로 밀도가 낮았다. 그중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처음으로 판단기준인 5,000/g개를 넘은 10,000/g가 검출된 퇴적물11(76.770m)을 유물편년으로 대조해 보았다. 퇴적물11(76.770m)이 속한 지점은 4~6세기 삼국시대 유물포함층의 아래에 있고, Site 1과 Site 2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청동기시대로 추정은 되나, 청동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므로 Site 3에서는 4세기 이전에는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만 판단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Site 1, Site 2, Site 3의 아래쪽 퇴적물에서 표층쪽 퇴적물까지 연속적으로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전체적으로 높은 밀도로 검출된 점과 벼의 기동세포 규산체가 검출된 퇴적물에 대한 유물편년과의 대조 및 2005년 울산대학교박물관 조사단의 지표조사와 시굴조사에서 3~7세기의 건물지 167기와 석곽 및 석실 14기, 청동기 시대 주거지 3기가 이 곳 유적지에서 확인된 점, 그리고 가동 유적지에서 북북동방향으로 약 37km 떨어진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황토전유적지의 식물규산체 분석에서 삼국시대 수전 유구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는 분석결과를 통하여 볼 때 청동기 시대에 이곳 기장 가동지역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었다고 추정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가동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의 고분과 굴립주건물지, 저습지유구 및 기타 유구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았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동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특히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유구는 가동유적의 조사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국시대의 취락이 전체적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생활공간과 분묘공간이 한꺼번에 확인됨으로서 삼국시대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간의 관련성, 그리고 생활유적내에서도 주거공간과 저장공간 등의 공간 배치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 점은 본 조사의 귀중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기재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관지역에서 조사된 방곡리 가, 나 지구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들과 마찬가지로 정관지역 일대에 청동기시대부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소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후대의 유구들이 중복하여 조성되면서 많은 유구들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흔적들로 보아 가동유적에서 조사된 5동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도 대개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자체적인 편년은 어렵지만 방곡리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거의 동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의 굴립주건물지와 저습지는 대개 5세기대에 형성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주거지와 저습지의 출토유물은 주로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며, 굴립주건물지는 중복관계에서 6세기대의 횡구식·횡혈식석실묘보다 선행한다는 점에서 5세기대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동유적의 취락은 5세기대를 중심연대로 하며 상한시기는 4세기대, 하한연대는 6세기대이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저장창고로 알려진 굴립주건물지는 전형적인 형태인 9주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굴립주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 굴립주건물지 가운데 일부에서는 당시에 사용된 나무기둥이 기둥구멍에 그대로 남은 상태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기둥재로 사용된 나무의 수종분석이 가능하였으며, 나무기둥으로 사용된 수종은 당시 주변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밤나무와 굴피나무 등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굴립주건물지는 삼국시대의 주거공간과 떨어진 별개의 공간에 입지하고 있다. 이점은 당시 주거공간과 저장공간이 별도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마을 공동의 저장공간이 운영되었다는 점은 당시 사회가 공동체 사회로서 소유관계에서 어느 정도 상호간 규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마을을 관통하여 흘렀던 하천에서는 생활용기를 비롯하여 자연유물과 인공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목제유물은 당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물들로서 가마니를 짜기 위한 도구로 추정되는 목제품과 목제신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목제 유물들이 저습지에서 확보되었다. 이들은 향후 삼국시대 목제 유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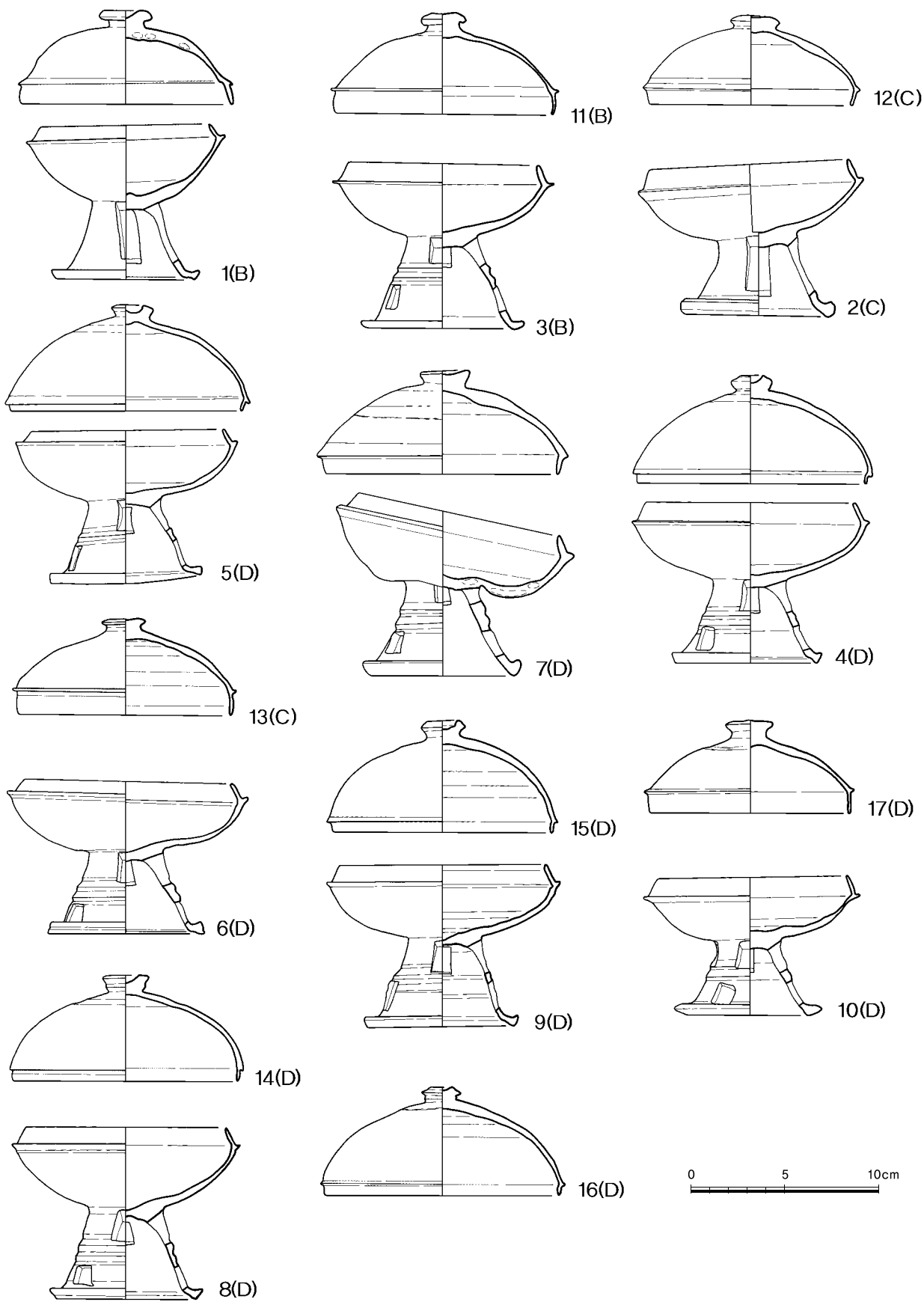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가장 가동유적에서 확보한 다양한 유구형태와 자연과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굴립주건물지, 저습지에서 확인된 식물유존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일단면을 유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중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한 4세기대의 어느 시점부터 이곳에는 논농사가 시작되었다. 재배식물은 벼를 비롯하여 밀, 기장, 등과 복숭아, 박, 참외 등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밀은 주거지에서 다량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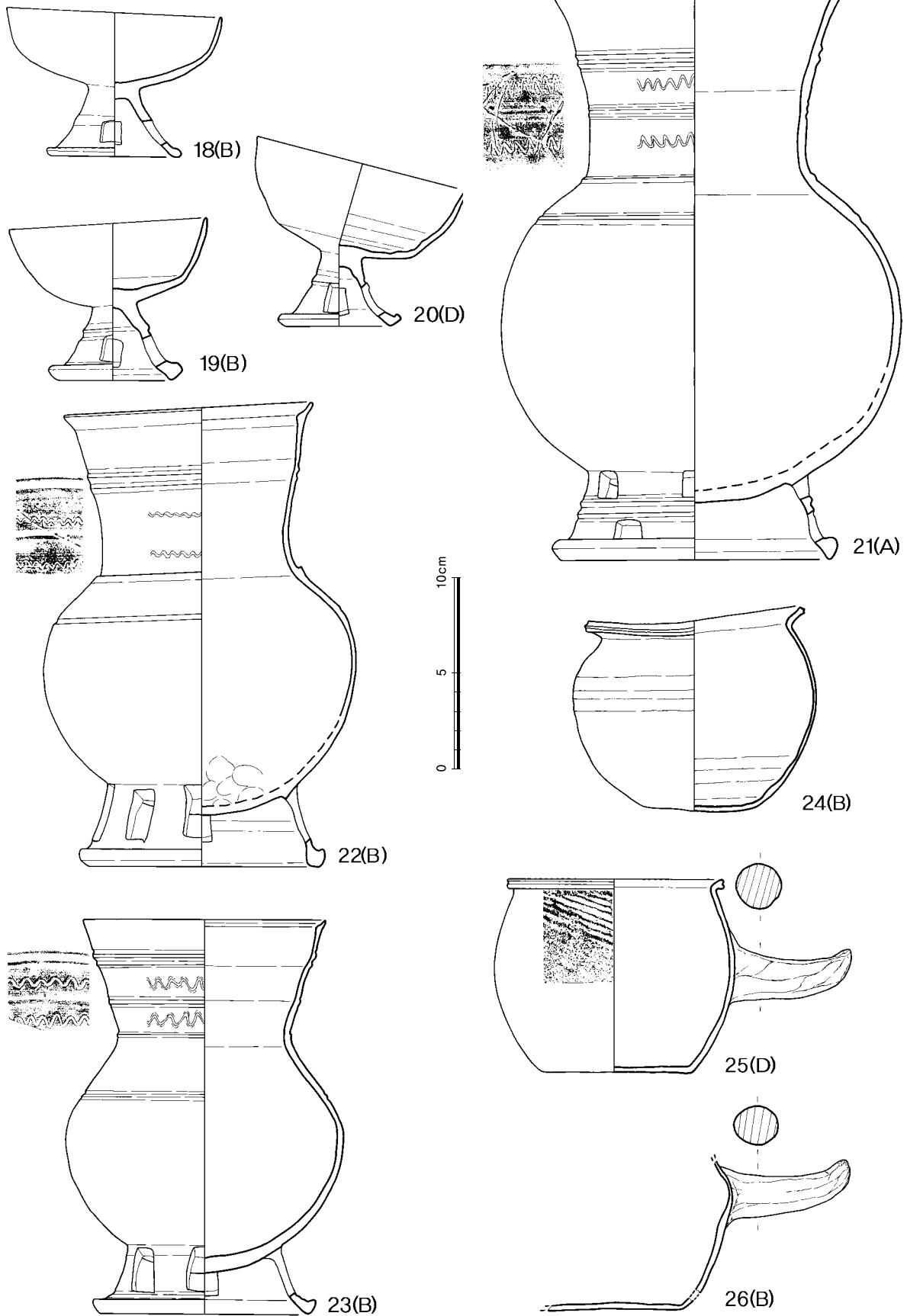
되기도 하여 당시의 식생활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굴립주건물지를 조성하면서 유적의 주변에 목재자원량이 많더라도 建築材로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역으로 자원량이 적으면서도 선택되어 사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재료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동유적은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삼국시대 생활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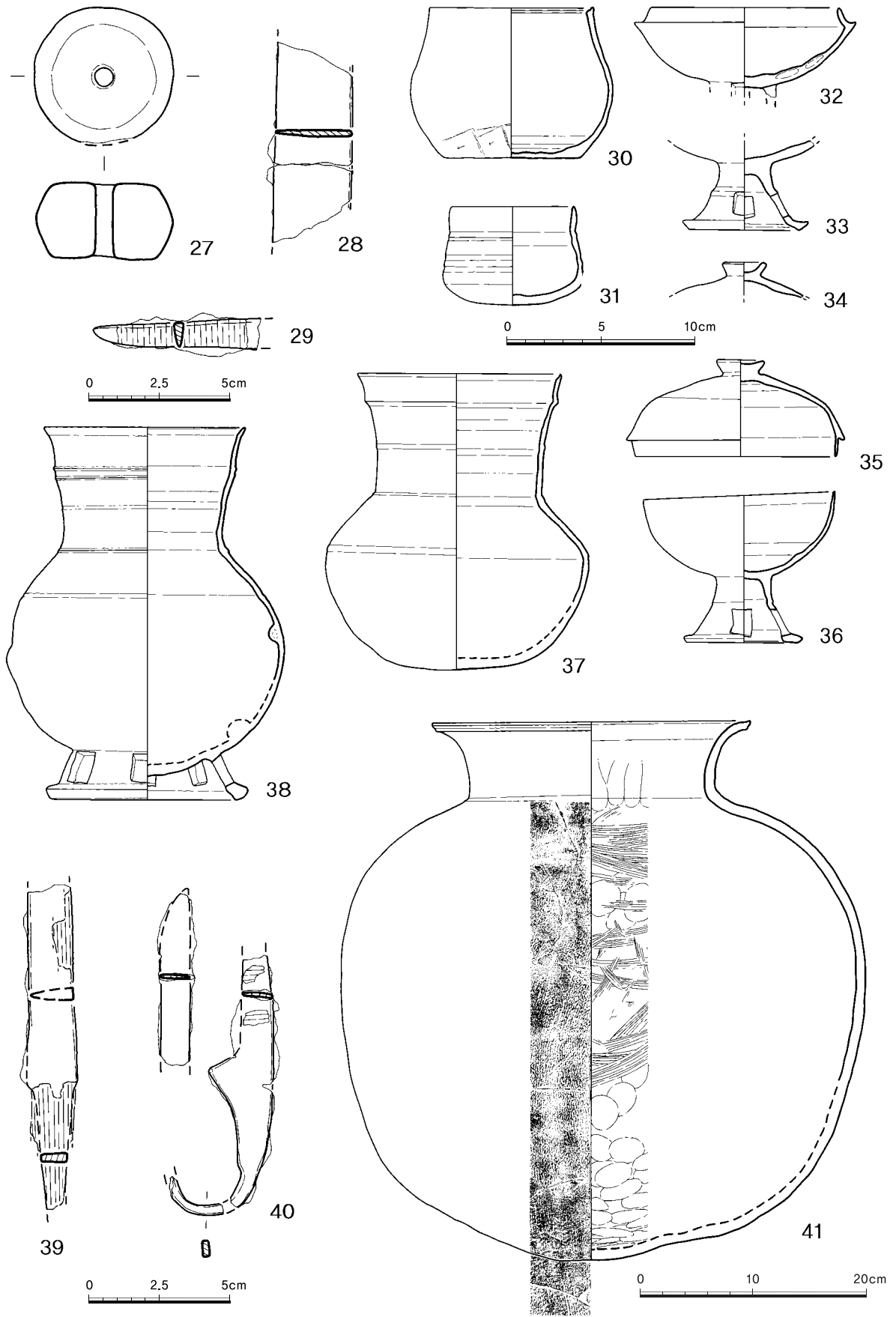
圖 面 (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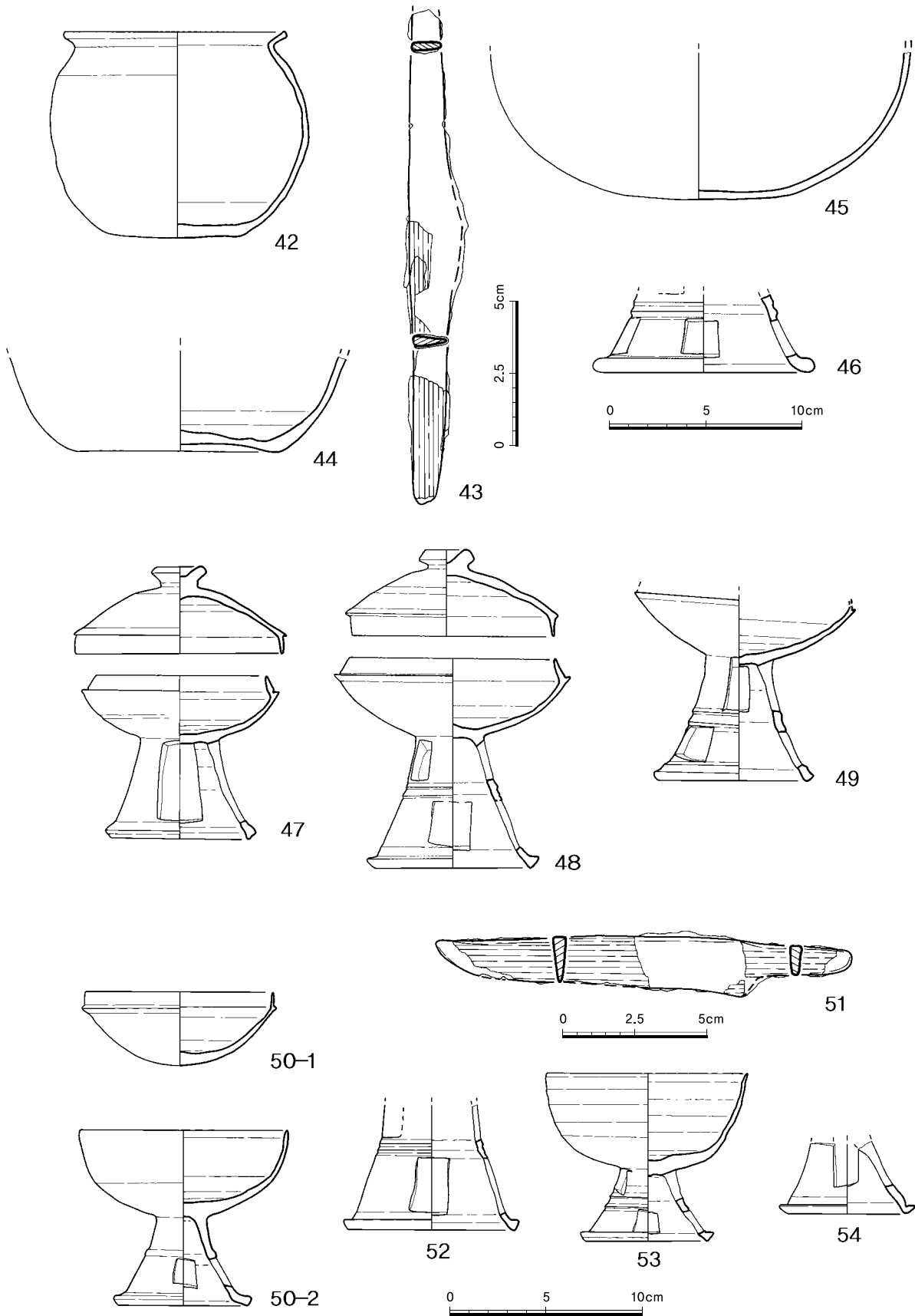
圖面 100. 1호 석실 출토유물 <1~1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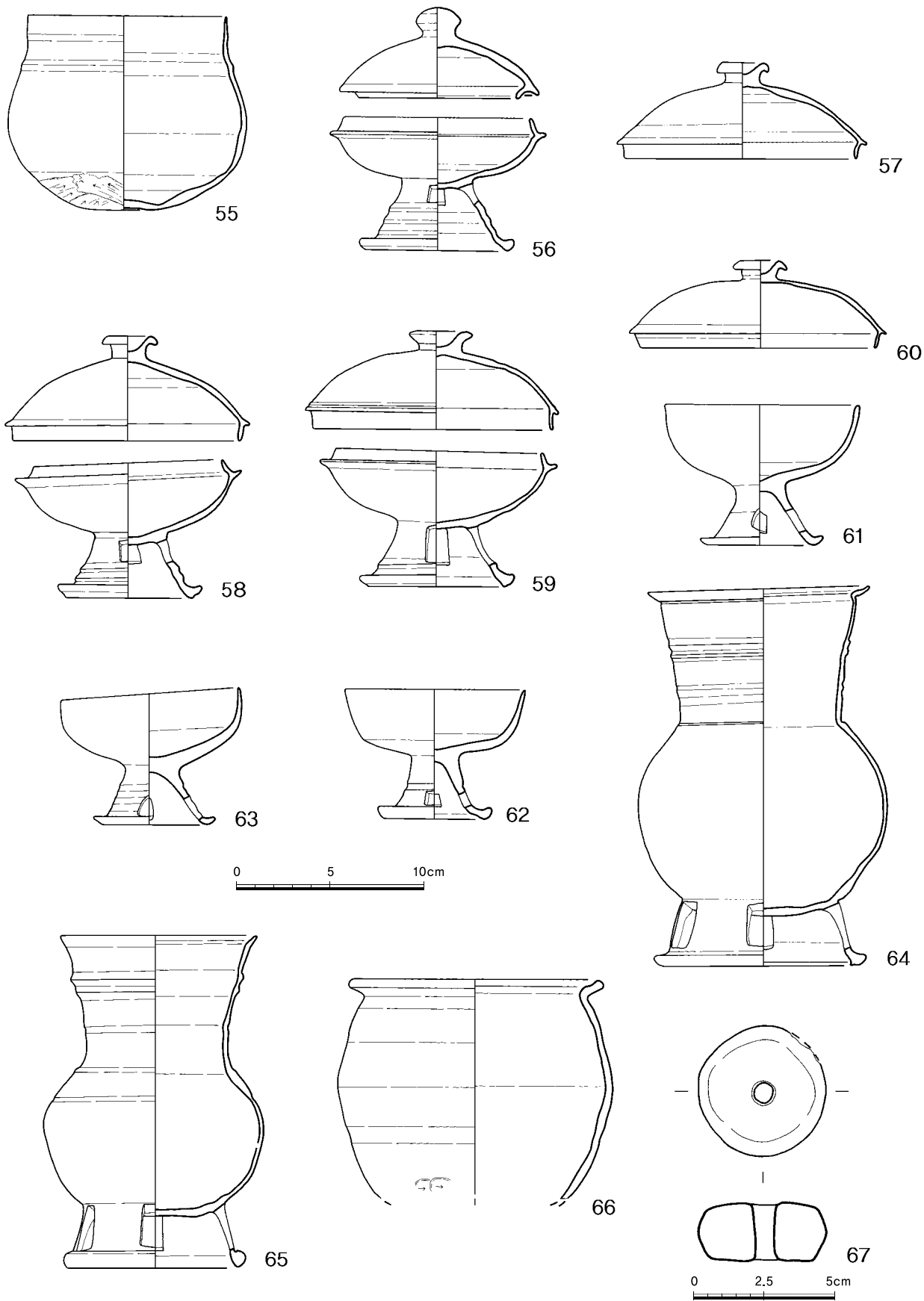
圖面 101. 1호 석실 출토유물 <18~2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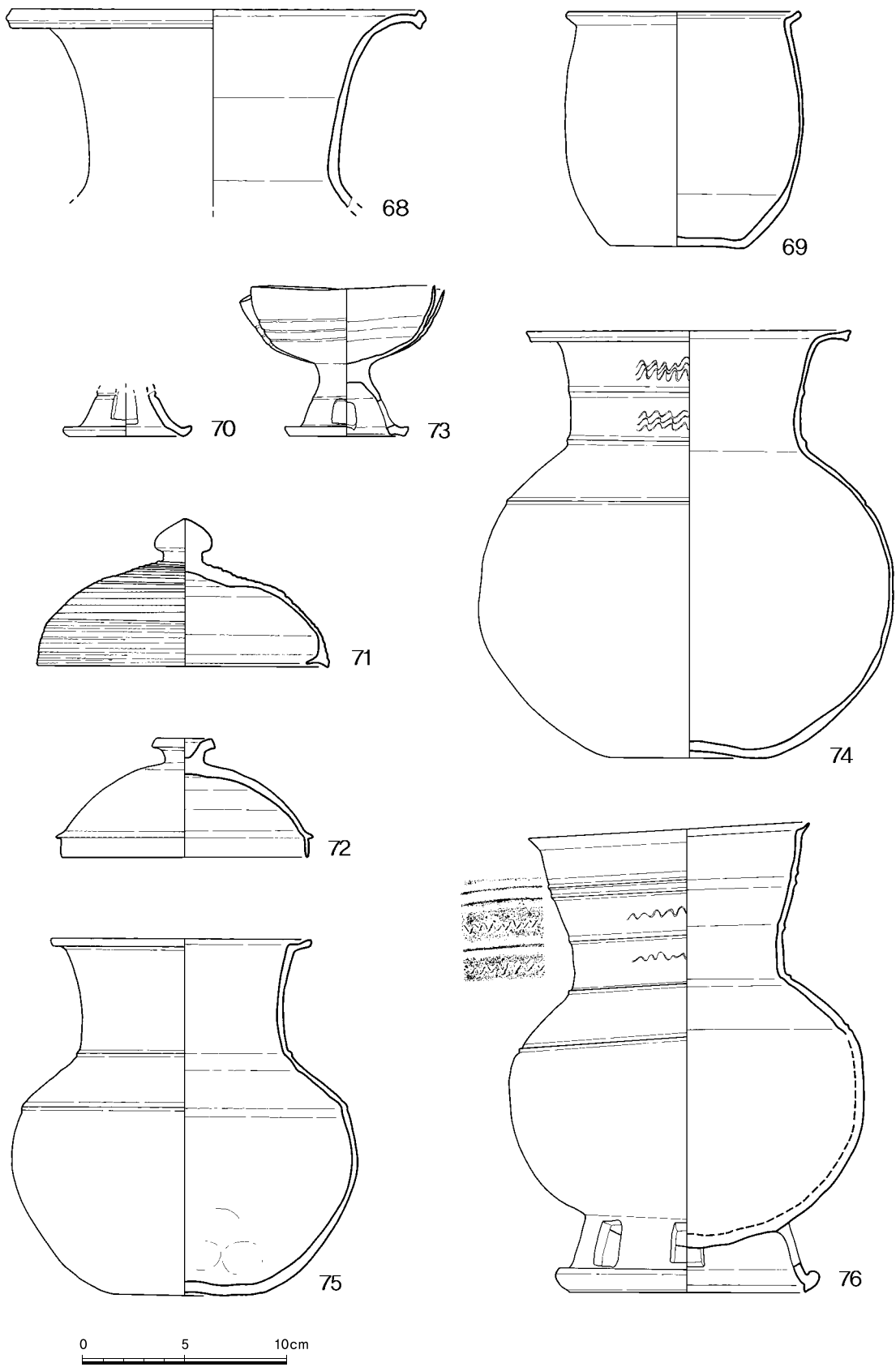
圖面 102. 1호 석실(27~34), 2호 석실(35~41) 출토유물(27~29 · 39 · 40: 1/2, 30~37: 1/3, 38: 1/4, 4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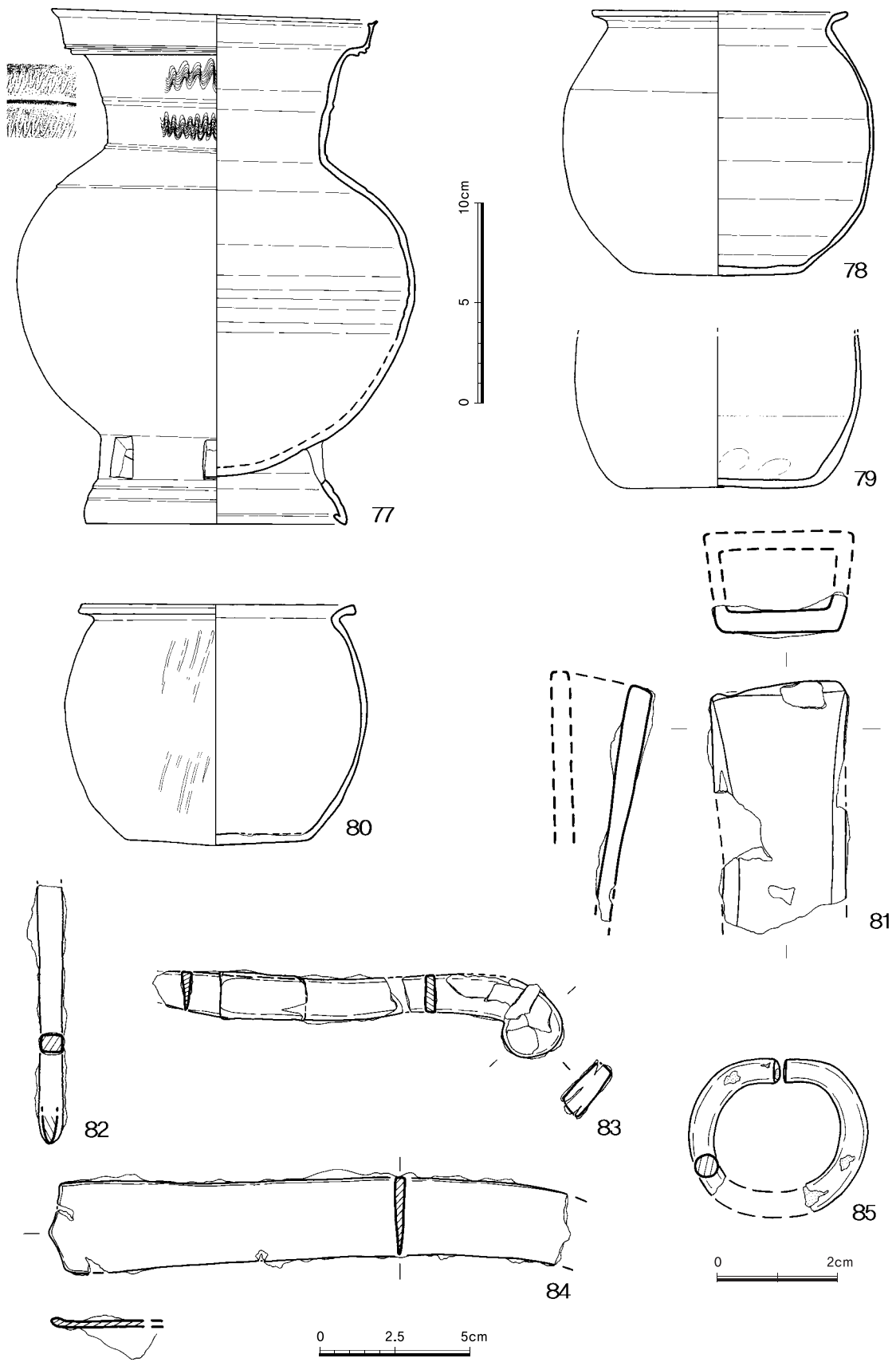
圖面 103. 3호 석실(42~44), 4호 석곽(45·46), 5호 석각(47~54) 출토유물(43·51: 1/2, 42·44~50·52·5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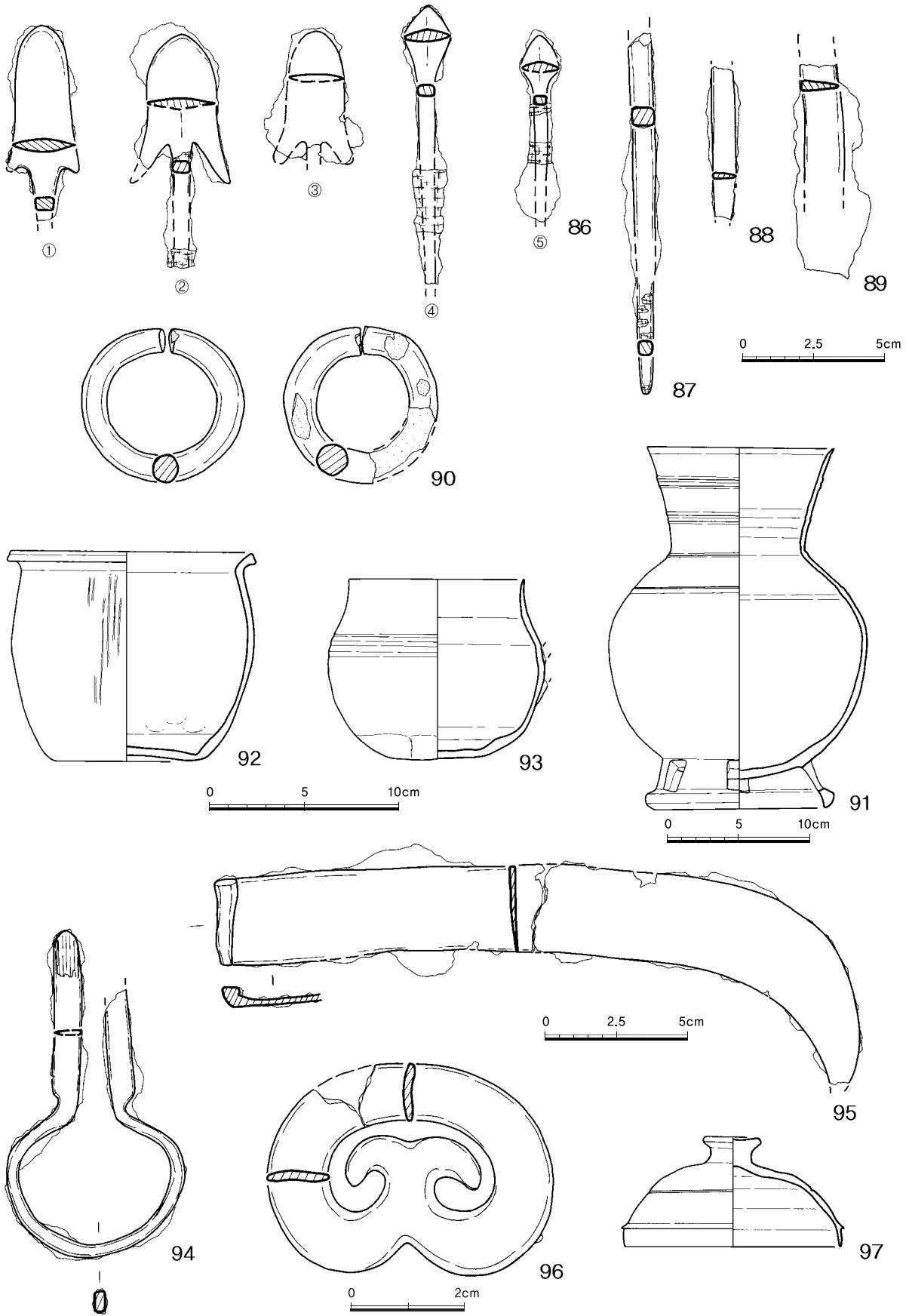
圖面 104. 5호 석곽(55), 6호 석곽(56~67) 출토유물<67: 1/2, 55~6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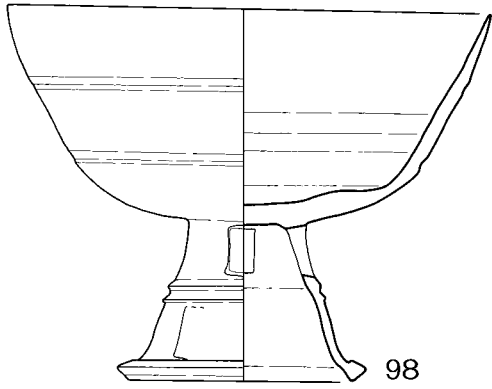
圖面 105. 6호 석곽(68), 7호 석곽(69·70), 8-1호 (71~76) 출토유물(68~7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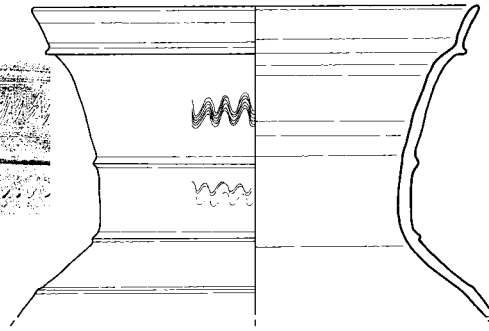
圖面 106. 8-1호 (77~85) 출토유물(85: 1/1, 81~84: 1/2, 77~8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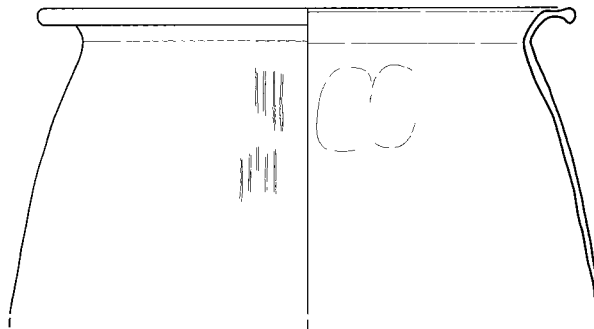
圖面 107. 8-1호 (86~97) 출토유물(90·96: 1/1, 86~89·94·95: 1/2, 92·93·97: 1/3, 9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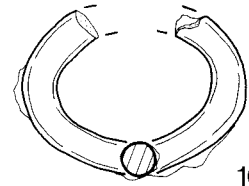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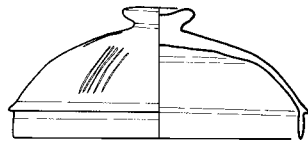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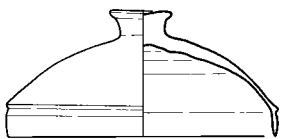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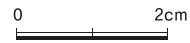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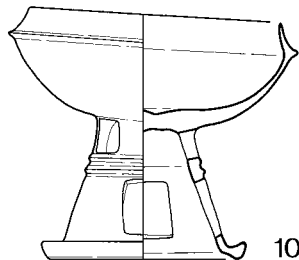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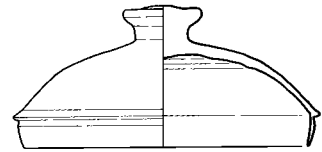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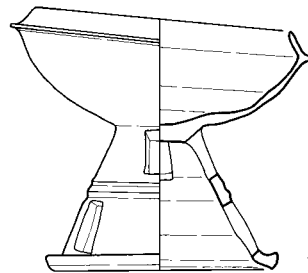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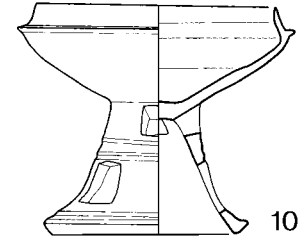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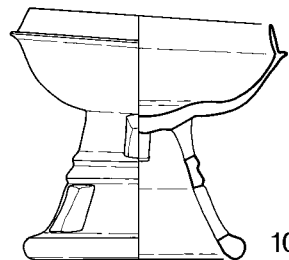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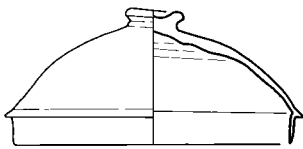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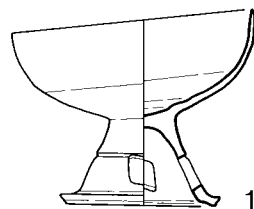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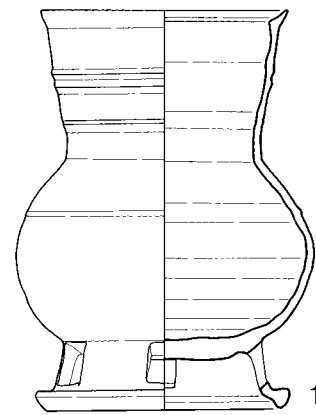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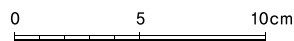
105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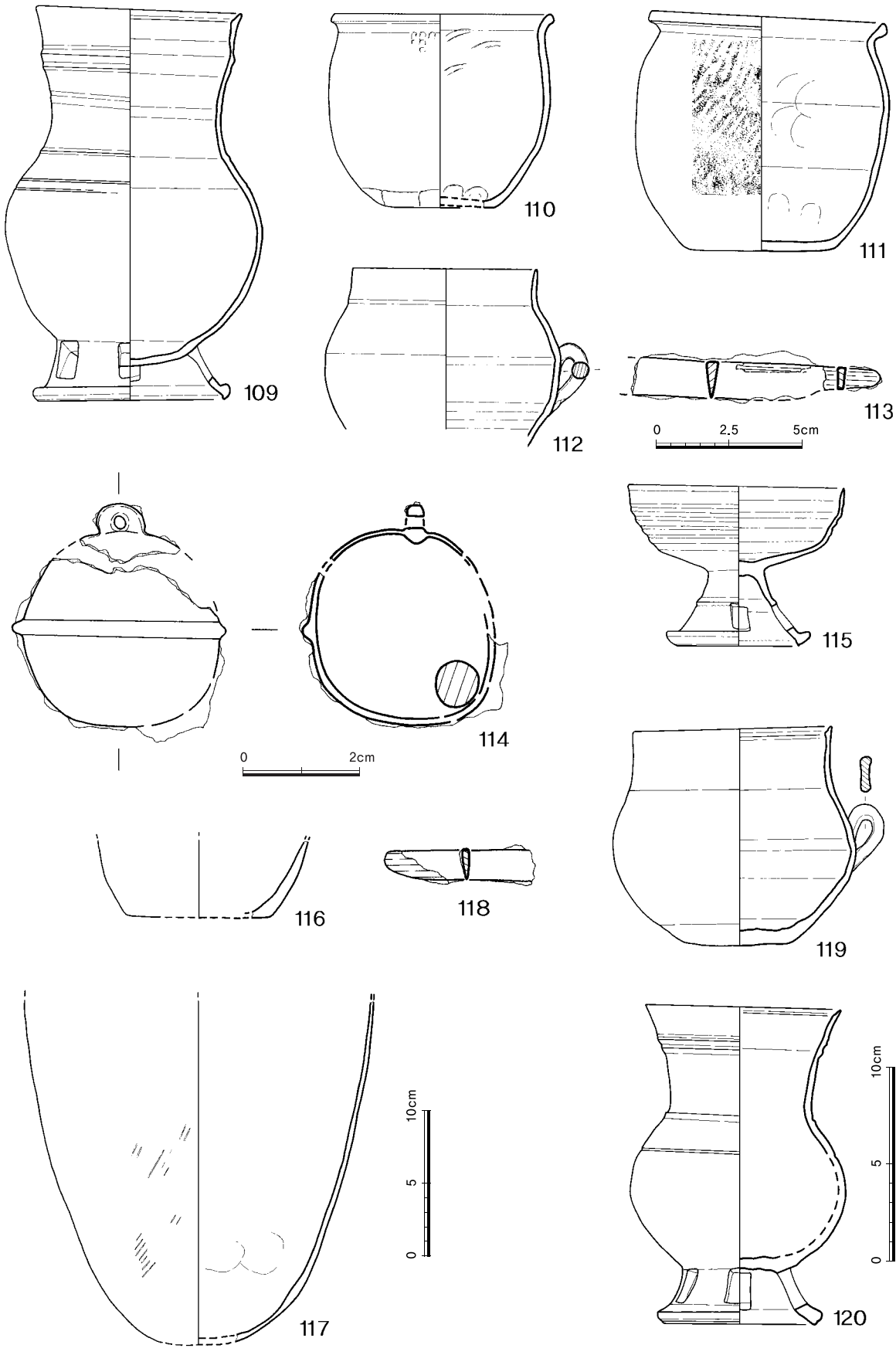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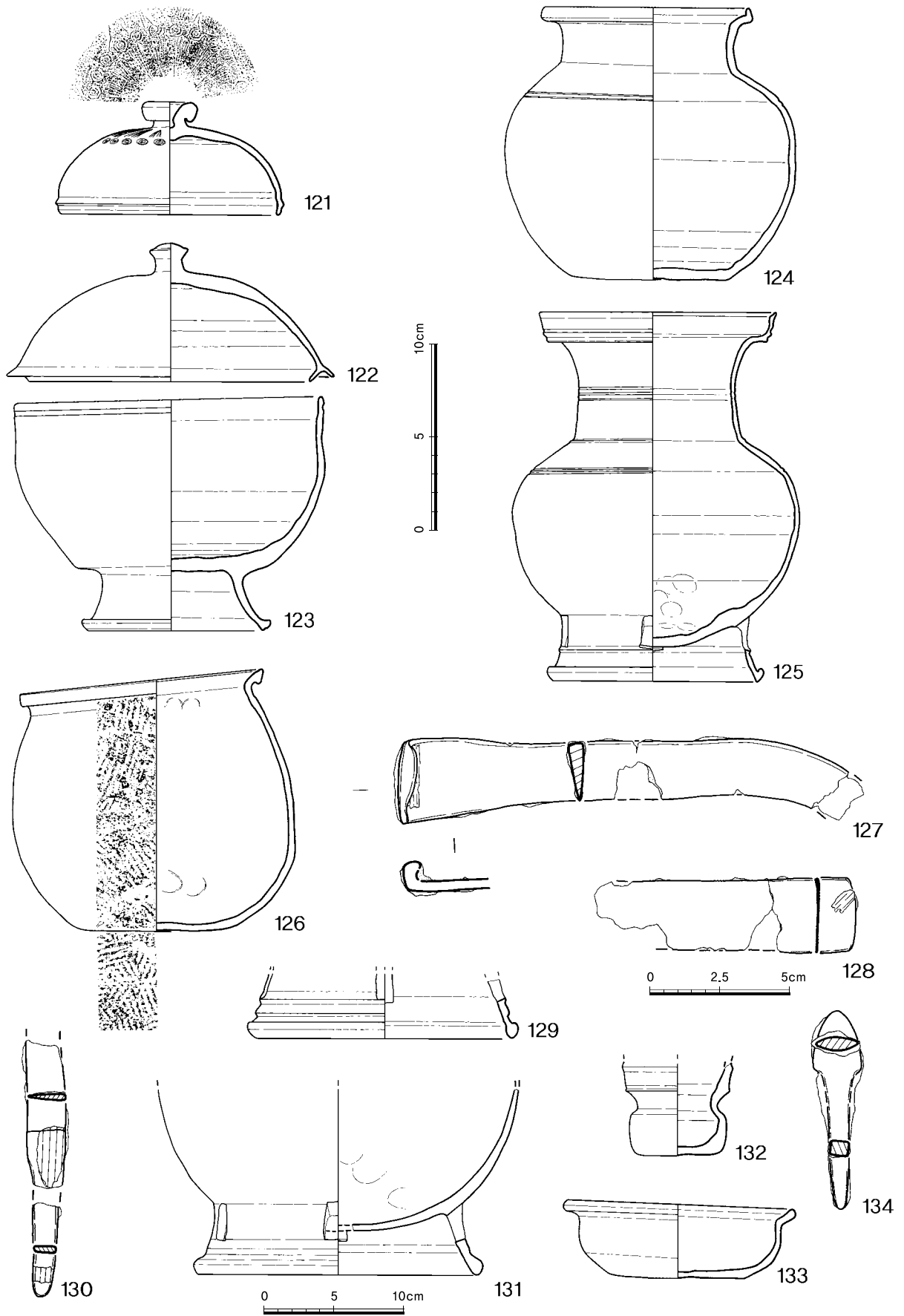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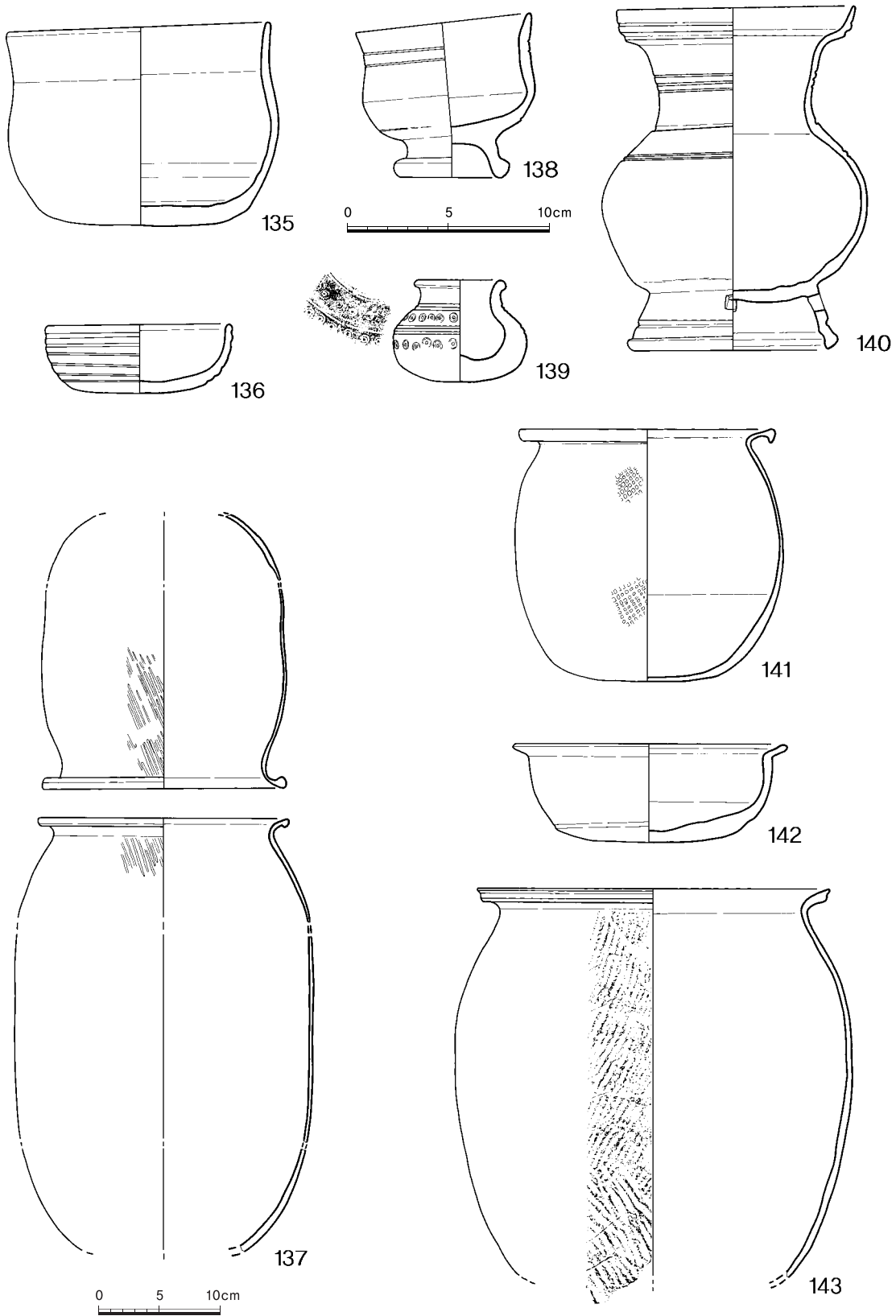
圖面 108. 8-1호(98~101), 8-2호(102~108) 출토유물<101: 1/1, 98~100·102~10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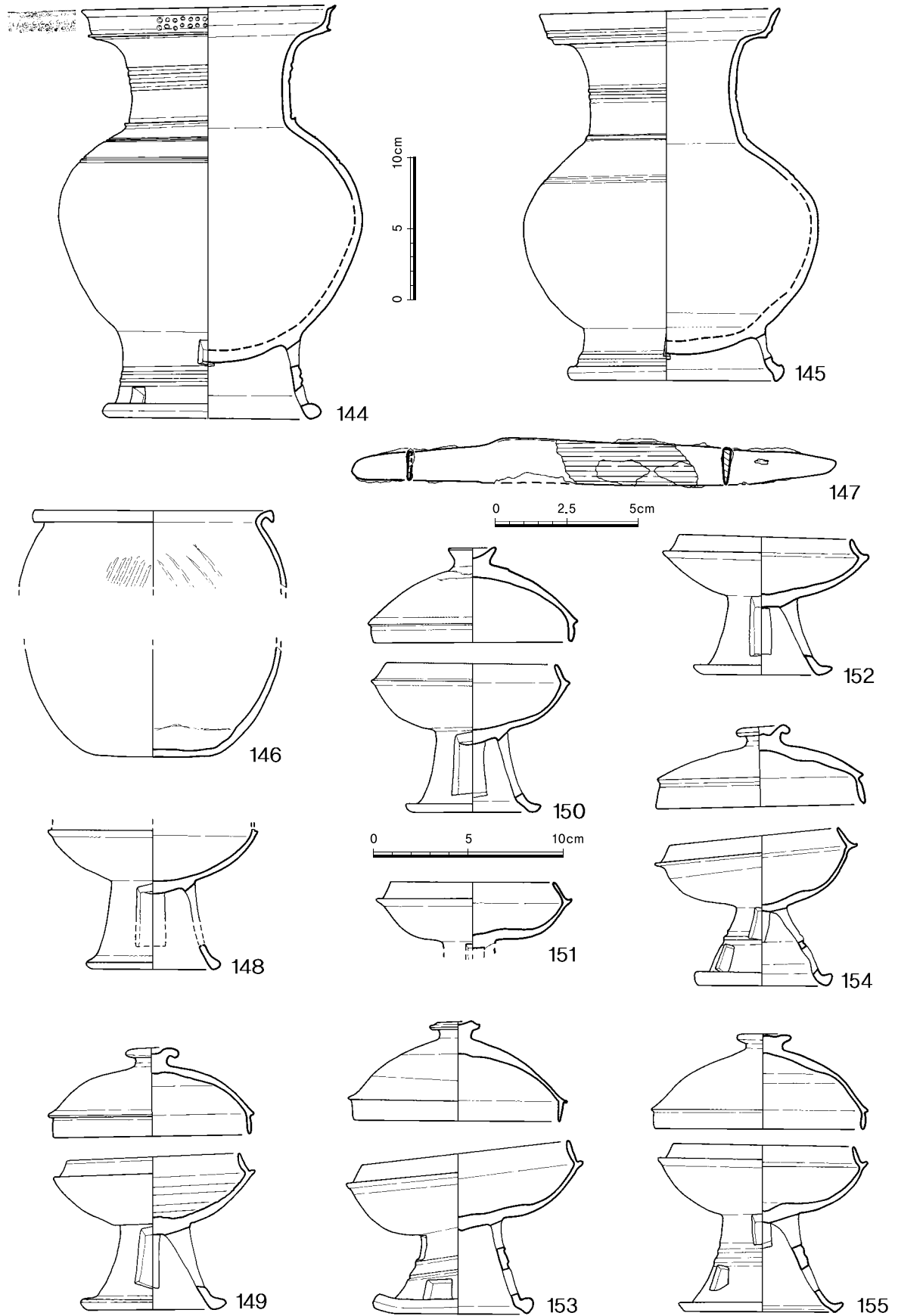
圖面 109. 8-2호(109~120) 출토유물<114: 1/1, 113·118: 1/2, 109~112·115·116·119·120: 1/3, 11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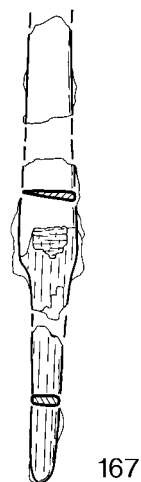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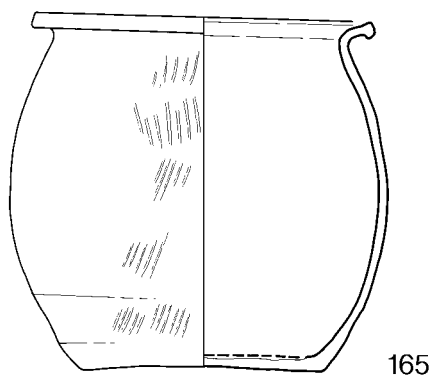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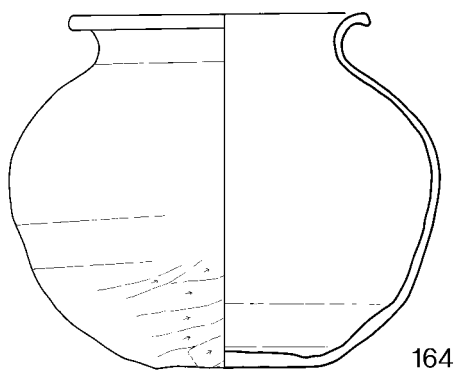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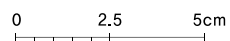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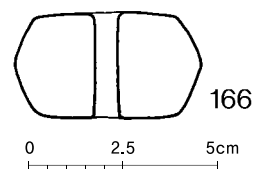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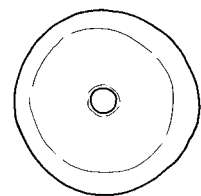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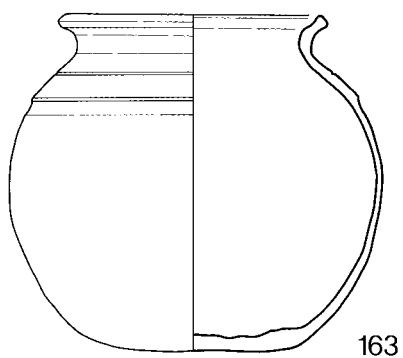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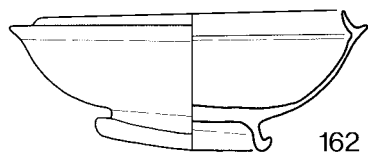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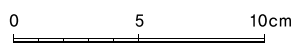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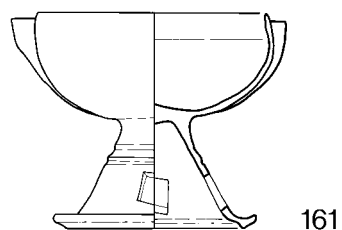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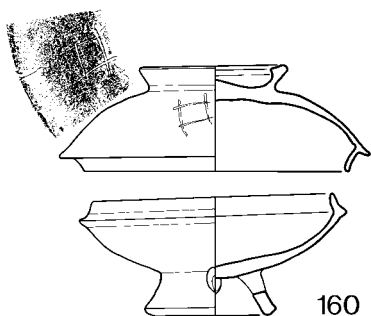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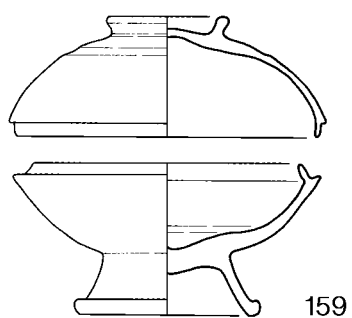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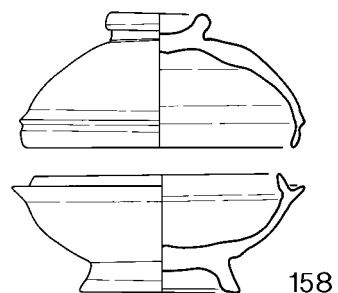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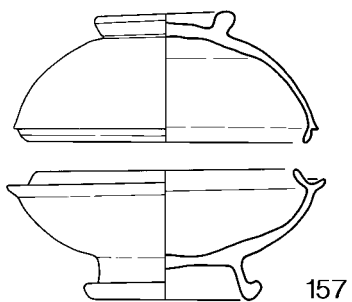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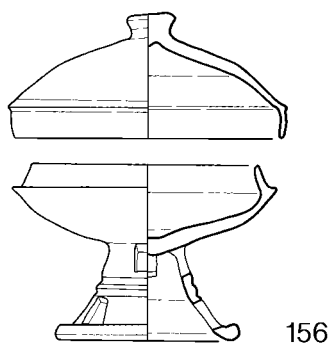
圖面 110. 9-1호(121~133), 9호 봉토·주구(134) 출토유물<127·128·130·134: 1/2, 121~126·129·132·133: 1/3, 13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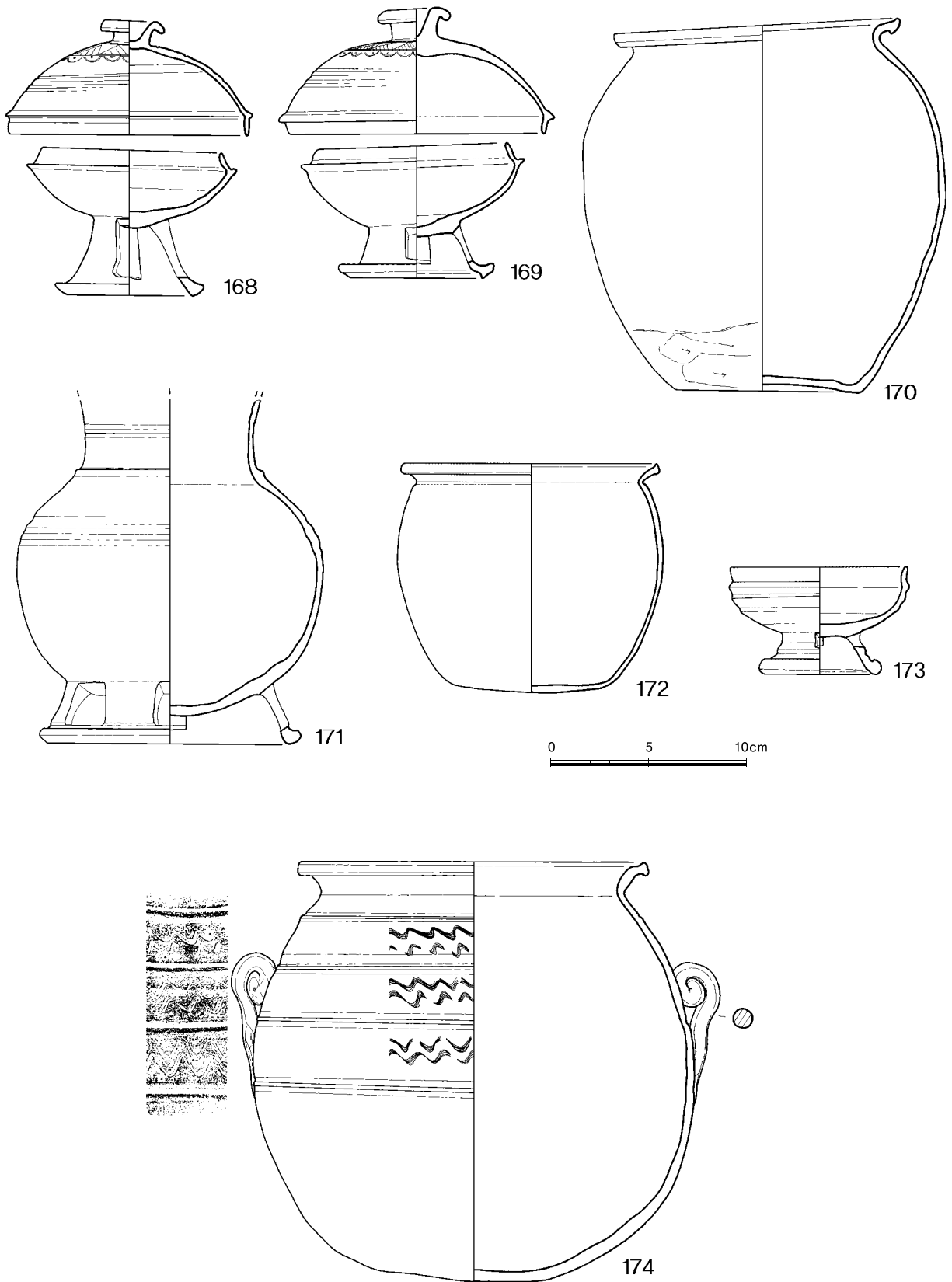
圖面 111. 9호 봉토·주구(135~137), 9-2호(138~141), 10호 석실(142·143) 출토유물<135·136·138~143: 1/3, 13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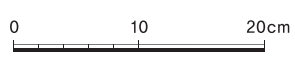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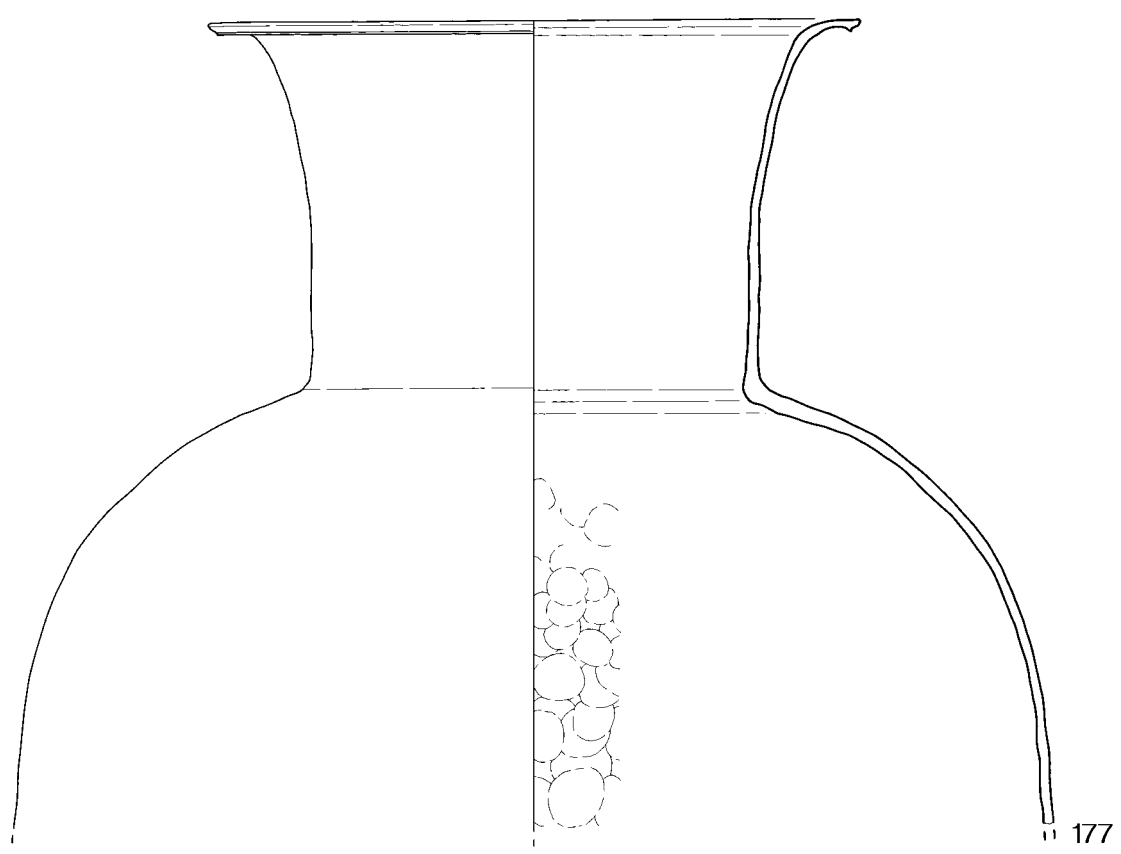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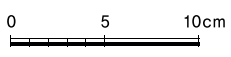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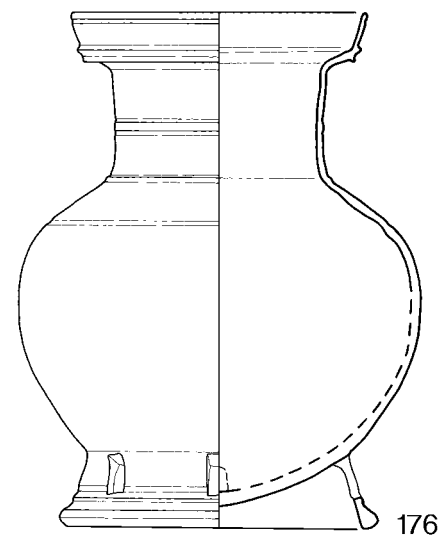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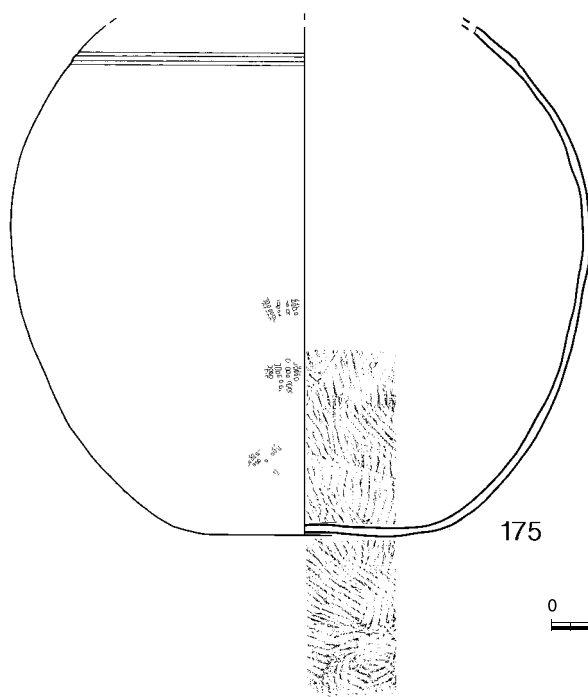
圖面 112. 10호 석실(144~147), 11-1호(148~155) 출토유물<147: 1/2, 148~155: 1/3, 144·14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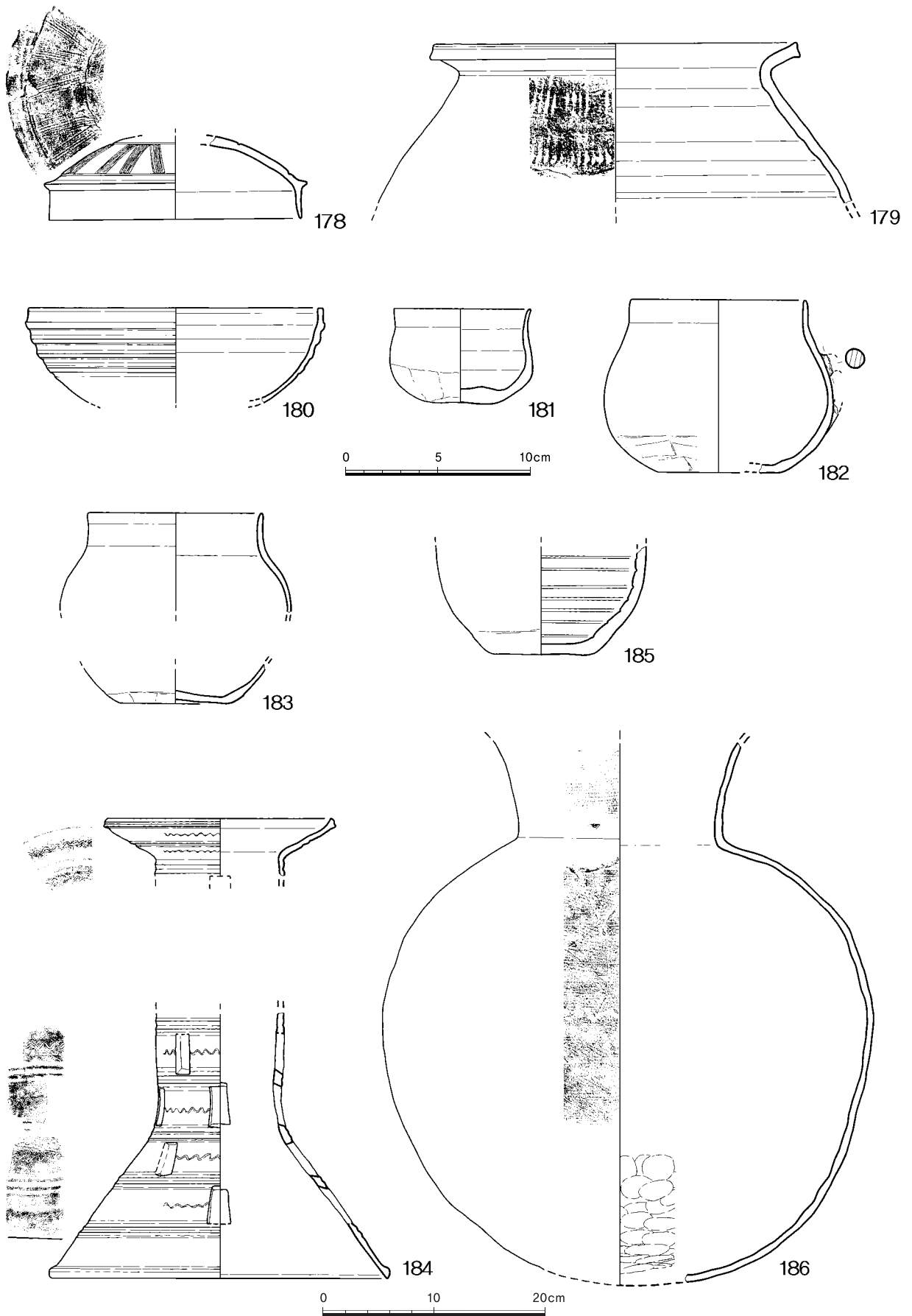
圖面 113. 11-1호(156~167) 출토유물<166·167: 1/2, 156~16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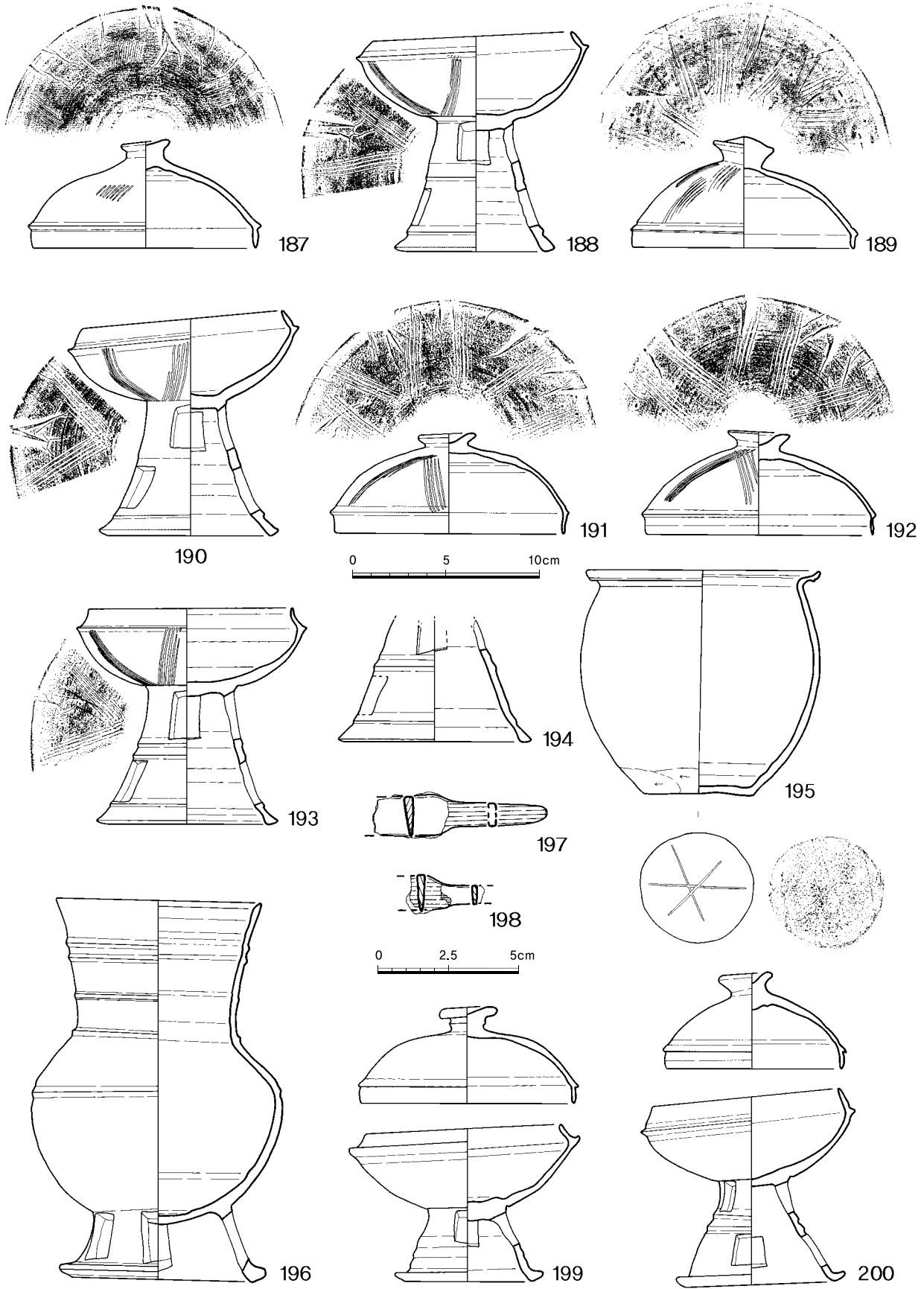
圖面 114. 11-2호(168~172), 11호 봉토(173·174) 출토유물(168~17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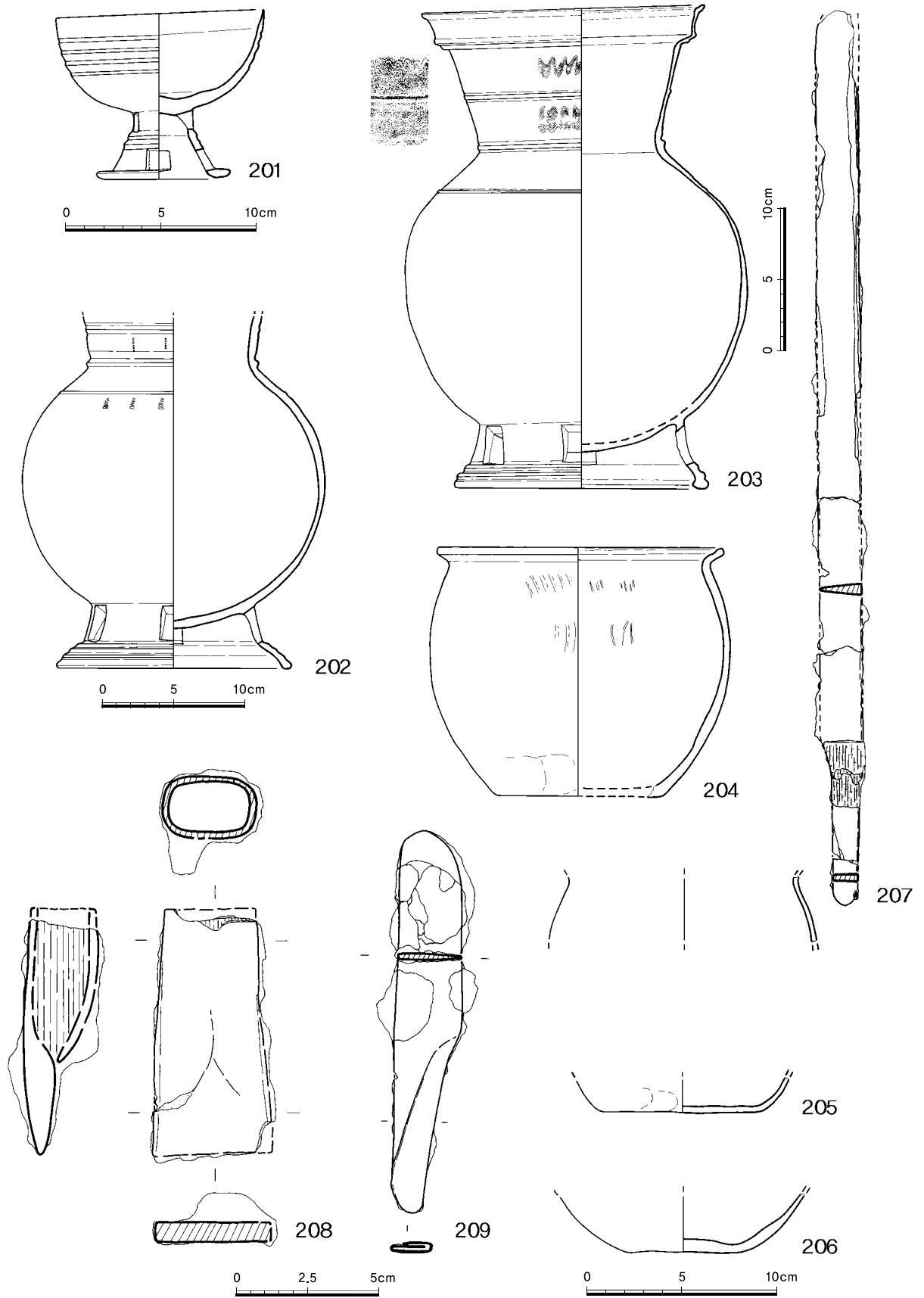
圖面 115. 11호 봉토(175~177) 출토유물<175 · 176: 1/4, 17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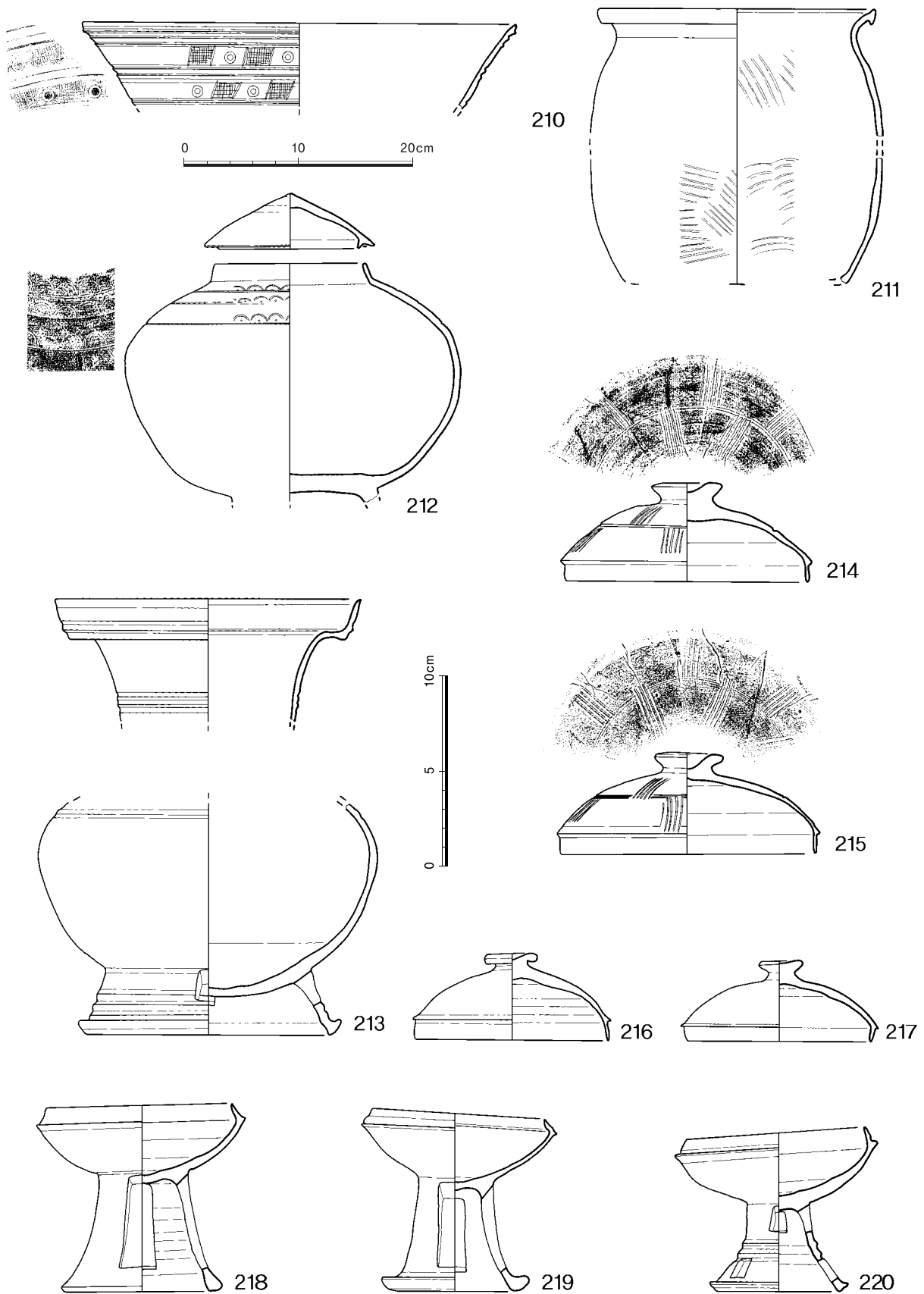
圖面 116. 11호 봉토(178~186) 출토유물<178~183·185: 1/3, 184·18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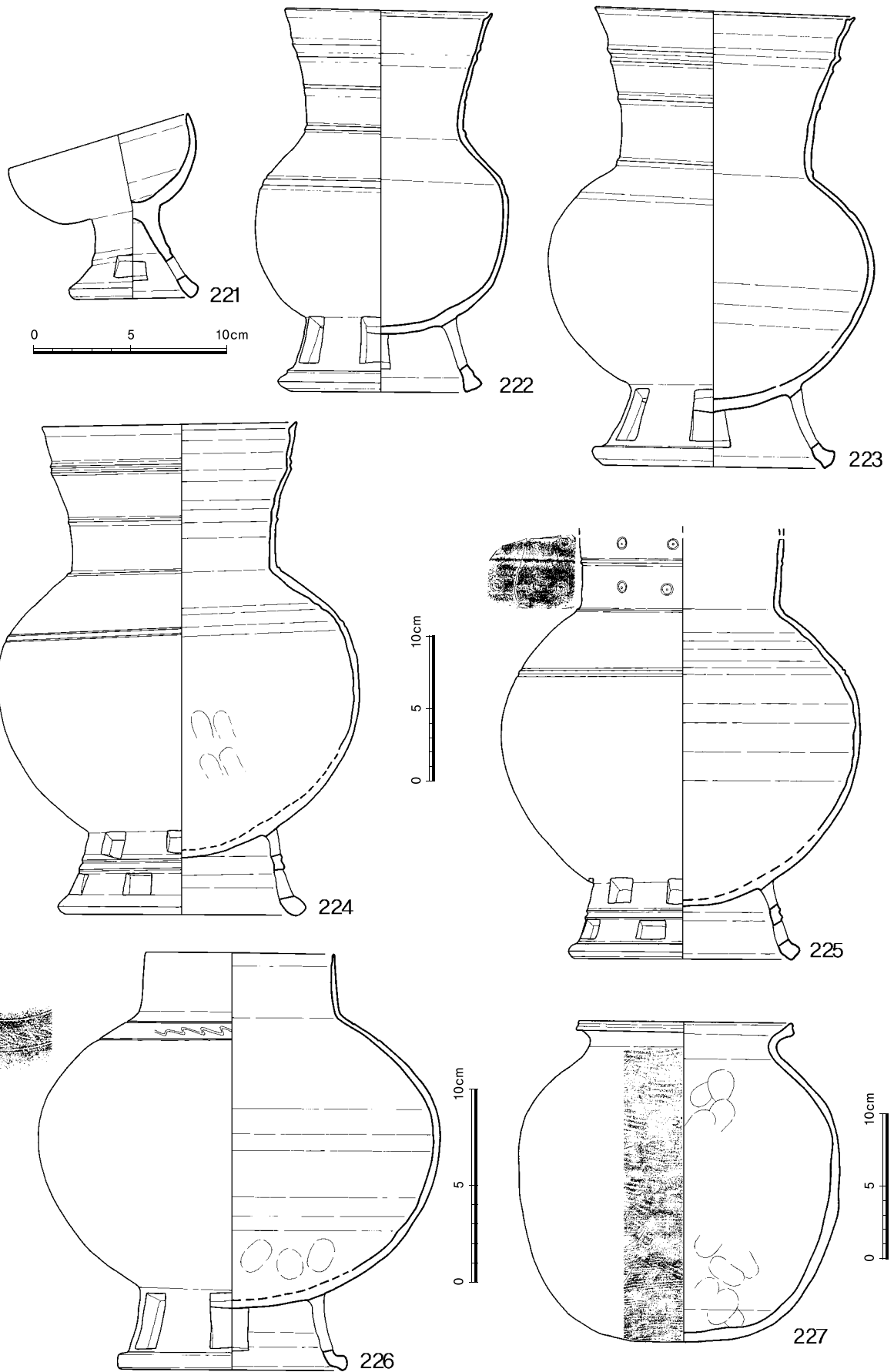
圖面 117. 12호 석곽(187~198), 13호 석곽(199·200) 출토유물(197·198: 1/2, 187~196·199·20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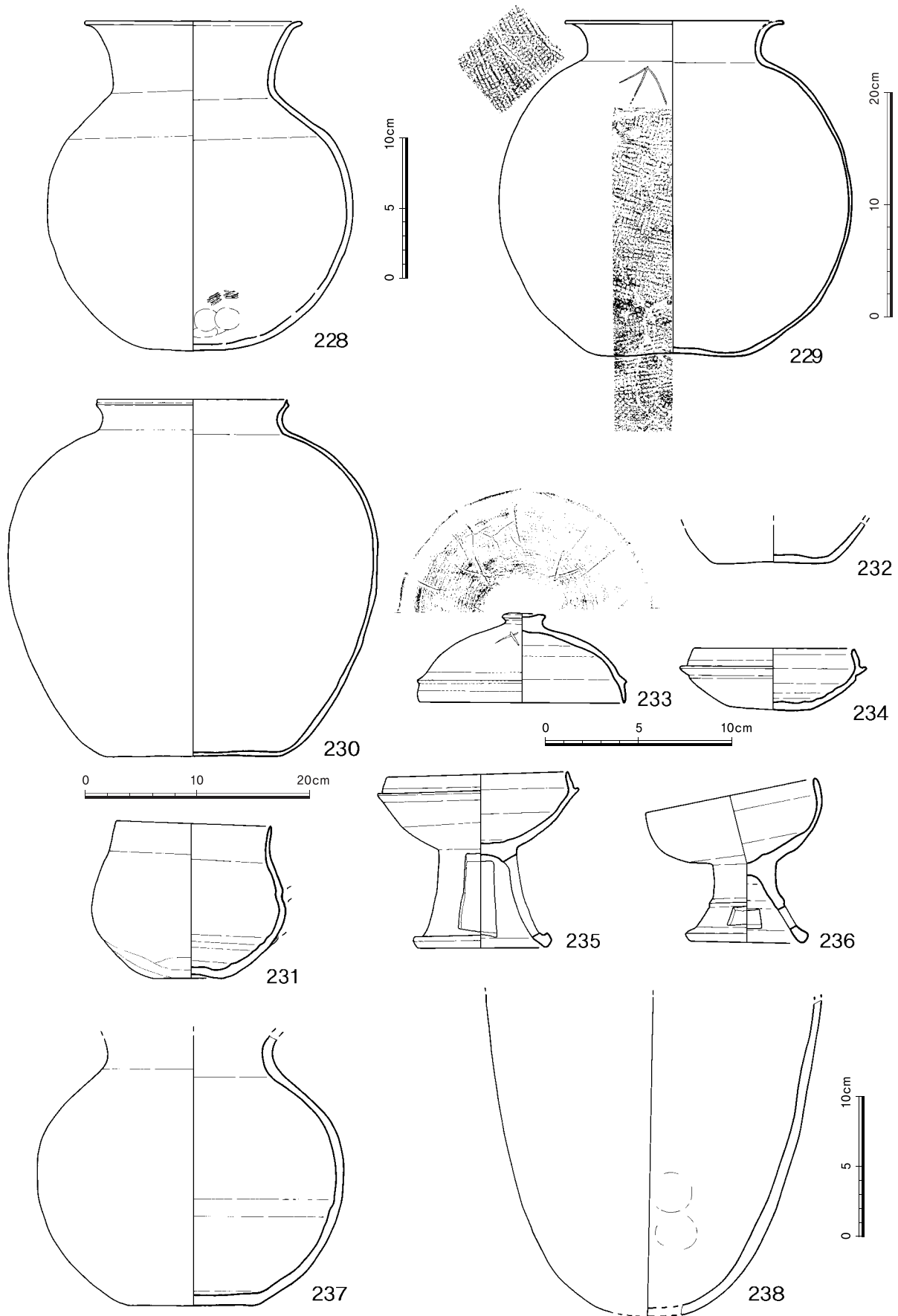
圖面 118. 13호 석곽(201~209) 출토유물<208·209: 1/2, 201·204~206: 1/3, 202·203·20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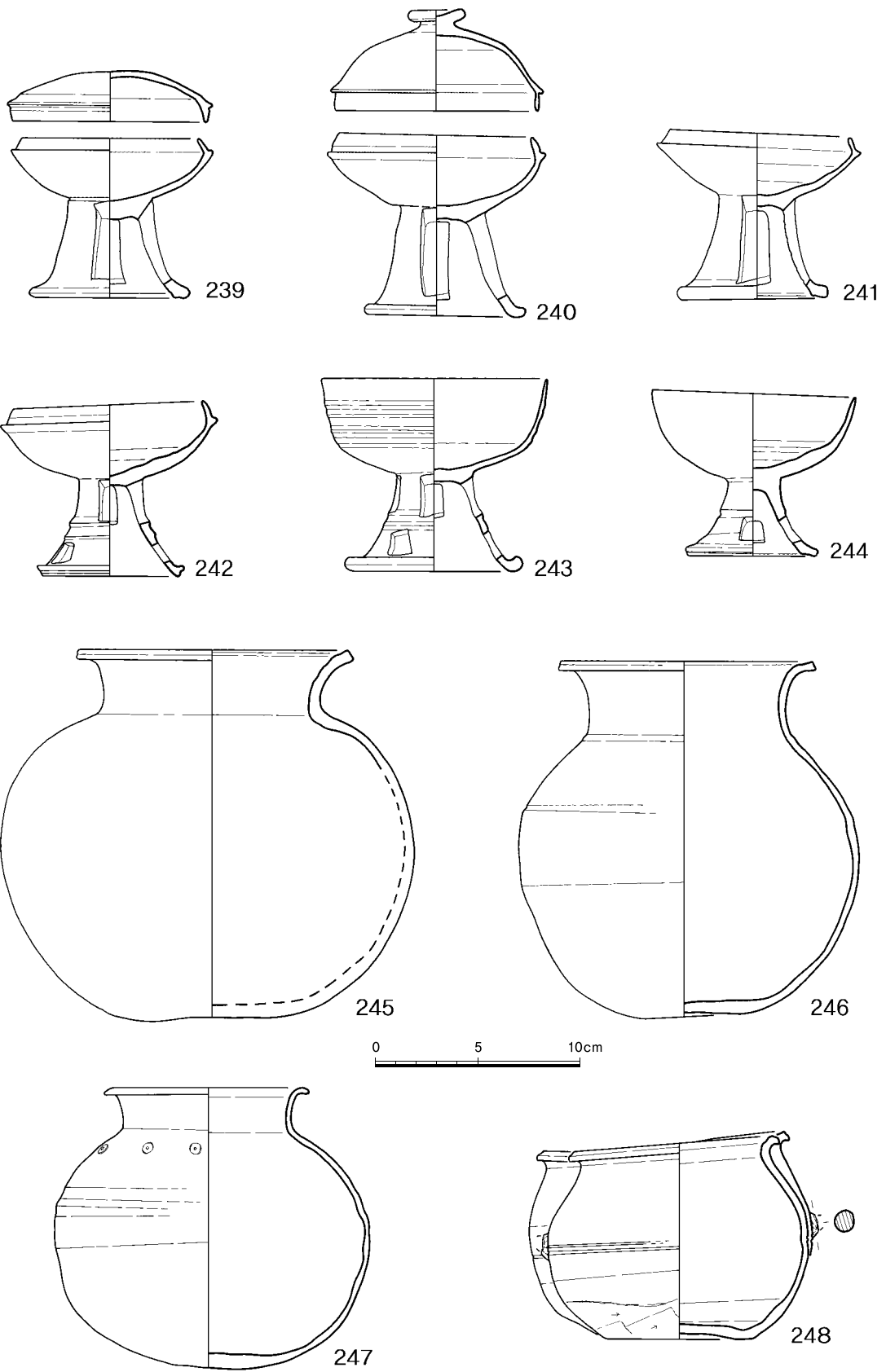
圖面 119. 13호 석곽(210), 14호 석곽(211~213), 15호 석곽(214~220) 출토유물(211~220: 1/3, 2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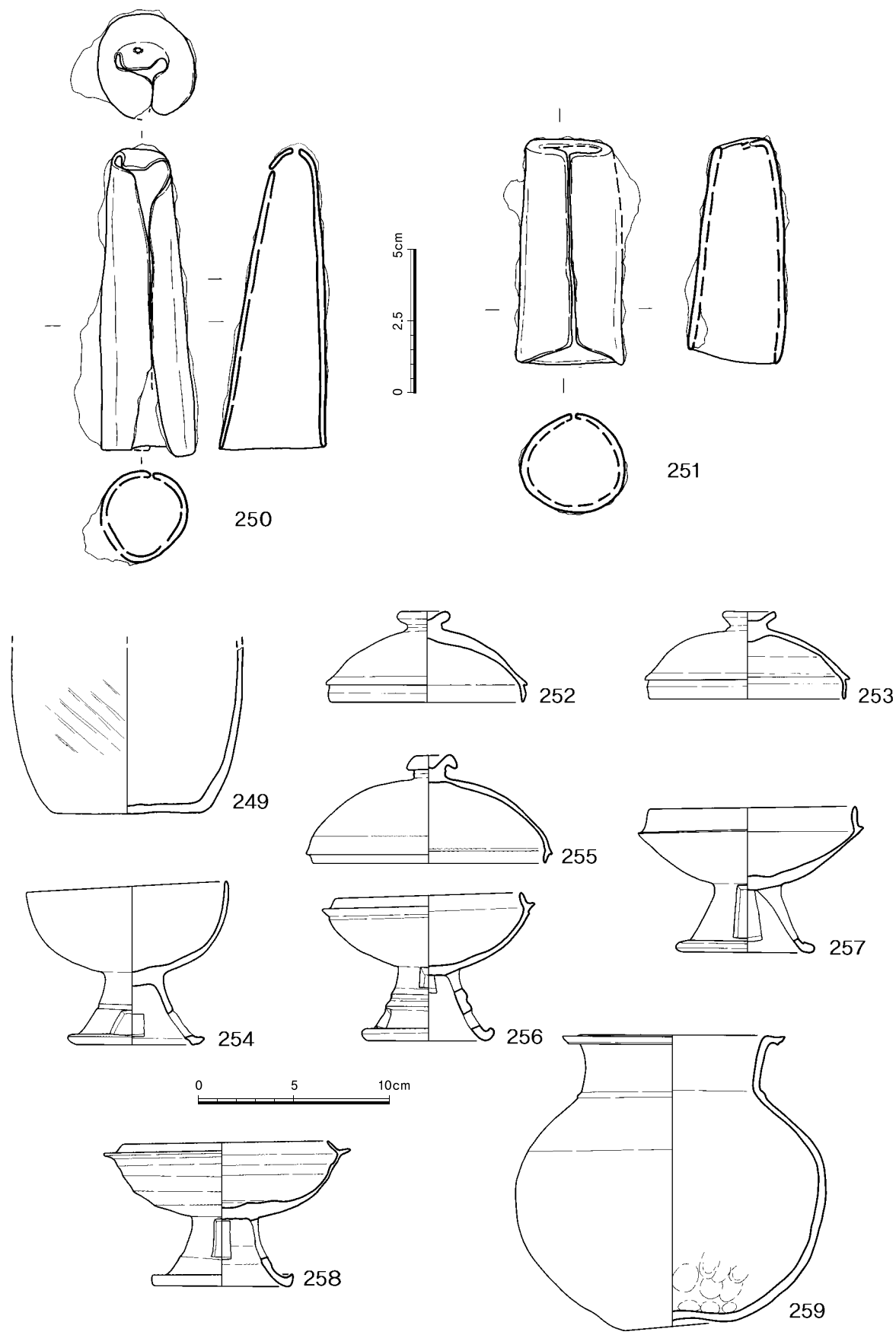
圖面 120. 15호 석곽(221~227) 출토유물<221~223 · 226: 1/3, 224 · 225 · 22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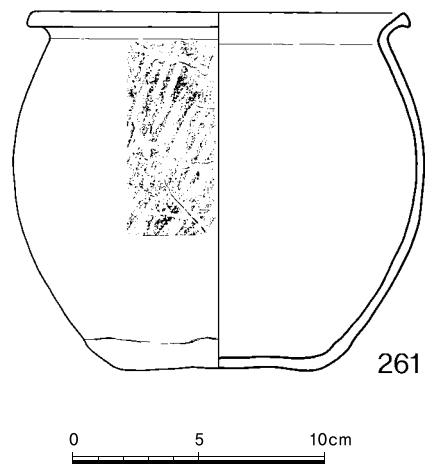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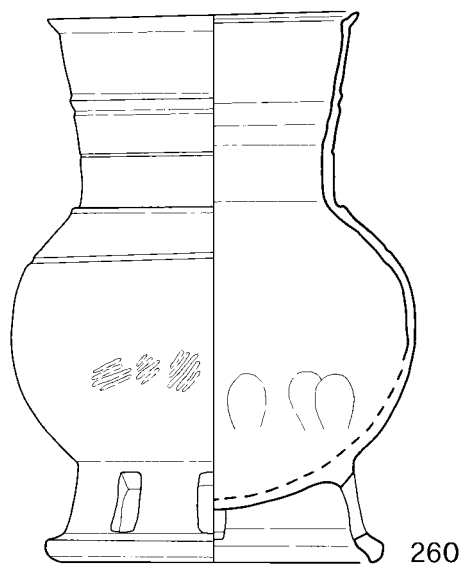
圖面 121. 15호 석곽(228~238) 출토유물<231~237: 1/3, 228·238: 1/4, 229·23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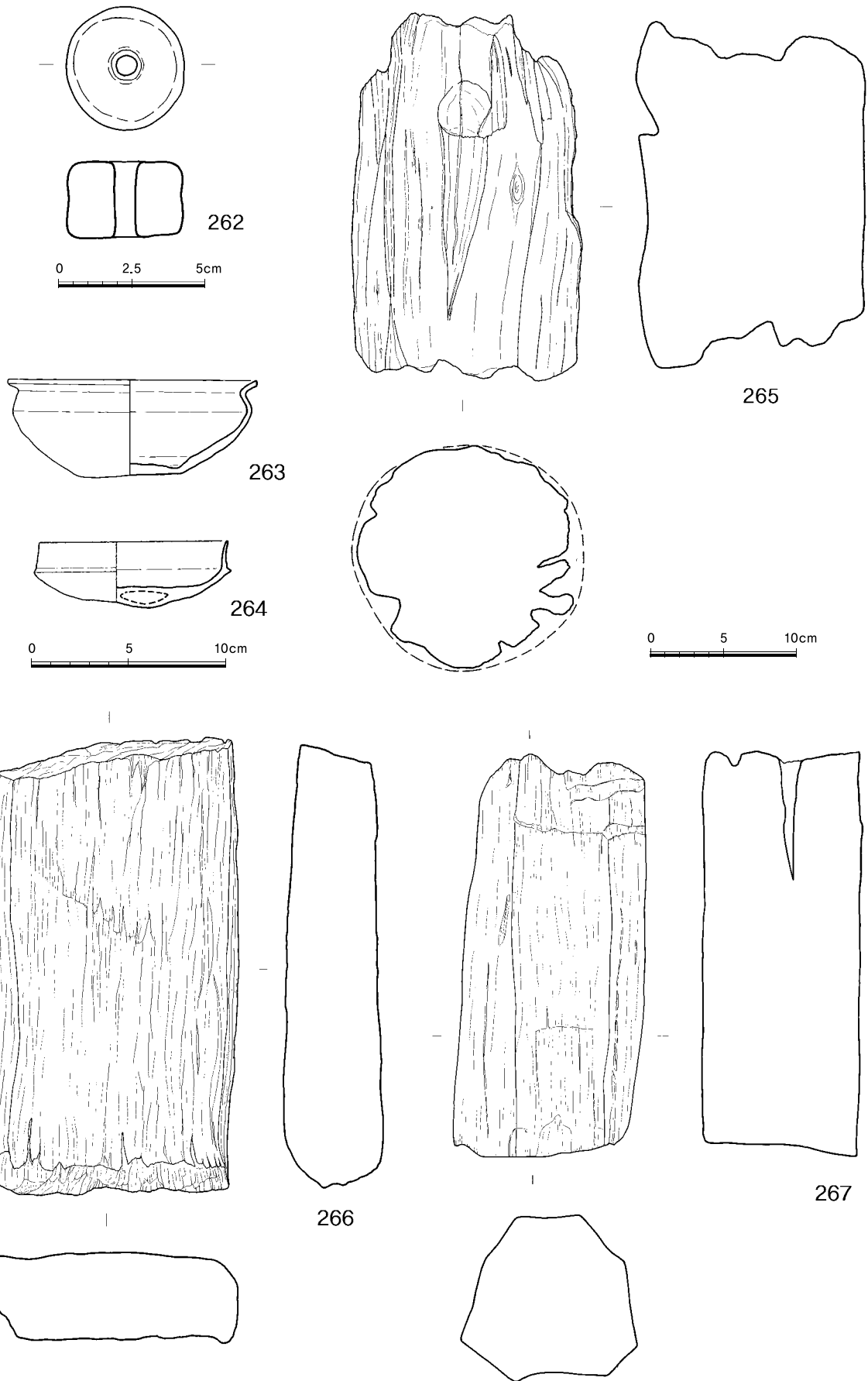
圖面 122. 16호 석곽(239~248) 출토유물(239~24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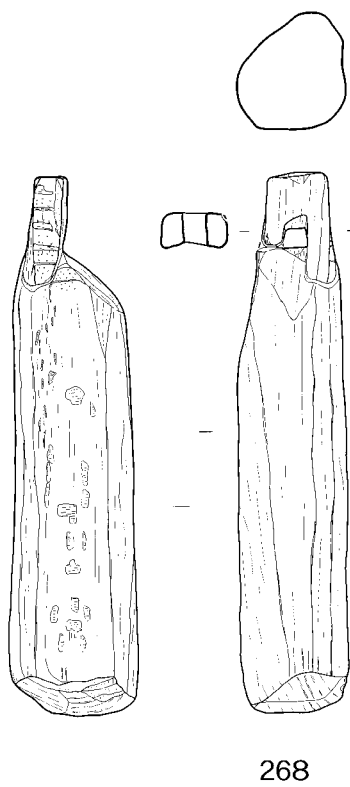
圖面 123. 16호 석곽(249~253), 17호 석곽(254), 18호 석곽(255~259) 출토유물〈250·251: 1/2, 249·252~25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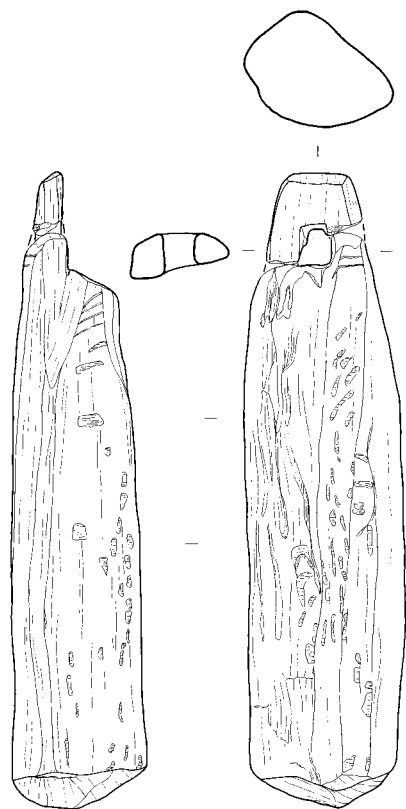
圖面 124. 18호 석곽(260·261) 출토유물(260·26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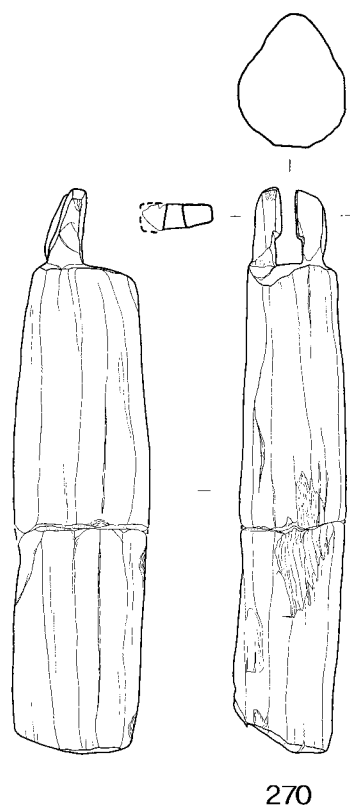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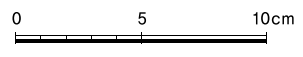
圖面 125. 굴림주건물지 출토유물(262: 1/2, 263·264: 1/3, 265~26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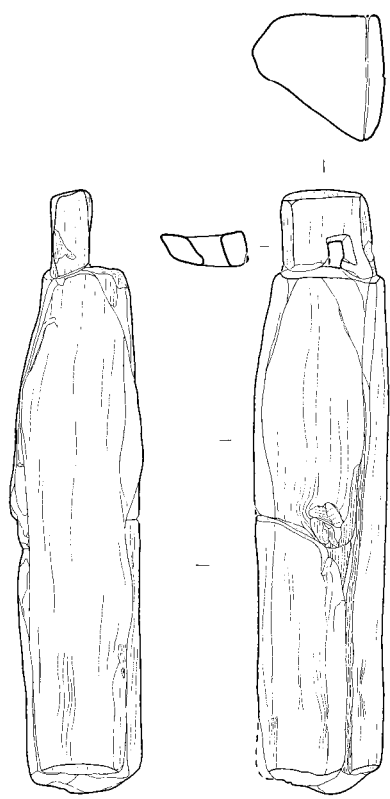
268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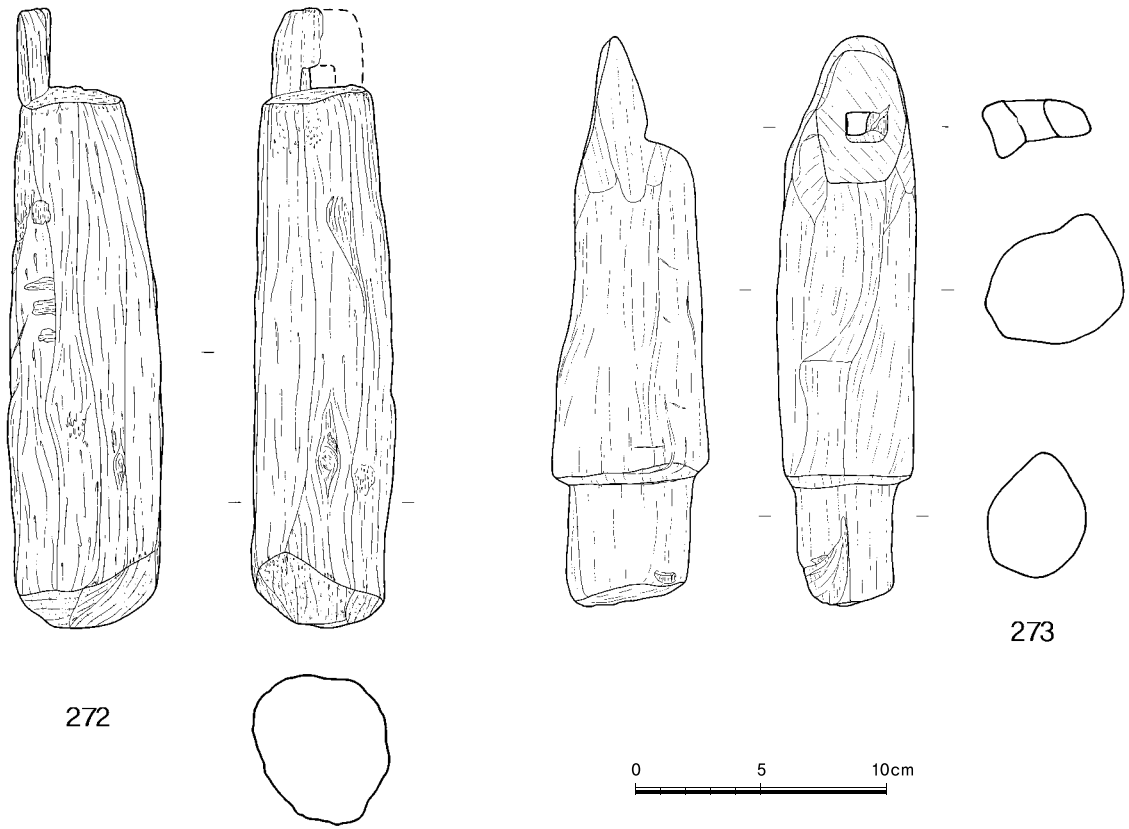


270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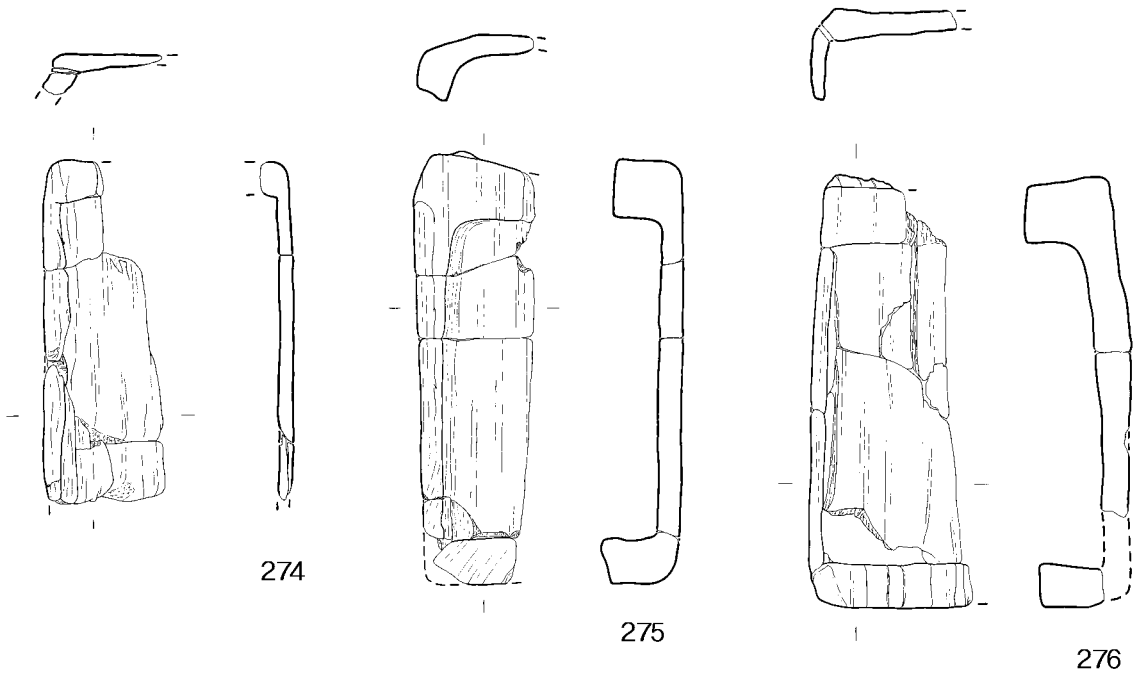
圖面 126. 저습지 출토유물<268~271: 1/3>



272

273

0 5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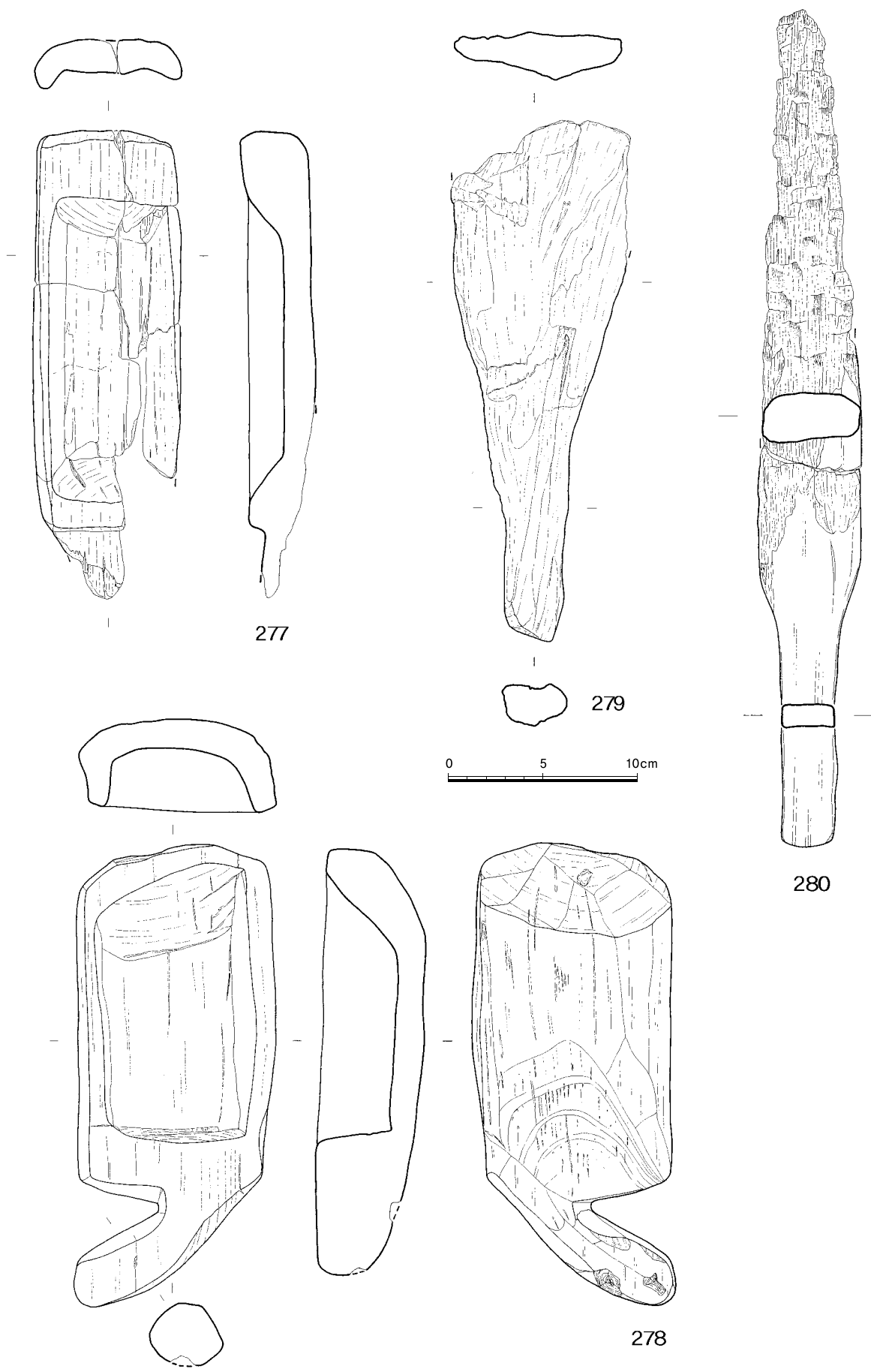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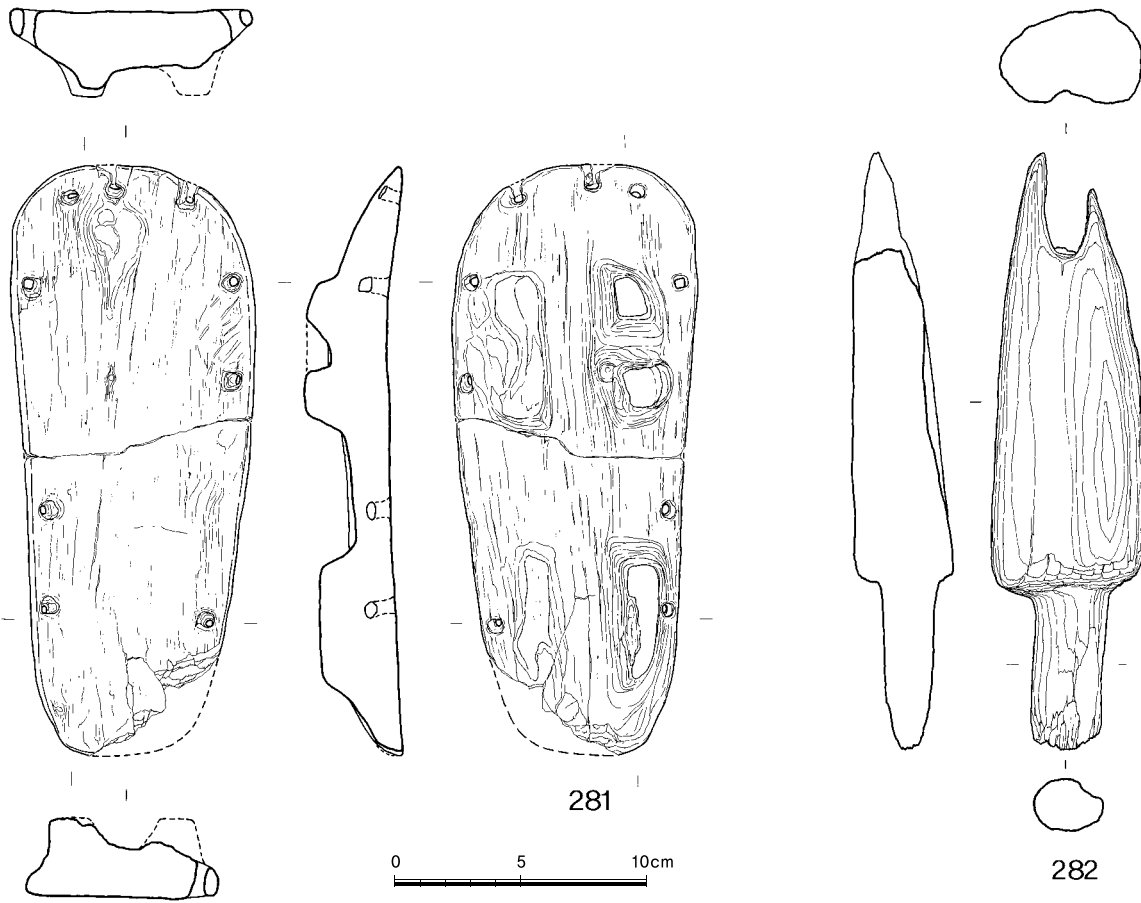
275

276

圖面 127. 저습지 출토유물<272~27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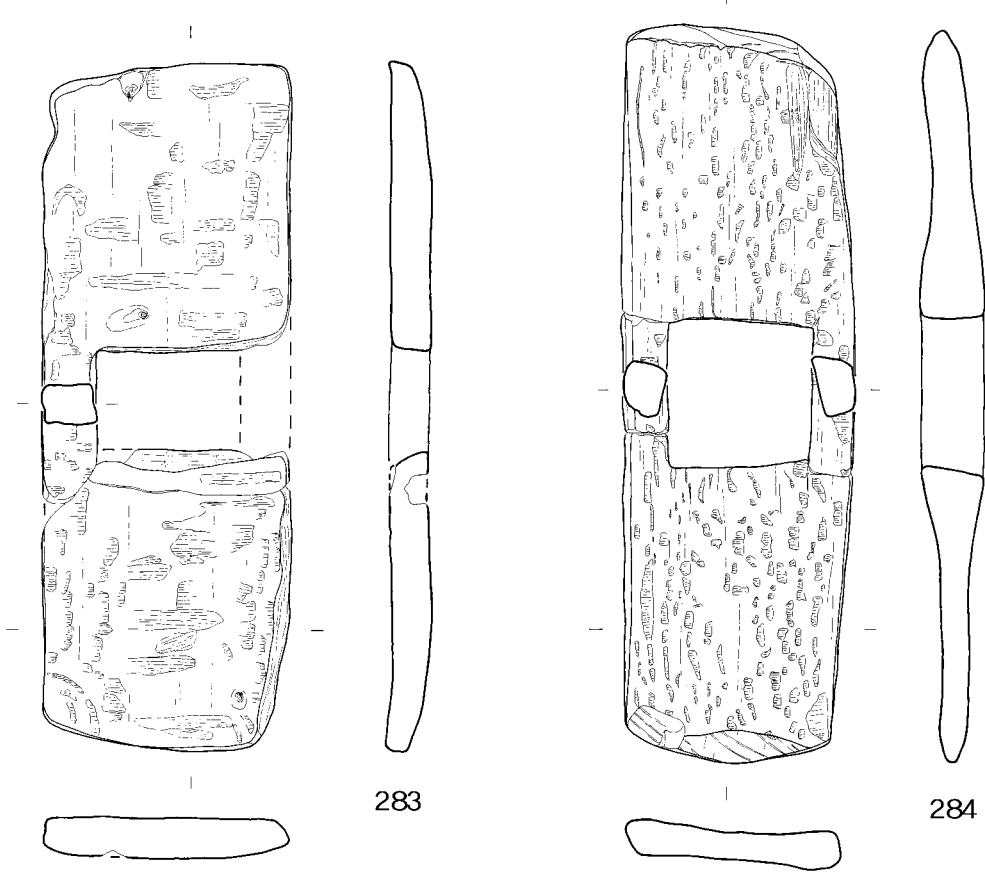


圖面 128. 저습지 출토유물<277~280: 1/3>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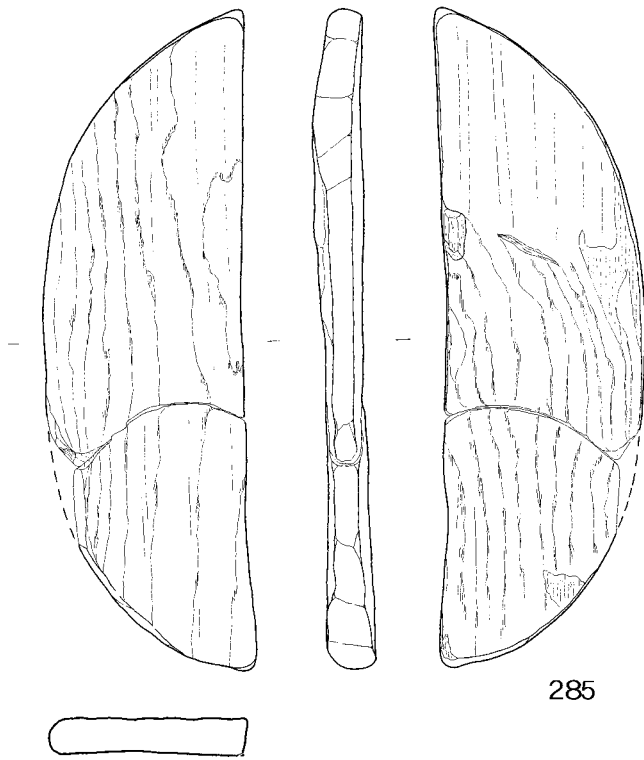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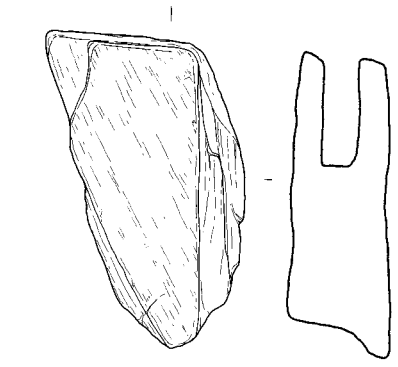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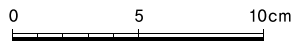
283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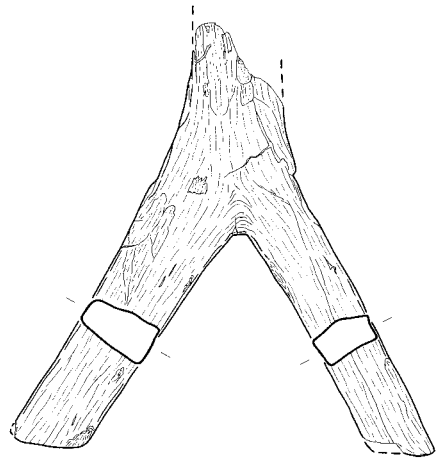
圖面 129. 저습지 출토유물<281~28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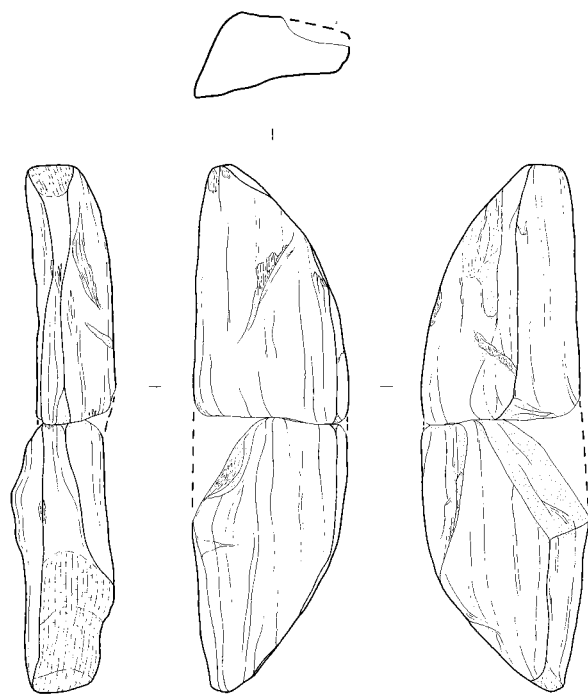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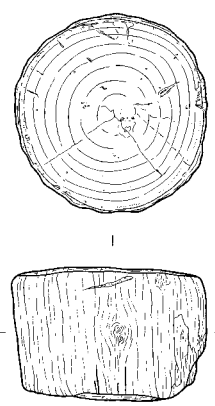
287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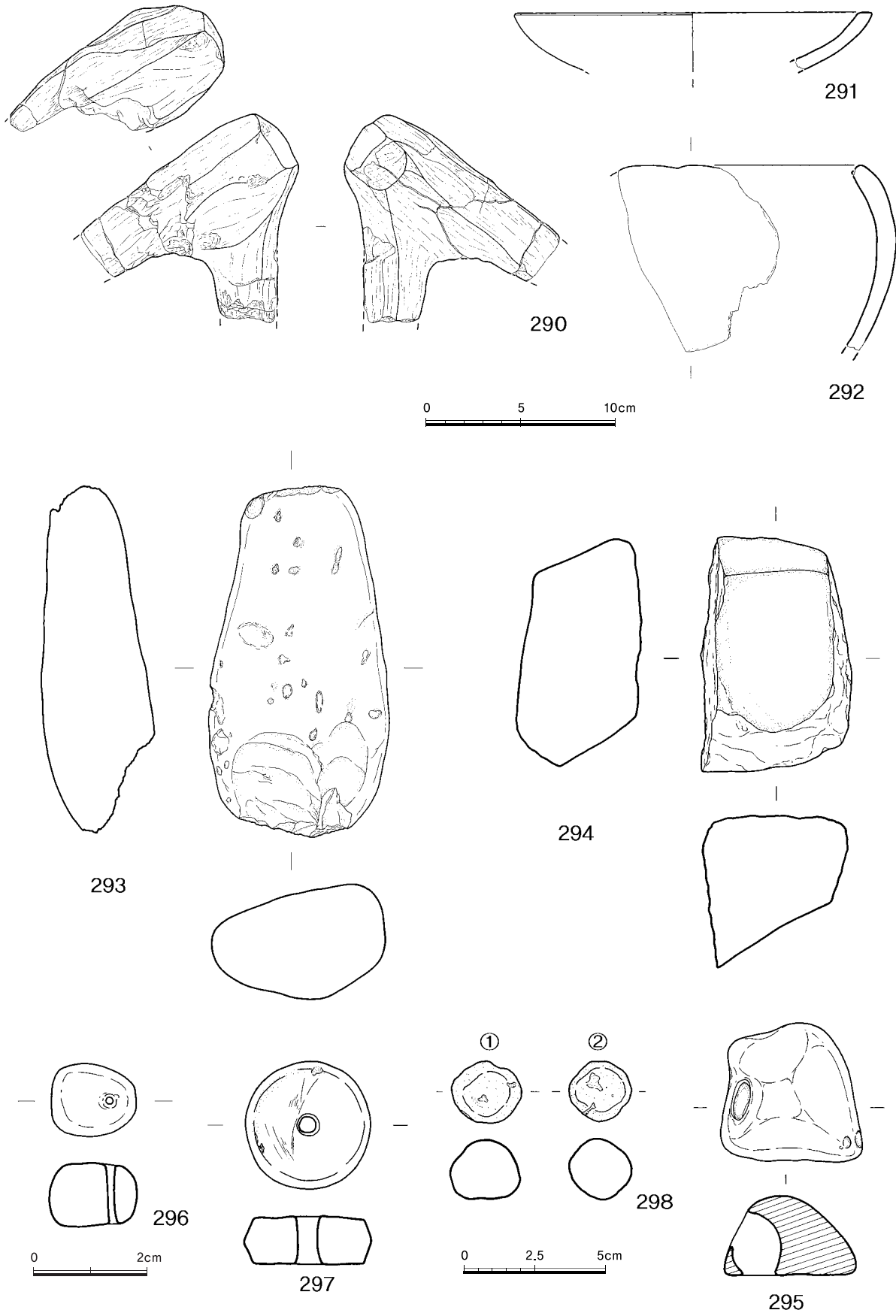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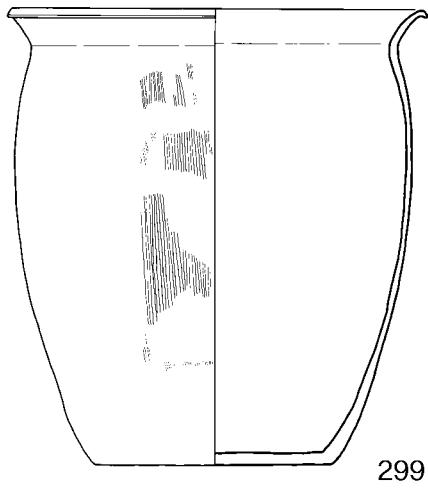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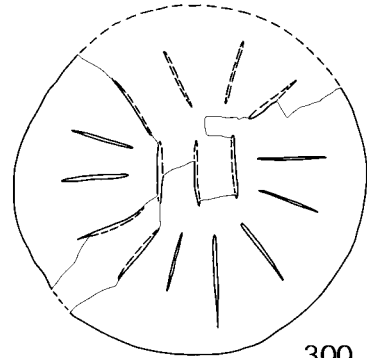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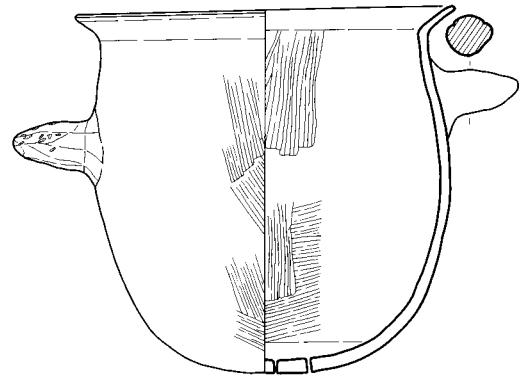
圖面 130. 저습지 출토유물 (285~28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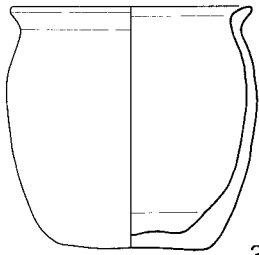
圖面 131. 저습지 출토유물<291: 1/1, 294 · 295 · 297 · 298: 1/2, 290~29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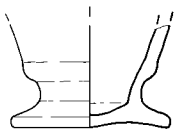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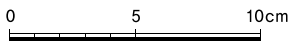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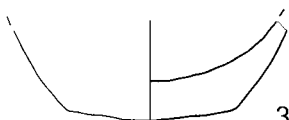
301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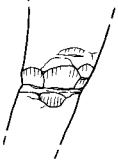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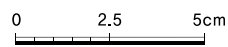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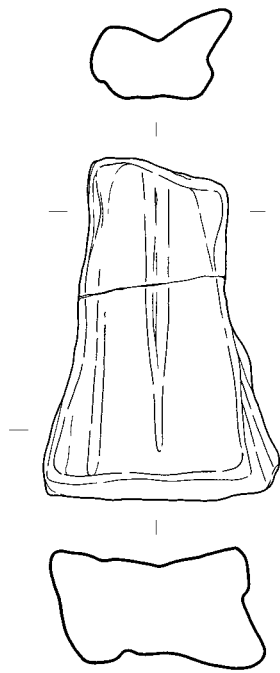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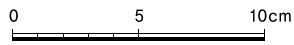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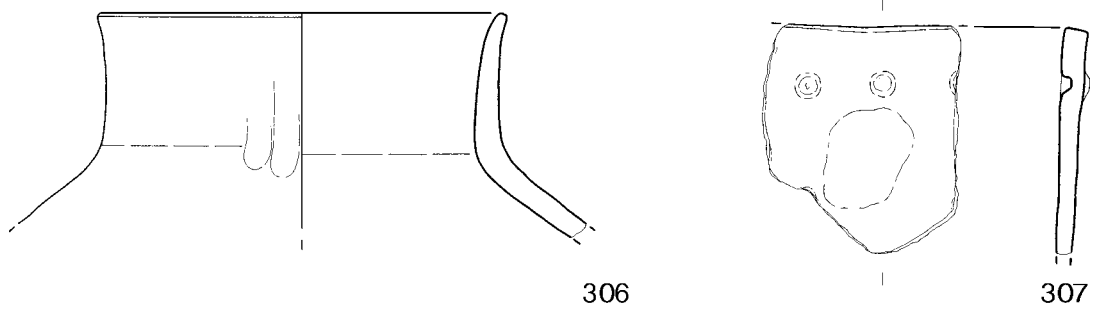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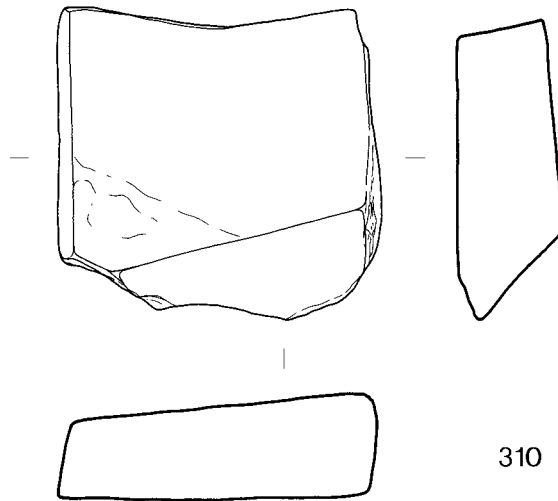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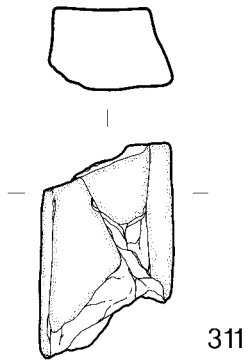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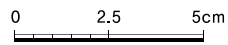
圖面 132. 저습지 출토유물<305: 1/2, 301~304: 1/3, 299·3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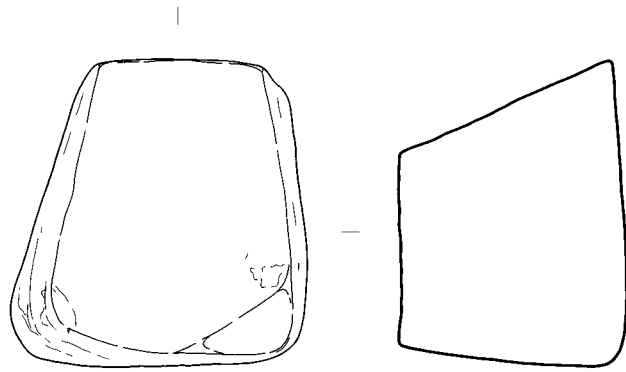
309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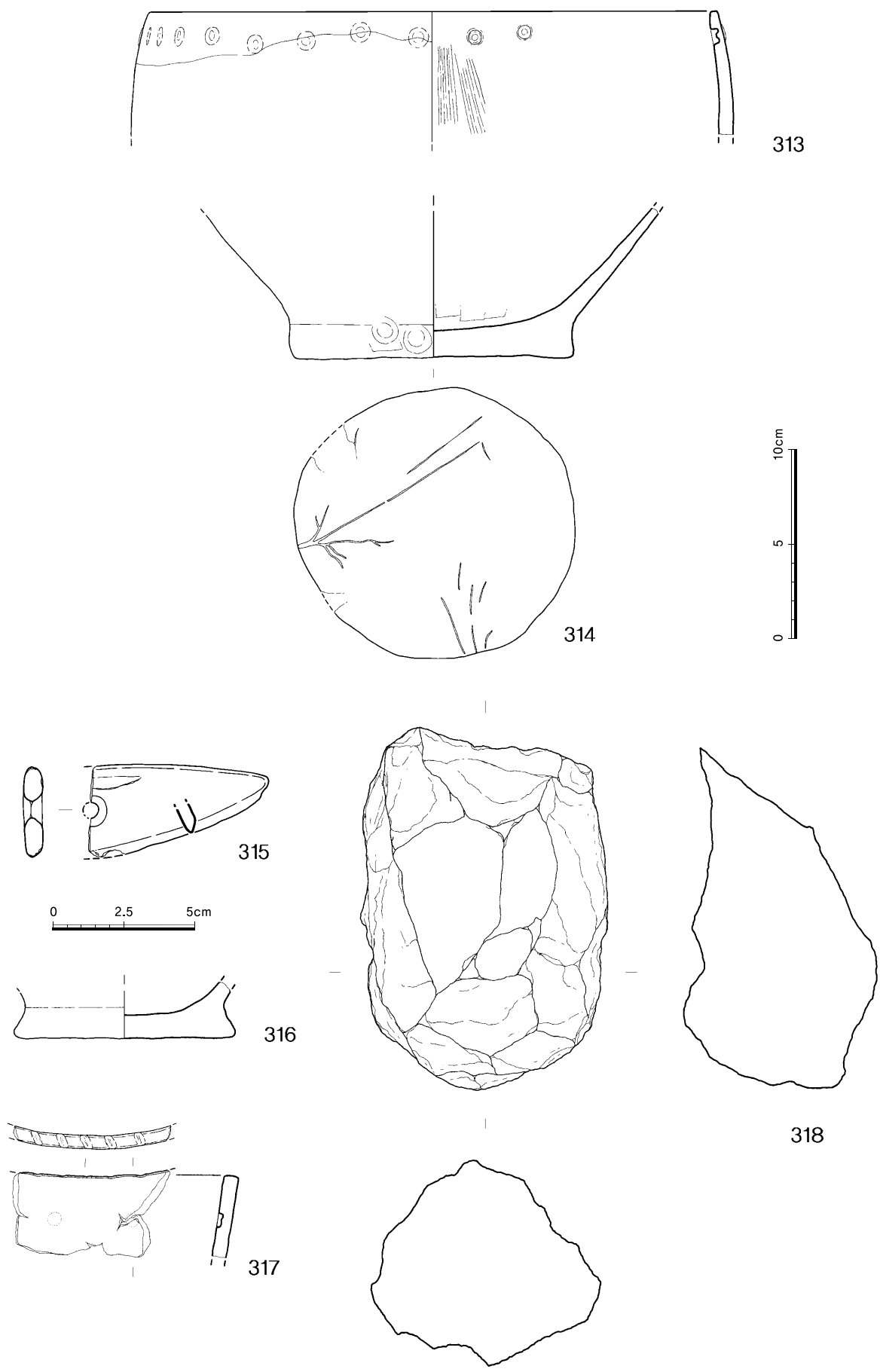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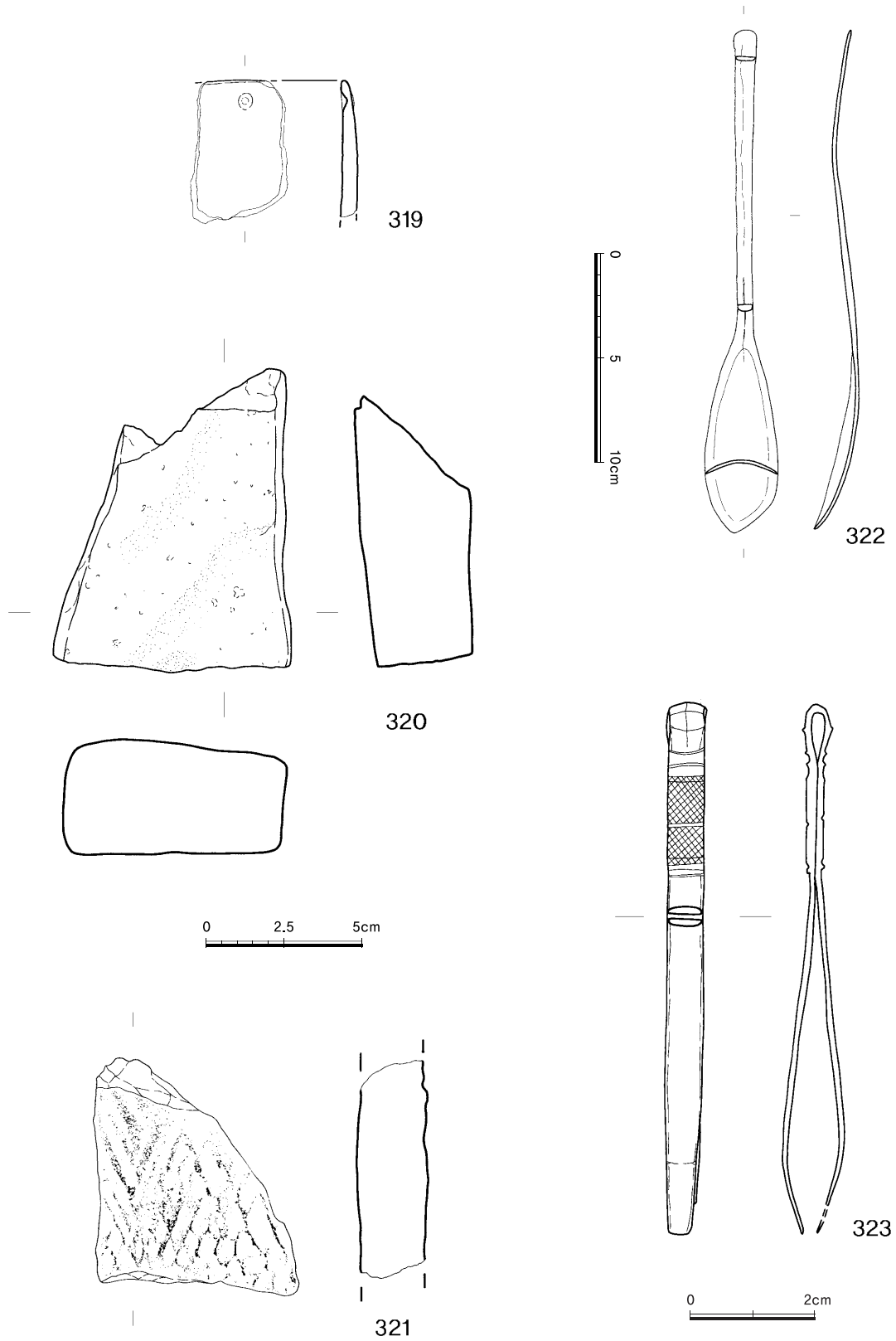


312

圖面 133. 1호 주거지(306·307), 2호 주거지(308~312) 출토유물(309~312: 1/2, 306~30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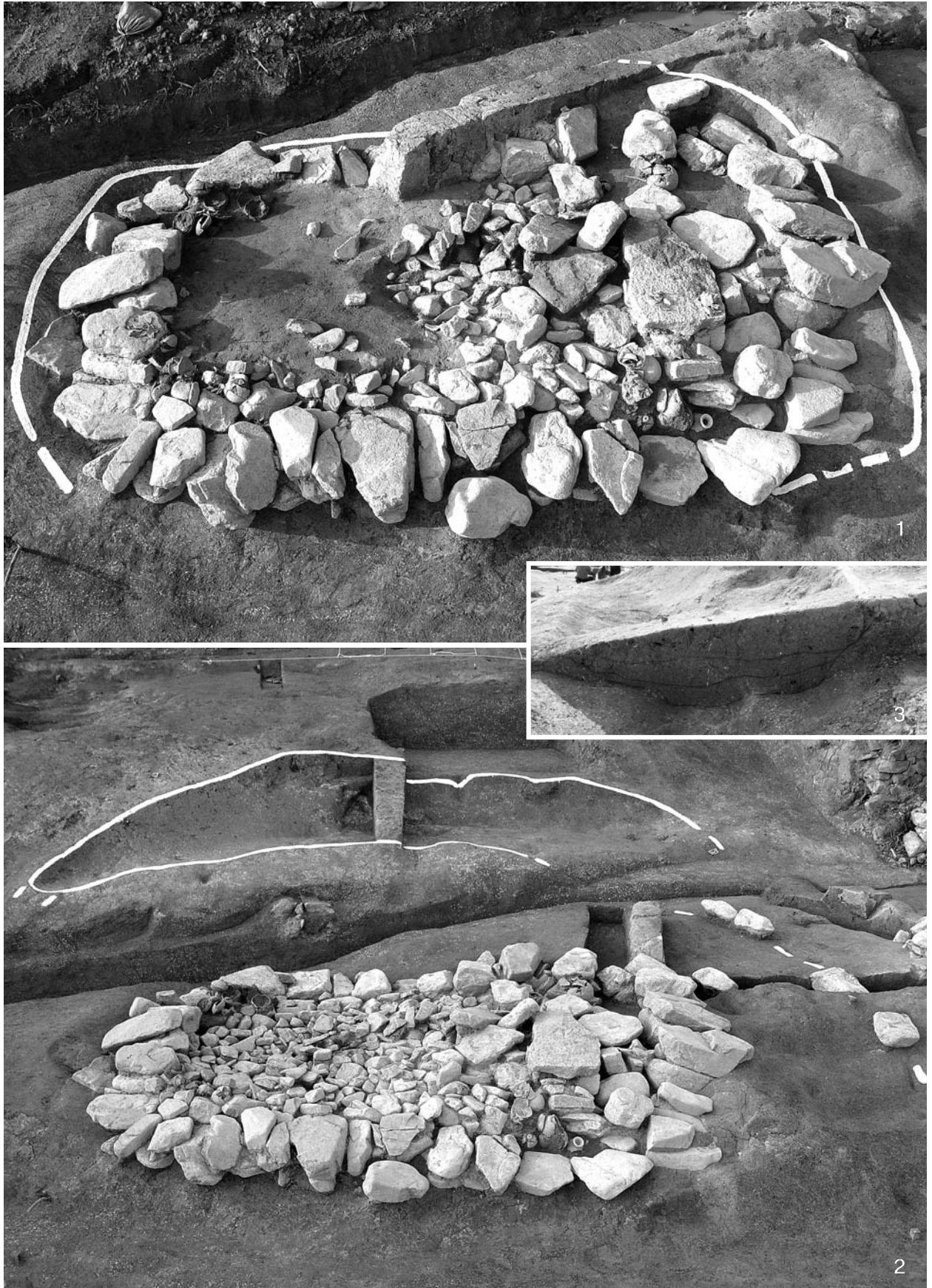


圖面 134. 3호 주거지(313·314), 4호 주거지(315~318) 출토유물<315: 1/2, 313·314·316~318: 1/3>



圖面 135. 1호 구상유구(319), 2호 수혈(320·321), 2호 묘(322), 1호 구(323) 출토유물(323: 1/1, 320·321: 1/2, 319·322: 1/3)

圖 版 (유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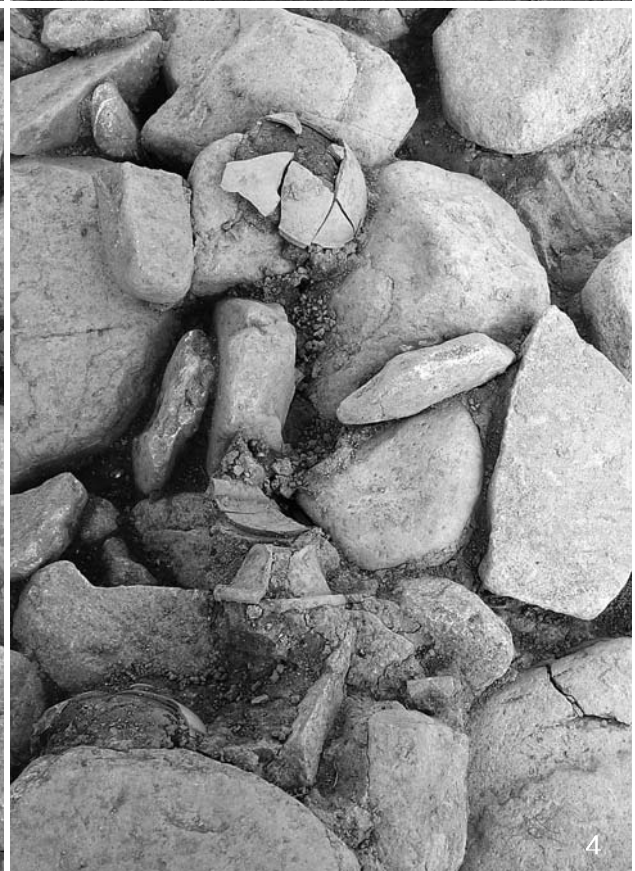
圖版 1. 1호석실 조사전경(1), 석실전경(2), 주구토층(3)



圖版 2. 1호석실 3차시상(1), 1·2차 시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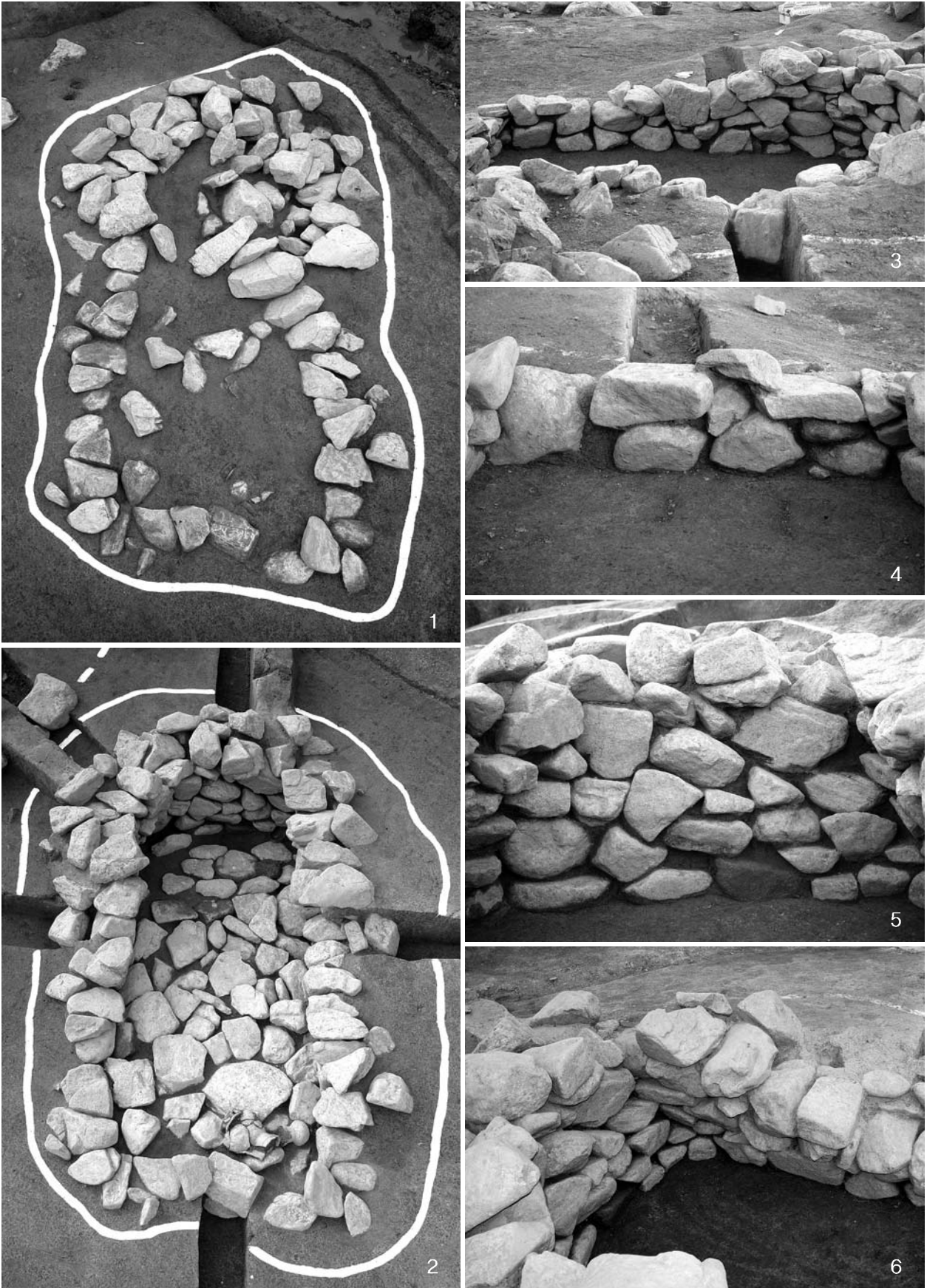
圖版 3. 1호석실 2차시상(1), 1차 시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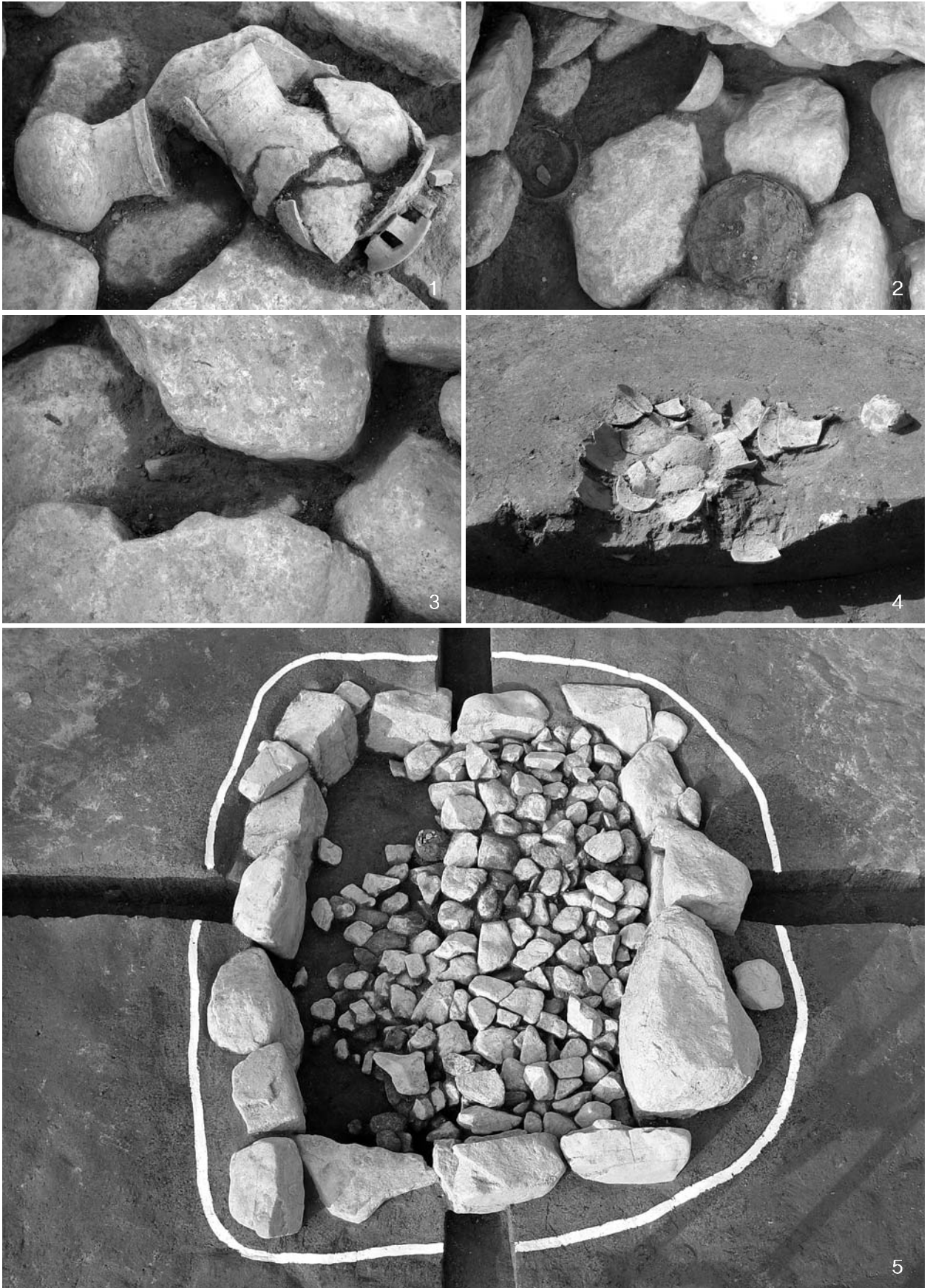
圖版 4. 1호석실 북서편 유물(1), 북동편 유물(2), 남서편 유물(3), 남동편 유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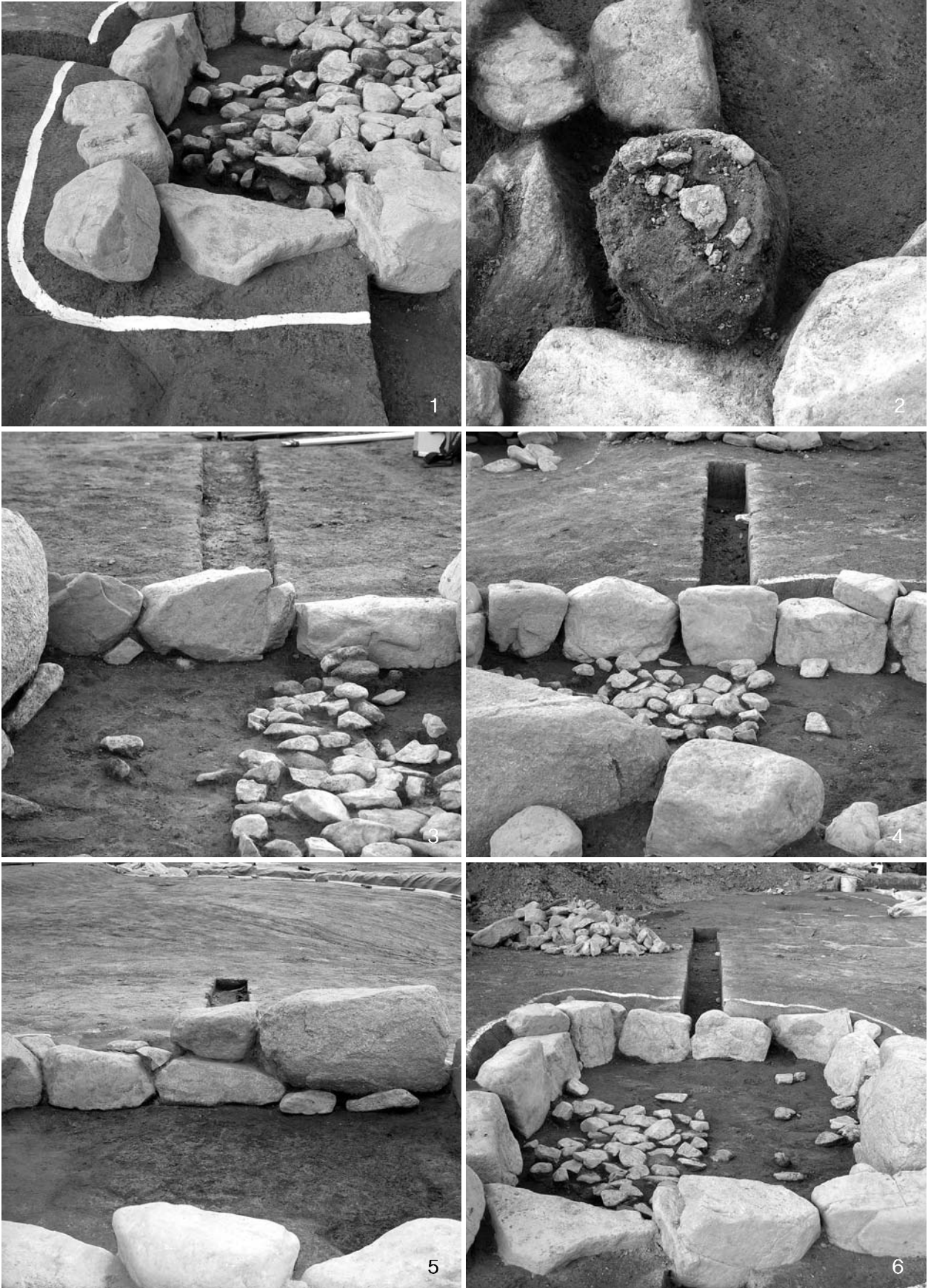
圖版 5. 1호석실 서편장벽(1), 북편 단벽(2), 동편 장벽(3), 남편 다벽(4)



圖版 6. 2호석실 조사전경(1), 석실전경(2), 남편 장벽(3), 동편 장벽(4), 서편 장벽(5), 북서편 모서리(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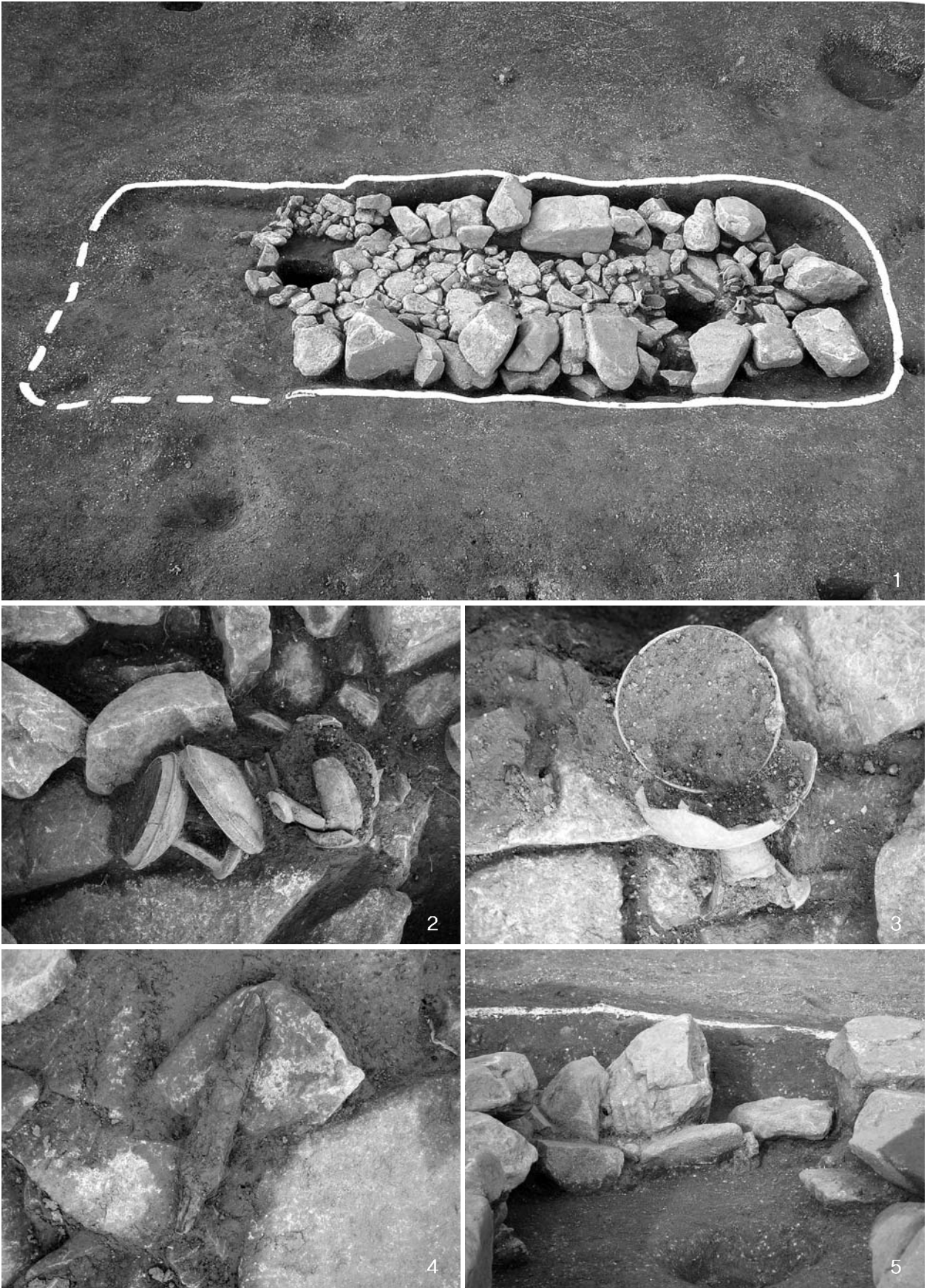
圖版 7. 2호석실 유물(1·2·3), 2호석실 주변 수습대호(2), 3호석실 전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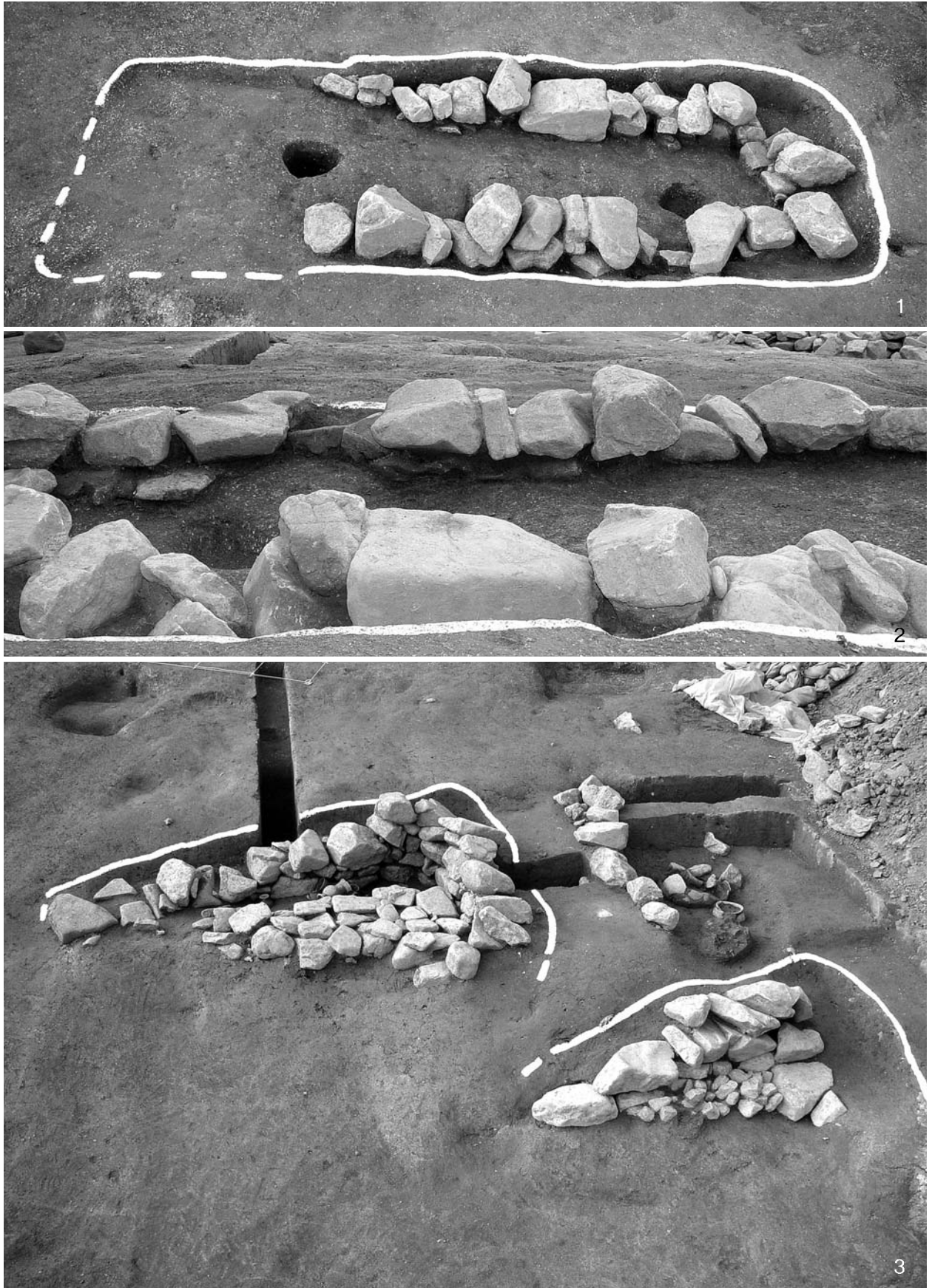
圖版 8. 3호석실 남단벽 출입구 추정부(1), 유물(2), 남편 단벽(3), 서편 장벽(4), 동편 장벽(5), 북편 단벽(6)



圖版 9. 4호석실 전경(1), 장벽(2)



圖版 10. 5호석곽 전경(1), 유물(2~4), 북편 단벽(5)



圖版 11. 5호석곽 서편 장벽(1), 동편 장벽(2), 6·7호 석곽 배치상태(3)



圖版 12. 6호석곽 전경(1), 유물출토 상황(2)



圖版 13. 6호석실 장벽(1), 단벽(2), 7호석실 전경(3)



圖版 14. 7호석실 장벽(1), 8호석실 조사전 전경(2)



圖版 15. 8호석실 전경(1), 8-1호 전경-3차시상(2)



圖版 16. 8-1호 3차시상 유물(1·2), 2차시상(3), 2차시상 유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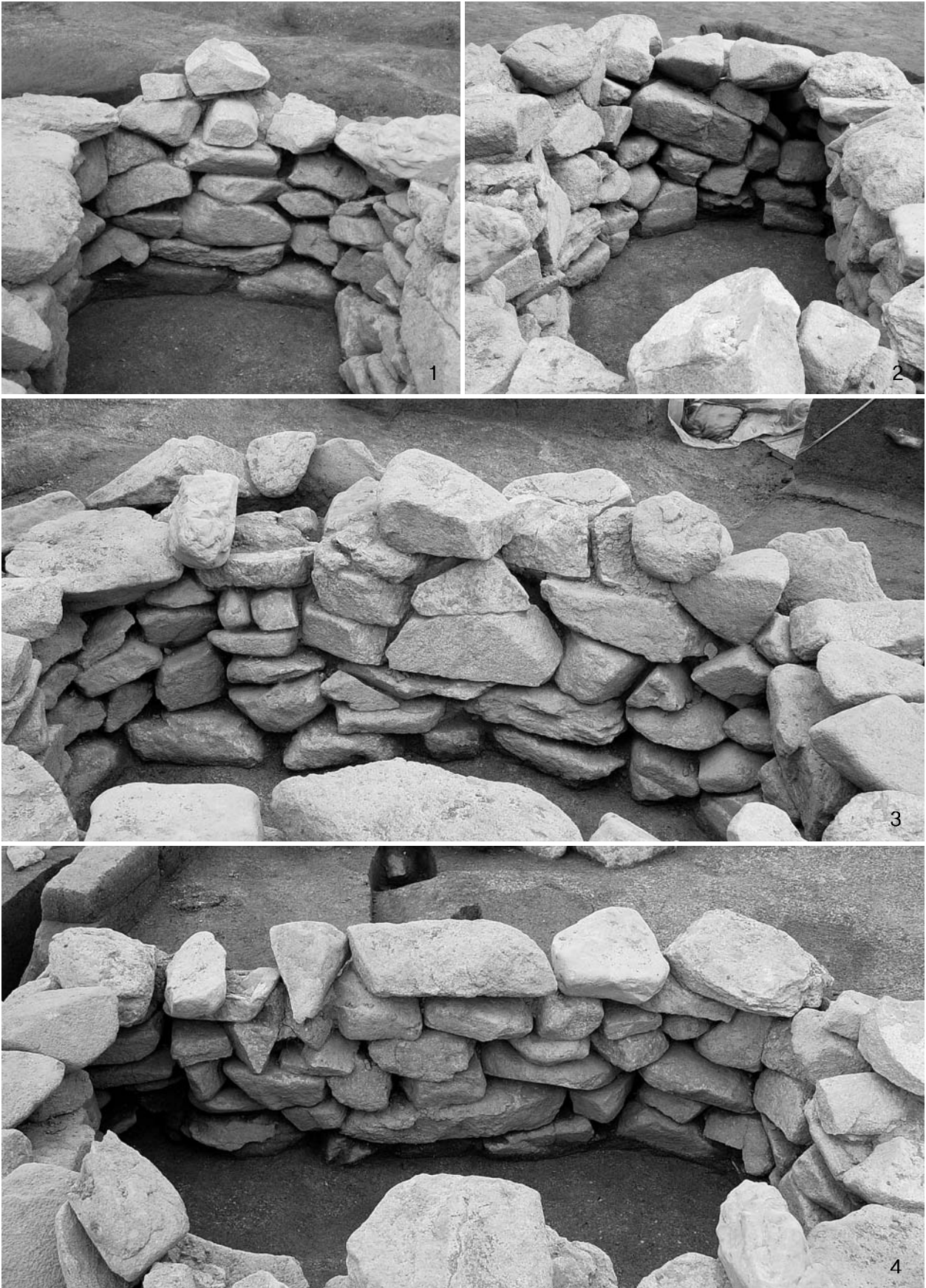
圖版 17. 8-1호 1차시상(1), 1차시상 유물(2~4), 동편 단벽(5)



圖版 18. 8-1호 남장벽(1), 북장벽(2), 8-2호 전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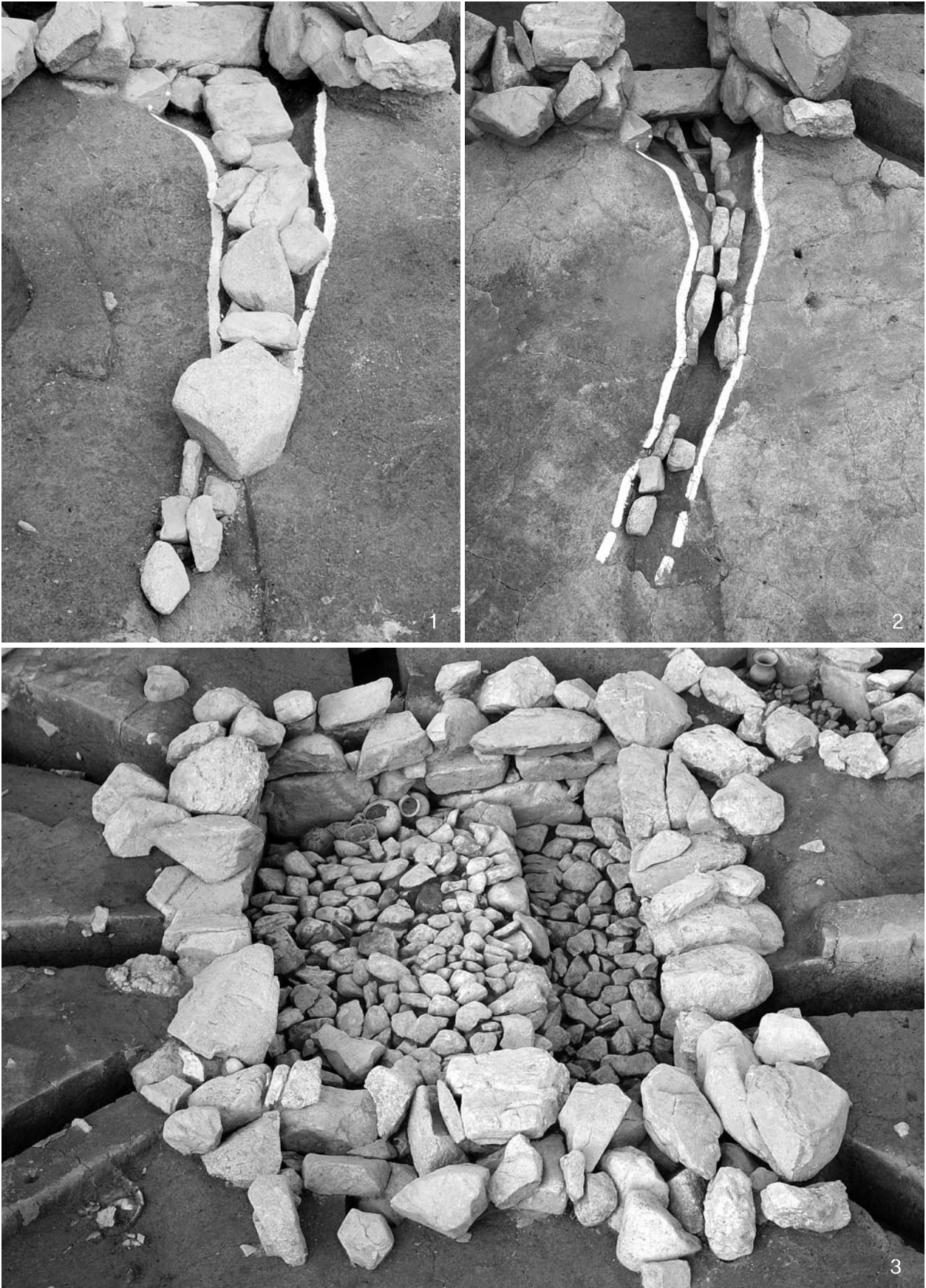
圖版 19. 8호석실 봉토유물(1, 8-2호 주변출토), 8-2호 유물(2)



圖版 20. 8-2호 북단벽(1), 남단벽(2), 동장벽(3), 서장벽(4)



圖版 21. 9호석실 전경(1), 9-1호 출입구(2)



圖版 22. 9-1호 배수시설(1), 배수시설 개석 제거후(2), 9-1호 3차시상(3)



圖版 23. 9-1호 2차시상(1), 유물(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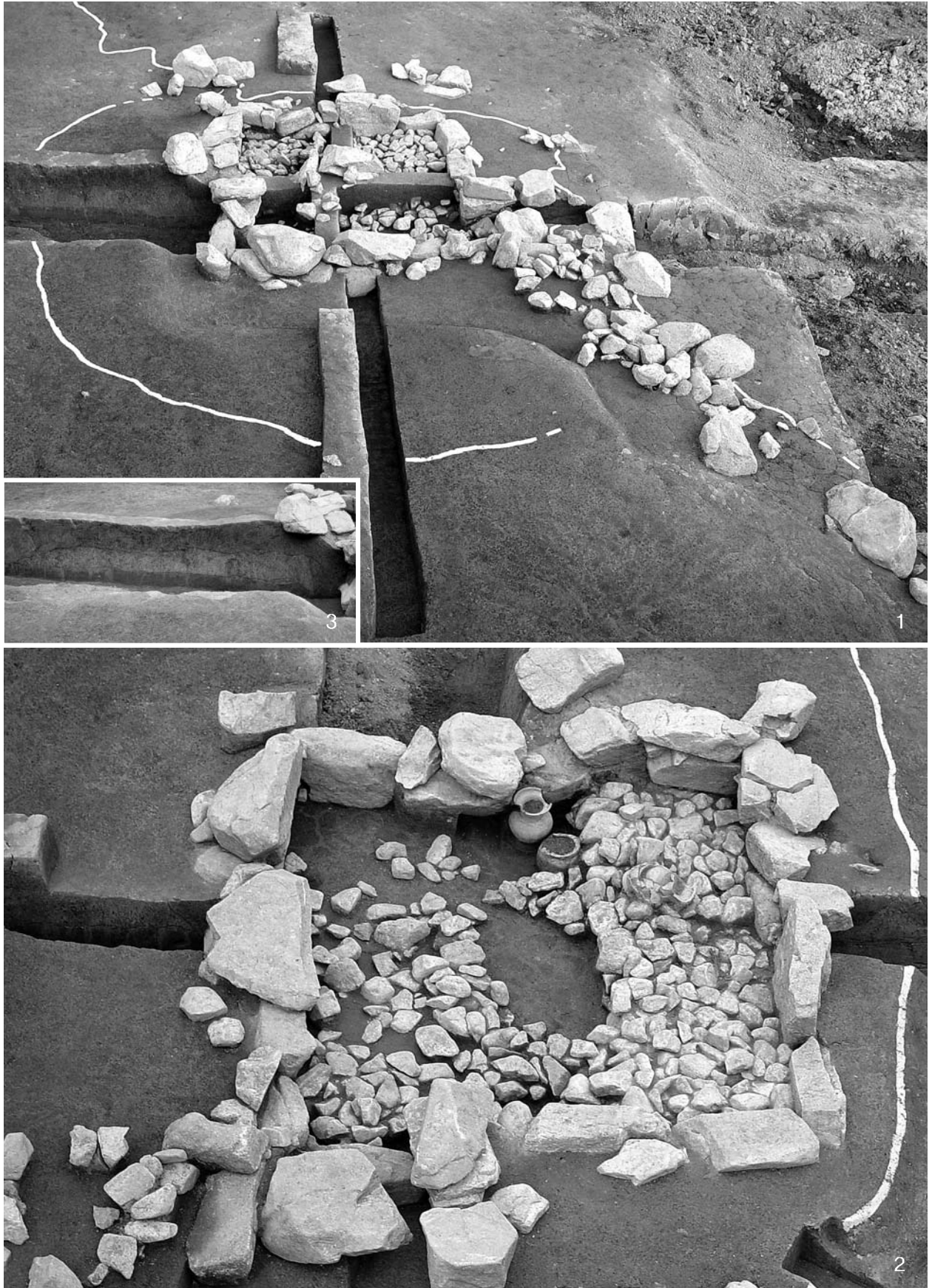
圖版 24. 9-1호 1차시상(1), 유물(2·3), 동편장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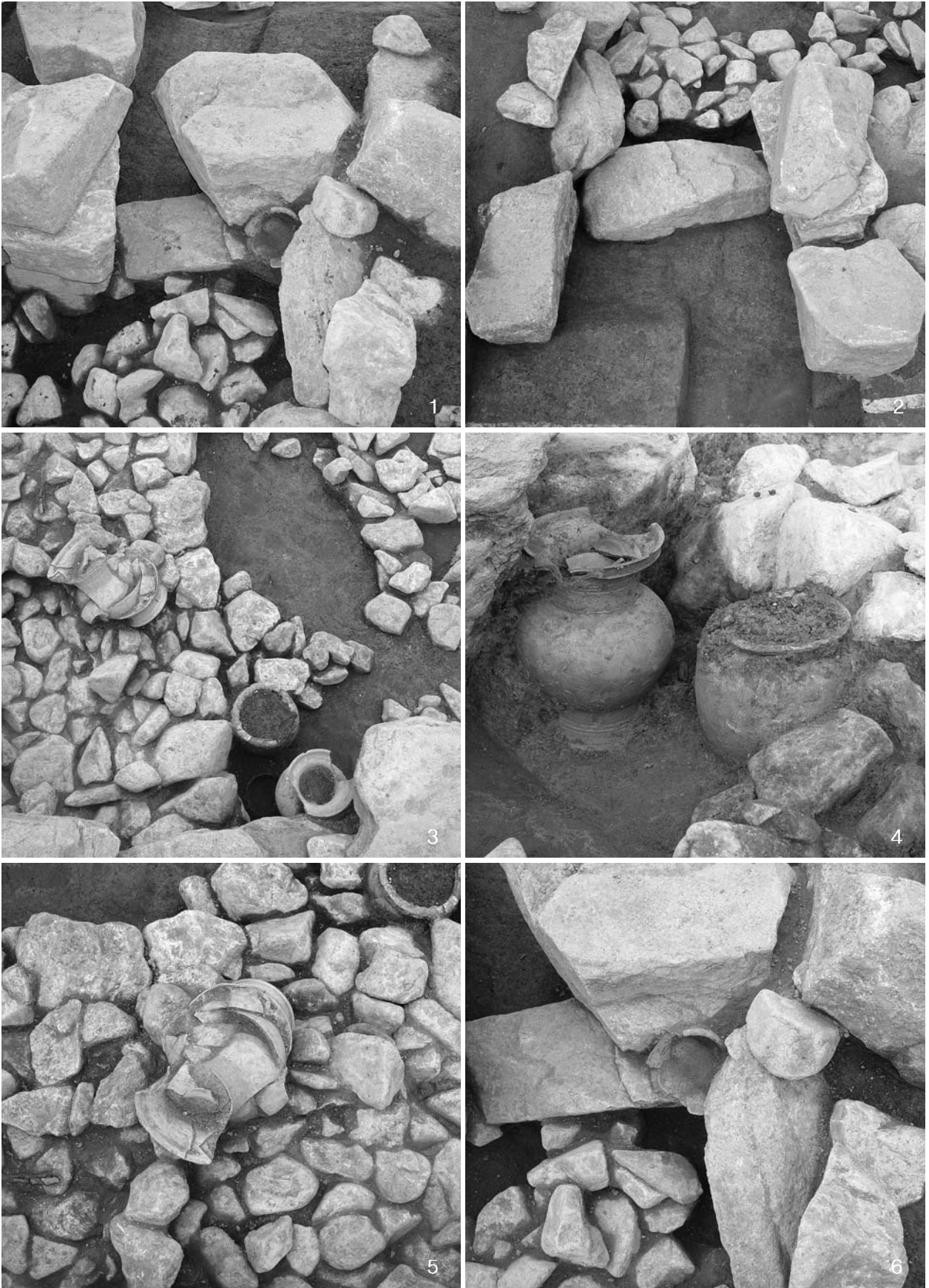
圖版 25. 9-1호 서장벽(1), 북단벽(2), 남단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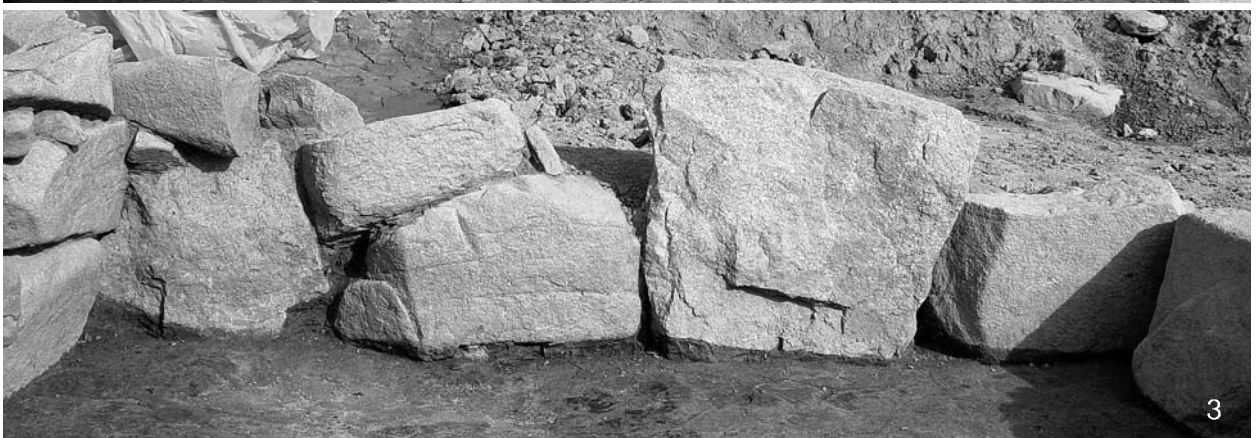
圖版 26. 9-2호 전경(1), 유물배치 상황(2), 유물 세부(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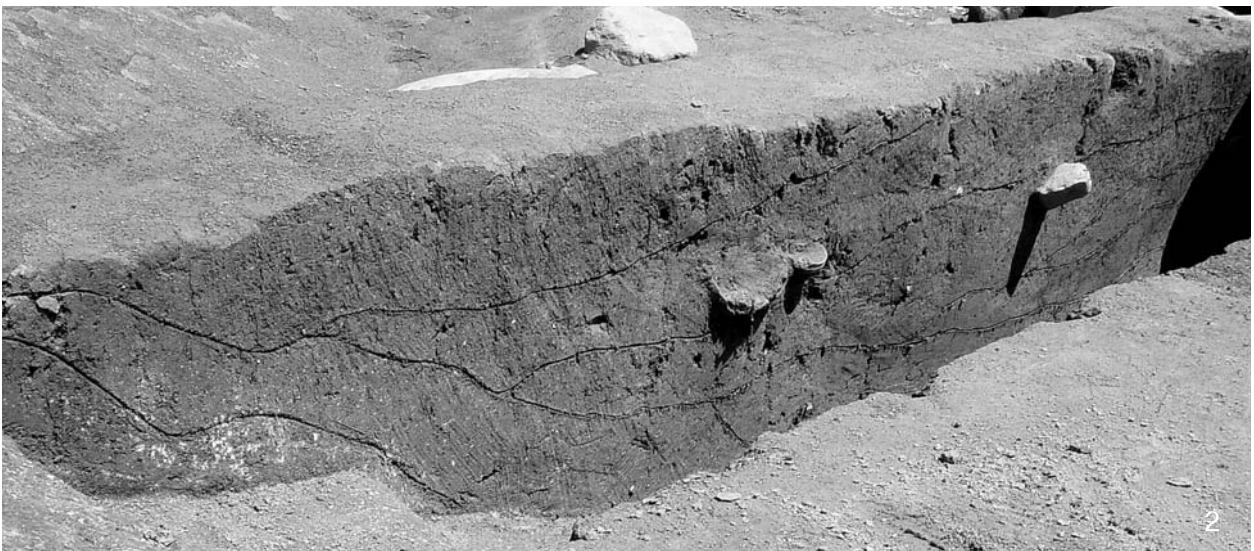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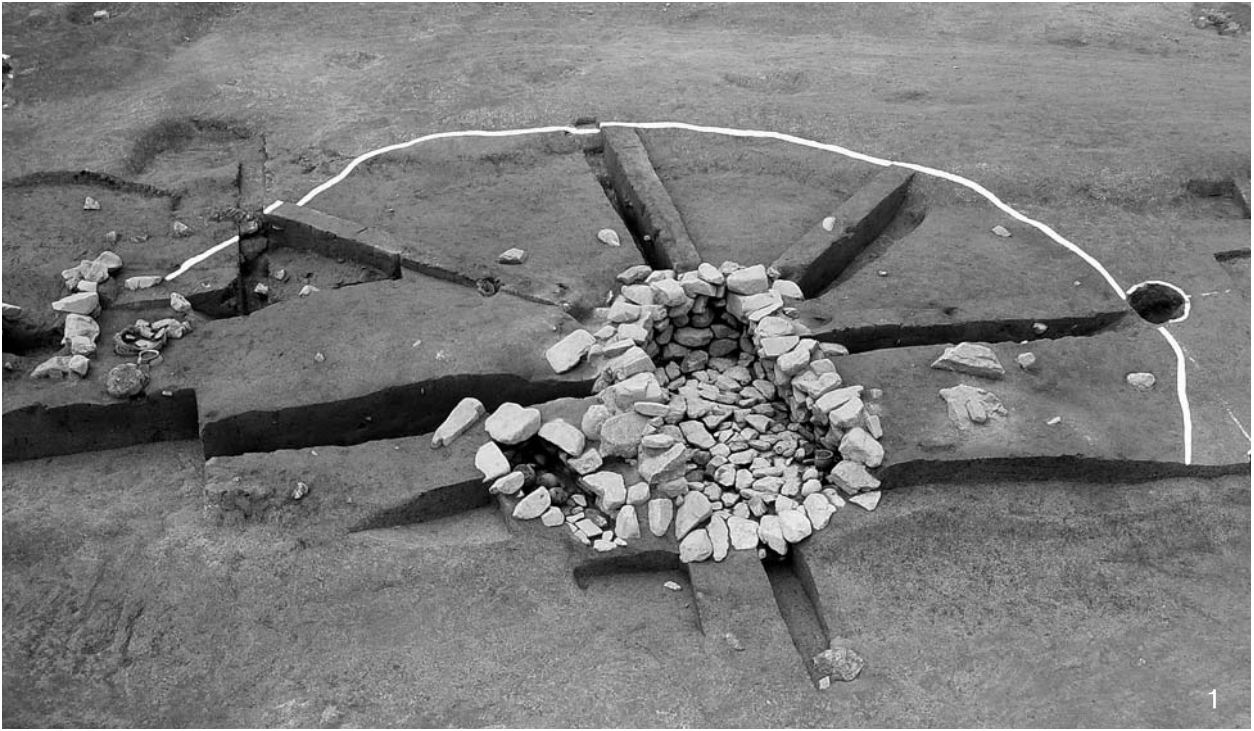
圖版 27. 10호석실 조사전 전경(1), 석실 전경(2), 봉토 토층(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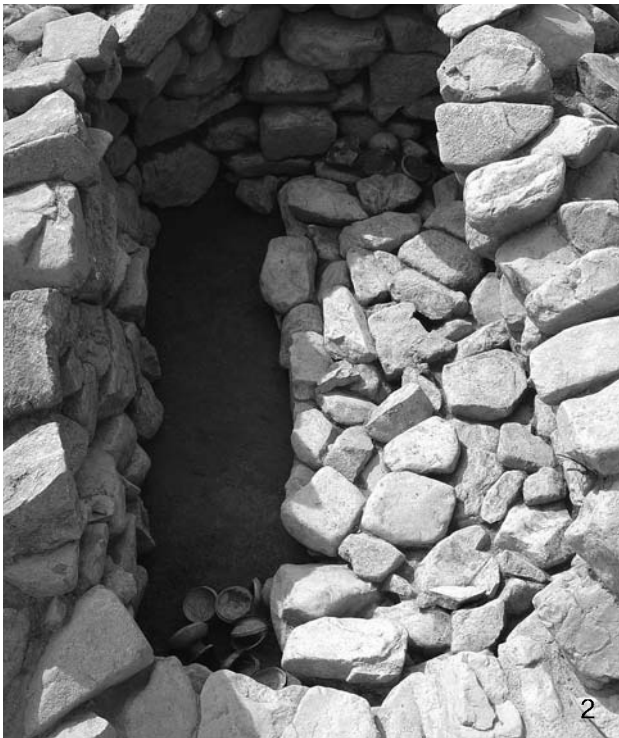
圖版 28. 10호석실 출입구(1), 폐쇄석 제거후(2), 유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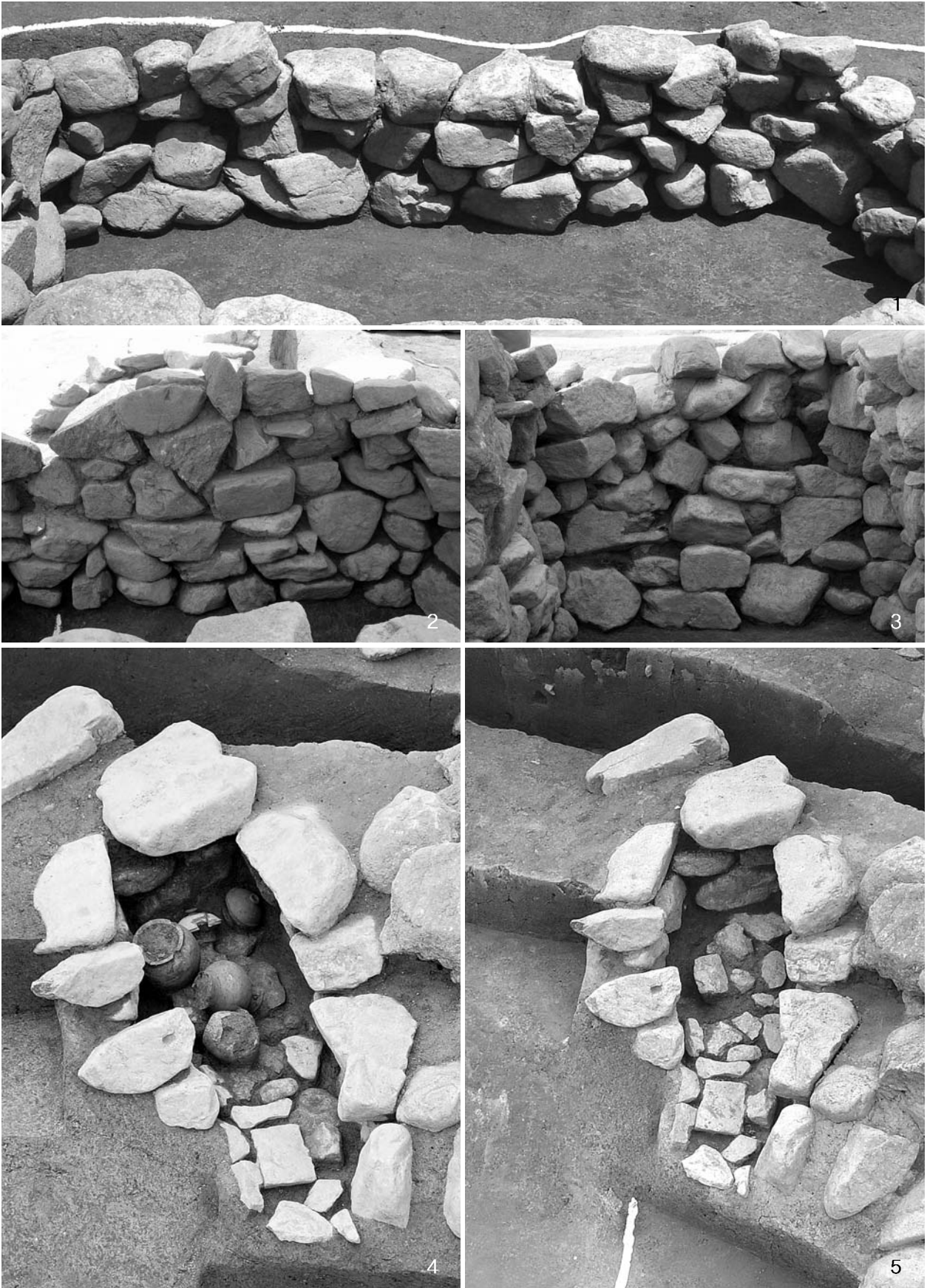
圖版 29. 10호석실 서장벽(1), 북단벽(2), 동장벽(3), 남단벽(4)



圖版 30. 11호석실 전경(1), 봉토 토층(2), 봉토유물(3·4)



圖版 31. 11-1호 2차시상(1), 2차시상 유물(2), 1차시상(3), 1차시상 유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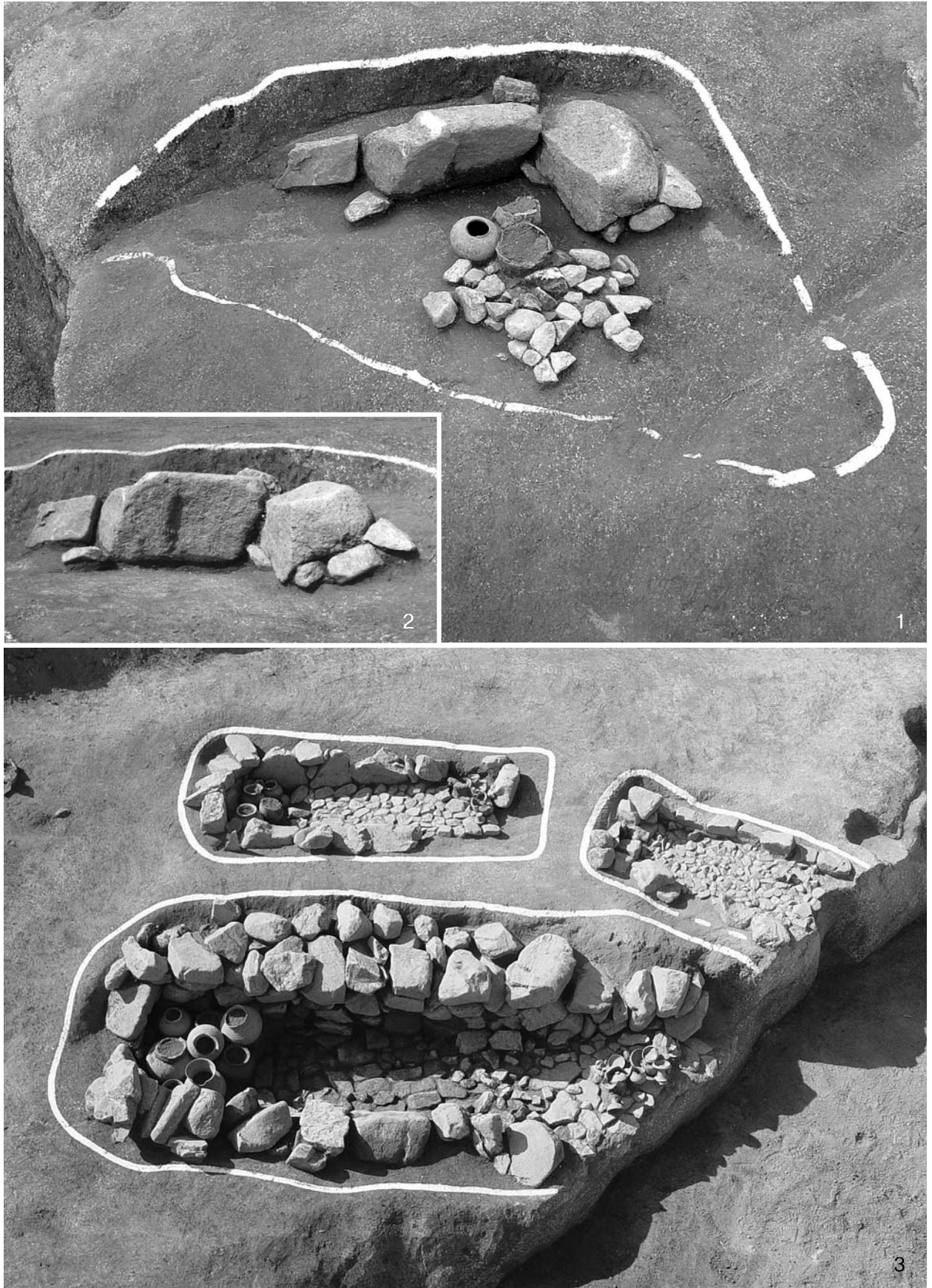
圖版 32. 11-1호 북장벽(1), 동단벽(2), 서단벽(3), 11-2호 전경 및 유물(4), 11-2호 시상(5)



圖版 33. 12호석곽 전경(1), 유물(2·3), 서장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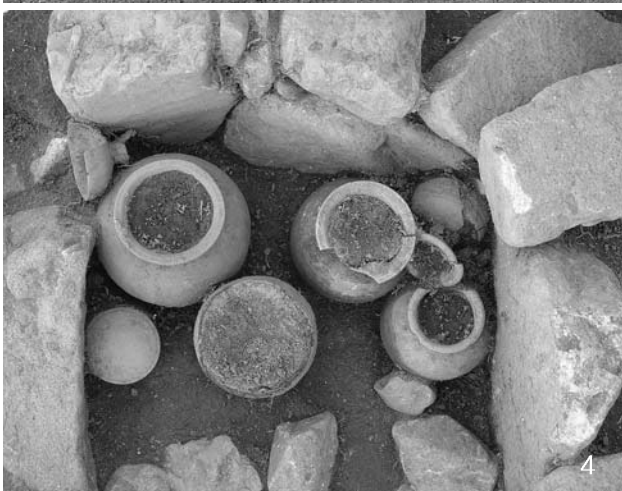
圖版 34. 12호석곽 남단벽(1), 북단벽(2), 13호석곽 전경(3), 남장벽(4), 서단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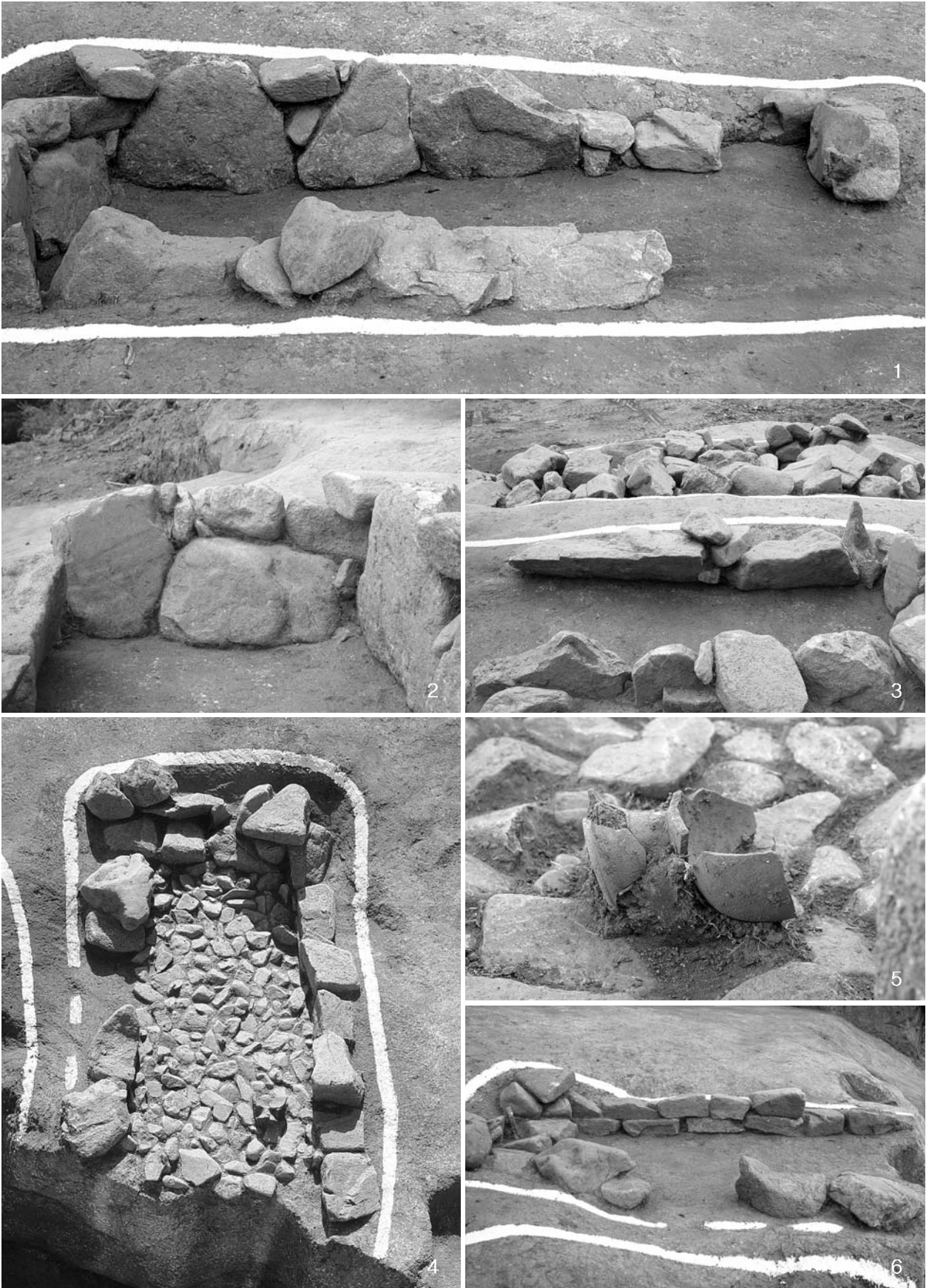
圖版 35. 14호석곽 전경(1), 장벽(2), 15·16·17호석곽 배치상태(3)



圖版 36. 15호석곽 전경(1), 유물(2·3), 북장벽(4)



圖版 37. 15호석곽 서단벽(1), 남장벽(2), 16호석곽 전경(3), 유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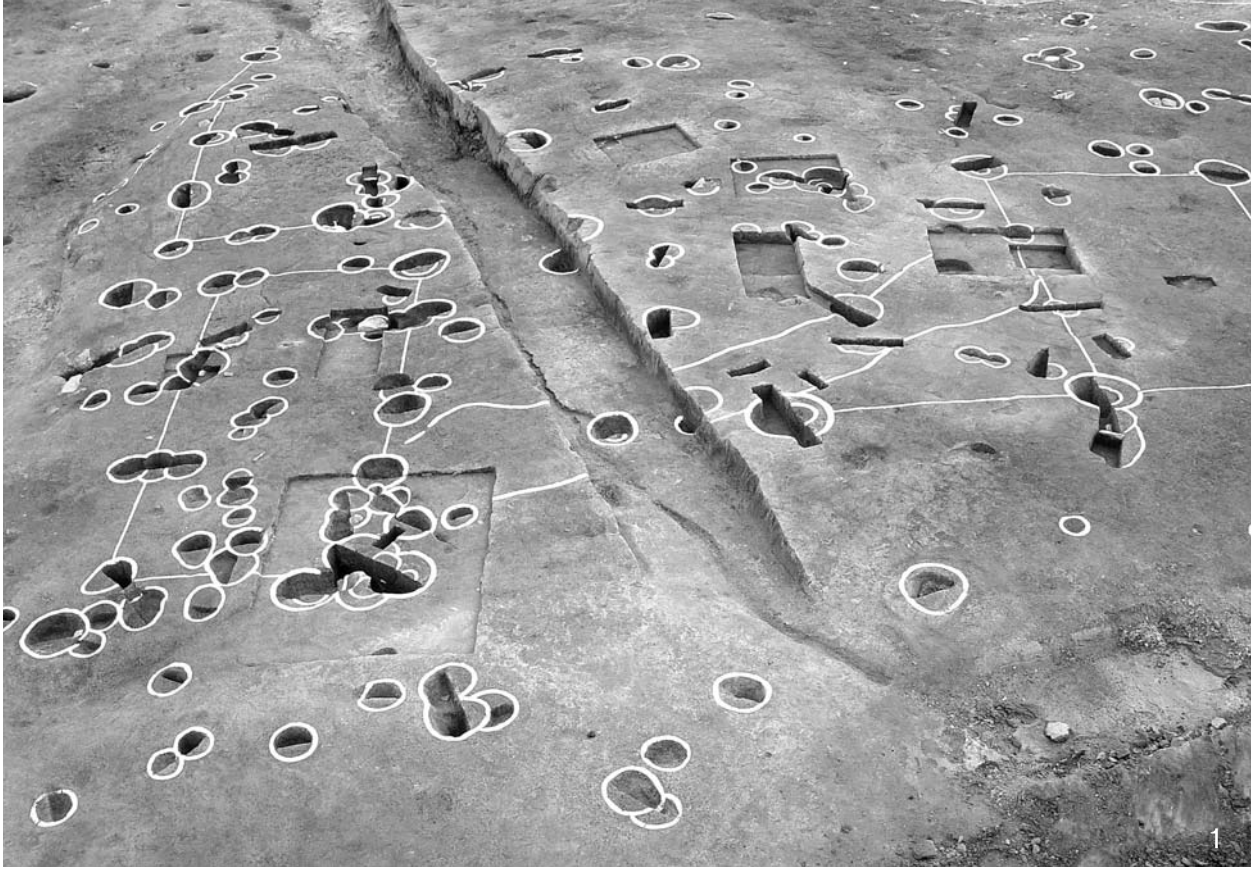
圖版 38. 16호석곽 북장벽(1), 서단벽(2), 남장벽(3), 17호석곽 전경(4), 유물(5), 북장벽(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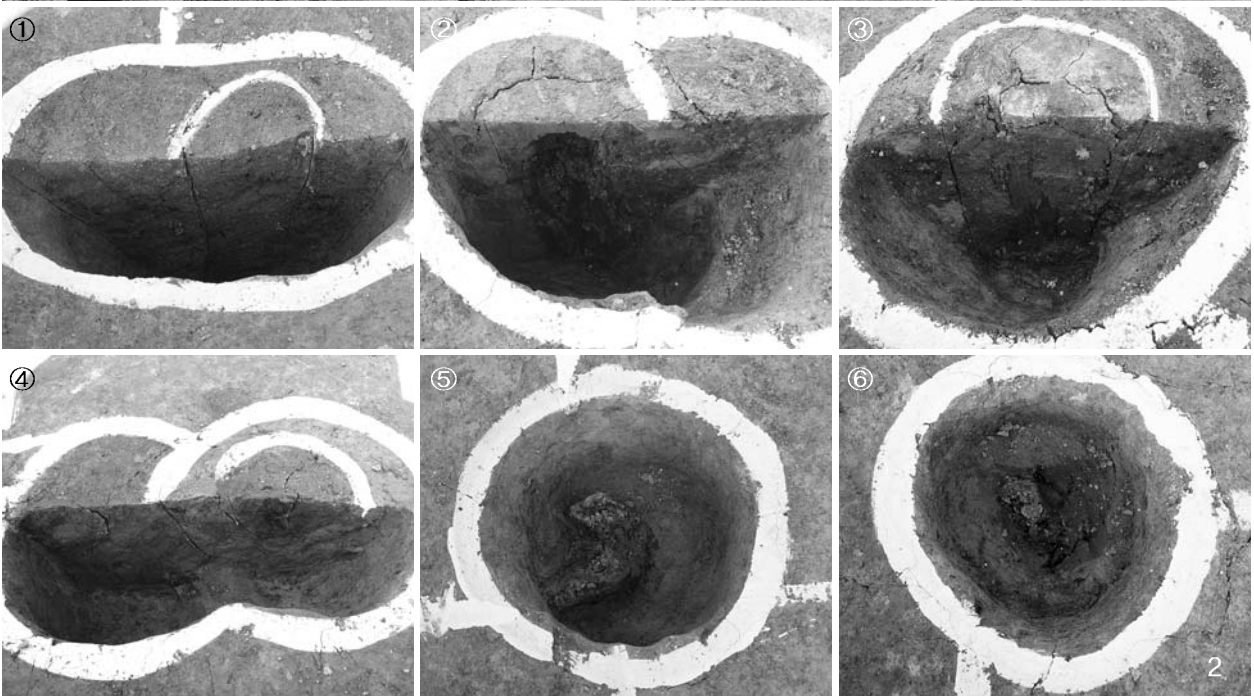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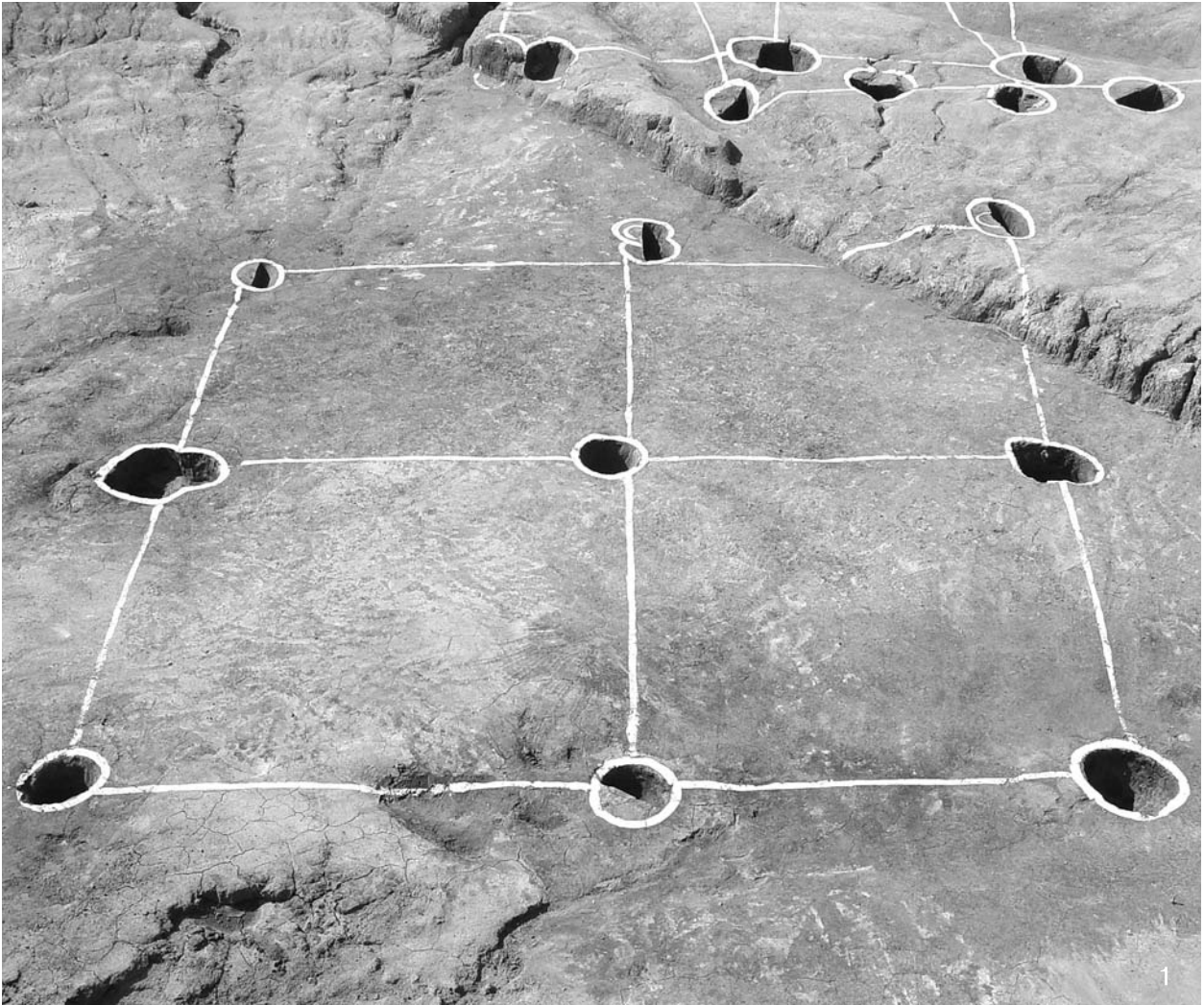
圖版 39. 18호석곽 조사전 전경(1), 전경(2), 유물(3·4)



圖版 40. 17·18·19호 굴립주건물지 전경(1), 32·36·37호 굴립주건물지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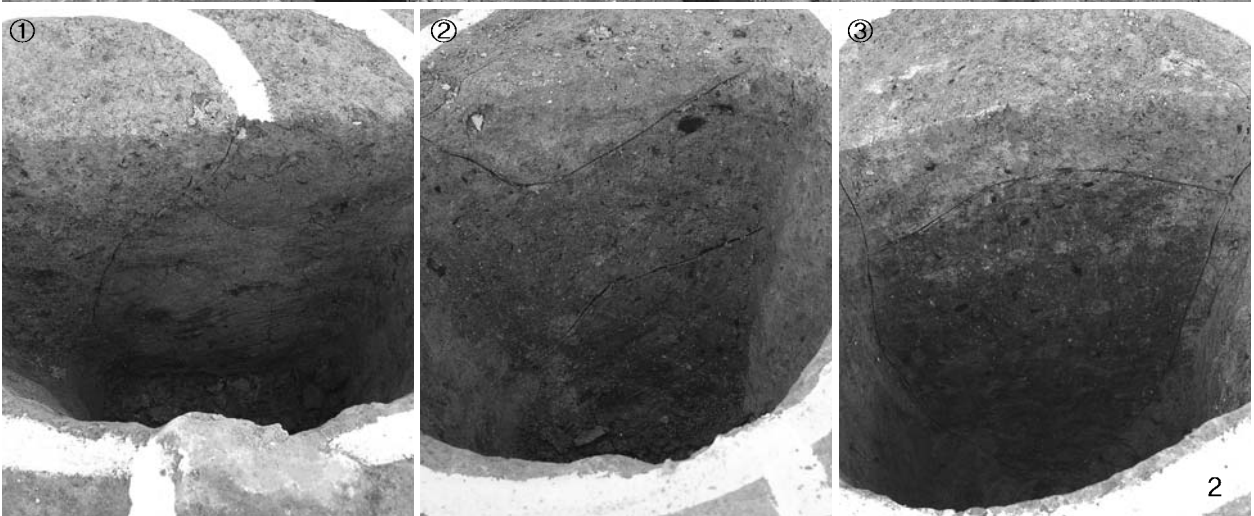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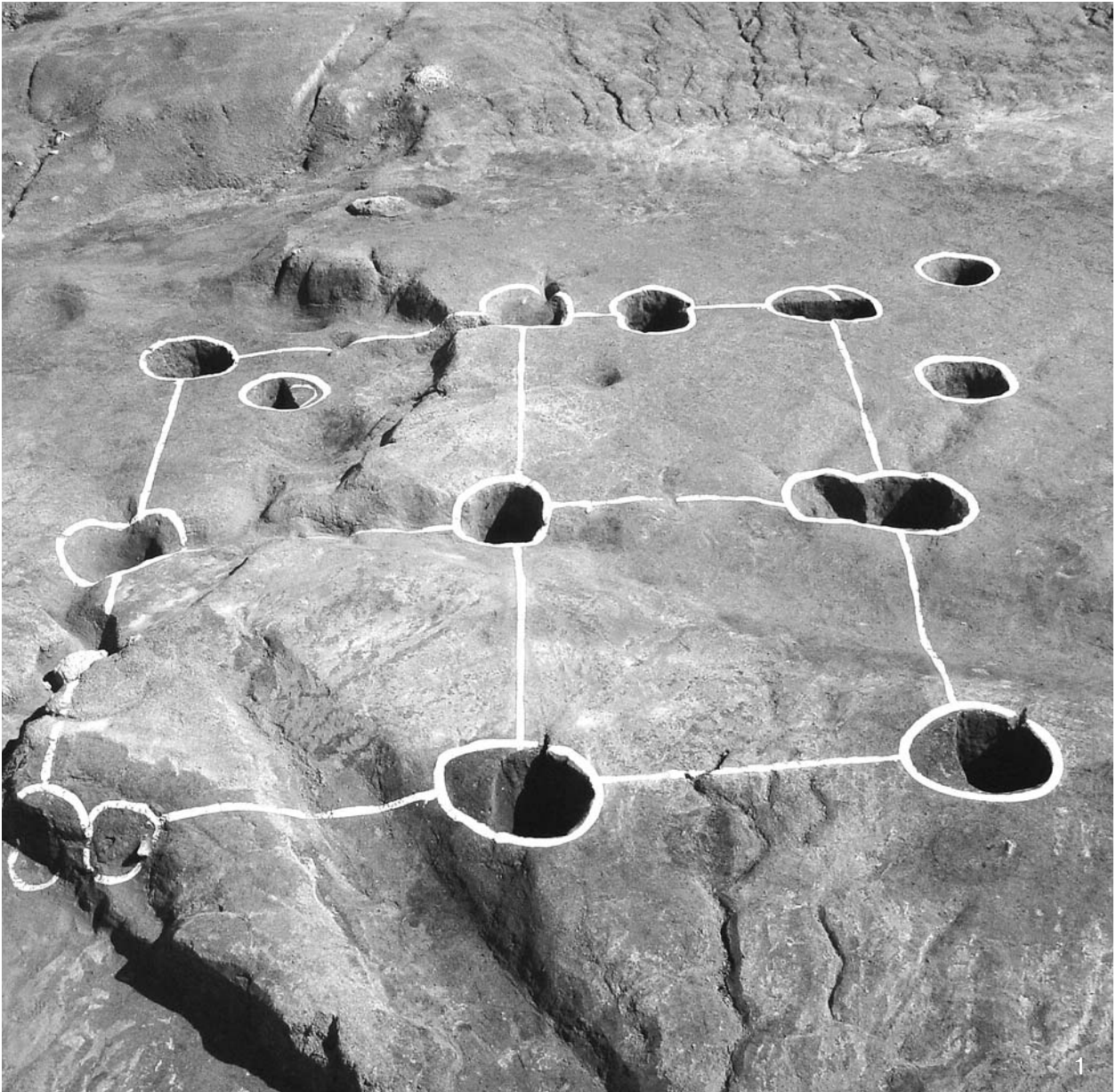
圖版 41. 48 · 49 · 50 · 51호 굴림주건물지 전경(1), 52~62호 굴림주건물지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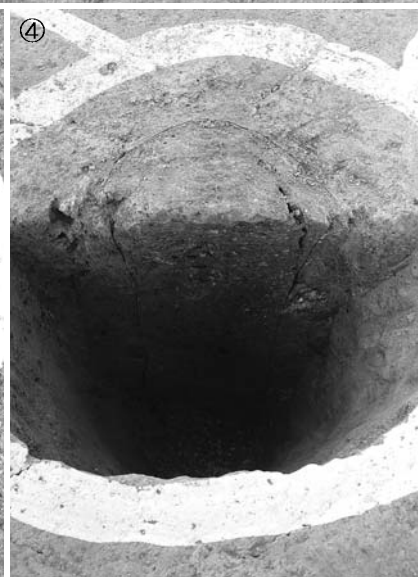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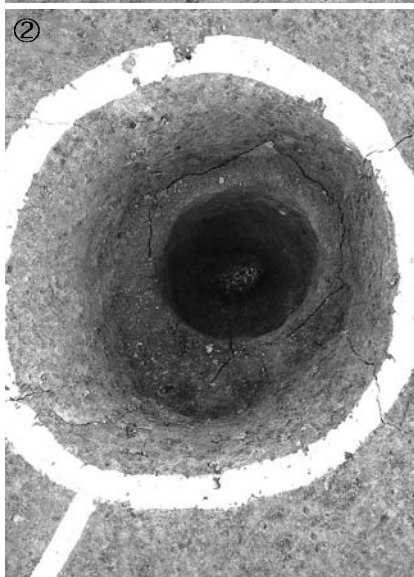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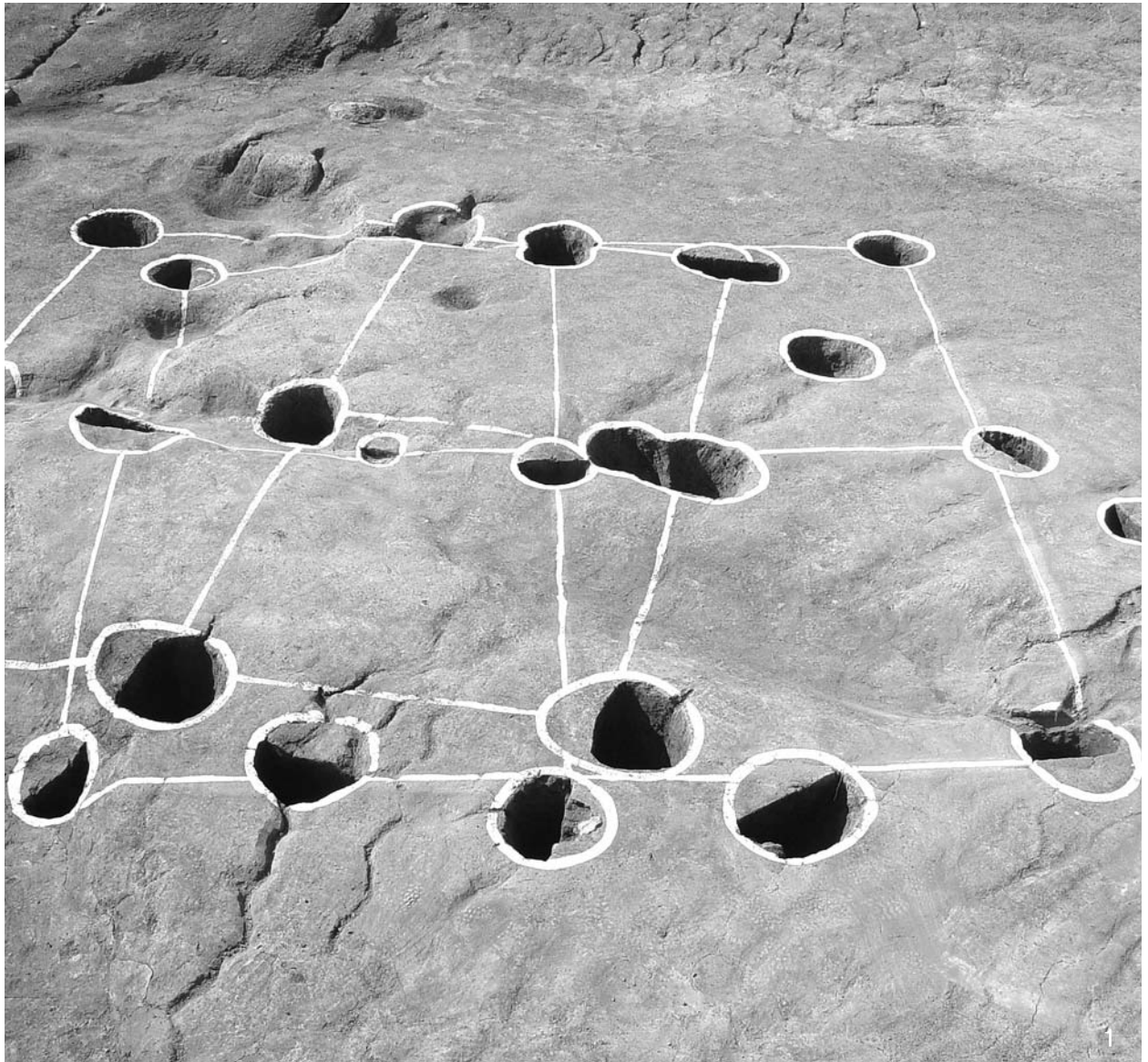
圖版 42. 1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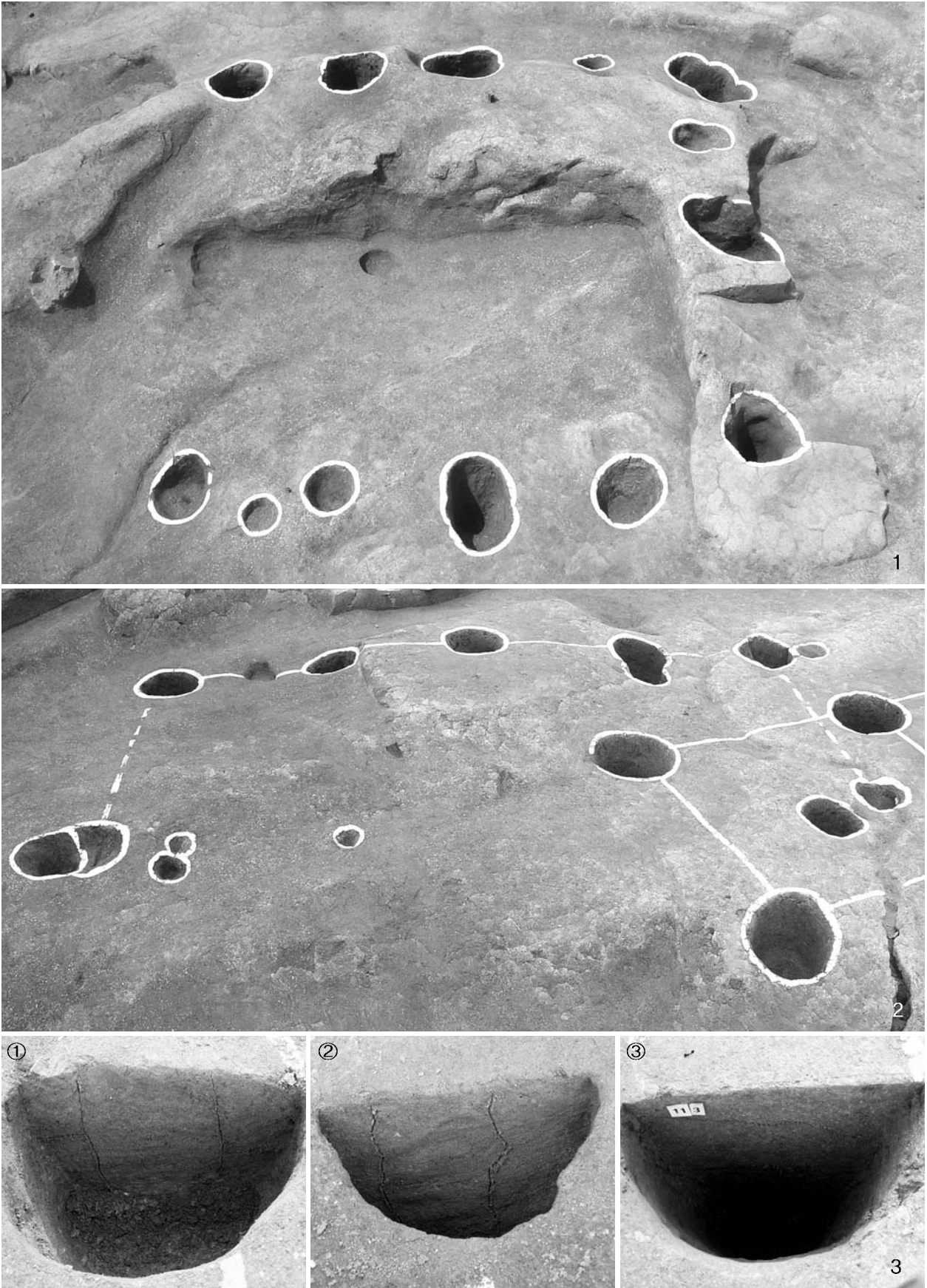
圖版 43. 1·2·3호 굴림주건물지(1), 2·3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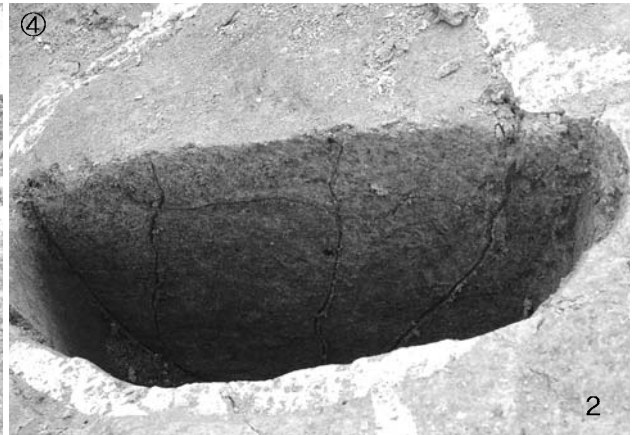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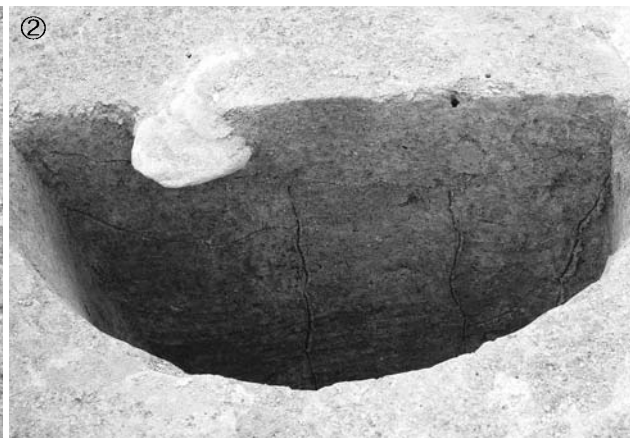
圖版 44. 2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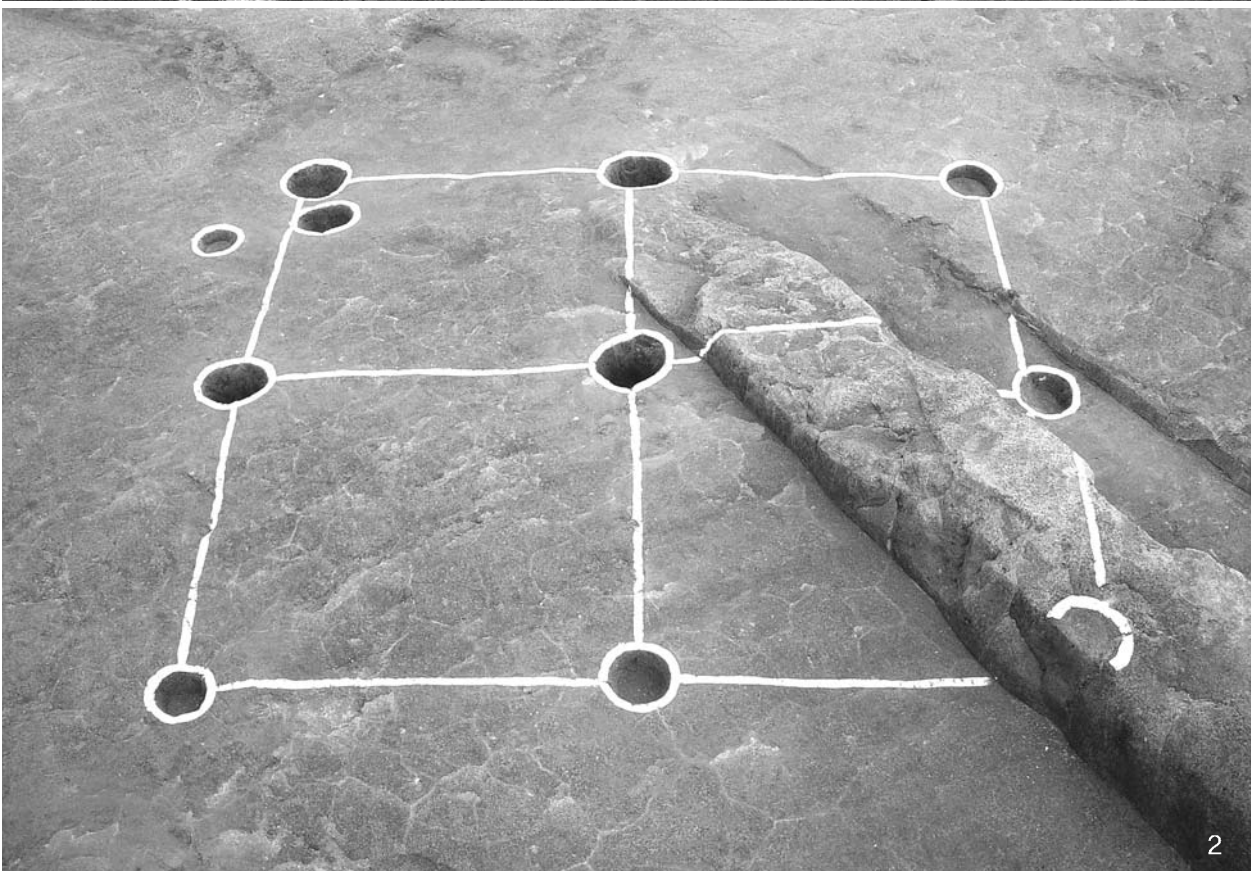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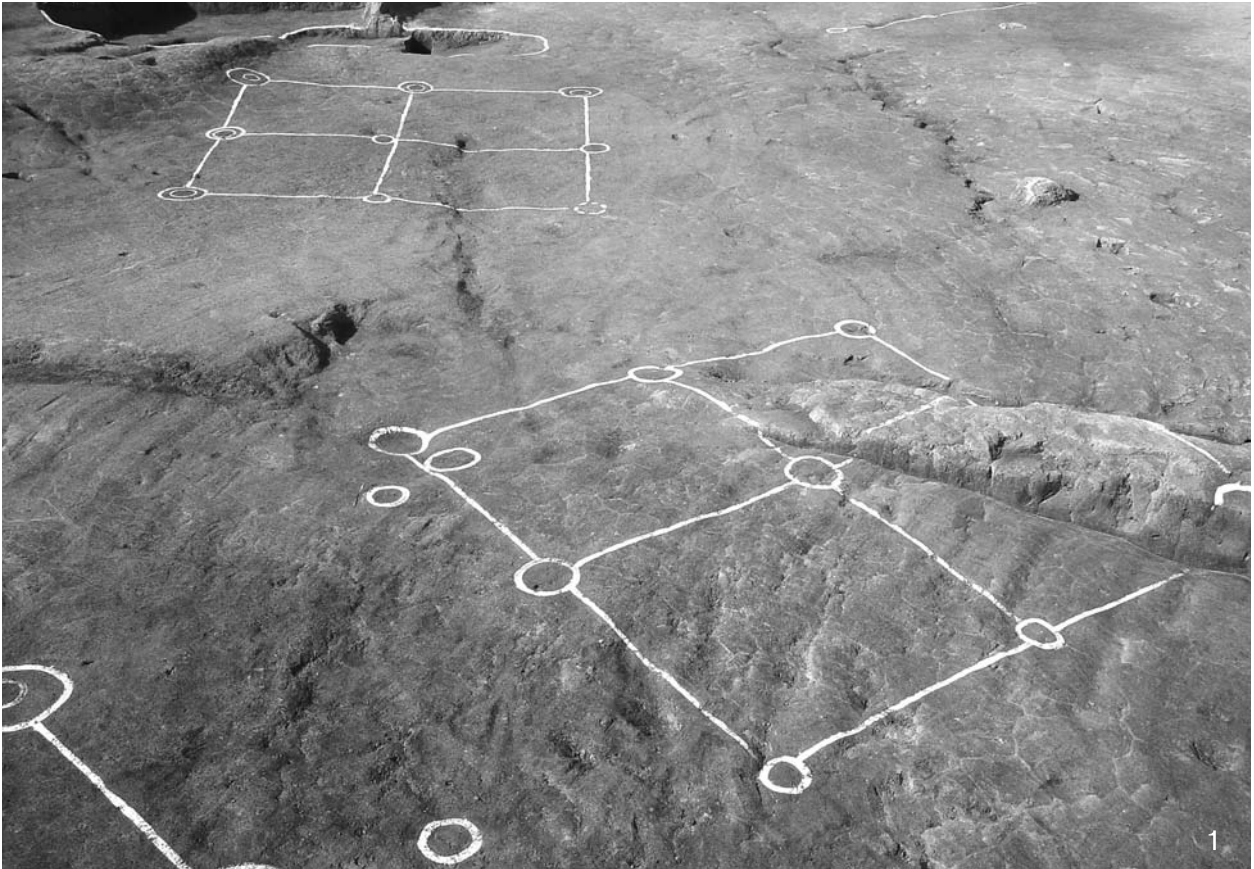
圖版 45. 3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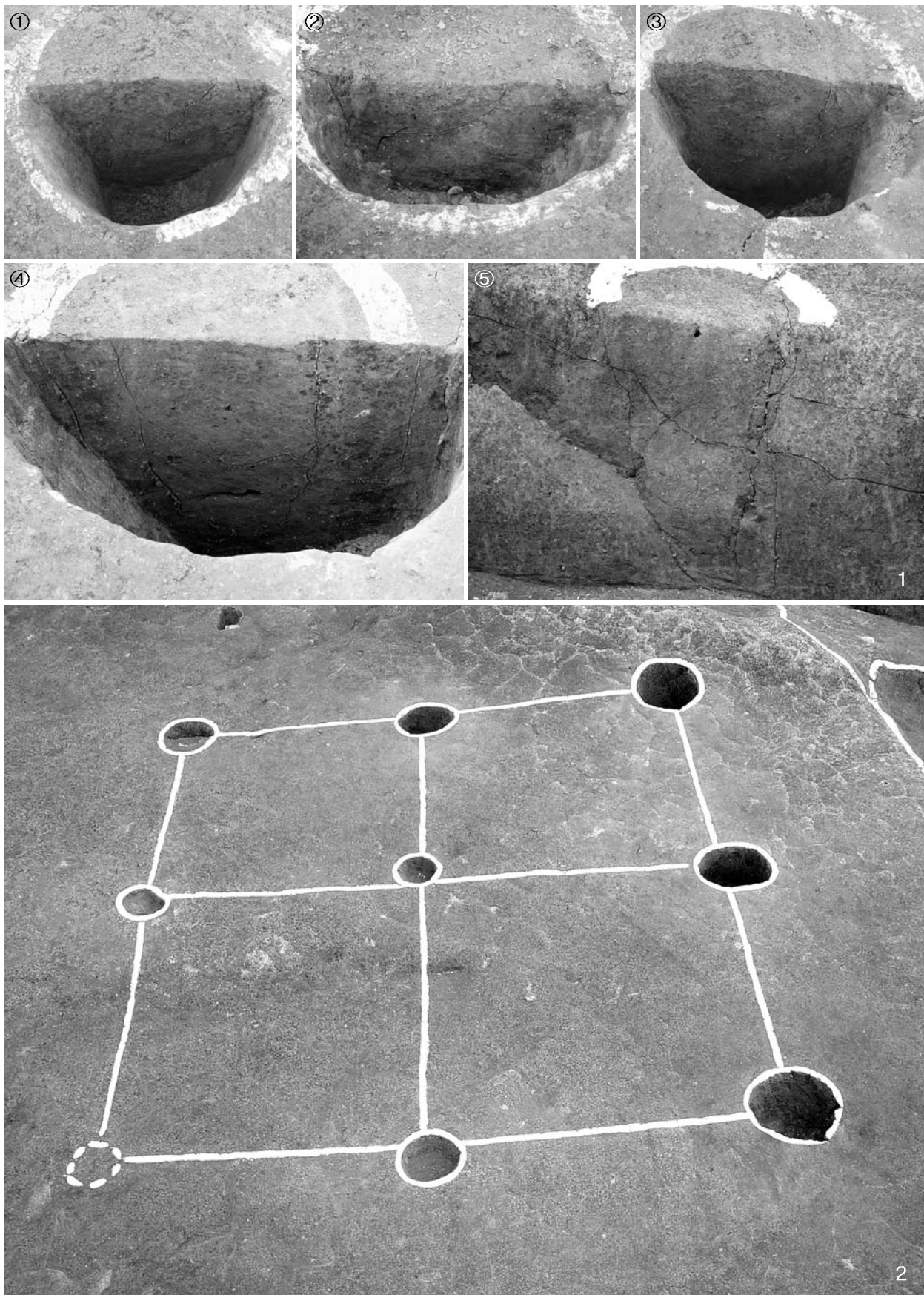
圖版 46. 4호 굴림주건물지(1), 5호 굴림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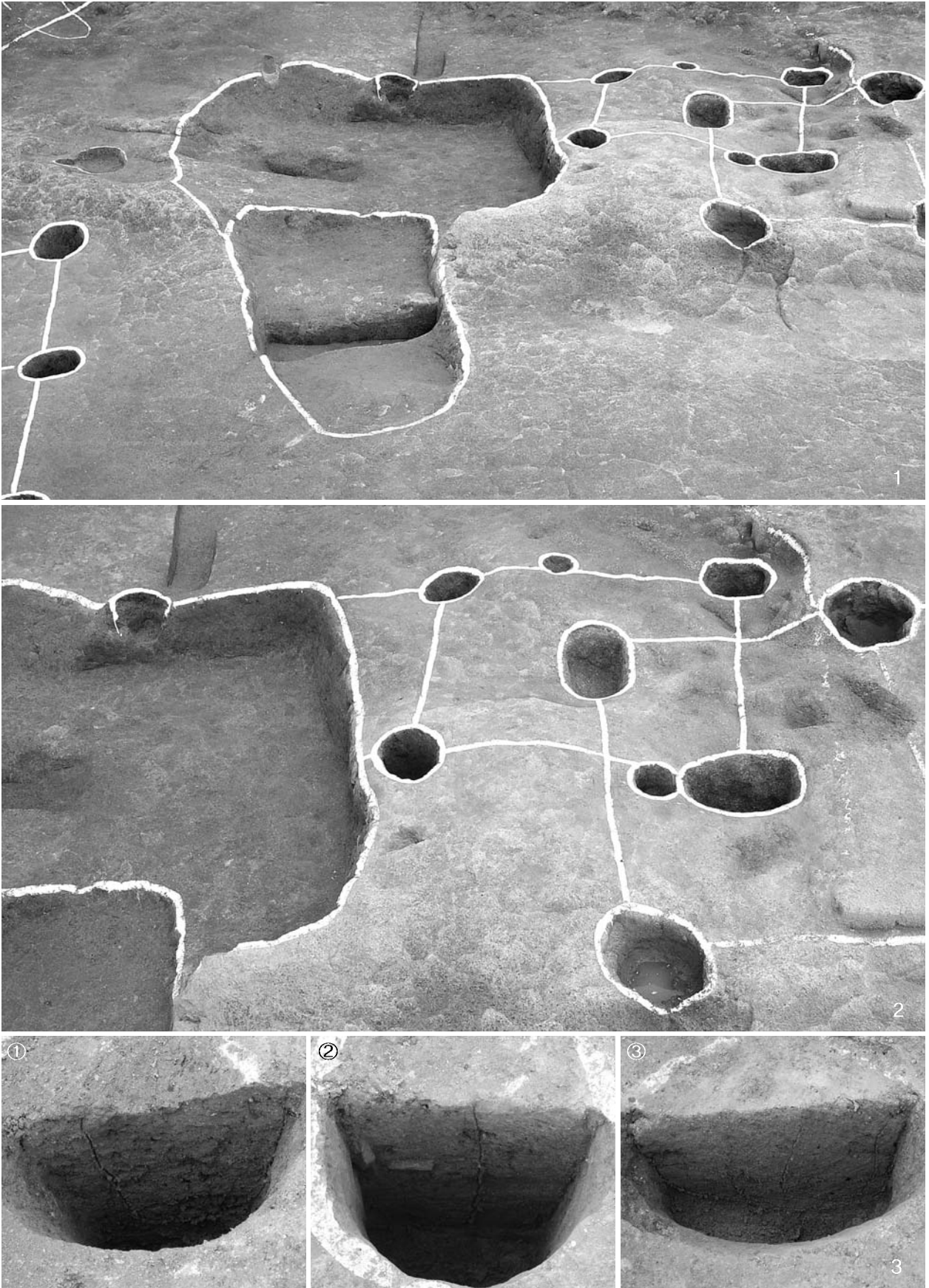
圖版 47. 6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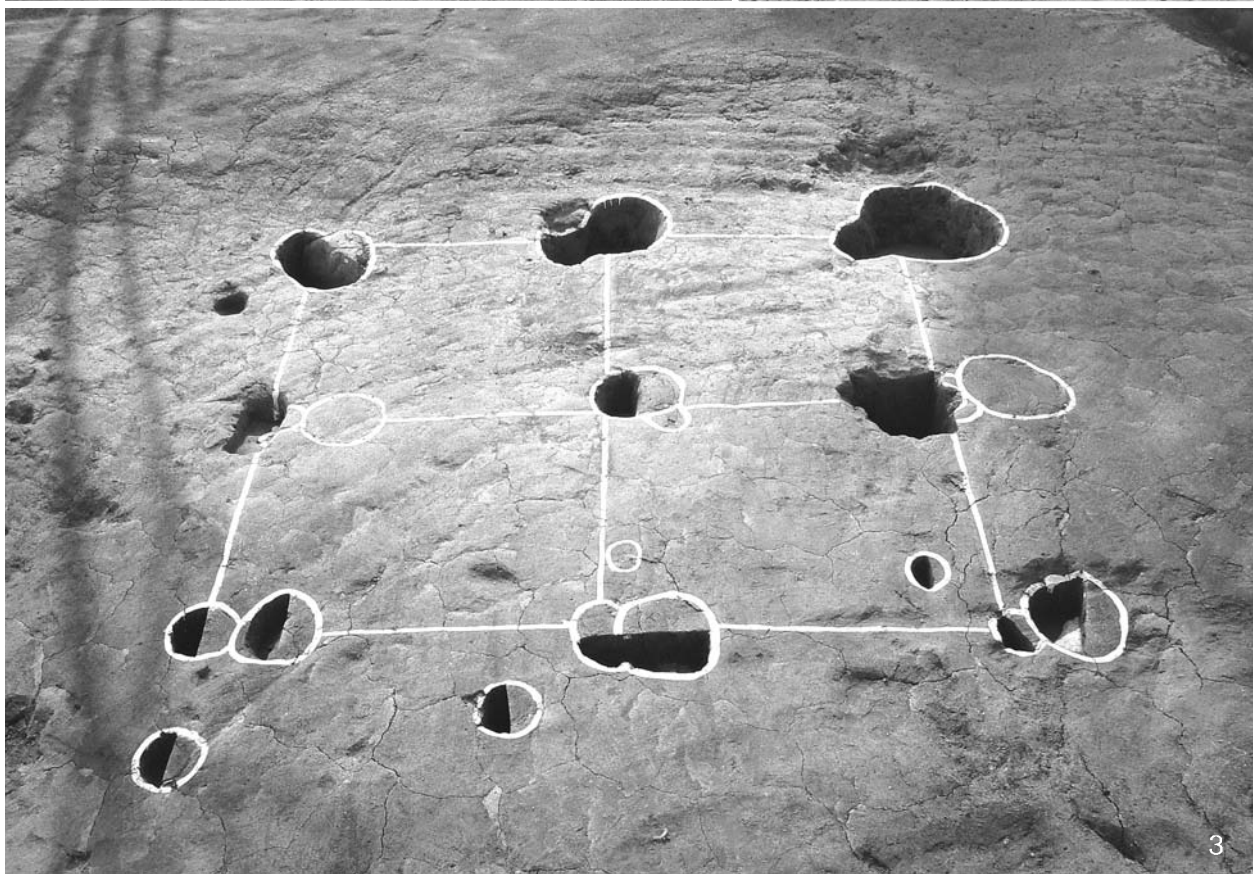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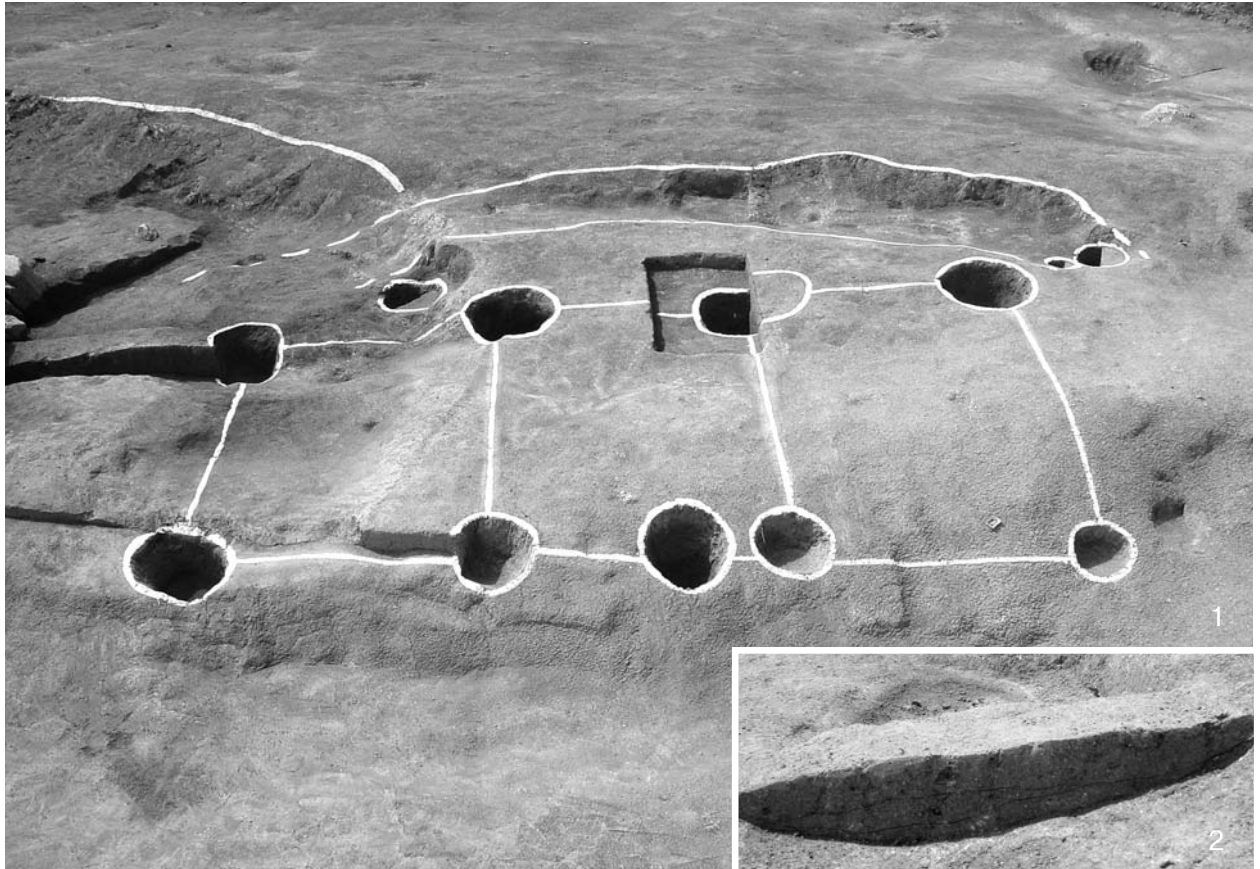
圖版 48. 7·8호 굴림주건물지(1), 7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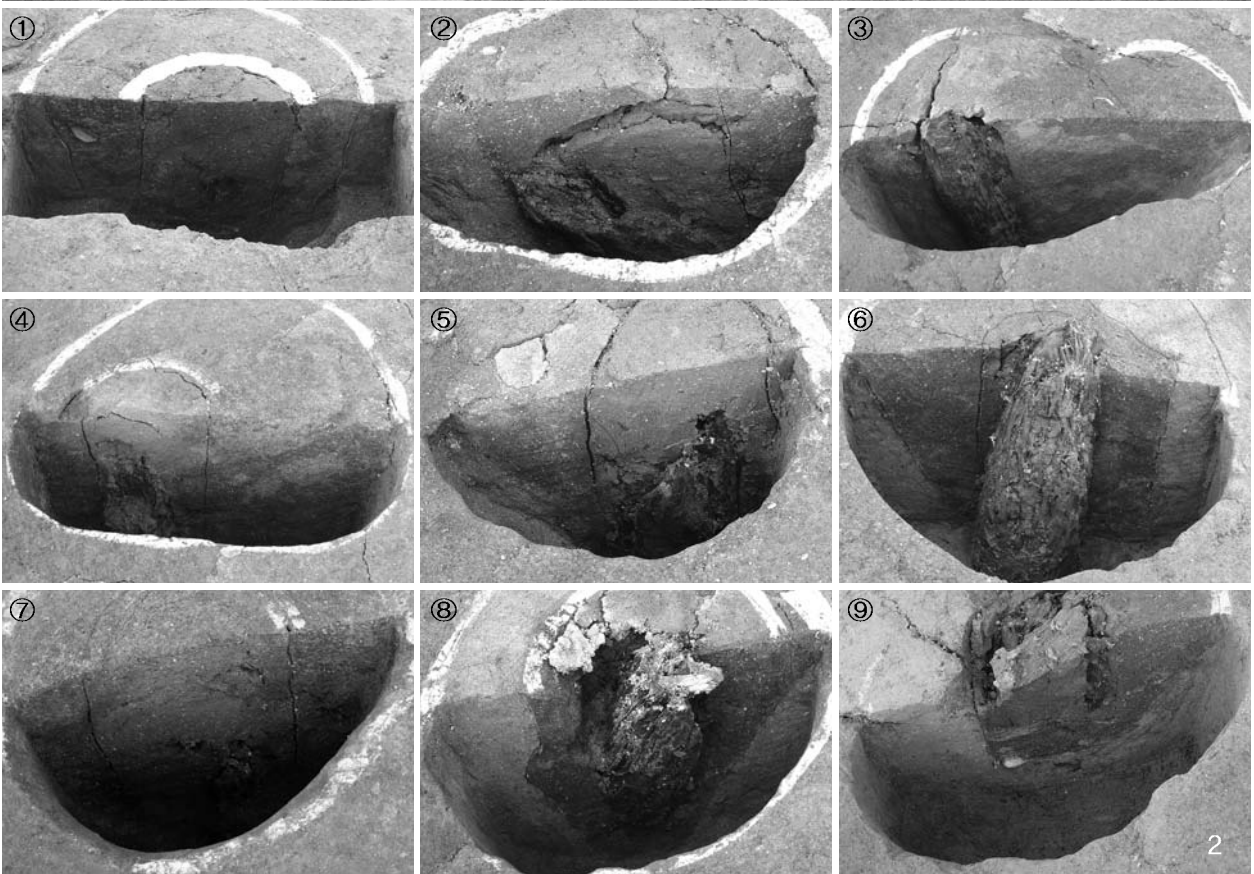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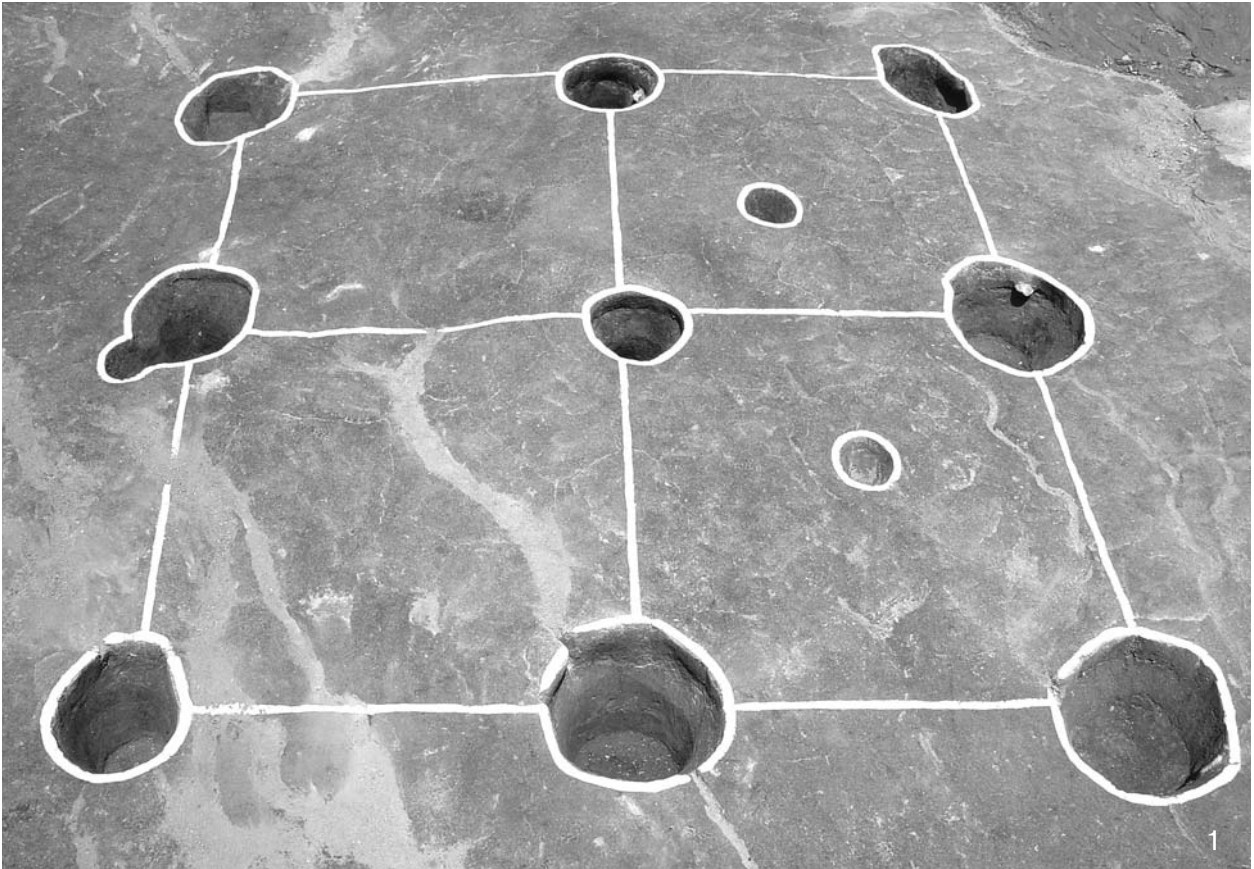
圖版 49. 7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1), 8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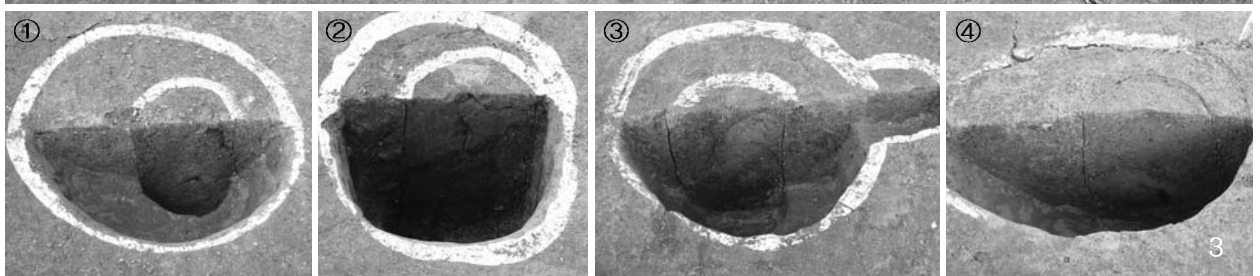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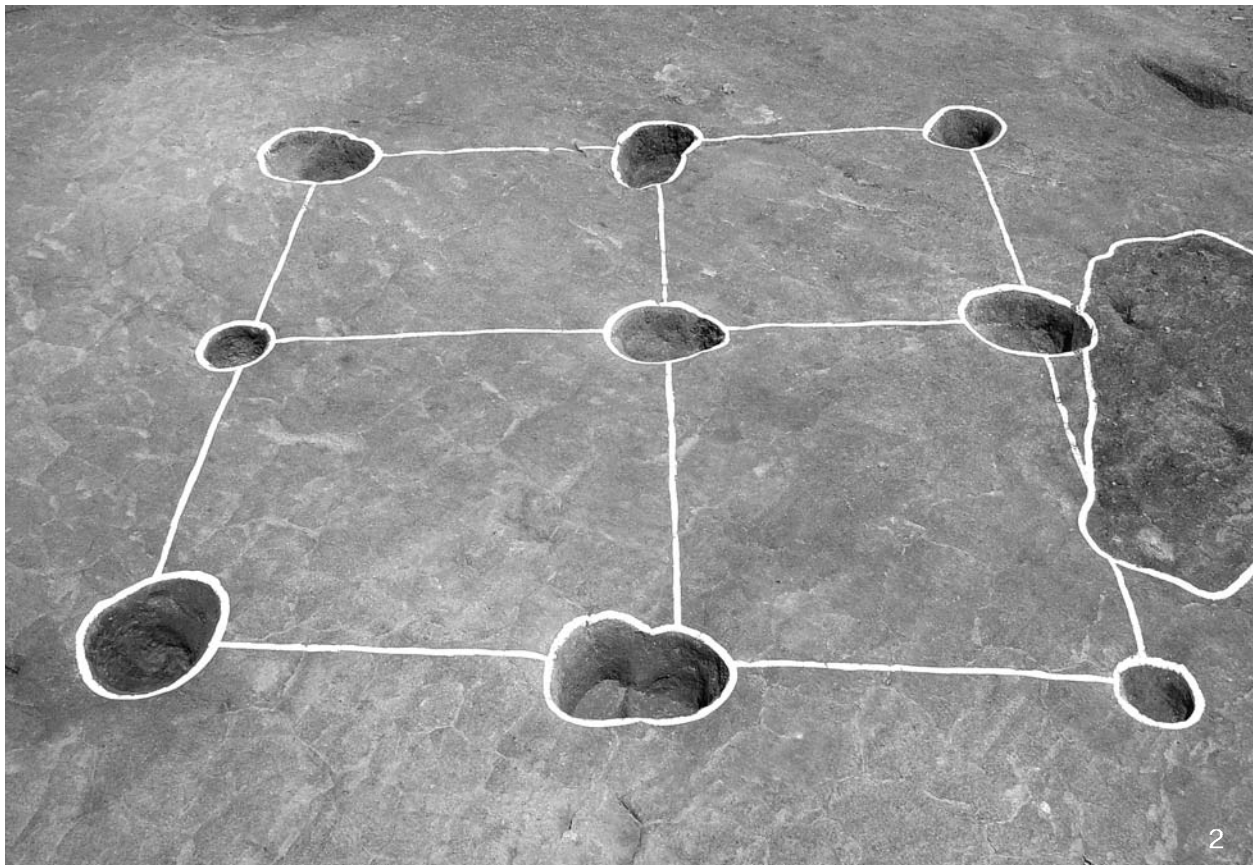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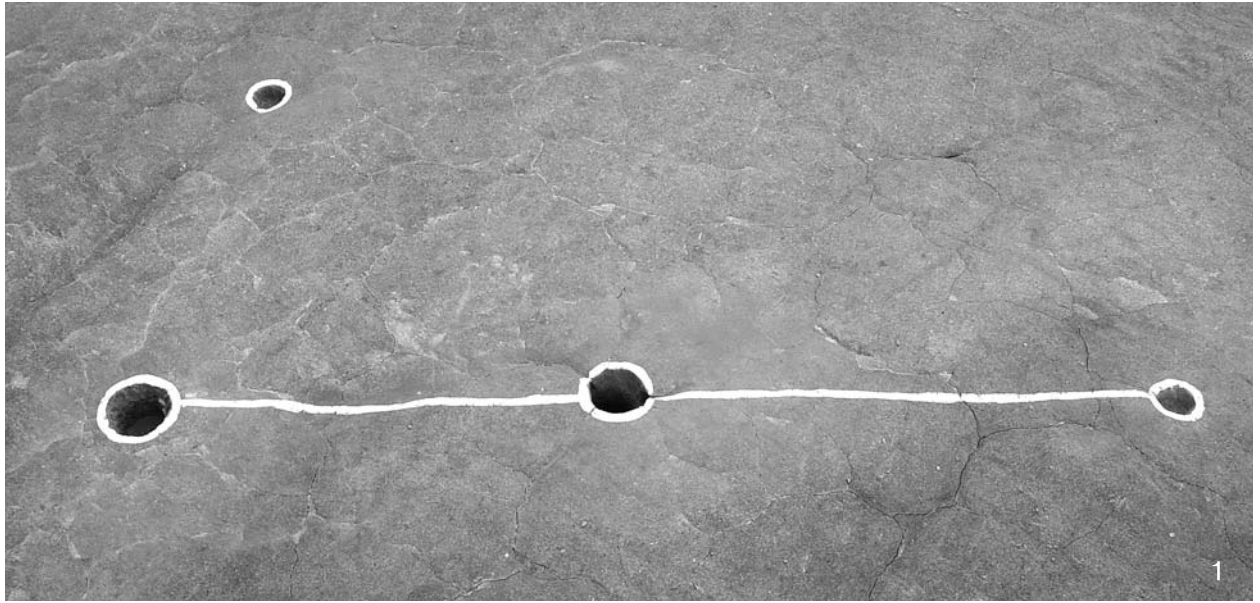
圖版 50. 9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 (1:11호 석실과 중복관계,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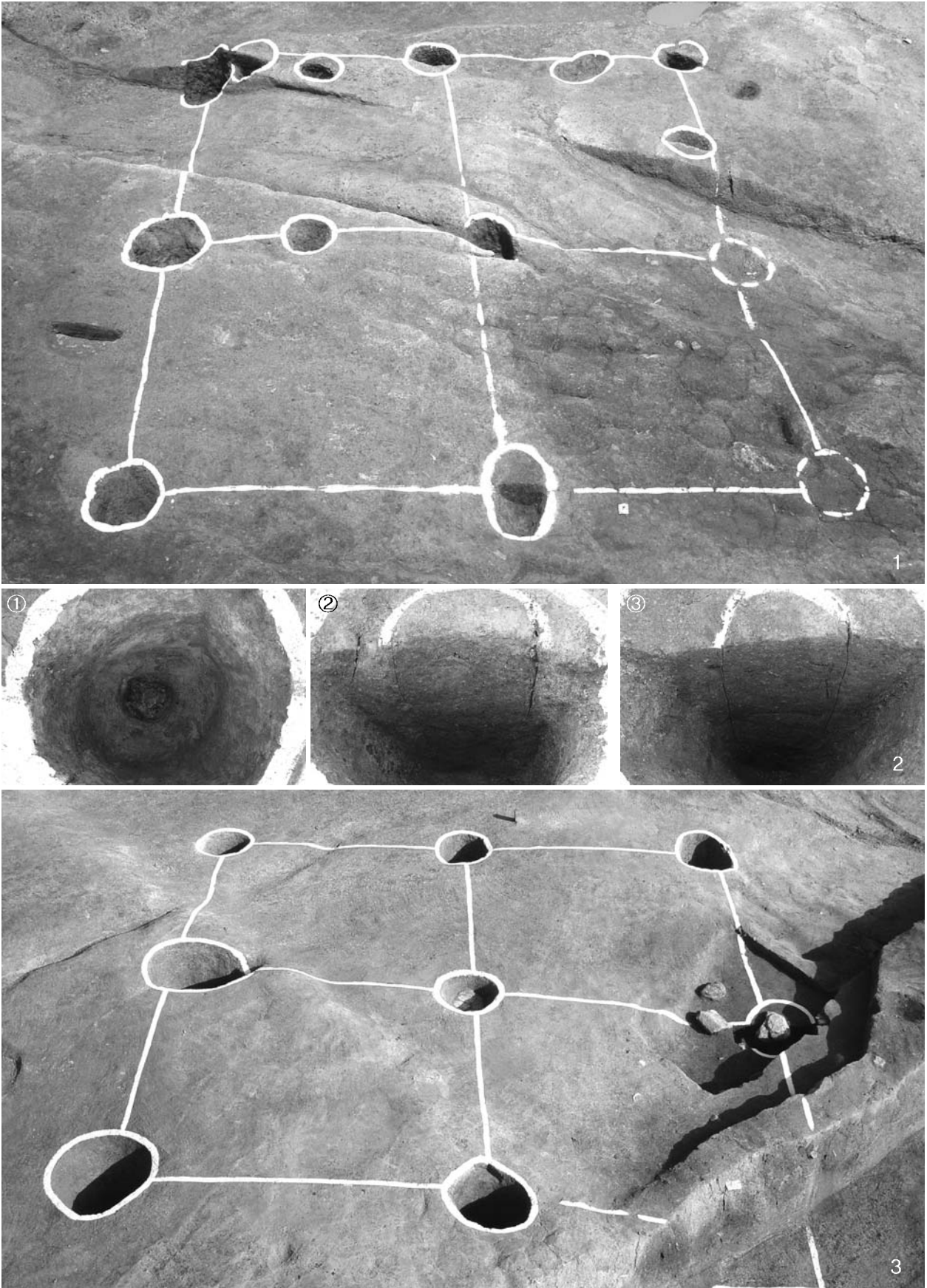
圖版 51. 10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 (1:전경, 2:주구토층), 11호 굴림주건물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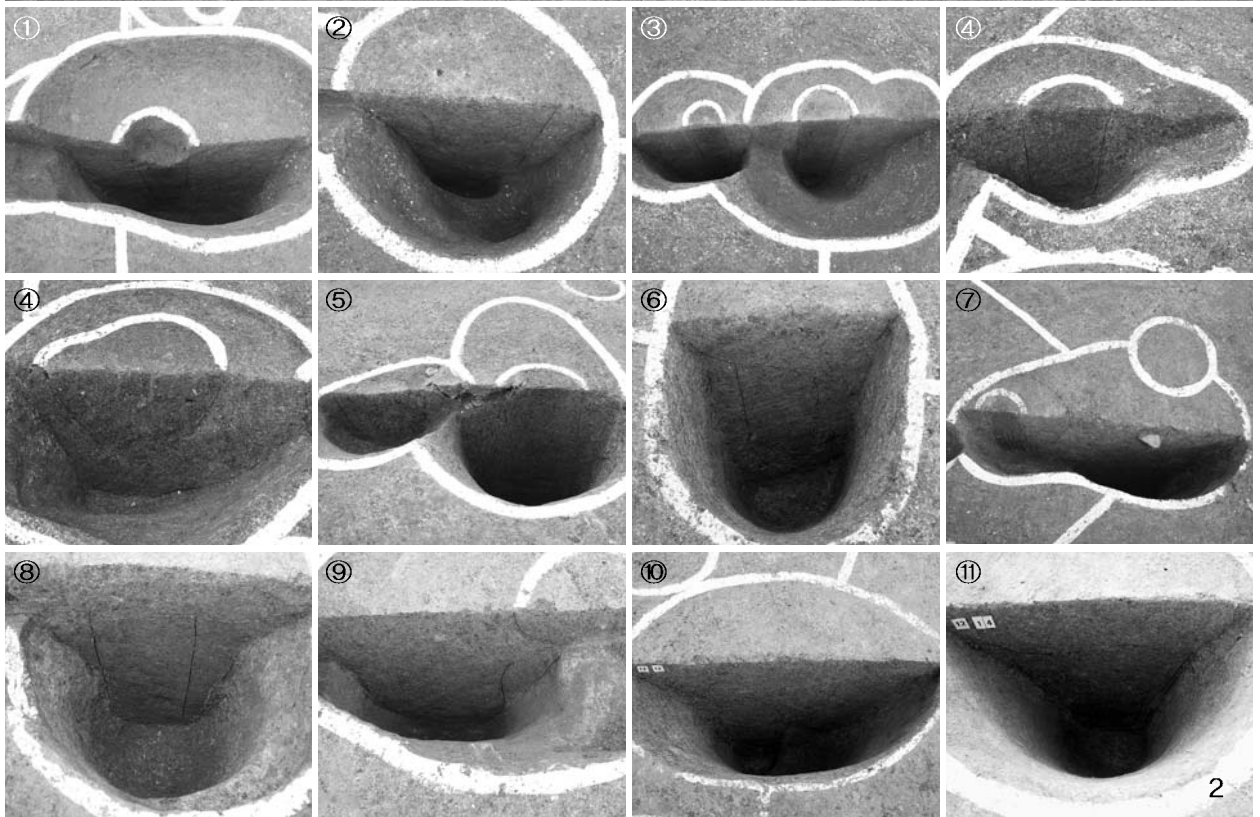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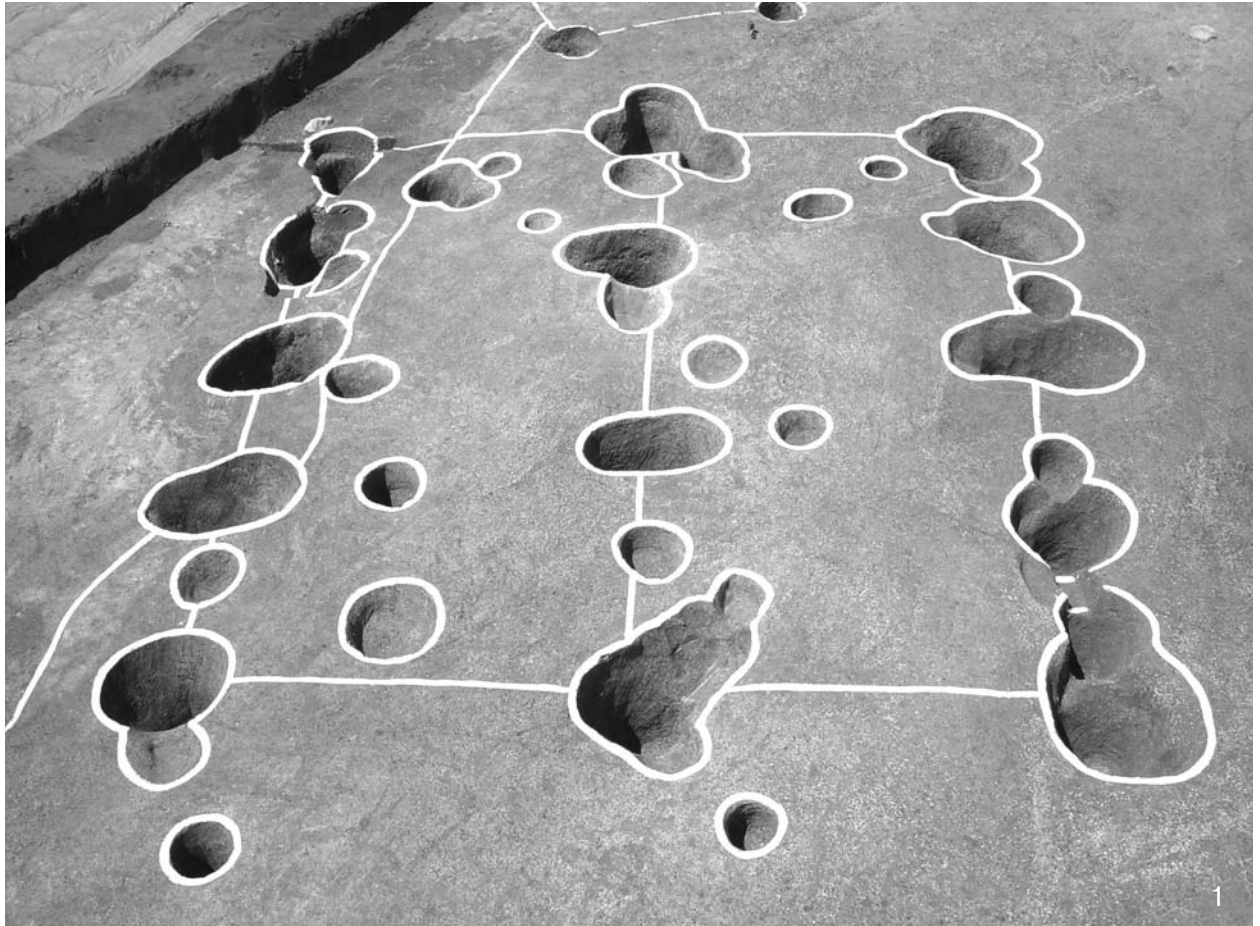
圖版 52. 1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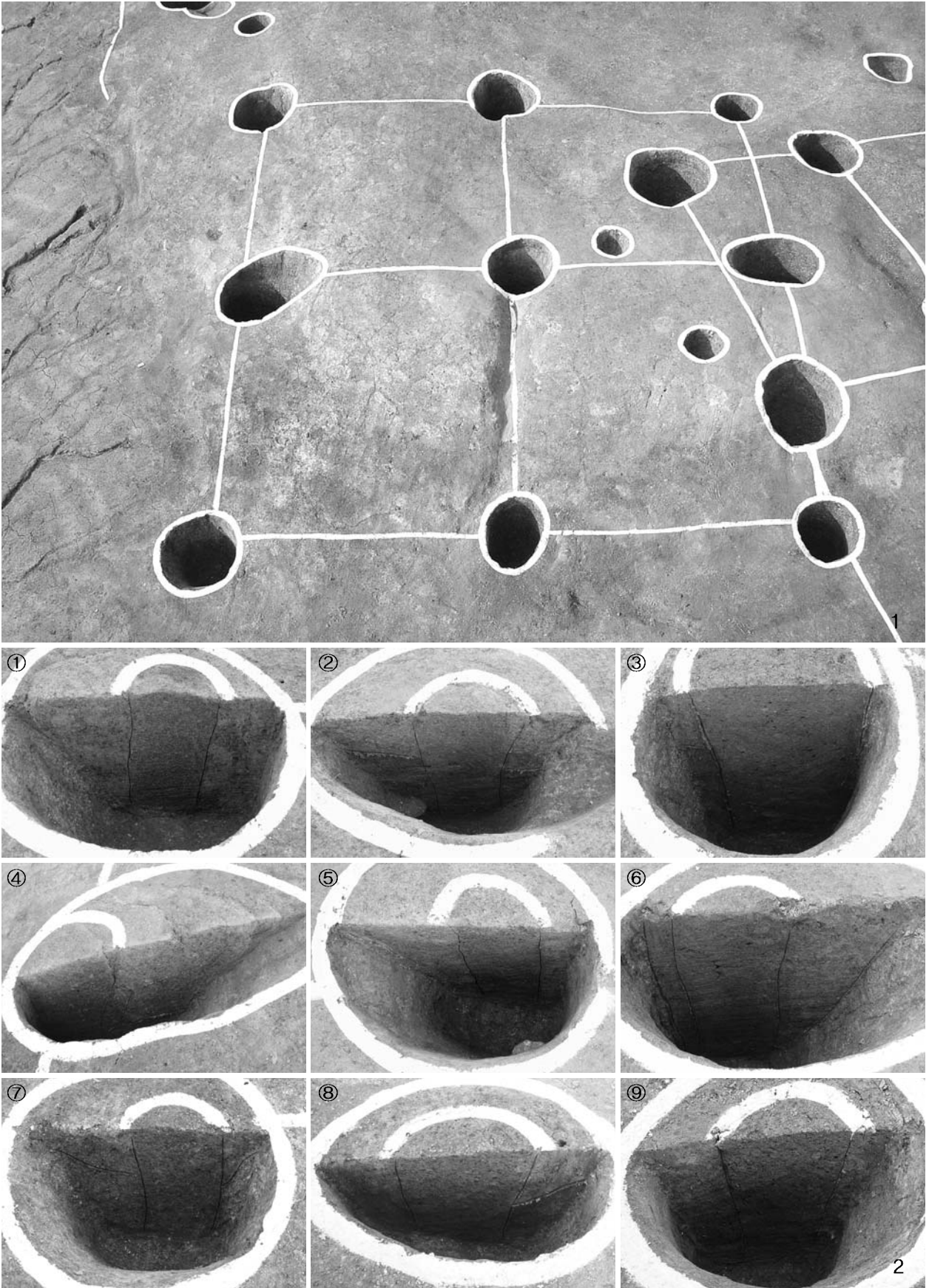
圖版 53. 13호 굴림주건물지(1), 14호 굴림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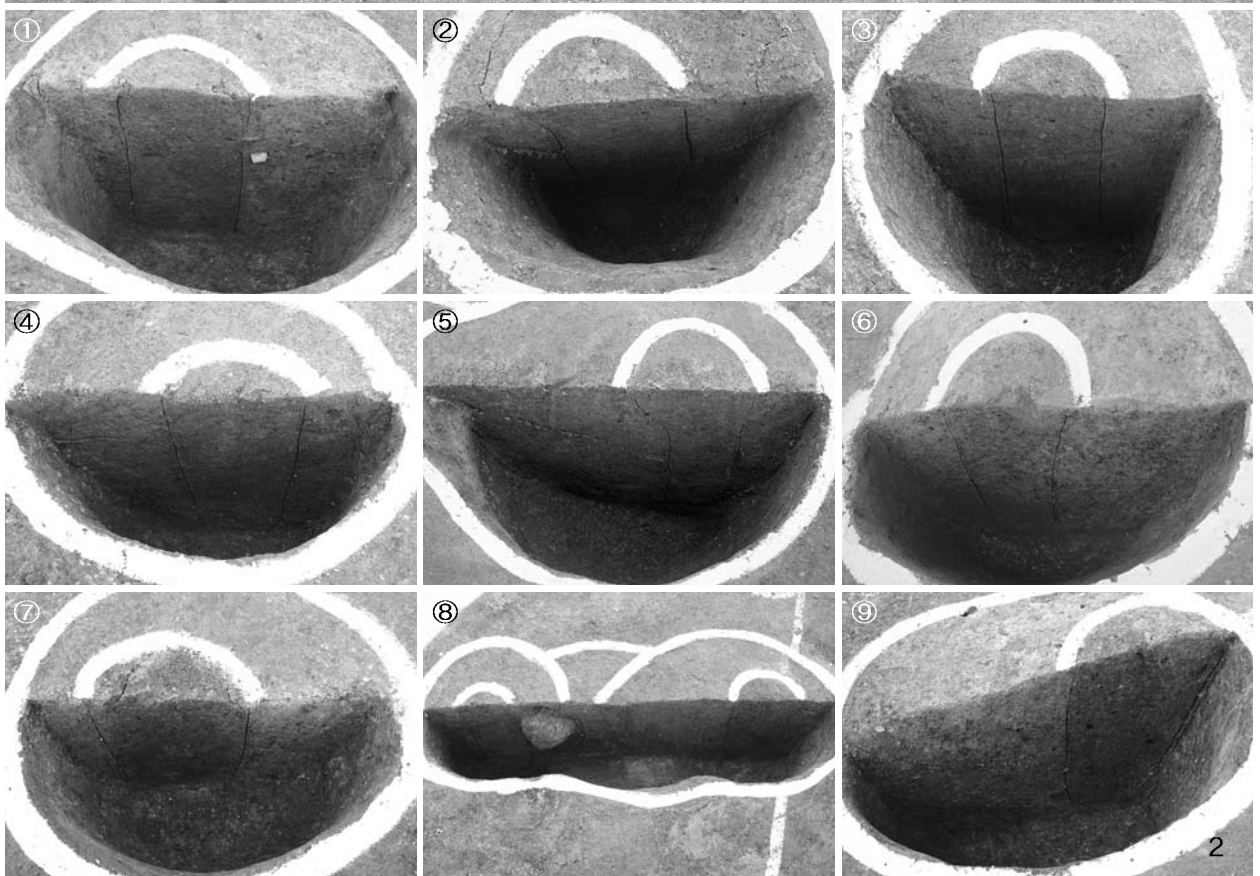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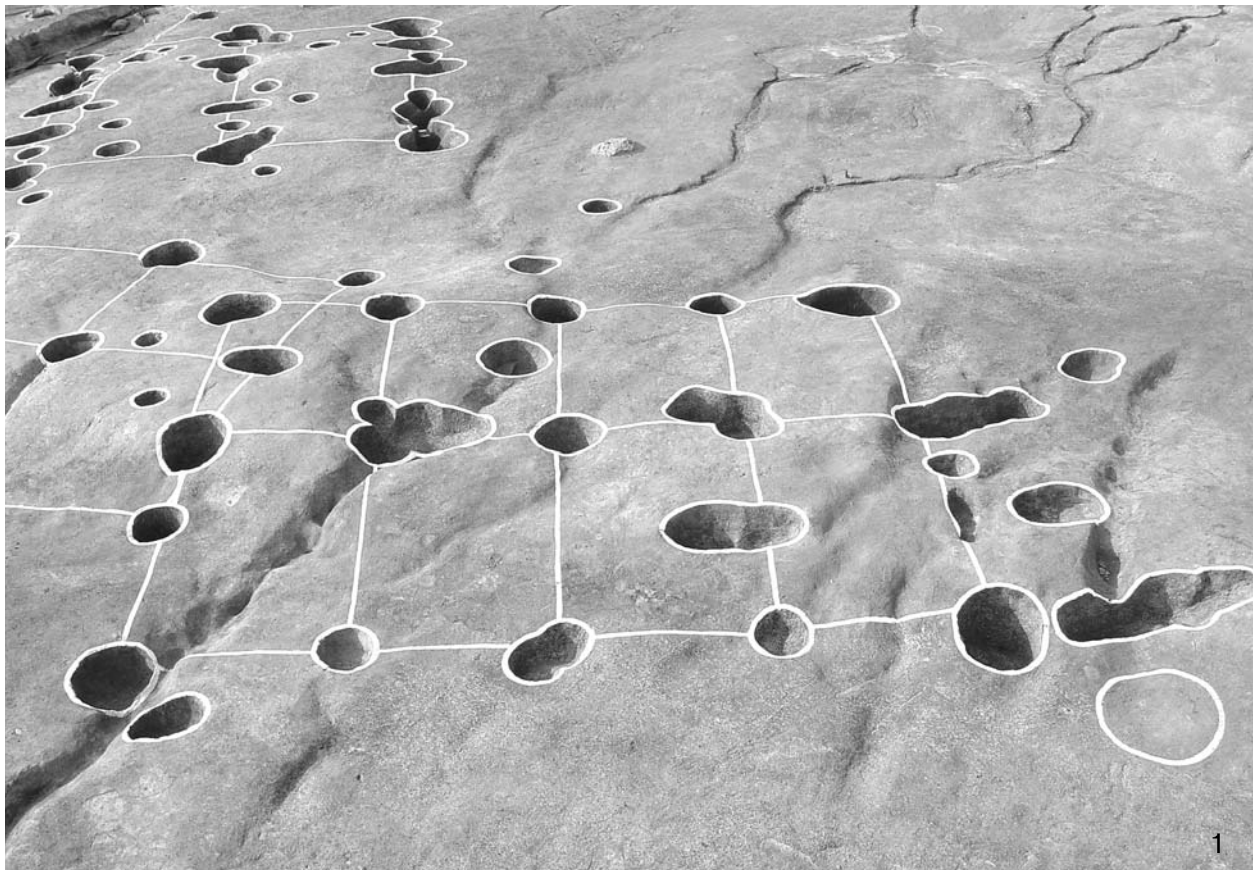
圖版 54. 15호 굴림주건물지 (1:주혈, 2:주혈토층), 16호 굴림주건물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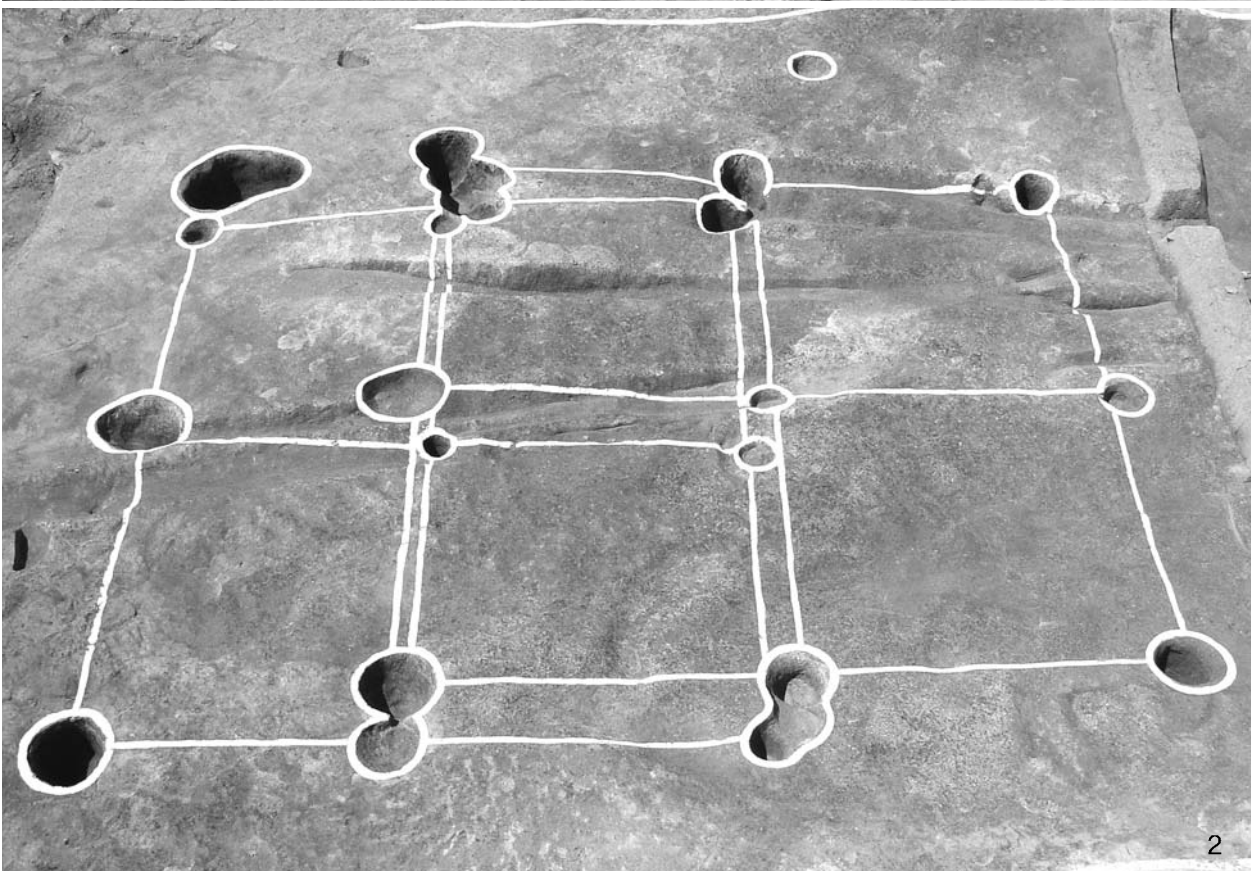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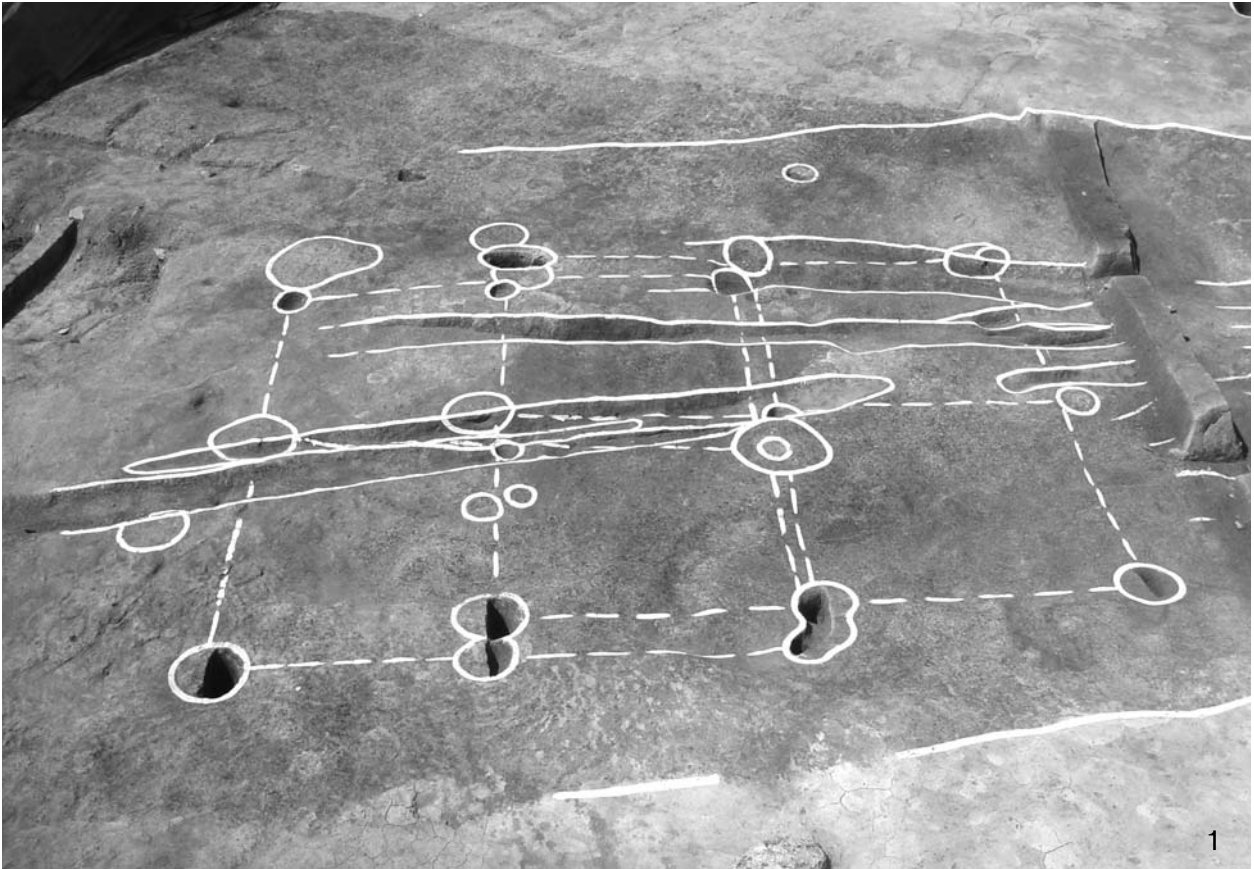
圖版 55. 17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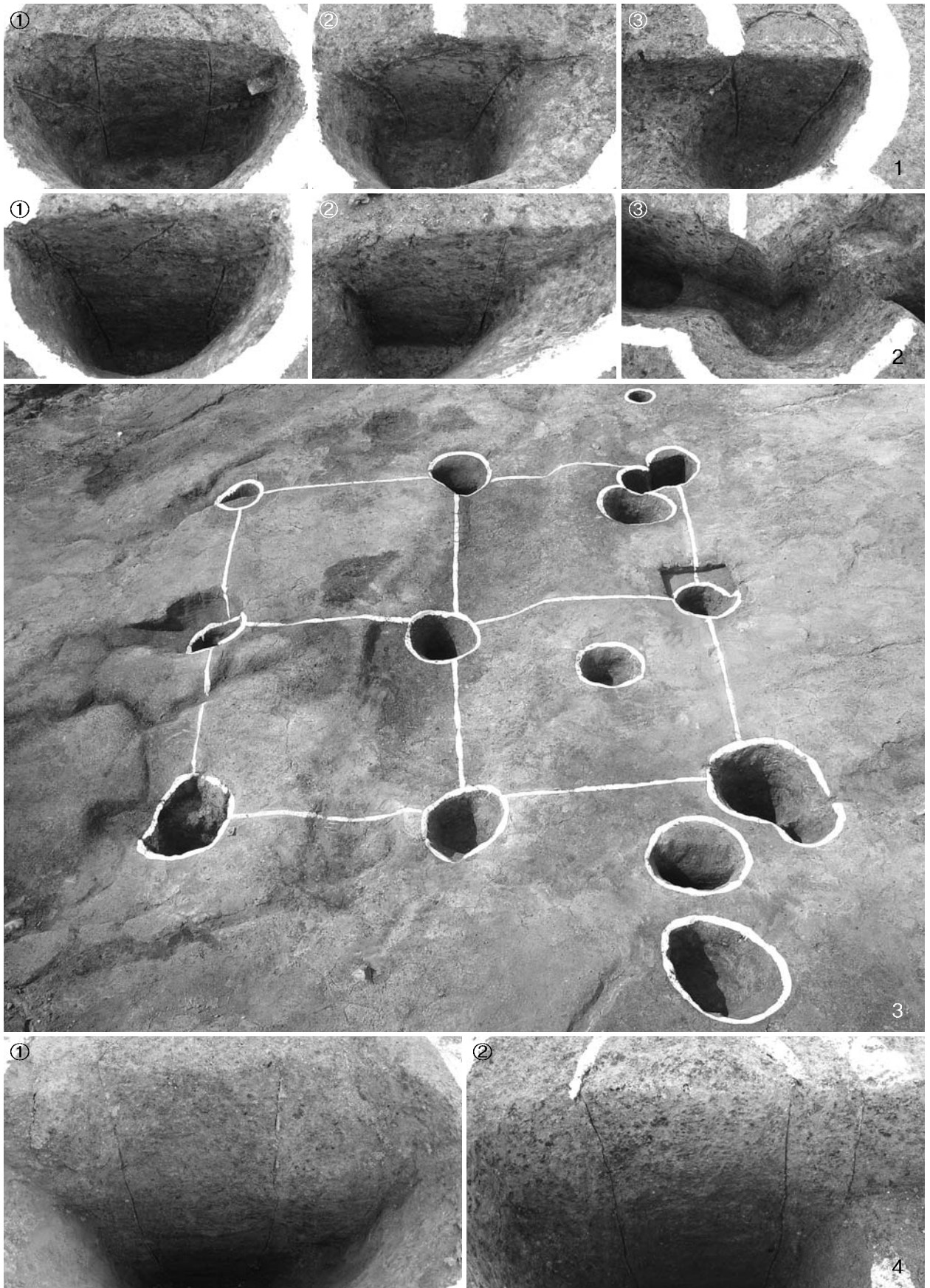
圖版 56. 18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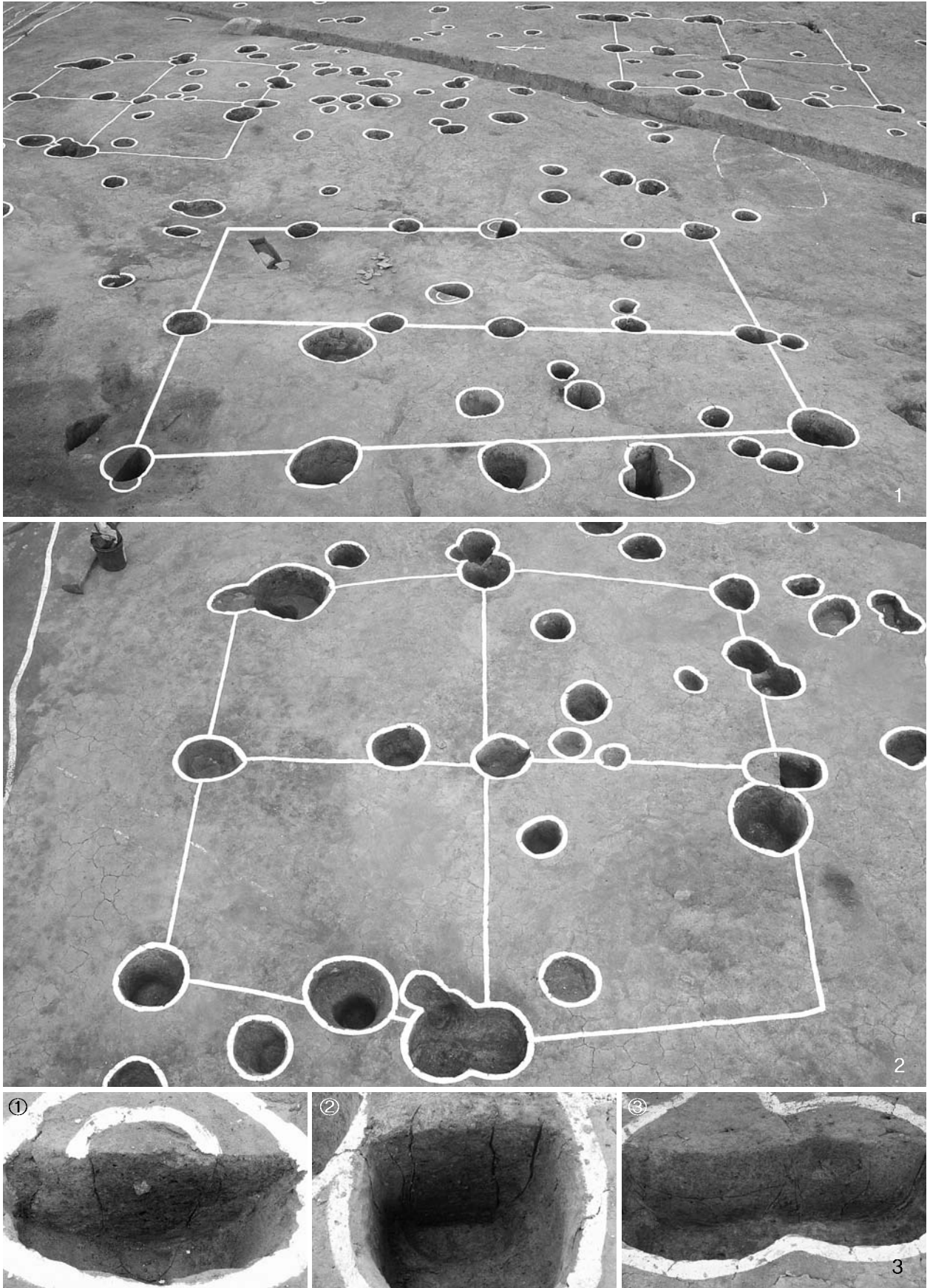
圖版 57. 19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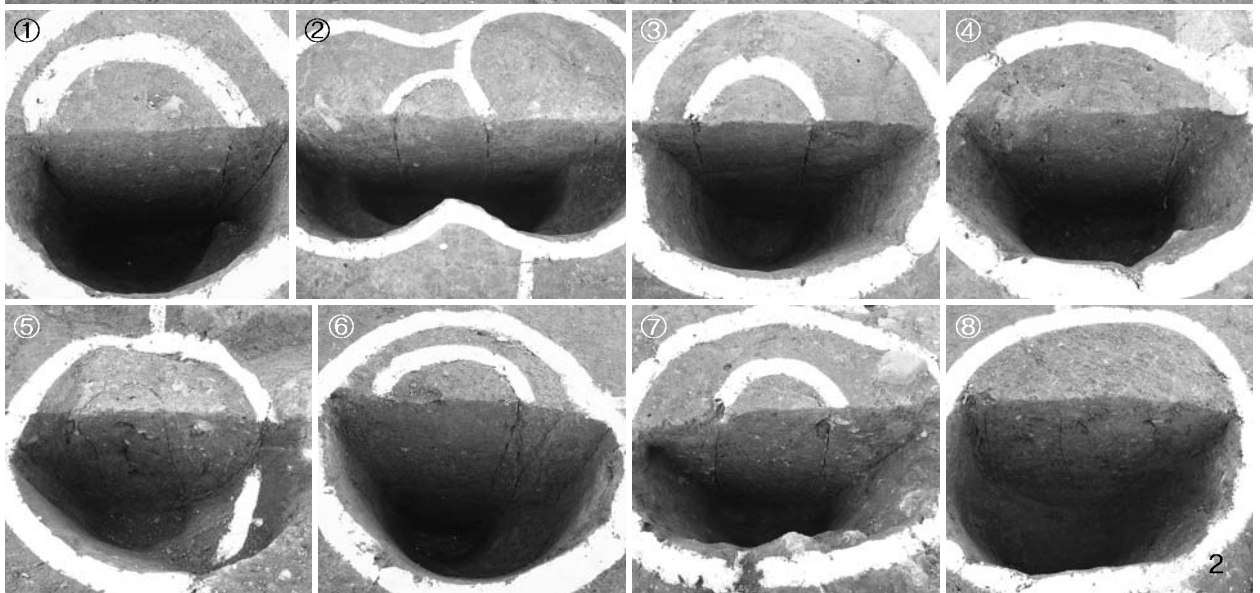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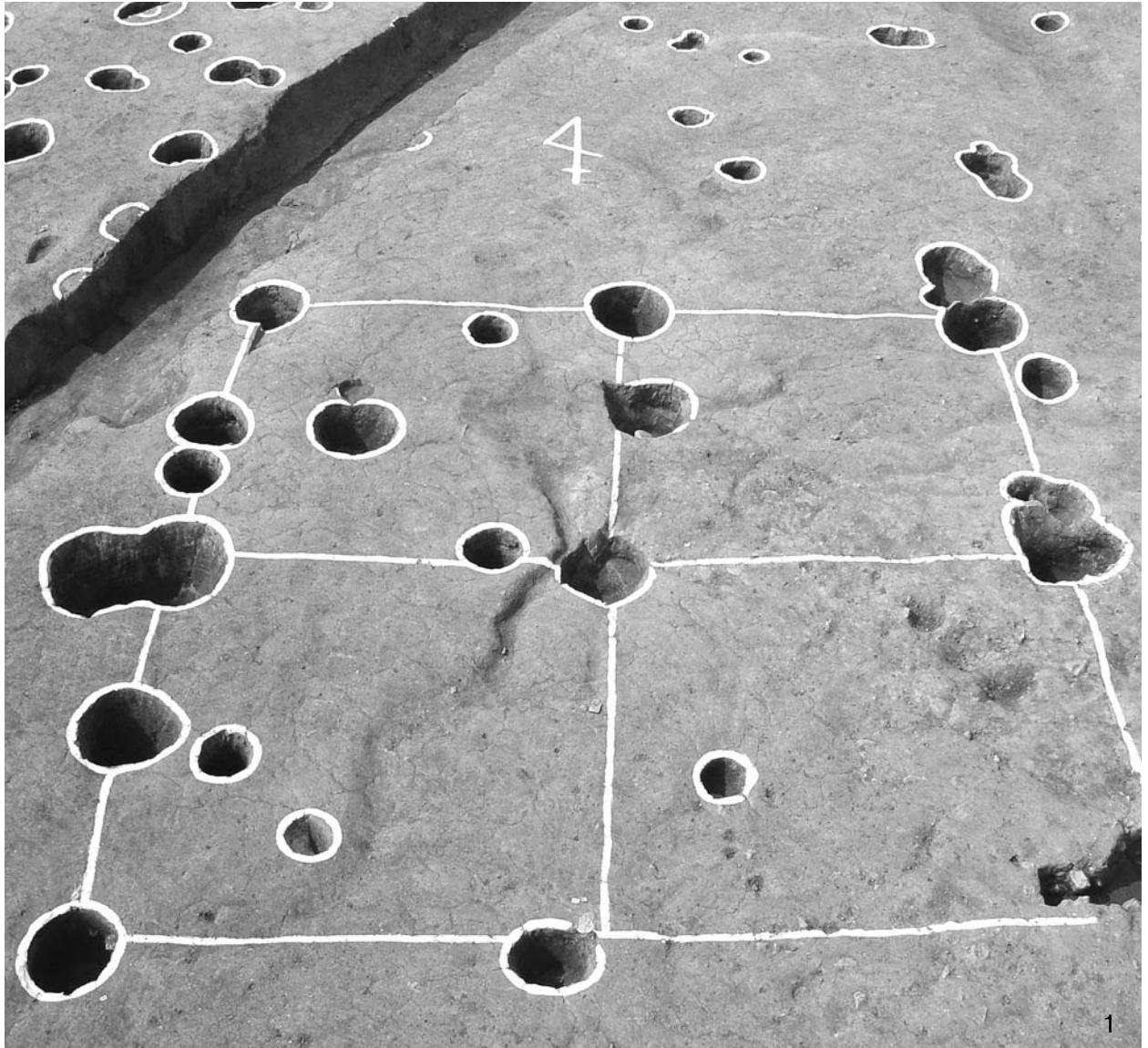
圖版 58. 20·21호 굴림주건물지·溝중복관계(1), 20·21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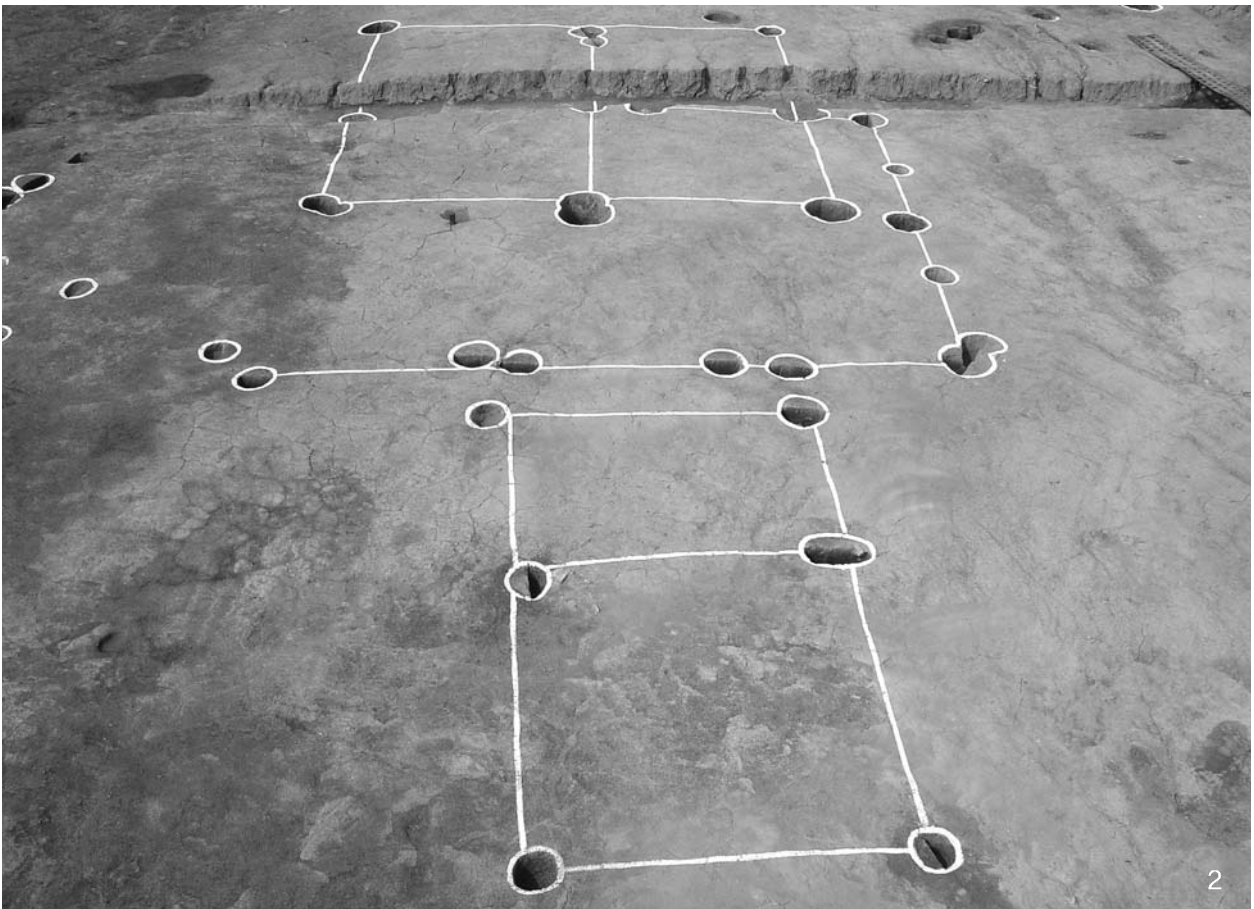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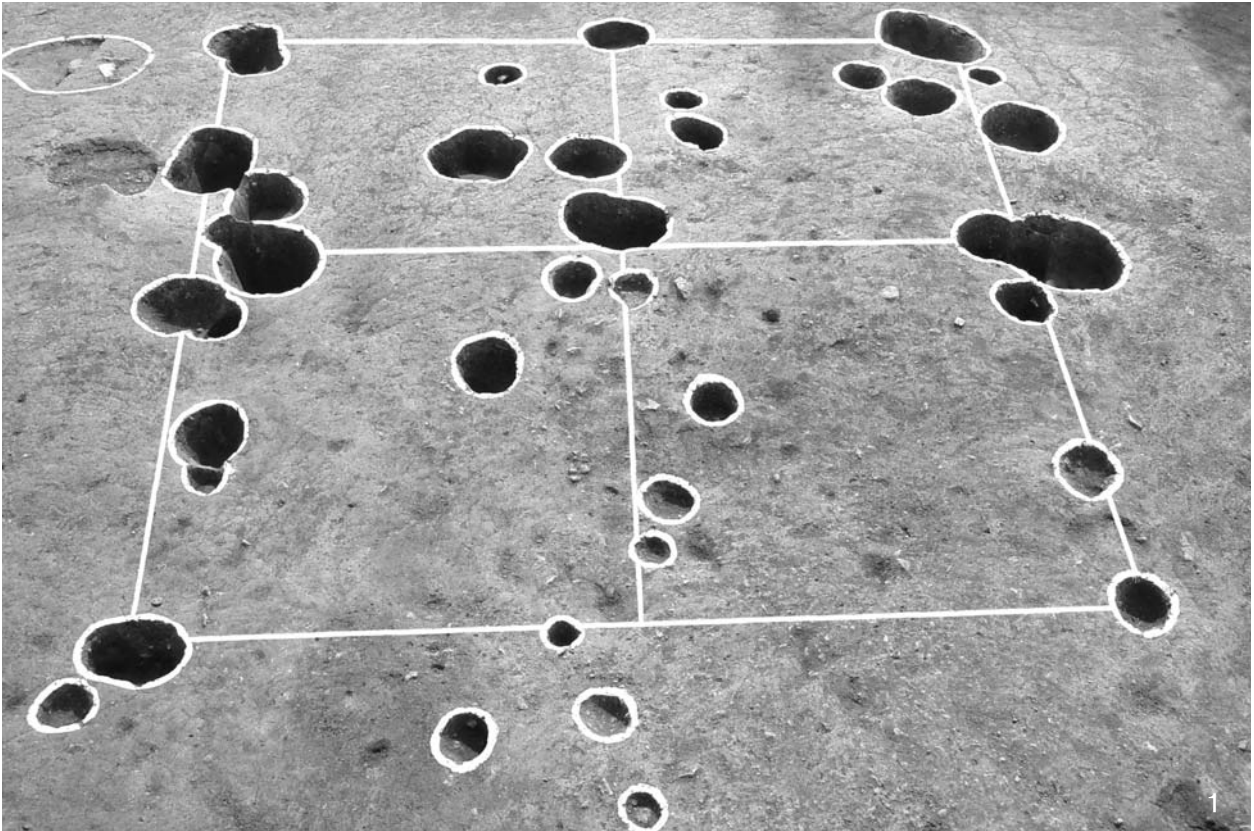
圖版 59. 20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1), 21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2), 22호 굴림주건물지(3:전경, 4: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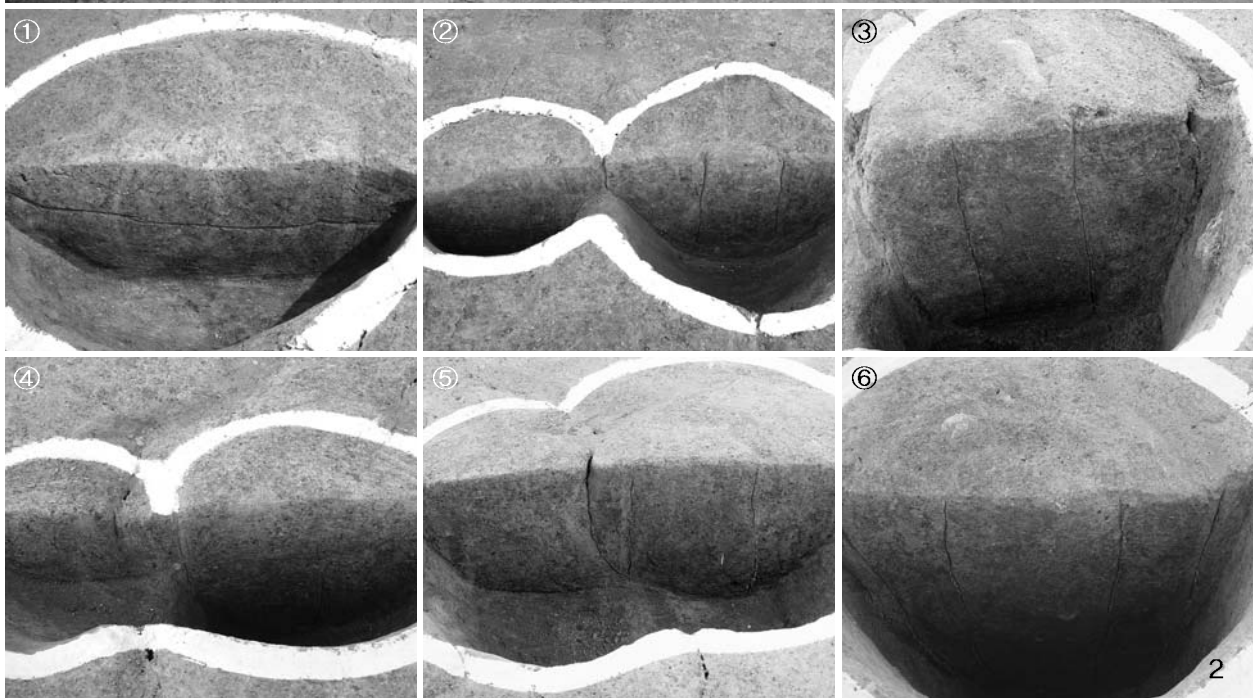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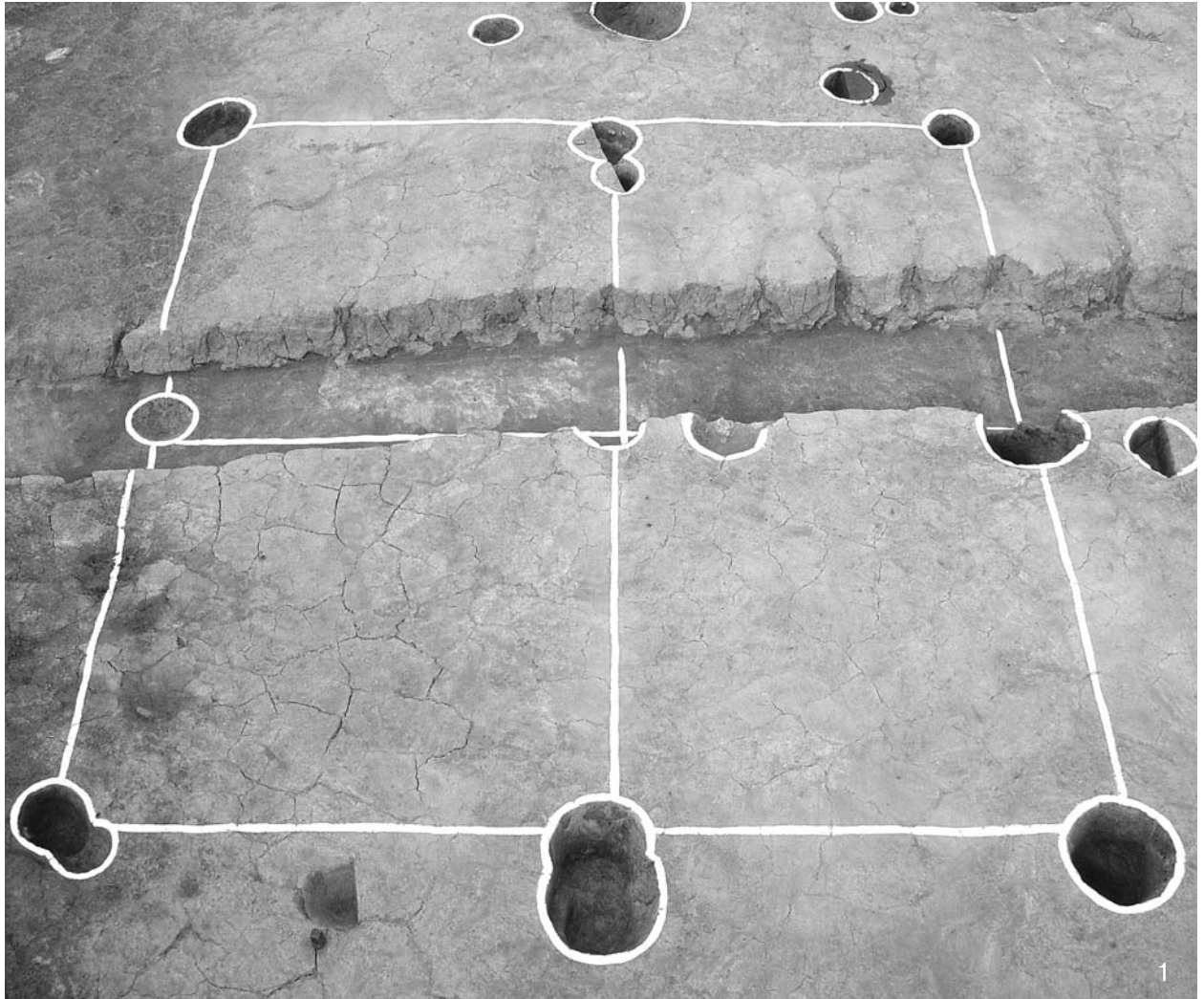
圖版 60. 23호 굴림주건물지(1), 24호 굴림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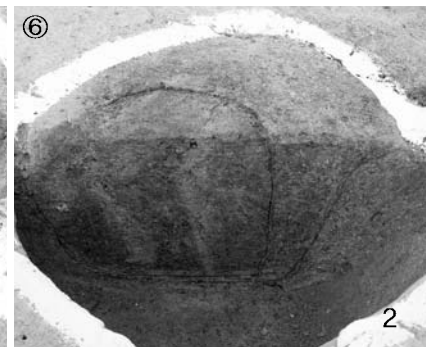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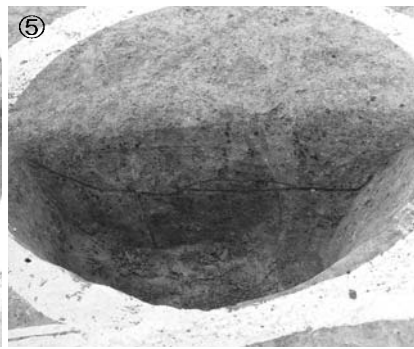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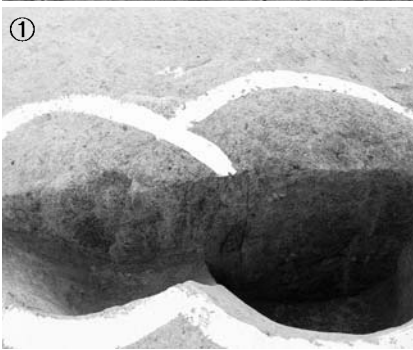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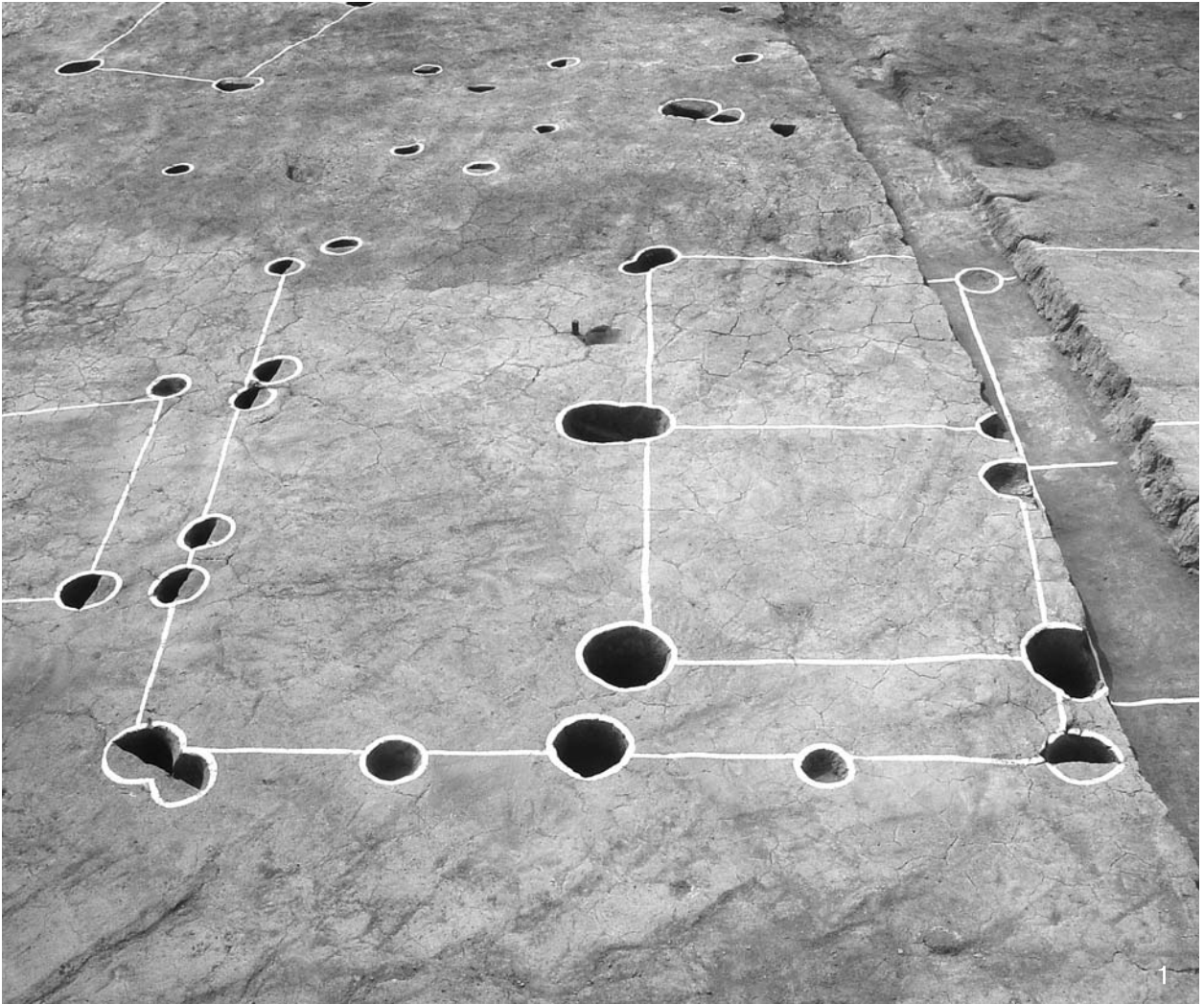
圖版 61. 25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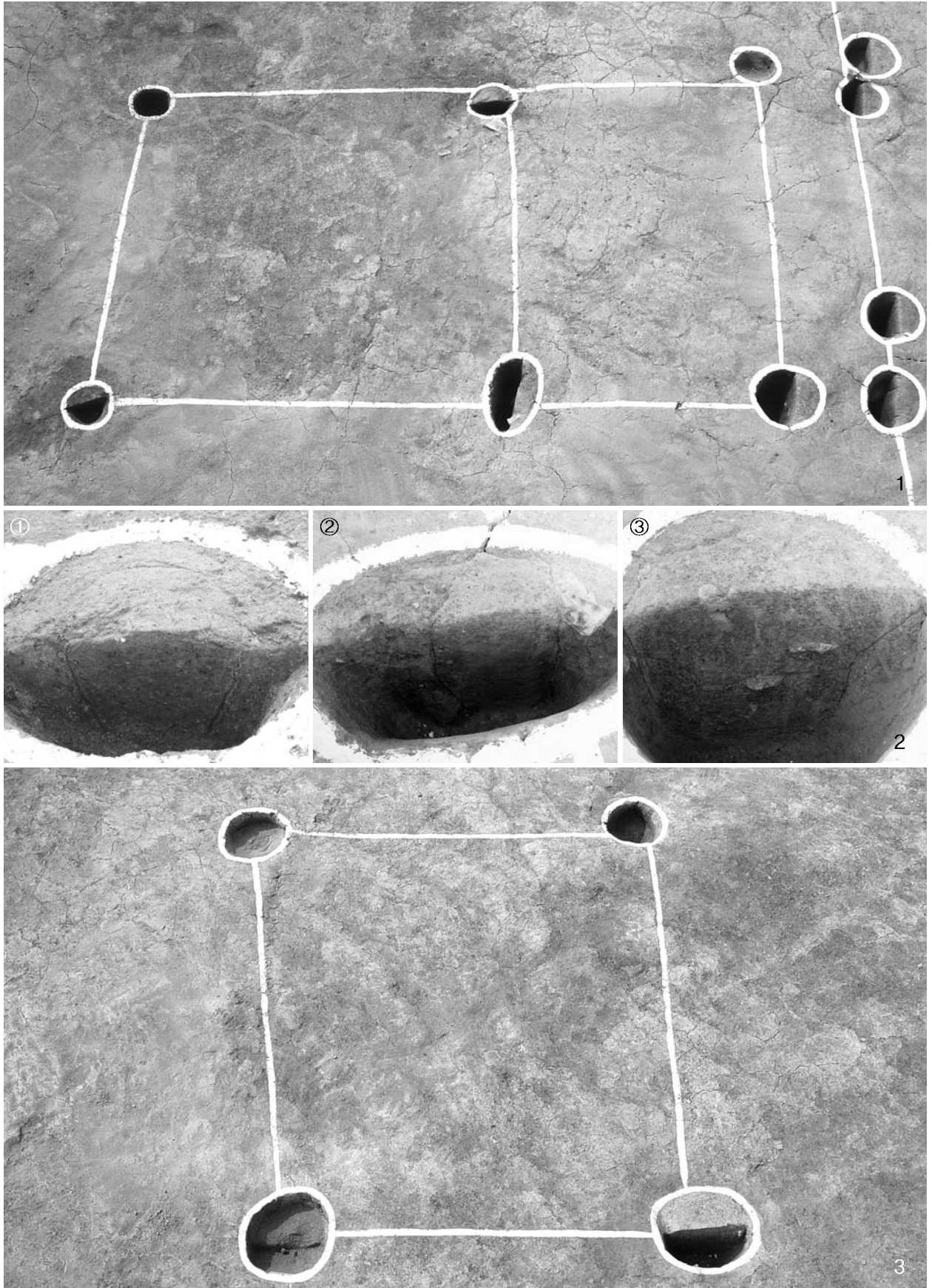
圖版 62. 26호 굴림주건물지(1), 27·28·29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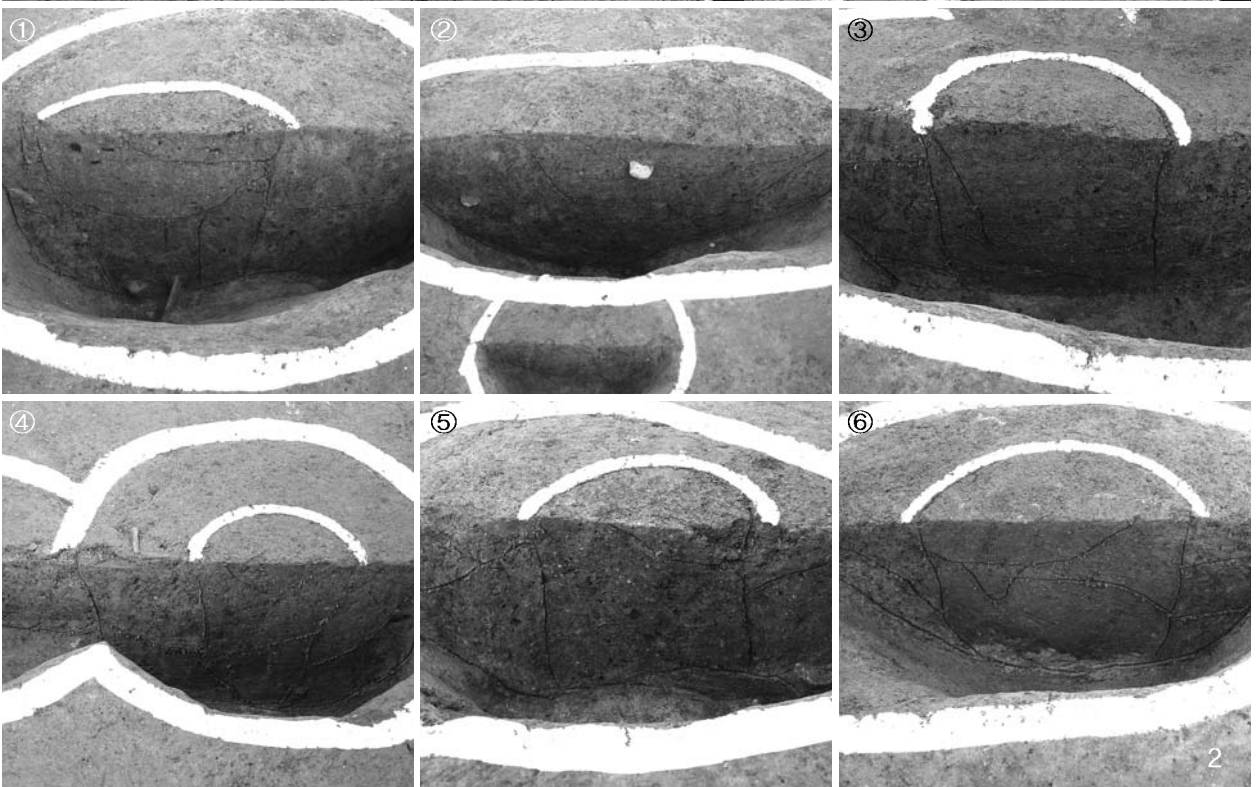
圖版 63. 27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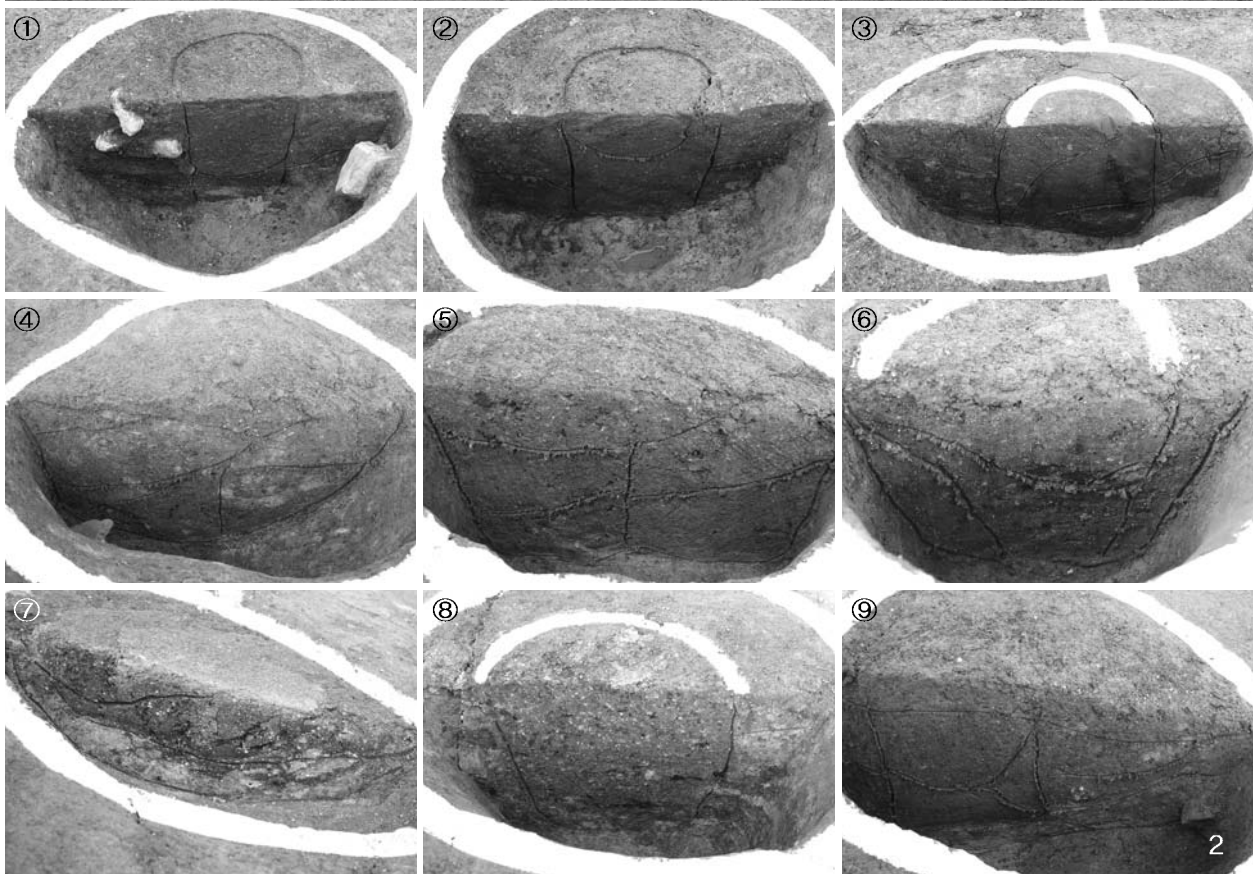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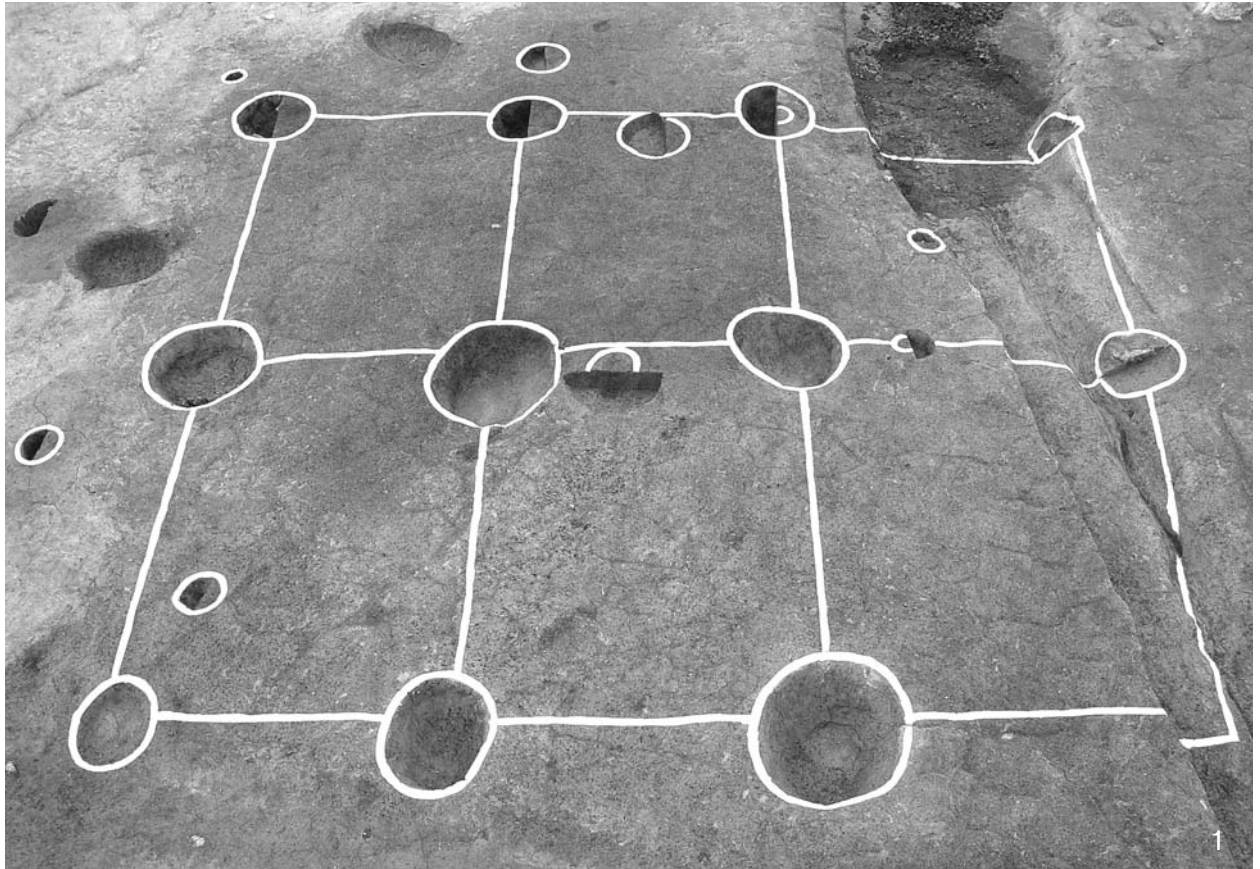
圖版 64. 28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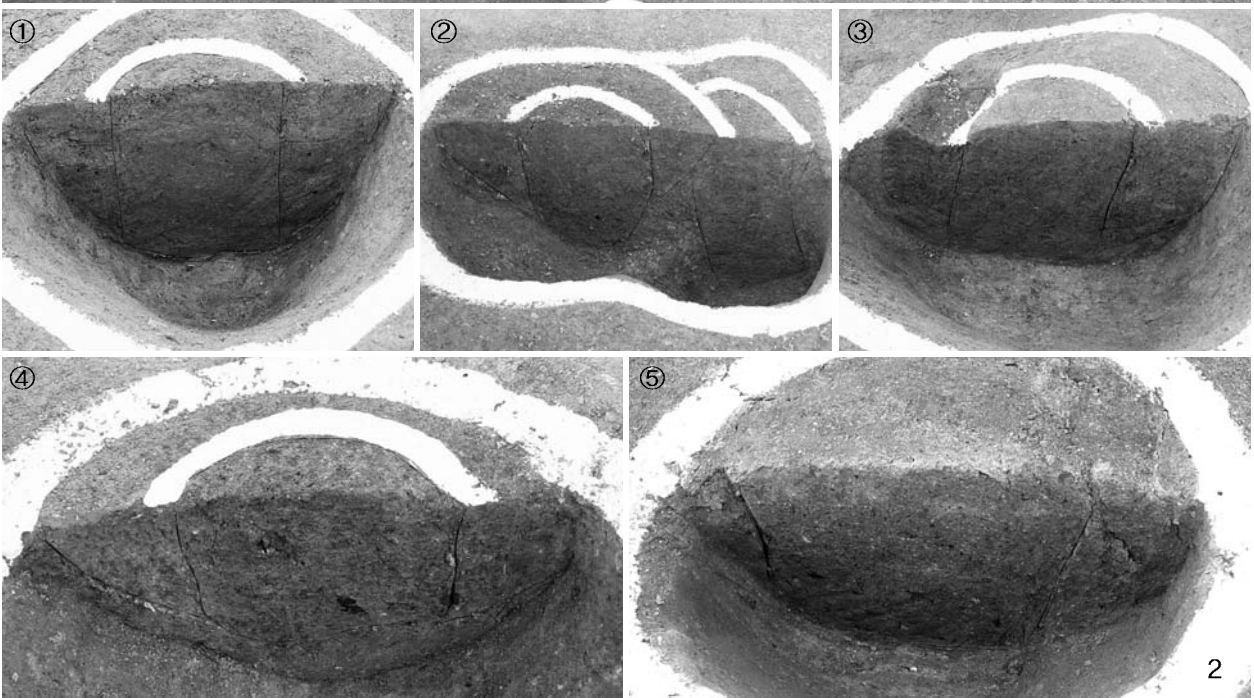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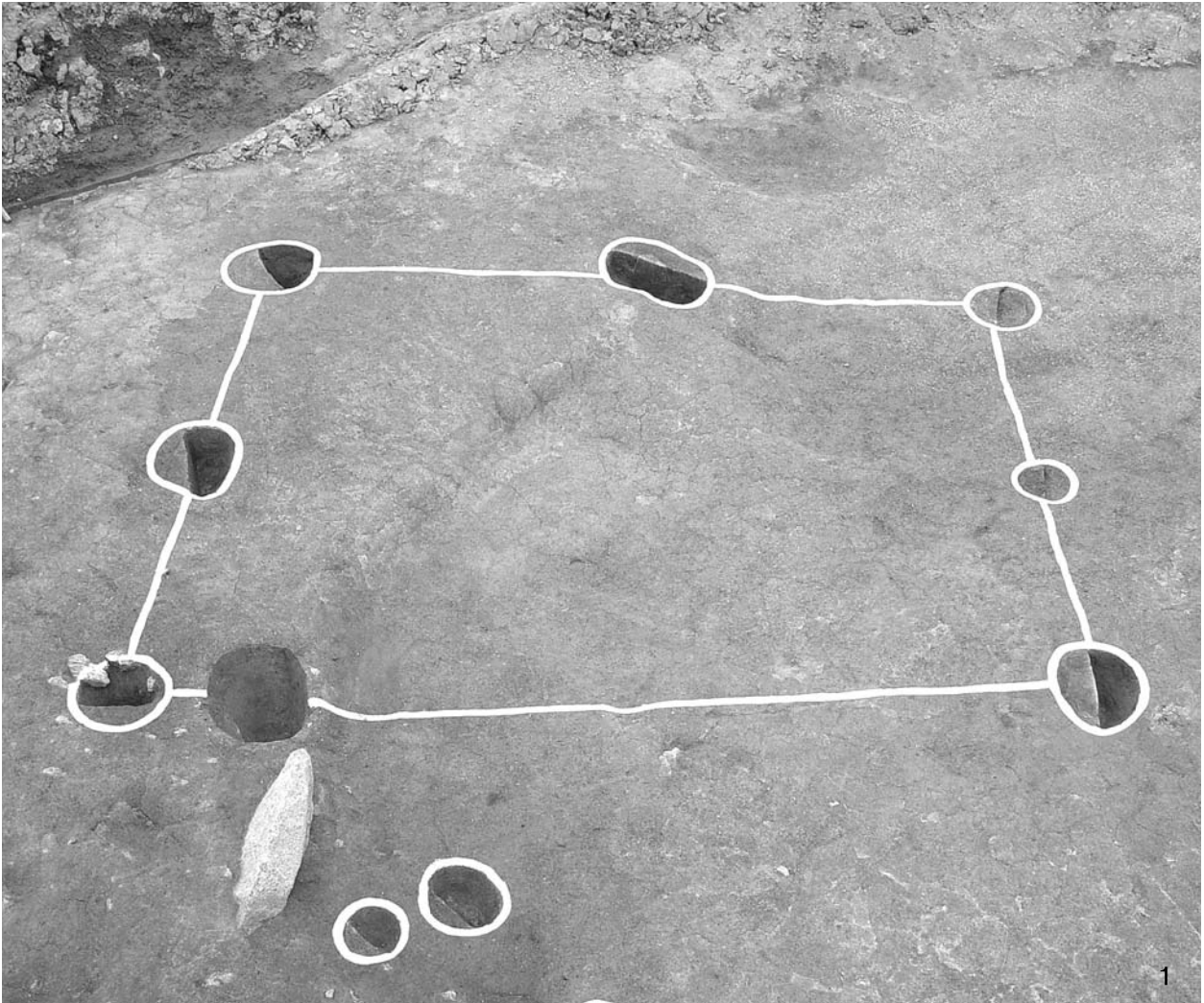
圖版 65. 29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30호 굴림주건물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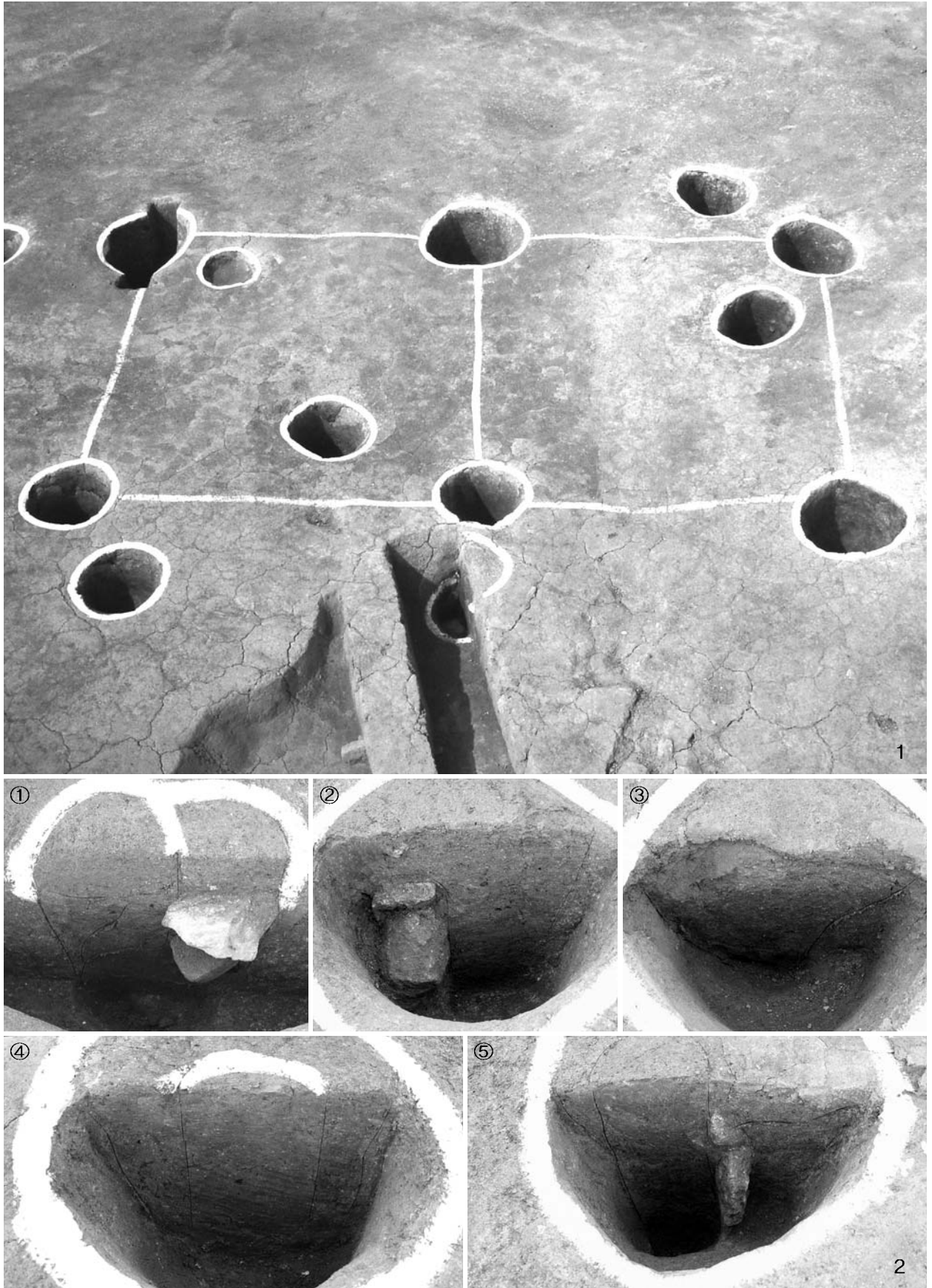
圖版 66. 31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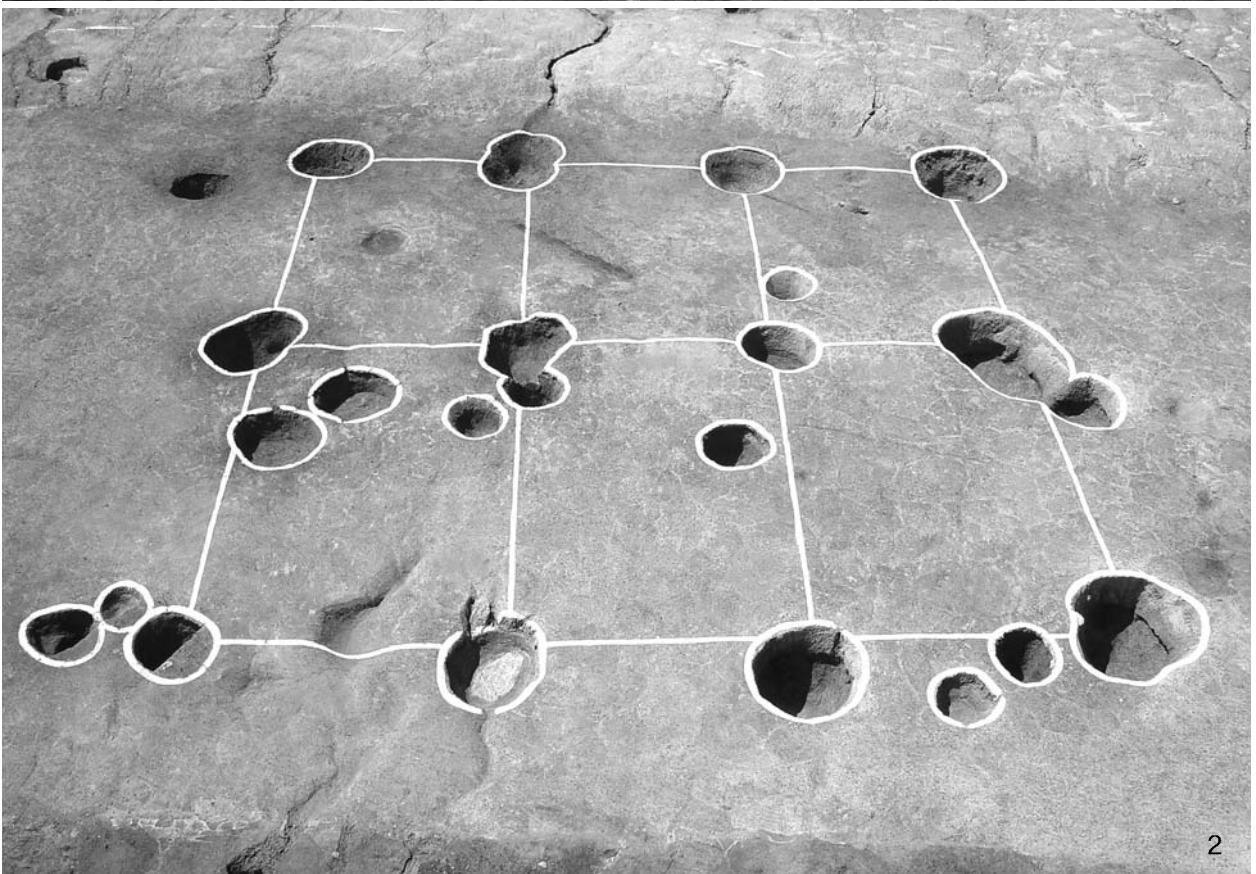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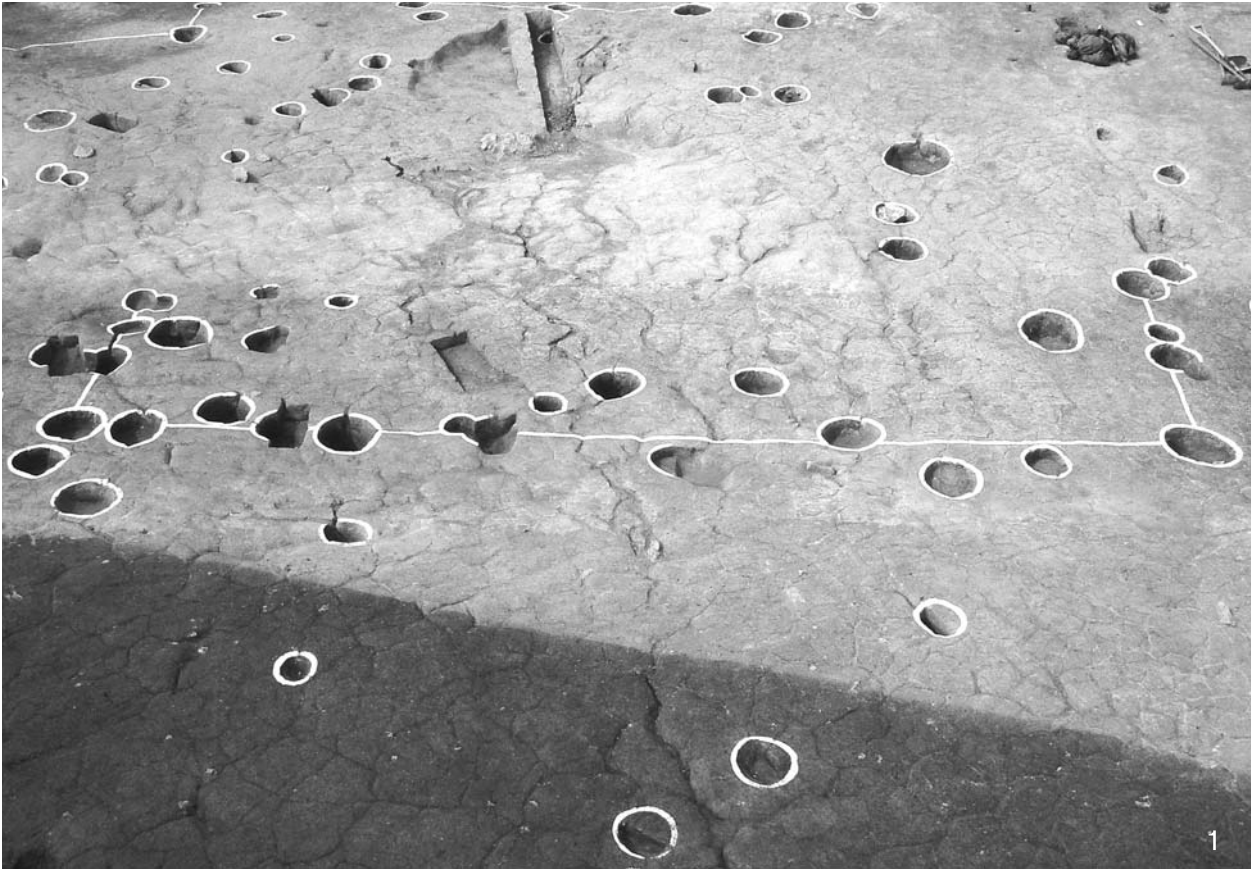
圖版 67. 3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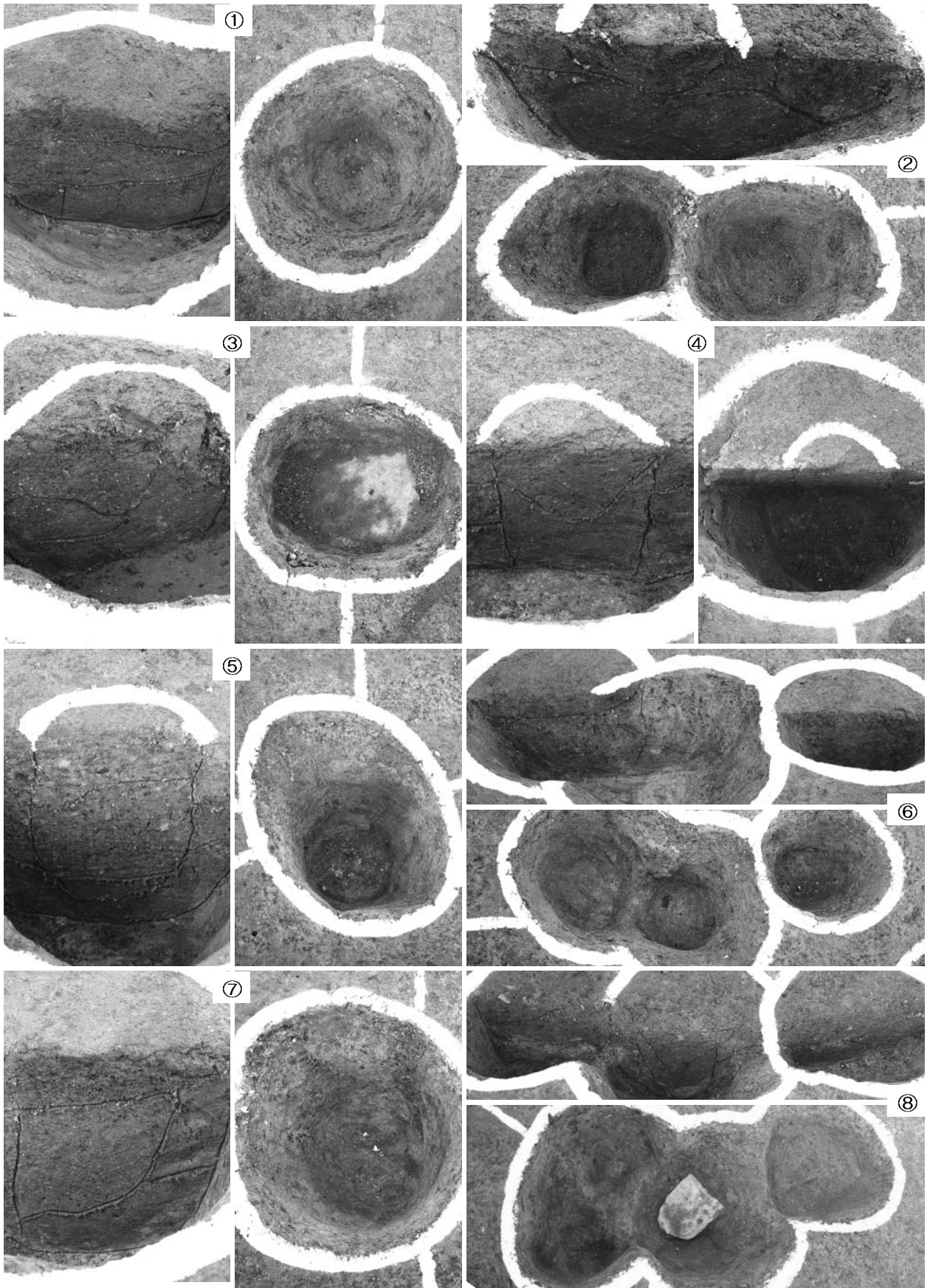
圖版 68. 33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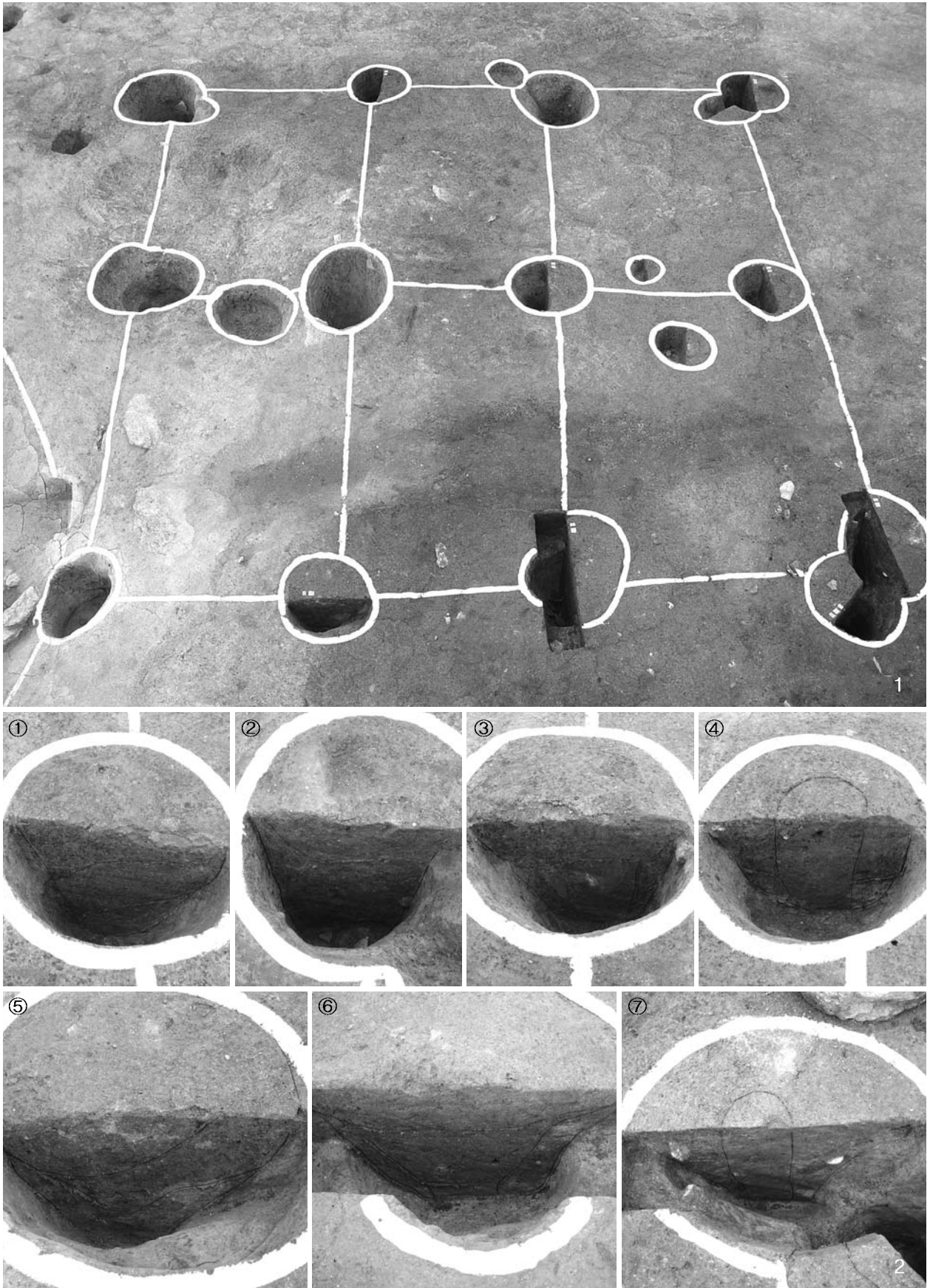
圖版 69. 34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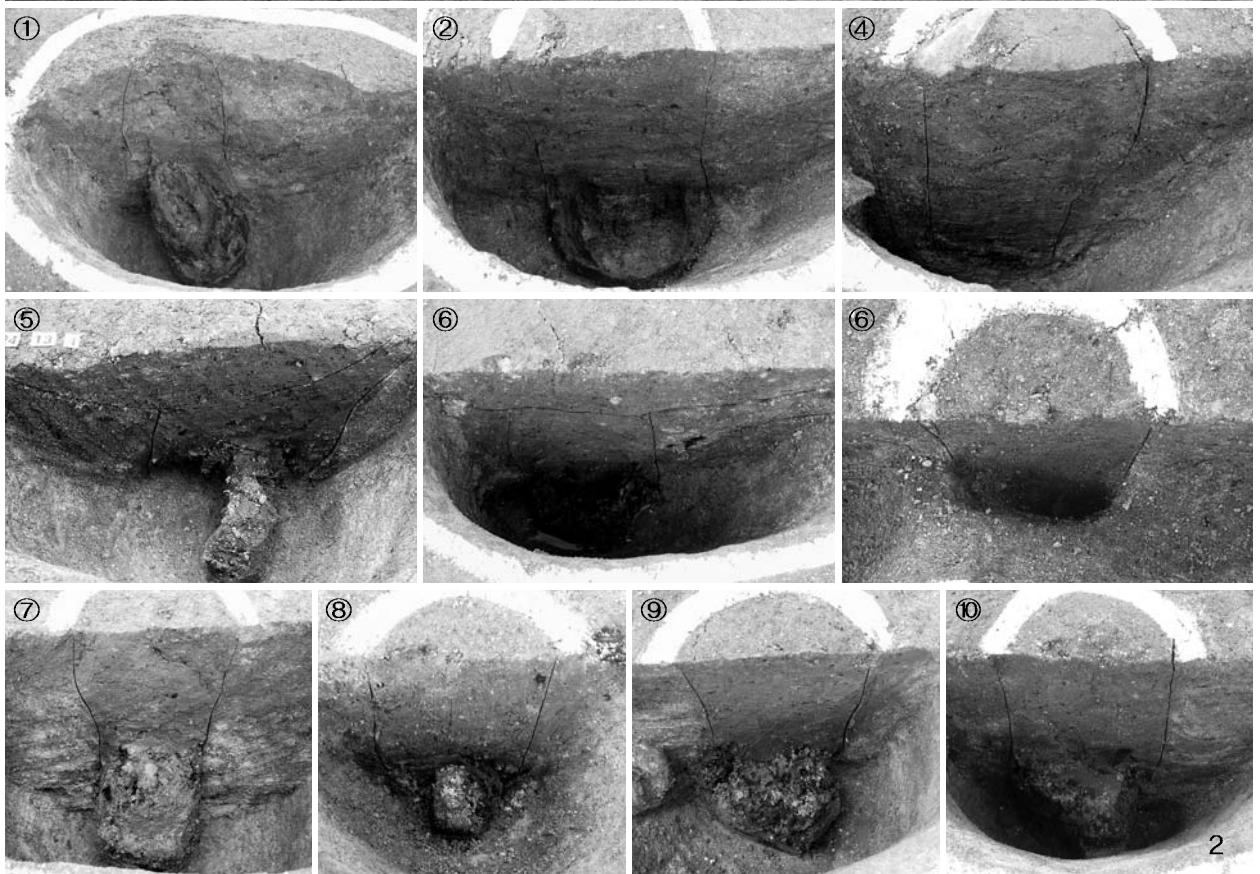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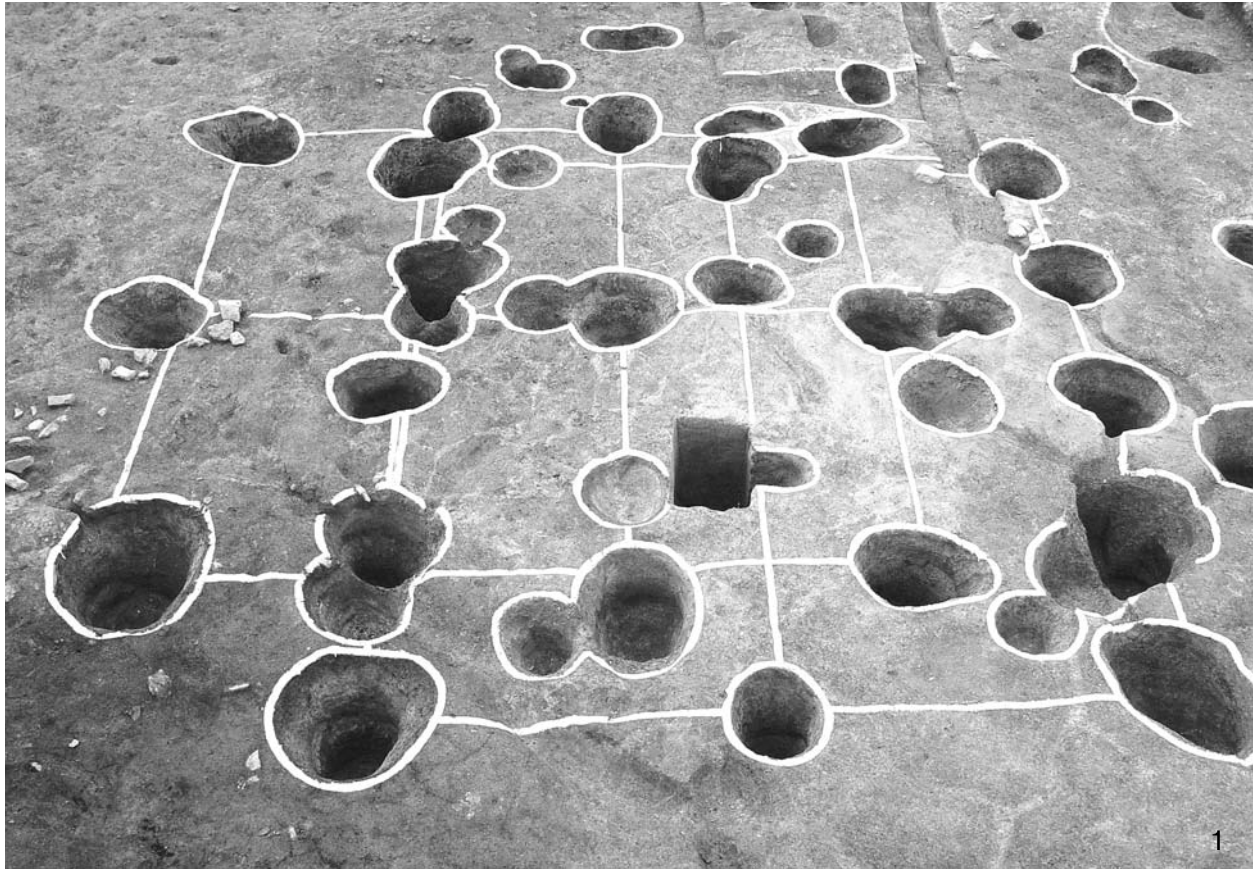
圖版 70. 35호 굴림주건물지(1), 36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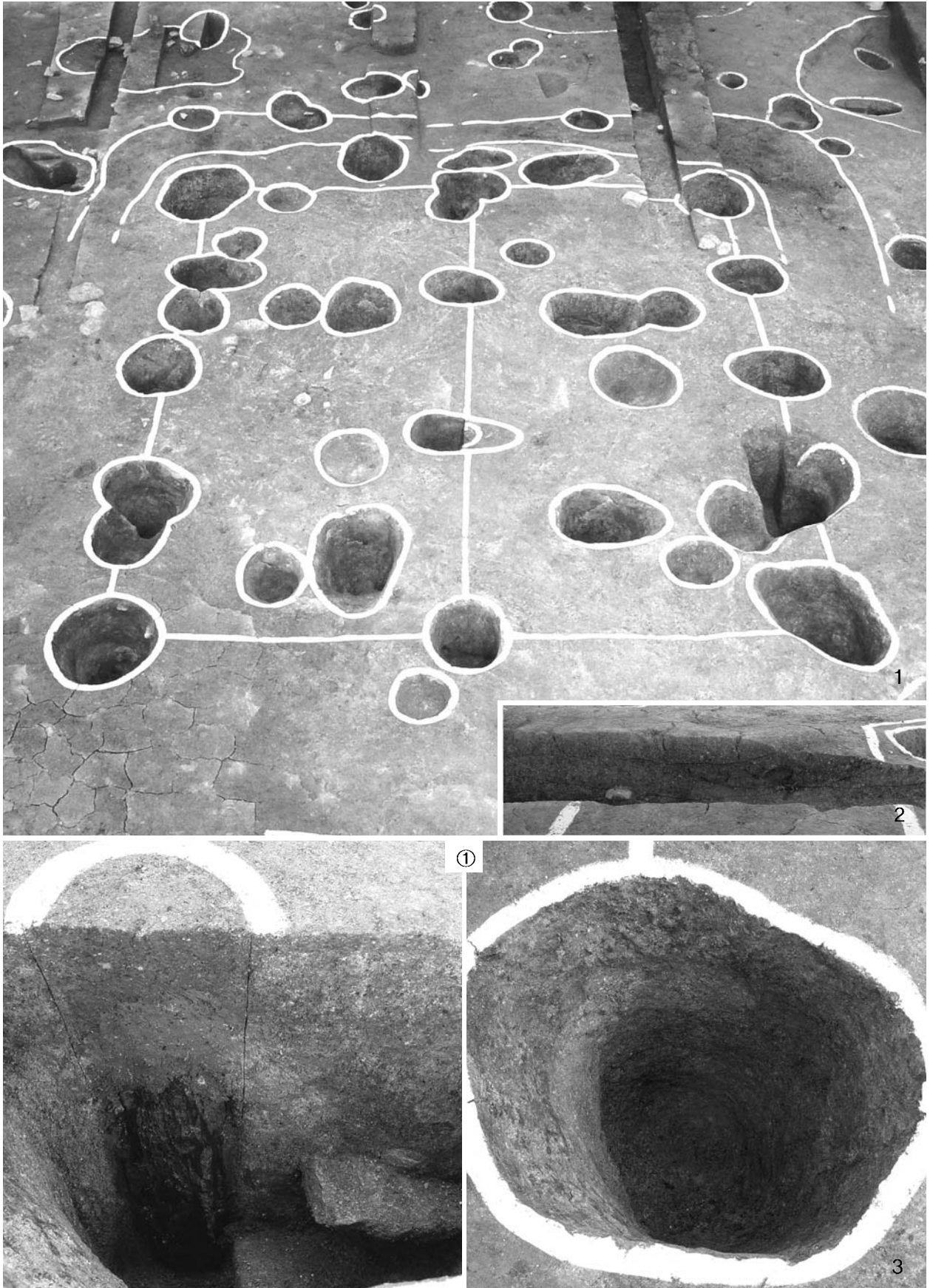
圖版 71. 36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조사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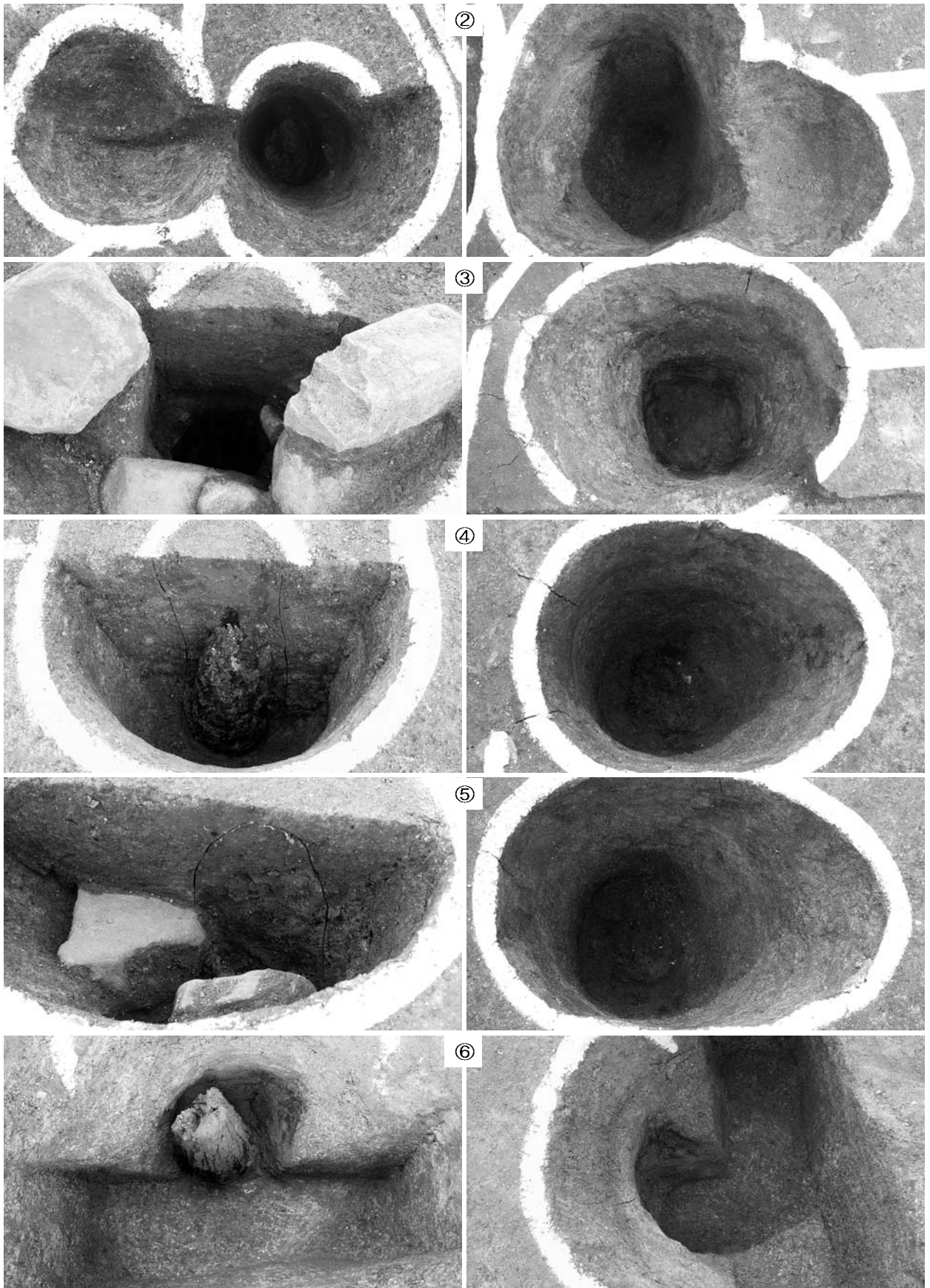
圖版 72. 37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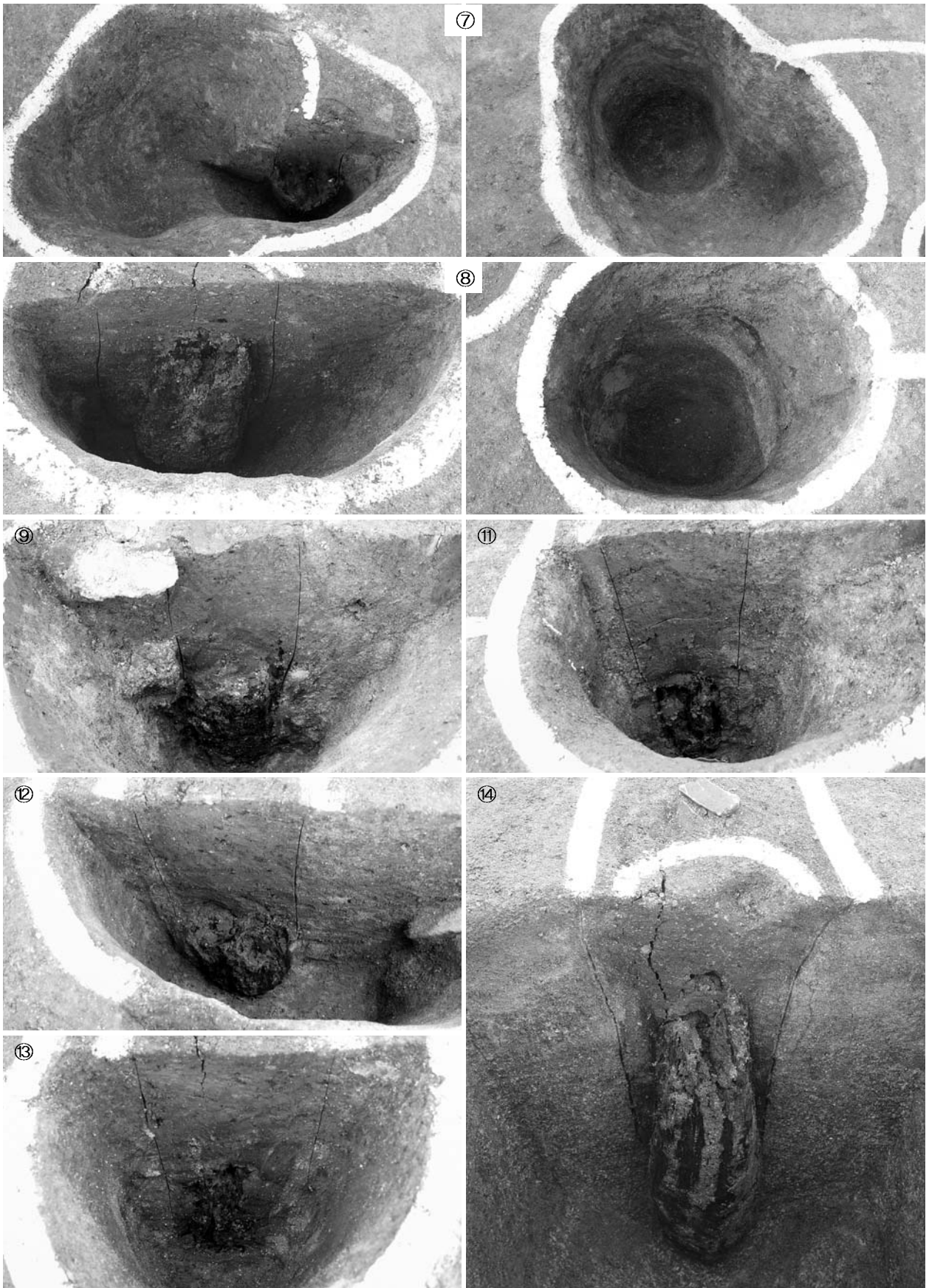
圖版 73. 38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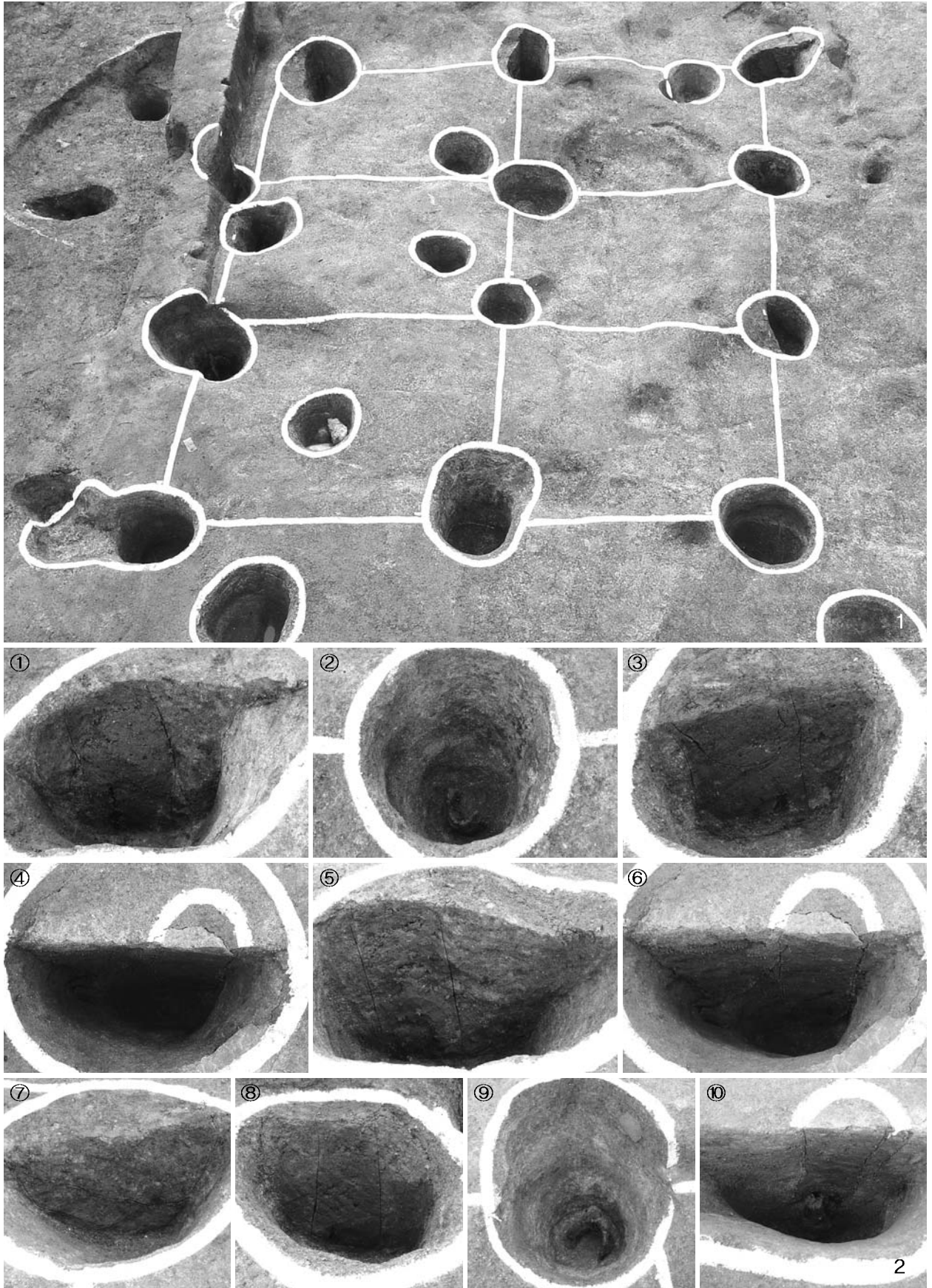
圖版 74. 39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구토층,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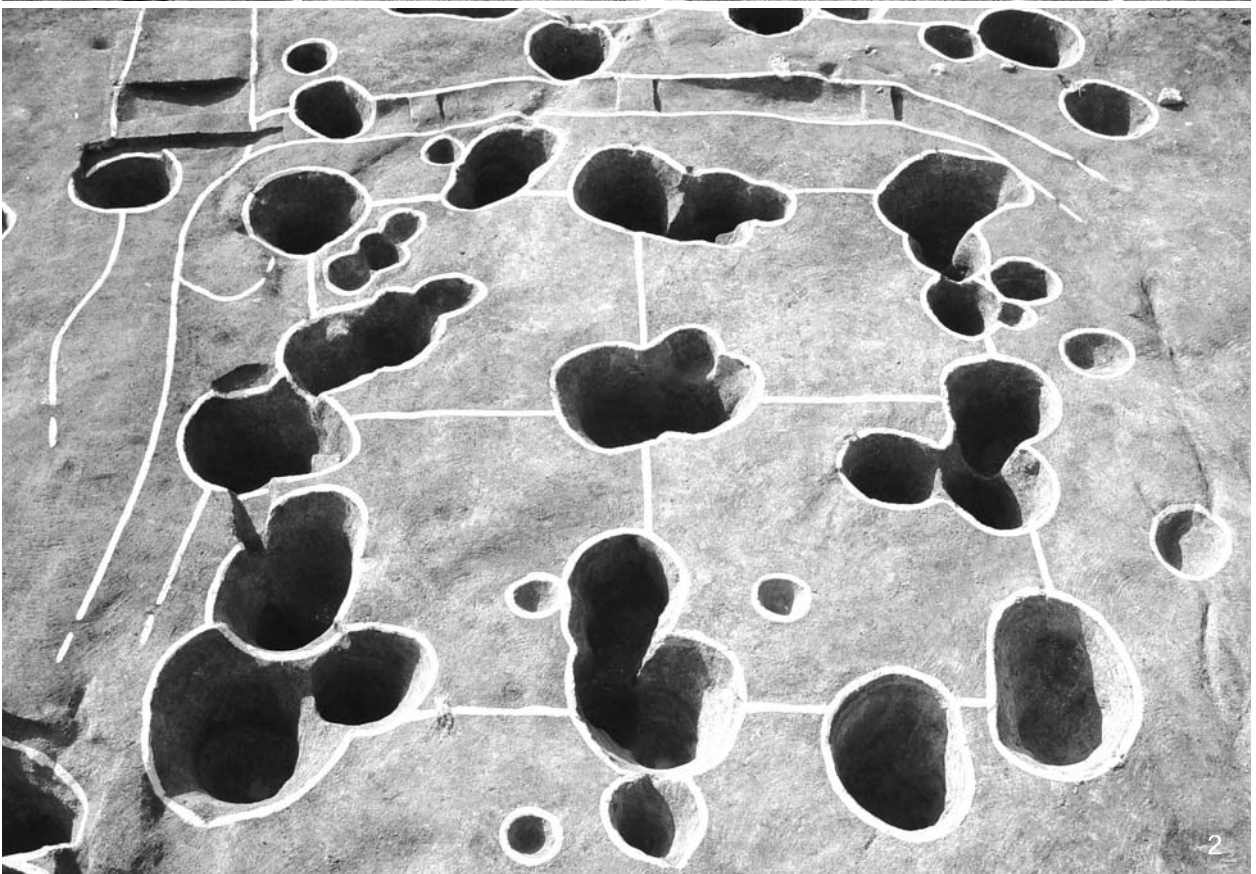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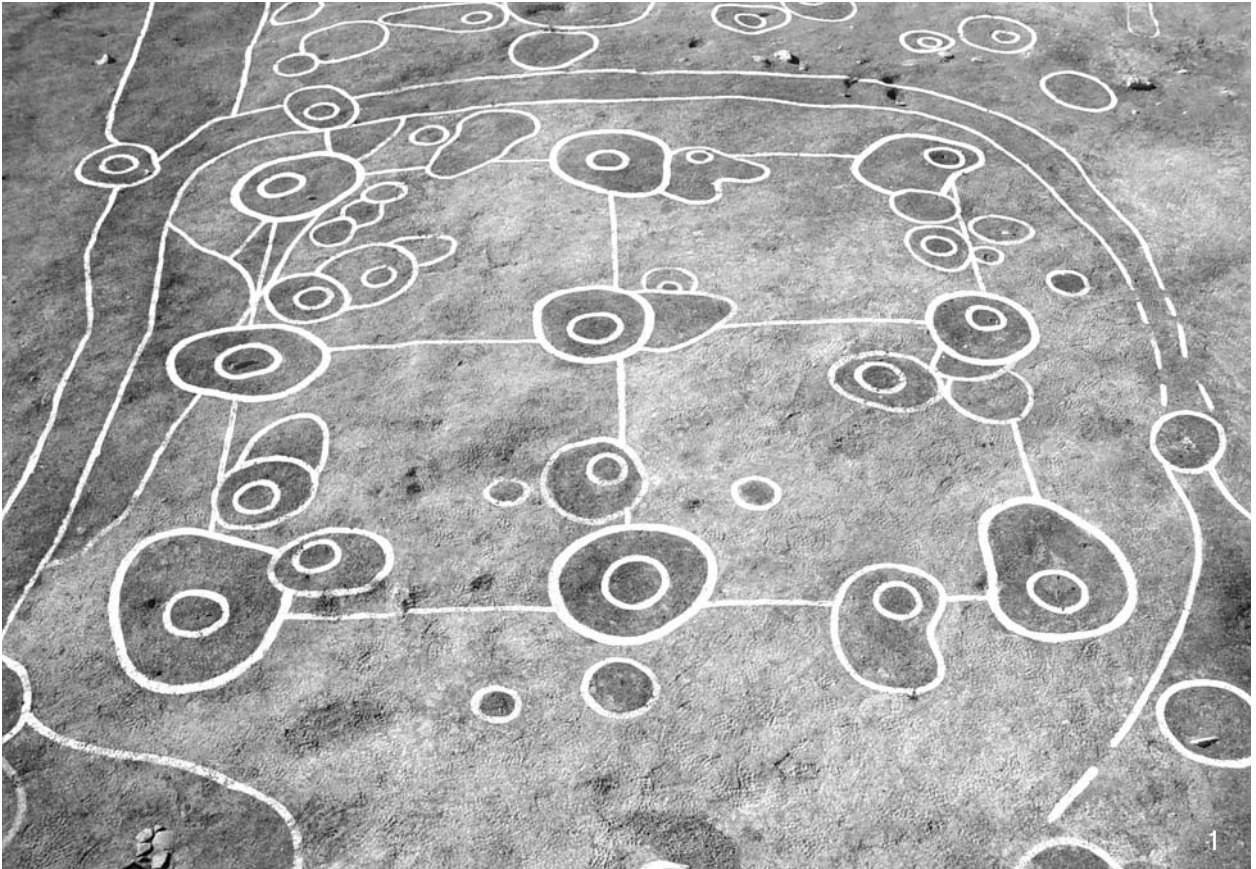
圖版 75. 39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 · 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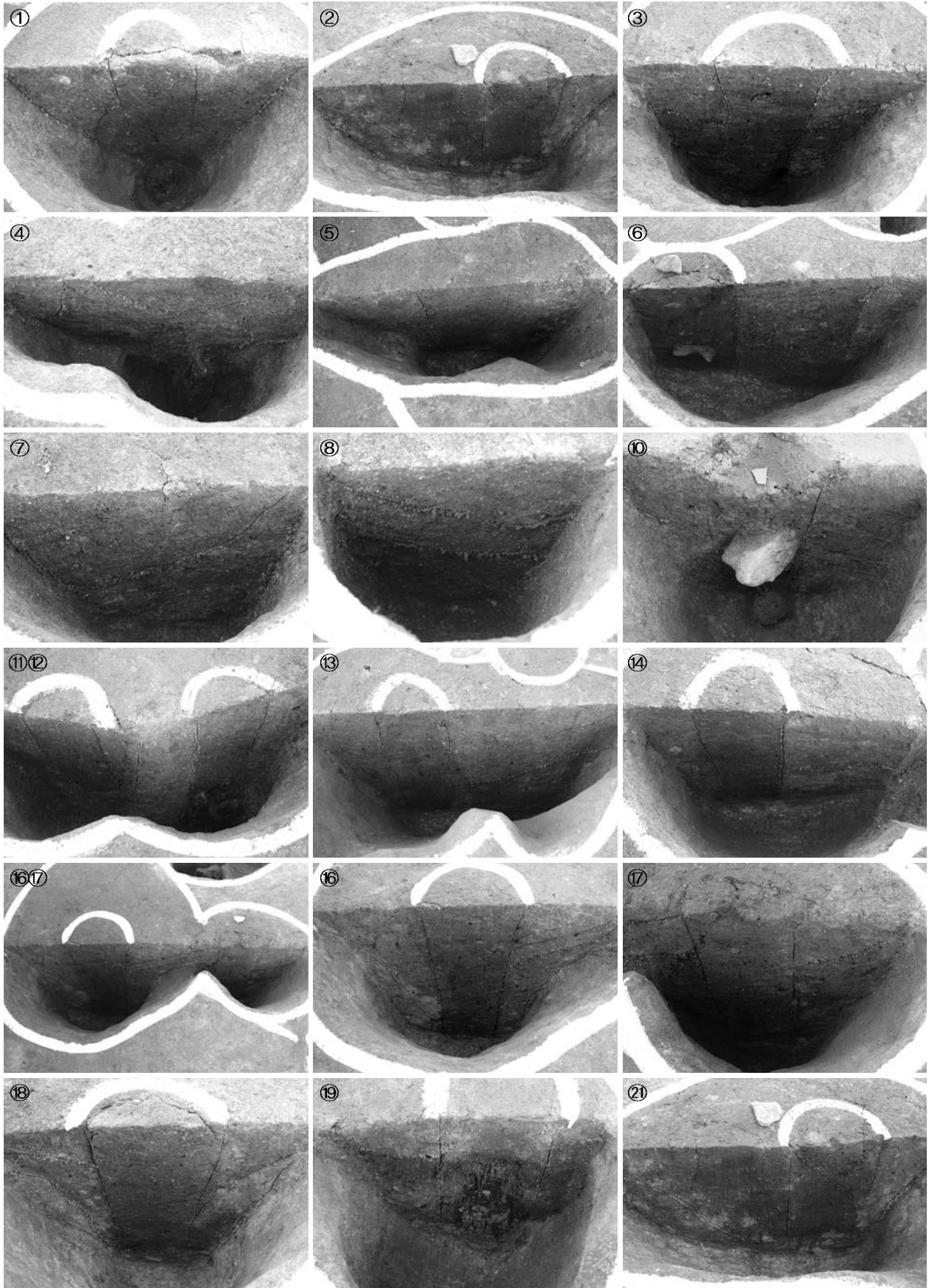
圖版 76. 39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 조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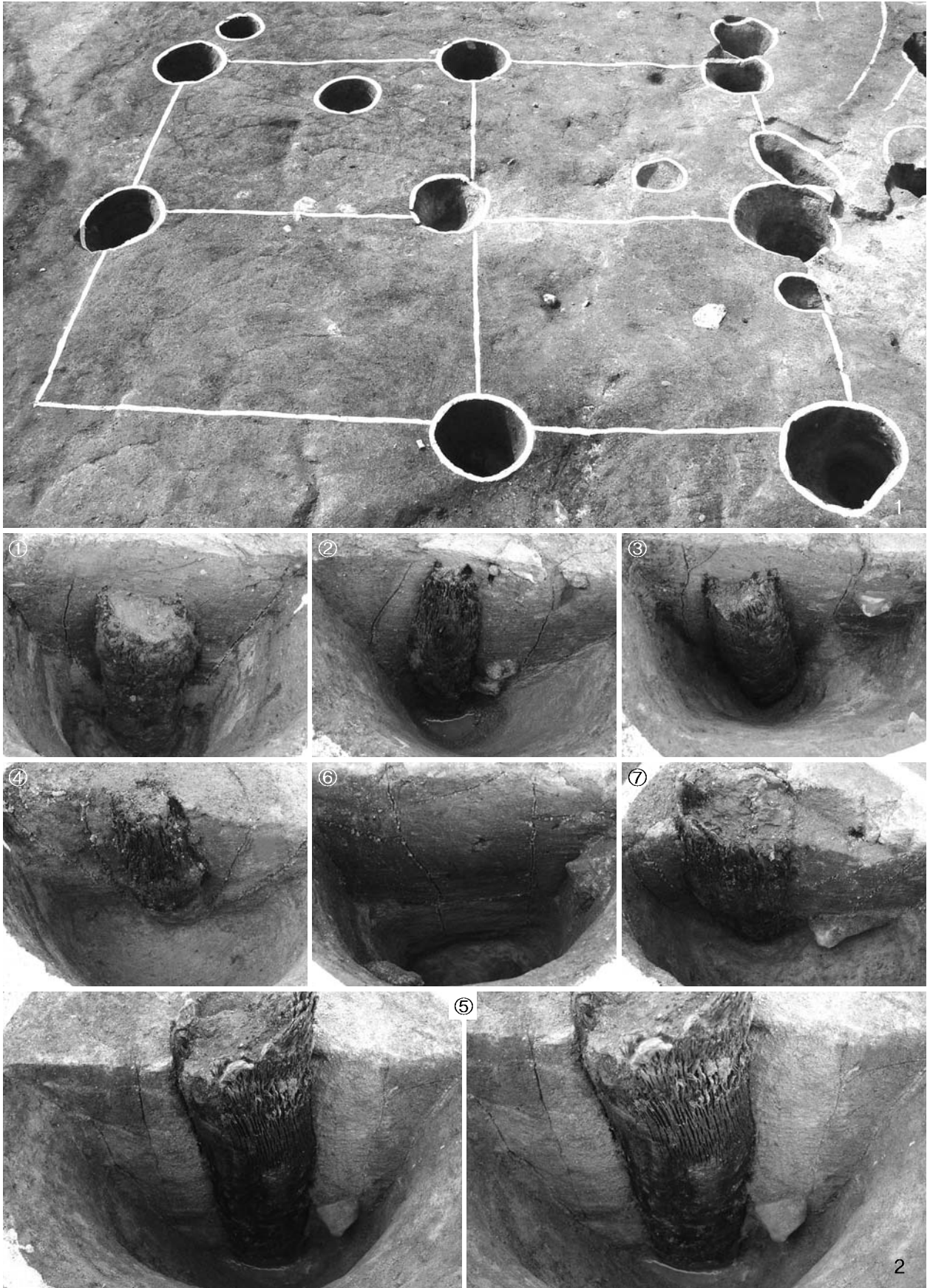
圖版 77. 40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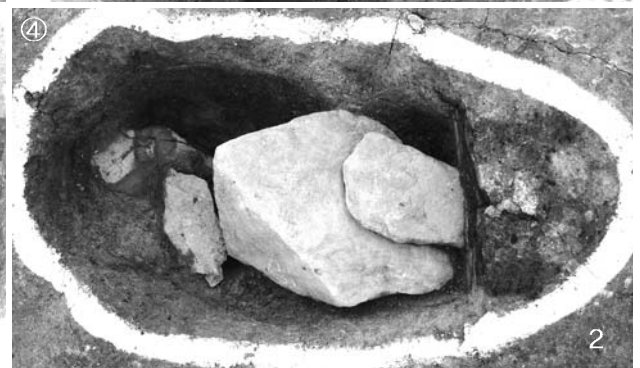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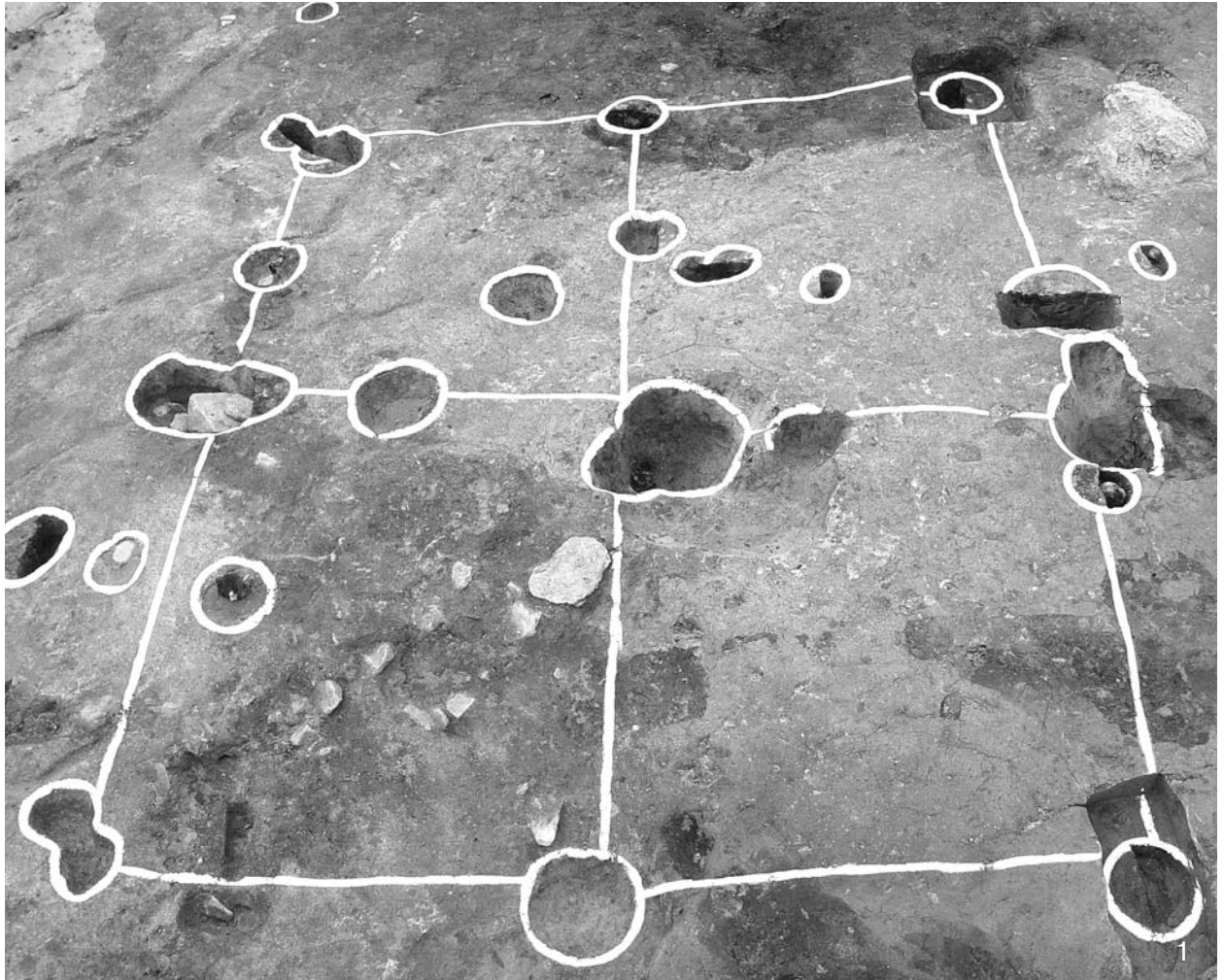
圖版 78. 41호 굴림주건물지 (1:조사전 전경, 2:조사완료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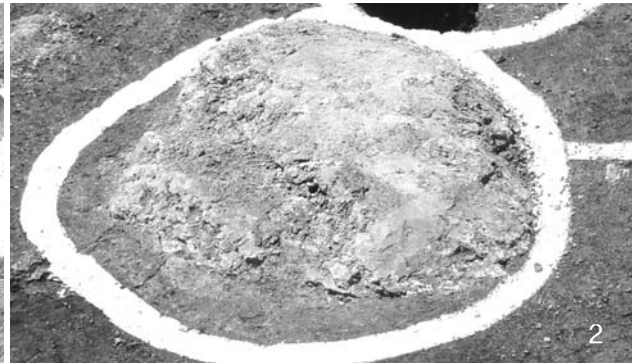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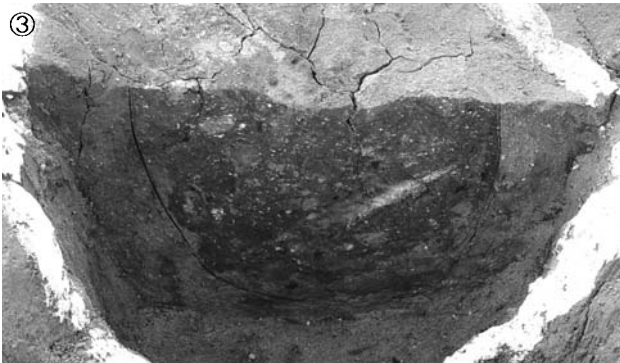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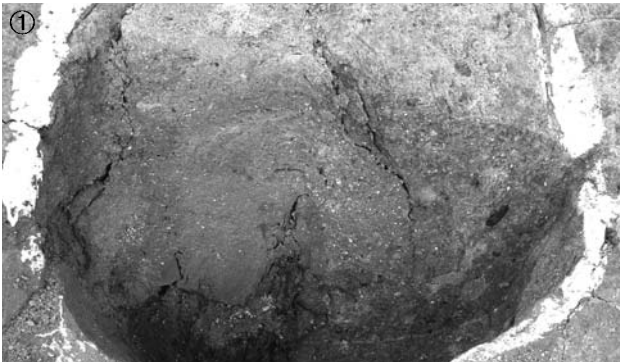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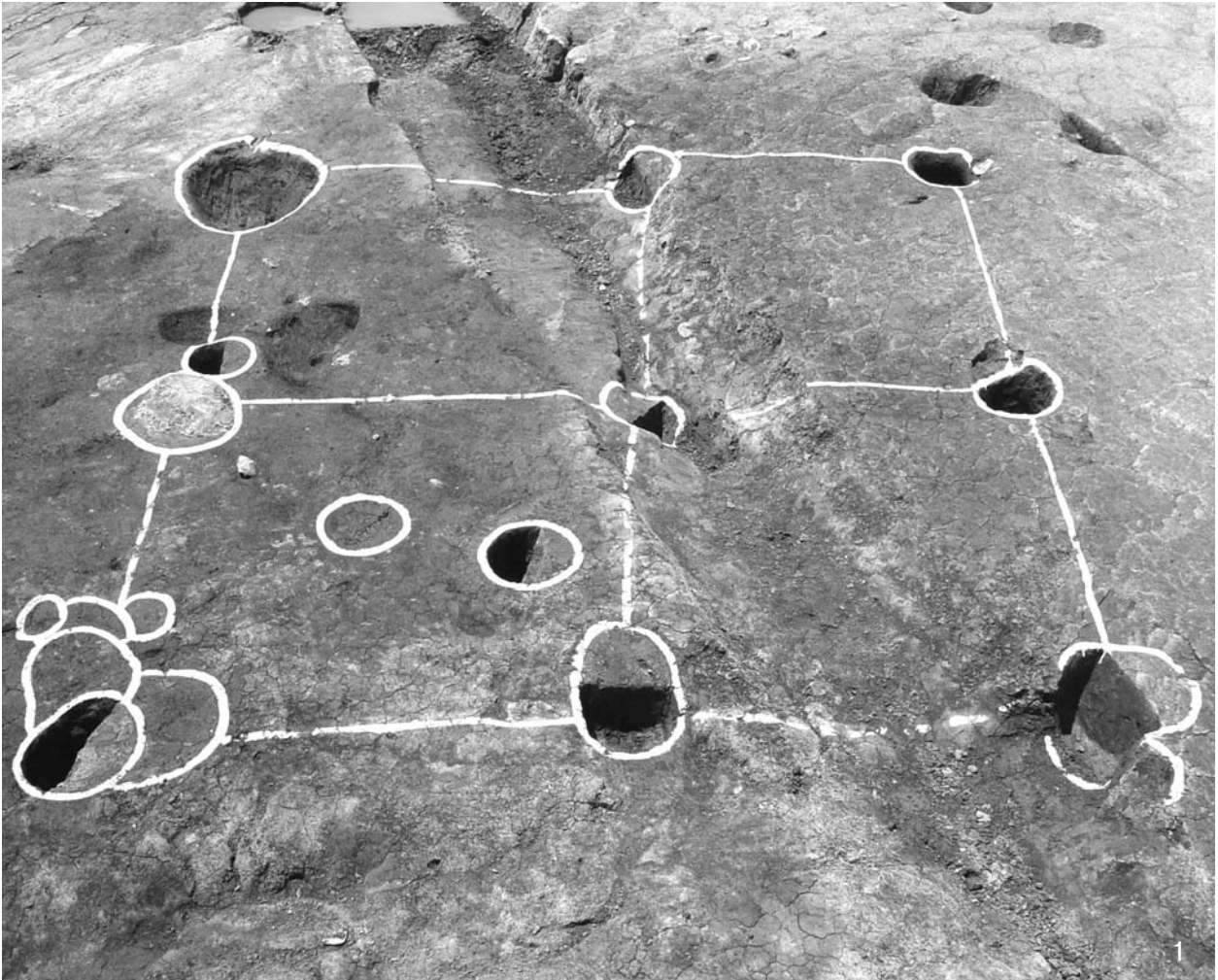
圖版 79. 41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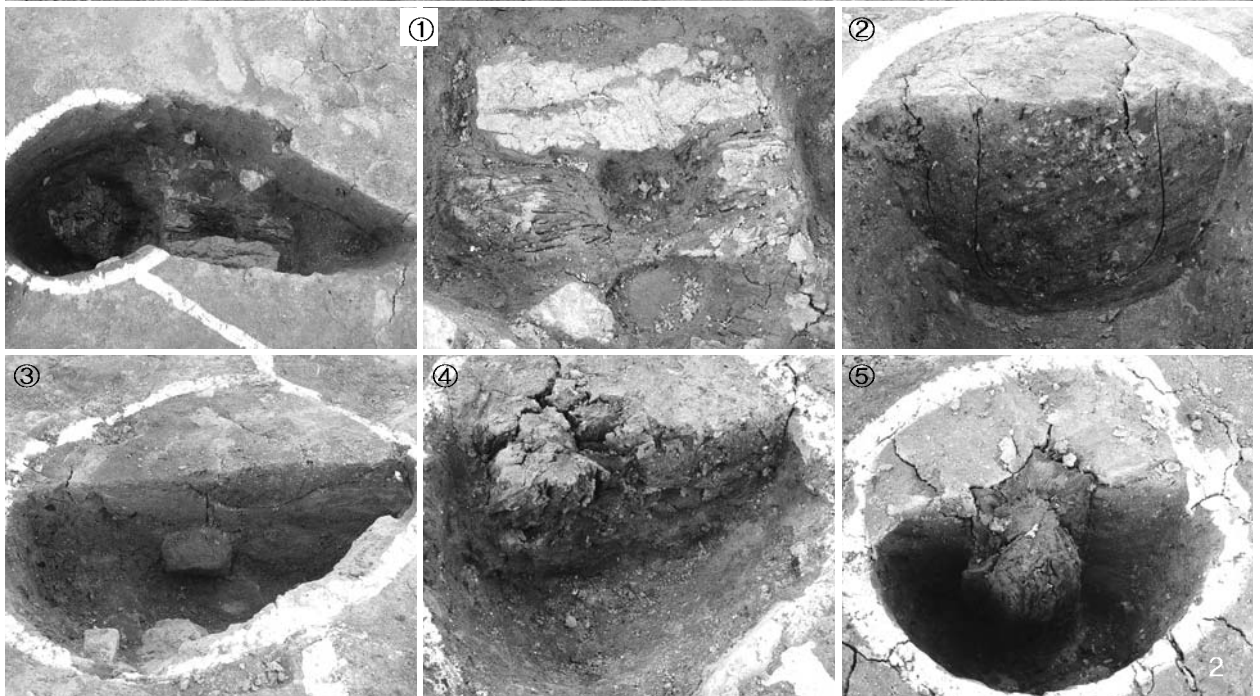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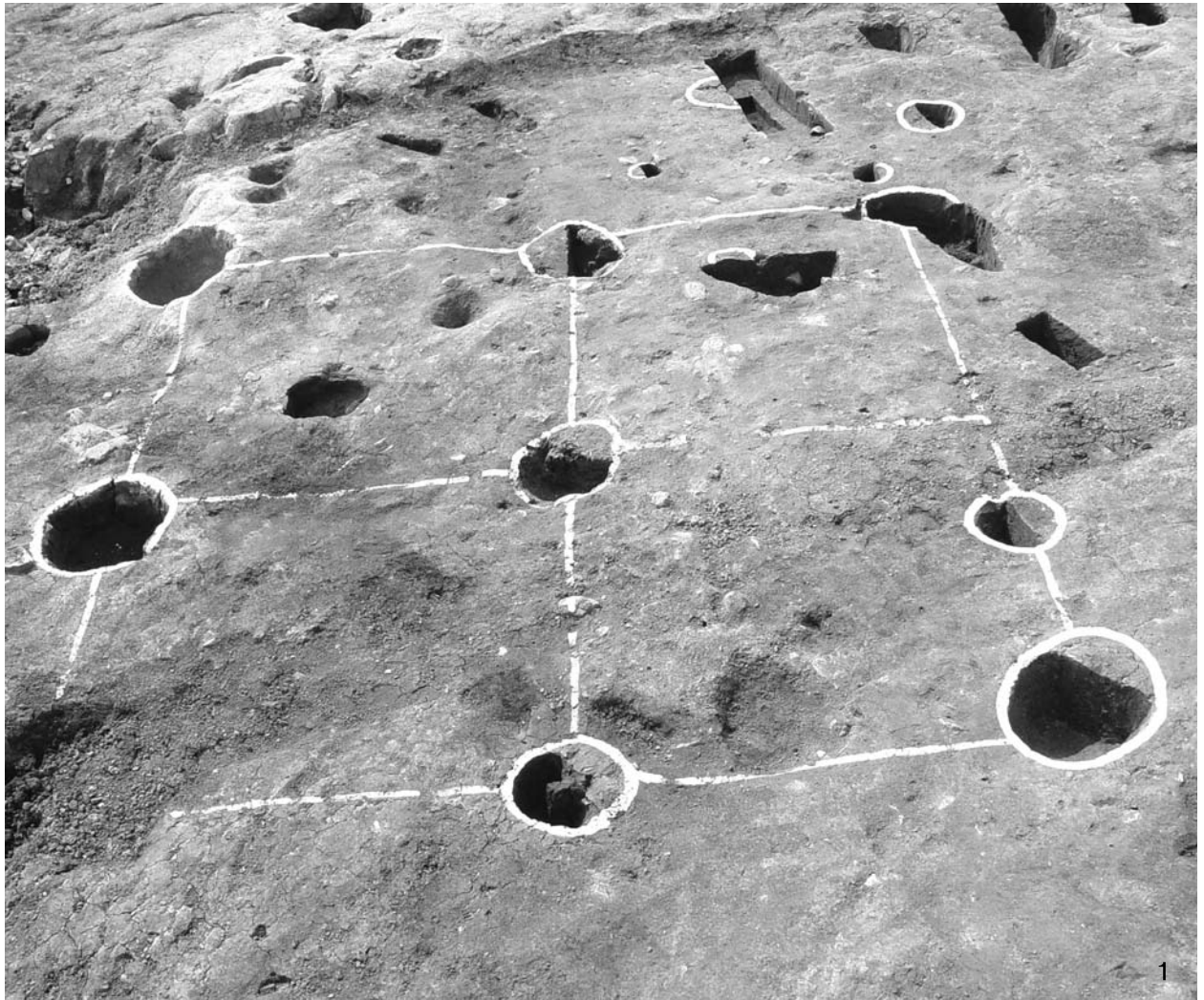
圖版 80. 42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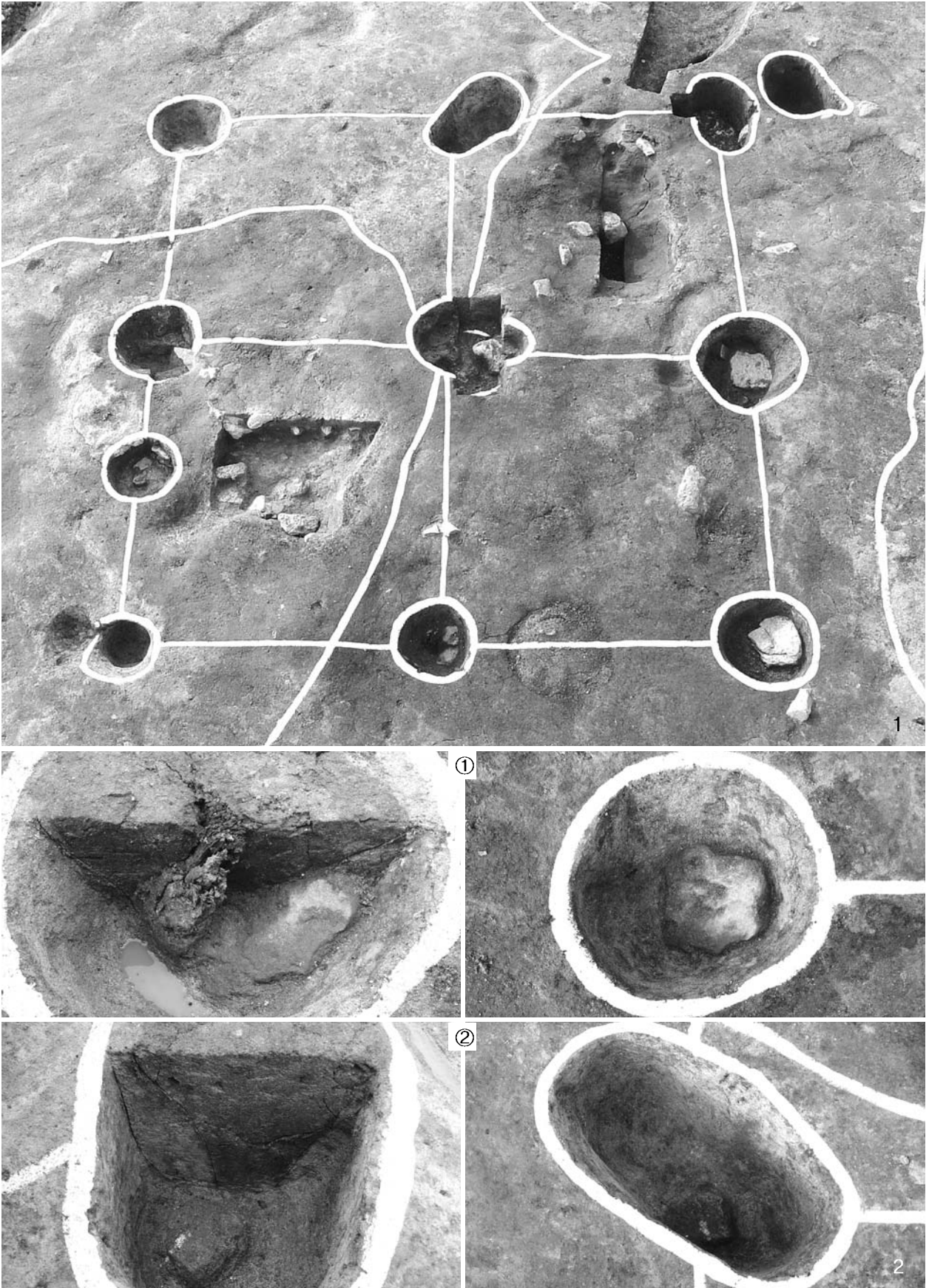
圖版 81. 43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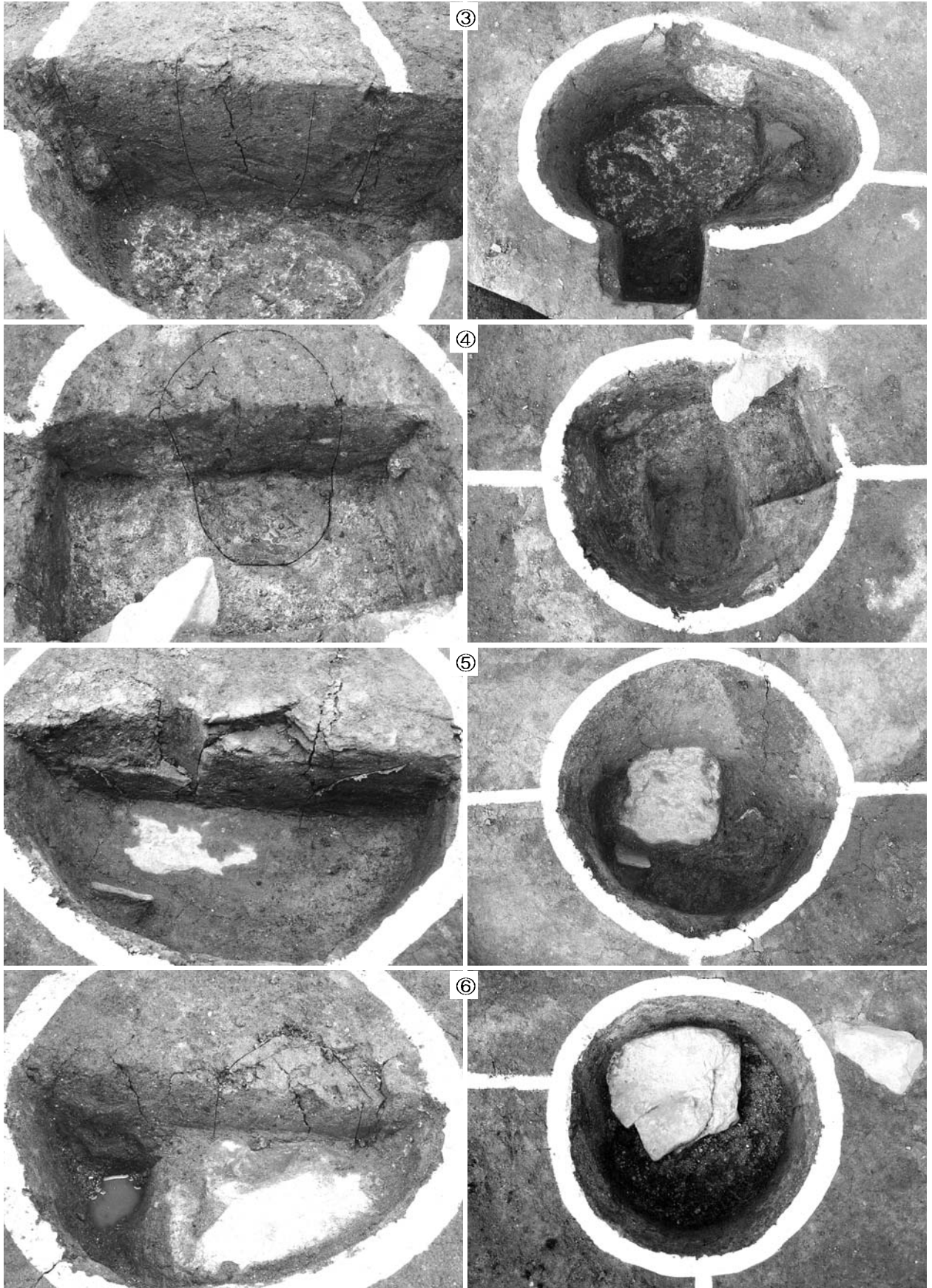
圖版 82. 44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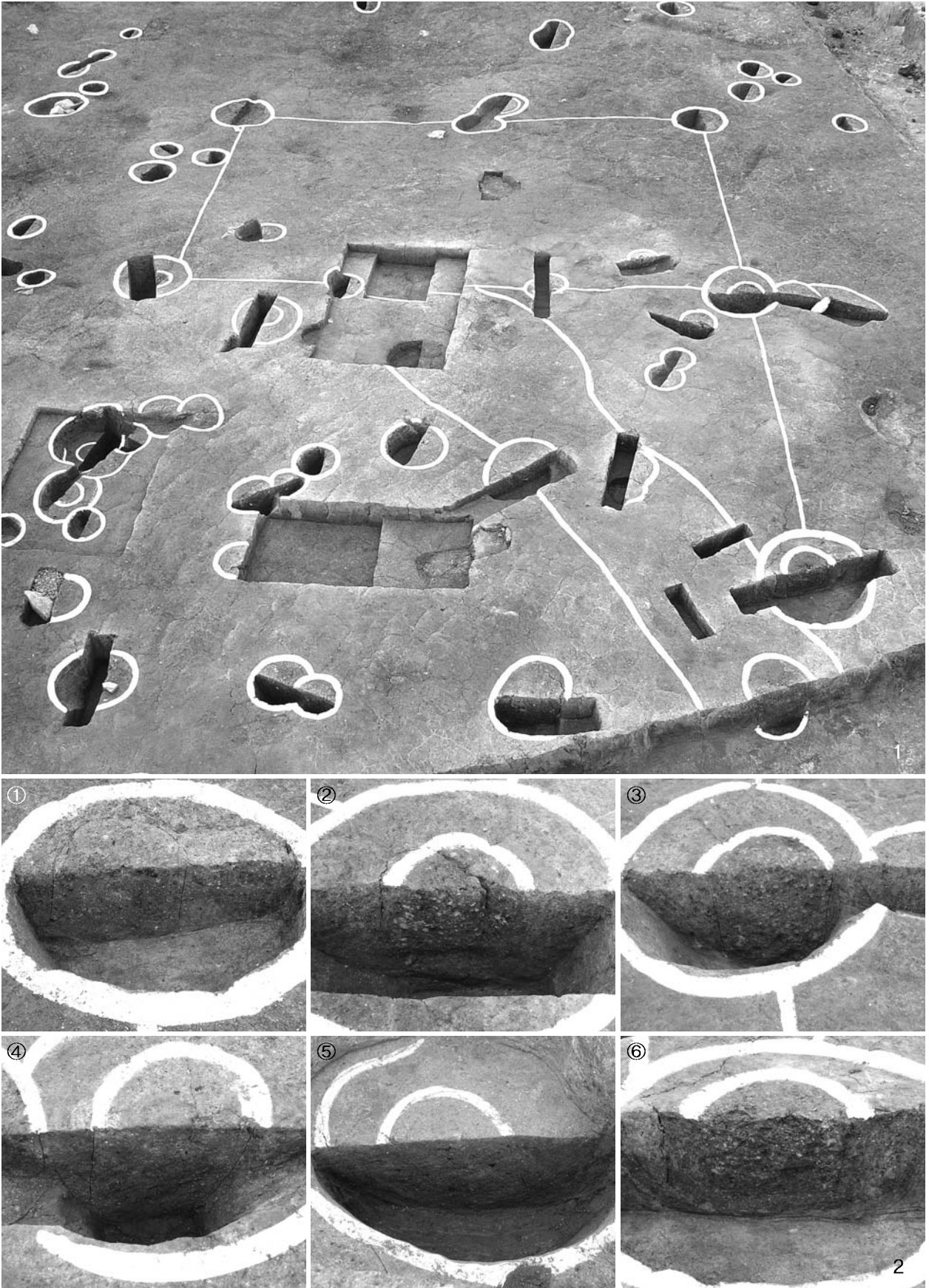
圖版 83. 45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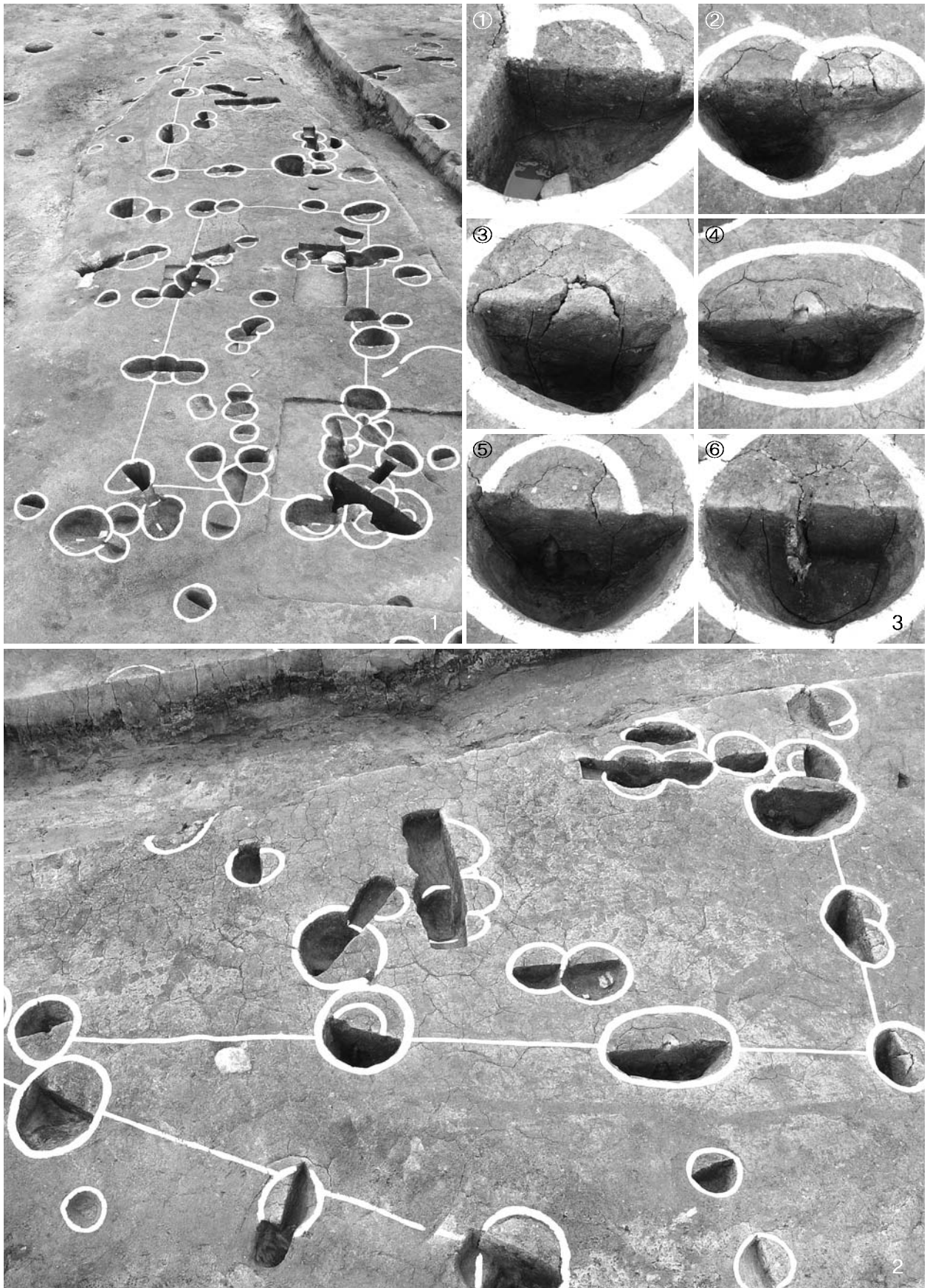
圖版 84. 46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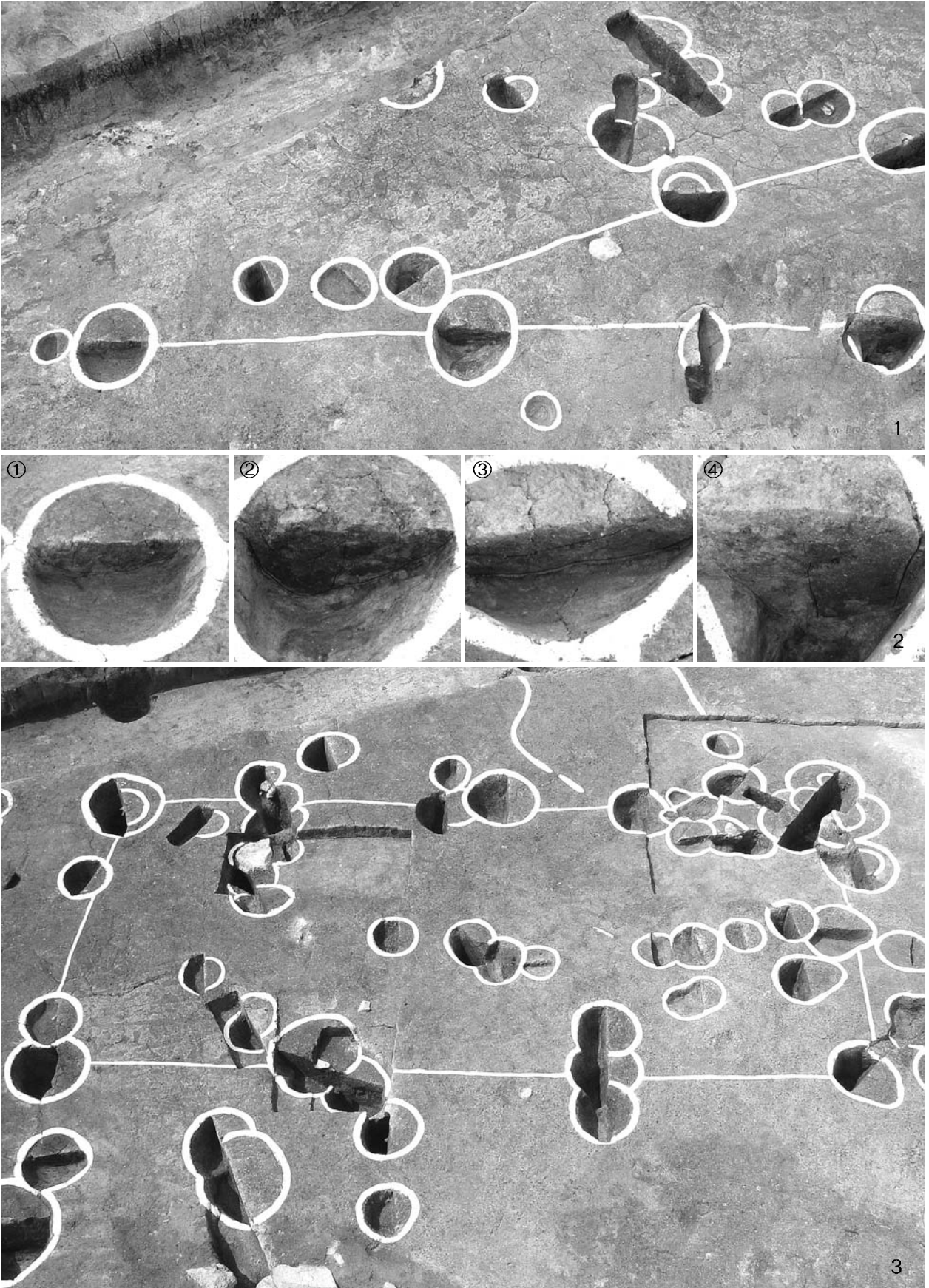
圖版 85. 46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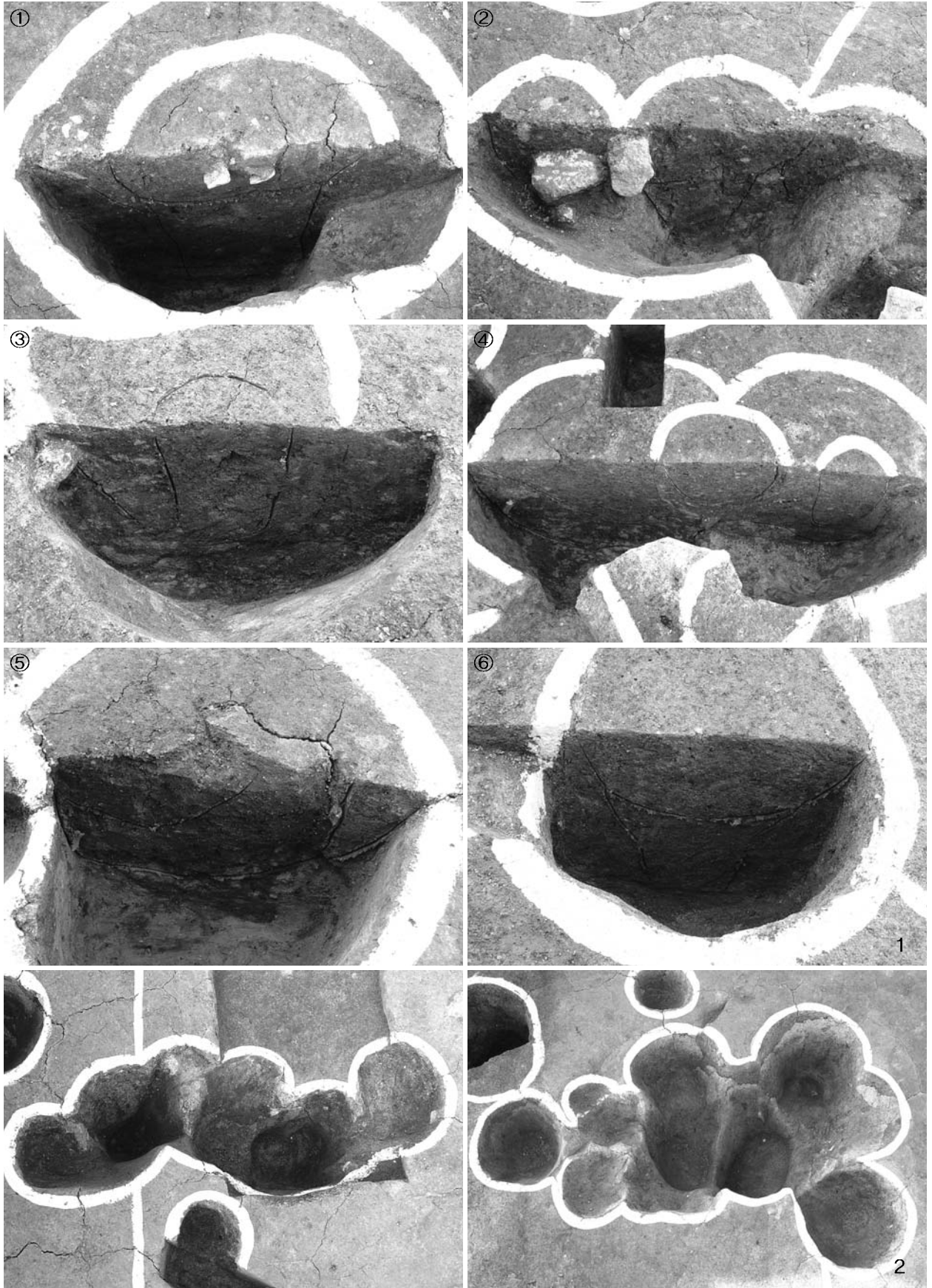
圖版 86. 47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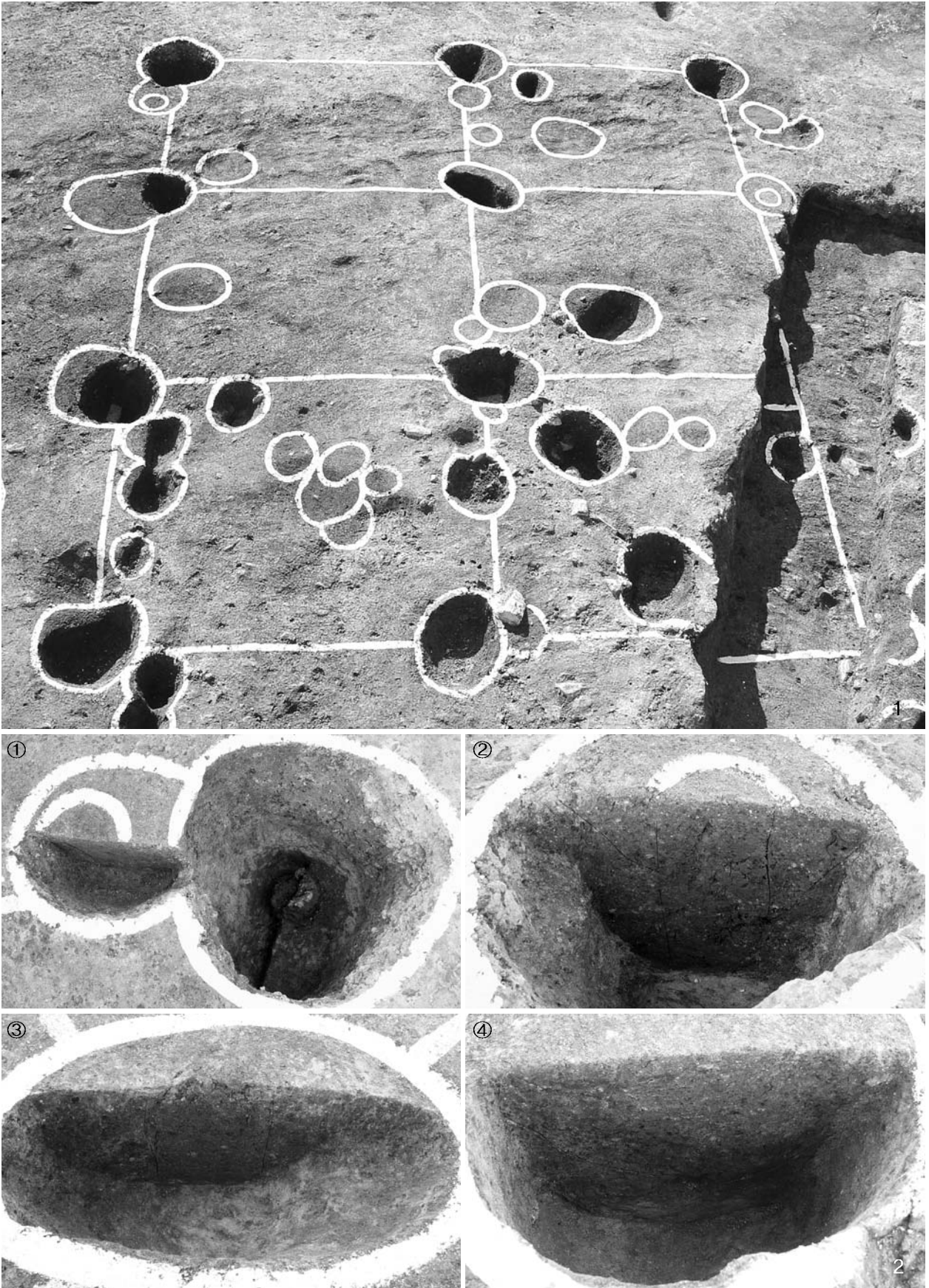
圖版 87. 48 · 49 · 50호 굴림주건물지(1), 48호 굴림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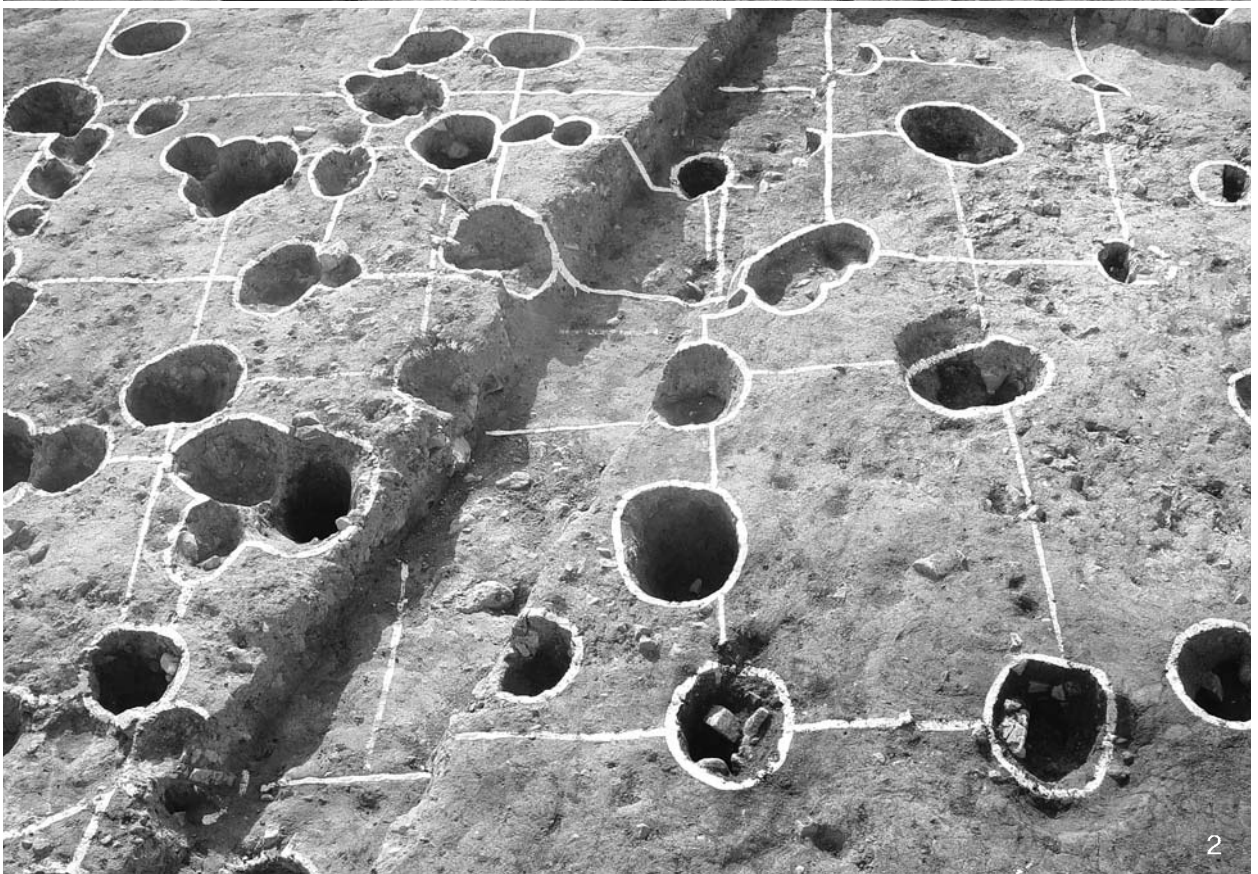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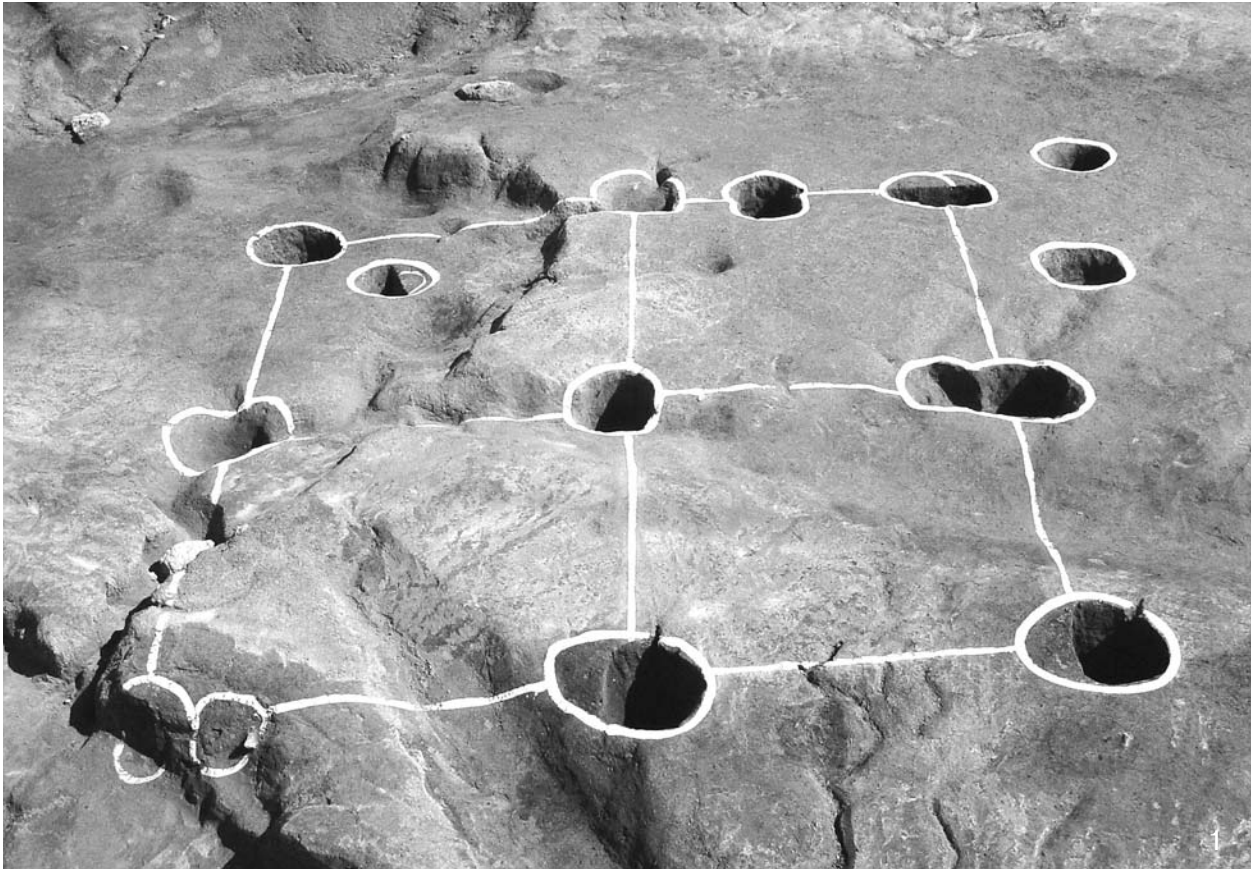
圖版 88. 49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50호 굴림주건물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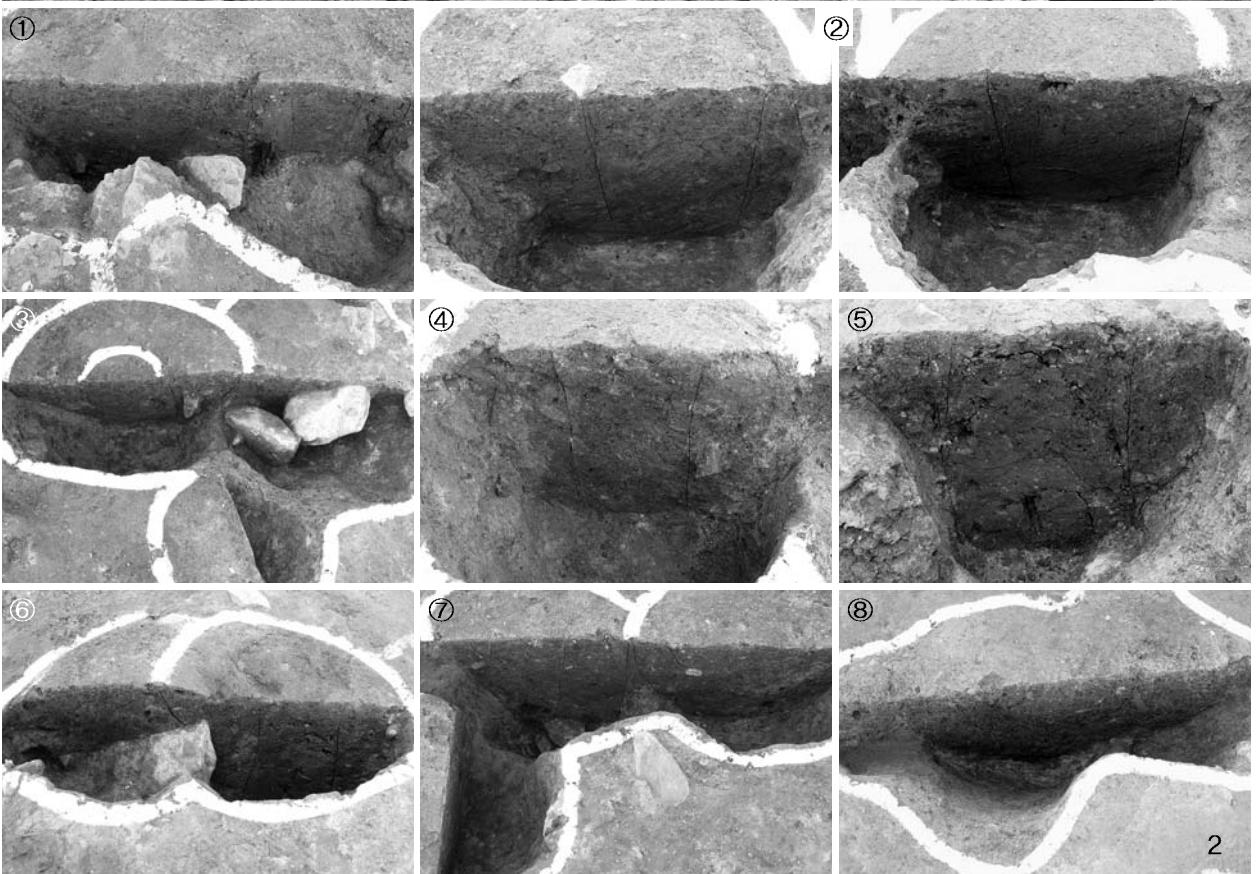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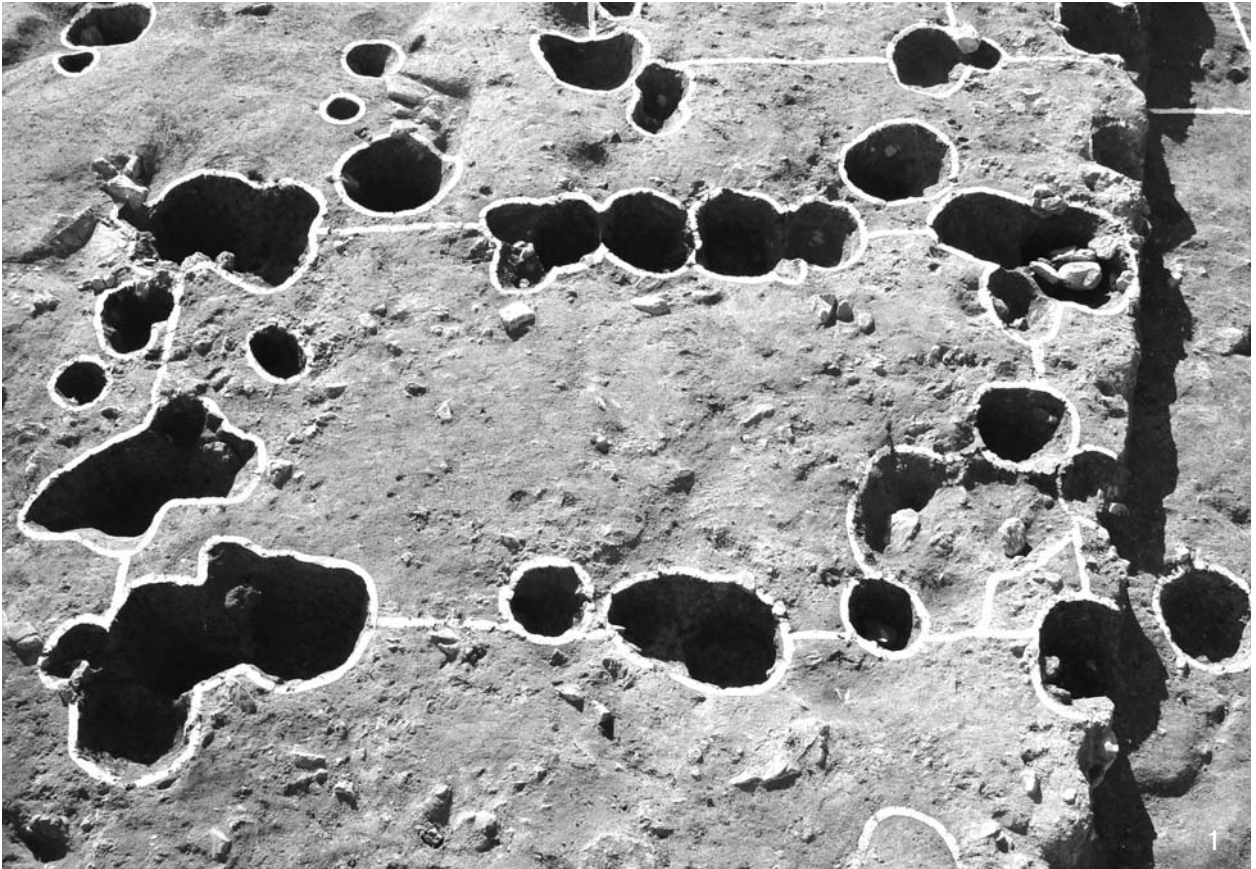
圖版 89. 50호 굴림주건물지 (1:주혈토층, 2:주혈간 중복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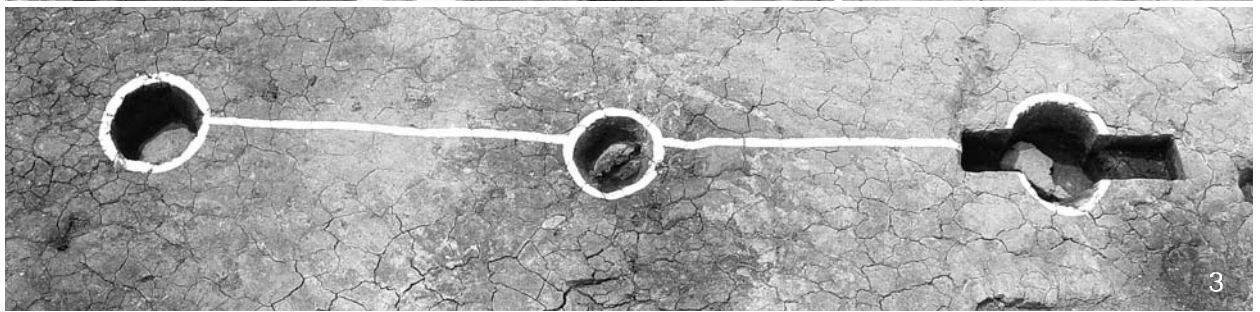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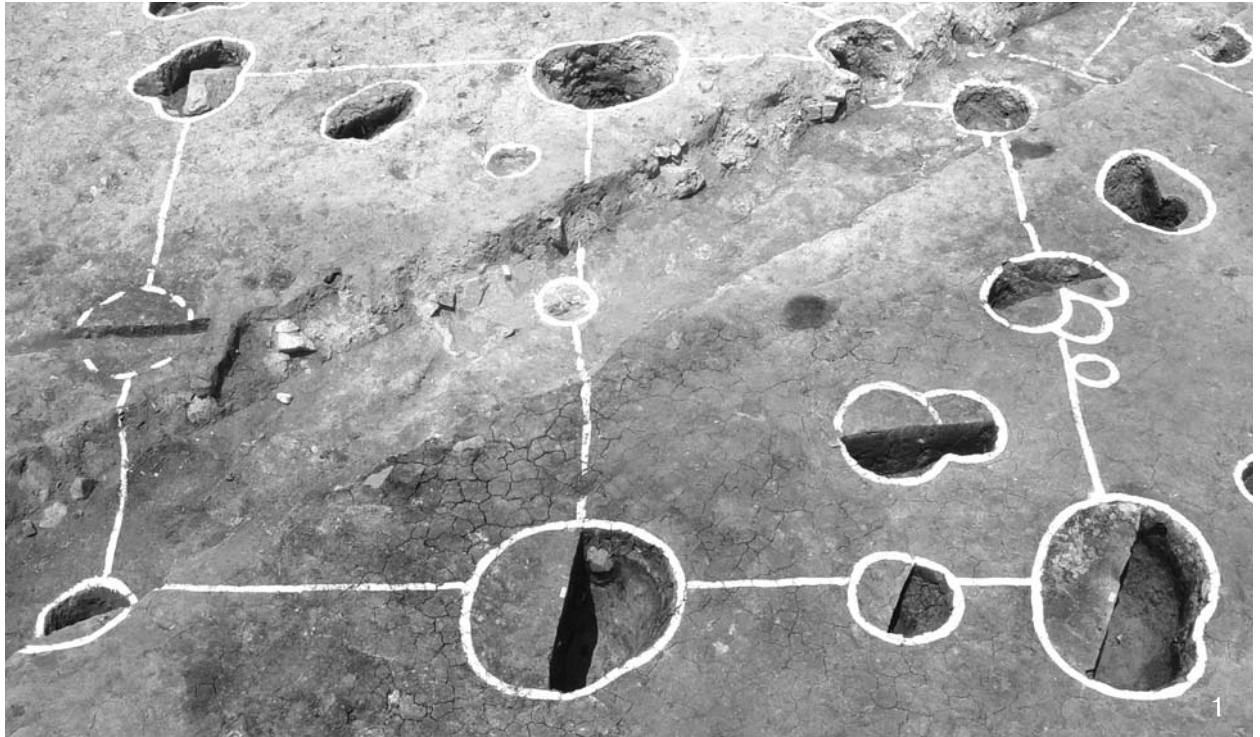
圖版 90. 51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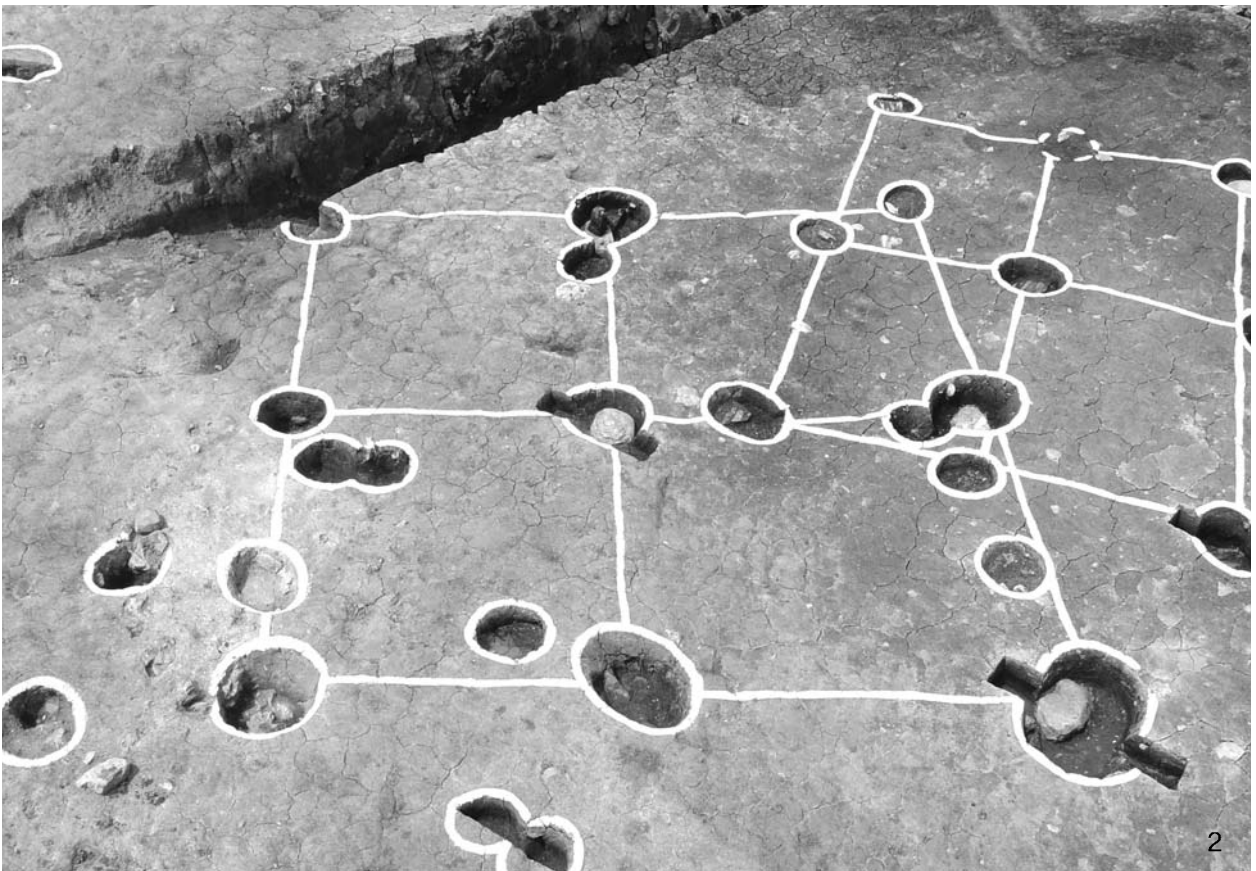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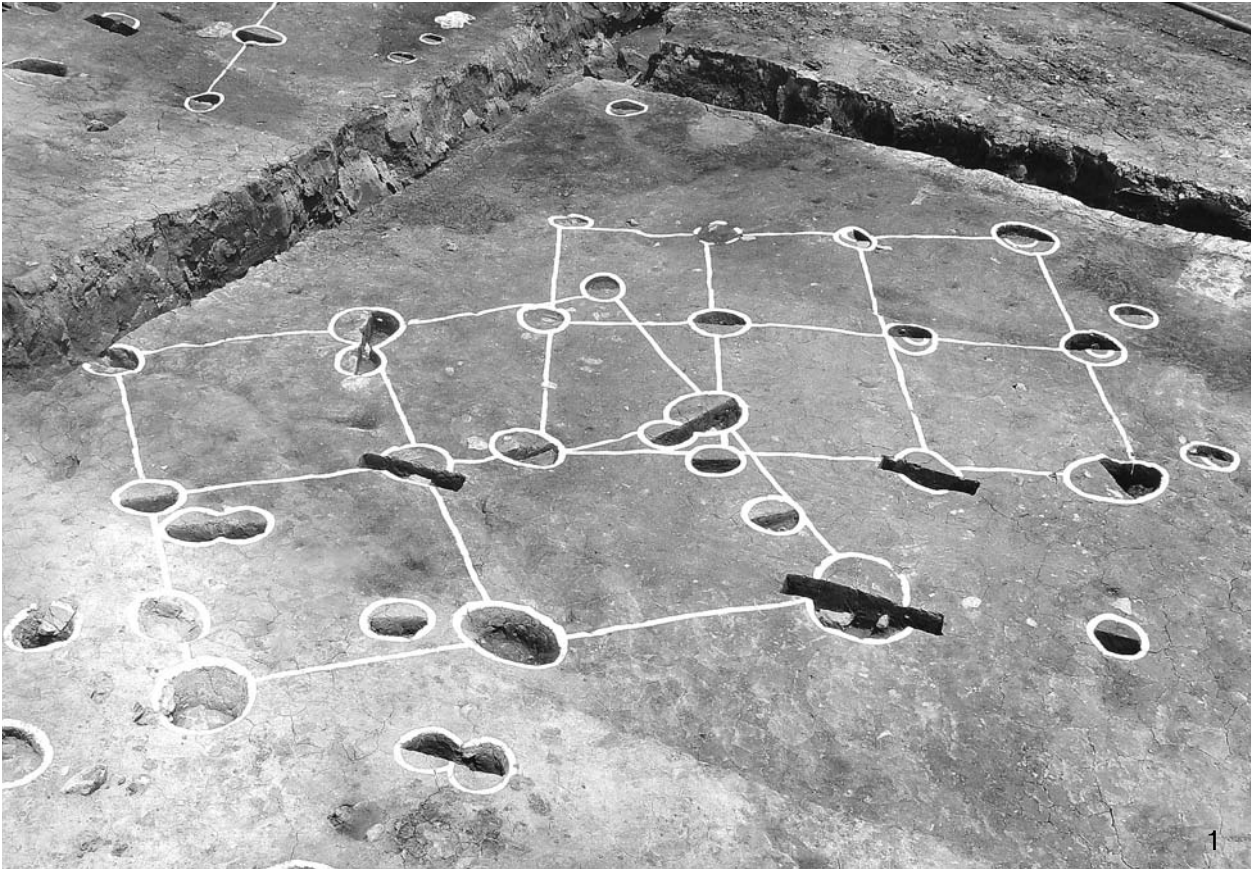
圖版 91. 52호 굴림주건물지(1), 53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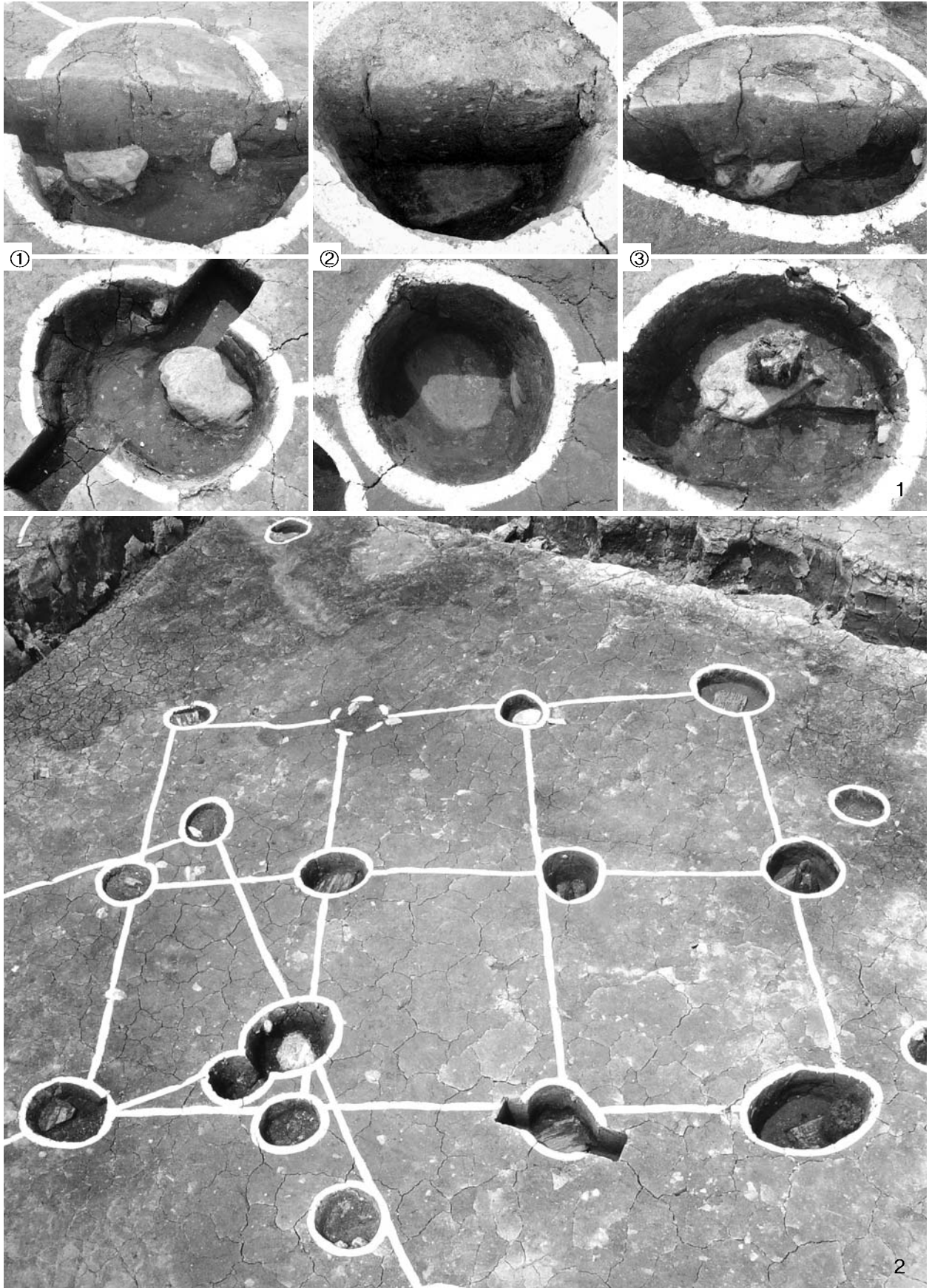
圖版 92. 54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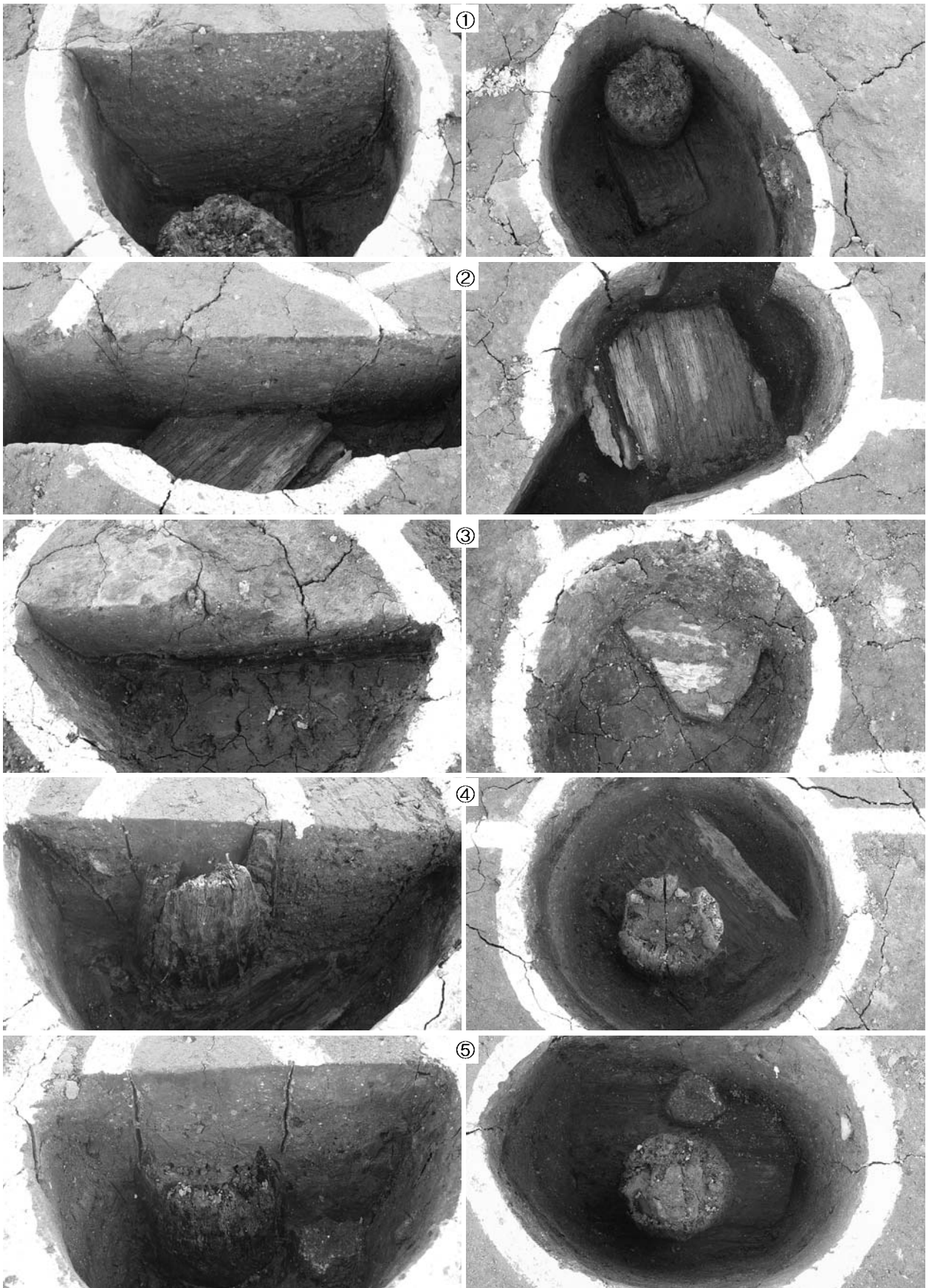
圖版 93. 55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56호 굴림주건물지 (3:전경, 4: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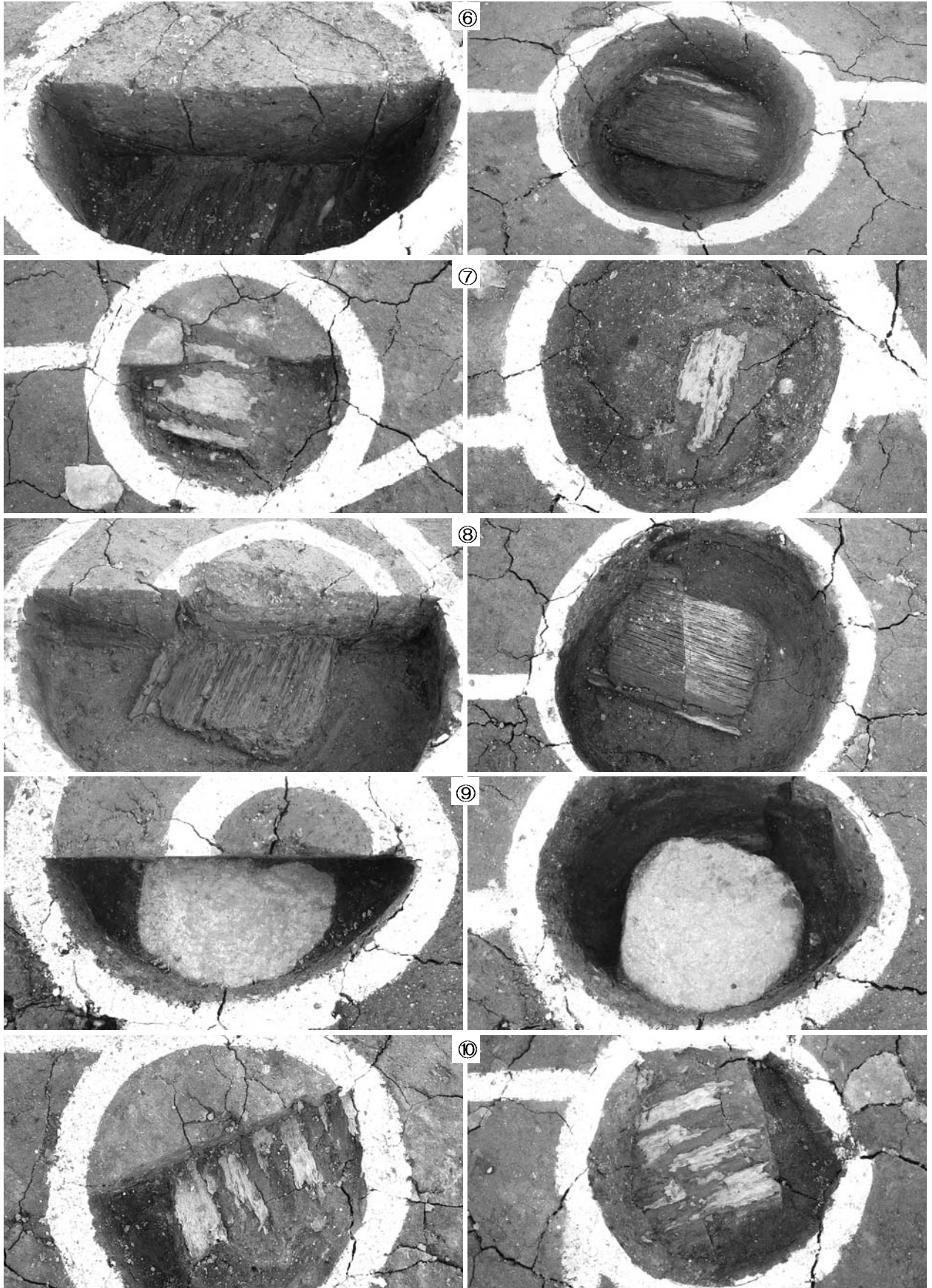
圖版 94. 57·58호 굴림주건물지(1), 57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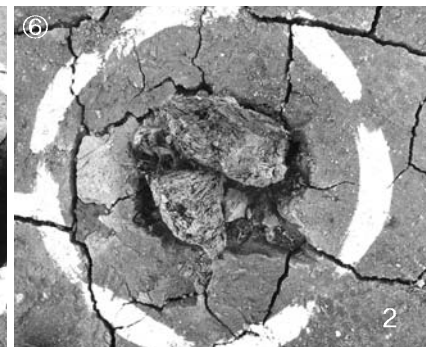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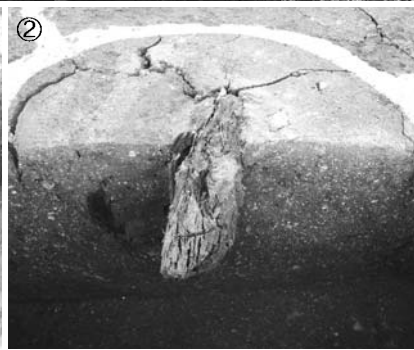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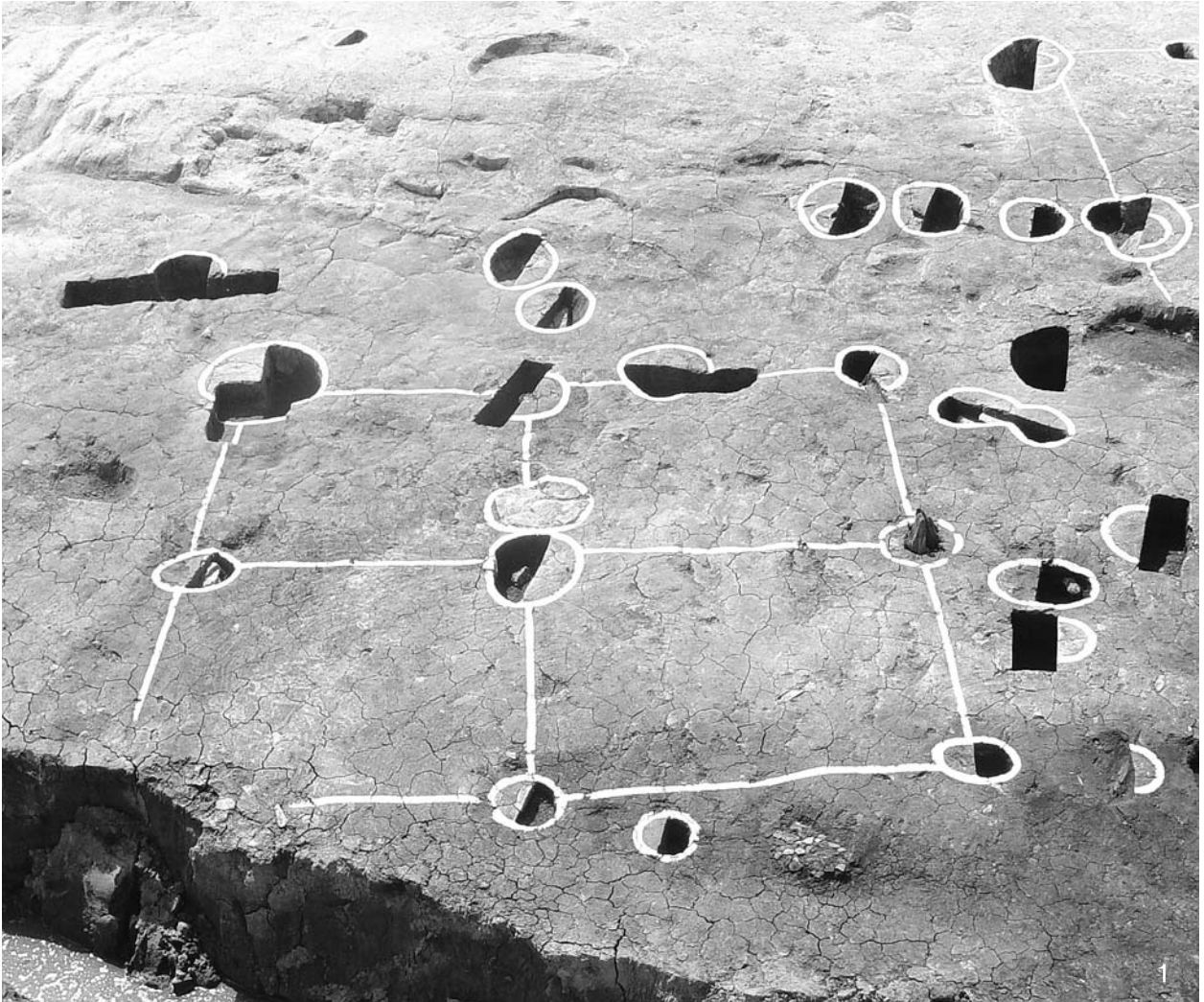
圖版 95. 57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초심석(1), 58호 굴림주건물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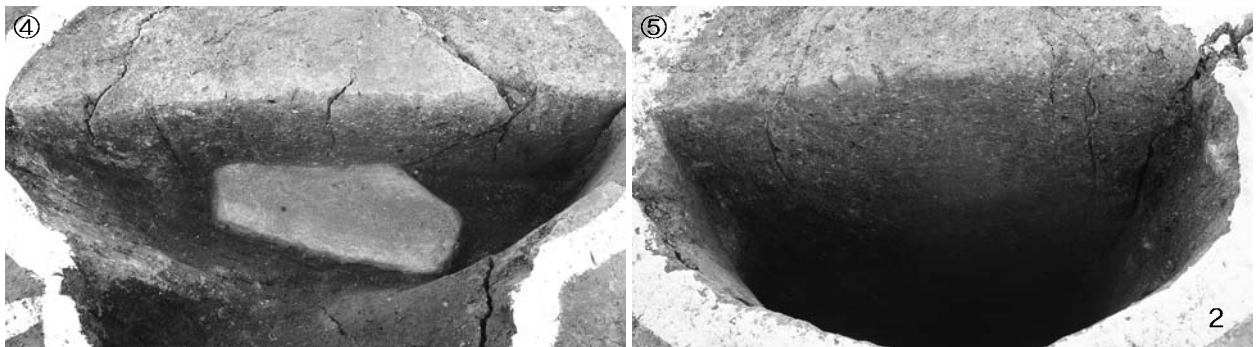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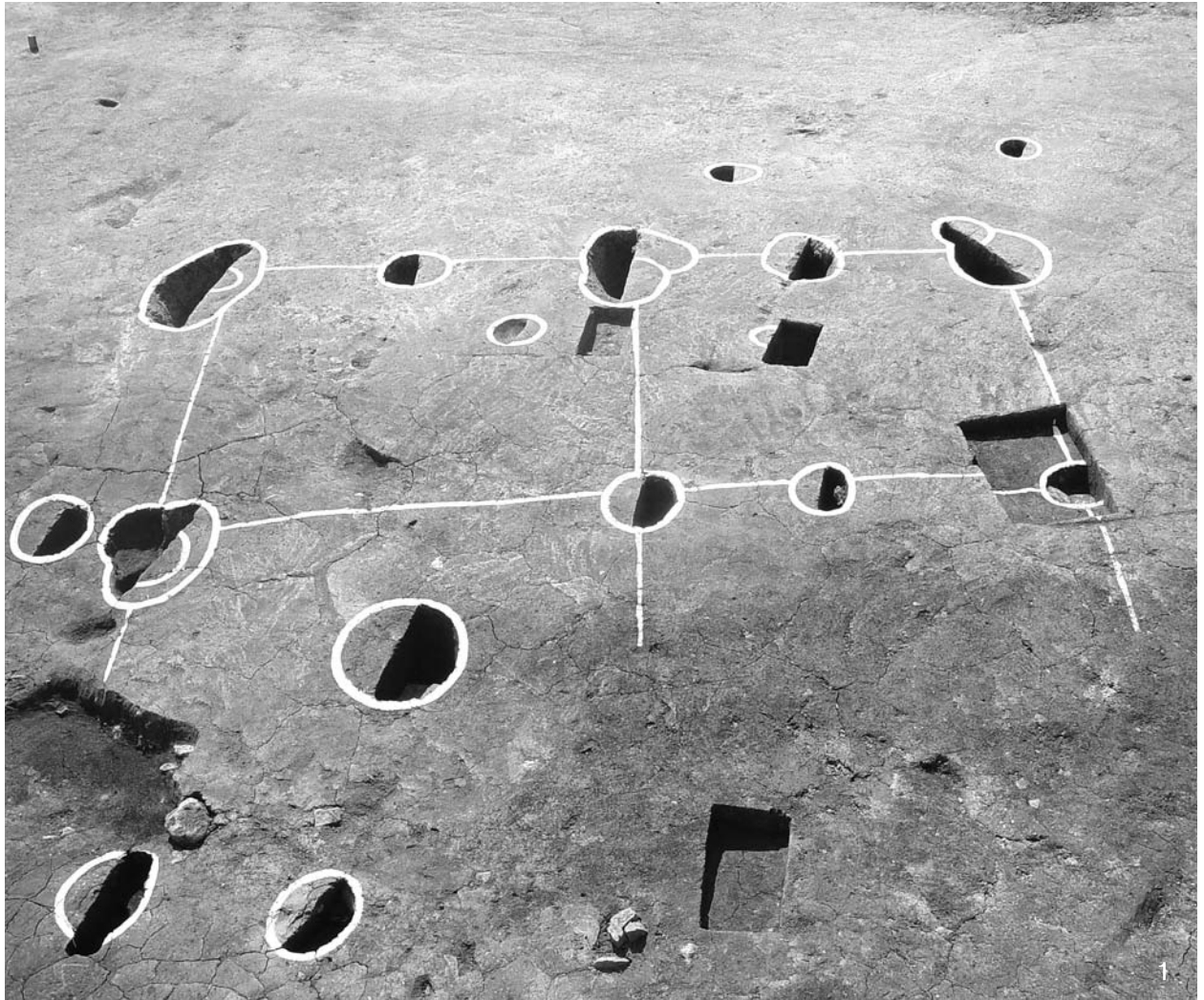
圖版 96. 58호 굴립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목주와 반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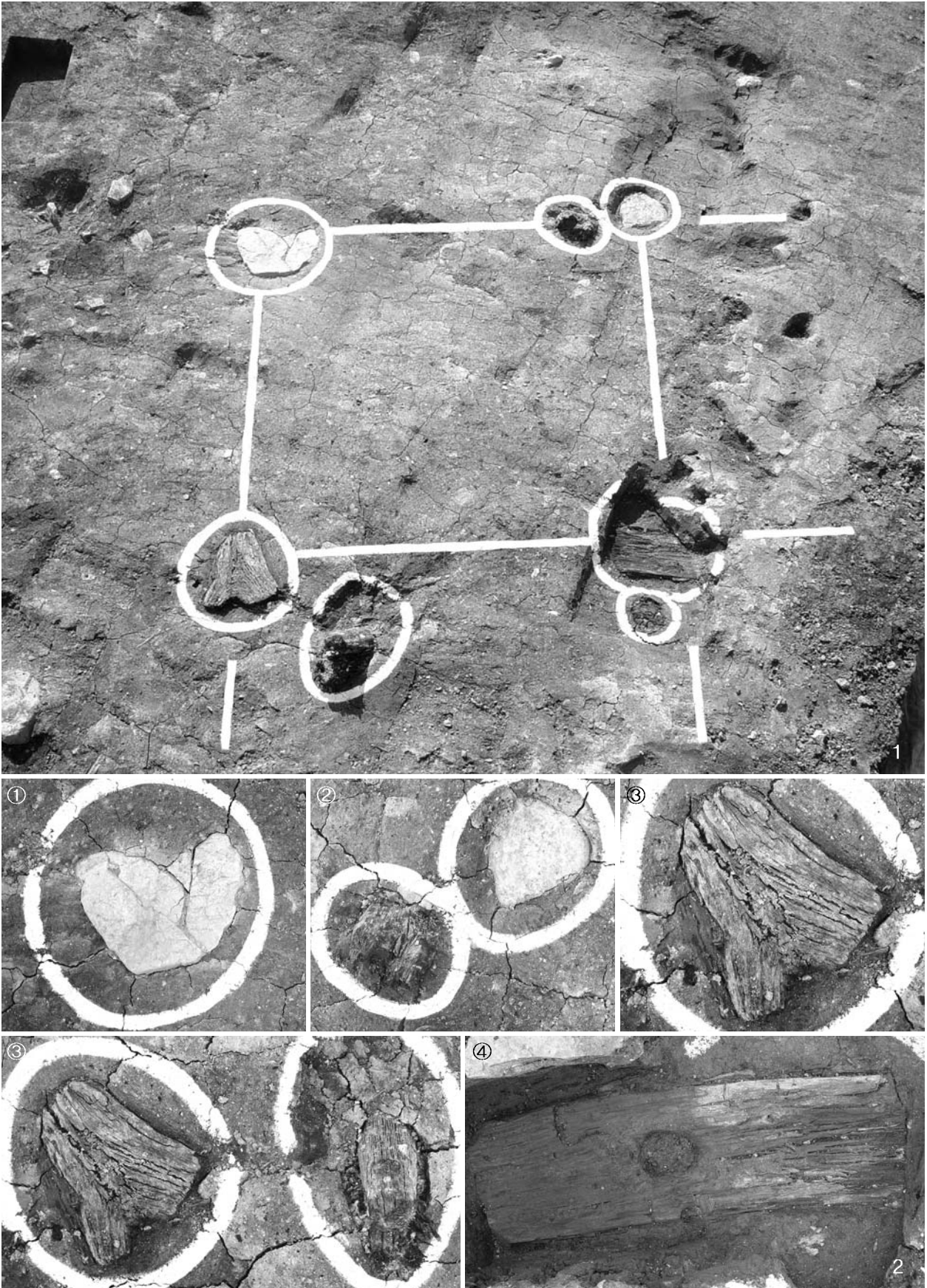
圖版 97. 58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 및 목주와 받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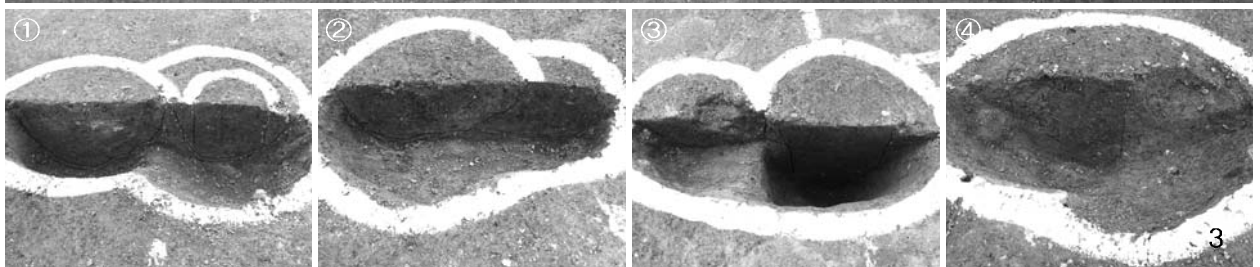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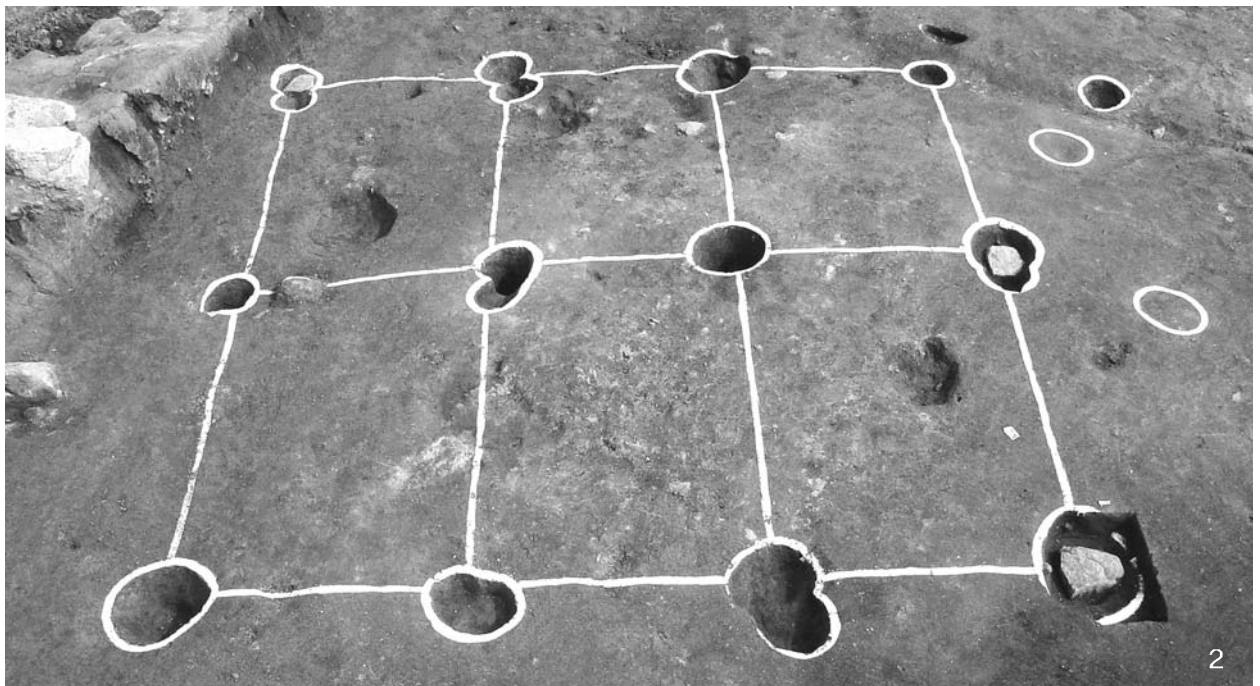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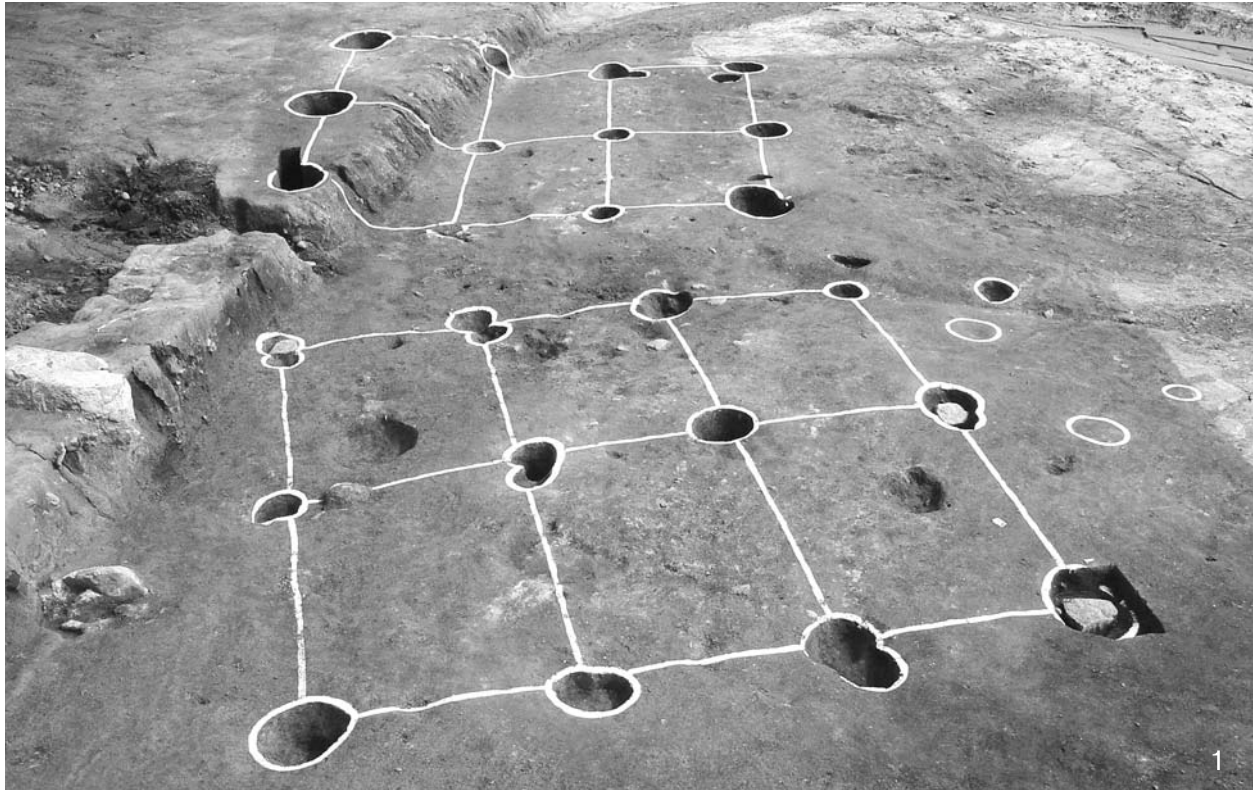
圖版 98. 59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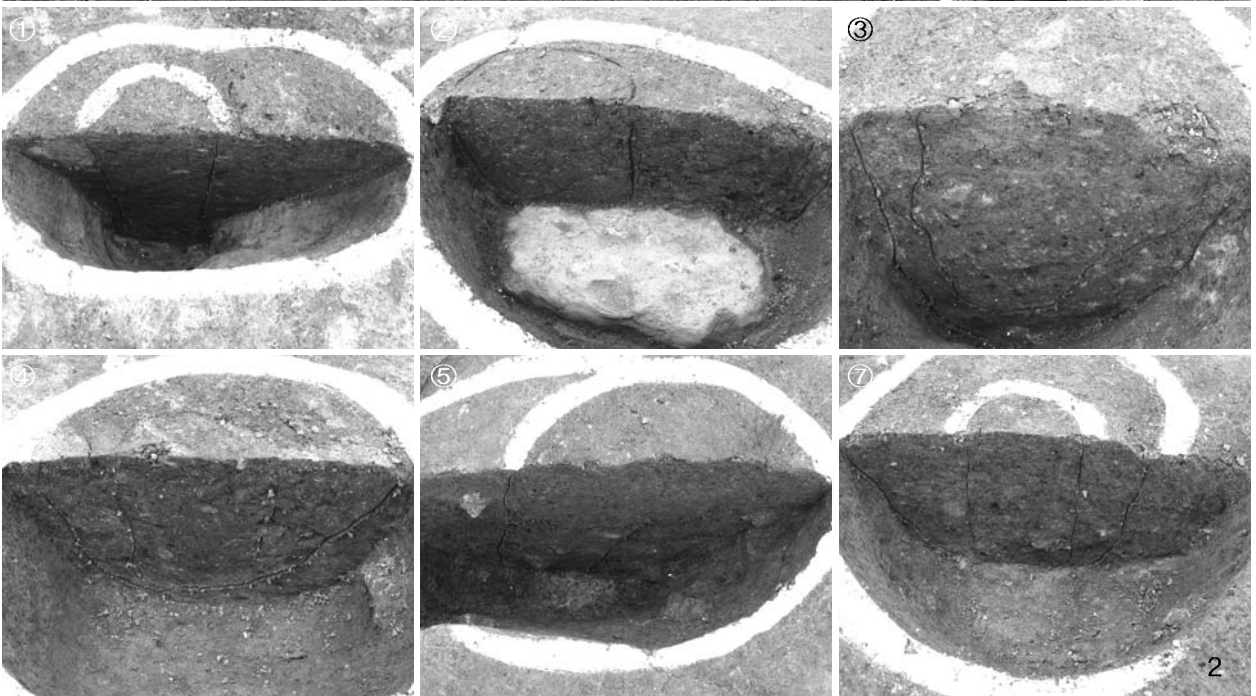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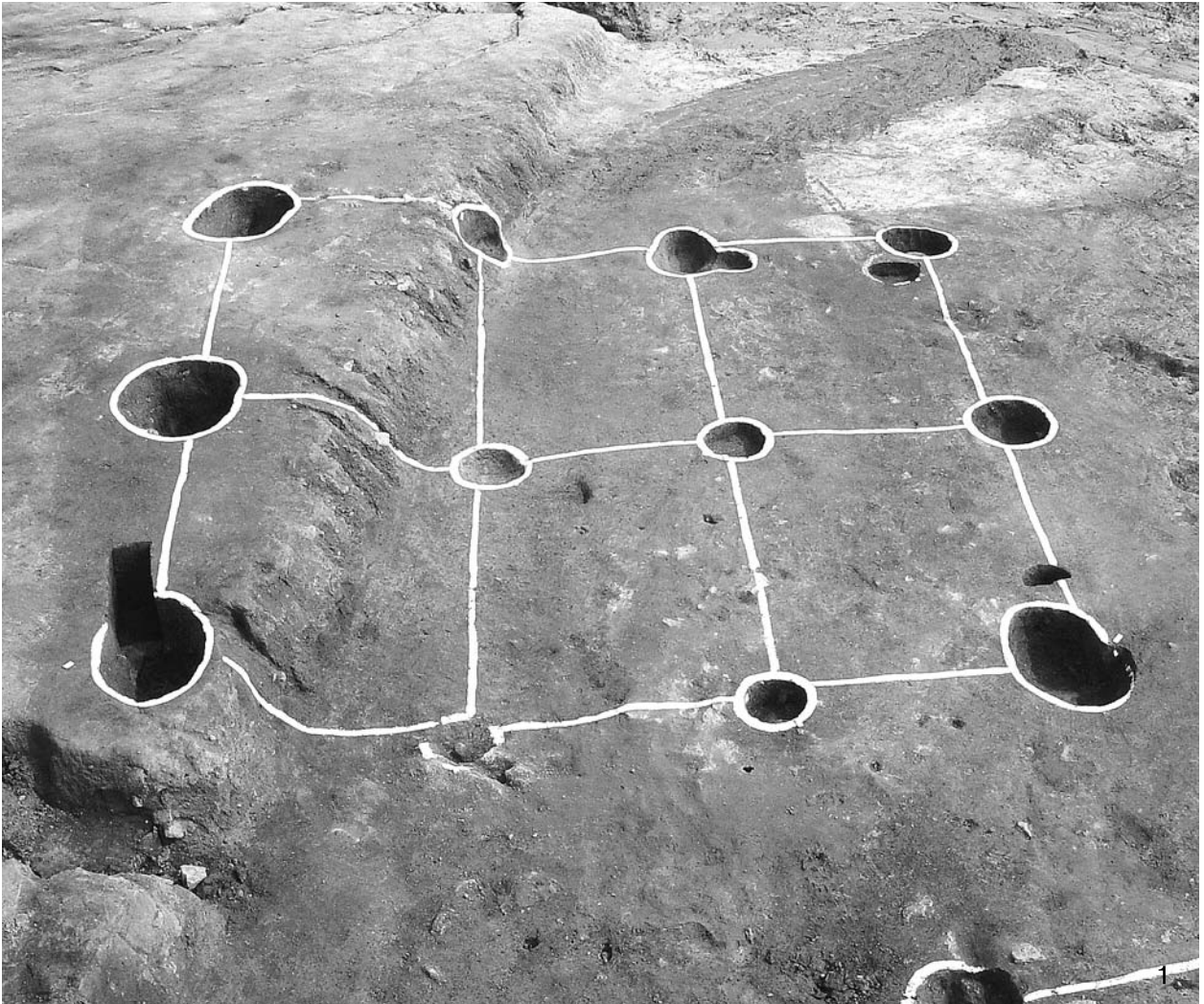
圖版 99. 60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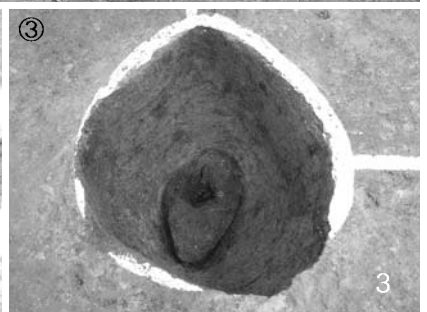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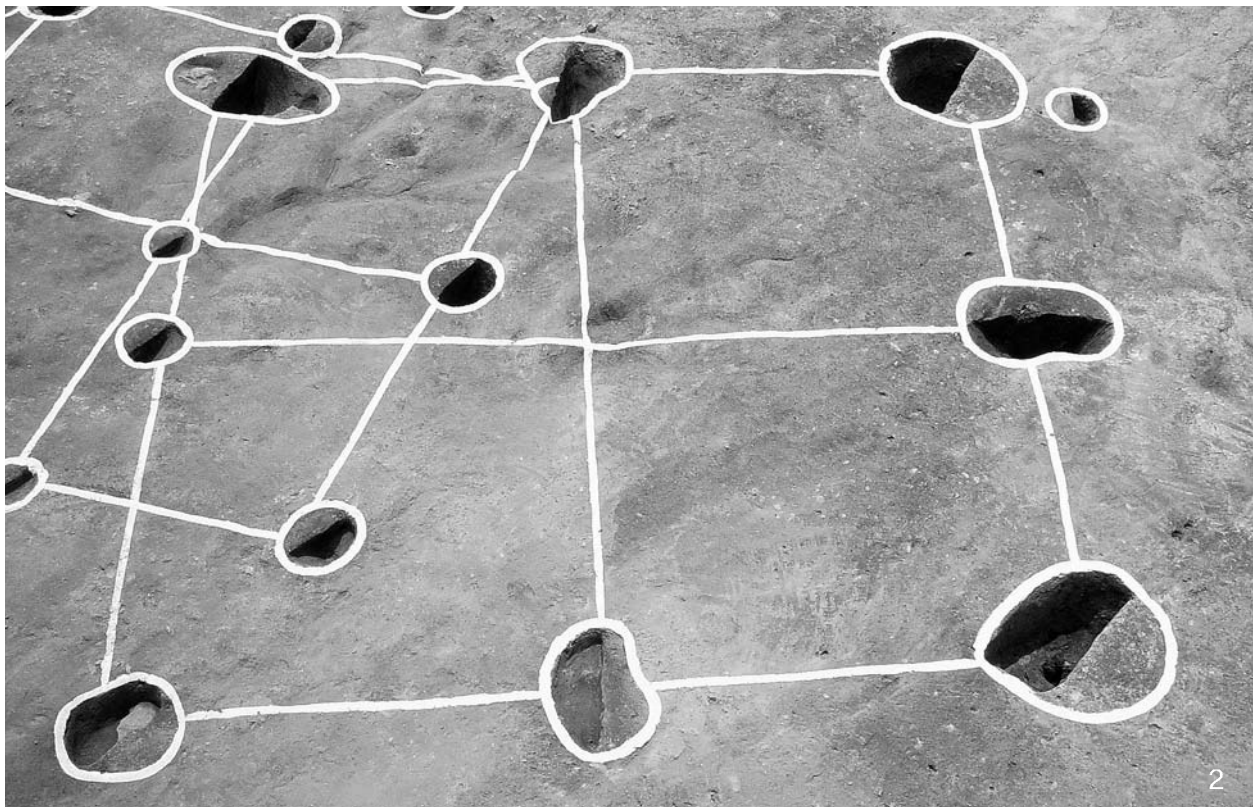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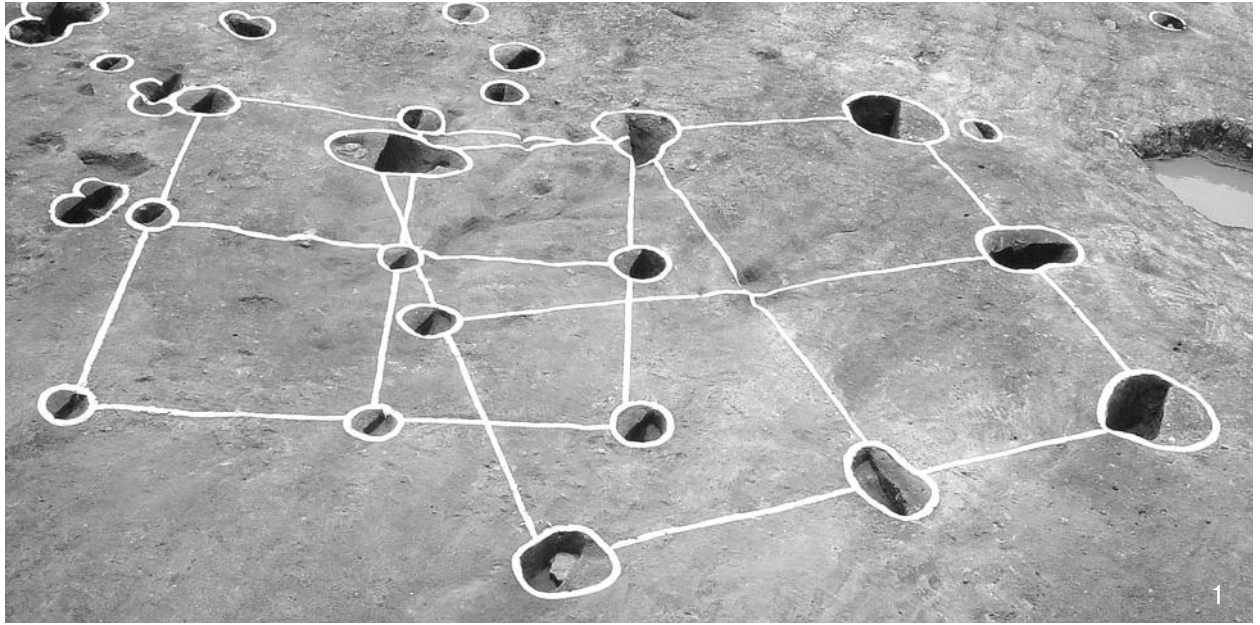
圖版 100. 61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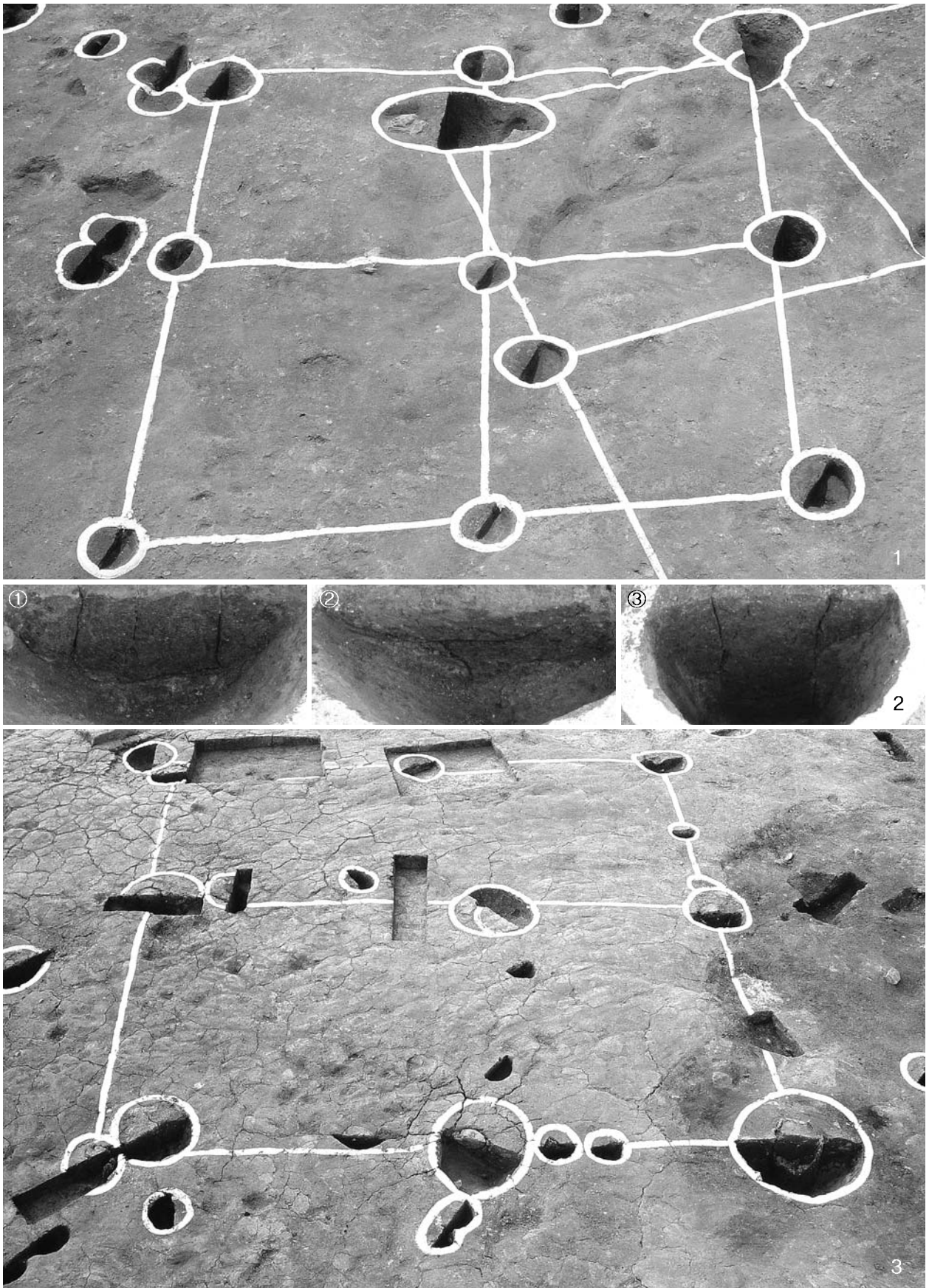
圖版 101. 62·63호 굴립주건물지(1), 62호 굴립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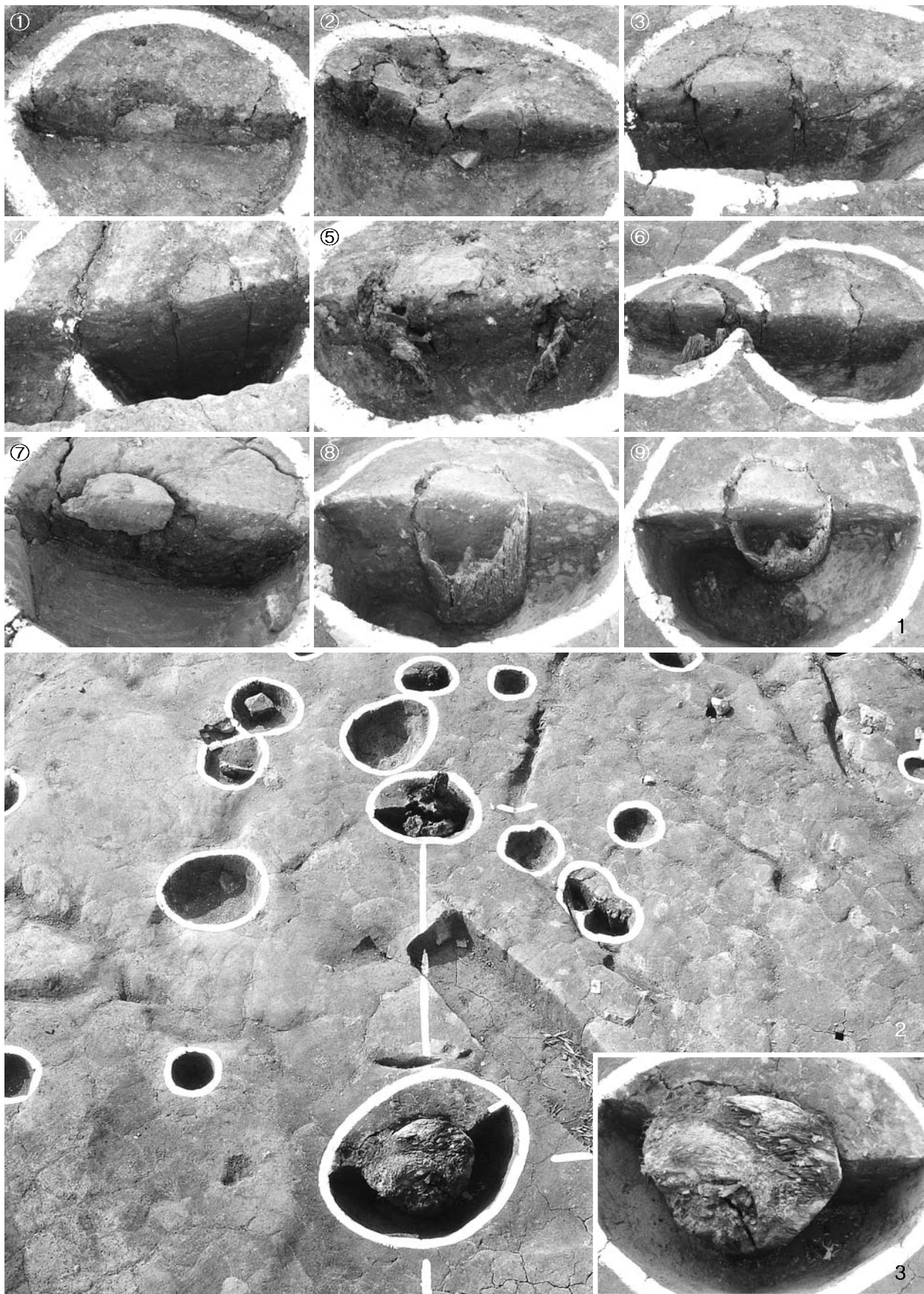
圖版 102. 63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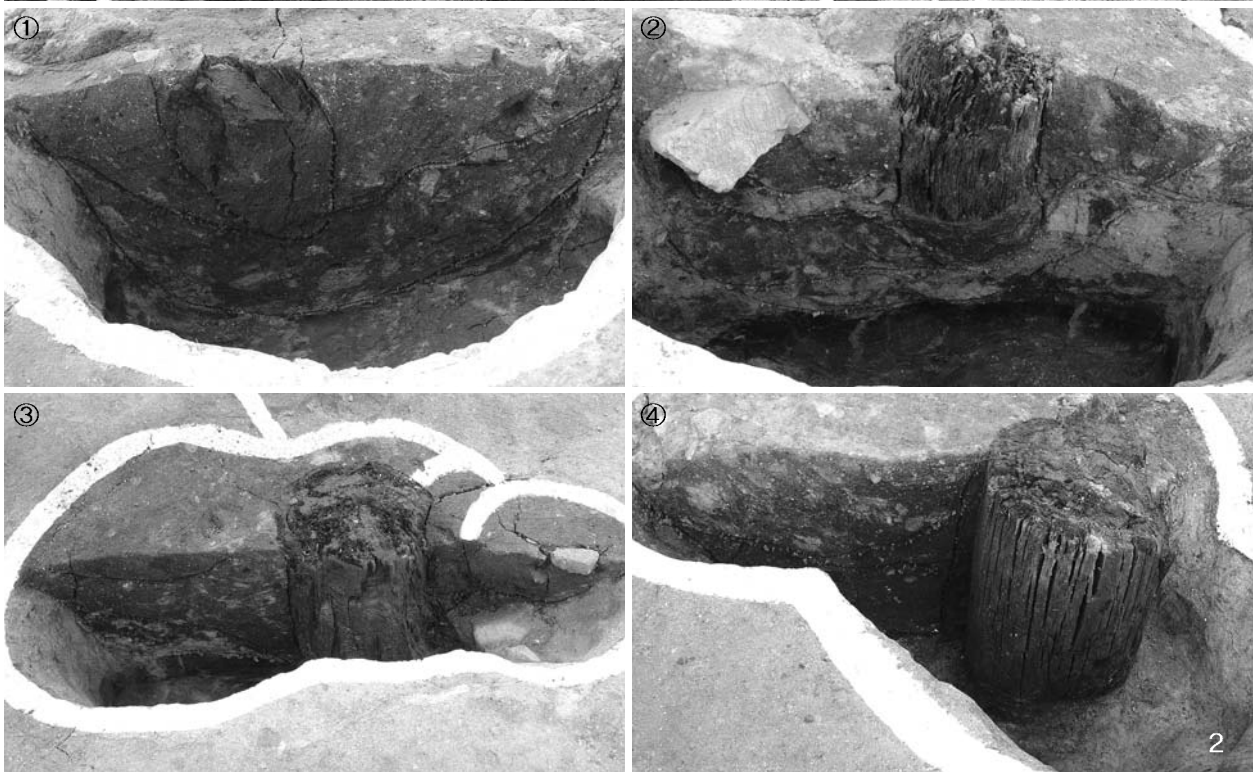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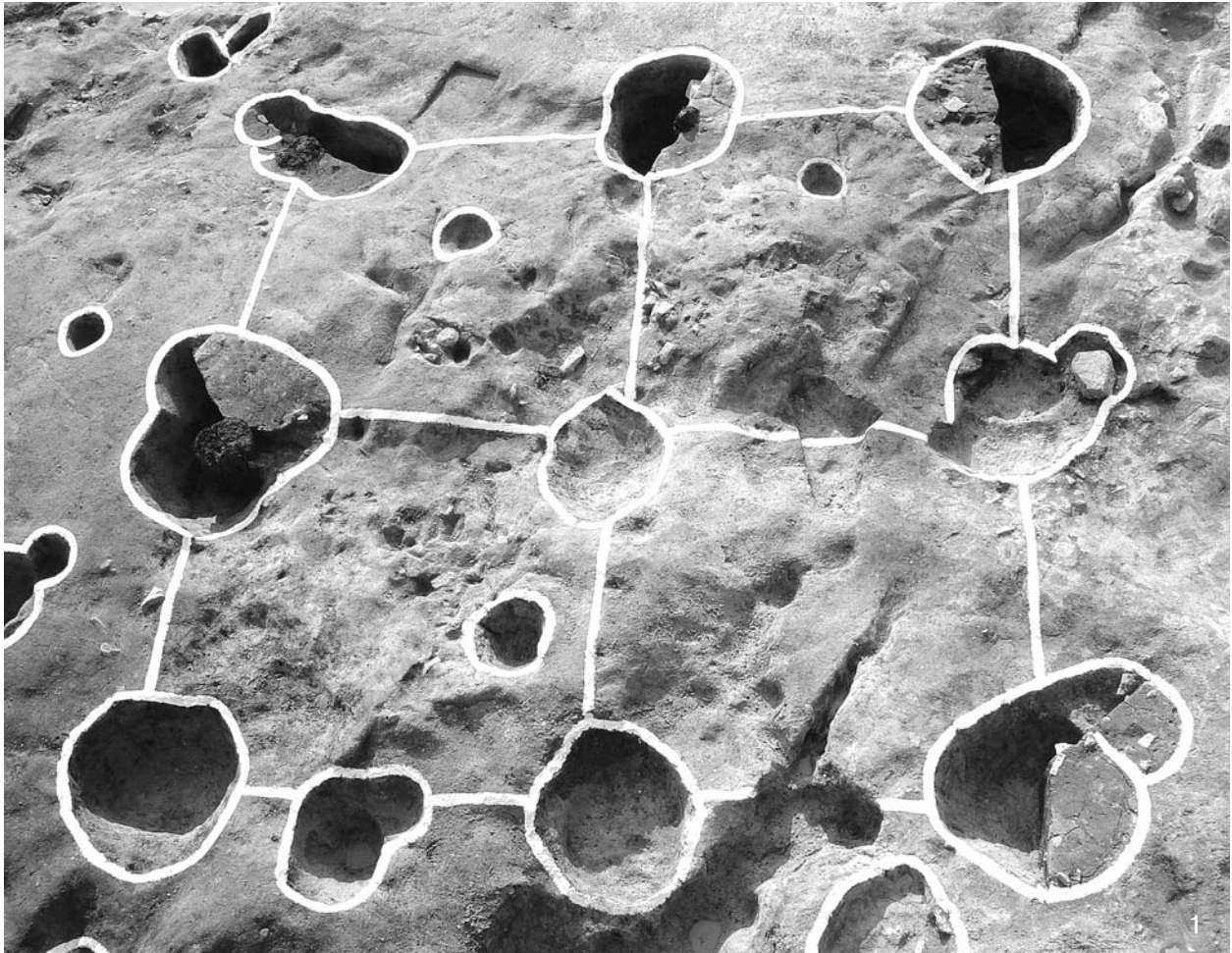
圖版 103. 64·65호 굴림주건물지(1), 64호 굴림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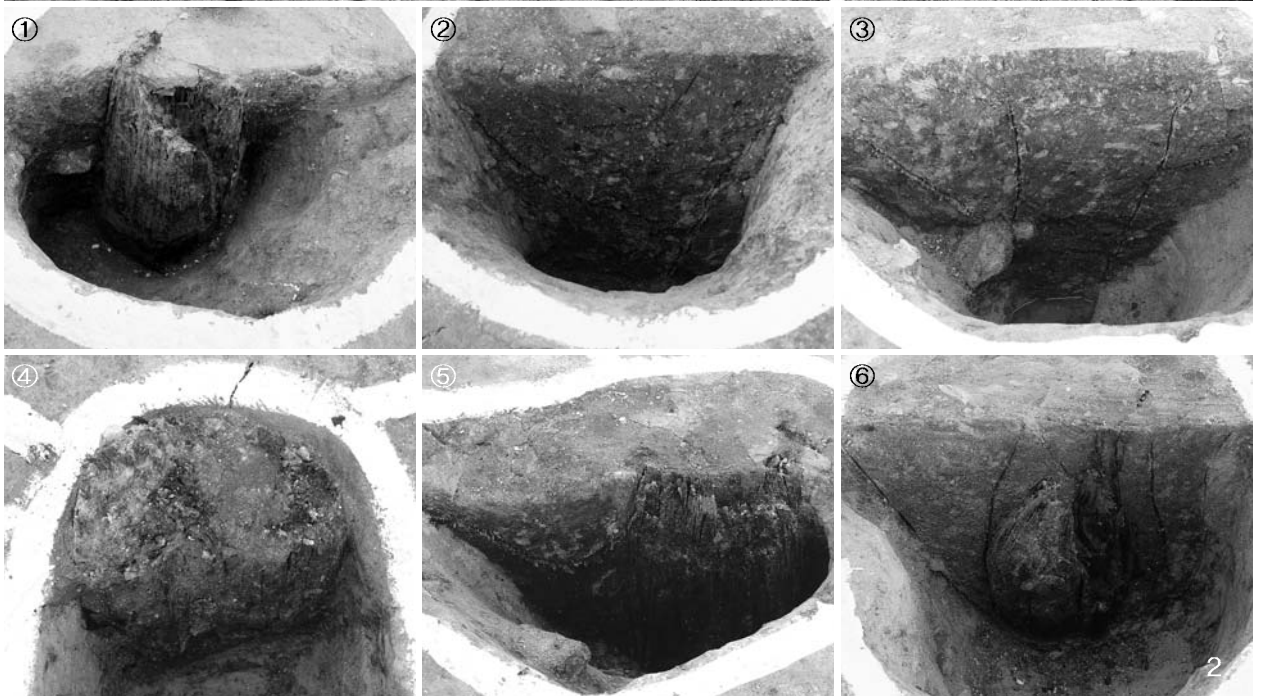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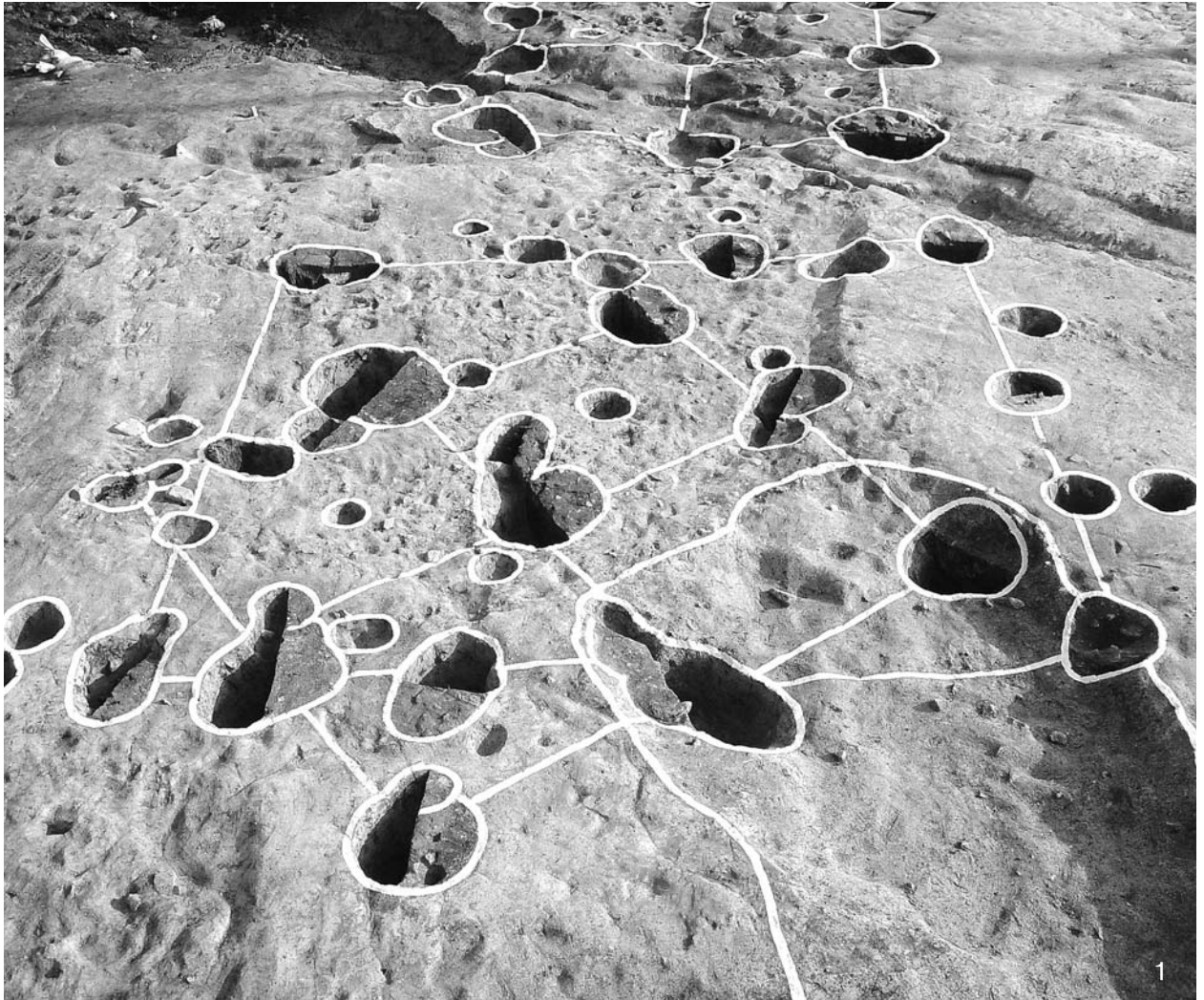
圖版 104. 65호 굴림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66호 굴림주건물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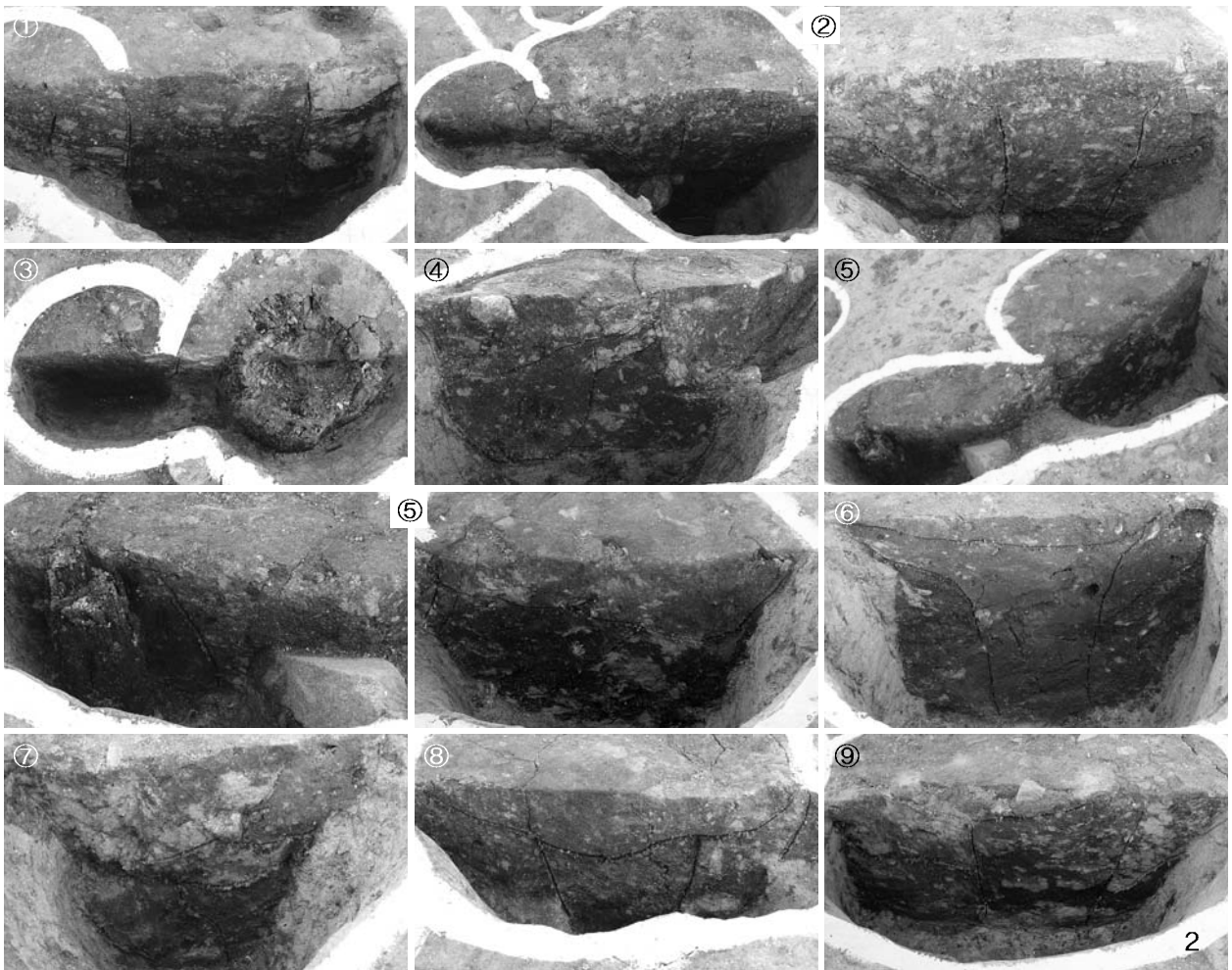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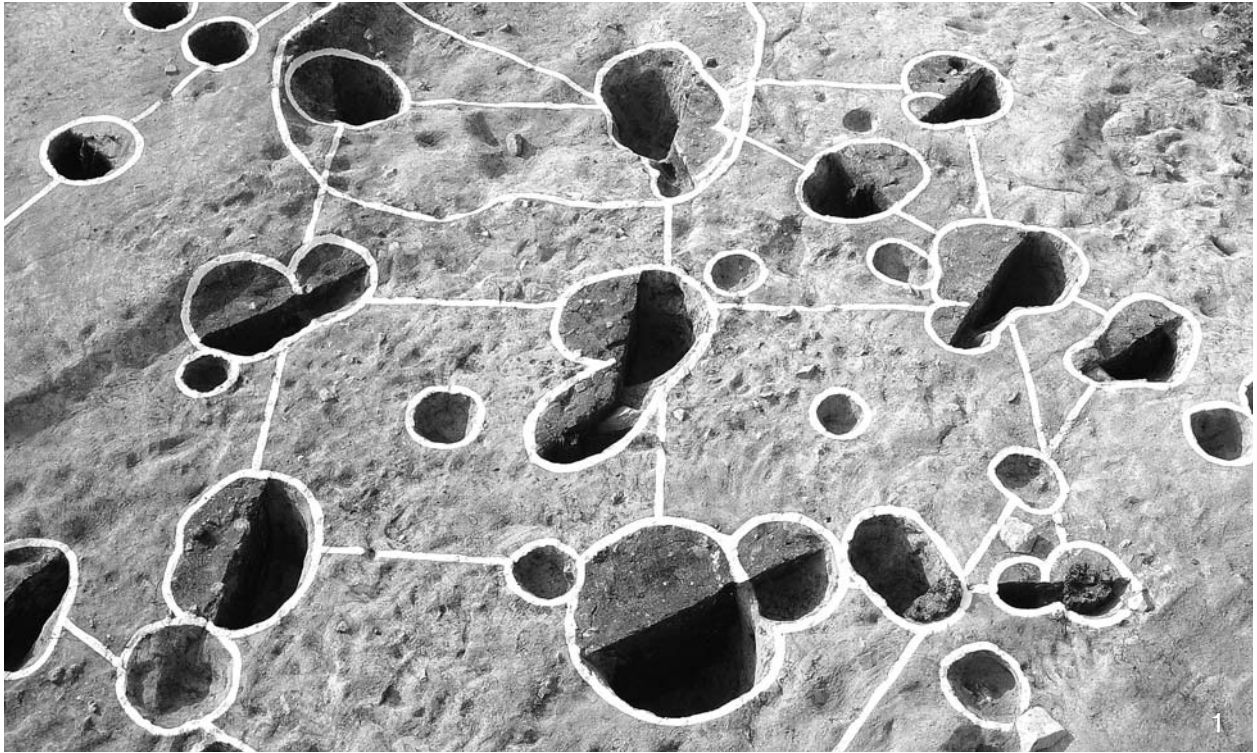
圖版 105. 66호 굴림주건물지(1), 67호 굴림주건물지 (2:전경, 3: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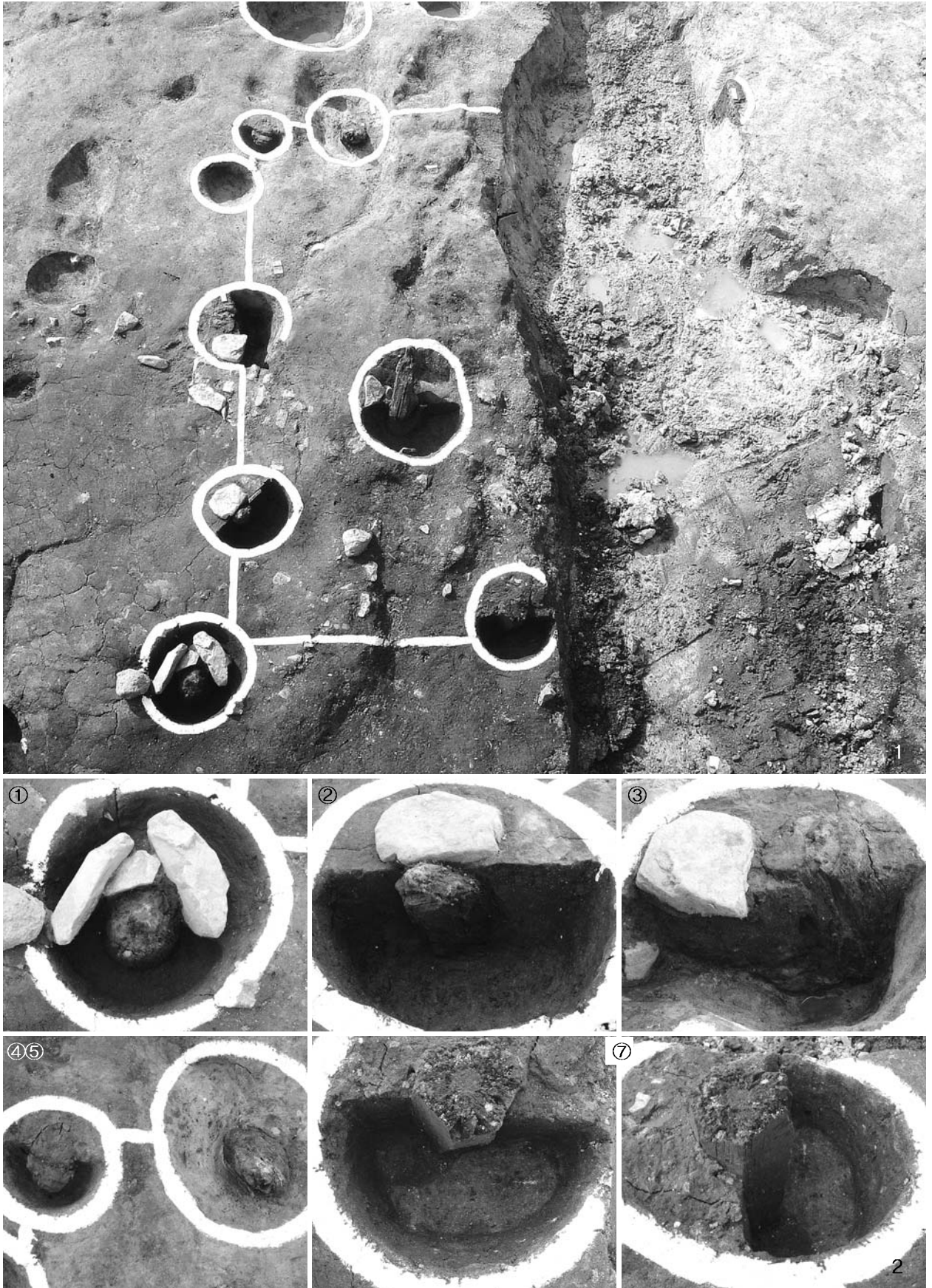
圖版 106. 68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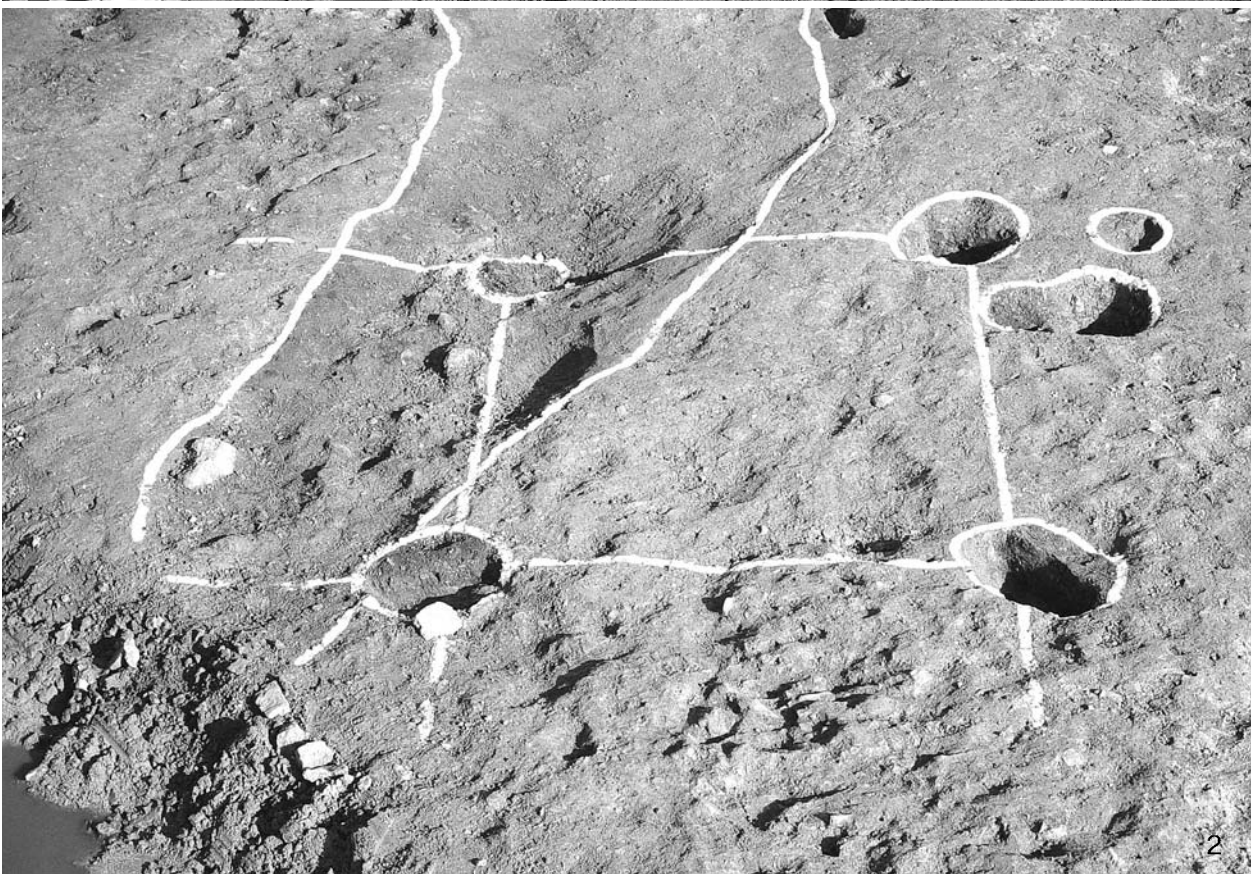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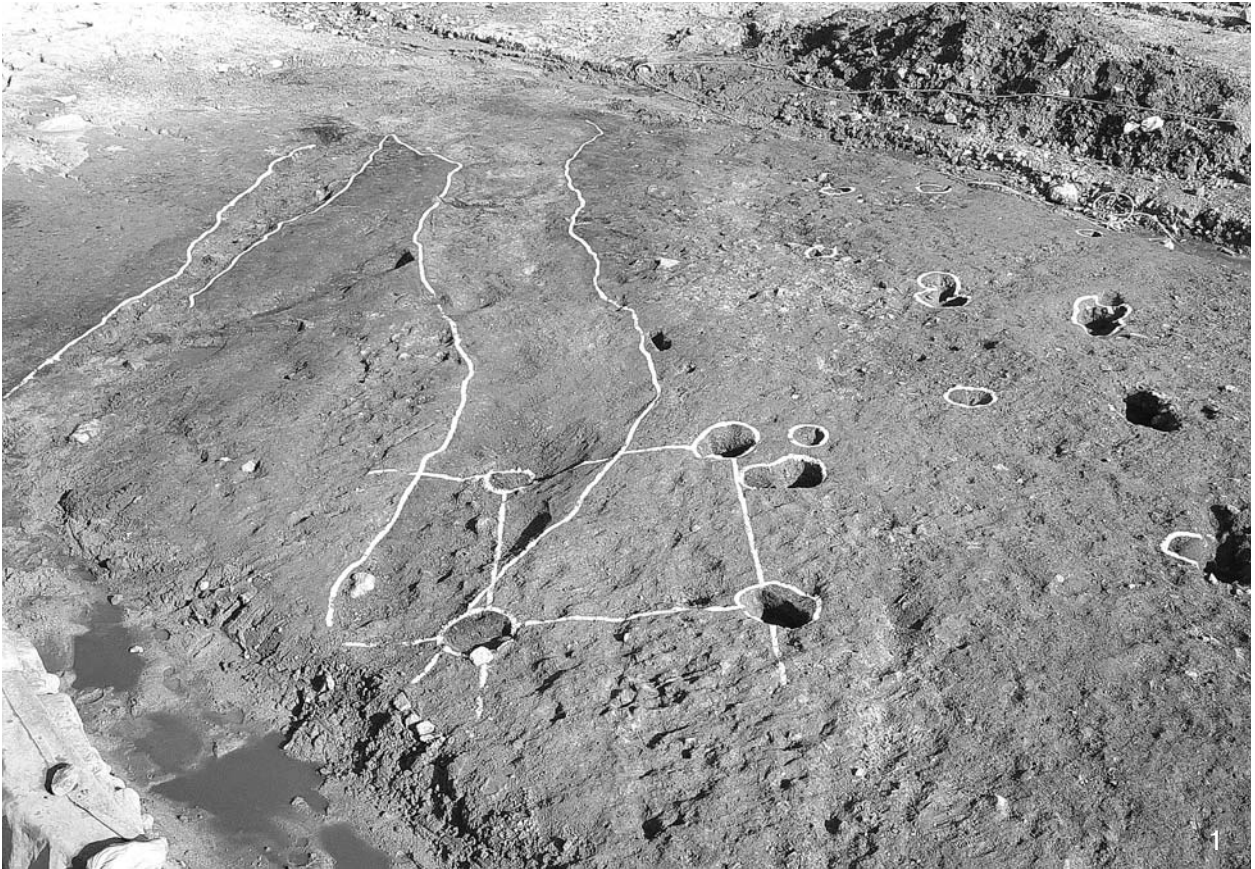
圖版 107. 69·70호 굴림주건물지(1), 69호 굴림주건물지 주혈토층(2)



圖版 108. 70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토층)



圖版 109. 71호 굴립주건물지 (1:전경, 2:주혈세부)



圖版 110. 72호 굴림주건물지 (1:구와의 중복관계, 2:전경)



圖版 111. 1호 기둥구멍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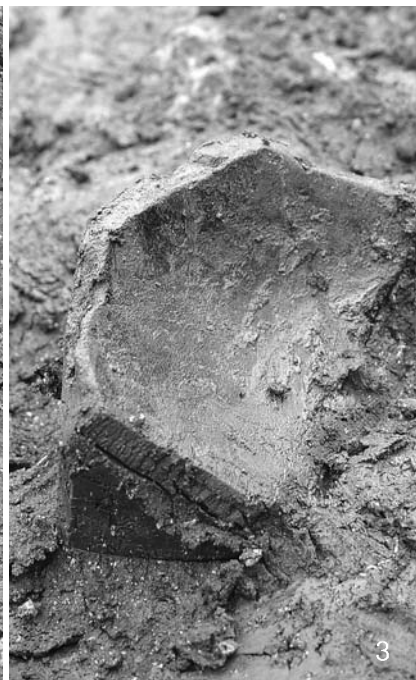
圖版 112. 2호 기동구명군(1), 3호 기동구명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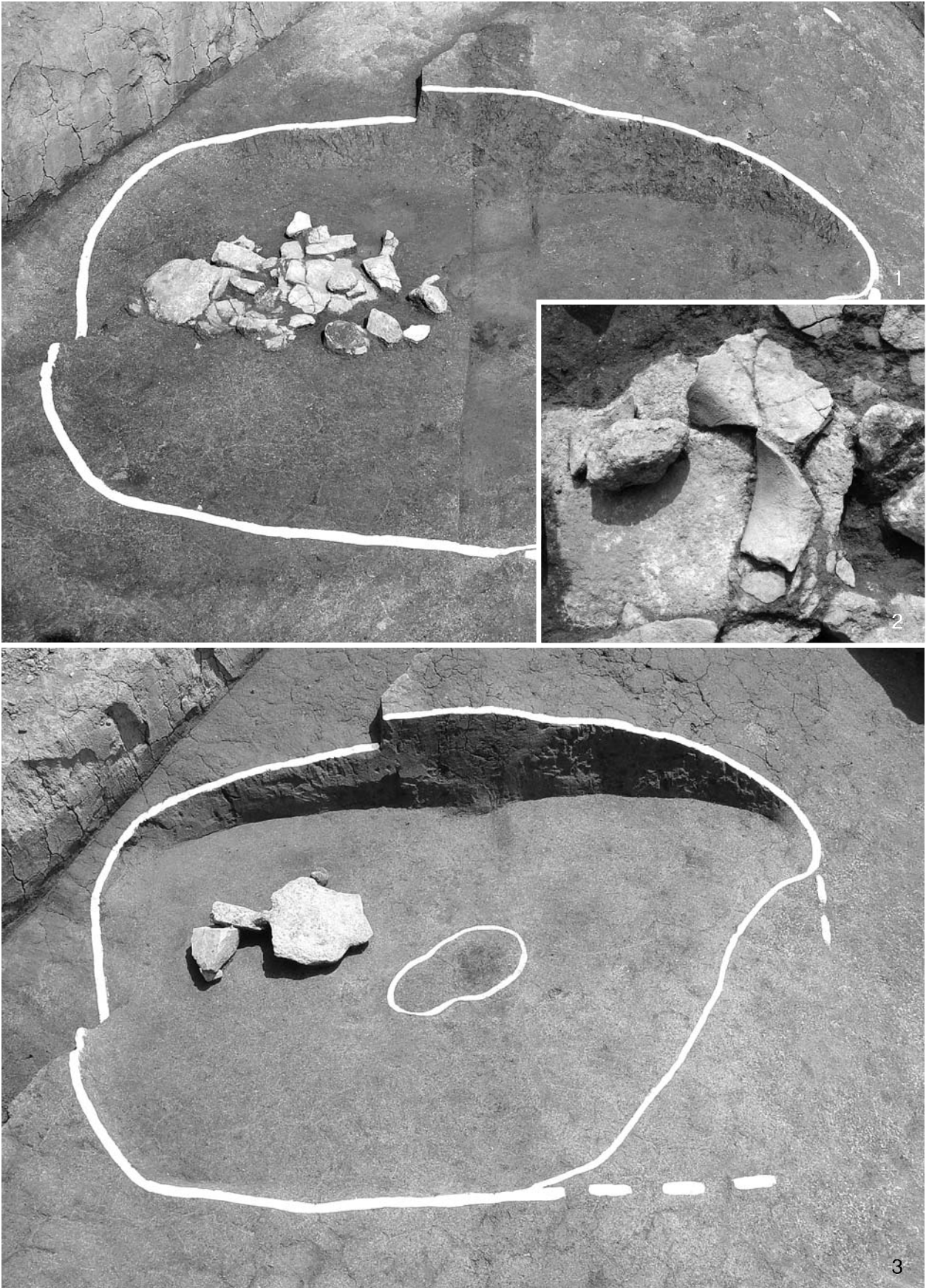
圖版 113. 저습지 전경



圖版 114. 저습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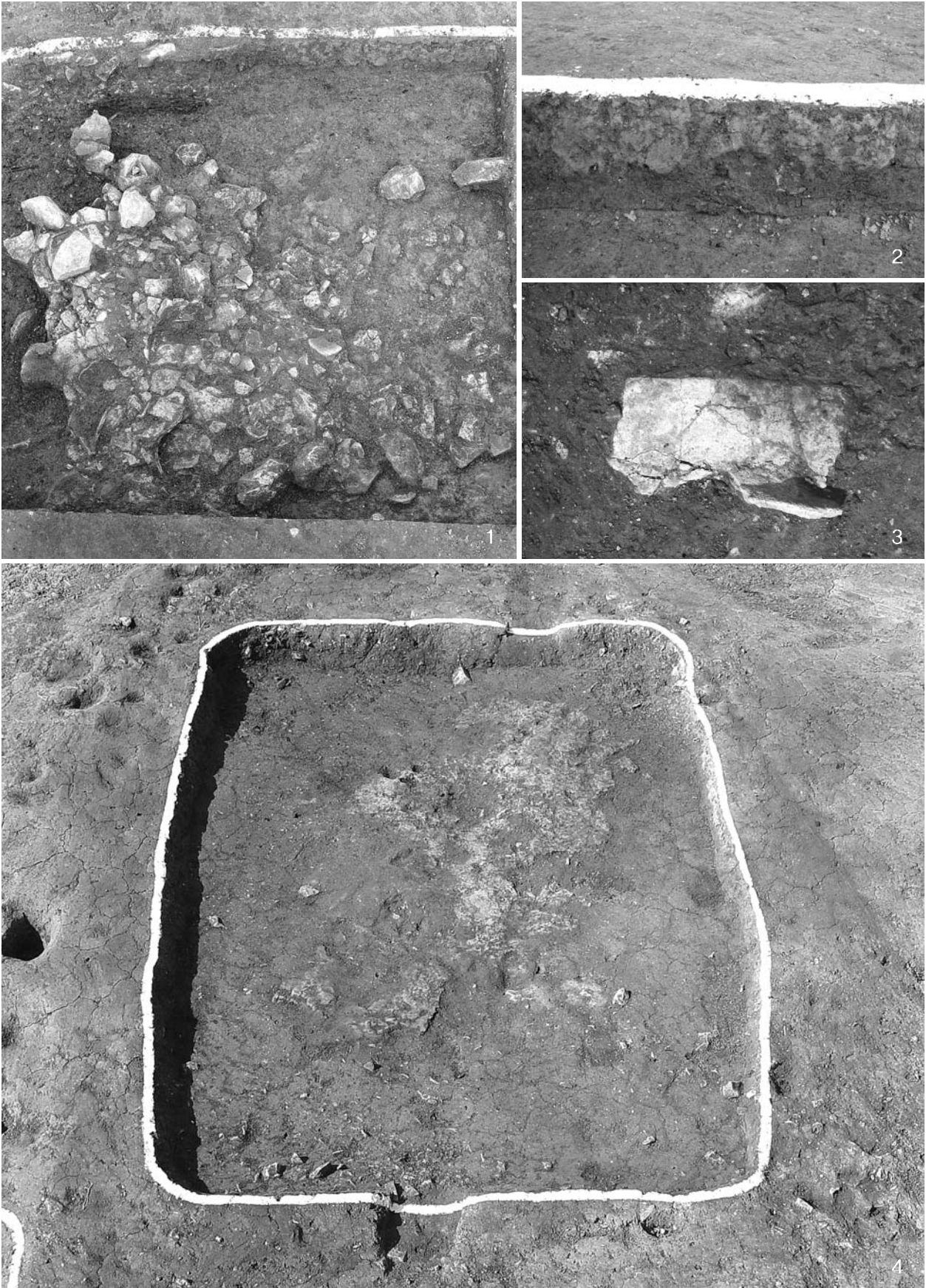
圖版 115. 저습지유물 세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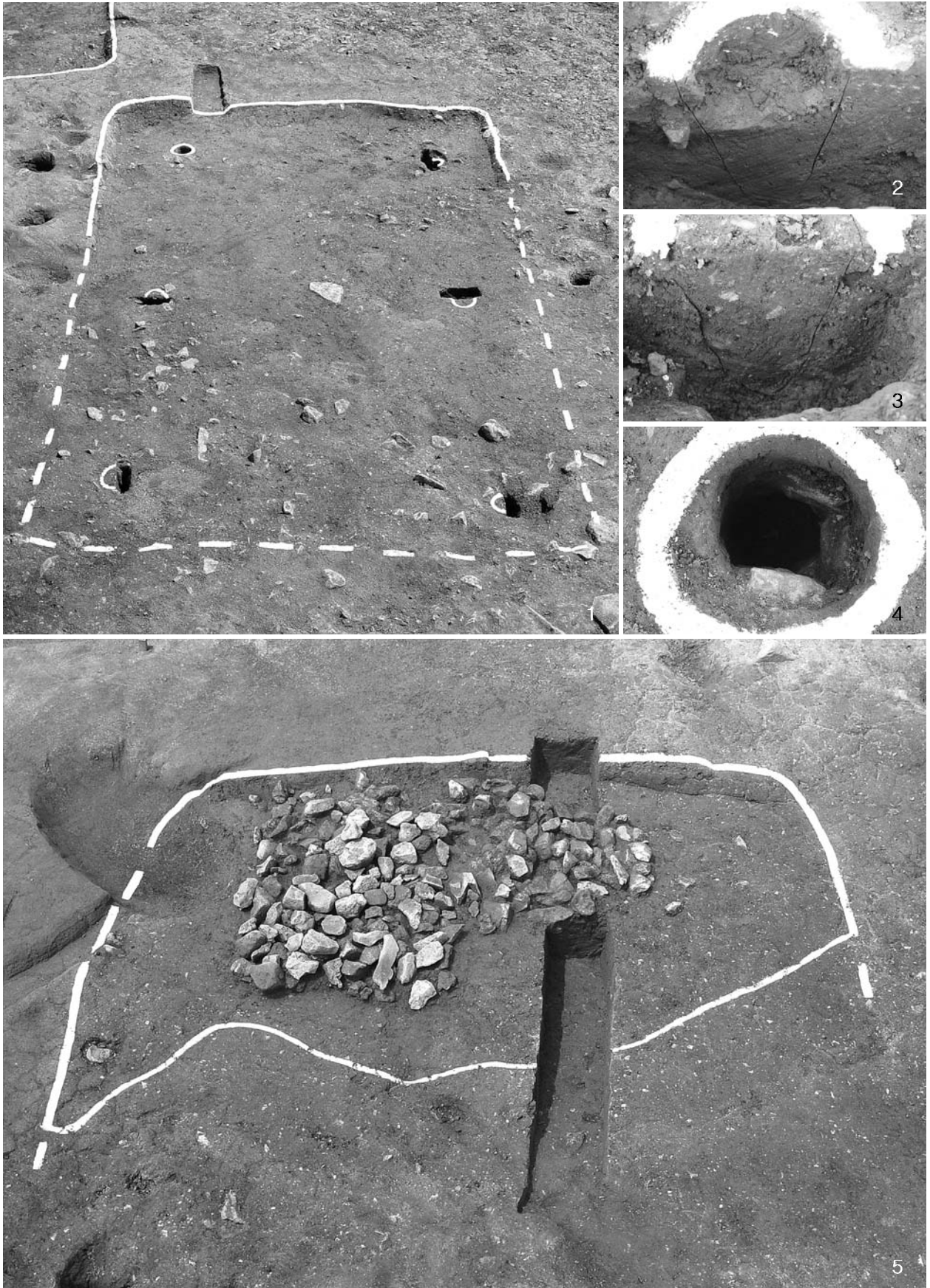
圖版 116. 1호 주거지 (1:조사전전경, 2:유물노출상태, 3:조사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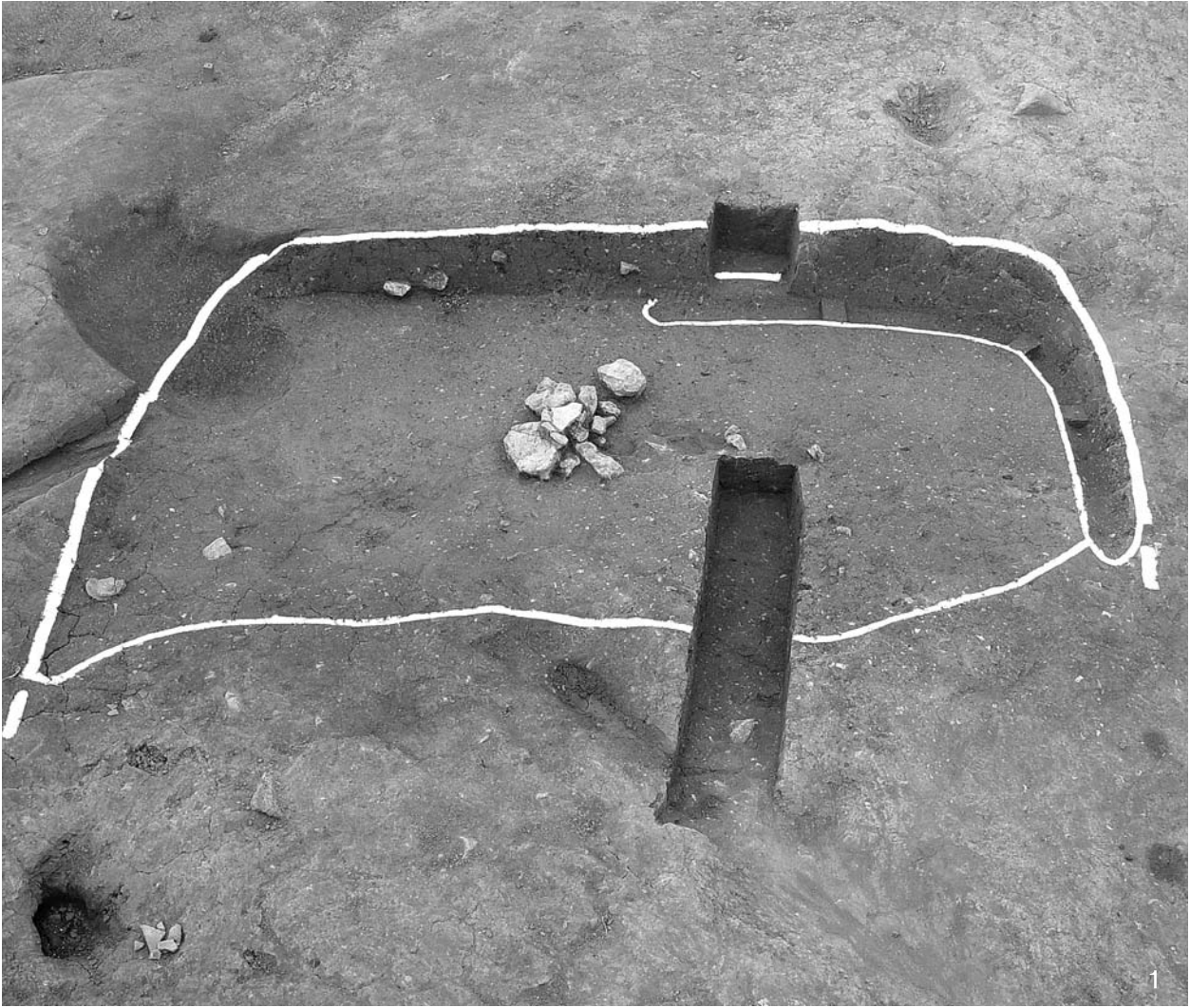
圖版 117. 2호 주거지 (1:조사후전경, 2·4:유물노출상태, 3: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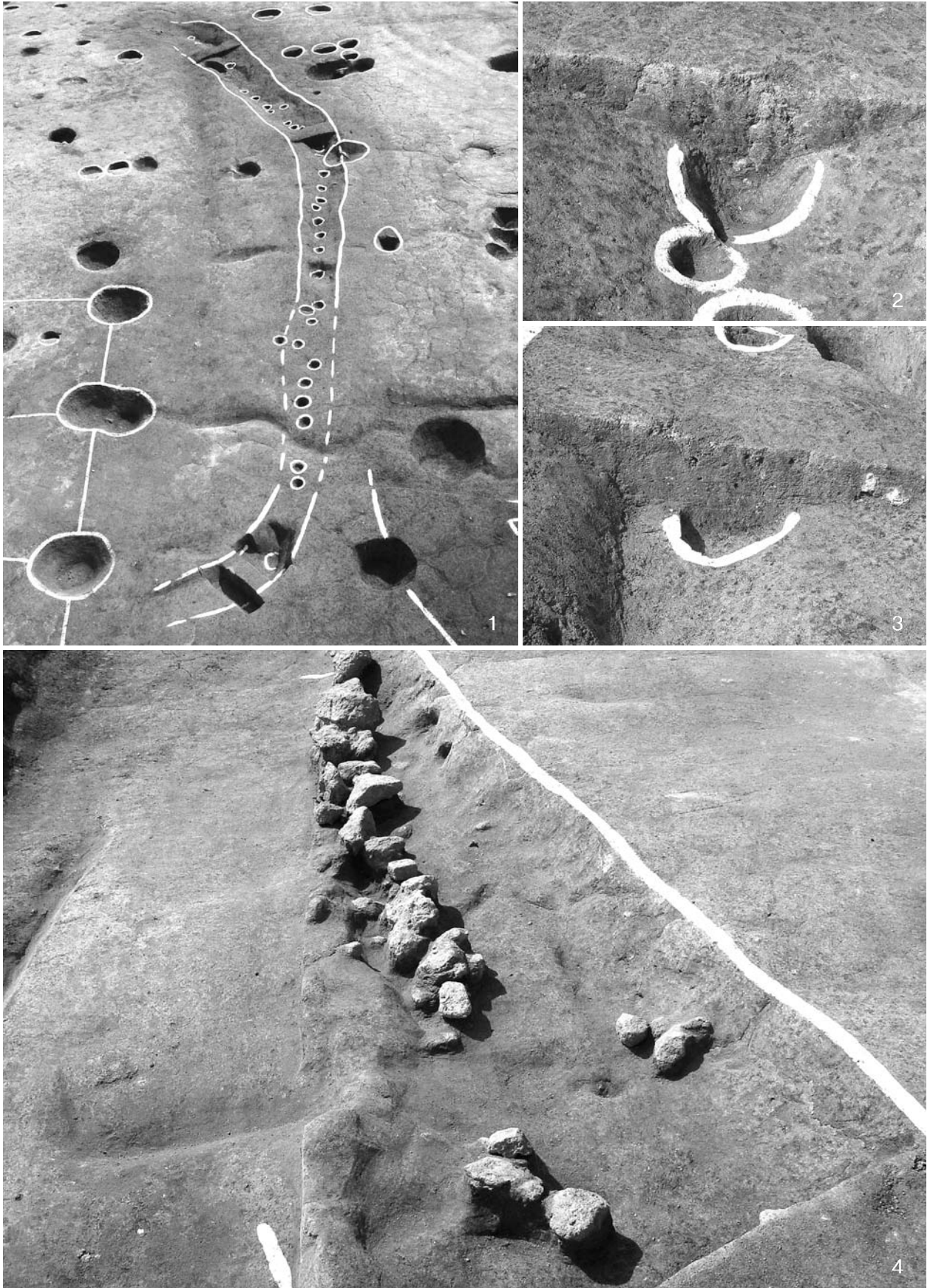
圖版 118. 3호 주거지 (1:집석노출상태, 2:벽체경화면, 3:유물노출상태, 4:조사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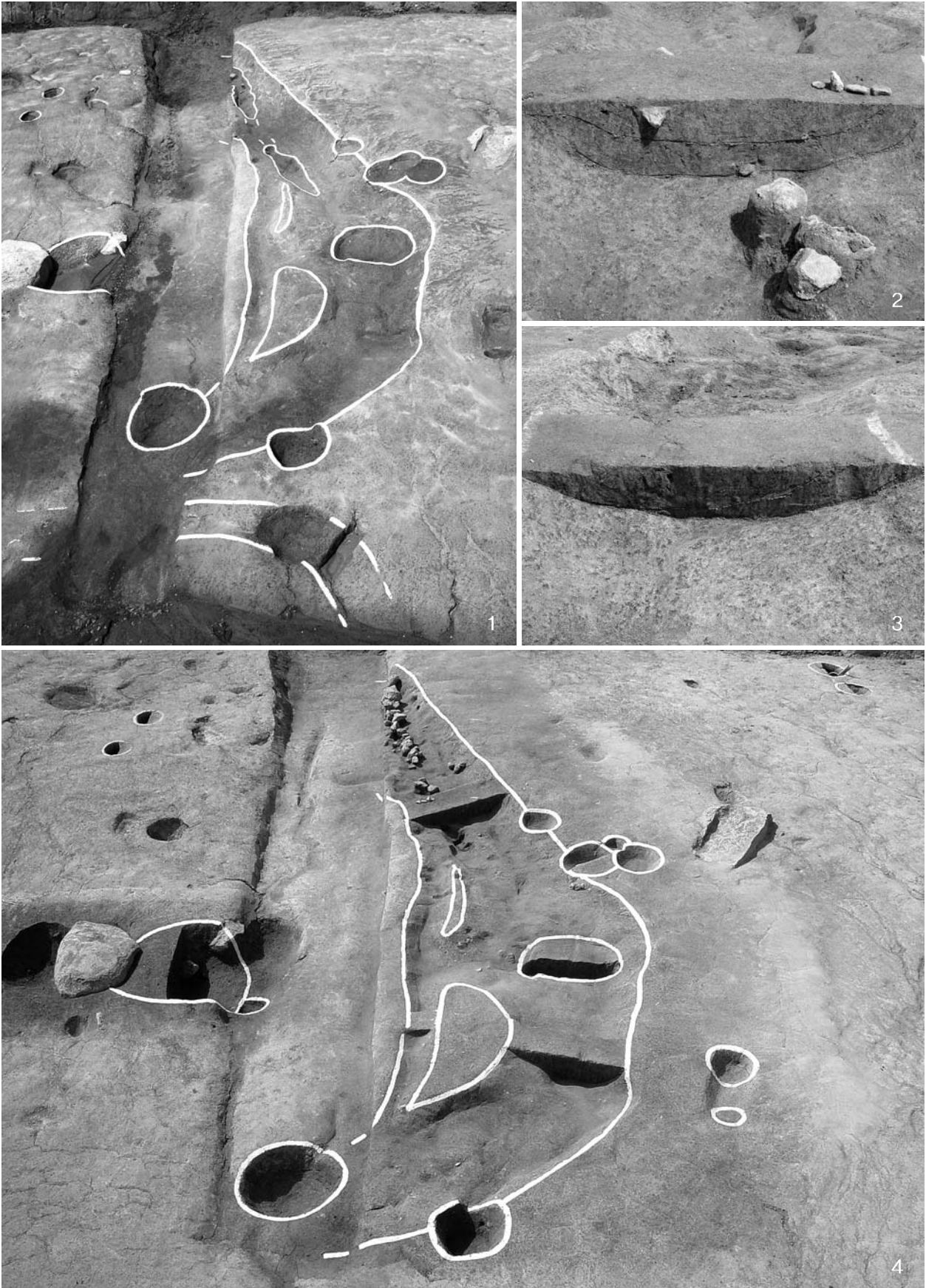
圖版 119. 4호 주거지 (1:조사후전경, 2~4:주혈토층), 5호 주거지 (5:집석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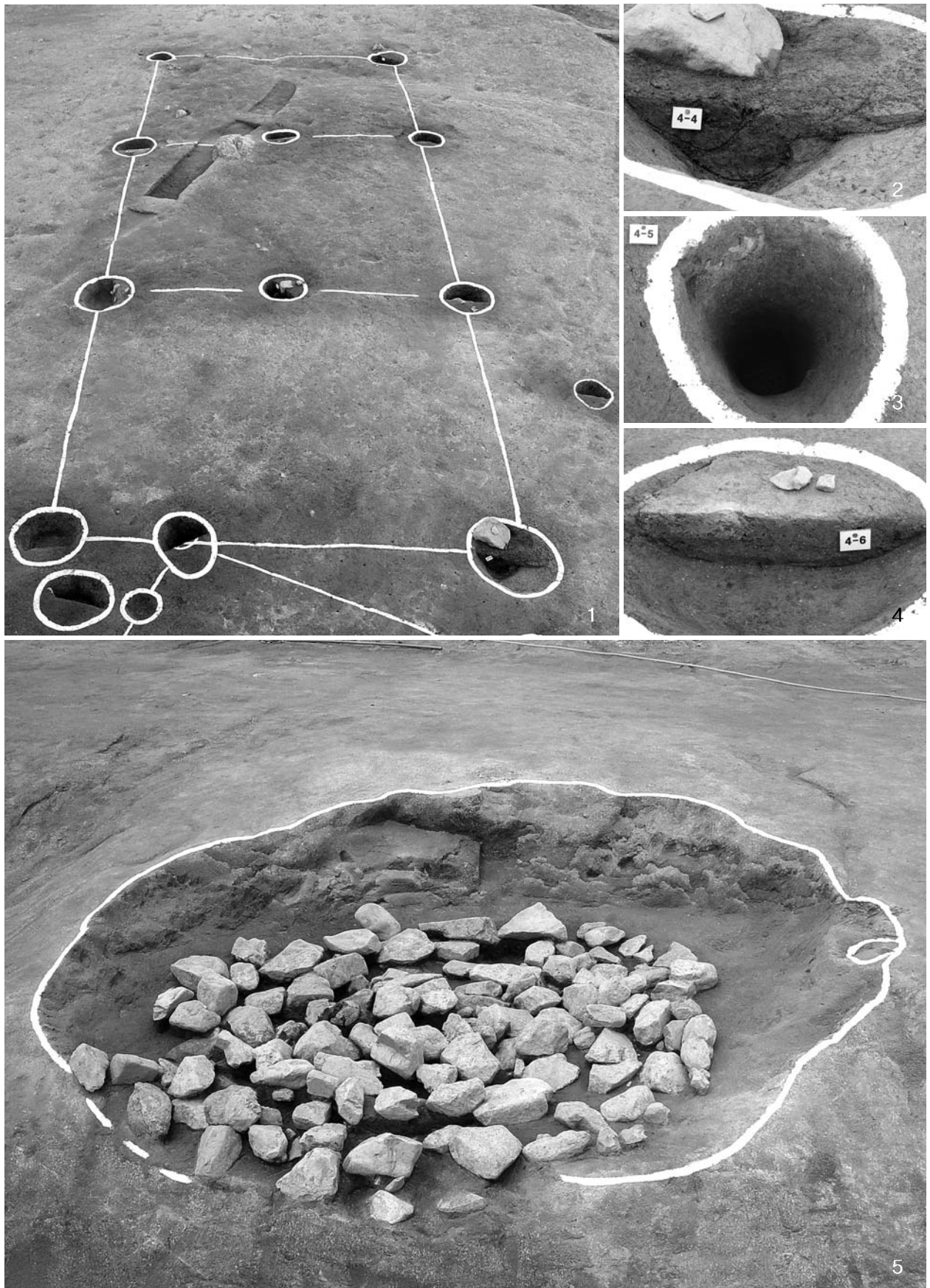
圖版 120. 5호 주거지 (1:조사후전경, 2~4:유물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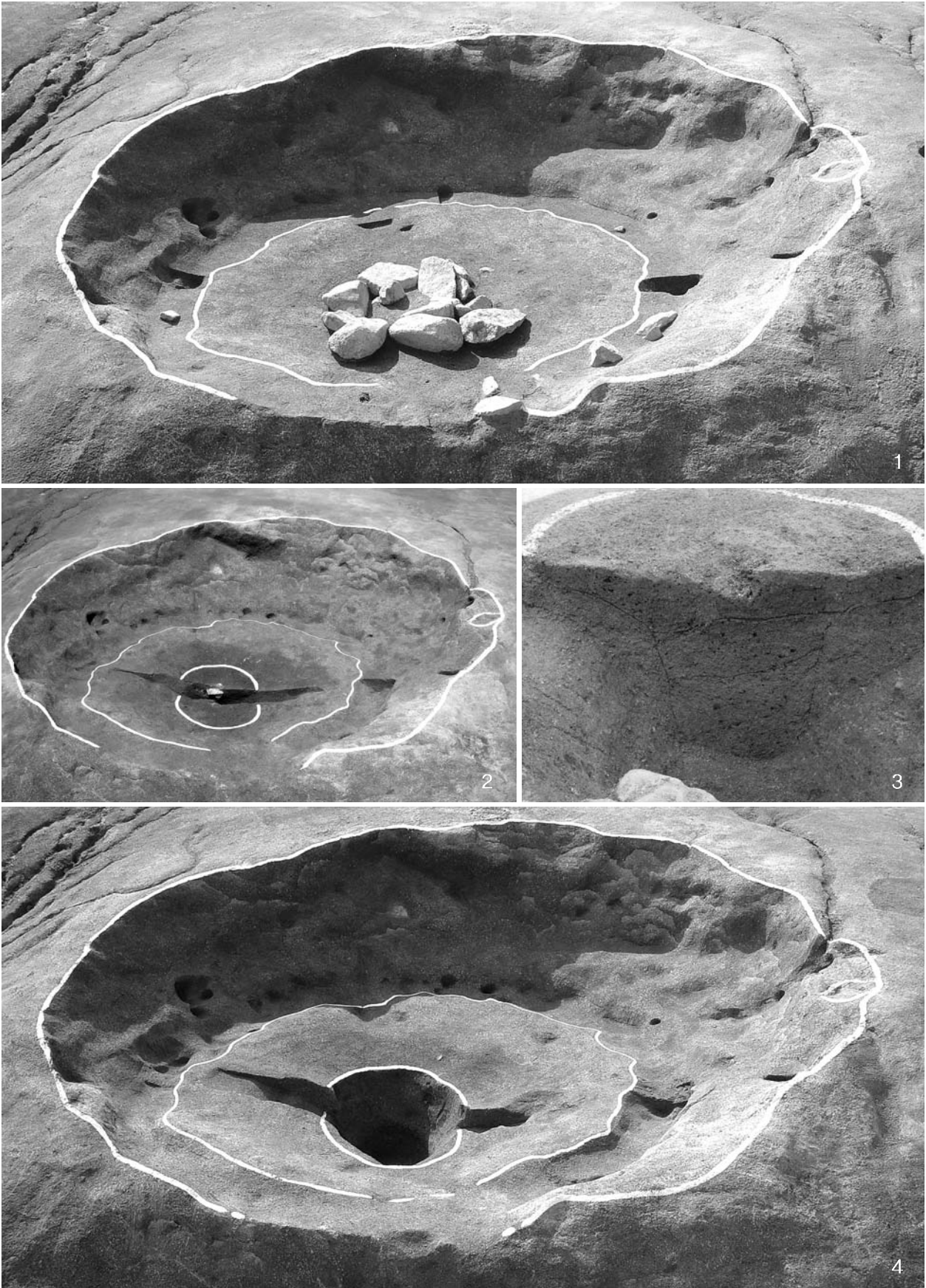
圖版 121. 1호 구상유구 (1:조사후전경, 2·3:토층), 2호 구상유구(4:상부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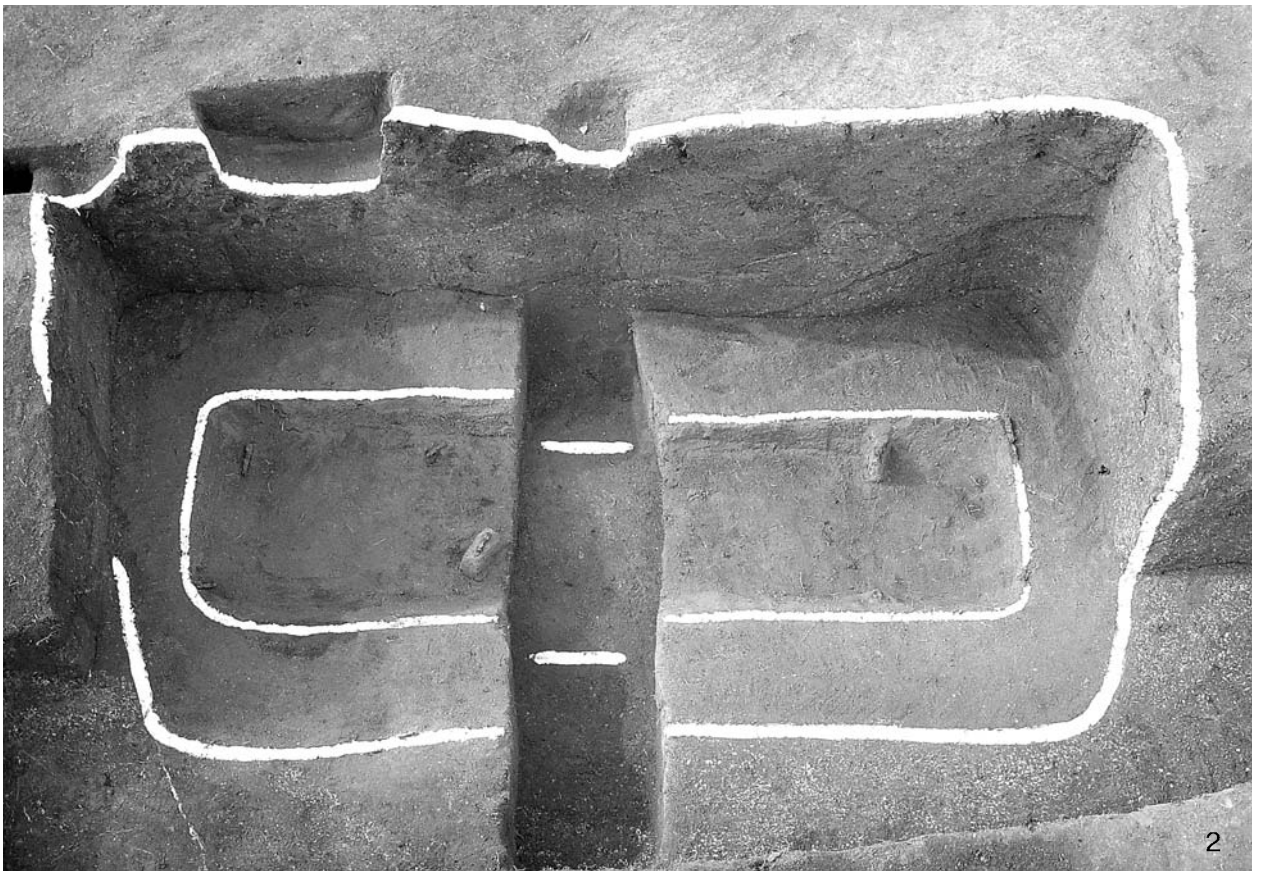
圖版 122. 2호 구상유구 (1:조사후전경, 2·3:토층, 4:집석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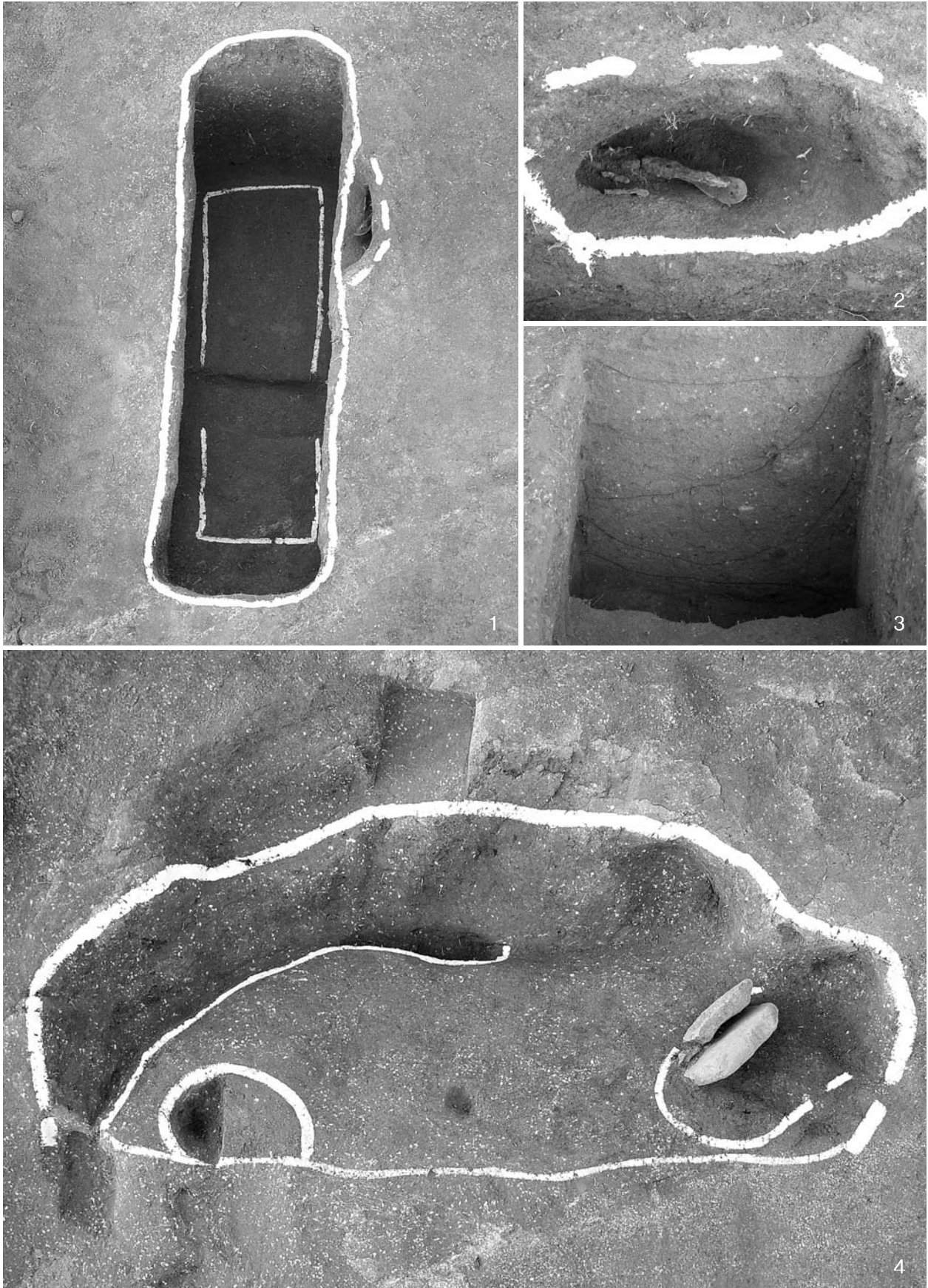
圖版 123. 1호 고려시대건물지 (1:전경, 2~4:주혈세부), 1호 수혈 (5:집석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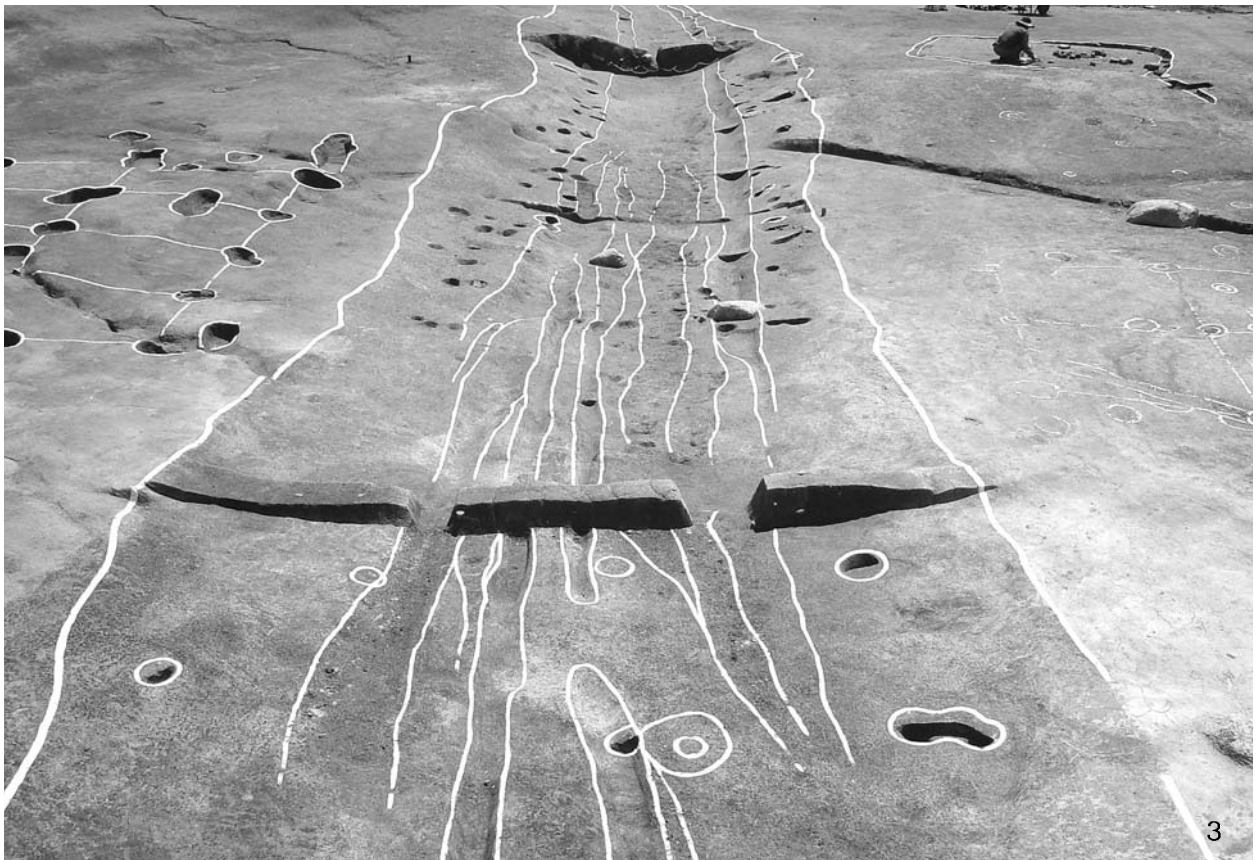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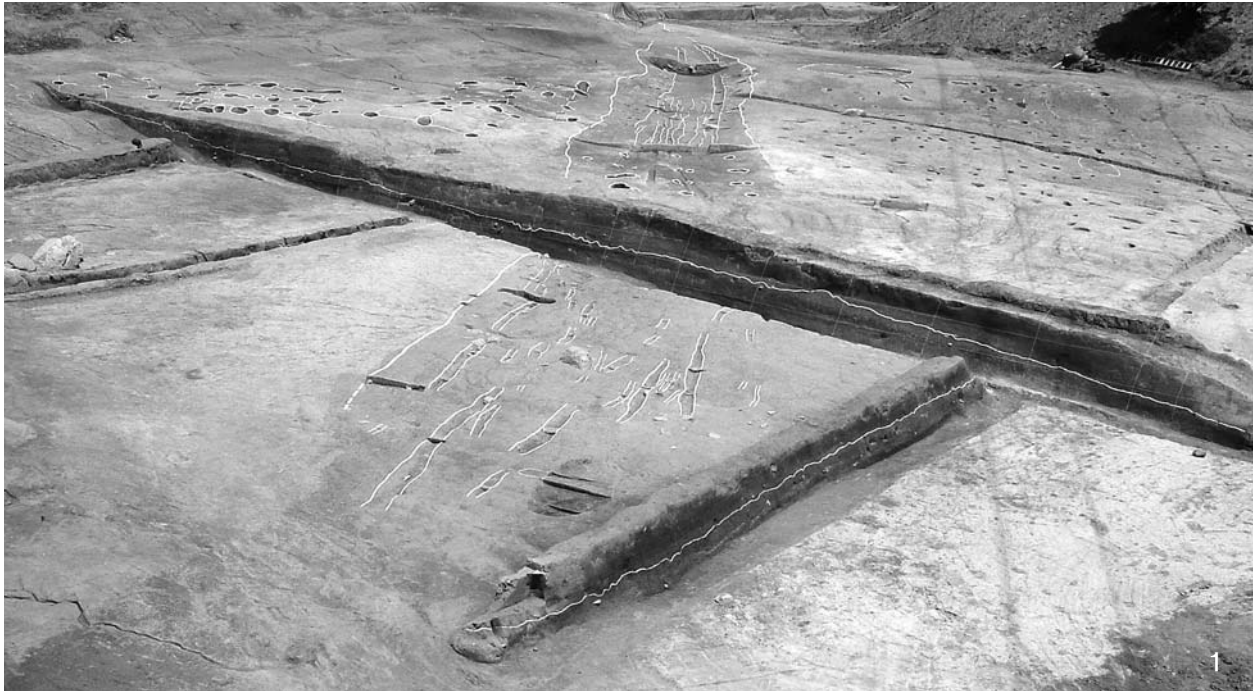
圖版 124. 1호 수혈 (1:하부집석 노출상태, 2:하부집석제거후전경, 3:중앙주혈토층, 4:조사후전경)



圖版 125. 2호 수혈 (1:전경), 1호 묘 (2: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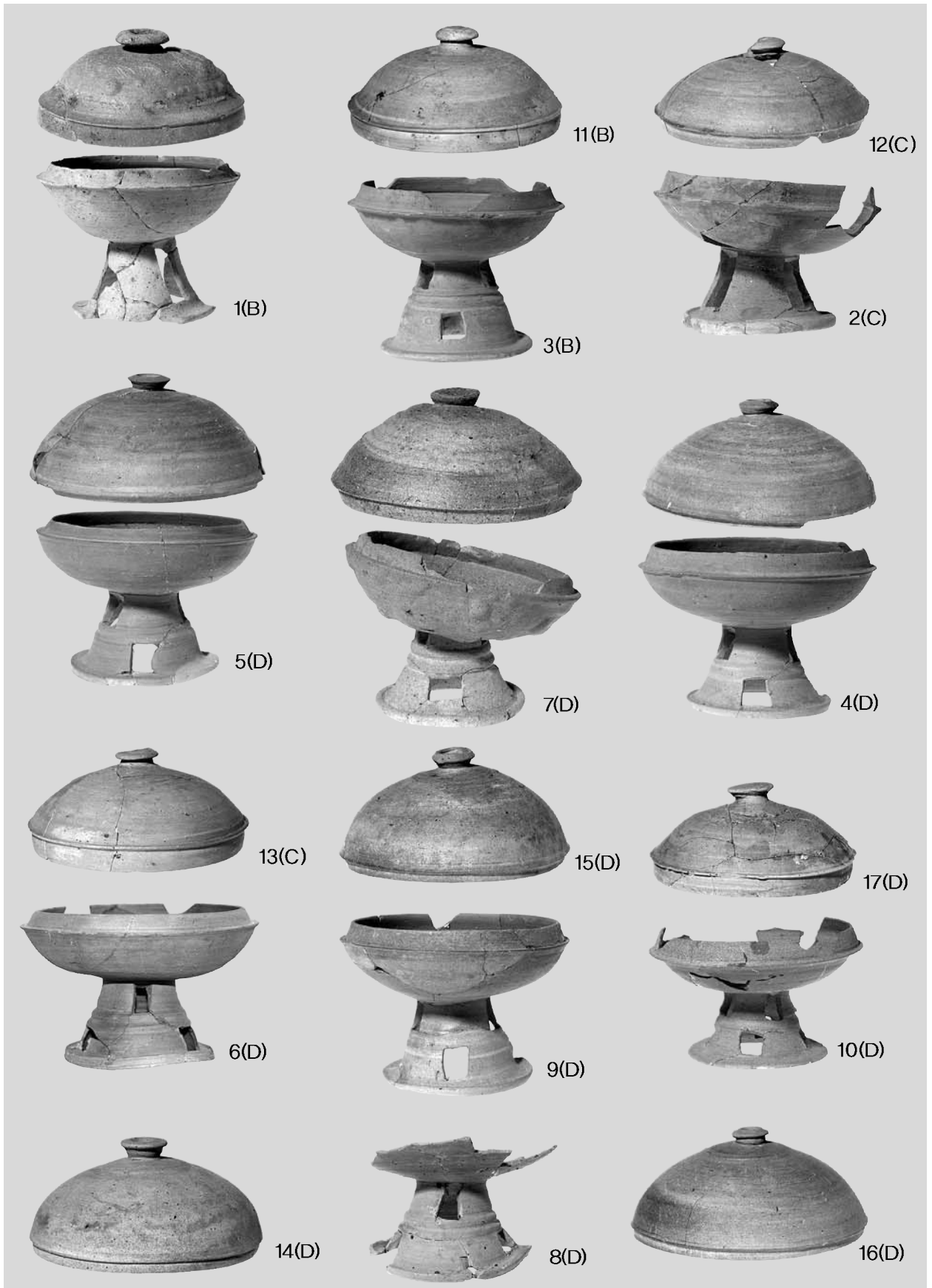


圖版 126. 2호 묘 (1:전경, 2:유물노출상태 3:토층, 1호 묘막지 (4: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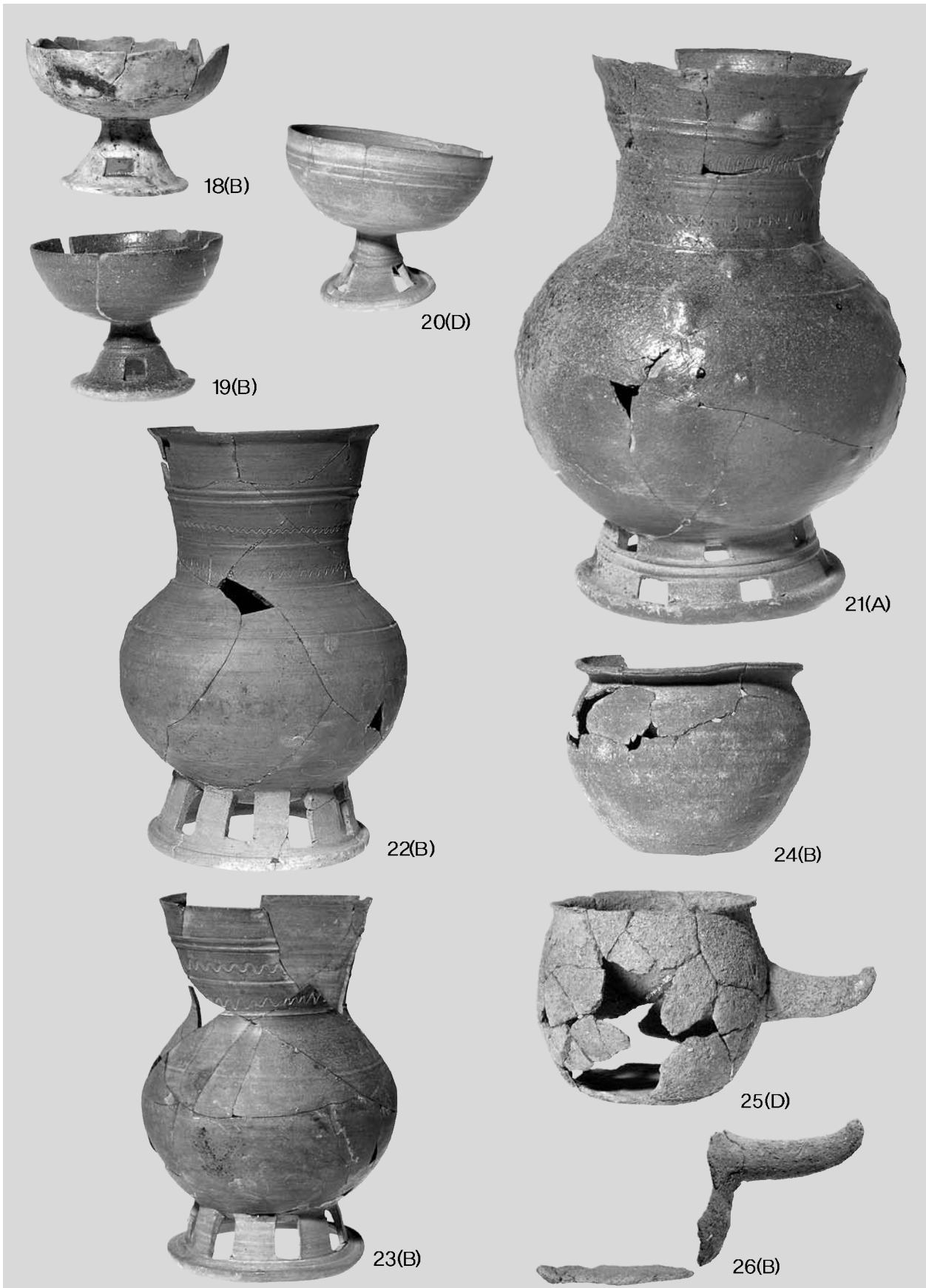


圖版 127. 1호 구 (1:전경, 2:토층, 3:굴착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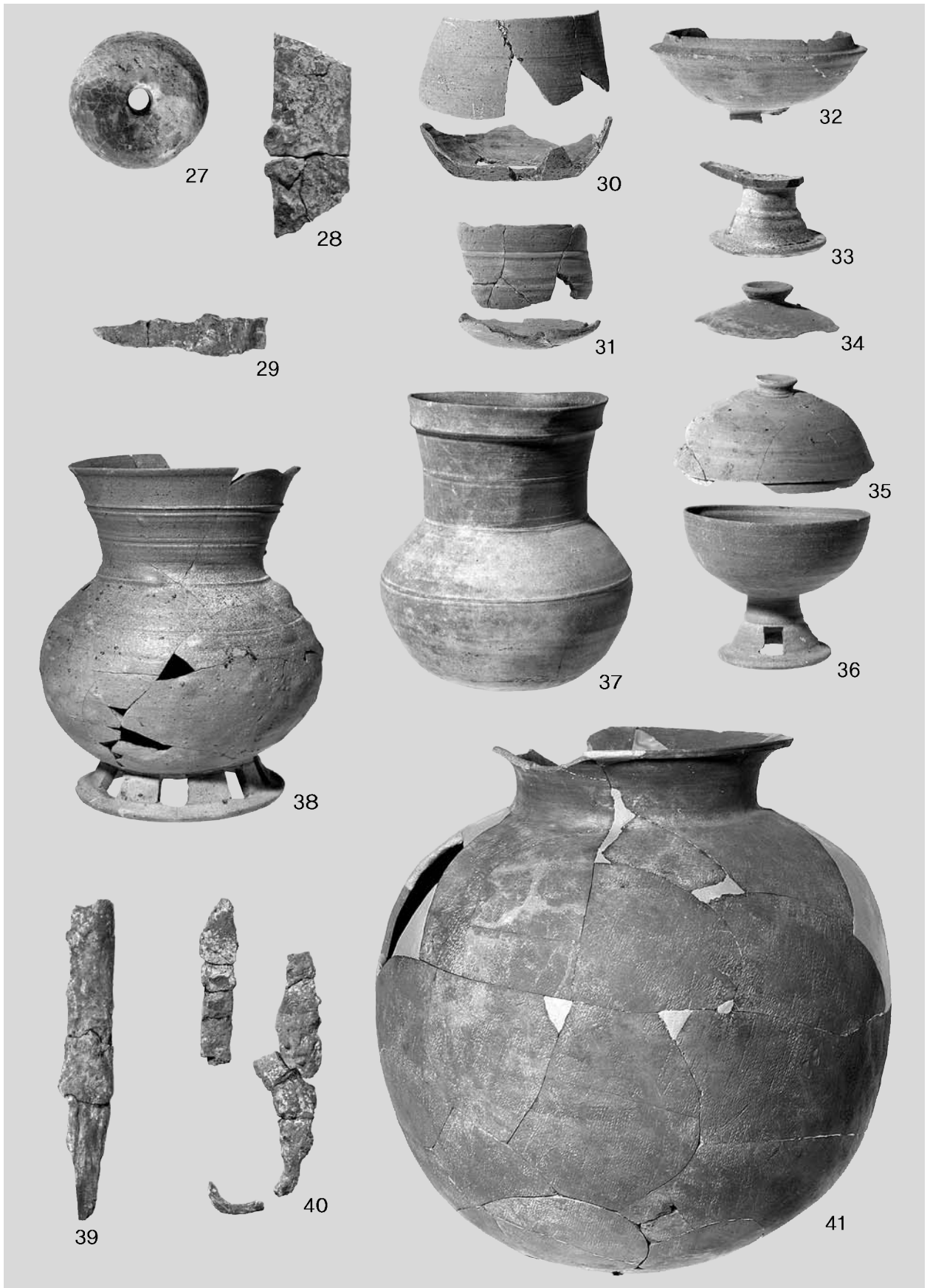
圖 版 (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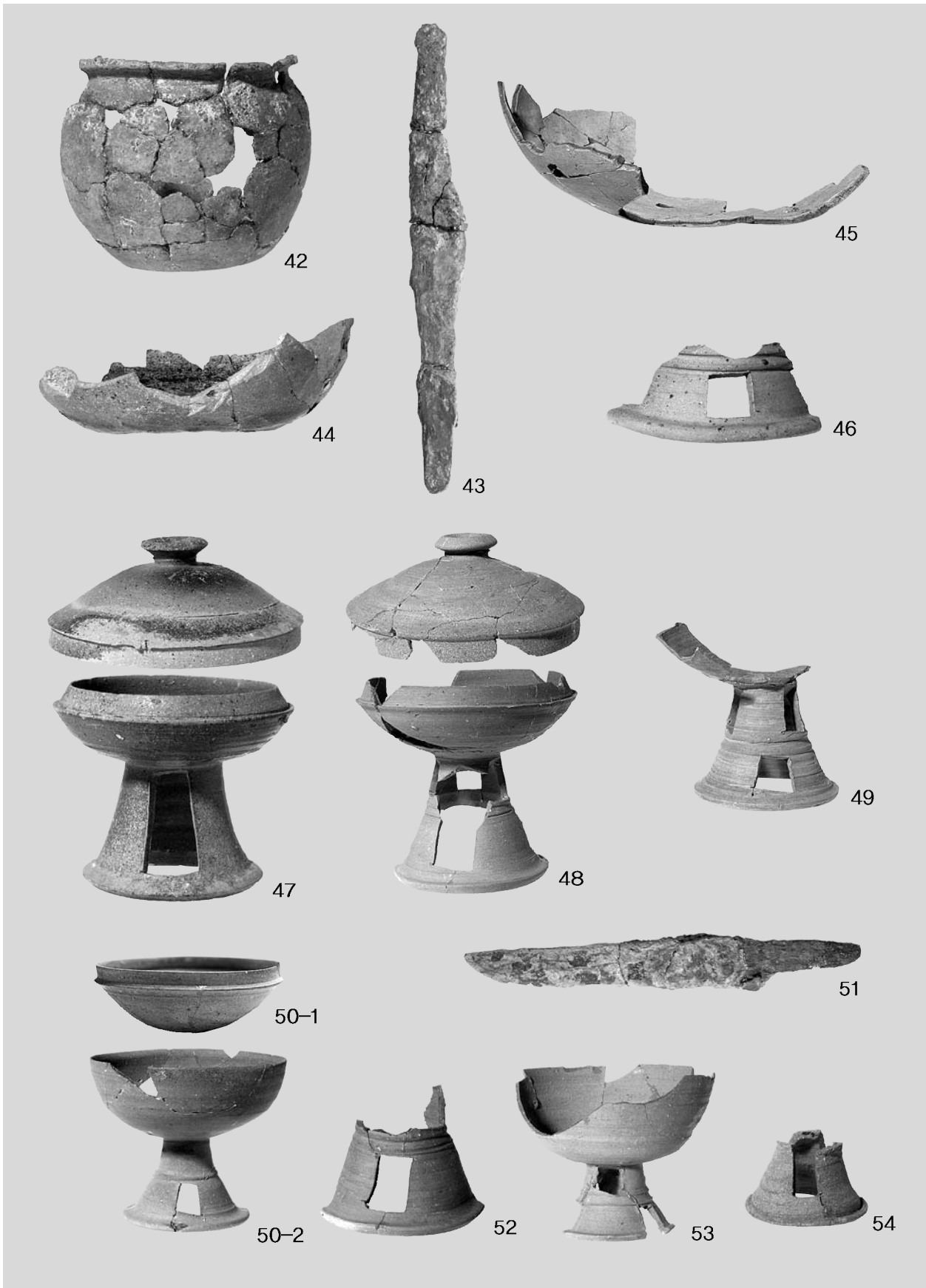
圖版 128. 1호 석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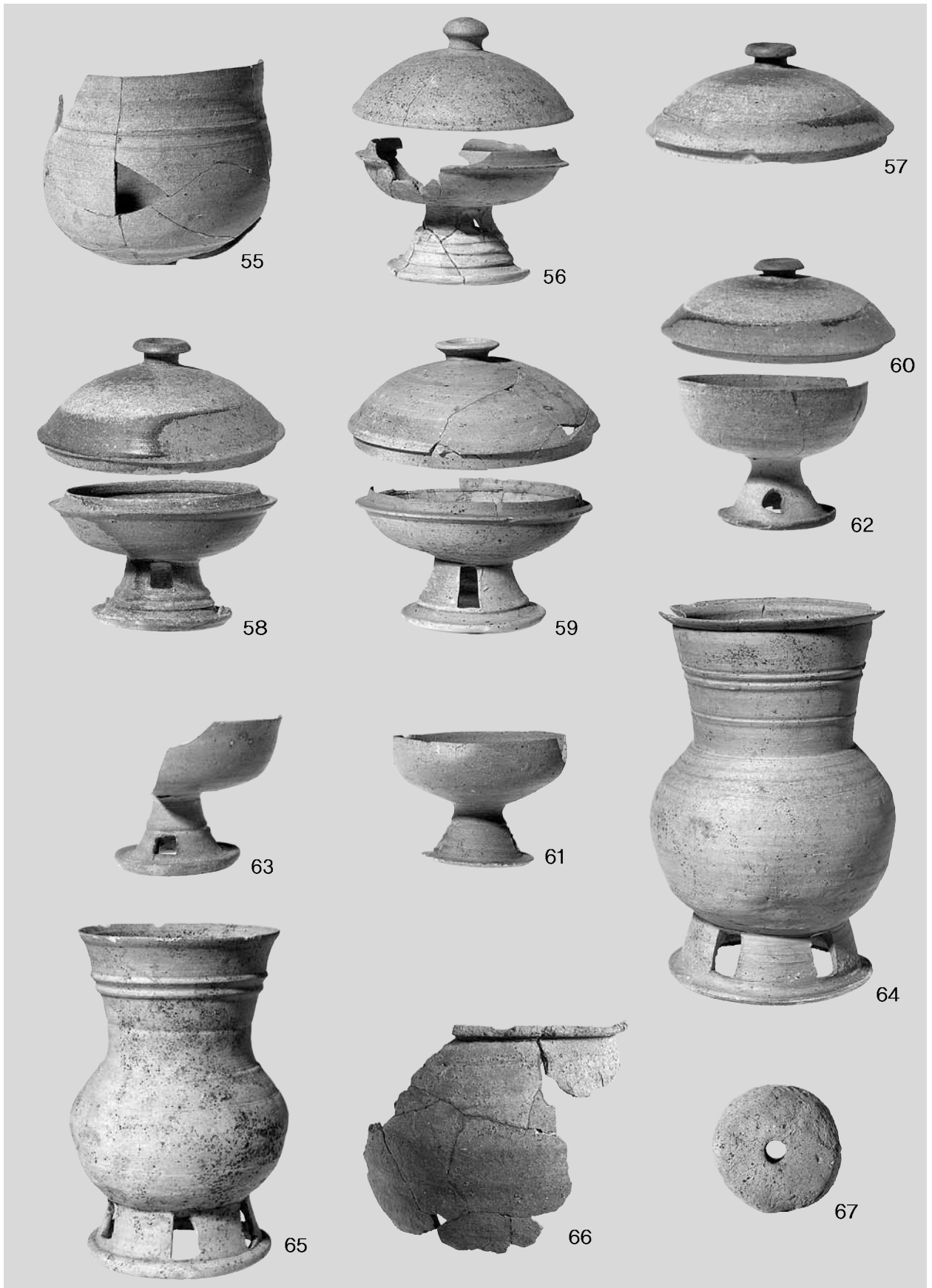
圖版 129. 1호 석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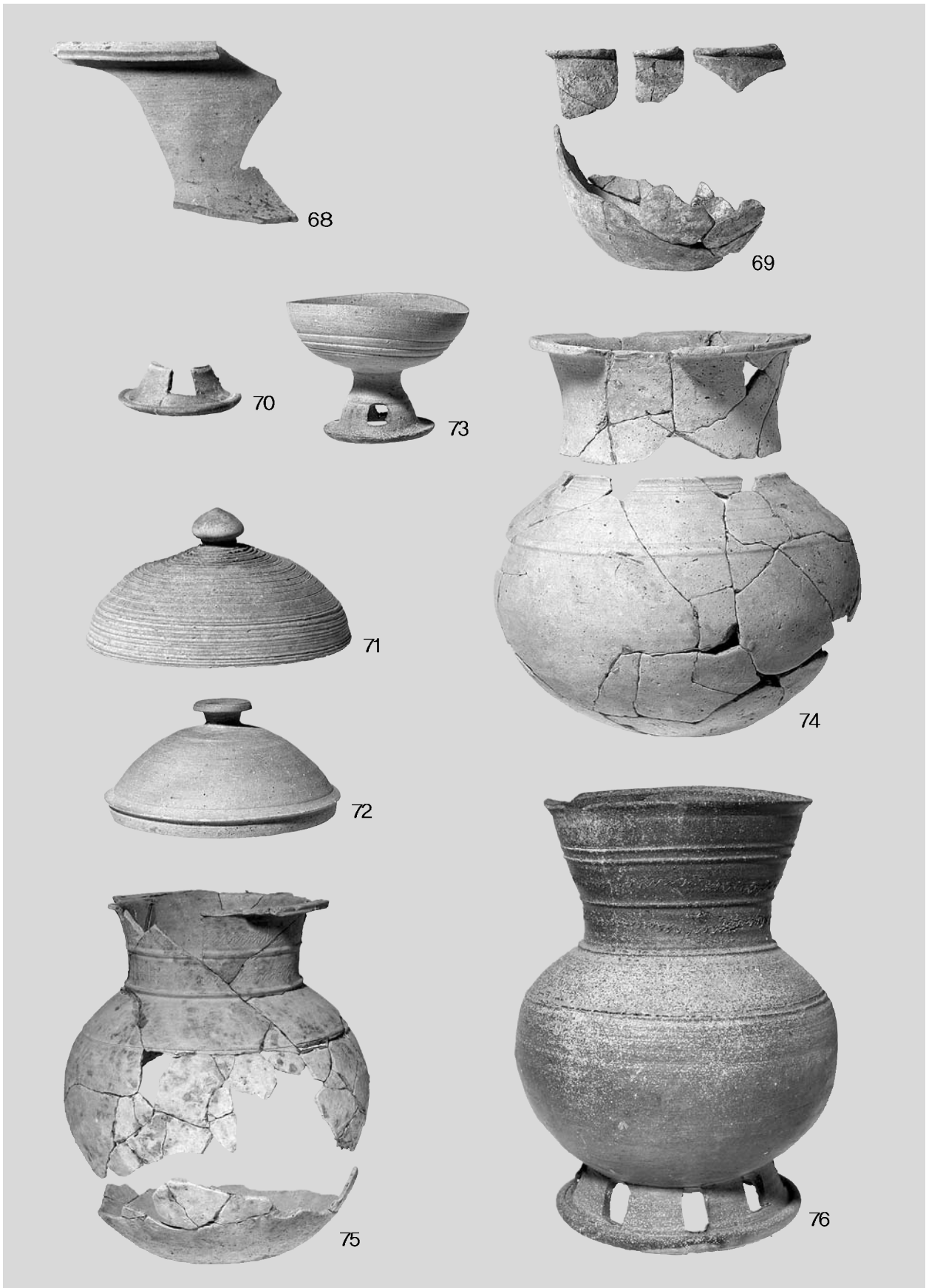
圖版 130. 1호 석실(27~34), 2호 석실(35~41)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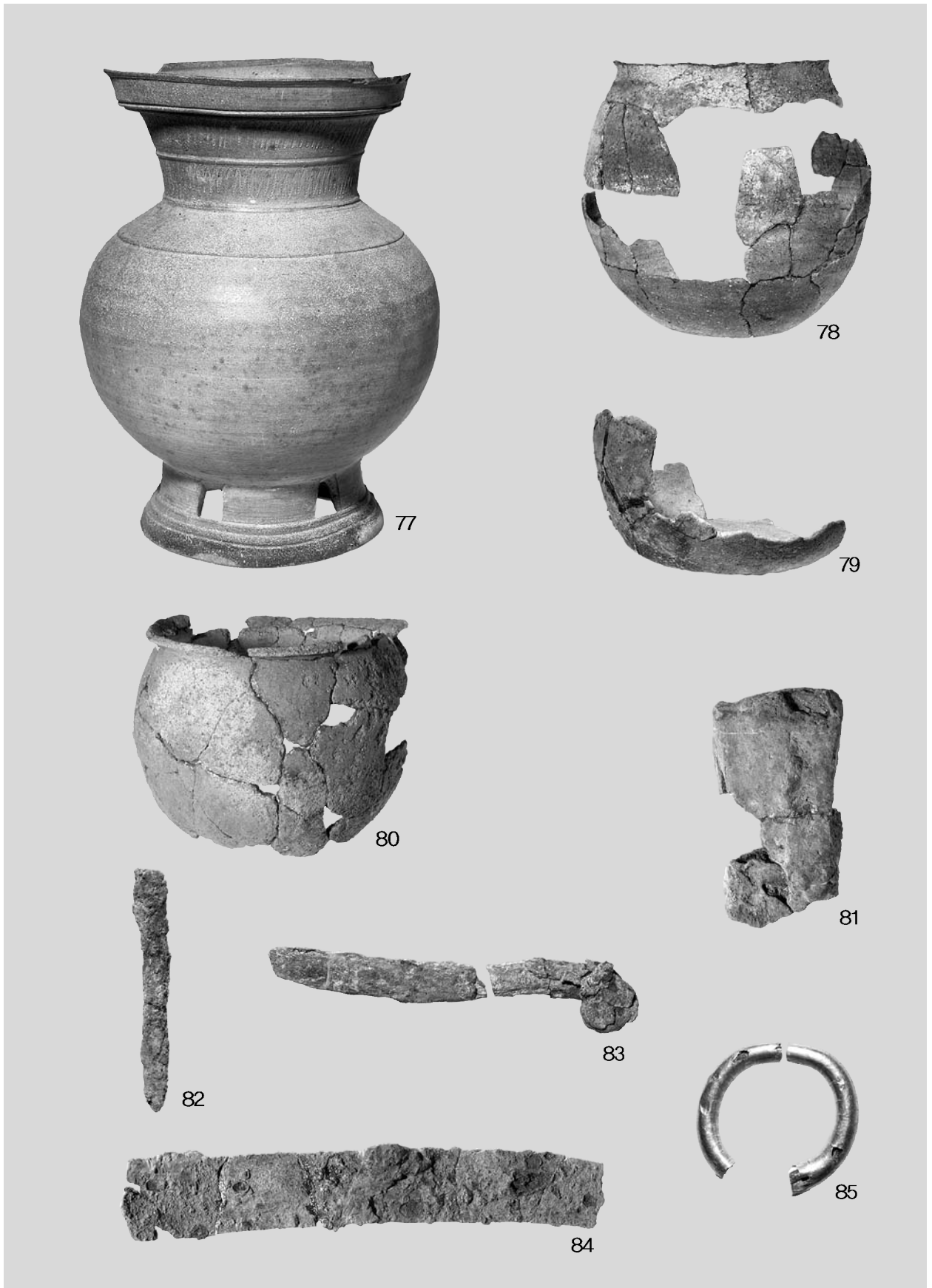
圖版 131. 3호 석실(42~44), 4호 석곽(45·45), 5호 석곽(47~54)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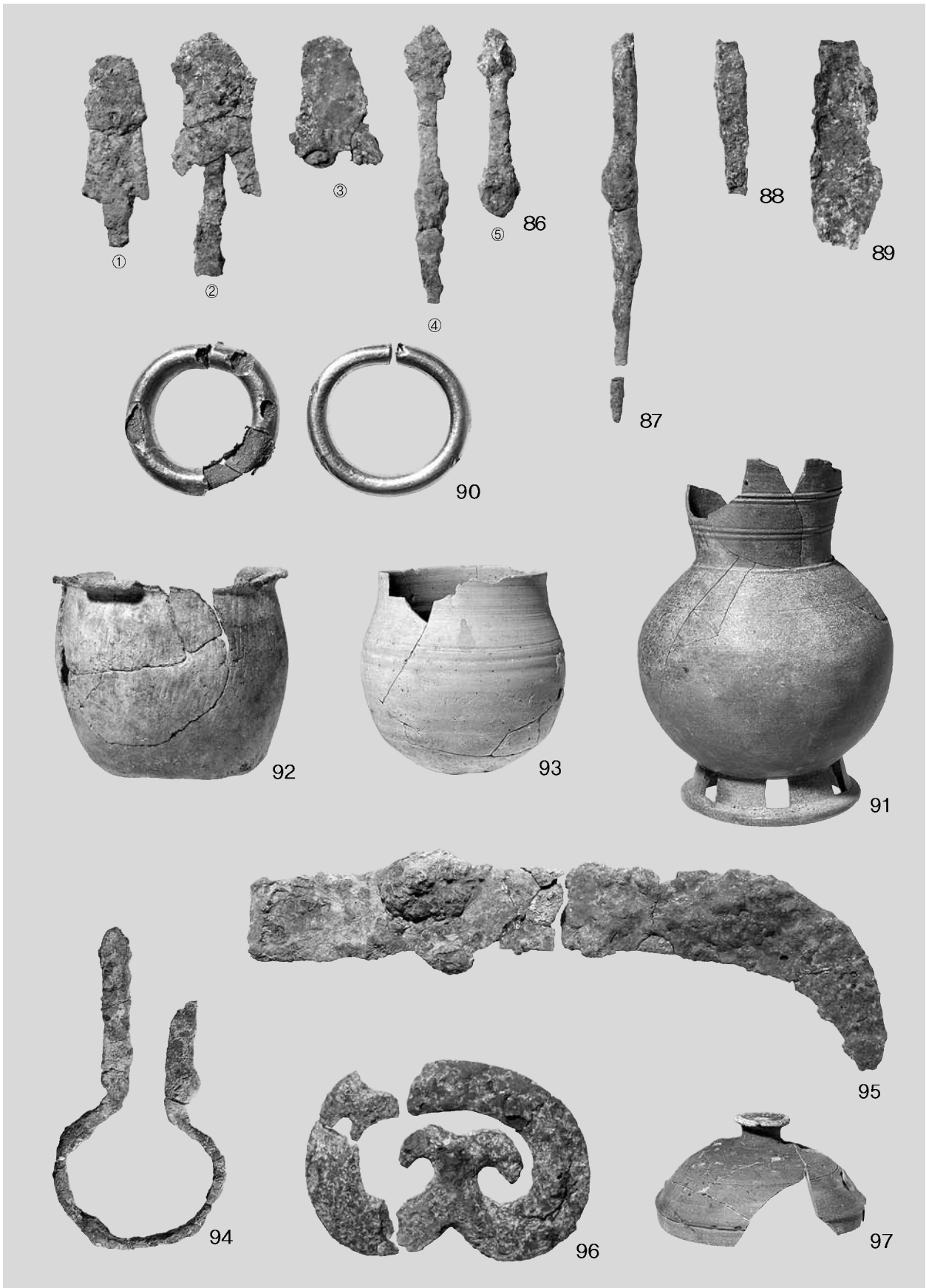
圖版 132. 5호 석곽(55), 6호 석곽(56~67)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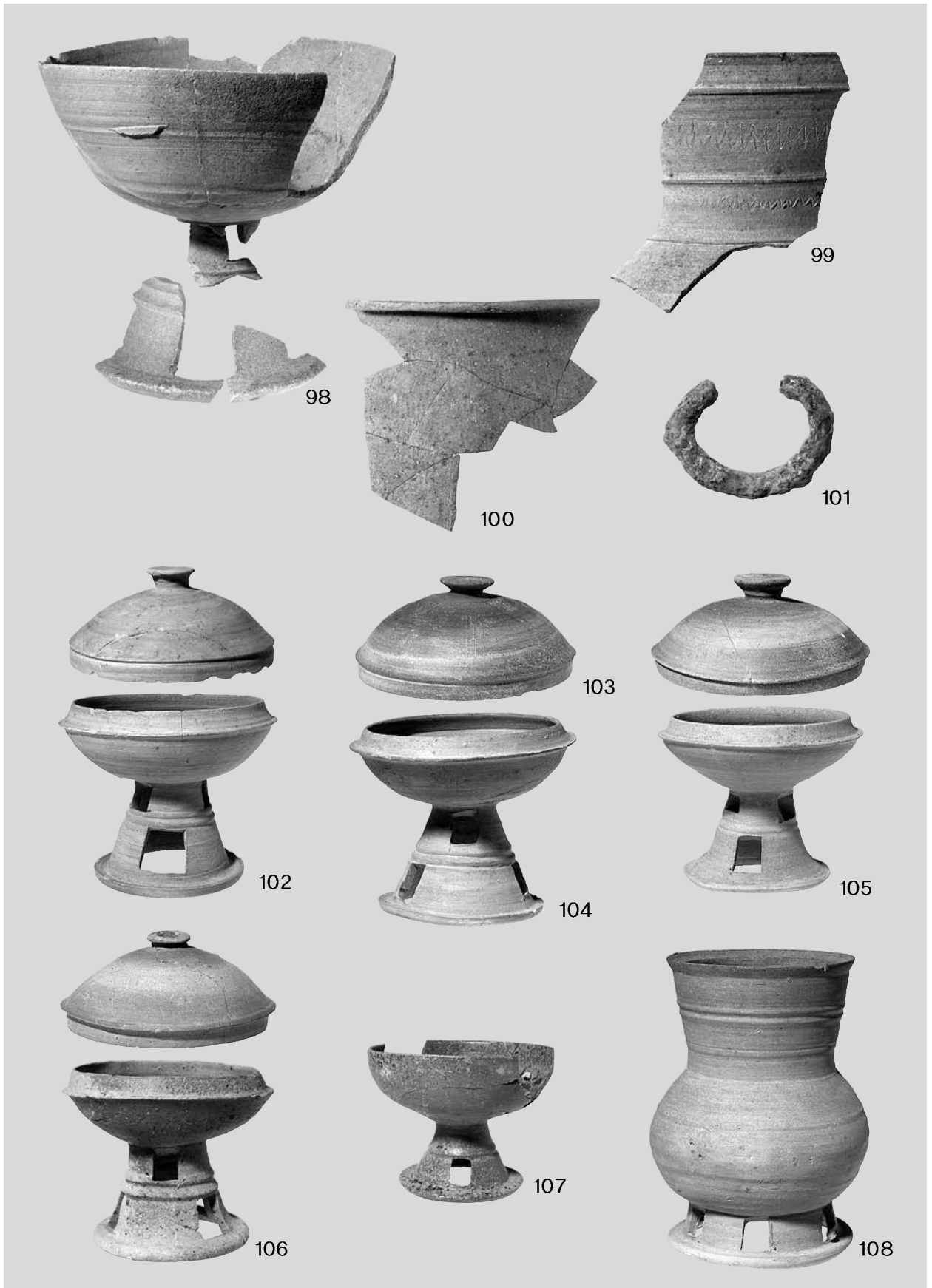
圖版 133. 6호 석곽(68), 7호 석곽(69·70), 8-1호(71~76)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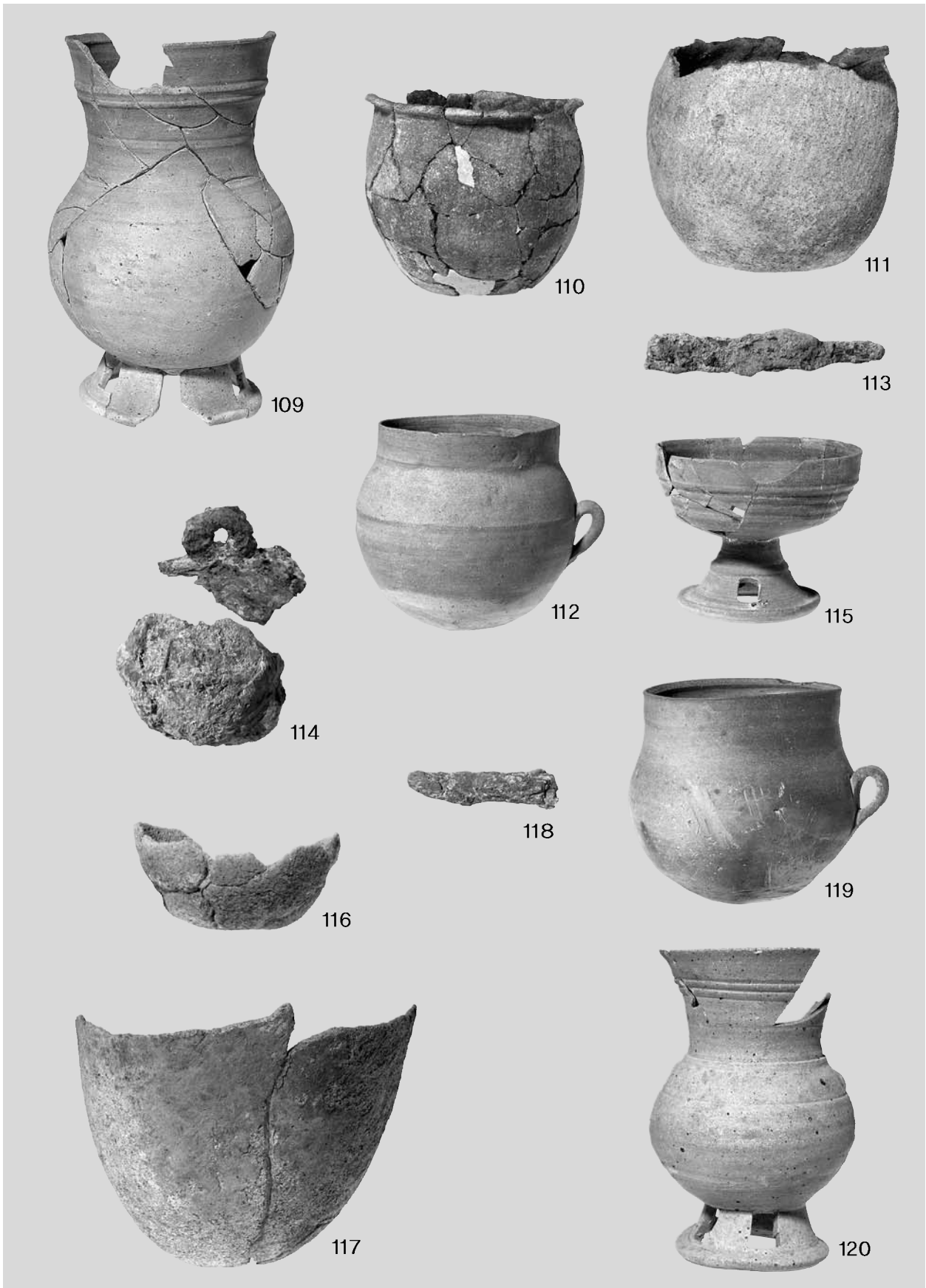
圖版 134. 8-1호(77~85) 출토유물



圖版 135. 8-1호(86~97)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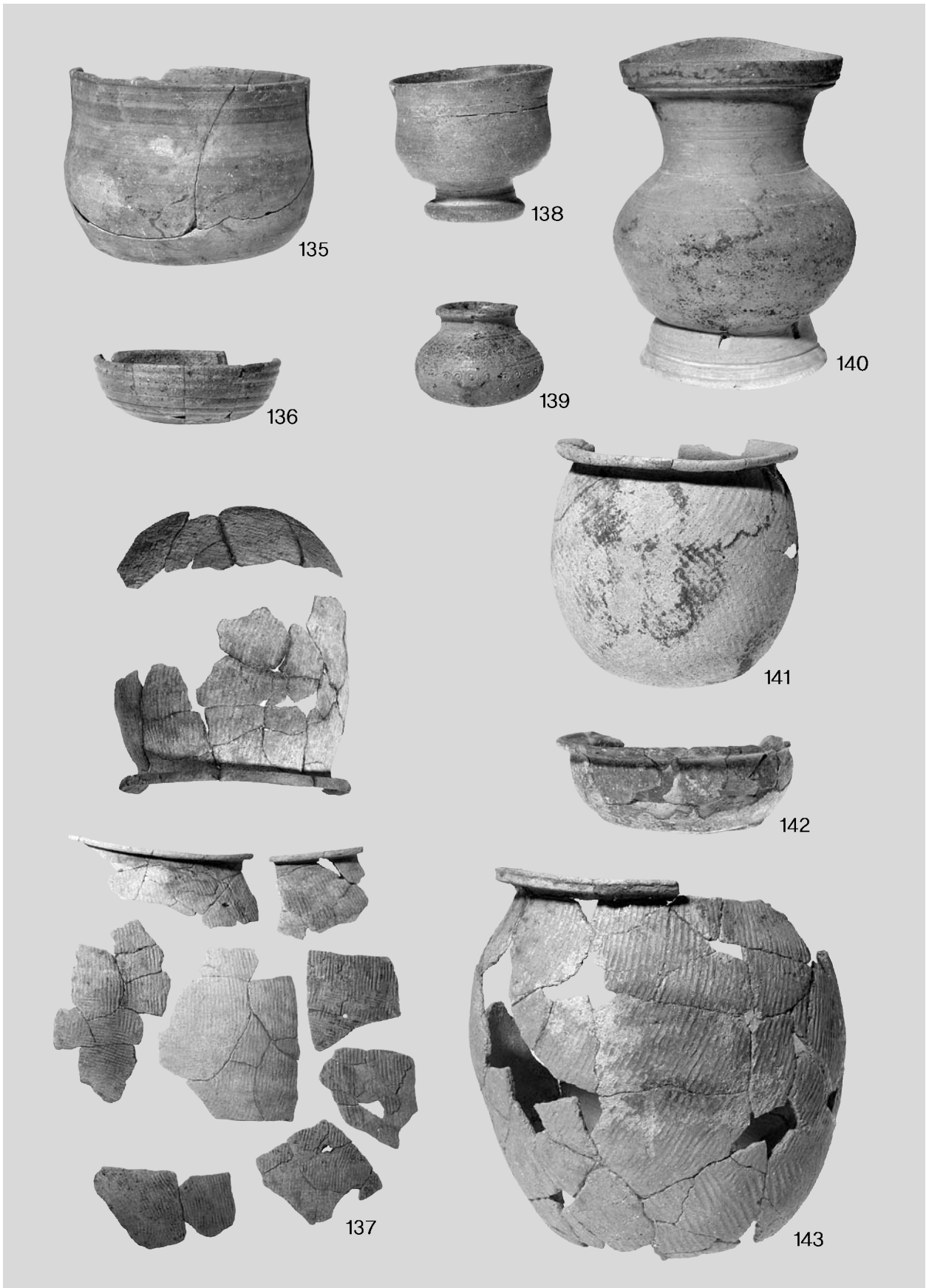
圖版 136. 8-1호(98~101), 8-2호(102~108)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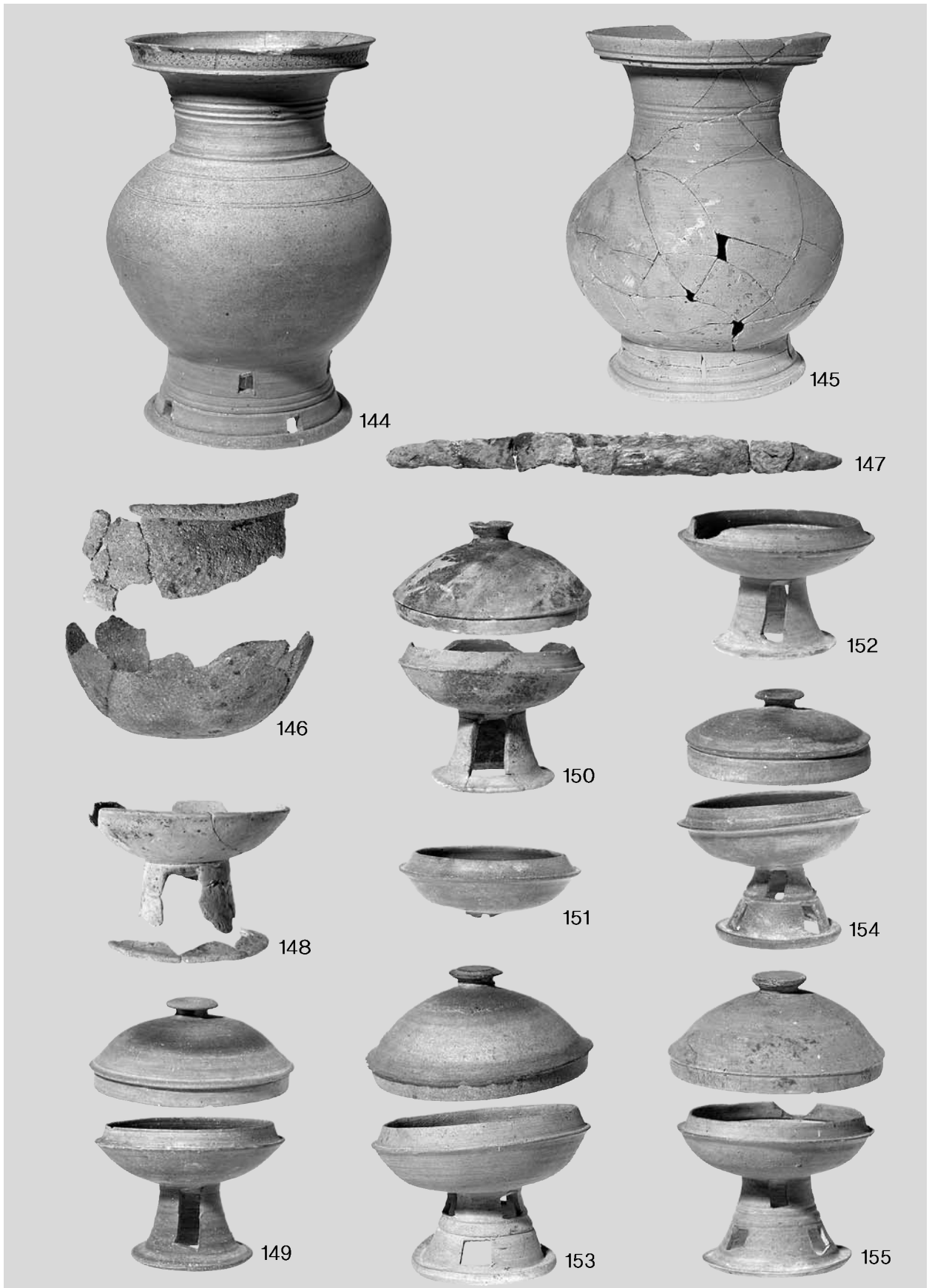
圖版 137. 8-2호(109~120)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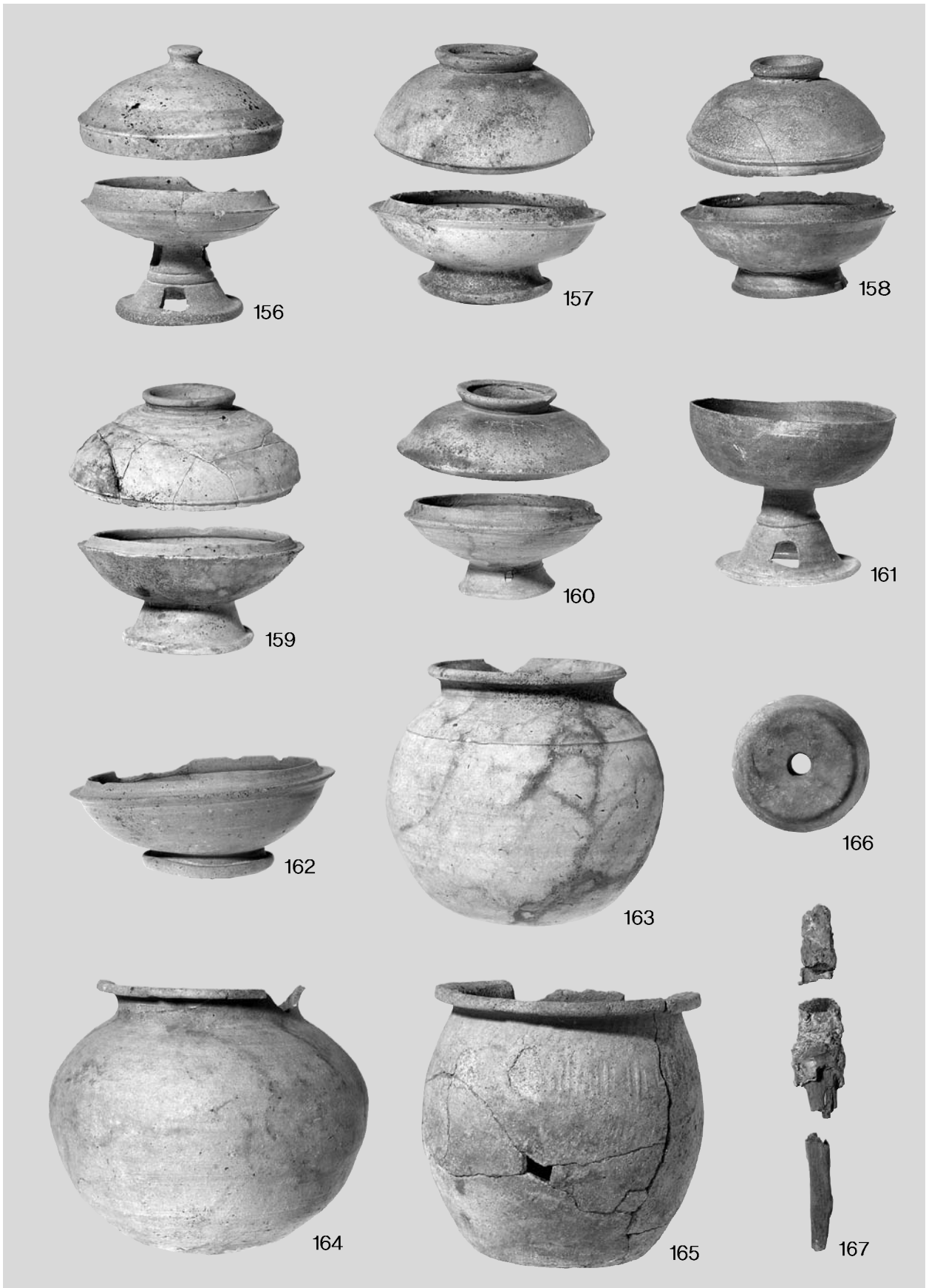
圖版 138. 9-1호(121~133), 9호 봉토·주구(134)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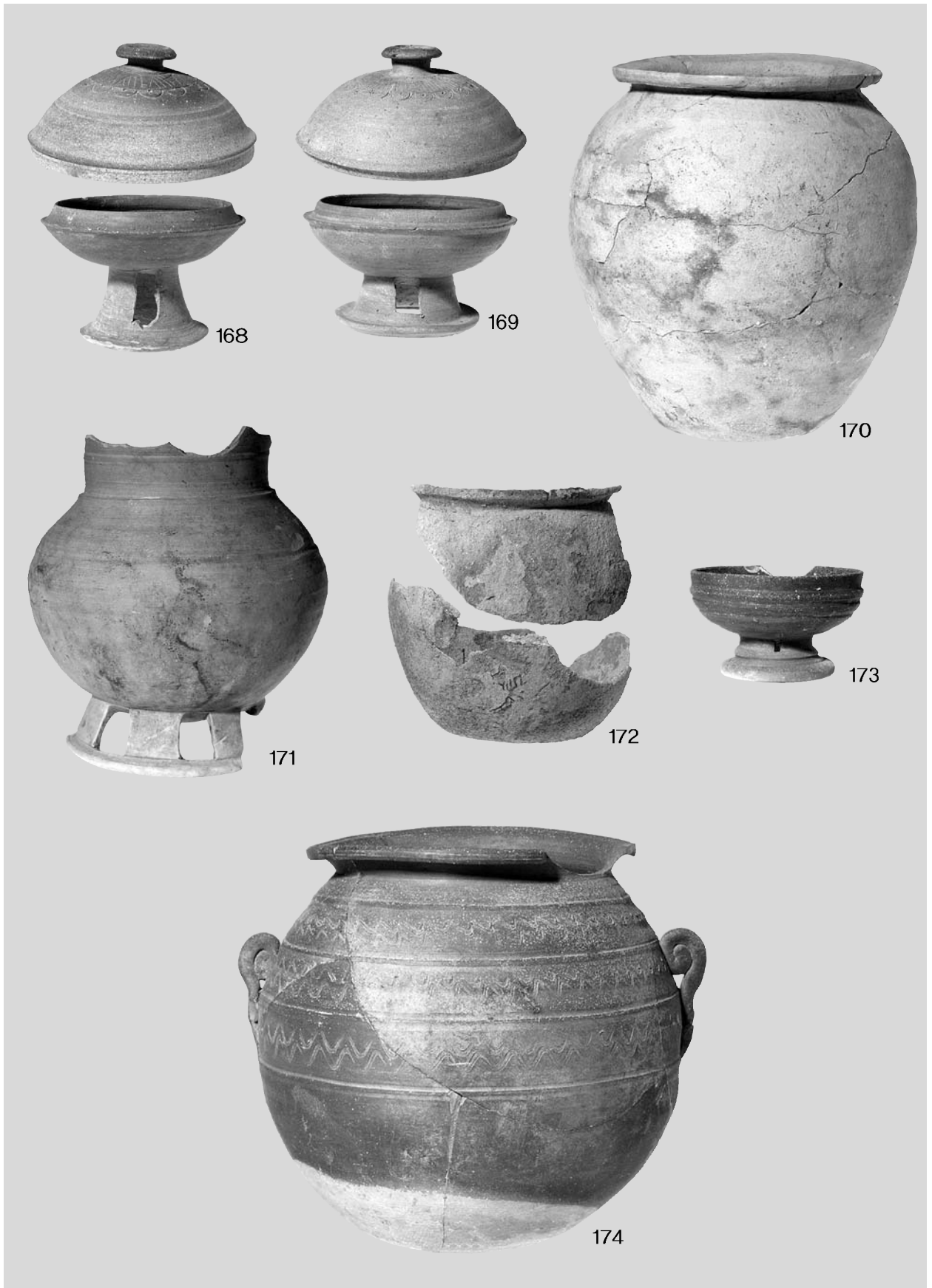
圖版 139. 9호 봉토·주구(135~137), 9-2호(138~141), 10호 석실(142·143)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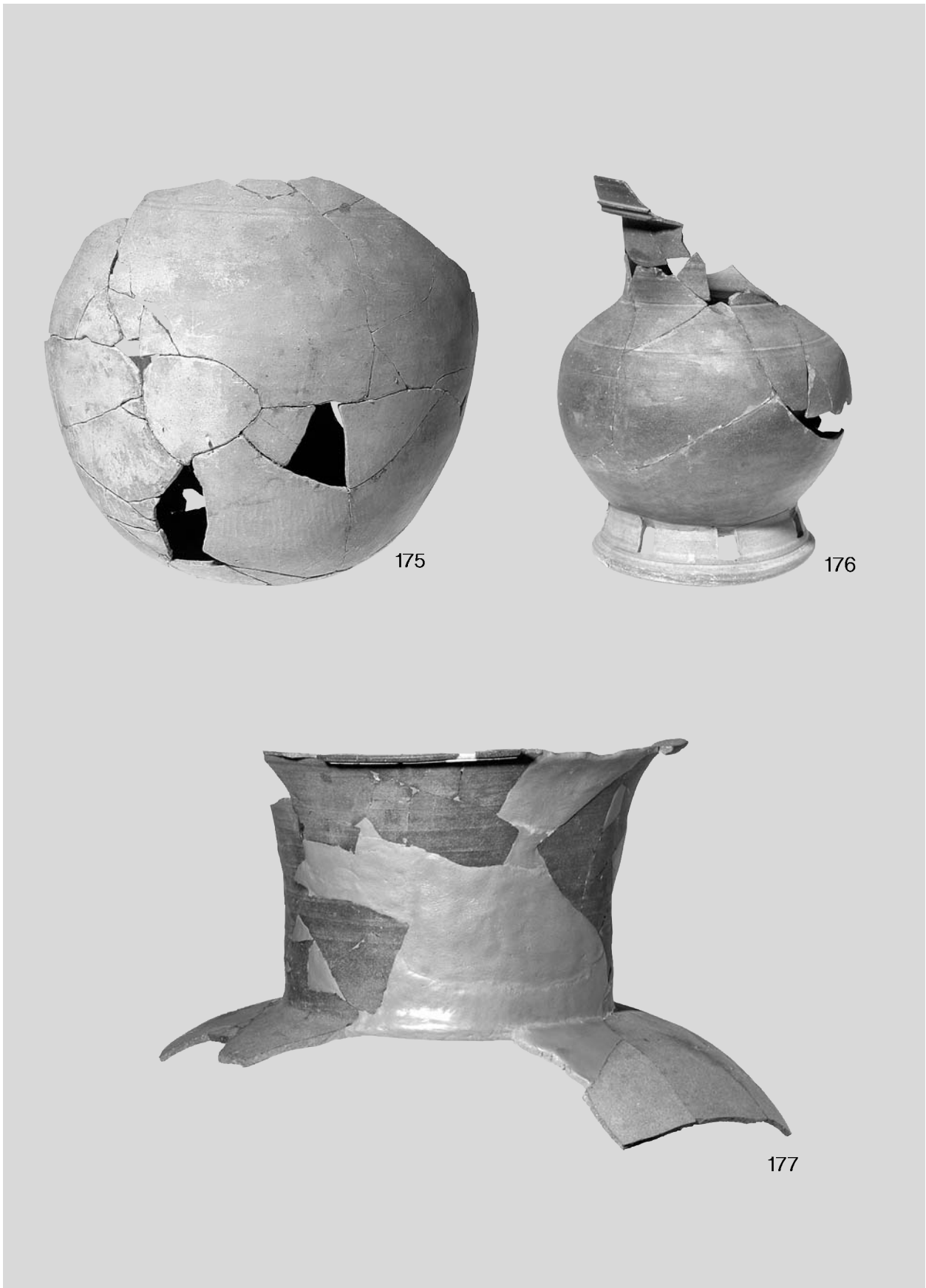
圖版 140. 10호 석실(144~147), 11-1호(148~155)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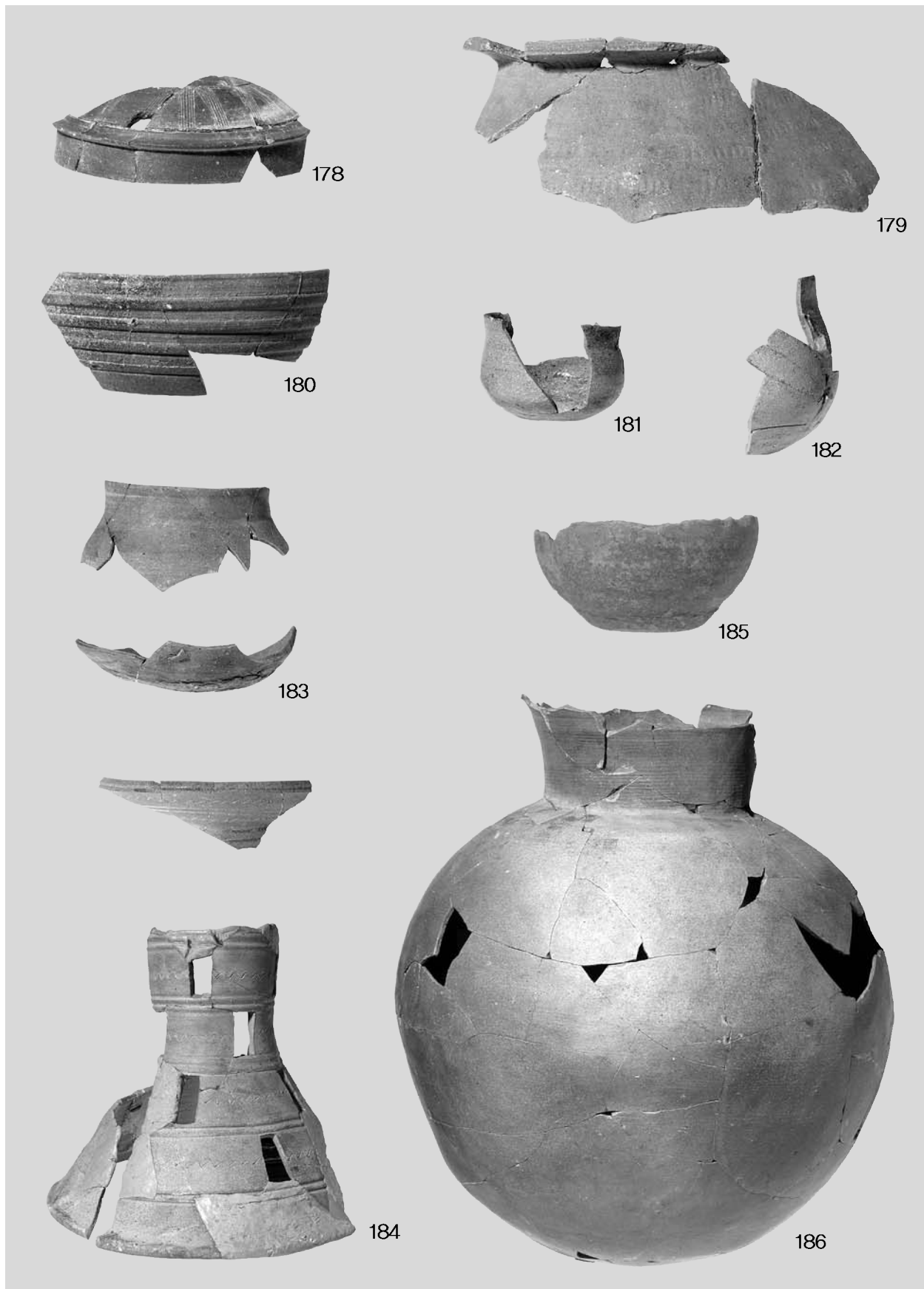
圖版 141. 11-1호(156~167) 출토유물



圖版 142. 11-2호(168~172), 11호 봉토(173·174)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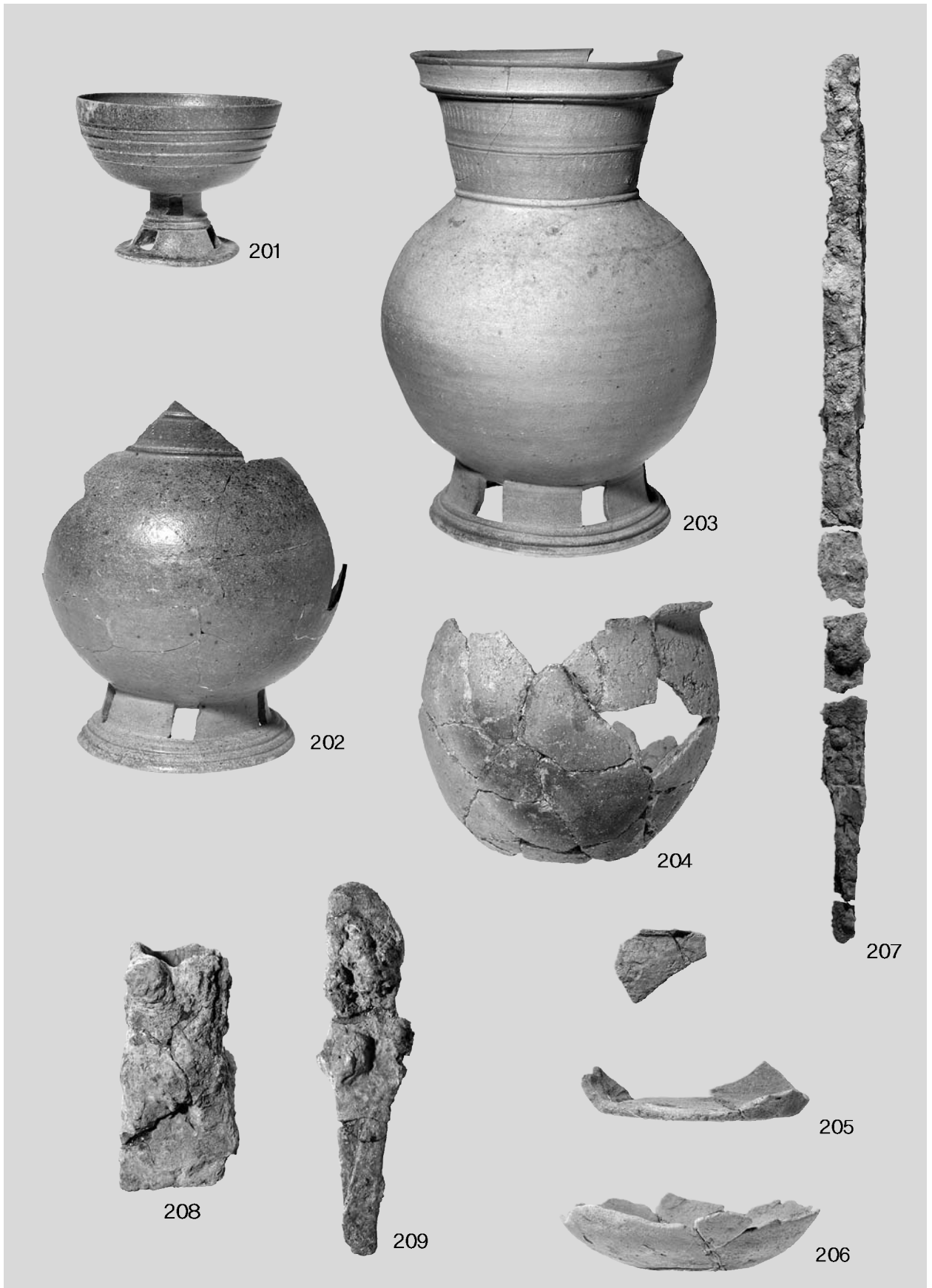
圖版 143. 11호 봉토(175~177)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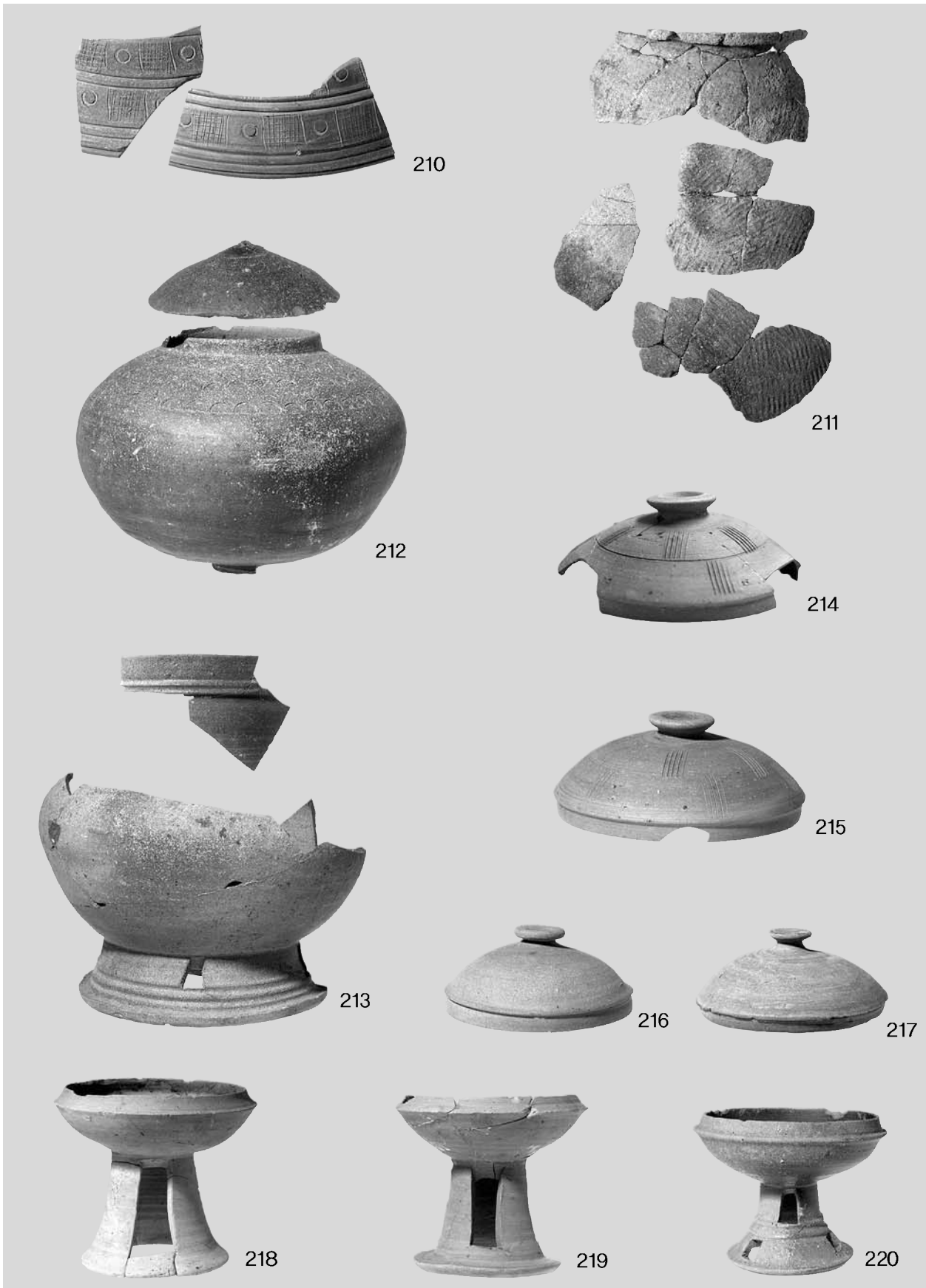
圖版 144. 11호 봉토(178~186)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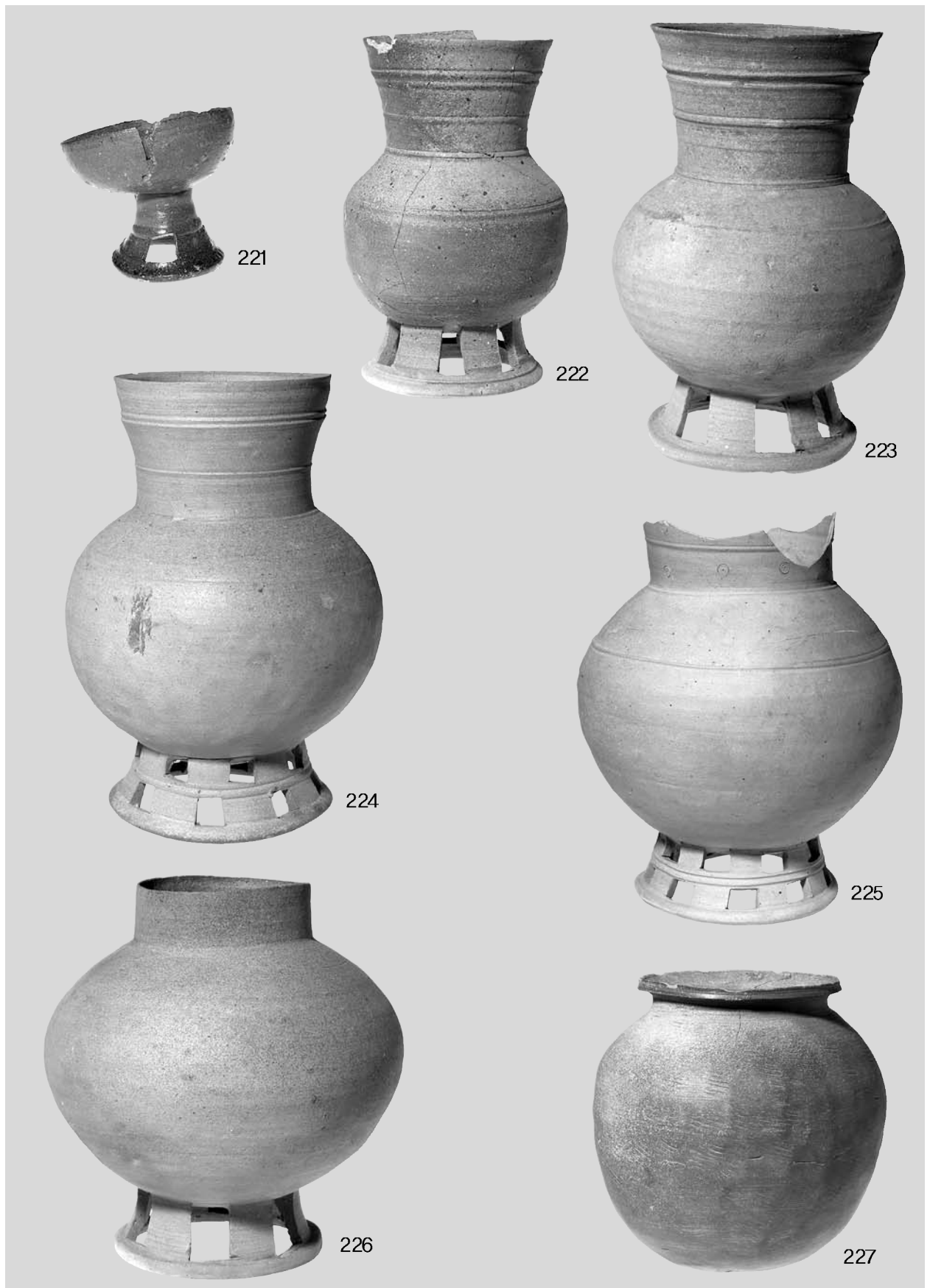
圖版 145. 12호 석곽(187~198), 13호 석곽(199·200)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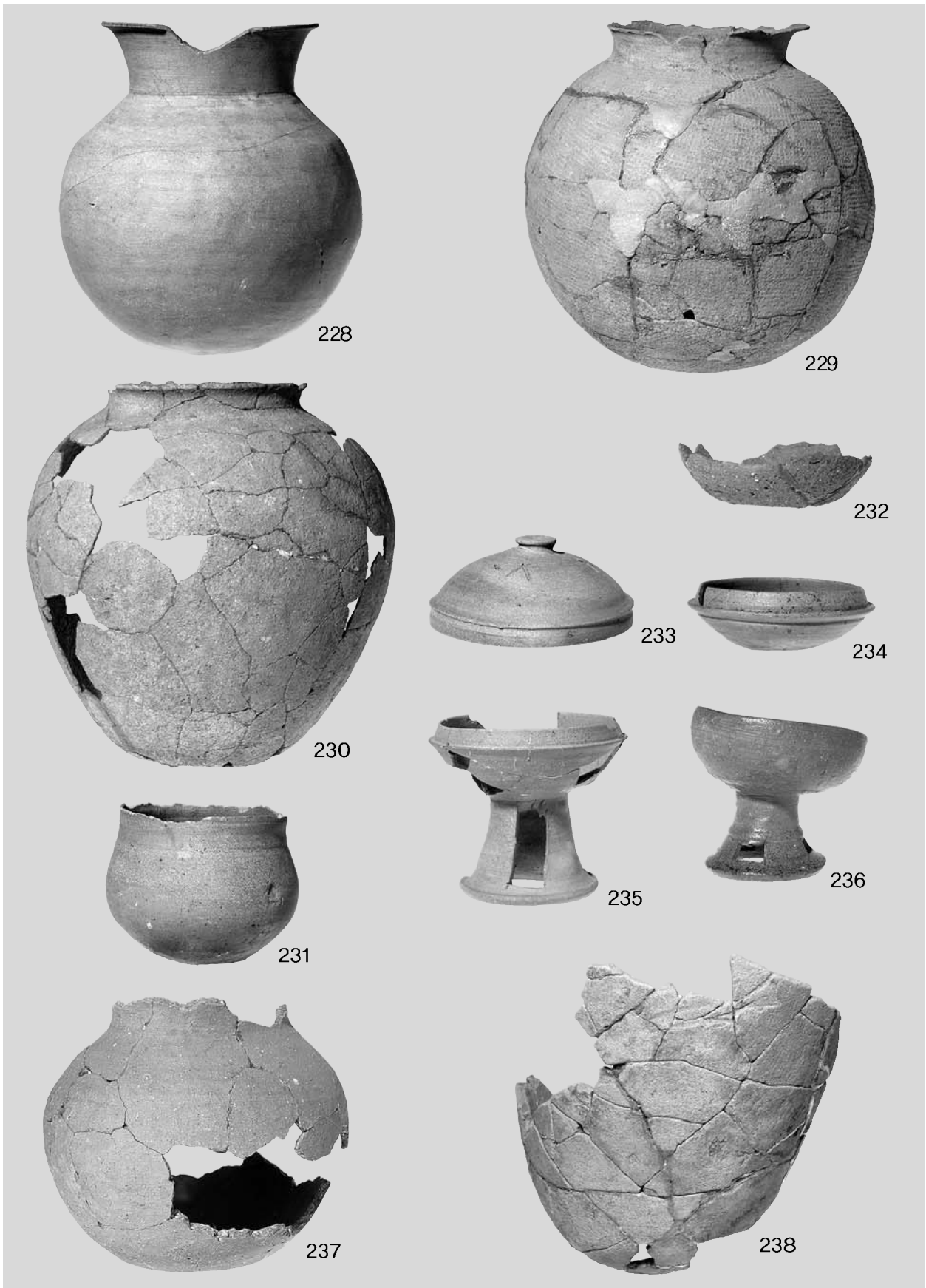
圖版 146. 13호 석곽(201~209)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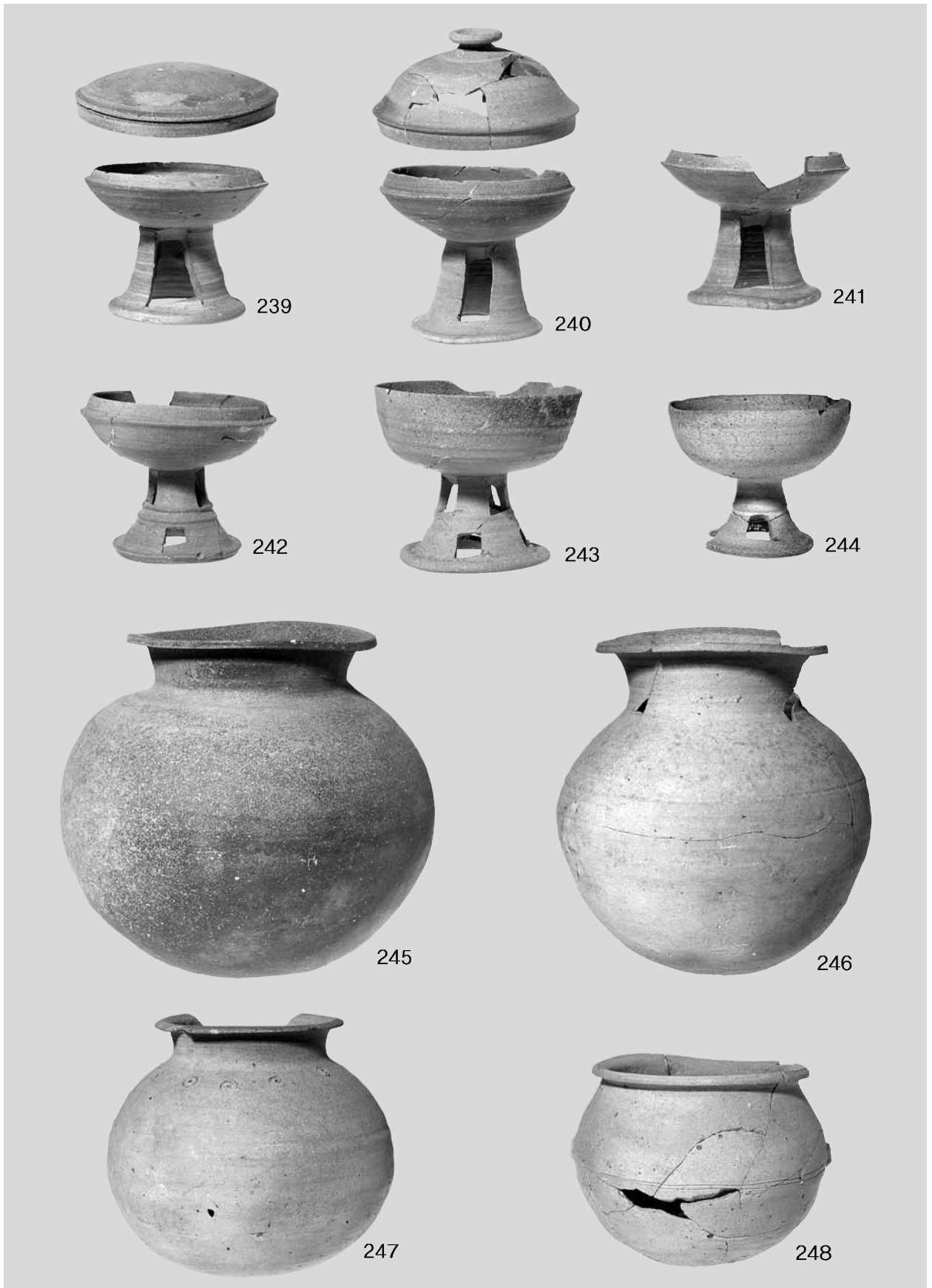
圖版 147. 13호 석곽(210), 14호 석곽(211~213), 15호 석곽(214~220)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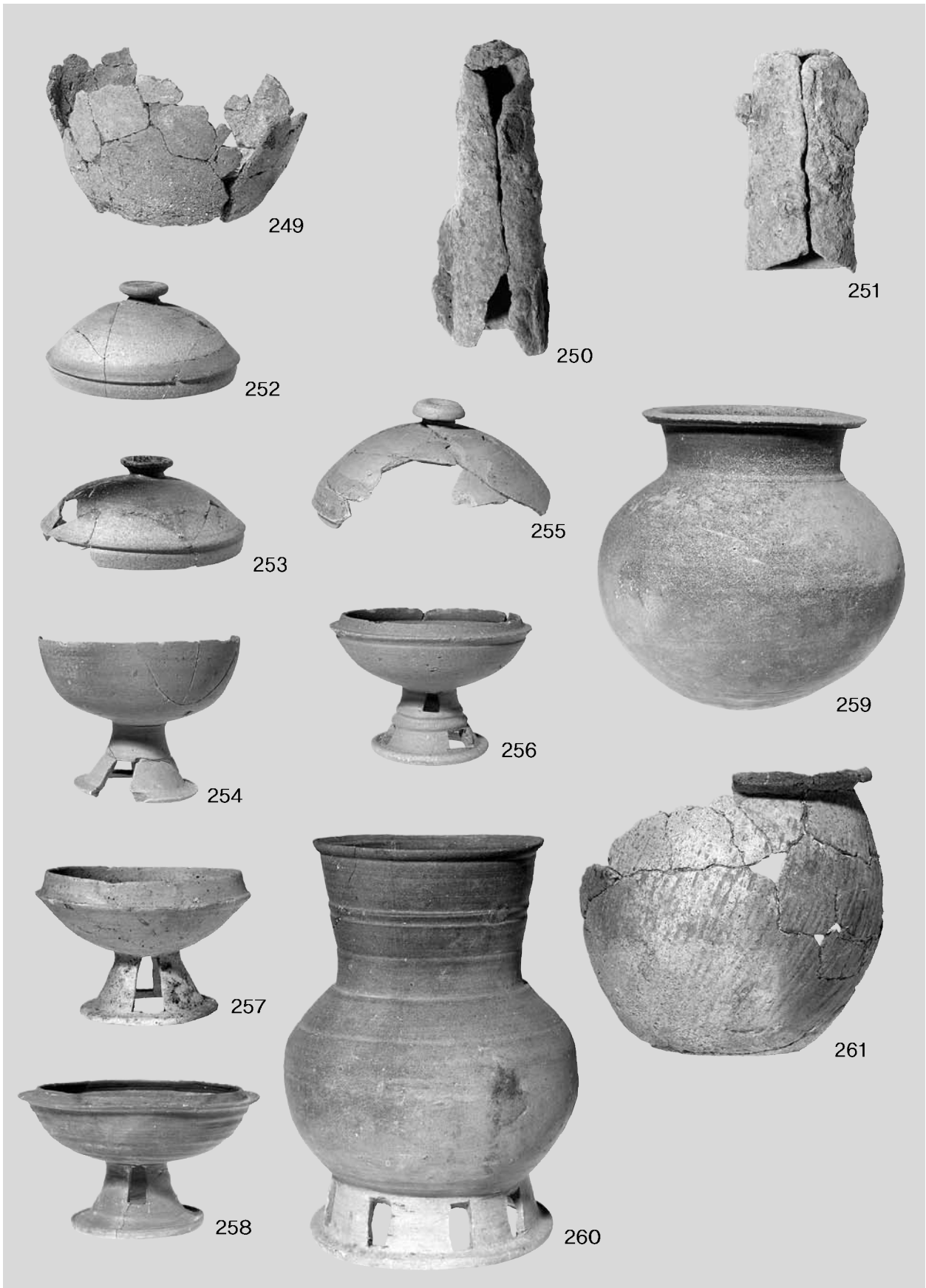
圖版 148. 15호 석곽(221~227)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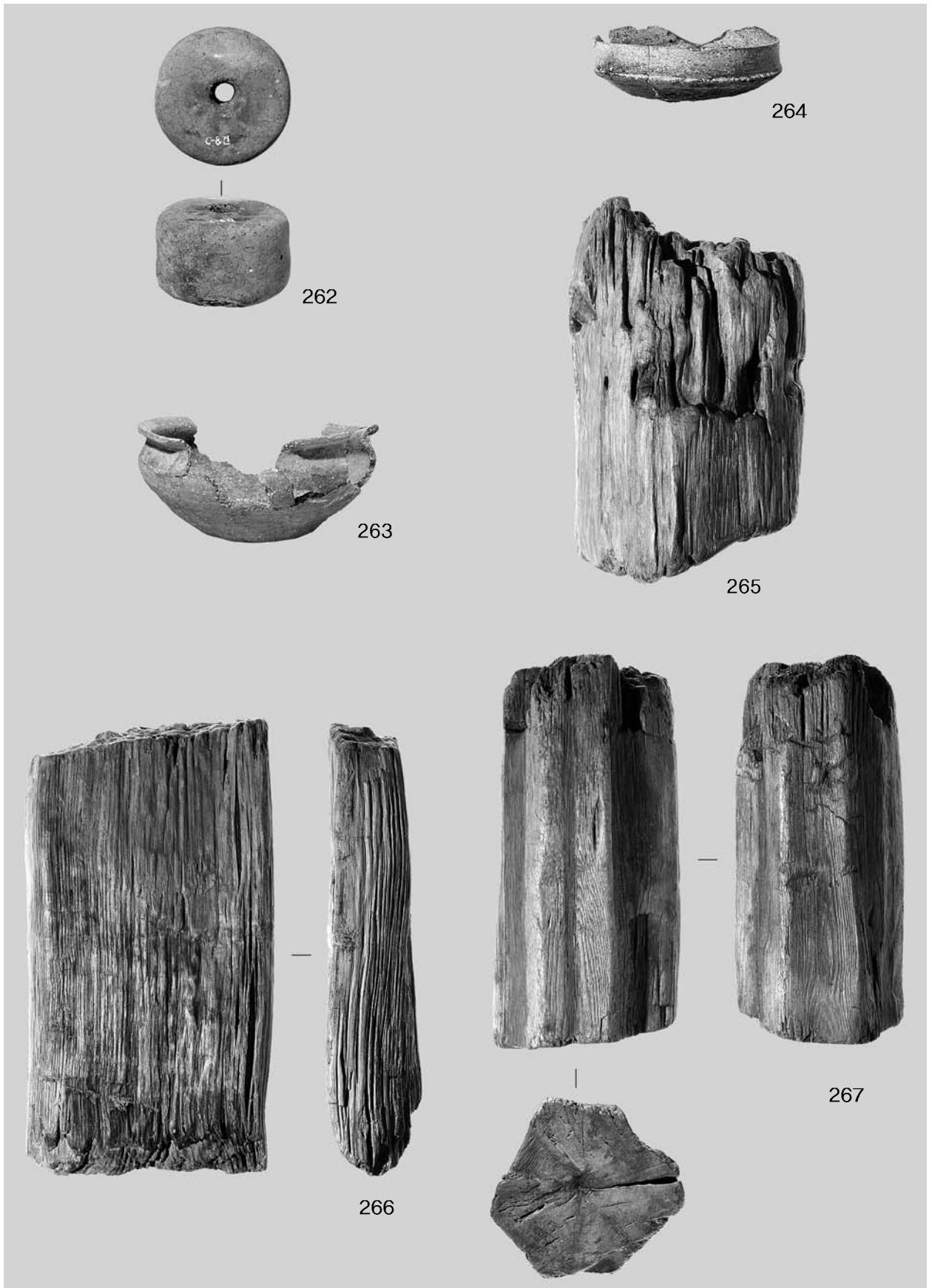
圖版 149. 15호 석곡(228~238)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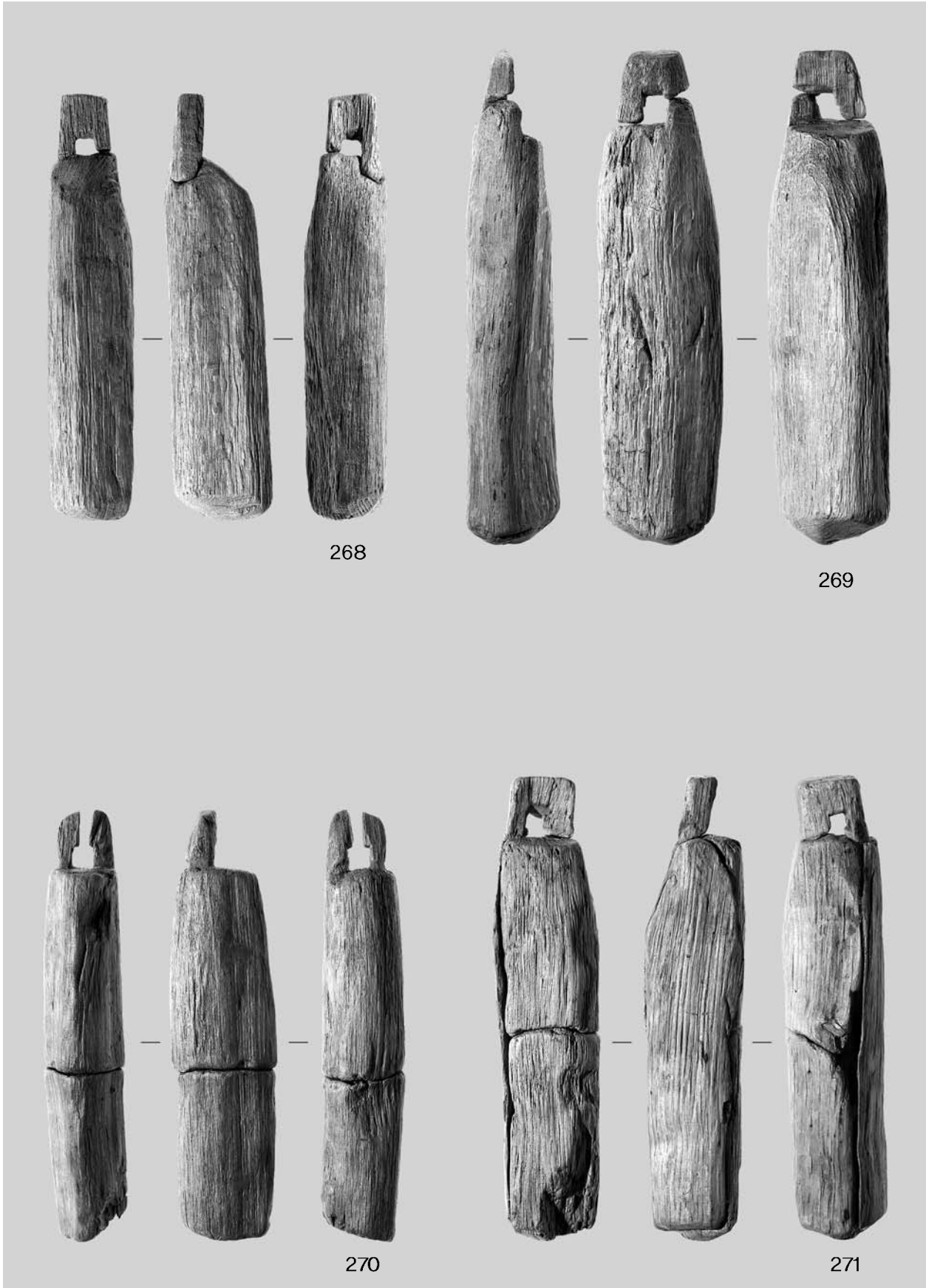
圖版 150. 16호 석곽(239~248)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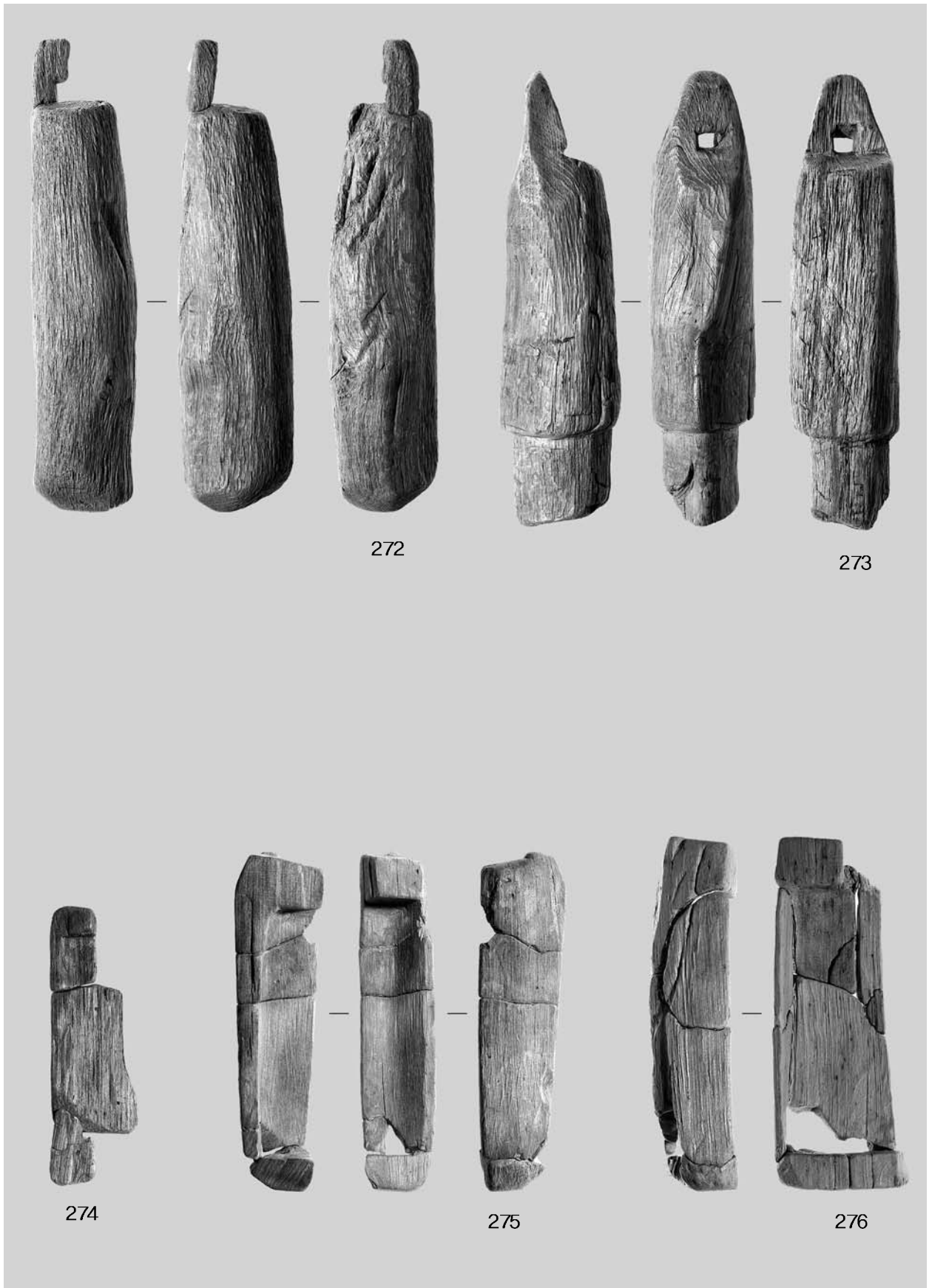
圖版 151. 16호 석곽(249~253), 17호 석곽(254), 18호 석곽(255~261)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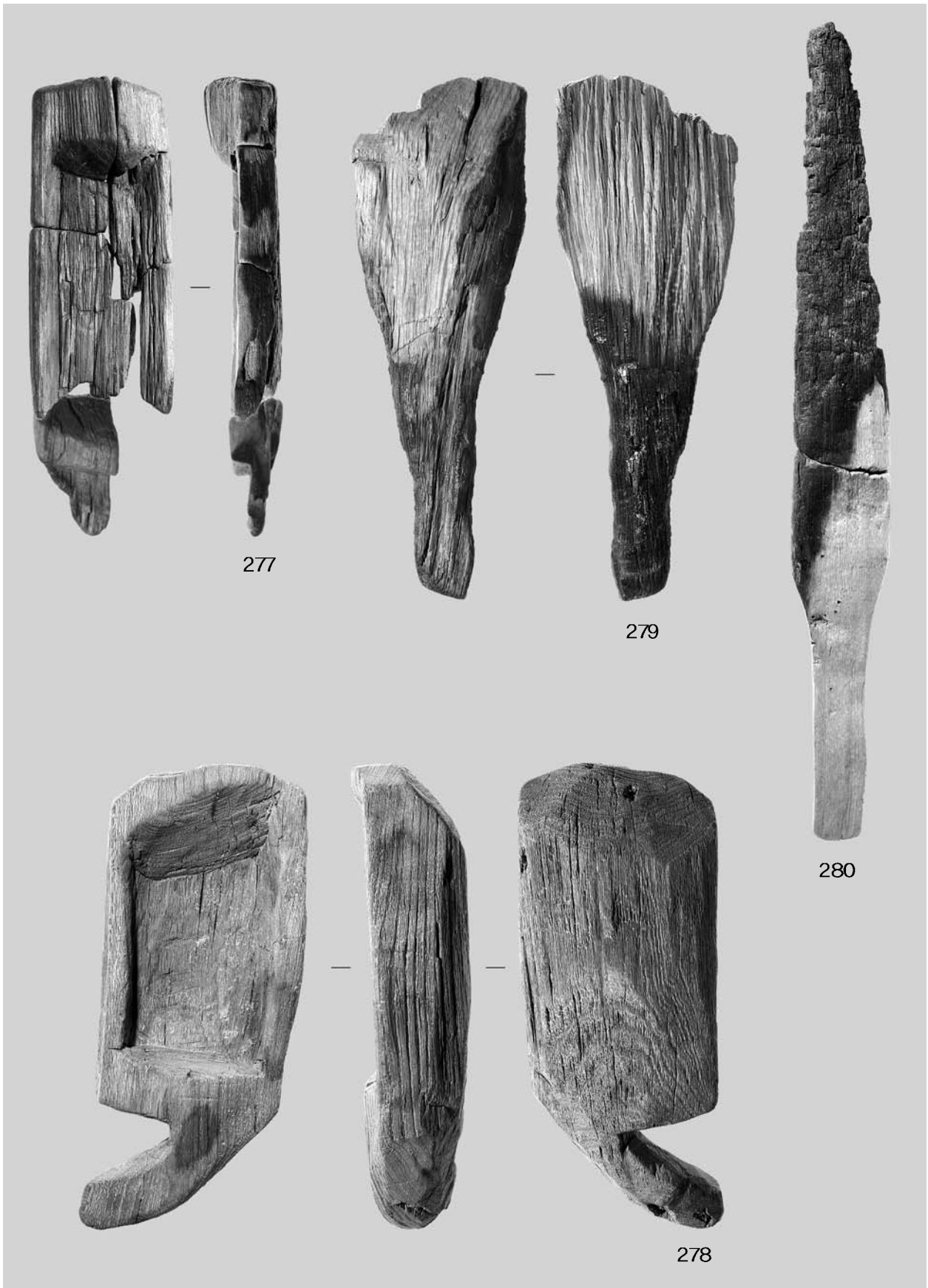
圖版 152. 굴림주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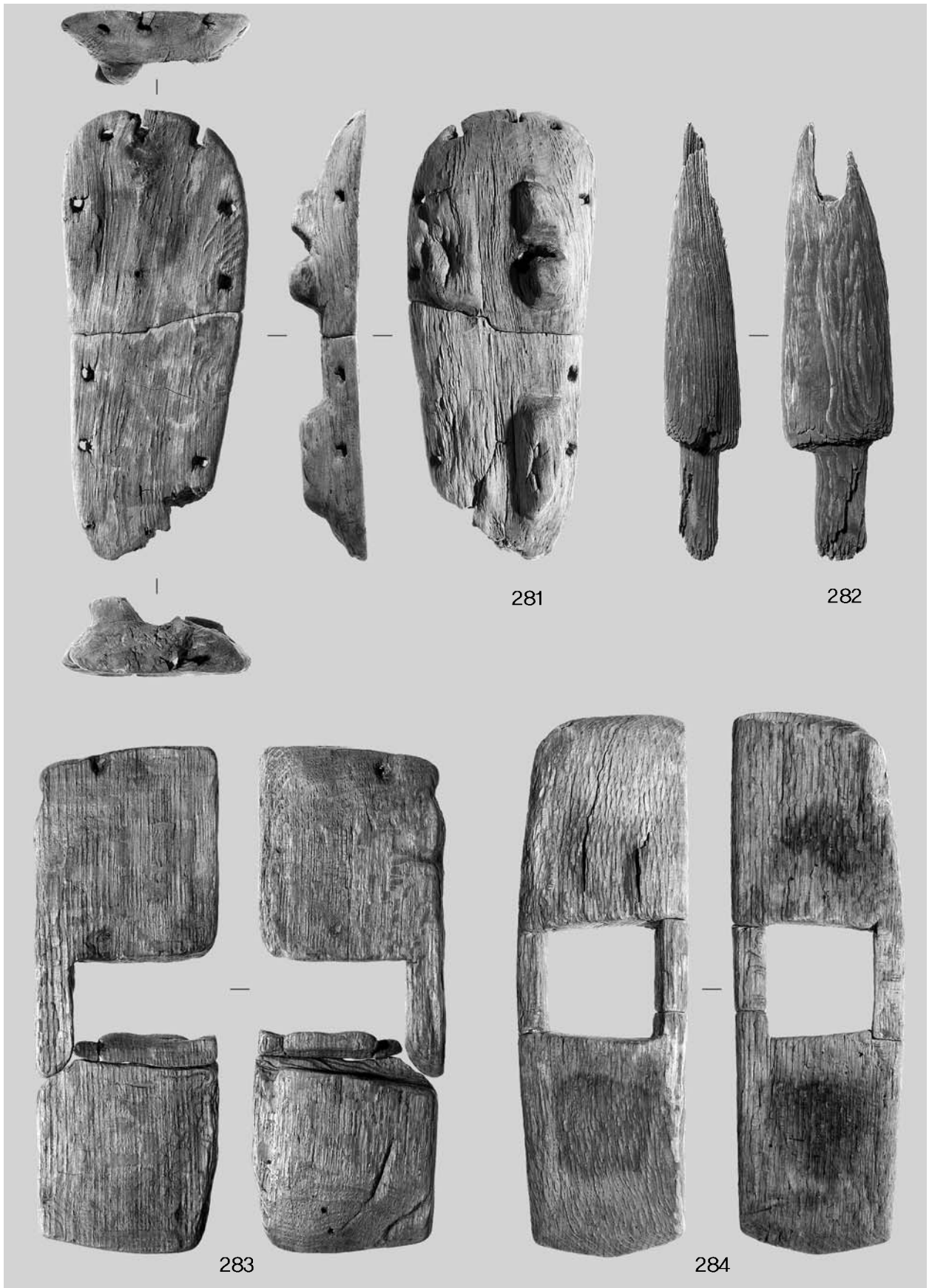
圖版 153. 저습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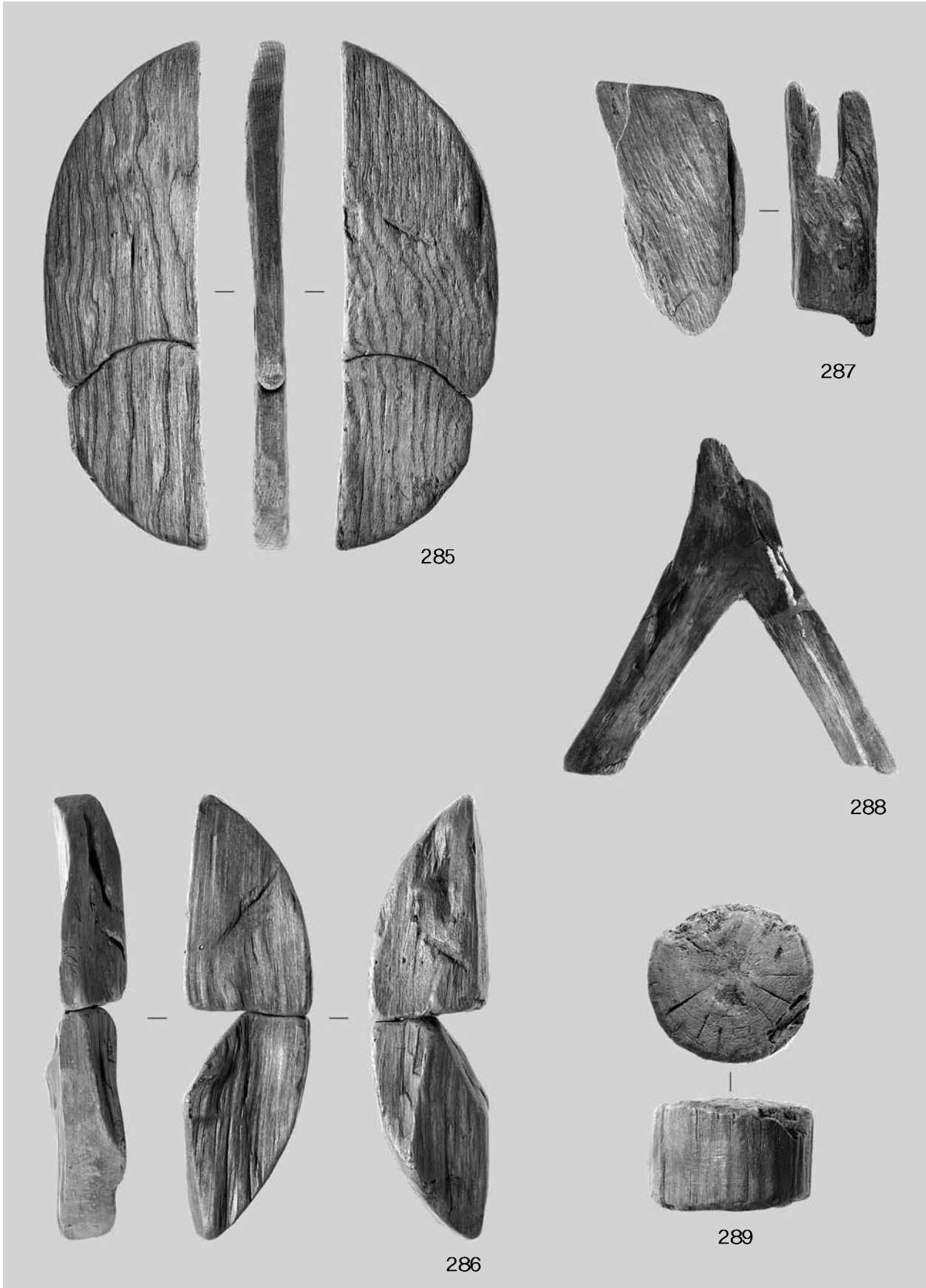
圖版 154. 저습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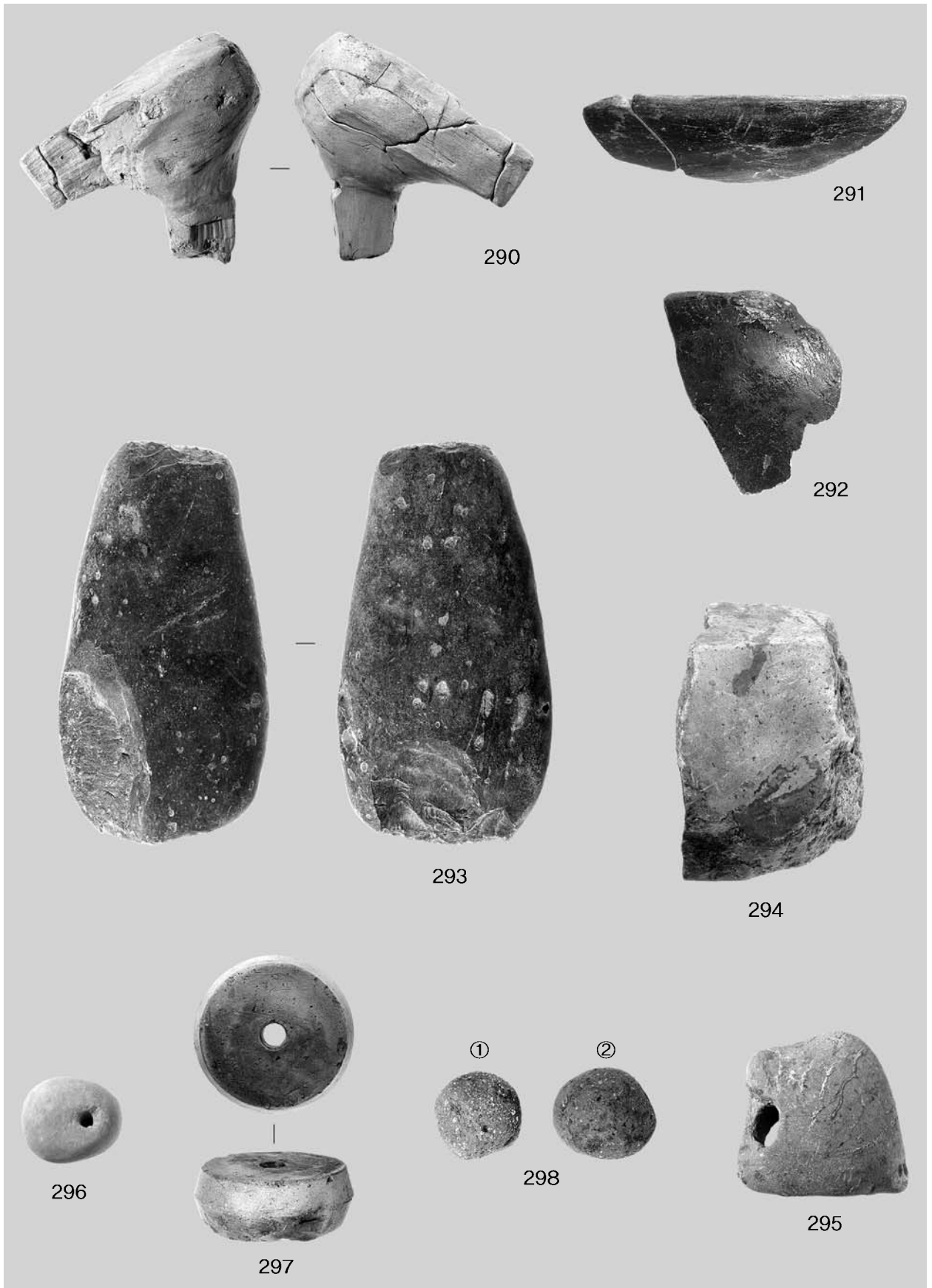
圖版 155. 저습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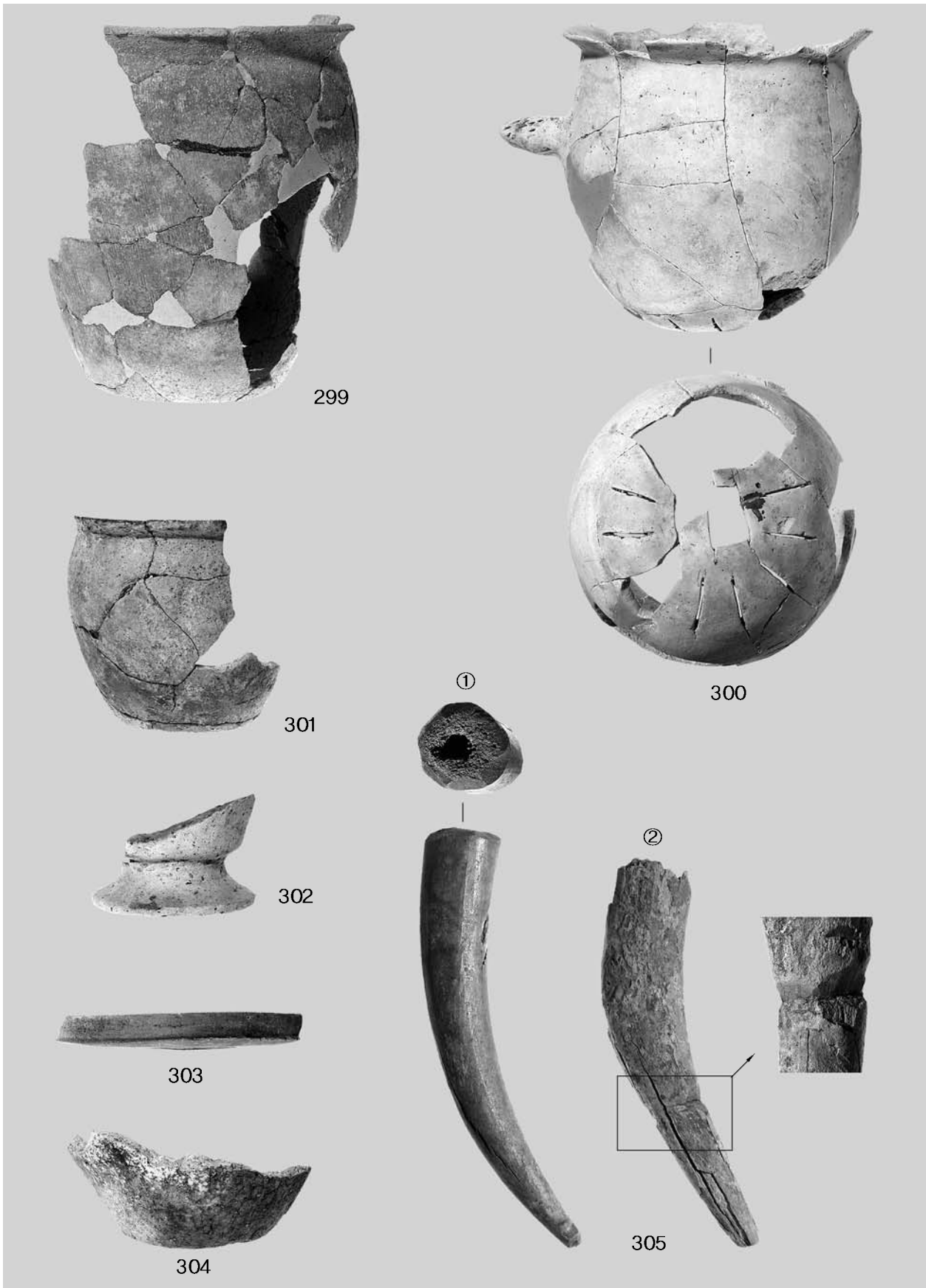
圖版 156. 저습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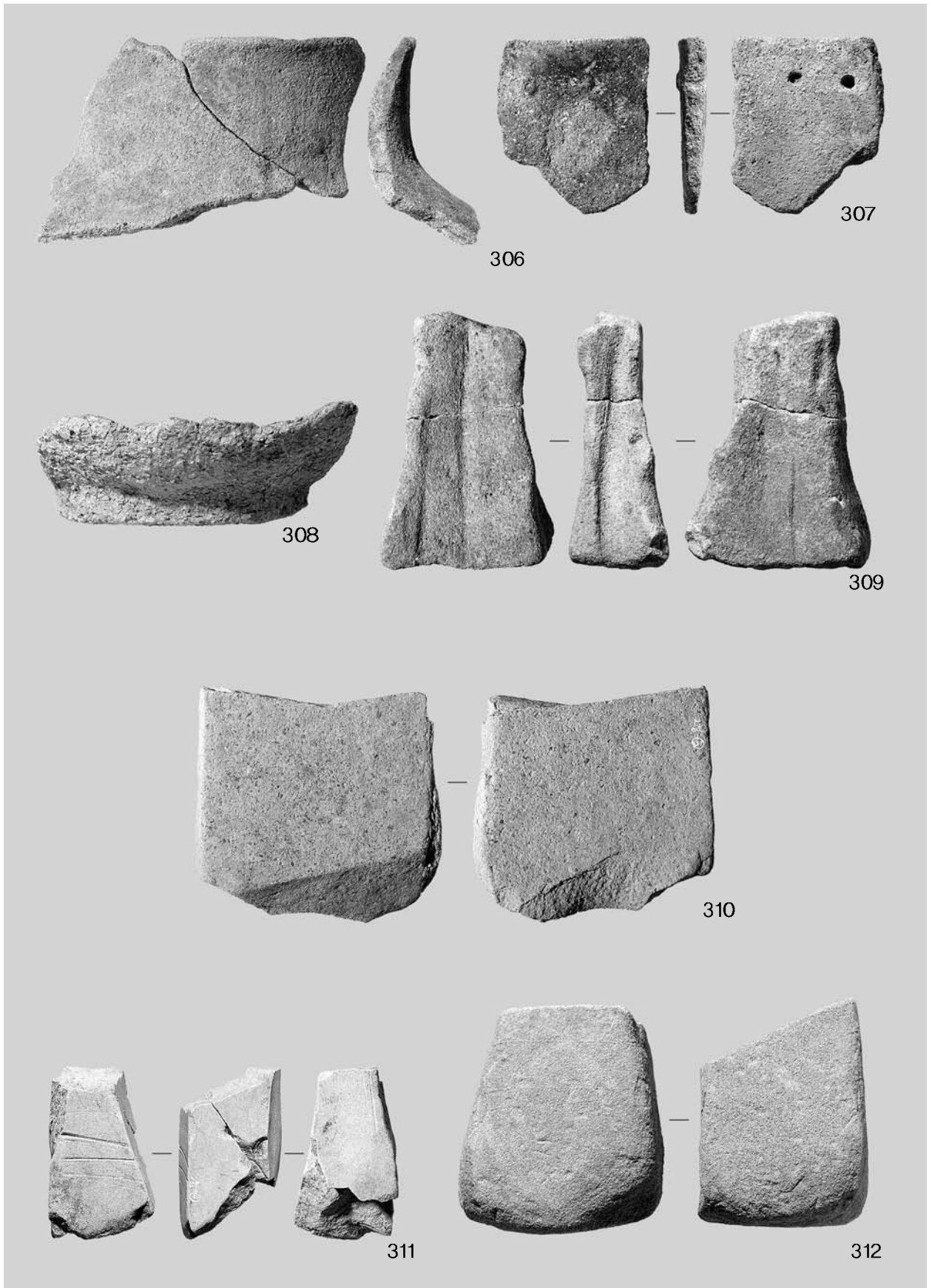
圖版 157. 저습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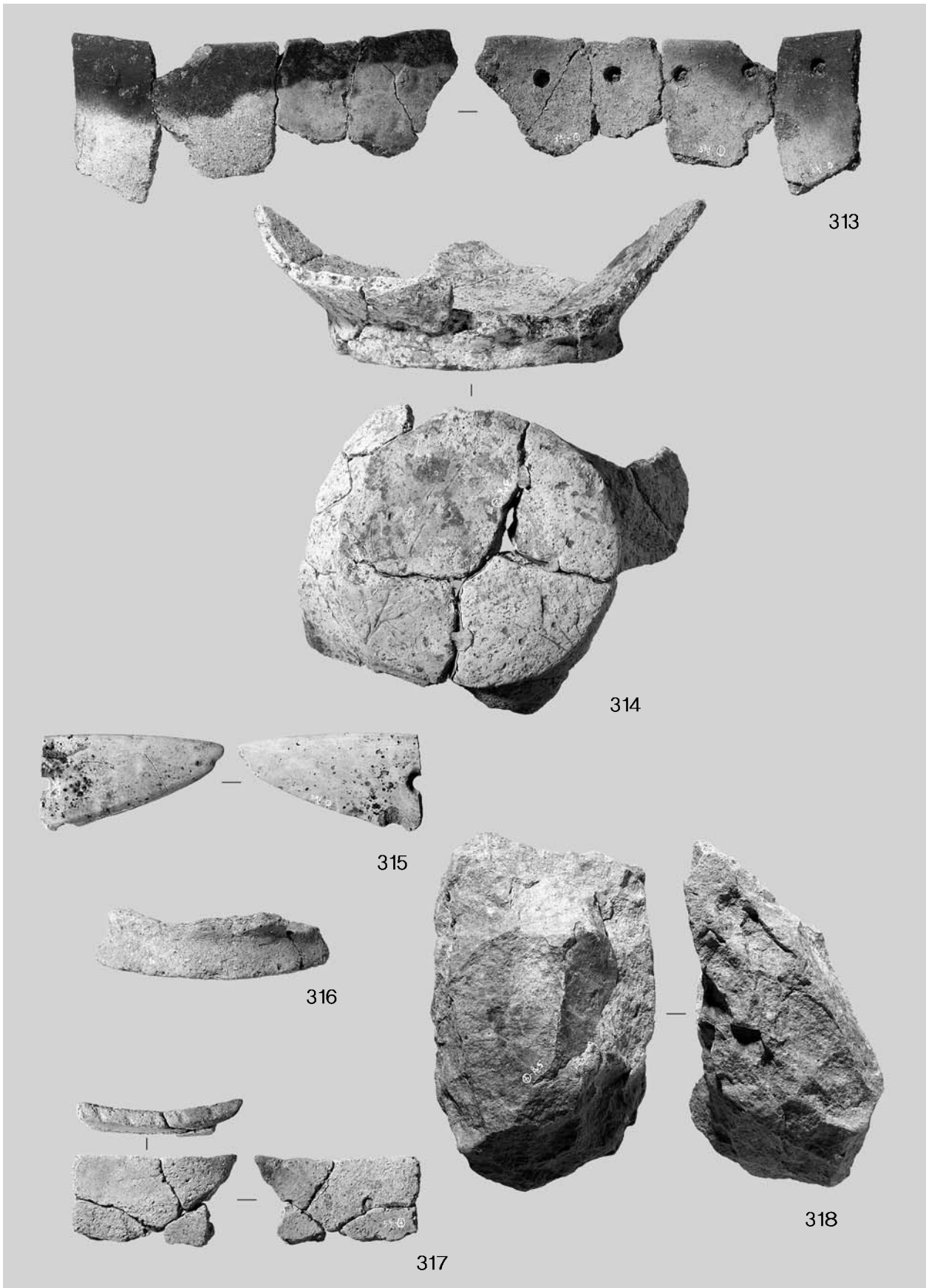
圖版 158. 저습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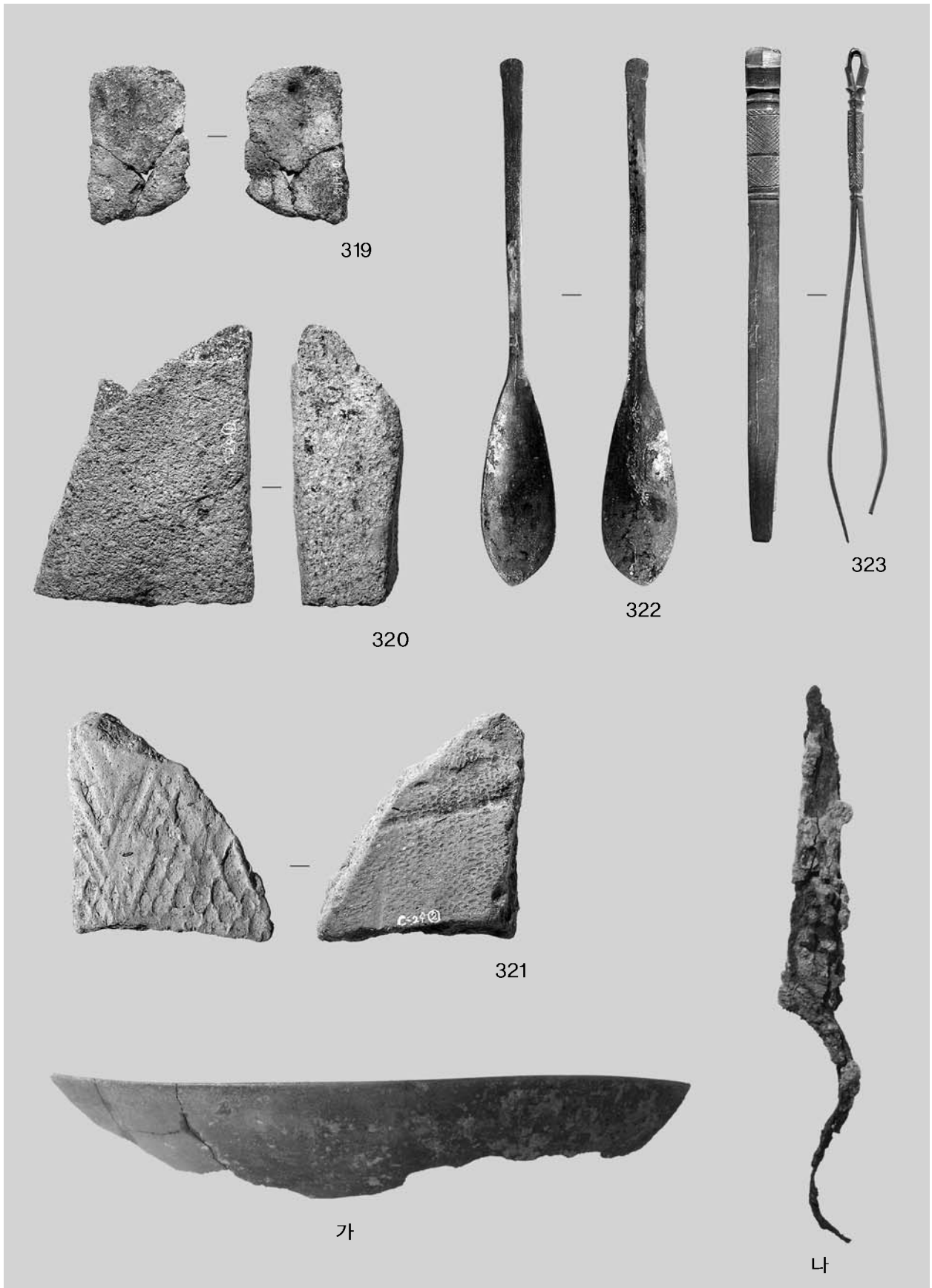
圖版 159. 저습지 출토유물



圖版 160. 1호 주거지(306 · 307), 2호 주거지(308~312) 출토유물



圖版 161. 3호 주거지(313·314), 4호 주거지(315~318) 출토유물



圖版 162. 1호 구상유구(319), 2호 수혈(320·321), 2호 묘(322), 1호 구(323), 1호 수혈 청동완편(가), 2호 묘 철제가위(나) 출토유물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5輯

기장 가동유적 I

인 쇄 2008년 12월 15일

발 행 2008년 12월 31일

편 저 울산대학교 박물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번지

TEL: (052)259-2635, FAX: (052)259-2632

제 작 도서출판 용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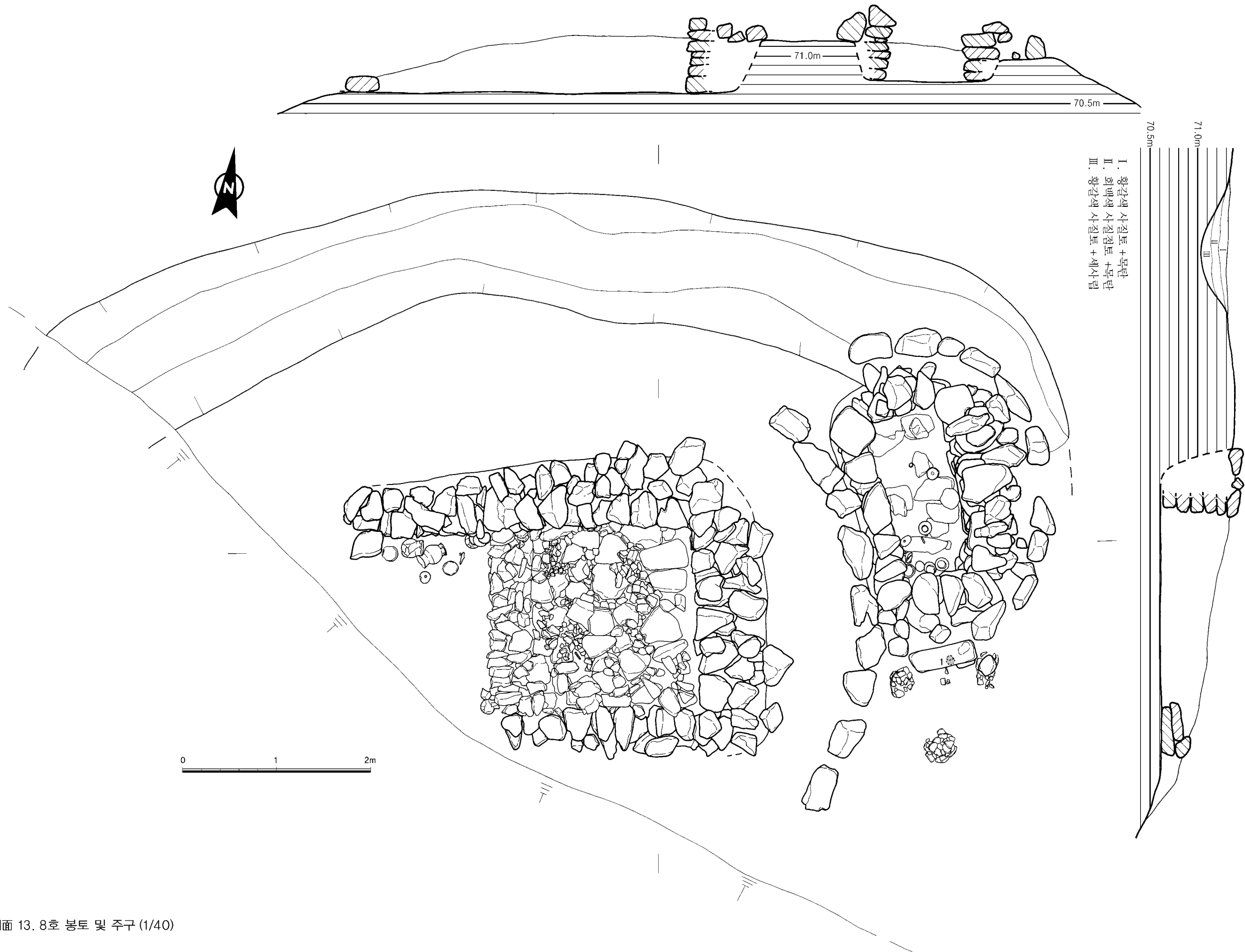
614-040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207-46 대원빌딩 2층

TEL: (051)805-6416, FAX: (051)805-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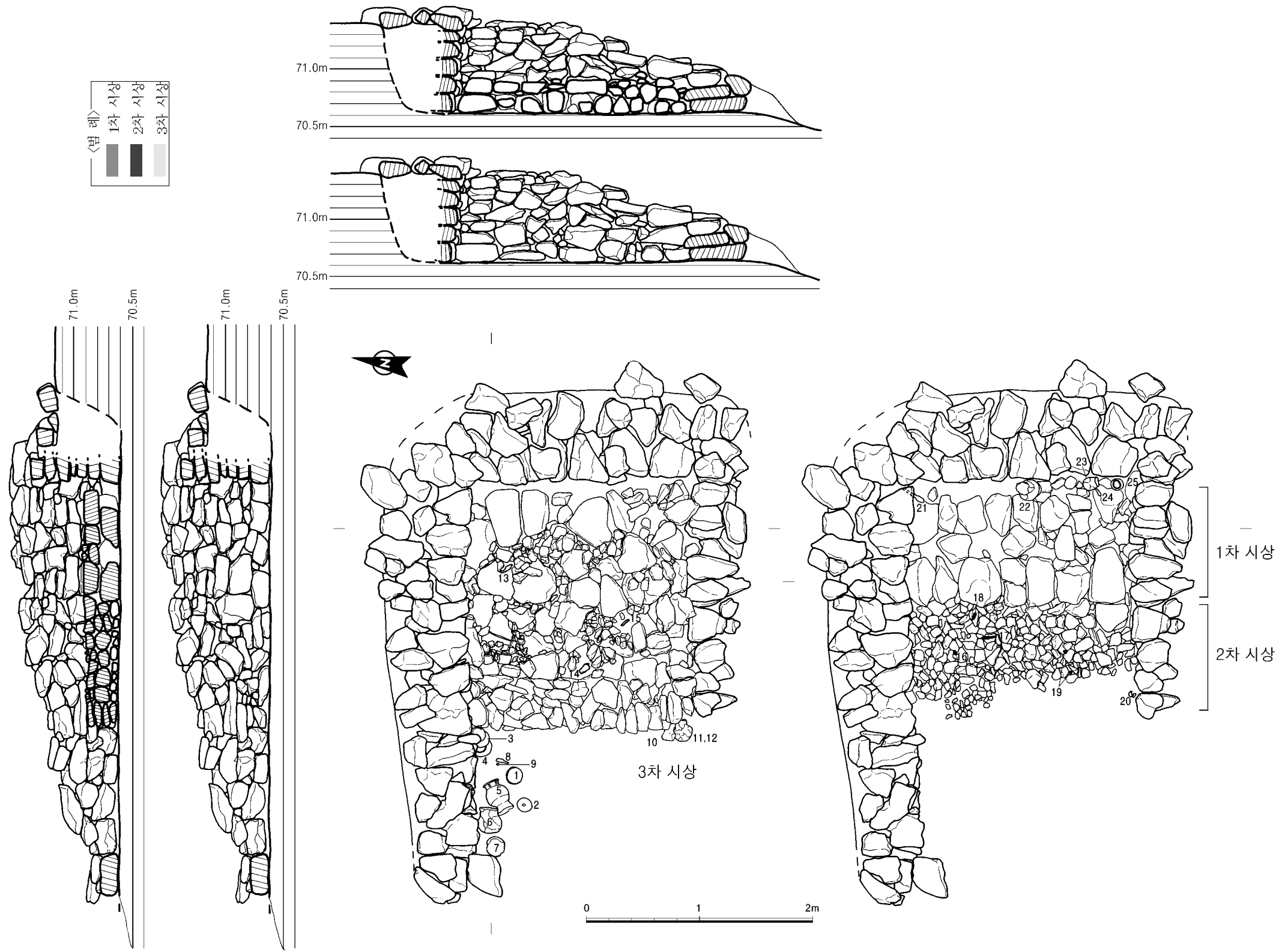
ISBN 978-89-962136-0-4 94900

978-89-962136-1-1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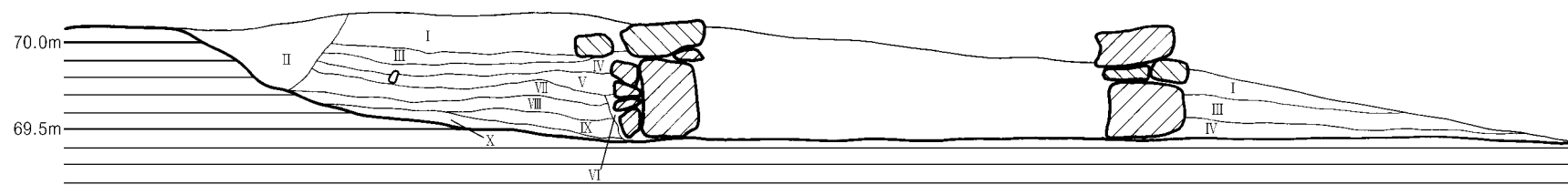
ISSN 2005-565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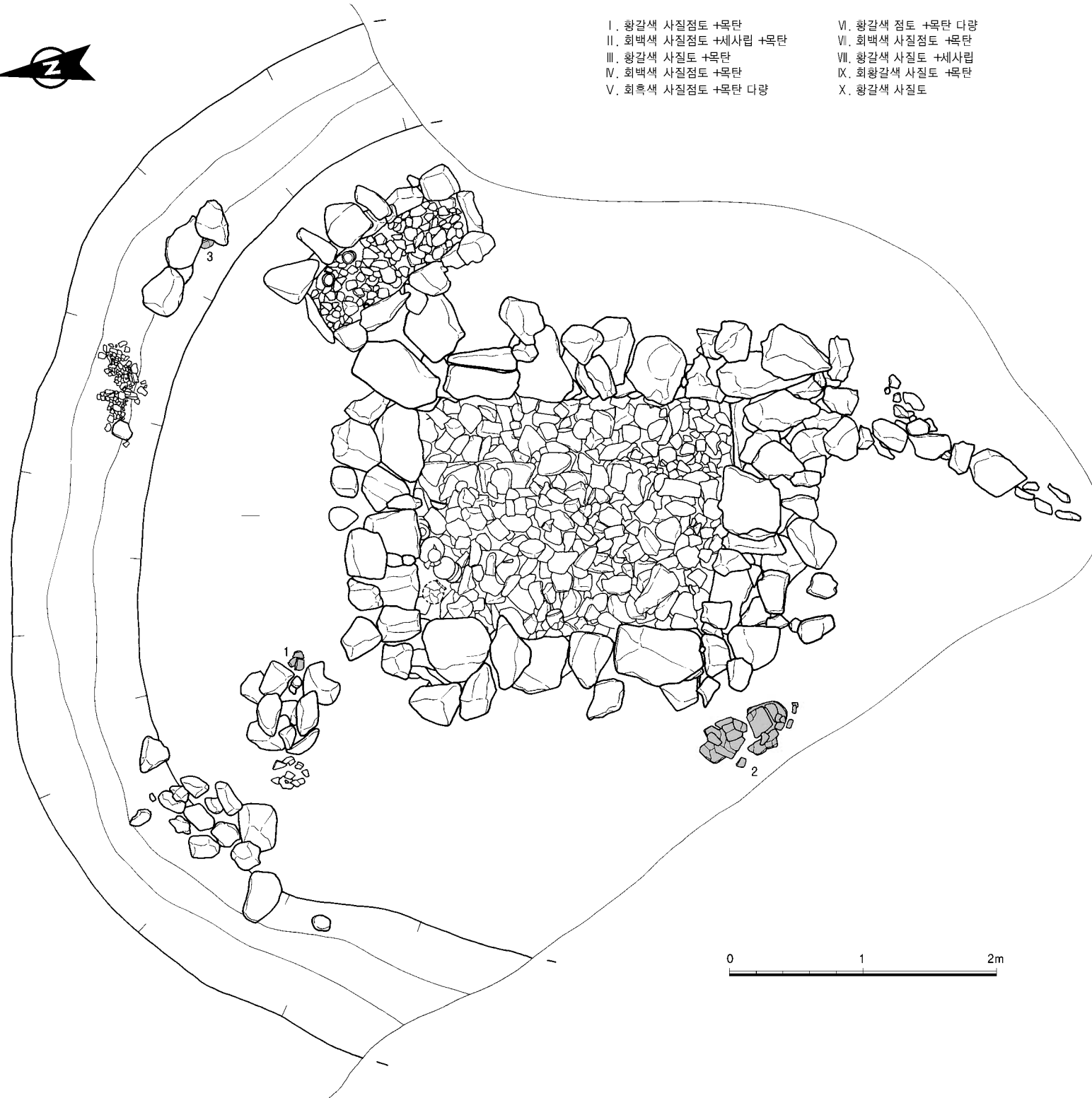
圖面 13. 8호 봉토 및 주구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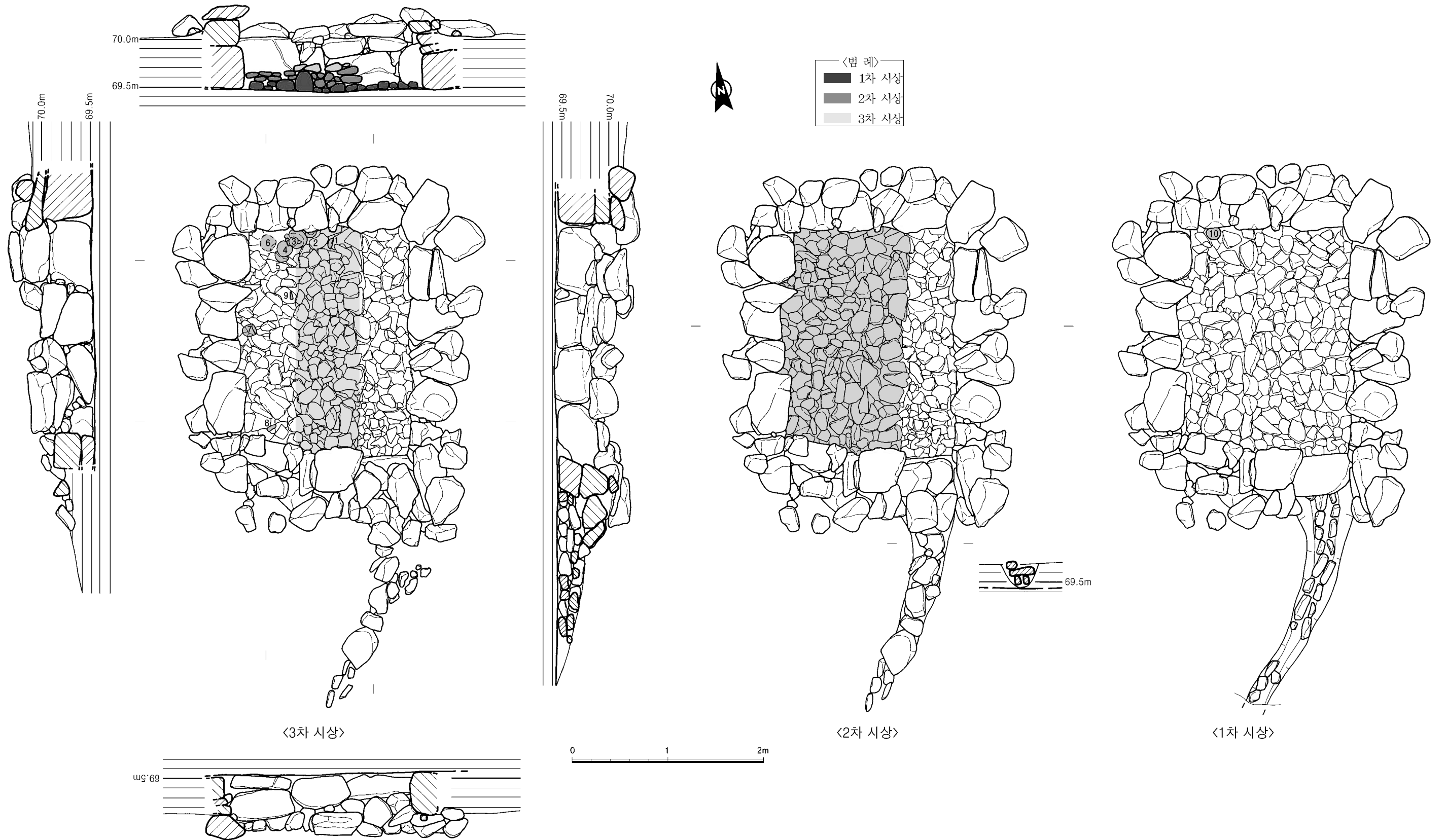
圖面 14. 8-1호 석실 (1/40)



- | | |
|-----------------------|--------------------|
| I. 황갈색 사질점토 +목탄 | VI. 황갈색 점토 +목탄 다량 |
| II. 회백색 사질점토 +세사립 +목탄 | VII. 회백색 사질점토 +목탄 |
| III. 황갈색 사질토 +목탄 | VIII. 황갈색 사질토 +세사립 |
| IV. 회백색 사질점토 +목탄 | IX. 회황갈색 사질토 +목탄 |
| V. 회흑색 사질점토 +목탄 다량 | X. 황갈색 사질토 |



圖面 16. 9호 석실 봉토 및 주구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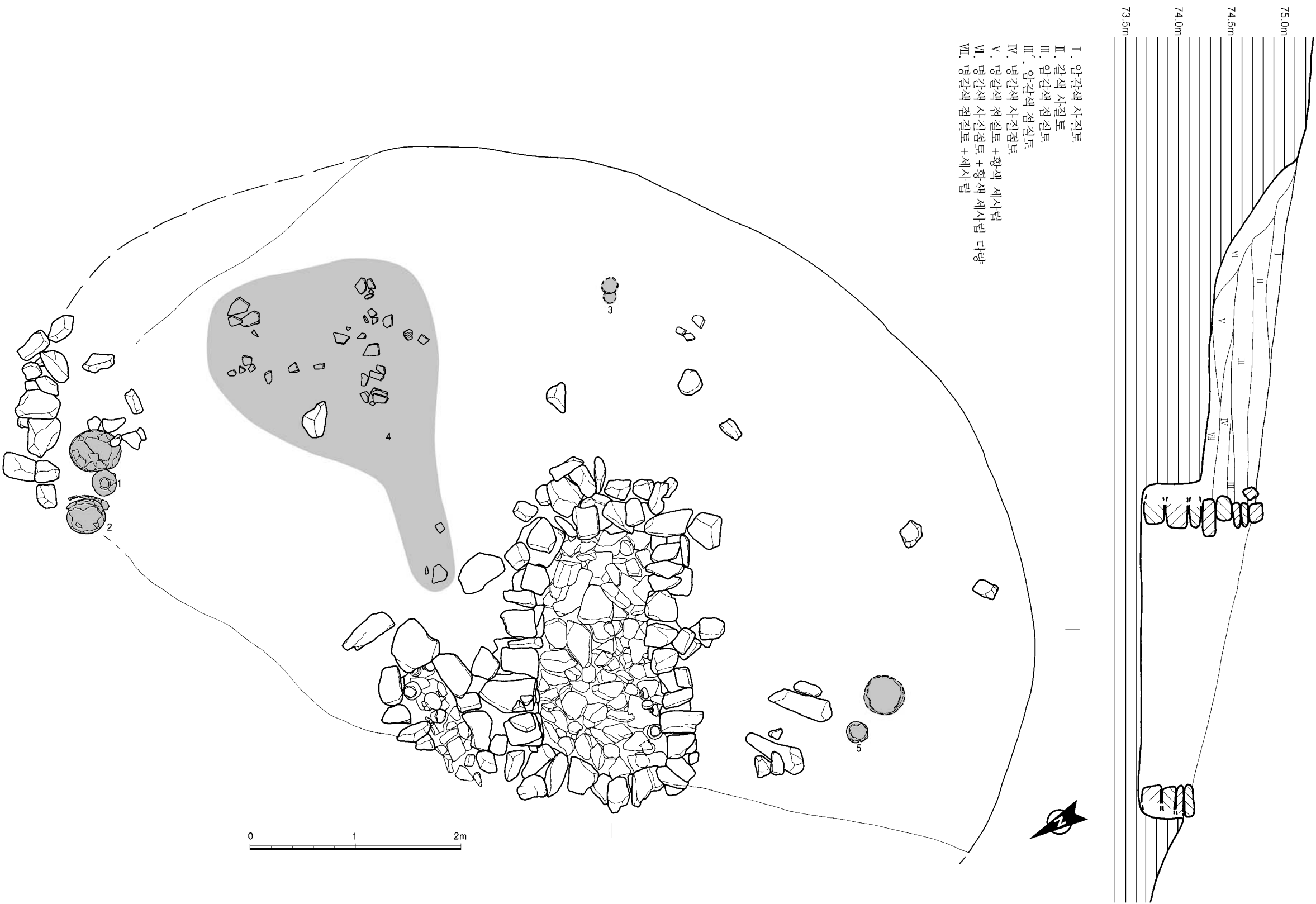


〈3차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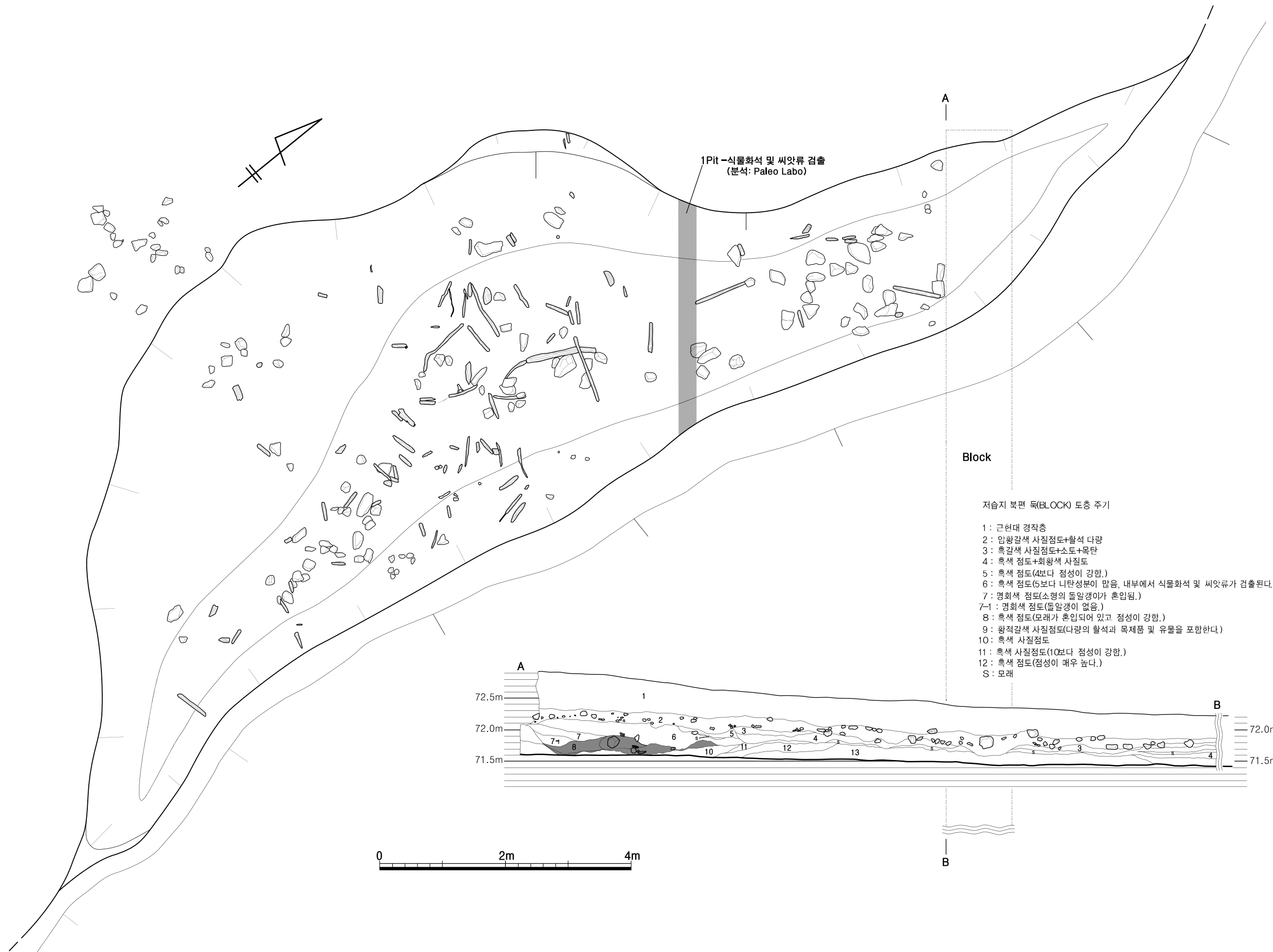
〈2차 시상〉

〈1차 시상〉

圖面 17. 9-1호 석실 (1/40)



圖面 21. 11호 석실 봉토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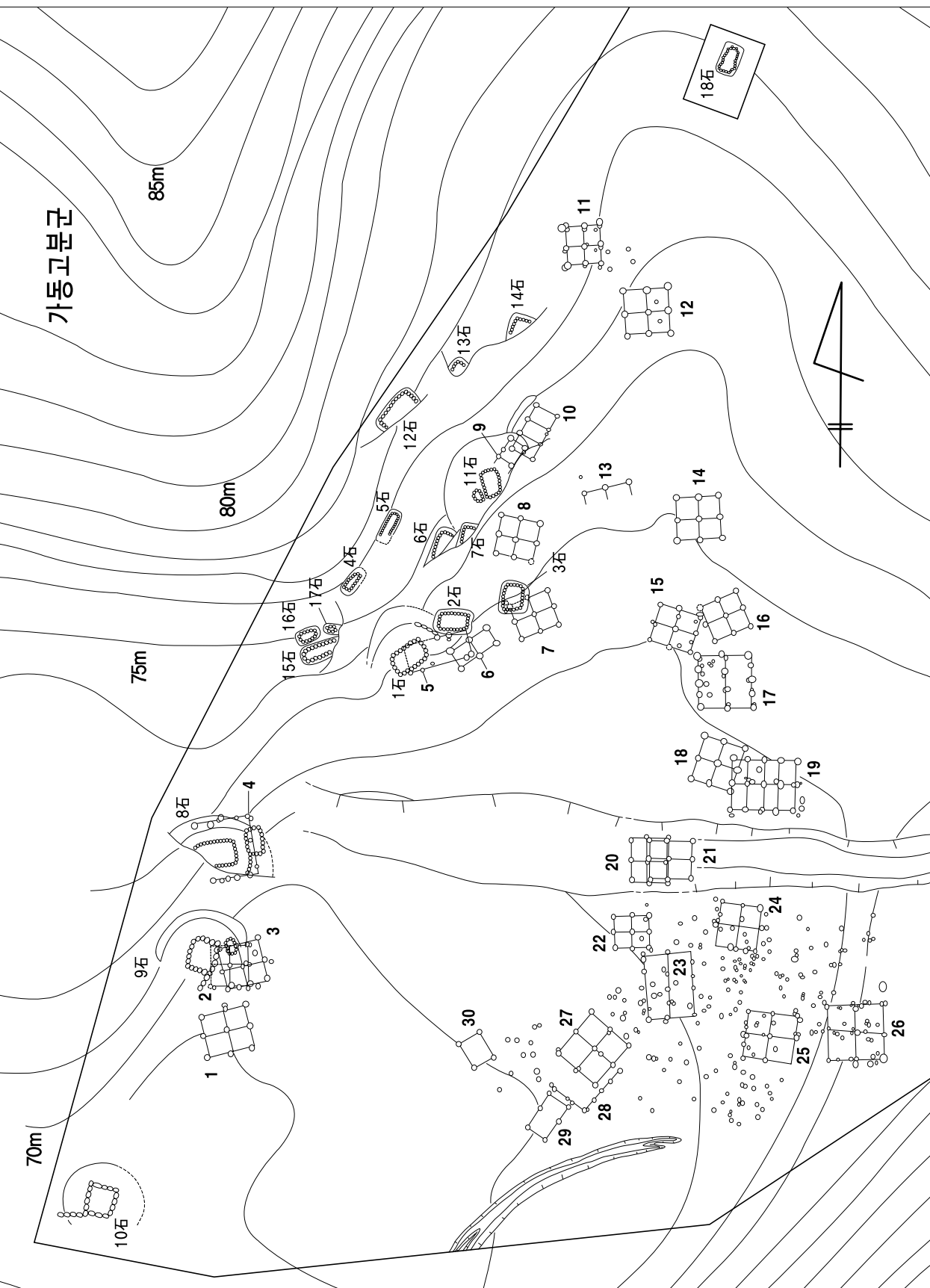


圖面 85. 저습지 (1/60)



圖面 3. 가동유적 유구배치도 (1/1,000)

※ 청동기시대·고려~조선시대 유구는 본 도면에 이름을 표시하였음.
 시료분석 자료상에 언급된 유구와 채취지점은 본도에 표시하였음.
 (「부산 기장 가동유적 식물규산체 분석」-김진태·최기룡) 시료 채취지점은 Site1~3이다.



圖面 4. 가동유적 석곽·실묘 유구배치도 (1/500)